京畿道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4册

# 龍仁 壬辰山城

緊急發掘調査報告書

2000

용인시립도서관
EM60200

京 畿 道 博 物 館
三星物産(株) 住宅部門

京畿道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4册

# 龍仁 壬辰山城

## 緊急發掘調査報告書

李 仁 淑
白 種 伍

2000

京 畿 道 博 物 館
三星物産(株) 住宅部門

# 發 刊 辭

경기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용인시 일원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확장 및 대규모의 개발로 인해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속에 있습니다. 지나는 곳곳마다 대규모의 택지개발과 아파트단지, 공장 조성으로 용인시 전역이 개발의 몸살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전문조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기도 하지만 때론 그렇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용인 일진산성은 지난 1997년 여름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과정 중에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현자총통 2점이 신고되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적입니다.

이에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송동 출토지 주변의 긴급수습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자칫 사라지버렸을지도 모를 성과물들을 내놓으며 이러한 자료가 우리나라 성곽연구 및 문화유적조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땡볕아래 주위에는 모두 공사현장뿐인 악조건을 견뎌내며 힘겨운 현장조사에 충실히 임해준 현장 책임자 및 조사원 여러분과 실내에서 묵묵히 유물정리와 보고서 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실을 맺게 해 준 많은 연구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에서부터 보고서 간행까지 많은 협조를 해 준 삼성물산(주) 주택부문측에도 사의를 표합니다.

2000년 11월

경기도박물관장 **이 인 숙**

【원색사진 1】 임진산성 전경)

【원색사진 2】 임진산성 조사후 전경

【원색사진 3】 주거지 전경

【원색사진 4】 임진산성 성벽 전경

【원색사진 5】 저장공 전경

【원색사진 6】 "千河"명 기와 출토 상태

【원색사진 7】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석기류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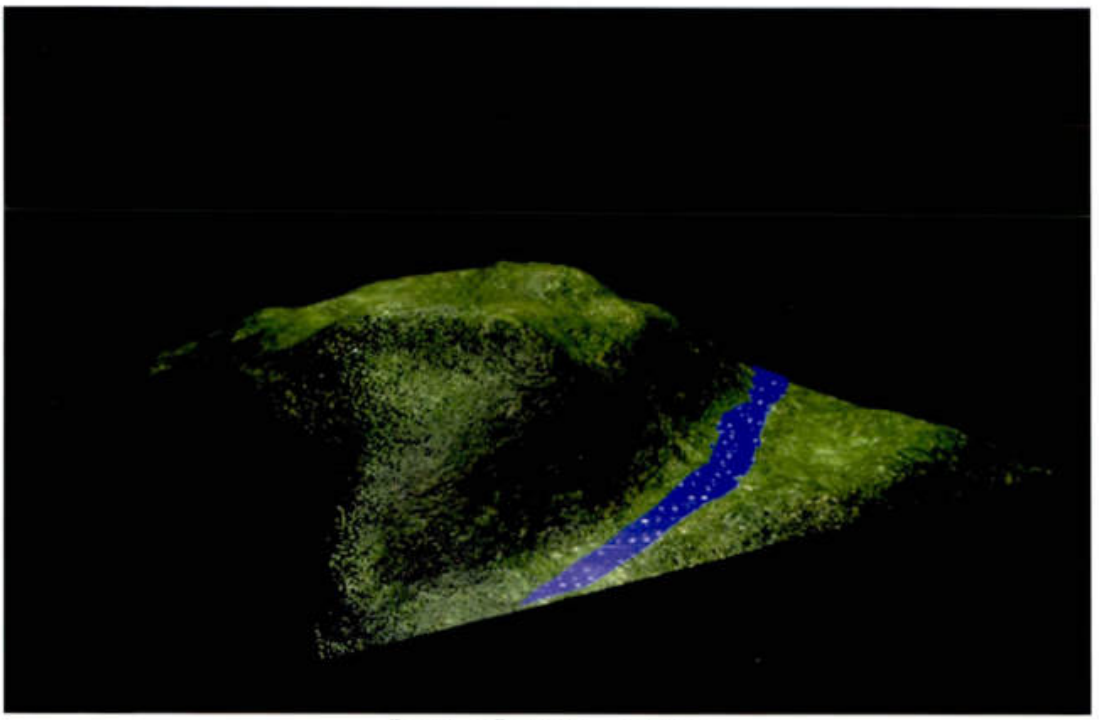
【원색사진 8】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각종 (구연부)

【원색사진 9】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각종 (동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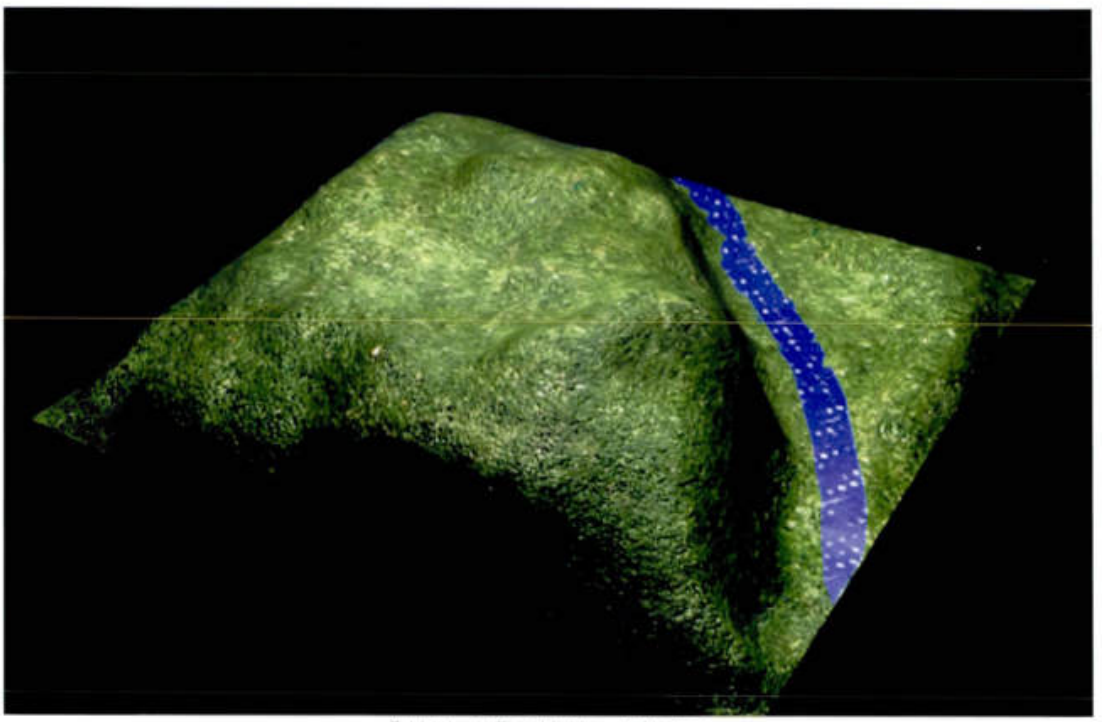
【일본시모 10】 일본식동모

【원색사진 11】 임진산성 출토 철제무기류

【원색사진 12】 임진산성 출토 철제·청동제류



【사진 13】 3차원 그래픽 1



【사진 14】 3차원 그래픽 2

# 목 차


Ⅰ. 머리말 ..... 25

Ⅱ. 遺蹟의 自然環境과 歷史的 背景 ..... 28
1. 遺蹟의 自然環境 ..... 28
2. 龍仁地域의 考古·歷史的 背景 ..... 31
1) 考古學的 背景 ..... 31
2) 歷史的 背景 ..... 36
3) 土城山城에 관한 文獻檢討 ..... 45

Ⅲ. 調査經緯 및 經過 ..... 48

Ⅳ. 調査內容 ..... 52
1. 遺構 ..... 52
1) 土層調査 ..... 52
2) 生活址 ..... 62
3) 城壁 ..... 68
4) 舊地表 ..... 70
5) 貯藏孔 ..... 70
6) 小形遺構 ..... 73
7) 現代 砲塹陣地 ..... 73
2. 出土遺物 ..... 74
1) 瓦類 ..... 74
2) 土器類 ..... 96
3) 磁器類 ..... 132
4) 金屬類 ..... 143

Ⅴ. 綜合考察 ..... 161
1. 遺構에 대한 檢討 ..... 161
2. 遺物에 대한 檢討 ..... 162

Ⅵ. 맺음말 ..... 178

부록 1. 용인 임진산성 출토 철제유물의 금속조직학적 관찰 ..... 339
2. 용인 임진산성 출토 금동편의 금속학적 고찰 ..... 355
3. 용인 임진산성 출토 금속유물의 과학적 보존 ..... 363
4. 용인 임진산유적 시굴조사 보고 ..... 385

# 원 색 사 진 목 차

【원색사진 1】 임진산성 전경 ..... 3
【원색사진 2】 임진산성 조사후 전경 ..... 3
【원색사진 3】 주거지 전경 ..... 4
【원색사진 4】 임진산성 성벽 전경 ..... 4
【원색사진 5】 저장공 전경 ..... 5
【원색사진 6】 "千石"명 기와 출토 상태 ..... 5
【원색사진 7】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석기류 각종 ..... 6
【원색사진 8】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각종 (구연부) ..... 7
【원색사진 9】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각종 (동체부) ..... 7
【원색사진 10】 임진산성 출토 총통 ..... 8
【원색사진 11】 임진산성 출토 한제무기류 ..... 9
【원색사진 12】 임진산성 출토 철제·청동제류 ..... 9
【원색사진 13】 3차원 그래픽 1 ..... 10
【원색사진 14】 3차원 그래픽 2 ..... 10

# 삽 도 목 차

【삽도 1】 임진산성 지형도 (1:5,000) ..... 29
【삽도 2】 임진산성 위치도 (1:25,000) ..... 30
【삽도 3】 임진산성과 주변 유적분포도 ..... 33
【삽도 4】 임진산성 주위의 옛 지도(大東輿地圖) ..... 38
【삽도 5】 경기남부지역의 임진왜란 관련 관방유적 현황도 ..... 43

# 표 목 차

【표 1】 경기남부지역의 임진왜란 관련 관방유적 현황표 ..... 44
【표 2】 임진산성에 관한 문헌기록 ..... 46

【표 3】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현황표 ..... 75
【표 4】 임진산성 출토 토기류 현황표 ..... 96
【표 5】 임진산성 출토 철제유물 현황표 ..... 144
【표 6】 임진산성 출토 암키와 등면문양 분류표 ..... 163
【표 7】 임진산성 출토 수키와 등면문양 분류표 ..... 163
【표 8】 임진산성 출토 타날문토기 문양별 분류표 ..... 167
【표 9】 임진산성 출토 타날문토기 속성 분류표 ..... 168
【표 10】 임진산성 출토 철제 무기류 분류표 ..... 171
【표 11】 임진산성 출토 철제류 분류표 ..... 175

# 도 면 목 차

【도면 1】 임진산성 현황도 (1:1,500) ..... 49
【도면 2】 임진산성 발굴 구획도 ..... 50
【도면 3】 임진산성 전체평면도 ..... 53
【도면 4】 동서단면 토층도 ..... 55
【도면 5】 남북단면 토층도 ..... 55
【도면 6】 북동확장Tr. 토층도 ..... 59
【도면 7】 남서단면 토층도 ..... 60
【도면 8】 북편단면 토층도 ..... 61
【도면 9】 중통출토지 주변 토층도 ..... 63
【도면 10】 북동확장Tr. 內 주거지 평·단면도 ..... 64
【도면 11】 성벽단면 토층도 ..... 69
【도면 12】 저장공 평·단면도 ..... 72
【도면 13】 소형유구1 평·단면도 ..... 72
【도면 14】 임진산성 출토 부분토기류 1 (①~⑨구연부편) ..... 204
【도면 15】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2 (①구연부편, ②~⑧동체부편) ... 205
【도면 16】 임진산성 출토 부분토기류 3 (①~⑦동체부편) ..... 206
【도면 17】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4·석기류
(①~④저부편, ⑤반월형석도, ⑥석제방추차) ..... 207
【도면 18】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 (①~⑬구연부편) ..... 208

【도면 19】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2 (①~⑥구연부편) ····· 209
【도면 20】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3 (①~⑭동체부편) ····· 210
【도면 21】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4 (①~⑳동체부편) ····· 211
【도면 22】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5 (①~⑦동체부편) ····· 212
【도면 23】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6 (①~⑳동체부편) ····· 213
【도면 24】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7 (①~⑭동체부편) ····· 214
【도면 25】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8 (①~⑰동체부편) ····· 215
【도면 26】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9 (①~⑭동체부편) ····· 216
【도면 27】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0 (①~⑮동체부편) ····· 217
【도면 28】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1
(①~⑤·⑦⑧동체부편, ⑥시부편, ⑨⑩저부편) ····· 218
【도면 29】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1 (①~⑧구연부편) ····· 219
【도면 30】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2 (①~⑥구연부편) ····· 220
【도면 31】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3 (①~⑧구연부편) ····· 221
【도면 32】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4 (①~④동체부편, ⑤파수부편) ····· 222
【도면 33】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5 (①~⑥저부편) ····· 223
【도면 34】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 (①~⑧) ····· 224
【도면 35】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2 (①~⑩) ····· 225
【도면 36】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3 (①~⑪) ····· 226
【도면 37】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4 (①~⑫) ····· 227
【도면 38】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5 (①~⑩) ····· 228
【도면 39】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6 (⑦~⑯) ····· 229
【도면 40】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7 (①~③) ····· 230
【도면 41】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8 (①②) ····· 231
【도면 42】 임진산성 출토 현자총통 ····· 232
【도면 43】 임진산성 출토 철기류 1 (①~⑤鐵矛, ⑥鐵鏃) ····· 233
【도면 44】 임진산성 출토 철기류 2
(①鐵製小刀, ②③鐵刀子, ④鐵製箭鏃, ⑤鐵鏃) ····· 234
【도면 45】 임진산성 출토 철기류 3 (①~㉒鐵鏃) ····· 235
【도면 46】 임진산성 출토 철기류 4 (①~⑲鐵鏃, ⑳鐵製箭鏃) ····· 236
【도면 47】 임진산성 출토 철기류 5

(①鐵盤, ②~⑰鐵釘, ⑱암돌쩌귀, ⑲수돌쩌귀) ..... 237
【도면 48】 임진산성 출토 철기류 6
(①②철제손잡이, ③~⑤·⑧~⑩철제고리, ⑥⑦철제꺽쇠) ..... 238
【도면 49】 임진산성 출토 철기류 7 (①~⑤철제칼집, ⑥~⑮장식용철정,
⑯~⑲鐵製彈丸, ⑳철제못, ㉑鐵鏃, ㉒철겸부) ..... 239
【도면 50】 임진산성 출토 청동·금동류 (①靑銅環, ②靑銅管, ③④靑銅匙,
⑤靑銅梨花文鉢刀削, ⑥청동용기편, ⑦⑧금동편) ..... 240

## 탑 본 목 차

【탑본 1】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 (①②) ..... 181
【탑본 2】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2 (①~③) ..... 182
【탑본 3】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3 (①②) ..... 183
【탑본 4】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4 (①~④) ..... 184
【탑본 5】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5 (①~③) ..... 185
【탑본 6】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6 (①~③) ..... 186
【탑본 7】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7 (①~③) ..... 187
【탑본 8】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8 (①~⑤) ..... 188
【탑본 9】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9 (①~③) ..... 189
【탑본 10】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0 (①~③) ..... 190
【탑본 11】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1 (①~④) ..... 191
【탑본 12】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2 (①~③) ..... 192
【탑본 13】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3 (①~③) ..... 193
【탑본 14】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4 (①~③) ..... 194
【탑본 15】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5 (①~③) ..... 195
【탑본 16】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6 (①~③) ..... 196
【탑본 17】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7 (①~④) ..... 197
【탑본 18】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8 (①~③) ..... 198
【탑본 19】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9 (①~③) ..... 199

【탑본 20】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20 (①~③) ..... 200
【탑본 21】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21 (①~③) ..... 201
【탑본 22】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22 (①~③) ..... 202
【탑본 23】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23 (①~④) ..... 203

# 사 진 목 차

【사진 1】 임진산성 전경 (북에서) ..... 241
【사진 2】 임진산성 전경 (남에서) ..... 241
【사진 3】 임진산성에서 바라본 북쪽 전경 ..... 242
【사진 4】 임진산성에서 바라본 서쪽 전경 ..... 242
【사진 5】 임진산성에서 바라본 남쪽 전경 ..... 243
【사진 6】 임진산성에서 바라본 동쪽 전경 ..... 243
【사진 7】 임진산성 조사전 상태 (북에서) ..... 244
【사진 8】 임진산성 조사전 상태 (동에서) ..... 244
【사진 9】 이복작업후 총통 출토지점 상태 ..... 245
【사진 10】 총통 출토지점 세부 상태 ..... 245
【사진 11】 발굴조사 개토제 모습 ..... 246
【사진 12】 조사광경 1 (북에서) ..... 246
【사진 13】 조사광경 2 (남에서) ..... 247
【사진 14】 조사광경 3 (서에서) ..... 247
【사진 15】 조사후 북편 전경 1 (북에서) ..... 248
【사진 16】 조사후 북편 전경 2 (북에서) ..... 248
【사진 17】 조사후 서편 전경 (남에서) ..... 249
【사진 18】 조사후 남편 전경 (남에서) ..... 249
【사진 19】 조사후 동편 전경 1 (동에서) ..... 250
【사진 20】 조사후 동편 전경 2 (남에서) ..... 250
【사진 21】 남북단면 토층 상태 (서에서) ..... 251
【사진 22】 남북단면 토층 세부 상태 ..... 251
【사진 23】 북동확장Tr. 서벽 토층 상태 (동에서) ..... 252
【사진 24】 북동확장Tr. 남벽 토층 상태 (북에서) ..... 252

【사진 25】 남서단면 토층 상태 (서에서) ..... 253
【사진 26】 홍릉골토지 주변 토층 상태 (동에서) ..... 253
【사진 27】 북쪽단면 남벽 토층 상태 (북에서) ..... 254
【사진 28】 북쪽단면 조사 상태 (동에서) ..... 254
【사진 29】 북쪽단면 동벽 토층 상태 (서에서) ..... 255
【사진 30】 북쪽단면 서벽 토층 상태 (동에서) ..... 255
【사진 31】 조사전 주거지 상태 (북에서) ..... 256
【사진 32】 조사후 주거지 상태 (북에서) ..... 256
【사진 33】 조사후 주거지 상태 (동에서) ..... 257
【사진 34】 주거지 남서벽 잔존 상태 ..... 257
【사진 35】 주거지 북쪽 외곽 기와류 노출 상태 ..... 258
【사진 36】 "下司"명 기와 노출 상태 ..... 258
【사진 37】 조사전 성벽 모습 (북에서) ..... 259
【사진 38】 성벽 조사모습 1 ..... 259
【사진 39】 평면조사후 성벽 모습 (북에서) ..... 260
【사진 40】 성벽 평면조사 상태 ..... 260
【사진 41】 성벽 조사모습 2 ..... 261
【사진 42】 성벽내 천세유물 노출 상태 ..... 261
【사진 43】 성벽내 자기류 노출 상태 ..... 262
【사진 44】 조사후 성벽 상태 (북에서) ..... 262
【사진 45】 성벽 토층 상태 1 (서에서) ..... 263
【사진 46】 성벽 토층 상태 2 (북에서) ..... 263
【사진 47】 성벽 토층 상태 3 (동에서) ..... 264
【사진 48】 성벽 단면 조사 상태 1 (서에서) ..... 264
【사진 49】 성벽 단면 조사 광경 ..... 265
【사진 50】 성벽 단면 토층 상태 (서에서) ..... 265
【사진 51】 성벽 단면 토층 세부상태 1 (서에서) ..... 266
【사진 52】 성벽 단면 토층 세부상태 2 (서에서) ..... 266
【사진 53】 저장공 조사 모습 ..... 267
【사진 54】 저장공 조사후 상태 ..... 267
【사진 55】 소형유구1 조사후 상태 ..... 268

【사진 56】 소형유구2 조사후 상태 ..... 268
【사진 57】 철모 노출 상태 ..... 269
【사진 58】 철제 도자 노출 상태 ..... 269
【사진 59】 철제 칼집 노출 상태 ..... 270
【사진 60】 철제 탄환 노출 상태 ..... 270
【사진 61】 현장 지도위원회의 모습 1 ..... 271
【사진 62】 현장 지도위원회의 모습 2 ..... 271
【사진 63】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 (①②등면) ..... 272
【사진 64】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 (①②내면) ..... 272
【사진 65】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2 (①~③등면) ..... 273
【사진 66】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2 (①~③내면) ..... 273
【사진 67】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3 (①②등면) ..... 274
【사진 68】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3 (①②내면) ..... 274
【사진 69】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4 (①~⑥등면) ..... 275
【사진 70】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4 (①~⑥내면) ..... 275
【사진 71】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5 (①~④등면) ..... 276
【사진 72】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5 (①~④내면) ..... 276
【사진 73】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6 (①~③등면) ..... 277
【사진 74】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6 (①~③내면) ..... 277
【사진 75】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7 (①~⑤등면) ..... 278
【사진 76】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7 (①~⑤내면) ..... 278
【사진 77】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8 (①~⑤등면) ..... 279
【사진 78】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8 (①~⑤내면) ..... 279
【사진 79】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9 (①~⑤등면) ..... 280
【사진 80】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9 (①~⑤내면) ..... 280
【사진 81】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0 (①~③등면) ..... 281
【사진 82】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0 (①~③내면) ..... 281
【사진 83】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1 (①~③등면) ..... 282
【사진 84】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1 (①~③내면) ..... 282
【사진 85】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2 (①~⑥등면) ..... 283
【사진 86】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2 (①~⑥내면) ..... 283

【사진 87】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3 (①~③능면) ..... 284
【사진 88】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3 (①~③내면) ..... 284
【사진 89】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4 (①~④능면) ..... 285
【사진 90】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4 (①~④내면) ..... 285
【사진 91】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5 (①~③능면) ..... 286
【사진 92】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5 (①~③내면) ..... 286
【사진 93】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6 (①~③능면) ..... 287
【사진 94】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6 (①~③내면) ..... 287
【사진 95】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7 (①~③능면) ..... 288
【사진 96】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7 (①~③내면) ..... 288
【사진 97】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8 (①~⑤능면) ..... 289
【사진 98】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8 (①~⑤내면) ..... 289
【사진 99】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9 (①~⑤능면) ..... 290
【사진 100】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9 (①~⑤내면) ..... 290
【사진 101】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1 (①~⑩구연부편, ⑪동체부편) ... 291
【사진 102】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2 (①~③동체부편) ..... ... 291
【사진 103】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3 (①~③) ..... 292
【사진 104】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4 (①~⑦동체부편) ..... 293
【사진 105】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5 ..... 293
【사진 106】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6 (①~③저부편) ..... 293
【사진 107】 임진산성 출토 반월형석도 ..... 294
【사진 108】 임진산성 출토 석제방추차 ..... 294
【사진 109】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 (①~⑪구연부편) ..... 295
【사진 110】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2 (①②구연부편) ..... 295
【사진 111】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3 (①~⑤구연부편) ..... 296
【사진 112】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4 ..... 296
【사진 113】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5 (①~⑭동체부편) ..... 297
【사진 114】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6 (①~⑭동체부편) ..... 297
【사진 115】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7 (①~⑦동체부편) ..... 298
【사진 116】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8 (①~⑫동체부편) ..... 298
【사진 117】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9 (①~⑰동체부편) ..... 299

【사진 118】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0 (①~⑤동체부편) ..... 299
【사진 119】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1 (①~⑰동체부편) ..... 300
【사진 120】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2 (①~⑭동체부편) ..... 300
【사진 121】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3 (①~⑮동체부편) ..... 301
【사진 122】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4
(①~⑤·⑦⑧동체부편, ⑥⑨⑩저부편) ..... 301
【사진 123】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1 (①~⑭구연부편) ..... 302
【사진 124】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2 (①~⑧구연부편) ..... 302
【사진 125】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3 (①~④동체부편, ⑤파수부편) ..... 303
【사진 126】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4 (①~⑥저부편) ..... 303
【사진 127】 임진산성 출토 중국자기 1 (①②외면) ..... 304
【사진 128】 임진산성 출토 중국자기 1 (①②내면) ..... 304
【사진 129】 임진산성 출토 중국자기 2 (①~⑦외면) ..... 305
【사진 130】 임진산성 출토 중국자기 2 (①~⑦내면) ..... 305
【사진 131】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 (①~⑤외면) ..... 306
【사진 132】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 (①~⑤내면) ..... 306
【사진 133】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2 (①~⑥외면) ..... 307
【사진 134】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2 (①~⑥내면) ..... 307
【사진 135】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3 (①~⑥외면) ..... 308
【사진 136】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3 (①~⑥내면) ..... 308
【사진 137】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4 (①~⑨외면) ..... 309
【사진 138】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4 (①~⑨내면) ..... 309
【사진 139】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5 (①~④외면) ..... 310
【사진 140】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5 (①~④내면) ..... 310
【사진 141】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6 (①~④외면) ..... 311
【사진 142】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6 (①~④내면) ..... 311
【사진 143】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7 (①~④외면) ..... 312
【사진 144】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7 (①~④내면) ..... 312
【사진 145】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8 (①~③외면) ..... 313
【사진 146】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8 (①~③내면) ..... 313
【사진 147】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9 (①~④외면) ..... 314

【사진 148】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9 (①~④내면) ..... 314
【사진 149】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0 (①~④외면) ..... 315
【사진 150】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0 (①~④내면) ..... 315
【사진 151】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1 (①~⑤외면) ..... 316
【사진 152】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1 (①~⑤내면) ..... 316
【사진 153】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2 (①~③외면) ..... 317
【사진 154】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2 (①~③내면) ..... 317
【사진 155】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3 (①②외면) ..... 318
【사진 156】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3 (①②내면) ..... 318
【사진 157】 임진산성 출토 文字銃筒 ..... 319
【사진 158】 임진산성 출토 玄字銃筒 세부상태 1 (砲口 人) ..... 319
【사진 159】 임진산성 출토 玄字銃筒 세부상태 2 (擧金) ..... 320
【사진 160】 임진산성 출토 玄字銃筒 세부상태 3 (砲尾) ..... 320
【사진 161】 임진산성 출토 玄字銃筒 세부상태 4 (砲口) ..... 321
【사진 162】 임진산성 출토 玄字銃筒 세부상태 5 (彈丸) ..... 321
【사진 163】 임진산성 출토 철제무기류 1 (①~③鐵矛) ..... 322
【사진 164】 임진산성 출토 철제무기류 2 (①②鐵矛, ③鐵鏃, ④小刀) ..... 323
【사진 165】 임진산성 출토 철제무기류 3 (①②刀子, ③④箭鏃, ⑤鐵鎌) ..... 324
【사진 166】 임진산성 출토 철촉 1 (①~⑦) ..... 325
【사진 167】 임진산성 출토 철촉 2 (①~⑦) ..... 325
【사진 168】 임진산성 출토 철촉 3 (①~⑧) ..... 326
【사진 169】 임진산성 출토 철촉 4 (①~⑧) ..... 326
【사진 170】 임진산성 출토 철촉 5 (①~⑥) ..... 327
【사진 171】 임진산성 출토 철촉 6 (①~⑤) ..... 327
【사진 172】 임진산성 출토 철차·철정 1 (①철차, ②~⑩철정) ..... 328
【사진 173】 임진산성 출토 철정 2 (①~⑤) ..... 329
【사진 174】 임진산성 출토 철정 3 (①②) ..... 329
【사진 175】 임진산성 출토 천세돌쌔귀 (①안돌쩌귀, ②수돌쩌귀) ..... 330
【사진 176】 임진산성 출토 천세촌잠이 (①②) ..... 330
【사진 177】 임진산성 출토 철제연쇠 (①②) ..... 331
【사진 178】 임진산성 출토 철제고리 1 (①~③) ..... 331

【사진 179】 임진산성 출토 철제고리 2 ..... 332
【사진 180】 임진산성 출토 철제고리 3 (①②) ..... 332
【사진 181】 임진산성 출토 철제칼집 (①~⑤) ..... 333
【사진 182】 임진산성 출토 장식용철정 (①~⑩) ..... 333
【사진 183】 임진산성 출토 鐵製弾丸 (①~④) ..... 334
【사진 184】 임진산성 출토 철제류 (①鐵製品, ②鐵鉄, ③鐵銀片) ..... 334
【사진 185】 임진산성 출토 청동제류
(①青銅環, ②青銅箸, ③④青銅匙, ⑤青銅梨花文粧刀鞘) ..... 335
【사진 186】 임진산성 출토 청동용기편 ..... 336
【사진 187】 임진산성 출토 금동편 (①②) ..... 336

# Ⅰ. 머리말

壬辰山城에 대한 조사는 1997년 4월 30일 龍仁市 水枝邑 삼성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造景事業을 위한 移木作業을 하던 중 朝鮮時代 銃筒 2점이 수습되어 신고됨에 따라 殘存 遺構의 確認과 遺物收拾을 위한 緊急發掘調査가 本 博物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遺蹟은 壬辰山城址, 豊德川里城址, 芮陽山城址 등으로 불리워 왔으며, 옛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둘레의 땅을 고른 것으로 周圍 約五十間 壹德川陣址라 함. 壬辰役 日本軍이 쌓은 것이라 함'이라 하였다. 「全國遺蹟目錄」에는 '壬辰役 日本軍의 築'이라 하였으며 「文化遺蹟總覽」에도 '壬辰倭亂 때 日本軍의 築城으로 전한다'고 하여 모두가 壬辰倭亂 때의 倭軍이 쌓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유적 북쪽의 光敎山 일대는 壬辰倭亂 당시 한양 수복을 목표로 상경하던 下三道都元帥 6만명이 倭軍 1,600명에게 참패를 당한 龍仁 光敎山戰鬪의 現場으로 추정되며 丙子胡亂때에도 淸軍과의 交戰이 있었던 역사적 현장이다.

遺蹟이 자리한 壬辰山의 조사전 상태는 개발로 인해 삼면이 모두 진개된 상태였고 남아 있는 일부 유적지도 移木作業 과정에서 중장비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어 북동쪽의 극히 일부분만 원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긴급발굴조사는 훼손이 촉토된 壬辰山 정상부를 대상으로 方格法으로 실시하였으며 잔존 遺構의 명확한 성격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調査團의 構成은 아래와 같다.

조 사 단 장 :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현 기전문화재연구원장)
자 문 위 원 : 한병삼(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최영희(한림대 한림과학원 명예위원)
이태진(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김병모(한양대학교 박물관장, 현 한국선농문화학교 총장)
이강칠(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장)
차용걸(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박재광(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체위 조사원 : 이인숙(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현 경기도박물관장)

조 사 원 : 김성태(경기도박물관 고고미술부장,
현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백종오(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김규상(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송만영(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영미(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소희(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사보조원 : 한 수(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현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유용희(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현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현남주(아주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강동석(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구본만(단국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현 여주군청 학예연구사)
한준영(단국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한혜선(단국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조윤혜(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현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외에도 현장조사시 박준범선생님(조선대학교 박물관)·김현정선생님(상명대학교 사학과)·조효숙선생님(상명대학교 박물관)이 조사에 참여하며 많은 도움을 주셨다. 조사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방법 등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이남규교수님(한신대학교 국사학과), 한창균교수님·박경식교수님·김기태선생님·손기언선생님·서봉수선생님·박성진선생님(단국대학교 사학과), 홍미영선생님(상명대학교 사학과), 김영관선생님·박상빈선생님(서울특별시립박물관)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아 조사단을 격려해 주신 김창호교수님(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김규균선생님(호암미술관), 오상탁선생님(아주대학교 박물관), 엄익성선생님(명지대학교 박물관), 양정석선생님(용인시사편찬위원회)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번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지원을 힘써주신 경기도청 송성근선생님과 용인시청 관계자, 삼성물산(주) 주택부문 수지임대아파트

김현경소장님·최남철차장님 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보고서작업 중 유물정리와 도면작성은 백종오·현남주·이세섭·강동석·한준영·한혜선·소민정, 사진촬영은 백종오·김용신·한준영이 담당하였다. 보고서 집필은 이인숙·백종오·현남주·한준영이 분담하여 작성하였으며 도자기류는 김영미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부록의 철제유물의 금속조직학적 관찰은 정광용교수님(대신보건대학 박물관학과)과 박장식교수님(홍익대학교 금속공학과)께서 집필하여 주셨으며 금동편의 금속학적 고찰은 박학수, 금속유물의 과학적보존은 김선희·김용신이 분석하였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원고를 작성하여 주신 정광용교수님과 박장식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 Ⅱ. 遺蹟의 自然環境과 歷史的 背景

## 1. 遺蹟의 自然環境

본 遺蹟은 행정구역상으로 京畿道 龍仁市 水枝邑 豊德川里 山 37番地·駒城面 寶城里 山 82-2番地 一帶에 해당하며 그 경계에 위치한 土城山(해발 129.2m)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지고 있다. 지리좌표상으로는 동경 127도 05분, 북위 37도 19분에 해당한다.

土城山은 서쪽의 光敎山(해발 582m)이 동남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말단부분에 해당하며 서남쪽으로 소실봉(해발 188.2m) 등 해발 100m내외의 산지가 이어지고 있다. 서쪽으로는 新原川과 貝峴川이 합류한 豊德川이 北流하는데 土城山의 동쪽을 北流하는 陵川과 합류하여 漢江으로 流入된다. 土城山의 주변은 이들 하천 주위를 따라 서·북·동쪽으로 넓은 扇狀地가 펼쳐진 지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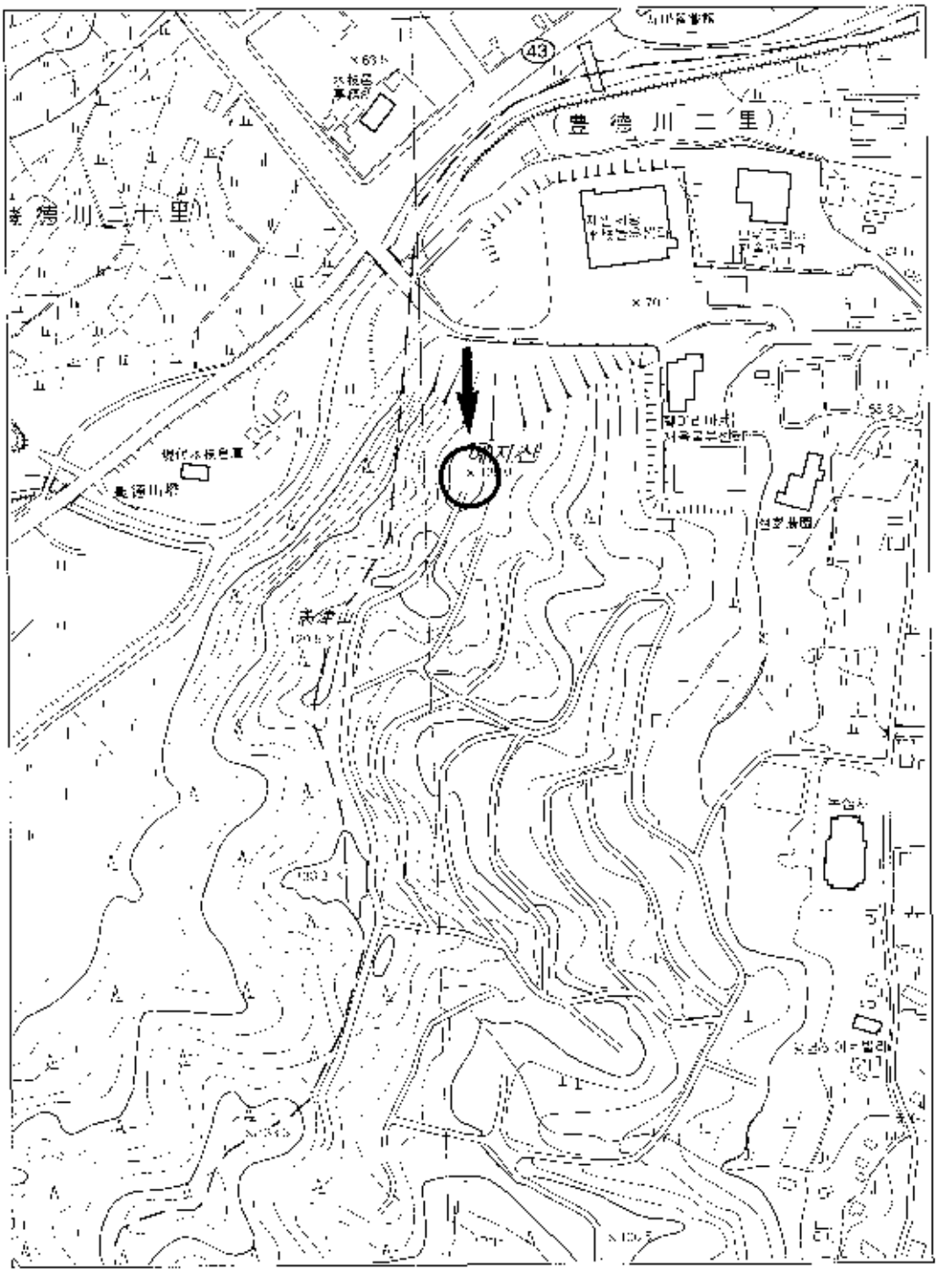
土城山城이 위치한 용인지역은 한강 이남지역에 위치한 경기도의 중앙부에 입지하여 동쪽으로는 利川市·廣州郡, 서쪽으로는 水原市·華城郡, 남쪽으로는 安城·平澤市, 북쪽으로는 城南市·廣州郡과 접하고 있다. 용인시의 대체적인 지리좌표는 동경 127도 01분~26분, 북위 37도 05분~22분상에 위치한다.

주변의 자연환경으로는 용인시의 동북부지역을 廣州山脈이 지나가고 동남부에는 車嶺山脈이 뻗어 주변으로 높은 산지가 솟아있고 그 내부에 주변 하천들을 따라 침식분지가 형성된 모습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용인시의 서쪽으로 바라산(해발 428m)·門峙山(해발 567m)·光敎山(해발 582m)·兄弟峰(해발 448m) 등이 남북방향으로 솟아있고 동쪽으로는 發梨峰(해발 514m)·老姑峰(해발 574m)·正光山(해발 563m)·泰華山(해발 620m)·乾芝山(해발 411m)·水晶山(해발 344m) 등 높은 산지들이 남북방향으로 발달한 모습이다.

이러한 남북으로 달리는 산지의 사이를 따라 陵川, 新葛川, 京安川 등의 하천들이 남북방향으로 흐르며 주변으로 침식대지와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주변의 교통로를 살펴보면 우선 용인시를 '十'자형으로 나누며 남북방향의 京釜高速道路와 동서방향의 嶺東高速道路가 지나며 水原-龍仁-利川간의 42번국도, 水原 龍仁 廣州간의 43번국도, 廣州-龍仁-平澤간의 45번국도, 龍仁 竹山간의 17번국도 등이 용인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土城山城이 입지한 京畿道 龍仁市 水枝邑 豊德川里 일원의 지질학적 성격을




【삽도 1】 임진산성 지형도 (1:5,000)

【삽도 2】 임진산성 위치도 (1:25,000)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1]

平城山의 주변지역은 대부분이 노년기 지형에 해당하는 저구릉지대로 낮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질은 선 캠브리아기(Pre-Cambrian Period)의 경기편마암복합체(Gyeonggi Gneiss Complex)에 해당하는 흑운모편마암(Biotite Gneiss)과 규장편마암(Quartzo Feldspartic Gneiss)이 대부분 기반암(Bed Rock)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상위를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Alluvium)인 모래자갈층(Sand & Gravel)과 풍화산류지층인 표토층(Top Soil), 붕적층(Colluvium)과 매립층(Fill)이 피복하고 있다. 이 중 기반암(Bed Rock)은 하부로부터 일반적으로 풍화정도에 따라 경암(Hard Rock), 보통암(Moderately Rock), 연암(Soft Rock), 풍화암(Weathered Rock), 풍화토(Weathered Soil)층으로 구분되어 진다.

## 2. 龍仁地域의 考古·歷史的 背景

### 1) 考古學的 背景

平城山城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宅地開發이 이루어지고 있는 용인 서북부지역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근래에 인진산성 일대의 주거유·구성면지역은 고고학적 조사가 집중적으로 행하여졌으며 상당수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2]

1) (주)명성지질, 「동탄천 삼성아파트 신축부지 지질조사보고서」, 1996.

2) 이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지표·구제발굴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용인 신갈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9.
- 경희대학교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문화유적 지표조사 약보고서」, 1997.
- 단국대학교한국민족학연구소, 「용인 어정리 유적」, 1997.
- 명지대학교박물관, 「기흥 구갈3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1997.
- 명지대학교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기흥 상갈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1998.
- 수원대학교박물관, 「수원천천2지구 및 기흥구갈 2지구 문화유적」, 1995.
- 수원대학교박물관, 「형대 공단지구 및 용인 신봉·동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약보고서」, 1995.
- 한신大學校博物館, 「水原靈通·龍仁靈德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1993.
- 한신大學校博物館, 「龍仁 水枝2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1995.
-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삼포건설 아파트사업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이에 지표조사 및 구제발굴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이 지역의 고고학적 배경을 시대별·유적별로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용인지역에서 알려진 舊石器遺蹟으로는 구제발굴조사된 陽智面 坪倉里遺蹟[3]을 비롯해 광역지표조사[4]시 발견된 器興面 葛潭里, 遠三面 木新里, 二東面 德成里·泉里, 南四面 鳳鳴里 등 5개소와 水枝邑 竹田1里[5], 駒城面 貴亭里[6] 등 모두 7개소이다. 이들은 대개 연천 전곡리유적, 공주 석장리유적 등 다른 지역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의 하천변에 인접한 것이 아니라 炭川·振威川 등의 支流邊에 인접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및 안성천유역으로 유입되는 지류들을 따라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고토양층과 구석기유적이 찾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7]

경기도 지역에서 확인된 유적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新石器遺蹟은 器興邑 上葛里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어 확인된 바 있다.[8] 上葛里遺蹟은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인 岩寺洞遺蹟[9]과 平澤 遠井里遺蹟[10]·芝洞洞遺蹟[11]의 중간지점에 입지하며, 특히 양 유적이 위치한 漢江과 安城川邊에서 각각의 支流인 炭川과 烏山川을 따라 만나는 상류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다만 유물포함층만 확인

---

요약보고서」, 1998.
-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기와가마터 발굴조사 약보고서」, 1998.
- 한신大學校博物館, 『龍仁 水枝 古窯 生活址』, 1998.
- 한신大學校博物館, 『龍仁市 竹田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1999.

3) 서울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京畿道博物館, 『龍仁 坪倉里 舊石器 遺蹟 試掘調査報告』, 1998.
서울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京畿道博物館, 『龍仁 坪倉里 舊石器 遺蹟 發掘調査報告』, 2000.

4) 서울大學校博物館, 『龍仁地域의 文化遺蹟』, 1996.

5) 한신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1999, 29쪽.

6) 龍仁郡誌編纂委員會, 『龍仁郡誌』, 1990, 762~763쪽.

7) 최근 용인지역과 인접한 광주군 실촌면 삼리에서도 내륙지역에 위치한 대규모의 구석기유적이 조사되었다.
京畿文化財團附設 畿甸文化財硏究院, 「廣州 2001 世界陶磁器 Expo 園地內 3·4地域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資料」, 2000.

8) 명지대학교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998, 17~45쪽.

9) 서울대학교박물관, 『岩寺洞』, 1985.
국립중앙박물관, 『岩寺洞』, 1994.
국립중앙박물관, 『岩寺洞』Ⅱ, 1999.

10) 아주대학교박물관, 『평택 원정리유적 발굴조사 보고』, 『科技考古硏究』2, 1997.

11) 세종대학교박물관, 『平澤 芝制洞遺蹟』, 2000.

【삽도 3】 임진산성과 주변유적 분포도

편 뿐 遺構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이 지역 신석기시대의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靑銅器時代의 흔적은 곳곳에서 관찰되는데 고인돌, 선돌, 청동기시대 유물채집지 등이 이 지역에 고루 산재해 있다. 고인돌은 駒城面 上下里·中里, 器興邑 碧川里, 慕賢面 甫山里·梅山里, 蒲谷面 新院里·舊雲里, 陽智面 大北里, 白岩面 近三里, 遠三面 孟里·沙岩里 등에서 모두 20여기 이상 확인되었는데 北方式과 南方式 고인돌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돌은 遠三面 沙岩里(3기), 南四面 倉旨(1기), 蒲谷面 新院里[12](2기) 등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주로 매장문화재로 신고되어 알려진 청동기시대의 유물출토지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13]된 龍仁邑 南里(현 龍仁市 南洞으로 추정 -이단병식 석검 1점, 유경식 석촉 1점), 南四面 倉旨(이단병식 석검 1점), 二東面 德城里(일단병식 석검 1점), 蒲谷面 舊雲里(일단병식 석검 1점) 등과 소재불명인 遠三面 柏倉里(석촉 1점), 器興邑 古梅里(석부 1점)[14]외에 二東面 華山里(석기, 마제석검)[15], 南四面 旭灘里(마제석기 1점)[16] 등이 있다. 또한 慕賢面 草芙里에서는 銅劍의 거푸집이 발견된 바[17] 있다. 이 중 고인돌은 주로 용인 북·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京安川 주변에 많이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장문화재 신고유물 역시 대부분 고인돌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부근에서 채집된 것으로 보여진다.

역사시대에 들어서는 삼국가운데 백제와 관련된 유적·유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백제토기는 水枝邑 豊德川里[18]·新邑里[19]·竹田1里[20], 駒城面 麻北里[21]·彦南里[22] 등에서 출토되어, 백제유적 밀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12) 신원리선돌은 최근까지 유운리선돌로 불리워왔는데 확인결과 정확한 행정구역이 신원리임이 밝혀졌다.
13) 국립중앙박물관, 「용인군 지표조사」, 『新岩里』 I, 1988.
14) 용인문화원, 『내고장의 얼』, 1986, 38쪽.
서울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1996, 35쪽.
15)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1977, 279쪽.
16) 서울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1996, 69쪽.
17)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글, 1988.
龍仁郡誌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0, 764~765쪽.
18) 한신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1998.
19) 한신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1999, 27쪽.
20) 한신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1999, 29~30쪽.
21) 서울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1996, 29쪽.
22) 세종대학교박물관,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농부센트레빌 아파트 건립부지 매장문화재

대표적인 유적은 器德川里 石器生活址로 대체로 4~5세기대에 걸쳐 사용된 竪穴住居址와 土壙 등의 생활유적이 조사되었는데 초기백제시대의 토기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용인시 전역 특히 수지·구성지역에서 가장 풍부하고 두드러진 유적은 백제와 더불어 고려시대에 해당한다. 고려시대 유적은 墳墓遺蹟와 성십으로 駒城面 貯水부 정광지구[23]·단국내 신축부지 구[24], 器興邑 上葛里遺蹟[25] 등에서 고려시대의 다양한 묘제(土壙墓·木棺墓·石棺墓)가 조사되었다. 각 매장주체부에서는 陶器類, 鐵器類, 靑銅遺物(銅鏡, 匙箸)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遺三面 佐恒里 古墳群[26]과 더불어 고려시대 용인지역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朝鮮時代는 이전 시기와 달리 關防遺蹟[27], 陶窯址[28], 가마터[29] 등 여러 종류의 유적이 조사되어 이 지역이 근세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인지역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인 점에서 많은 관방유적들이 축조되어 왔다. 임신산성 주변의 관방유적으로는 구성면과 포곡면의 경계에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한 말미성(혹은 名於山城)과 寶蓋山城(혹은 石城山城)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두 성은 삼국~고려초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30] 이보다 남쪽으로는 南四面 荷谷里의 蓋仁城과 遠三面 孟里의 행군이토성이 존재한다. 또한 龍仁 東萊에서 출발한 第 2烟 烽燧의 직봉노선이 玉泉山城의 남동방향에서 북서방향으로 지나간다. 즉 竹山의 竹之山烽燧[31]에서 龍仁 石城山烽燧를 거쳐 城南의 望臨山烽燧로 이어지는 봉수노선의

---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1999.

23) 김성태, 「용인 마북리 정광지구 고려고분군 발굴조사」, 『97京畿道博物館發掘調査概報』, 1997.

24) 단국대학교한국민속학연구소, 앞의 책, 1997.

25) 경지대학교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998.

26) 明知大學校博物館, 「龍仁 佐恒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1994.

27)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삼호진설 아파트사업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요약보고서」, 1998.

28) 용인시사편찬위원회·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의 가요지」, 1999.

29)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기화가마터 발굴조사 약보고서」, 1998. 세종대학교박물관,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건립부지 매장문화재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1999.

30) 중부대학교 충원문화연구소, 『용인의 옛성터』, 1999.

31) 竹之山烽燧는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문헌에 의하면 竹山縣 烽燧條에 기록되었으

서측편에 임진산성이 위치하는 것이다.

한편 壬辰山城과 인접한 駒城面 寶停1里 언원마을에서 城址로 추정되는 곳이 보고[32]된 바 있으며 또한 인근에서 관방유적으로 추정되는 石築遺構가 발굴조사[33]되어 銃筒을 비롯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로 보아 임진산성 주변 2km내에 3개소의 관방유적이 밀집분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진산성 동측편의 寶停里에서 매장문화재로 "萬曆二十年"銘 銃筒이 신고[34]된 것을 고려하면 모두 3개 지점에서 4개의 총통이 발견되어 이 지역이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 2) 歷史的 背景

壬辰山城이 입지한 용인시 수지읍·구성면 일대는 경기도 중심부에 해당하는 용인시의 서북단에 위치한 지역이다.[35]

용인시 일원은 용인시 중앙부를 지나 北流하며 漢江에 합류하는 炭川·京安川과 용인에서 발원해 振威川·安城川을 거쳐 서해로 흐르는 龍仁川·新葛川 등의 하천·육상교통로에 의해 한강유역, 서해안유역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고 이러한 성격으로 삼국시대 이래 각 정치세력의 각축장이 되었다. 용인일대의 고대교통로를 살펴보면 서해안 화성-수원-용인 광주-이천간의 동서교통로와 평택·안성·진위 오산 용인-서울, 충주 장호원-죽산 양지 용인-서울간의 남북교통로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용인지역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은 『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2의 '漢水本高句麗漢山郡 新羅取之 景德王改爲漢州今廣州 領縣二 黃武縣本高句麗南川縣 新羅

---

나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용인시 원삼면과 이천시 마장면의 경계지점에 해당한다.

32) 한신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1999, 40~41쪽.

33)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삼호건설 아파트사업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요약보고서」, 1998.

34) 文化財管理局, 『重要發見埋藏文化財圖錄』 第II輯, 1989, 501쪽.

35) 이 지역이 '龍仁'이라는 이름의 행정구역에 속하게 된 것은 조선 태종 13년(1413년)으로 기존의 龍駒縣과 處仁縣이 합해져 龍仁縣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이다. '處仁縣'은 현재 용인시 이동·남사면 등 용인시 남쪽지역, '龍駒縣'은 용인시와 그 북쪽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知平縣과 竹山府의 일부 지역이 현재의 용인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并之 眞興王爲州置軍主 景德王改名 今利川縣 巨黍縣本高句麗駒城縣 景德王改名今龍駒縣' 기사이다.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용인지역은 본래 고구려의 駒城縣이었는데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정에서 점령되어 巨黍縣으로 분리되었다가 삼국통일 이후 경덕왕대의 행정구역 개편시 龍駒縣으로 개명되어 漢州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구려가 이 지역을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先占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비해 『東國輿地志』와 『大東地志』에 의하면 '龍仁本百濟滅爲 後收駒城 新羅景德王十六年改巨黍爲漢州領縣 高麗太祖二十三年龍駒 顯宗九年仍來屬廣州 毅宗二年置監務 後還爲令 本朝太宗十三年以處仁來合收龍仁'라고 하여 용인은 본래 백제의 城烏地城이었다가 후에 駒城으로 바뀌고 신라 경덕왕 16년에 巨黍縣으로 개칭하고 漢州의 領縣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三國史記』와 『大東地志』의 두 기사를 비교해 볼 때 서로 차이가 나는 점이 삼국 가운데 용인지역을 가장 먼저 점령한 나라가 어디냐의 문제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고구려(漢州本高句麗……), 『大東地志』에 의하면 백제(龍仁本百濟……)를 명기하고 있다. 이 기록[36]과 삼국간의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면 용인지역을 포함한 한강유역은 본래 백제의 영역이였다가 고구려의 남진과정에서 일시 점령되었고 이후 신라에 의해 점령되는 변동을 겪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백제는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한 뒤 차츰 한강유역을 넘어 한강이북과 금강유역, 전남북지역을 잇는 3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며 한반도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하지만 근초고왕대 이후 고구려와 한강유역의 점유권을 두고 쟁패를 벌이다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대의 적극적인 남진정책에 밀려 한강유역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의 세력이 한강 이남에 침투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기록이 『三國史記』地理志 등에 반영되어 한강 이남의 경기남부지역을 비롯한 용인지역을 '본래 고구려의 영토(本高句麗……)'라고 기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용인지역은 한성시기 백제의 도읍지인 '河南慰禮城'으로 최근 비정되고 있는 風納土城 일대까지는 물과 20k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주변에서 백제시

36) 물론 『三國史記』(1145년)와 『大東地志』(1863년)는 시간적으로 718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 서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大東地志』를 비롯해 조선 중·후기의 지리지들이 고증·실증적인 입장을 추구했기 때문에 높은 신빙성을 가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삽도 4】 원진산성 주위의 옛 지도(大東輿地圖)

대 생활유적[37]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와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고구려는 백제의 한성을 점령한 후 한강이남의 용인지역에 駒城縣을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고구려가 용인지역을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점령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물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후 백제는 공주지역으로 천도한 후 신라와 연합하여 남진을 추구하는 고구려에 맞서지만 한강유역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얼마 후 신라에 의해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된다.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통해 고구려를 한강유역에서 태제한 후 백제를 제압하고 한강유역을 장악하여 한반도 동남단에 고립됐던 위치에서 탈피하게 된다. 신라는 『三國史記』의 기록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진흥왕대에 한강유역에 新州를 설치하여 대중국기지로 삼아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 시기 용인지역은 현재 경기도 이천지역으로 비정되는 新州와 속현으로 한강이남의 주요 거점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용인지역이 하천교통로를 따라 쉽게 한강유역과 서해안 및 당항성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남양만일대로 향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요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후 신라는 556~557년에 新州를 폐지하고 대신 北漢山州를 설치하는데 용인지방도 곧 北漢山州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신라에 의한 통일 이후 그대로 통일신라의 영토속에 포함되었다.

신라는 통일이후 곧 새로운 지방행정조직의 정비를 시도하는데 신문왕 5년(685년) 9州 5小京制를 도입하여 한강유역에 漢山州를 설치하였다. 이어 경덕왕 16년(718년)에는 漢山州를 漢州로 개칭하고 용인지역을 관할하게 하였다. 신라에 의한 통일이후 용인지역은 漢山州(漢州)에 포함된 다른 소속 군현과 마찬가지로 삼국기에 비해 그 지정학적 효용성이 크게 감소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당 주요 거점인 당항성지역과 인접하며 한강이북과 통하는 교통로의 측면에 입지하게 되어 그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 말기에 들어서 신라 중앙의 지배력이 약화되자 각 지역에서 호족들이 할거하게 되고 신라의 중앙집권체제는 붕괴되어 갔다. 그 후 지방분권적인 형태의 각 호족세력들과 연합하여 후삼국이 정립되게 된다. 이때 용인지역에는 龍仁李氏의 始祖 李능奎(904~1008)으로 대표되는 세력, 주변으로는 현재의 안성 죽산에 해당하는 竹州地域의 朴守卿과 廣州地域의 王規, 水原地域의 金言과 朴述熙

37) 한신大學校博物館, 『龍仁 水枝 百濟 住居址』, 1998.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중 龍仁李氏家는 왕건을 도와 고려의 개국에 적극 참여하였고 이김권은 태조의 누이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駙城伯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崇祿大夫太師'에 봉해지는 등 龍仁을 貫鄕으로 고려에서 조선시대를 거쳐 名門巨族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38]

이후 고려 현종 9년(1018年) 지방제도 개편시 龍駒縣은 關內道 廣州 任內에 속하다가 현재의 경기남부·충청도를 관장하던 楊廣道에 속하게 되고 명종 2년(1172년) 廣州 任內에서 분리되어 監務를 두기도 하였다.[39] 이에 비해 龍駒縣의 남쪽에 위치한 處仁地域은 水原府에 소속된 部曲으로 편제되었는데 고려시대의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가 조선 태조 6년(1397년) 처음으로 縣令을 두었고 태종 13년(1413년) 龍駒縣과 합병되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까지 용인지역의 중심지는 龍駒縣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龍駒縣에 관한 기록은 『高麗史』 공민왕 12년 5월조 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龍駒 이북의 여러 驛들은 3도의 요충지에 있어서 비용이 더욱 많이 들 것이므로 柴炭貢을 3년간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40]

고려 건국 이후 조선 중기에 이르까지 용인지역은 거란·몽고·왜구, 왜·청의 잦은 외침의 피해를 겪게 된다. 우선 1010년 거란의 2차침입시 수도 개경이 함락되고 경기도 일대가 피해를 심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 고종 19년(1232년) 몽고의 2차침입시에는 몽고군이 광주성 공격을 실패하고 용인을 거쳐 처인성에 피난·입보한 지역민과 접전을 벌이다 승장 김윤후가 봉고 적장 살리타이를 사살한 처인성전투가 벌어진 곳이 현재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일대로 추정된다.

몽고의 침입 이후 고종 20년(1233년)부터 공양왕 4년(1392년)까지 고려는 왜구의 극심한 침공을 받게 되는데 왜구는 해안 연안뿐 아니라 해상교통로를 통해 내륙 깊숙이까지 출몰하였다. 고려 우왕 4년(1378년)에는 서해 연안을 따라 침입한 왜구가 수원·용인지역에도 출몰하였으나 巡長 李嵓의 지휘아래 이를 격퇴하였다.[41]

---

38) 龍仁文化院·鄕土文化硏究所, 『駒城誌誌』, 1998, 48~49쪽.

39) 『高麗史』 卷56 志10 地理1, 龍駒縣本高句麗駒城縣…高麗初史今名 顯宗九年仍屬 順宗元年置監務 後陞爲縣令官.

40) 『高麗史』 卷80 志34 食貨3 雜賦工 12年 5月條, ……自龍駒以北諸驛 往還之衝供費尤多 其柴炭貢與免 三年.

41) 『高麗史』 卷133 列傳46 4年 5月條, 委寇西州龍仁縣又寇水原龍駒等處 巡長李嵓擒獲十

조선시대에 들어 태조 6년(1397년) 處仁部曲이 處仁縣으로 승격되었고 태종 13년 龍潤縣과 處仁縣이 합해져 龍仁縣으로 개칭되어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龍仁縣은 동쪽으로 양지, 서쪽으로 수원, 남으로는 양성, 북으로는 광주와 접경하며 그 사이를 관할하는 지역42)으로 한성에서 남쪽으로 통하는 교통·통신의 要路에 위치하고 있어 壬辰·丁酉 양란을 통해 큰 戰禍를 만나게 된다.

조선 선조 25년(1592년) '征明假道'를 명분으로 發에 의해 壬辰倭亂이 발발되고 왜장 小西行長과 宗義智의 군대가 4월 13일 釜山浦에 상륙한 후 東萊城을 거쳐 20萬의 倭軍은 파죽지세로 北進하게 된다. 왜군은 左·右·中의 3路로 나누어 漢城을 향해 北上하고 1개 支隊는 沿海岸地帶로 西進하였다. 왜군의 침입은 4월 17일 慶尙左水使 朴泓의 장계에 의해 조정에 알려지게 되고 당황한 조정은 李鎰을 巡邊使로 삼아 鳥嶺·忠州 방면의 中路를 맡게 하고 成應吉을 左防禦使로 삼아 竹嶺 방면의 左路를 방어하게 하였으며 趙儆을 右防禦使로 삼아 秋風嶺·淸州·竹山방면의 西路를 담당하게 하는 등 竹嶺·鳥嶺의 방비를 명하였다. 또한 都城의 방어를 위해 右議政 李陽元을 都城都檢察使, 李戡·洪彦琇·中恪을 左·右·中副大將, 朴忠侃을 都城檢察使, 洪汝君 가 卓然을 副使, 李誠中을 守禦使로 삼아 대비케 하였다. 慶尙道 尙州에서 慶尙道巡邊使 李鎰이 패배하자 조정에서는 光海君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동시에 수도사수를 결정하고 兵曹의 청에 의해 坊曲民은 물론 公私賤·胥吏·三醫司를 抄發하여 都城城堞을 分守하였다. 하지만 三道巡邊使 申砬이 忠州에서 패하게 되자 4월 29일 조정은 몽진을 결정하고 金命元을 都元帥, 申恪을 副元帥로 삼아 한강을 방어하게 하고 李誠中·丁彦福을 左·右統禦使로 삼아 서울을 지키게 하였다.

忠州에서 조선군에 승리를 거둔 왜군은 북상하여 한성 점령을 계획하였다. 우선 小西行長軍은 驪州를 경유하여 南漢江을 건너 한성으로, 加藤淸正軍은 西進해서 竹山, 陽智와 龍仁을 거쳐 한성에 침입하는 것이었다. 이로 볼 때 용인지역은 한성을 향해 북진하는 加藤淸正軍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 이 지역 대부분의 병력은 이미 한성방어와 한강 도하저지에 합류했기 때문에 加藤軍은 쉽게 서울 남쪽의 한강변에 다다를 수 있었다.

한성을 점령한 왜군은 小西行長軍은 平安道, 加藤淸正軍은 咸鏡道, 黑田長政軍은 黃海道, 毛利吉成과 島津義弘軍은 江原道로 진격하고 小早川隆景軍 등은 남부지

---

餘人.

42)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龍仁縣 建置沿革條.

역, 總師인 宇喜多秀家 등은 한성에 본진을 차리게 된다.

왜군의 한성점령 이후 충청·경상·전라도의 三南勤王兵 5~6만여명이 용인과 수원일대에 주둔하게 된다. 이들은 全羅道巡察使 李洸, 防禦使 郭嶸, 助防將 李之時와 白光彦 등 전라도의 군사 4만과 忠淸道巡察使 尹先覺, 防禦使 李沃, 節度使 申恕, 慶尙道觀察使 金睟 등의 군사였다. 그 외 忠淸兵使 尹國馨의 水兵과 光州牧使 權慄의 휘하군사 등으로 서울을 지키기 위해 북상하던 중 한성 함락 소식을 듣고 忠淸道 淸州와 京畿道 振威縣을 지나 水原 남쪽의 禿山城(현 오산시 지곶동소재)에 진을 치게 된다.[43] 근왕병은 한강을 도강한 후 임진강으로 북상하여 왜군의 북진을 막으려 했지만 한강을 넘지 못하고 수원·용인일대에 계속 주둔하게 된다.

왜군은 당시 한성과 충주지역의 교통로 유지를 위해서는 죽산·양지·용인지역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수원·용인지역에 주둔한 三南勤王兵과 결전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왜군은 主將 脇坂安治의 수군 1,600명이 육상경비를 맡고 있었는데 주력 1,000명은 한성에 주둔하였으며 나머지 600명은 脇坂左兵衛와 渡邊七左衛門 등이 거느리고 용인 부근 北方門山과 文小山 등에 小城를 만들고 지키고 있었다.

순찰사 이광의 지휘아래 선봉장 백광언과 왜군과의 전투가 龍仁 北方門山 일대에서 벌어져 승리한 후 문소산으로 후퇴한 왜군과 다시 교전하였으나 조방장 이지시와 백광언 등 두 선봉장 등이 전사하는 등 크게 패배하였고 일단 광교산으로 후퇴하여 이광의 본진과 합쳐 진용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다음날 脇坂安治軍의 기습으로 광교산 일대에서 삼남근왕병 5만과 왜군 2천이 치열한 교전을 벌였지만 이미 무너져버린 대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였다. 이 광교산전투의 패배로 인해 용인 일대는 왜군이 장악하게 되고 노략질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였다.[44]

이후 明의 參戰과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보급로를 차단당하게 되자 왜군은 본국 철병의 길을 걷게 되고 明과 日本의 和議속에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된다.

임진왜란 기간동안 경기남부지역의 관련 관방유적을 정리하면 아래 <표 1>·<삽도 5>와 같다.

---

43) 『燃藜室記述』 卷15 三道勤王兵龍仁敗績條.
44) 『宣祖修正實錄』 宣祖 26年 6月 5日 戊子條.

【삽도 5】 경기남부지역의 임진왜란 관련 분포유적 현황도

<표 1> 경기남부지역의 임진왜란 관련 산방유적 현황표

| 유 적 명 | 위 치 | 둘 레(m) | 내 용 | 출전 |
|---|---|---|---|---|
| 幸州山城 | 고양시 행주내동 산 26-1 | 1,000 | 권율휘하 조선군과 宇喜多秀家의 왜군의 접전지, 임진왜란 3대 승첩지. | b,d |
| 馬嶺山城 |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산5-1 | - | 임진왜란시 변응성장군 전적지 | c |
| 文鵝山城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문학산 | 內城:100<br>外城:200 | 부사 김민선이 중수하고 왜군 격퇴. | d |
| 桂陽山城 | 인천광역시 북구 계양동 계양산 | 381 | 明軍과 小西行長軍과의 접전지. | d |
| 毛老山城 |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 90 | 본 조사지역, 삼남근왕병과 왜군의 광교산전투가 인근에서 벌어짐. | a |
| 秀山城 | 오산시 지곶동 150 | 3,600 | 임란초 삼남근왕병 주둔, 광교산전투 패배이후 권율주둔. | a,d |
| 婆娑山城 |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산9 | 986 | 임란 중 승장 義嚴 수개축. | b |
| 瑞雲山城 | 안성시 서운면 부산리 서운산 | 1,228 | 의병장 홍계남이 축성·주둔. | c |
| 猫峙峰山城 | 안성시 미양면 양번리 진령봉 | 301 | 의병장 홍계남, 이덕남이 축성·주둔. | c |
| 竹州山城 |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 本城:1,690<br>內城: 270<br>外城:1,500 | 임진왜란시 수축, 병장 조선군과 왜군의 격전지, 조방장 황진 전령·주둔. | c |
| 北漢門山小城 | 용인 일원 (위치미정) | - | 용인 일원의 왜군 주둔지. | a |
| 文小山小城 | 용인 일원 (위치미정) | - | 용인 일원의 왜군 주둔지. | a |

a. 「燃藜室記述」
b. 『東國輿地志』
c.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d.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韓國의 城郭과 烽燧』 I, 1989.
e.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병자호란 때에는 충청감사 鄭世規와 선봉장 黃善天이 용인 陰川에서 청군과 교전하였으나 광주영장 崔震立이 전사하는 등 패퇴하였고 이듬해인 1637년 정라

병사 崔俊龍은 용인 광교산에 주둔하며 大陣을 구축하고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던 청군과 접전하는 등 두드러진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45]

이후 용인지역은 영·정조대 화성 축조를 계기로 인근 수원, 화성지역의 상업과 농업발전에 힘입어 丁丑·丙子 양란기의 침체를 벗어나 회복을 보이다가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인해 이내 꺾여버리고 말았다.

龍仁縣은 고종 32년(1895년) 지방관제 개편때 龍仁郡으로 개칭되고 竹山郡·利川郡 등과 함께 忠州府에 소속되었다가 1896년 23府制를 폐지하고 13道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시 京畿道에 소속되었다.

동학농민전쟁과 한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용인지역에서는 1896년과 1907년의 2차례에 걸쳐 의병활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인 탄압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지극히 산발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46]

1950년 한국전쟁시에는 개전초기 서울에서 수원으로 철수하는 국군과 북한군과의 치열한 접전이 있었고 UN군의 참전이후 터키군과 북한·중국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47]

현재의 용인지역은 1914년 府·郡·面을 폐합하여 전국을 97개군으로 재편할 때 현재와 같이 확정되었으며 조선의 변동을 겪은 후 1990년대 서울 인근의 수도권개발계획으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와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

### 3) 王辰山城에 관한 文獻檢討

王辰山城에 관한 문헌기록은 조선 전기의 각종 지리지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王辰山城이 구전되는 내용과 같이 임진왜란 기간중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王辰倭亂 직후의 각종 지리지에서도 王辰山城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속단을 내릴 수 없다.[48]

조선 중·후기의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大東地志」의 龍仁縣

45) 『朝鮮王朝實錄』 仁祖 15年 1月 5日 乙巳條.
46) 龍仁郡誌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0, 105~115쪽.
47) 龍仁郡誌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0, 141~150쪽.
48) 壬辰倭亂時 10만의 三南勤王兵과 倭軍과의 龍仁 光教山戰鬪에 관해 비교적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燃藜室記述」(李肯翊 編著)에서도 龍仁 일대의 城郭로는 倭의 文小山陣, 北三峰山城에 관한 기록만 보일 뿐이다.

關防 및 古蹟條에서는 處仁城, 石城山城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王辰山城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임진산성에 관한 기록을 전하고 있는 문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은 1942년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이다.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이후 『全國遺蹟目錄』, 『文化遺蹟總覽』, 『韓國의 城郭과 烽燧』 등에서도 王辰山城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문헌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49]

<표 2> 임진산성에 관한 문헌기록

| 文 獻 名 | 位 置 | 內 容 |
|---|---|---|
|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年) | 邑 內面 寶亭里<br>水枝面 豊德川里 | 五ヶ所ノ地點シタルモノニテ周圍約五十間豊德川陣址ト稱シ壬辰役日本軍ノ築キシ所ナルトイフ |
| 『全國遺蹟目錄』 (1971年) | 駒城面 寶亭里 | 周圍約50間, 豊德川陣址라 稱함. 李陣址라 함. |
| | 水枝面 豊德川里 | 壬辰後 日本軍의 築 |
| 『文化遺蹟總覽』 (1977年) | 駒城面 寶亭里 山83 | 傳說에 의하면 壬辰倭亂時 倭軍의 臨時防禦陣地였다고 하나 현재 흔적이 없다. |
| | 水枝面 豊德川里 | 壬辰倭亂때 日本軍의 築城으로 전한다. |
| 『韓國의 城郭과 烽燧』 (1989年) | 駒城面 寶亭里<br>水枝面 豊德川里 | 옛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 해발 80m 미만의 언덕이어서 산성이라기 보다는 진지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하며 주변이 농이터화 되어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 |

49) 유지의 행정구역명 가운데 邑 內面은 龍仁郡 治所가 있던 邑內面을 1914년 개칭한 것이고 이후 1931년 龍仁의 옛 이름을 따라 駒城面으로 개칭하였는데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가 간행된 1942년까지 邑 內面이란 행정구역명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龍仁郡誌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0, 1163쪽.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의하면 王辰山城은 '산봉상의 땅을 고른 것인데 주위는 약 50칸으로 豊德川陣址라고 칭하며 임신왜란 중에 일본군이 쌓은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1칸을 약 1.8m로 환산해보면 임진산성의 둘레는 약 90m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全國遺蹟目錄』과 『文化遺蹟總覽』에서는 구성면 보정리와 수지면 풍덕천리의 경계상에 입지한 임진산성을 2개소로 잘못 파악한 후 2개소 모두 임진왜란 중에 일본군이 축성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비해 『韓國의 城郭과 烽燧』에서는 앞 시기의 문헌기록을 소개하고 해발 80m정도의 언덕에 입지해 동남쪽과 서북쪽으로 모아 앳부터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것 같으나 유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들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王辰山城의 둘레는 약 90m 내외이며 대개 임진왜란 중에 일본군에 의해 축성되었다고 전하며 행정지역명을 따라 豊德川陣址로 불리웠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사이전에 유적 대부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 임진산성의 축성방법이나 시기, 산존현황 등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 Ⅲ. 調査經緯 및 經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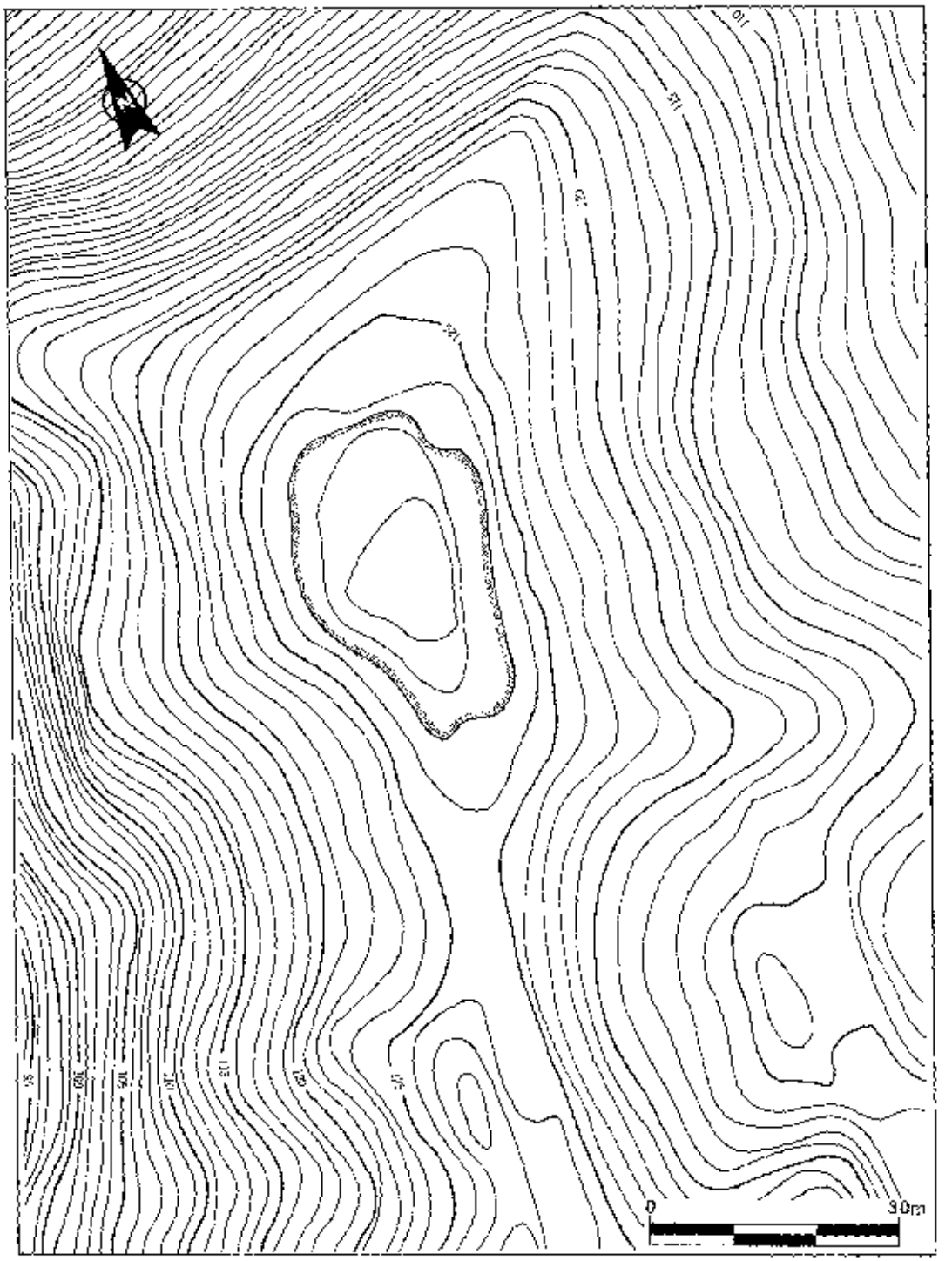
王城山城 일대는 해발 129m 내외의 구릉지대로 아파트 건립공사도중 총통 2점이 신고됨에 따라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대가 王辰倭亂 당시 倭軍과 三南勤王兵과의 격전이 있었던 龍仁 光教山戰跡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지역으로 문헌상 기록되는 역사적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었다.

이에 京畿道博物館에서는 문헌 기록상에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의 증명 뿐 아니라 당시 경기도 일대의 關防體系 해명의 구체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 王辰山城 一帶에 대해 緊急發掘調査를 진행하기로 삼성물산(주) 주택부문측과 협의한 후 현장조사를 1997년 6월 4일~7월 1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7월 8일 현장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긴급발굴조사를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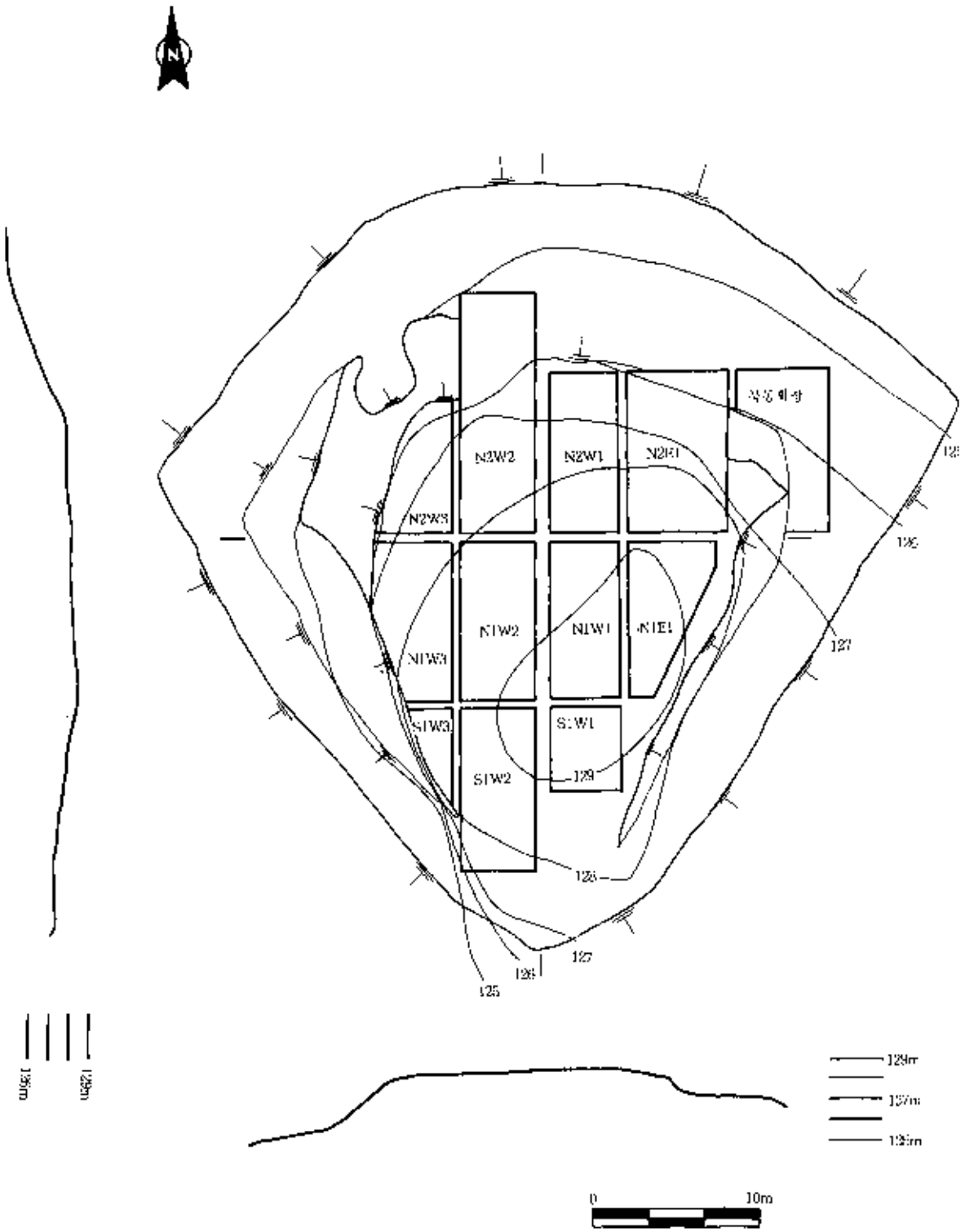
調査地域은 王辰山의 남서쪽에 위치한 篇箭峰(해발 133.3m), 西洋山(해발 129.5m)의 능선이 북동쪽을 향해 뻗어나가다 마지막으로 돌출된 지형으로 남서쪽을 제외한 三面이 가파른 경사를 보이고 있다. 조사지역의 면적은 王辰山의 정상부와 북쪽 경사면을 포함해 동서 40m, 남북 40m의 면적이며 전체적인 모습은 북쪽이 복록한 부정형의 방형을 띠고 있다.

道路은 북동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移木作業을 비롯한 각종 공사로 인해 조사 시작전 이미 地形變更이 이루어져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었다.

現場調査는 우선 유적일대 地表調査의 일환으로 주변지역의 유물수습부터 시작하였는데 동쪽과 남쪽 경사면 일대에서 많은 양의 기와류가 채집되었다. 이를 통해 상부 유적의 붕괴 혹은 파괴로 유물들이 경사면 아래로 휩쓸려 내려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진산 정상부에 기준점(해발높이 129.2m)을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조사구역 내에 동서 5m, 남북 10m 크기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지역을 區劃하였다. 이 트렌치조사와 더불어 이미 노출된 남서쪽과 북동쪽 절개부의 단면을 조사하여 土層의 흐름 및 文化層의 존재 가능성을 조사하고 북서쪽 총통출토지 주변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였다. 트렌치조사는 우선 기준점을 중심으로 서쪽방향으로 4개의 트렌치를 구획하고 폭 2m의 피트를 정하여 除土作業을 진행하며 상부의 부식토층을 제거하였다. 정상부 부근의 트렌치조사 결과 대부분 중장비에 의해 풍화암반층까지 교란되어 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부식토층 하부에 두께 25~30cm정도의 암적갈색점질토층이 확인되었고 이 토층내에서




【도면 1】 인진산성 현황도 (1:1,500)




【도면 2】 임진산성 발굴 구획도

각종 철제유물을 비롯해 자기류 등이 산점적으로 출토되었다. 경상부의 트렌치를 北·東·西 방향으로 확장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N1W2 Tr.내에서 지름 80cm정도의 圓形貯藏孔을 확인하였다. N2W3 Tr.의 층붕출토지 부근의 탐색Tr. 조사작업중에는 적갈색점질토층내에서 無文土器片이 출토되어 문화층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였다. 경상부의 남쪽에서는 한국전 당시의 掩蔽地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확인되었는데 M1, M50 탄피 등이 출토되었다.

북동쪽 경사부의 정확 단면을 정리하여 토층의 흐름을 확인하고 확장Tr.를 설치하여 조사하던 중 바닥면에서 無文土器片과 打捺文土器片, 木炭層이 확인되어 住居址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북동쪽 경계부와 접한 N2E1 트렌치내에서 打捺文土器片이 混入된 二層이 확인되어 북동확장Tr.와 住居址와의 관련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 확인작업 도중 주거지 북쪽 2~3m지점에서 동시 1m, 남북 3.5m정도 크기의 朝鮮時代 瓦積層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경우 일부는 풍장바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으며 내부는 암황갈색사질점토와 석비레가 충진되어 있었고 남서쪽으로 木炭과 燒土層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북동확장Tr. 조사결과 주거지의 잔존 윤곽선과 주거지 상면에서 燒土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燒土層은 移木作業 과정에서 대부분 削平되어 3.5m만이 잔존하였다. 이후 遺構의 實測과 整理作業을 거쳐 緊急發掘調査를 마치고 현장을 철수하였다.

# Ⅳ. 調査內容

조사지역 대부분이 조사 시작전 중장비 등에 의해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형태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遺構들이 많이 조사되지는 못하였다. 특히 대부분 기반암층인 풍화암반층까지 교란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그간 형성된 文化層이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유적의 북동쪽 일부에서 몇몇 유구들이 발견되었는데 百濟時代의 住居址 1棟, 朝鮮時代에 축조된 土城壁 一部, 貯藏孔 1기·小形遺構 2기, 現代 防空壕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遺物 가운데 층위적 안정을 보이는 유물은 암반층 상면의 암적색점질토층(基地表)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이를 이외의 層位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移木作業과 후대의 攪亂으로 인하여 원래의 文化層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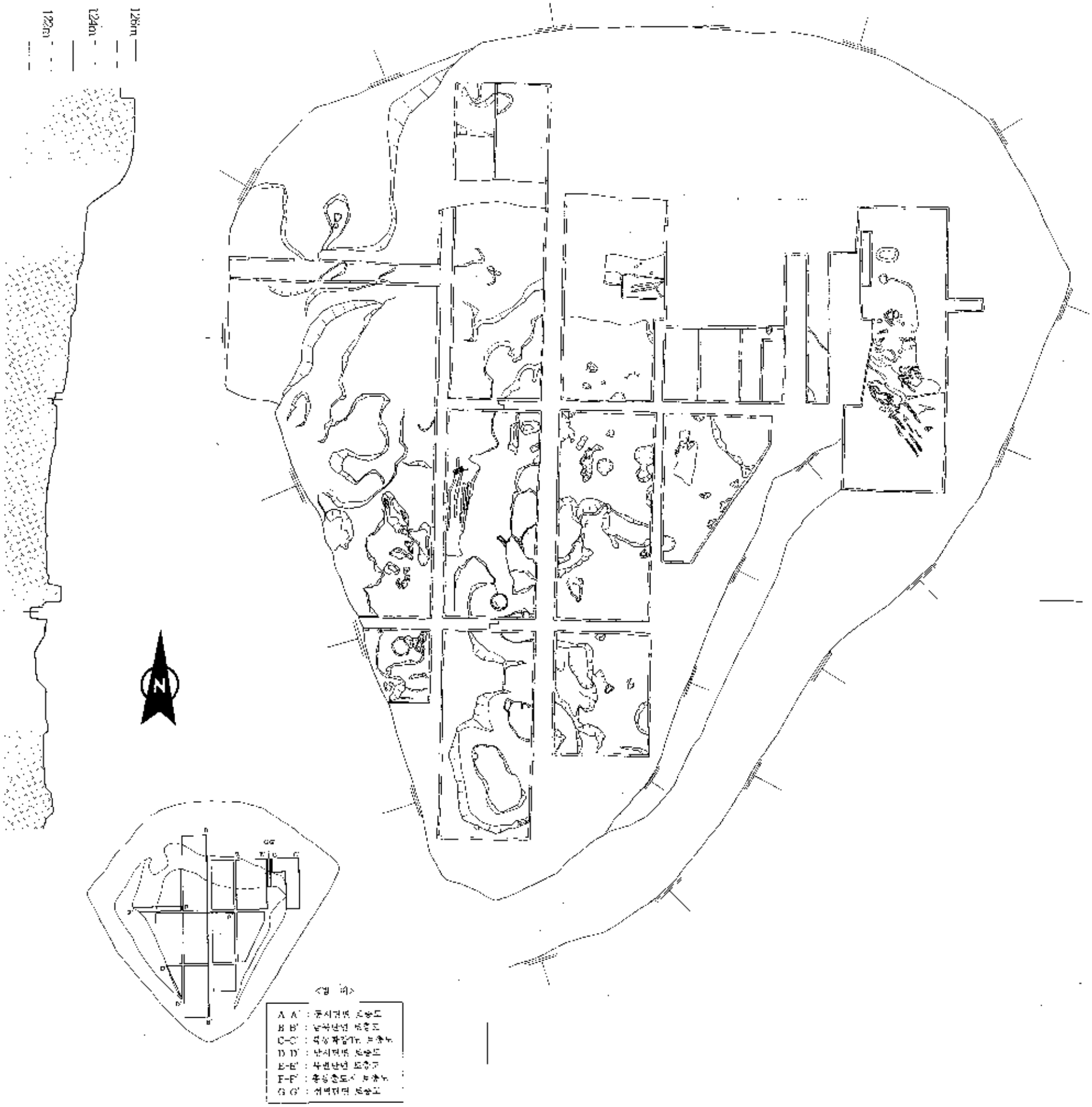
## 1. 遺構

遺構는 거의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나 북동쪽 일부에서 약 3.5m정도 잔존하는 土城壁이 확인되었고 壁土層 下部에서 百濟時代의 住居址가 노출되었다.

그리고 정상부에서 풍화암반층을 파고 만든 'U'자 모양의 貯藏孔이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 완형의 암키와(탐문 1 ①·사진 63 ①)와 鐵矢(도면 49 ⑰·사진 183-②)·鐵劍(도면 47-①·173-①) 등이 출토되었다. 貯藏孔 西側에서 小形遺構 2基, 北側에서 基地表 一部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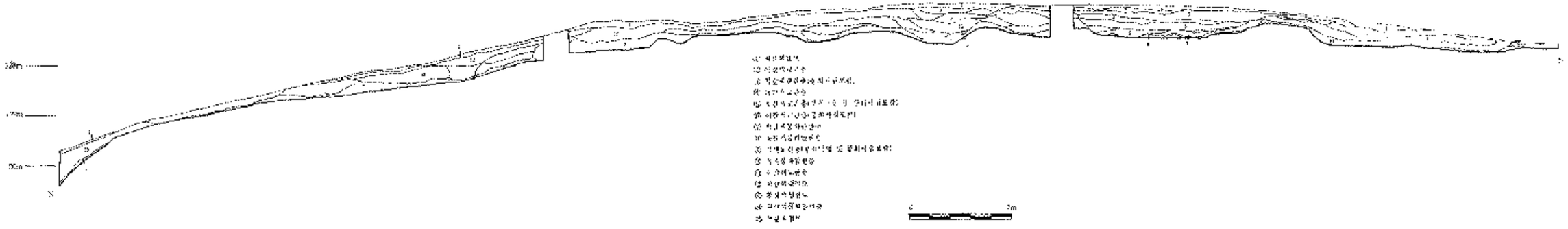
### 1) 土層調査 (도면 4~9, 사진 21~30)

이미 발굴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조사지역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遺構의 정확한 확인을 위한 탐색 Tr.의 설치 및 토층조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미 파괴된 斷面과 조사지역 전체의 동서·남북단면에 대한 土層調査를 실시하였다.




【도면 3】 임진산성 전체평면도

【도면 4】 동서단면 토층도



【도면 5】 남북단면 토층도

① 東西斷面 土層調査 (도면 4)

우선 전체 東西斷面의 土層을 살피보면 표토층으로부터 풍화암반층까지 8~11개의 土層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①층은 表土로서 적갈색을 띠며 두께는 8~10cm 내외이다. ②·③·④층은 擾亂層으로 적갈색과 회갈색, 흑갈색을 띠며 두께는 30cm 내외이다. ⑤층은 사립 및 부식낙엽이 혼입된 황갈색교란층이다. ⑥층은 흑갈색교란층이며 ⑦층은 부식낙엽이 혼입된 흑갈색혼입층이다. ⑧층은 적갈색풍화암반층으로 전체 동서단면 중앙부의 기반을 이룬다. 동서단면도상의 서쪽단면은 중앙부와 대개 동일하며 중간중간에 몇 개 교란층이 생략된 모습이다. 동쪽단면은 적갈색표토층아래 황갈색사질점토가 두께 15~20cm 정도로 깔려있고 그 아래에 적갈색점질토 및 녹갈색풍화암반토가 基底를 이루고 있다.

② 南北斷面 土層調査 (도면 5, 사진 21~22)

전체 조사구역내의 南北斷面의 土層을 보면 남쪽은 대부분 풍화암반층의 상면에 적색교란층, 부식낙엽이 섞인 교란층, 적갈색표토층으로 이루어진 반면 북쪽은 적갈색풍화암반층 상면에 황갈색점토층과 녹갈색점토층이 일부 확인된다.

③ 北東擴張Tr. 土層調査 (도면 6, 사진 23~24)

정상부 북동편의 중장비진입로에 의해 파괴된 북동쪽 단면에 대한 토층조사를 진행하였다.

단면의 층위는 모두 9개층으로 ①층은 흑갈색부식토층으로 지표에서 5~10cm까지이다. ②·③층은 갈색사질점토와 적갈색사질점토로 70~80cm의 두께이며 조선시대 기와류가 포함되어 있다. 아래로는 적갈색점질토+마사토, 흑갈색점질토+마사토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백제시대의 다날문토기편등이 혼입되어 있다. 황갈색점질토 및 황갈색사질점토가 있고 아래로 적갈색풍화암반층이 나타나며, 이 층내에는 無文土器片등이 포함되어 있다. 풍화암반층을 掘土한 흑갈색사질점토(묵탄혼입)층이 斷面에서 확인된다.

① 南西斷面 土層調査 (도면 7, 사진 25)

공사로 인해 파괴된 부분의 남서쪽 단면을 정리한 결과, ①층(지표~20cm)은 흑갈색부식토로 移木作業시 교란되어 기와편등과 나뭇잎이 뒤엉켜 있다. 흙토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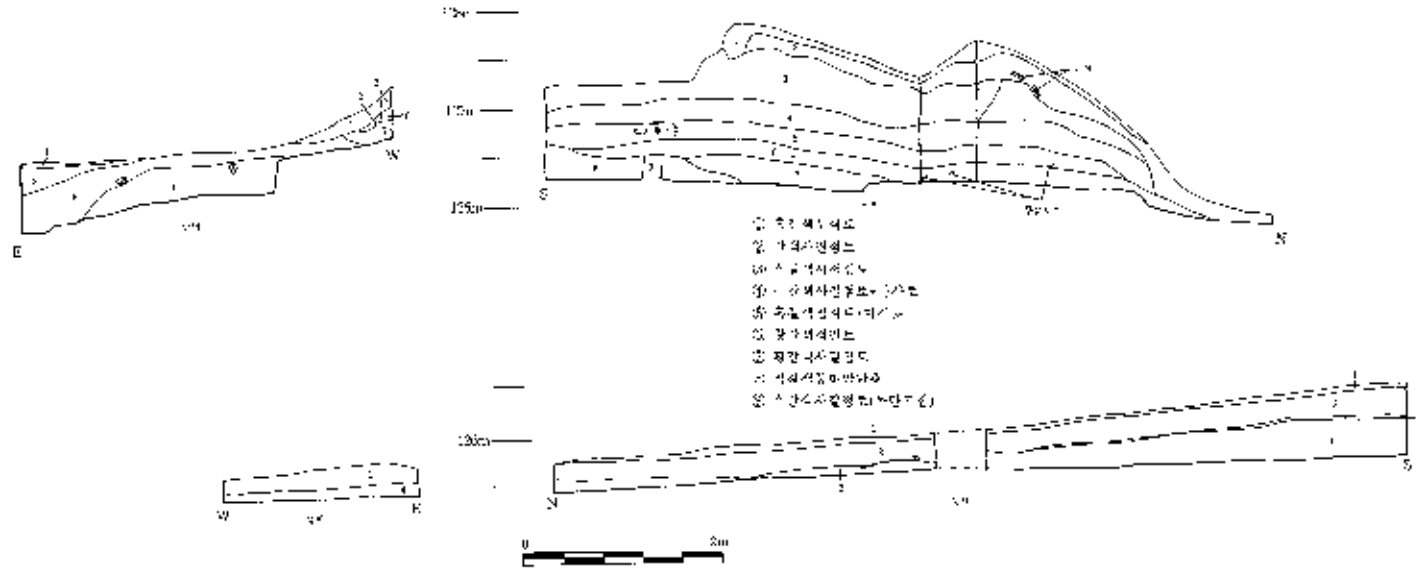
는 유물은 회청색 경질기와로 조선시대 유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②층(20~50cm)은 성토층으로 암적황색사질점토+소할석재층에 타날문토기편, 백자편, 기와편, 청동편, 철촉 등이 혼입되어 있다. 암반위에 비교적 수평을 이루도록 盛土되어 있는 층으로 조선시대에는 上面을 整地層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③층(50~60cm) 역시 盛土層으로 암적갈색점질토+목탄+마사토층에 간간히 소할석재편이 혼입되어 있다. 목탄이 비교적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인위적으로 10~20cm 정도를 깎아 암반위를 고른 듯 하다. ④층(60~100cm)은 암반층(기반암)층으로 암반 상면을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⑤ 北便斷面 土層調査 (도면 8, 사진 2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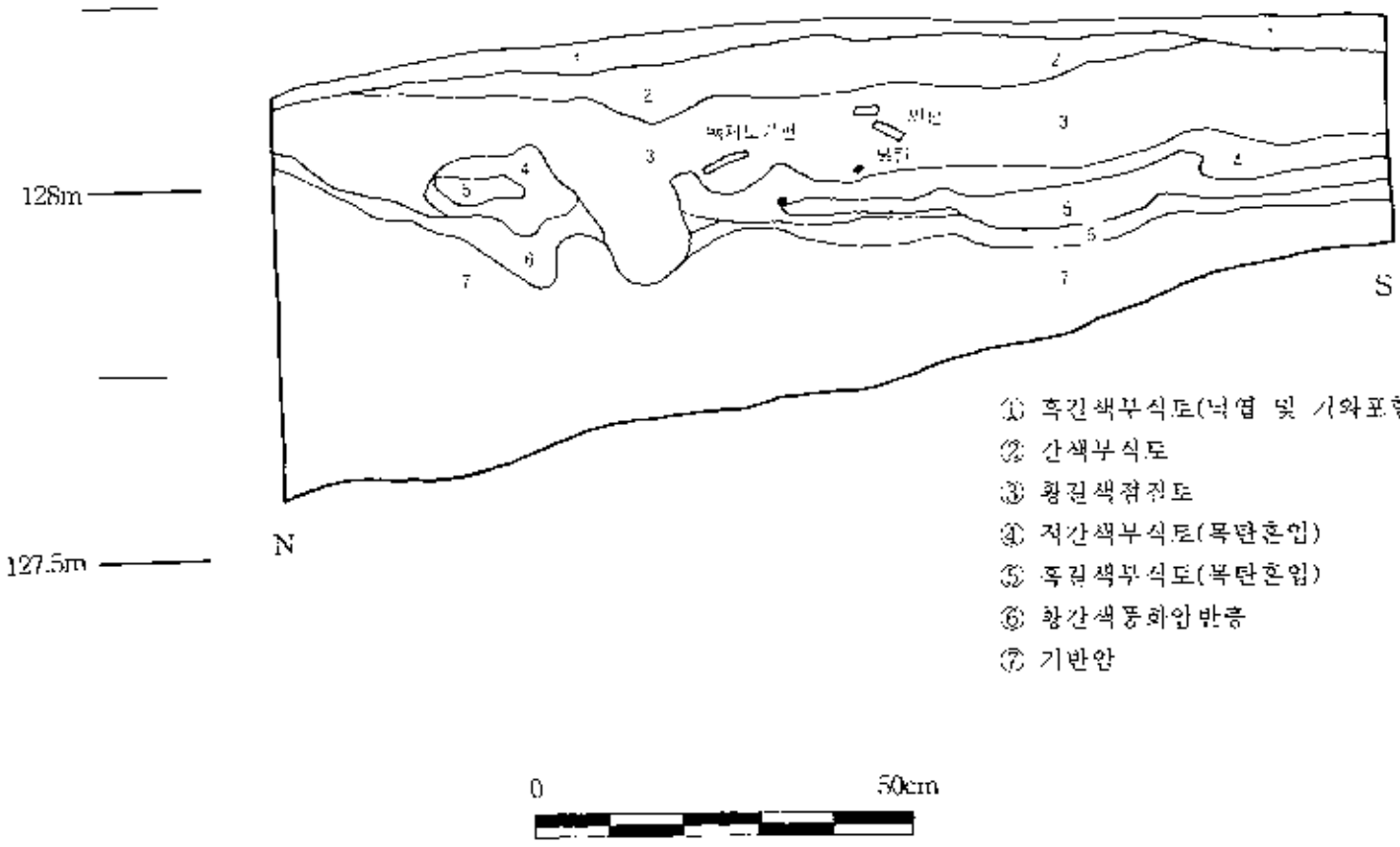
정상부 북편의 굴삭기로 인해 파괴된 지역의 平·斷面을 정리하였다.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과 토층색깔에 따라 계단식으로 除土作業을 하였다. 3단의 계단식 除土作業과 東斷面 탐색 Tr. 조사결과 文化層은 西에서 東으로, 南에서 北으로 30°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 흘러내리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과 동일하게 제1단에서는 조선시대 유물(③층)인 小刀, 鐵丸, 瓦·磁器類 등이 출토되었다. 제2단(③-2층)과 3단(③-1층)에서는 木炭과 打捺文土器片, 鐵鏃, 鐵釘, 異形鐵器 등의 유물이 출토되며 층위상 뚜렷이 구별되는 점으로 보아 1단보다 앞서 1차 盛土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N2E1 Tr. 동벽 단면조사에서는 ②층의 바닥선에서(②층과 ③-1층의 토층분리선) 백자편이 출토되어 조선시대에 이 부분에 대한 2차 盛土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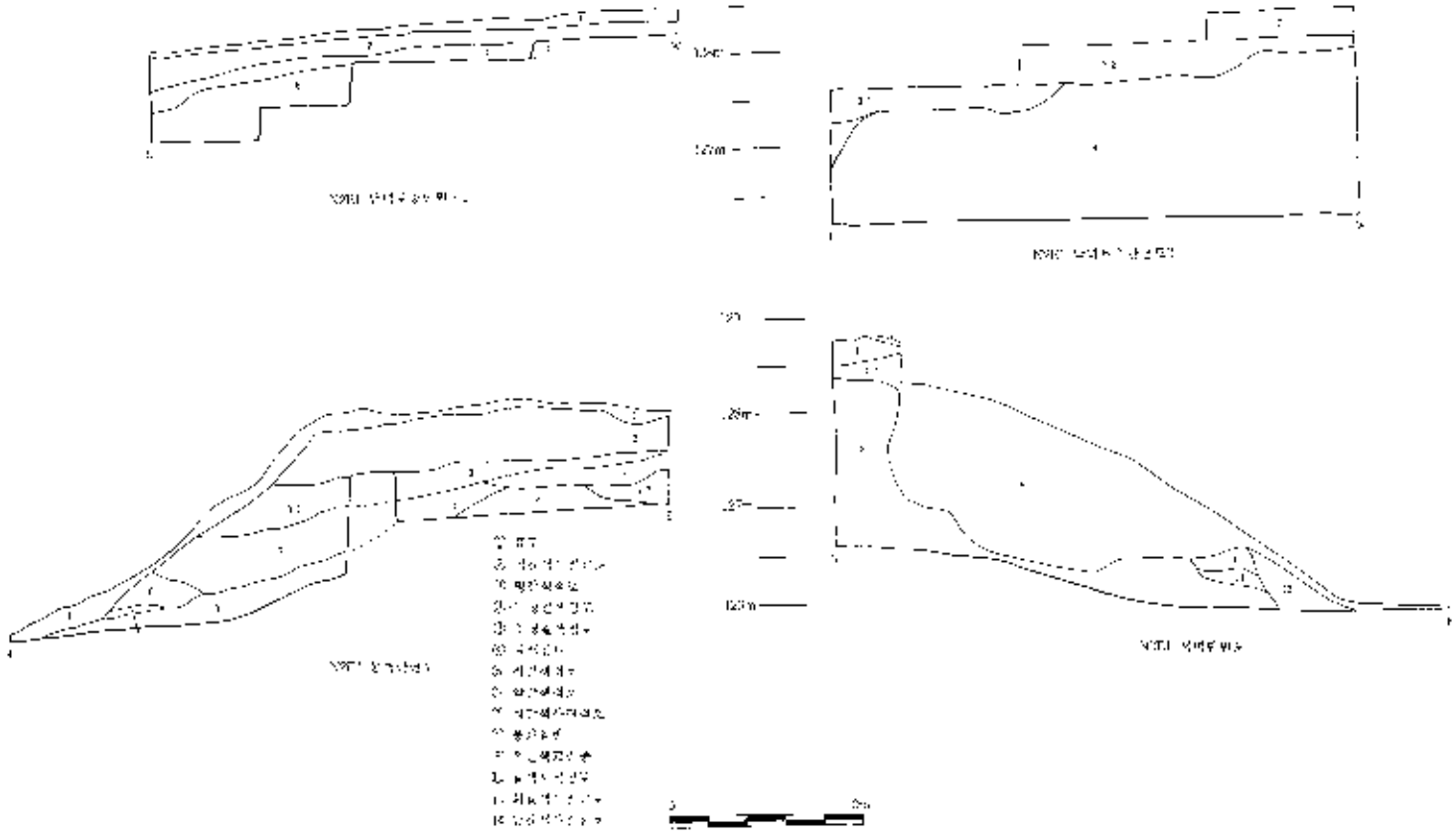
③-1층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으나 立面과 平面의 토층 흐름상 초기백제시대 유물을 반출하는 층과 자연스럽게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경사면의 층위는 모두 7개의 층으로 나누어지는데, ①층(지표~20cm)은 표토층인 흑갈색부식토로 조선시대 기와편, 자기편, 도기편이 출토되고 있다. ②층(20~70cm)은 盛土層으로 백자편 1점이 출토되었으며 바로 옆의 남북단면 전개조사 Tr.에서도 같은 높이에서 백자편이 출토되어 조선시대에 이 부분까지 盛土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④층(70~100cm) 역시 盛土層으로 출토되는 유물이 없어 축조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立面 土層과 연결시켜 보면 조선시대 이전에 이미 盛土한 것으로 여겨진다. ⑤·⑥층(100~160cm)은 적갈색점토, 암갈색점토층으로 성토층 최하부를 형성하고 있다. 풍화암반의 削土痕迹이 주거지의 서벽과 연결이 되고 있다.



【도면 6】 북동회랑Tr. 토층도


128m
127.5m
N
S
① 흑갈색부식토(낙엽 및 기화포함층)
② 갈색부식토
③ 황갈색점질토
④ 적갈색부식토(목탄혼입)
⑤ 흑갈색부식토(목탄혼입)
⑥ 황갈색풍화암반층
⑦ 기반암
0
50cm

【도면 7】 남서단면 토층도



【도면 8】 목재단면 도형도

⑥ 銃筒出土地 周邊 土層調査 (도면 9, 사진 9~10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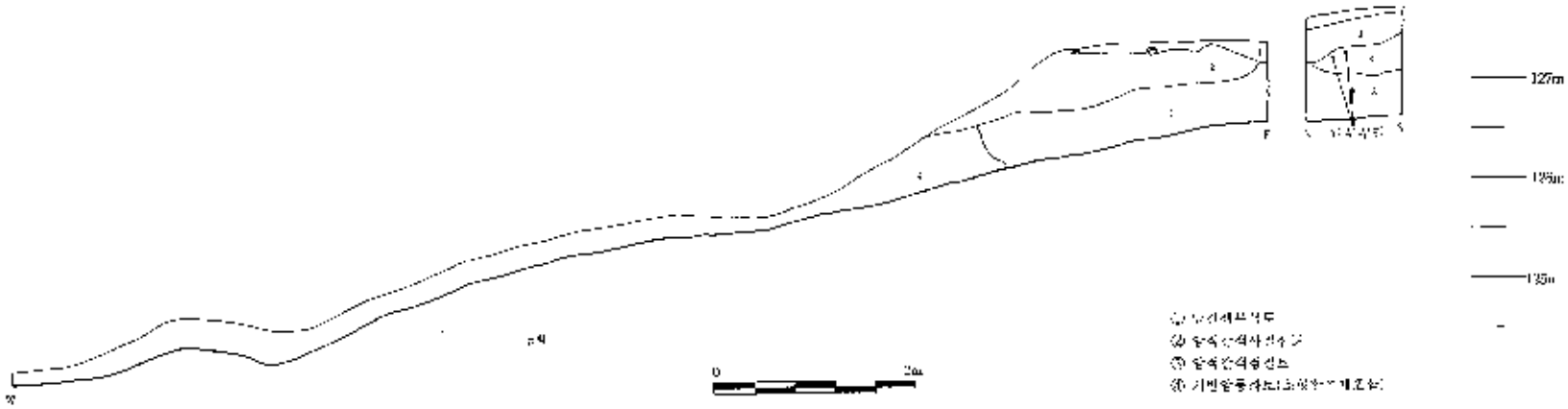
도복공사로 인하여 출토지의 현상이 변경된 상태에서 土層調査를 실시하였다. ①층(지표~30cm)은 암갈색부식토로 조선시대 기와·자기류 등이 출토되는 층위이다. ②층(30~110cm)은 암적갈색사질점토로 유물이 출토되고 있지 않다. ③층(110~130cm)은 암적갈색점질토층으로 銃筒이 출토된 층위이다. ④층(130~210cm)은 기반암풍화토로 소형할석재가 혼입되어 있다. ⑤층(210~280cm)은 기반암층이다

**2) 住居址** (도면 10, 사진 3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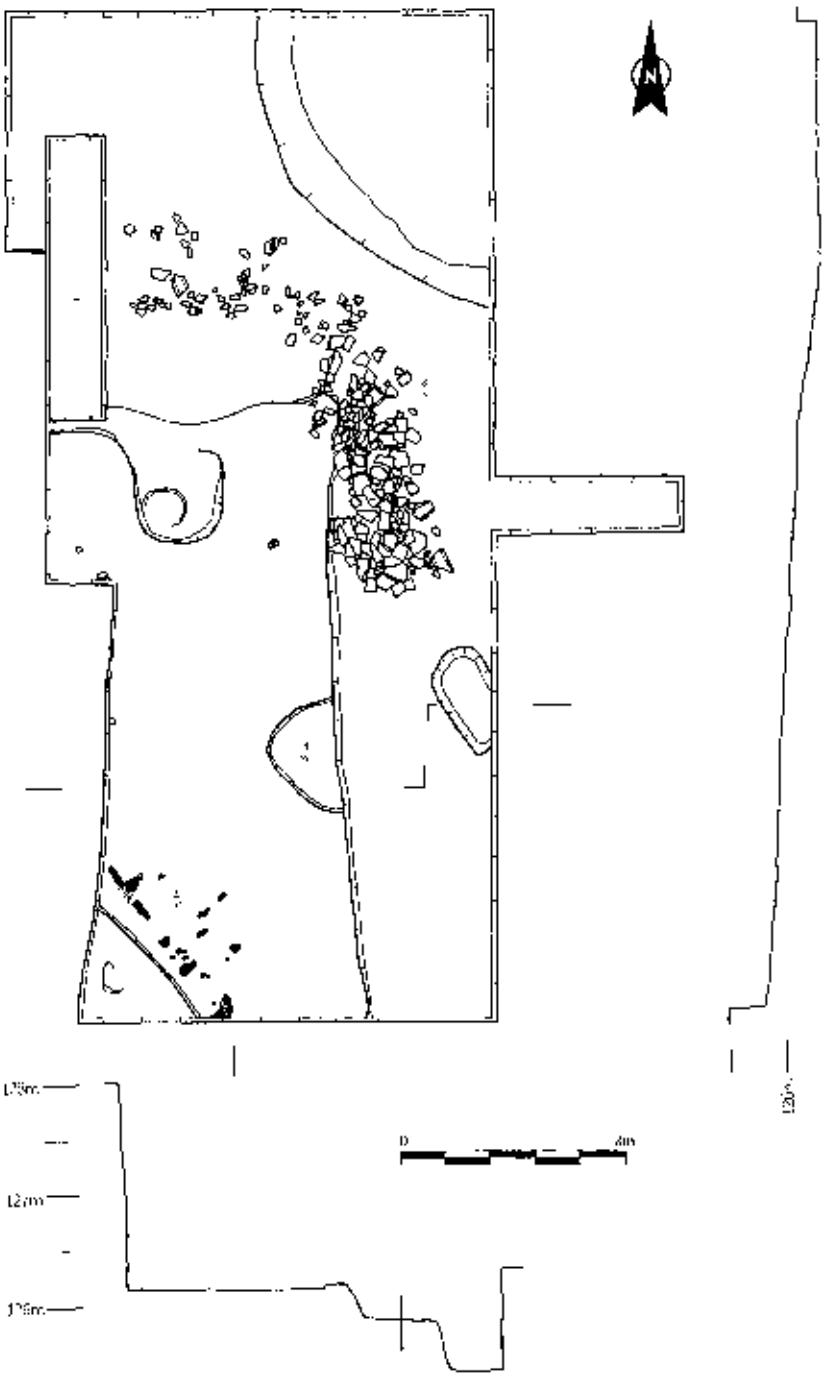
임진산 동쪽에 개설된 도로의 북편에 위치하며 도로개설시 절개된 능선의 단면상에서 확인되었다.

현재 住居址는 서벽과 바닥면 일부만 잔존하고 있는데 크기는 東西 230cm 南北 510cm이고 竪穴 깊이는 20~42cm이다. 내부는 암황갈색사질점토와 석비레가 채워져 있었다. 서벽은 'L'자형으로 掘土하여 조성하였으며 길이는 400cm정도 남아 있다. 벽면 동편으로 길이 90cm, 너비 8~25cm, 깊이 15cm 내외의 홈이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배수를 위한 배려로 여겨진다. 바닥은 석비레층을 평평하게 고른 뒤 그대로 이용하였다. 동편에는 남북방향으로 깊이 30cm 내외의 단이 지고 있으며 중간부분에 길이 100cm, 높이 9~12cm의 燒土와 木炭이 엉겨있는 덩어리가 반원형태로 단에 걸쳐 남아있다. 바닥면에는 크고 작은 기둥구멍과 掘土痕迹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벽면과 단의 가장자리로는 어느 정도 정형성을 보이는 기둥렬이 연결되고 있다. 북편에는 移木作業시 파여진 구덩이가 3군데 남아있어 바닥면을 훼손시켰다

木炭은 남서벽과 평행한 상태로 20cm 떨어져 남아 있으며, 너비 12cm의 목탄과 그 흔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직교하여 3줄의 목탄이 60cm의 등간격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목탄흔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火災로 인하여 廢棄된 住居址임을 알 수 있다. 주거지 남서벽 밖으로는 풍화암반을 掘土한 홈이 벽면과 평행한 상태로 길이 300cm 내외로 3줄이 나아가고 있다. 줄간격은 20cm, 60cm이다. 연결된 단위별 홈의 크기는 길이 50~100cm, 너비 8~15cm, 깊이 7~10cm로 가늘고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 홈은 소형기둥이나 板木을 끼울 수 있도록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기능은 住居址의 防禦나 壁體補强施設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된다. 住居址 내부에서는 백제시대 打捺文土器片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 외곽의 북쪽으로는 동서 1m, 남북 2.5m 정도의 와적층이 확인되었다.




【도면 9】 송통골토지 주변 토층도



【도면 10】 북동화장Tr. 內 주거지 평·단면도

() 出土遺物

· 백제시대 타날문토기류

도면 18-④(사진 109-④)는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의 구연부편이다. 直立口緣으로 口唇은 완만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태토가 매끈하게 정리되지 못해 울퉁불퉁하며 격자문이 타날된 흔적이 보이나 선명하지 않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보이며 군데군데 흙이 묻어 있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도면 18 ⑤(사진 109 ⑤)는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흑색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직립하며 끝을 완만하게 깎은 자국이 남아 있다. 동체가 시작되는 부분에는 격자문이 깊게 타날되어 있으며 격자크기는 0.1×0.2cm이다. 내면에는 미질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운모가 섞여 있는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도면 18 ⑥(사진 109 ⑥)은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直立口緣이며 口唇의 끝은 완만하게 눌러 처리하였다. 내·외면에는 미질흔적이 약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군데군데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3~0.5cm

도면 18-⑦(사진 109-⑦)은 외면과 내면, 속심이 모두 흑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형태는 곧게 직립하였으며 도면 18-④(사진 109-④)과 같은 방식으로 口唇을 완만하게 처리하였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다. 두께 0.3~0.5cm

도면 18-⑧(사진 109-⑧)은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直立口緣으로 口唇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밀면서 완만하게 처리하였으며 손으로 누른 흔적이 보인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약간 섞인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2~0.4cm

도면 20 ⑤(사진 113 ⑤)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된 후 약 0.2cm 정도의 침선이 돌려졌으며 침선의 간격은 1.7~3.0cm이다. 내면에 물레흔은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굵은 석영알갱이가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6cm

도면 21-⑩(사진 114-⑩)은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교차승문이 얕게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도면 23-③(사진 116-③)은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겹치서 타날되이 배일이 정연하지 않으며 정면타날되지 않은 상태이다. 외면의 일부에는 타날된 후 약 0.4cm의 선이 가로로 약하게 돌려진 흔적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도면 23-⑥(사진 116-⑥)은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며 일부는 중복타날되었다. 내면은 물레흔이 약간 관찰되며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다. 두께 0.4~0.6cm

도면 23-⑩(사진 116-⑩)은 외면은 회색을 띠며 내면과 속심은 적갈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타날방향은 일정하지 않으며 마모가 심해 무늬가 선명하지 않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3~0.5cm

도면 23-⑭(사진 117-①)는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된 후 0.3cm 정도의 침선이 2cm의 간격을 두고 돌려졌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도면 23-⑯(사진 117-③)은 외면과 내면은 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깊고 선명하게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약하게 비절한 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5cm

도면 24-②(사진 117-⑩)는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깊고 선명하게 타날되었으나 중복타날되어 격자문의 배열은 정연하지 않으며 타날된 격자문 위로 가로선이 그어져 있다. 내면에 물레흔은 보이지 않으나 깔끔하게 정면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도면 24-③(사진 117-①)은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중복타날되어 격자문의 배열이 정연하지 않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잘 남아 있으나 일부에는 비점흔적도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도면 24-⑤(사진 117-③)는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으로 경부가 약간 남아있다.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잔존부의 형태로 보아 外反口緣인 듯하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중복타날되어 격자문의 배열이 정연하지 않다. 내면은 일부분이 박리된 상태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5cm

도면 24-⑫(사진 118 ③)는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섬처서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해 선명하지 않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6~0.8cm

도면 24-⑬(사진 118-④)은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된 후 0.3cm 정도되는 2조의 침선이 2cm의 간격을 두고 횡으로 돌려졌는데 이 침선은 종방향으로 그어진 침선과 교차하고 있다. 내면에는 정면한 흔적이 약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점토질이다. 두께 0.8~1.1cm

도면 24-⑭(사진 118-⑤)는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해 선명하지 않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두께 0.7~0.8cm

도면 25-④(사진 119-④)는 외면은 회흑색, 내면과 속심은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일부는 타날 후 문질러 자운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6~0.8cm

도면 25-⑦(사진 119-⑦)은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겹쳐서 타날되어 선명하지 않으며 격자문의 배열 또한 정연하

지 않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도면 26-③(사진 120 ③)은 내·외면은 흑색, 속심은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일부는 중복타날되었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태토는 사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도면 26-⑨(사진 120-⑨)는 외면은 회갈색, 내면은 밝은 갈색, 속심은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해 선명하지 않다. 내면은 일부 박리된 상태이며 마모도 심한 편이다. 태토는 운모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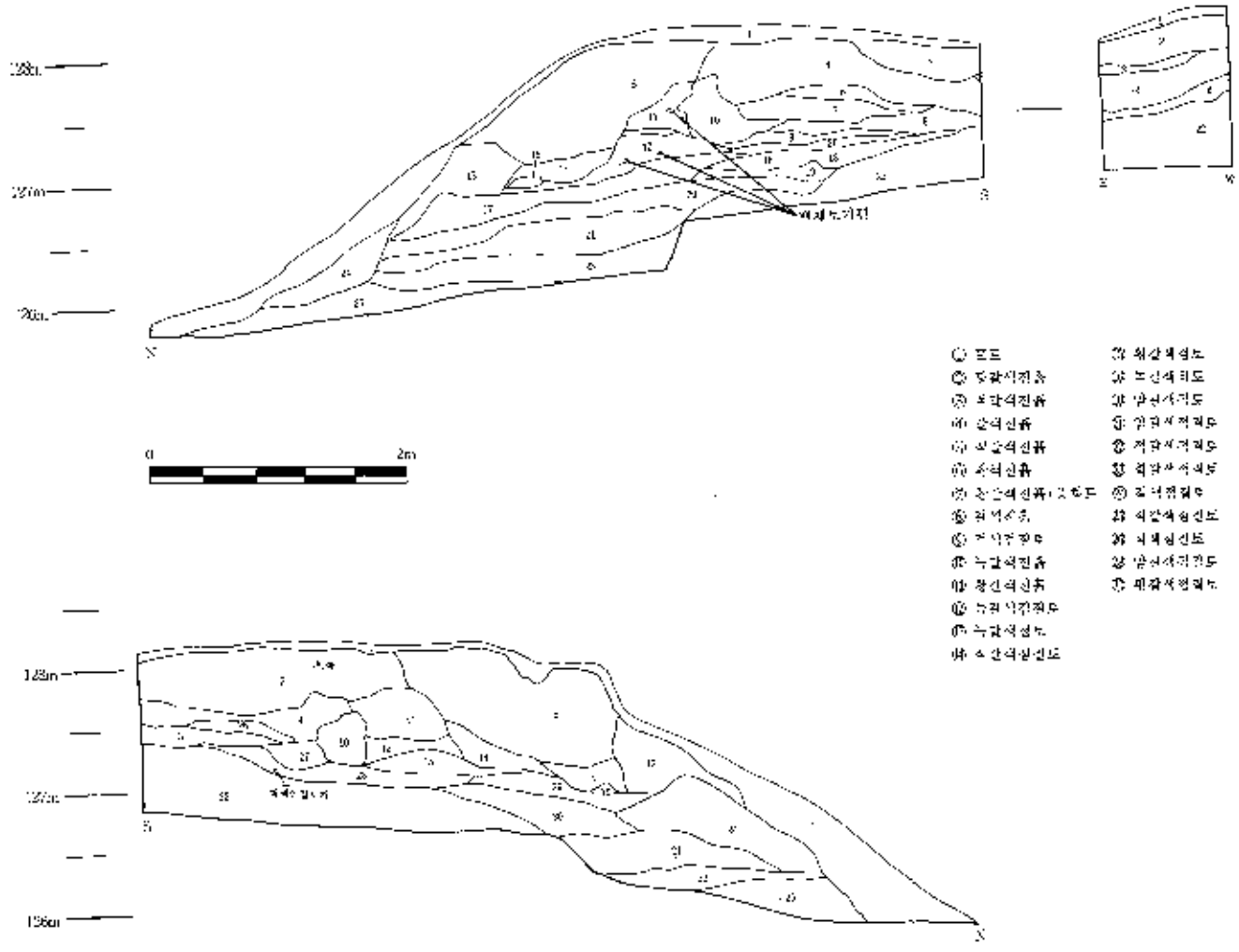
도면 27-⑮(사진 121-⑮)는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해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내면에 물레흔은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3~0.5cm

**3) 城壁** (도면 11, 사진 37~52)

遺蹟의 북쪽 일부에서 확인된 城壁은 3.5m정도만 잔존하여 전체적인 축성방법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남아있는 성토층의 단면을 통해 남에서 북쪽으로 경사진 지형에 城壁을 構築했음을 알 수 있다.

城壁은 생토층에 점질토를 盛土해가며 築造하였는데 우선 경사진 기반암층위에 적갈색점질토를 25cm 두께로 수평을 맞춰 盛土한 뒤 회갈색점질토-목탄혼입층과 암갈색점질토를 다시 그 위에 盛土하였다. 이 두개 층의 바깥을 갈색점질토층이 싸고 있으며 안쪽으로 적갈색점질토와 황갈색점질토가 다시 盛土되어 있다. 위로는 녹갈색점질토와 황갈색진흙층이 나타나는데 이 층내에 백제시대의 타날문토기편이 혼입되어 있다. 기반암층부터 높이 50~55cm까지의 황갈색점질토층까지는 비교적 수평을 맞추어가며 盛土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상부의 바깥으로부터 녹갈색점토층, 적갈색점질토층, 황갈색진흙층, 녹갈색진흙층, 갈색진흙층으로 이루어진 2차 盛土層이 나타난다. 이 盛土層내에서도 백제시대의 타날문토기편을 비롯해 토질토기편들이 혼입되어 나타난다.



【도면 11】 성벽단면 모층도

2차 盛土層의 위를 적갈색진흙층과 황갈색진흙층이 덮고 있으며 그 상면으로 15~20cm 두께의 表土層이 나타난다.

○ 出土遺物

· 자기류

도면 35-⑦(사진135 ①·136-①)은 외반구연의 백자편으로 기종은 대접이다. 태토는 백색의 치밀질이며 유약색은 설백으로 광택이 있다. 구경 18cm

· 철제류

도면 43-⑥(사진 164-③)은 鐵鏃으로 版狀의 鐵片을 윗부분을 말아 양쪽에서 휘어 만들었다. 上端은 끝을 말아 내렸으며 말아내린 바로 밑 중앙에는 자루와 鐵鏃을 고정시켰던 못을 박은 흔적이 남아 있다. 末端部와 자루 삽입부에 木質痕이 많이 남아 있다. 上部의 단면형태는 橢圓形이다.

전체길이 9.5cm　　폭 3.2cm　　두께 0.3~0.4cm

4) 舊地表

정상부 평탄대지에 대한 除土 결과, 정상을 중심으로 基盤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으며 土層 역시 후대의 교란으로 원상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

舊地表의 흔적은 BM에서 북으로 10m 되는 발복을 기준으로 반경 3m내외의 범위를 이루고 있으며 지표하 25~30cm의 적갈색점질토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탄면을 유지하는 암반 위에 일부 남아있는 적갈색점질토층에서는 자기류, 각종 철제유물(矛(도면 43-①·사진 163-①), 刀子(도면 44 ③·사진 165-②))이 안정적으로 출토(사진 57~60)되었다. 또한, 舊地表 南側의 방형 기둥자리에서는 백자편이 출토되었다. 곳곳에 기둥자리로 여겨지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상이 남아 변경된 관계로 정형성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5) 貯藏孔 (도면 12, 사진 53~53)

임잔산 정상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바닥이 좁고 입구가 약간 바라진 'U'자형의 貯藏孔이다. 풍화암반층을 掘土하여 조성하였으며 크기는 입구지름 80cm, 바닥지름 52cm, 깊이 85cm이다.

入口部의 남측으로는 너비 25cm, 길이 30cm, 깊이8~10cm의 방형홈이 入口部

와 연결되어 있다. 내부에는 암적갈색 사질점토가 충진되어 있다. 入口의 33cm 아래에서는 북벽에 붙은 암키와 1매가 세워진 채로 노출되었으며 암키와와 접하여 서벽쪽으로 수키와 1매가 내면을 위로 향한채 남북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또한 주변에 놓여진 할석재는 북편에서 남편으로 陷沒된 형상을 하고 있다. 바닥에서 상면으로 20cm까지는 암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다. 측벽과 바닥은 별다른 시설물없이 석비레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측벽부에서 저장공 조성시의 掘土痕迹이 북쪽에서 남쪽의 사선방향으로 너비 5~8cm의 흠을 두며 12~15cm 간격으로 3조 정도 뚜아간 흔적이 동벽쪽에서 확연히 관찰된다. 貯藏孔 內部에서는 암키와, 수키와, 철환이 출토되었다. 특히 바닥위의 20cm 지점에서 출토된 鐵釘의 머리부분에는 木質痕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木製 施設物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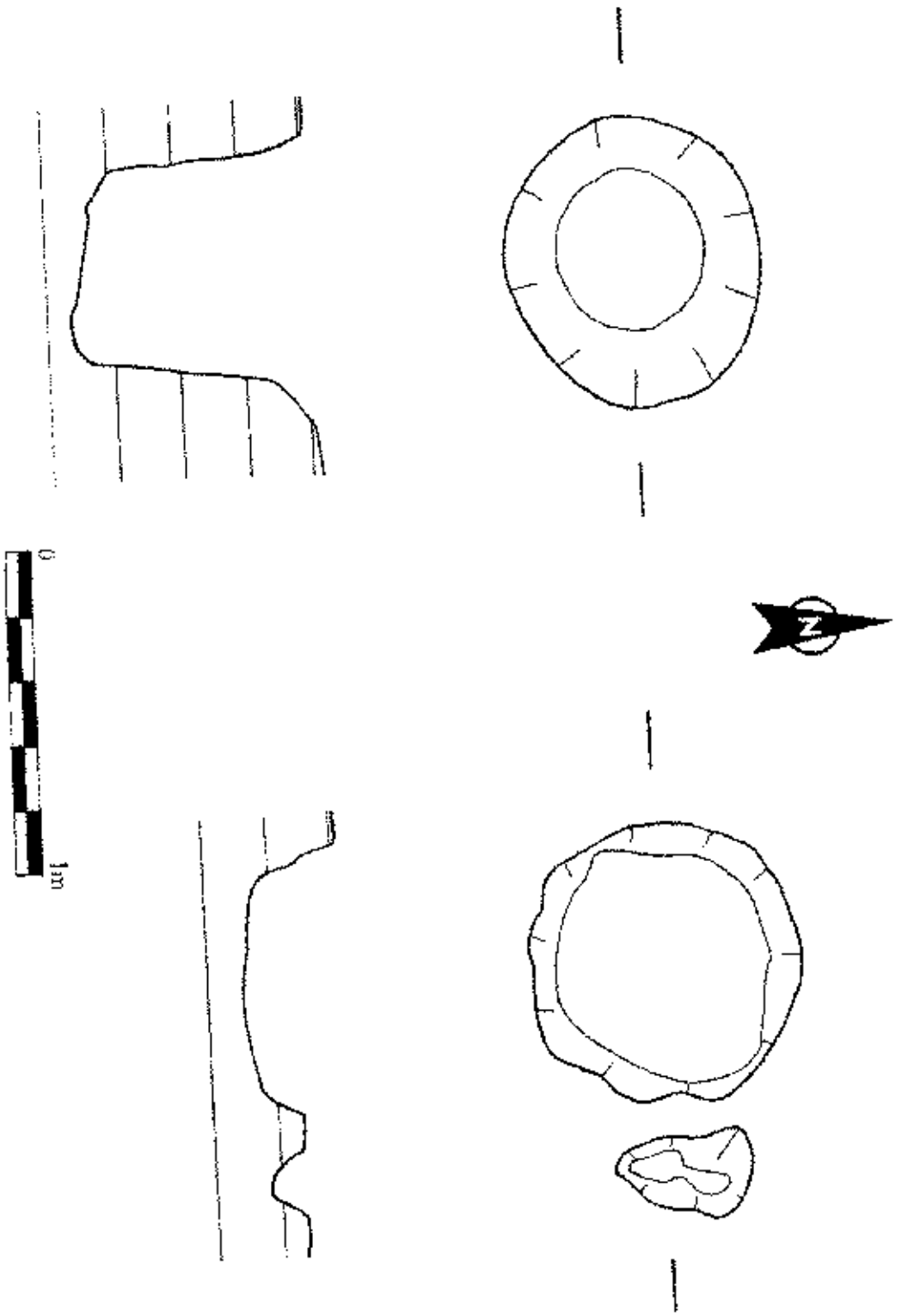
#### · 와류

탑본 1-①(사진 63 ①)은 회백색 경질의 암키와로 모서리 일부가 결실되었다. 바탕흙은 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유적 정상부의 N1W2 Tr.의 원형 저장공내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상하·좌우방향으로 물손질하여 정빈흔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굵은 포목흔이 관찰되는데 잇질흔에 의해 대부분 지워졌고 중앙부에 좌우방향의 포목접합흔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내면의 바탕흙이 고르지 않아 석립이 표면 곳곳에 노출되어 있다. 미구부 4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양 측면 모두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1/4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길이 38.5cm　　너비 35cm　　두께 2~2.5cm

탑본 7 ①(사진 73-①)은 회청색 연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로 내면에는 굵은 석립들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다. 등면 일부에는 폭 5cm 정도의 사문구를 이용해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물손질과정에서 문양의 대부분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해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양 측면 모두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2/3~1/5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분할면을 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27cm　너비 27cm　두께 3cm


0
1m
N

· 철제류

도면 49-㉮(사진 183-㉮)은 총통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철환으로 부식이 심하여 갈라지거나 녹흑이 많이 남아 원형은 잃어버렸다. 단면은 구형을 띠고 있다. 너비 0.9cm 두께 1.0cm

도면 47 ㉯(사진 173 ㉯)은 木質痕이 보이는 칠정이다. 현정 몸통을 중심으로 가운데를 제외한 釘頭와 몸통 상·하단에 횡방향의 木質痕이 많이 남아 있다. 몸통의 중심부분은 많이 부식되었으며 하단부 끝부분은 조금 깨져 휘어져 있어 충격을 받은 듯 하다. 단면형태는 釘頭부-장방형, 釘端部-정방형을 띠고 있다. 길이 5.6cm

**6) 小形遺構**

(1) 小形遺構1 (도면 13, 사진 55)

貯藏孔의 서측 4.5m지점에 위치하는 圓形遺構이다. 풍화암반을 掘土하여 조성하였으며 크기는 암갈자갈 東西 80cm, 南北 83cm, 바닥지름 東西 67cm, 南北 73cm, 깊이 동편 13cm, 서편 25cm이다. 入口部 동편으로는 깊이 40cm, 너비 42cm, 깊이 5~7cm의 양끝의 모를 죽인 방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다.

서북벽으로는 掘土痕跡이 5~10cm, 3~5cm의 크기로 2군데 남아있다. 내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가 충진되어 있었다.

(2) 小形遺構2 (사진 56)

住居址에서 동쪽으로 80cm 지점에 위치한다. 풍화암반을 掘土하여 만들었으며 크기는 동서 60cm, 남북 90cm, 깊이 15cm로 장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7) 現代 砲盜陣地** (사진 19)

임진산 정상부 상면에 대한 제토작업 결과 현대 포대진지로 여겨지는 구조물이 5개소 확인되었다. 이 구조물은 한국전쟁시 이곳이 격전지였음을 방증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M1, MG50 탄피 등이 출토되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포대진지들은 移水作業으로 인해 그 원상이 조금씩 변하였으나 전체적인 형태파악에는 무리가 없다.

## 2. 出土遺物

出土된 遺物들은 青銅器時代~現代까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青銅器時代의 유물로는 無文土器類를 비롯해 半月形石刀, 紡錘車 등이 출토되었고 百濟時代의 打捺文土器片도 확인되었는데 破壞된 住居址 內部와 朝鮮時代 盛土層內에서 출토되었다.

朝鮮時代의 유물로는 移木作業중 발견된 銃筒 2점을 비롯해 鐵製武器類, "大明宣德年製"·"長春佳器"銘 中國製 磁器類·朝鮮白磁類, 青銅片과 金銅片, 瓦類 등이 출토되었다. 그 외에는 정상부 상면의 現代 耕耘地에서 M1, MG50 탄피 등이 출토되었다.

하지만 파괴된 住居址의 바닥면과 貯藏孔 등에서 출토된 일부 유물을 제외하곤 대부분 안정된 層位에서 나온 것이 드물며 대부분 후퇴적 또는 攪亂層에서 출토되었다.

### 1) 瓦類

출토된 기와류는 모두 73점으로 대부분 평기와류이며 그 외 명문기와는 3점, 막새기와류는 한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와는 북동쪽 확장Tr. 바닥면의 와서층에서 출토되었고 유적 정상부 N1W2 Tr.내의 원형 저장공 내에서 완형의 암키와(탑본 1-①, 사진 63-①)·수키와편(탑본 7-①, 사진 73-①)이 천탄환(도면 49-⑰, 사진 183-②)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들 기와를 크게 명문기와와 평기와류로 구분한 후 다시 평기와류를 가 문양별로 분류하고 암·수키와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 (1) 명문기와

탑본 2-①(사진 65-①)은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질로 정선된 편이다.

등면에는 폭 2cm의 방곽을 짜고 방곽주위에 격자문을 배치한 뒤 내부에 "大定..二年"명을 시문하였는데 등면의 마멸이 심한 상태이다. "大定二年"(1162年)은 中

<표 3> 임진산성 출토 기와문 현황표

| 구 분 | 문 양 | | | 계 (%) | |
|---|---|---|---|---|---|
| 명문기와 | 명문 | | 암키와 | 3점 | 3점 (4%) |
| | | | 수키와 | · | |
| | 어골문 | | 암키와 | · | 2점 (3%) |
| | | | 수키와 | 2점 | |
| 평기와 | 집선문 | | 암키와 | 8점 | 18점 (25%) |
| | | | 수키와 | 10점 | |
| | 파노문 | | 암키와 | 2점 | 23점 (31%) |
| | | | 수키와 | 21점 | |
| | 복합문 | 집선문+ 화문 | 암키와 | 6점 | 11점 (15%) |
| | | | 수키와 | 5점 | |
| | | 파도문+ 화문 | 암키와 | 1점 | 2점 (3%) |
| | | | 수키와 | 1점 | |
| | 무늬 | | 암키와 | 13점 | 14점 (19%) |
| | | | 수키와 | 1점 | |
| 계 | | | | 73점 (100%) | |

國 金 世宗(1161~1189) 2年으로 高麗 毅宗 17年에 해당한다. 내면에는 굵은 포목흔이 일부 남아있으나 뚜렷하지 않다. 측변은 와도날 내면에서 동면을 향해 깎고 측면 두께의 1/10정도를 갖고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7.5cm　　너비 6.8cm　　두께 1.5cm

탭본 2 ②(사진 65-②)는 회백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동면에는 폭 6cm 정도의 시문구를 사용해 어골문과 화문의 복합문을 시문한 후 어골문의 가지뻐 부분에 "千司"명을 표현하였는데 "司"명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千司"명은 각 3×3cm의 크기이며 隸書體의 글자체로 陽刻되어 있다. 내면에는 사선방향의 굵은 빗질흔에 의해 포목흔이 대부분 지워졌고 좌우방향의 윤철흔이 선명히 관찰된다. 측면에 접해 폭 0.4cm, 깊이 0.05cm의 분할선이 남아있

다. 측면은 와도날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변 두께의 1/2정도를 갖고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8cm　　너비 18cm　　두께 1.5~2.0cm

탑본 2-③(사진 65-③)은 회백색 경질의 아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6cm의 시문구를 이용해 어골문과 화문을 복합하여 시문한 후 어골문 상면에 "千司"명을 陽刻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대부분 지워졌으며 윤철흔이 선명하게 관찰된다. 측변에 접해 폭 0.4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변 두께의 1/2~1/5정도를 갖고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7.5cm　　너비 15.5cm　　두께 1.4~1.9cm

**(2) 평기와**

**가) 어골문**

탑본 3-①(사진 67-①)은 회갈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석립이 많이 혼입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6cm의 시문구를 이용해 어골문을 시문하였다. 등변 끝단에는 길이 2cm, 두께 1.5cm 정도의 인강부를 매끄럽게 연결하였다. 내면에는 사선방향의 빗질흔에 의해 포목흔이 대부분 지워져 있다. 측변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정도를 갖고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9cm　　너비 12cm　　두께 2.5cm

탑본 3 ②(사진 67 ②)는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 일부에는 폭 4cm의 시문구를 이용해 어골문을 촘촘하게 시문하였다. 등변 끝단에는 길이 2cm, 두께 1.5cm 정도의 인강부를 매끄럽게 연결하였다. 내면에는 굵은 빗질흔이 남아있고 포목흔은 많이 지워져 일부만 남아있는 모습이다. 측변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정도를 갖고 기와를 분할하여 분할면이 거친 상태이다.

잔존길이 9cm　　너비 9cm　　두께 1.7~2.0cm

**나) 집선문**

탑본 4-①(사진 69-①)은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석립이 섞여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상면을 불손질하여 문양이 뚜렷하지 않다. 등면 끝단에는 길이 3.5cm, 두께 1.5cm의 언강부를 매끄럽게 연결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빗살흔, 포목접합흔이 관찰되며 측면에 접해 폭 0.5cm, 길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10 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7cm　　너비 14.5cm　　두께 2.5cm

탑본 4-②(사진 69 ②)는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석립이 많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 일부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잔존부가 적고 상면을 불손질하여 정확한 문양확인이 어려운 편이다. 등면 끝단에는 길이 2.5cm, 두께 1cm의 언강부를 매끄럽게 연결하였다. 언강부를 손으로 눌러가며 정면하여 내면으로 2단의 턱을 이루고 있다. 내면에는 빗질흔과 언강부의 포목접합흔이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2/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는데 와도를 한번에 긋지 못해 2번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13cm　　너비 11cm　　두께 1.3cm

탑본 4-③(사진 69-③)은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기는 석립이 섞여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상면을 불손질하여 문양이 뚜렷하지 않다. 등면 끝단에는 길이 2.5cm, 두께 1cm의 언강부를 매끄럽게 연결하였다. 언강부를 손으로 눌러가며 정면하여 2단의 턱이 형성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사선방향의 굵은 빗질흔, 포목접합흔이 관찰된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는데 분할선이 매우 거칠다.

잔존길이 15cm　　너비 13cm　　두께 2cm

탐본 4 ④(사진 69 ④)는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많이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한 후 등면을 불손질하여 문양을 지웠는데 좌우방향의 문손질흔적이 뚜렷히 나타난다. 등면 상단에는 길이 2.5cm, 두께 1.2cm의 언강부를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연결하였다. 특히 언강부와 등면 접합면의 상단을 손으로 눌러가며 성형하여 'U'자 모양의 홈형태를 띠고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나타나는데 빗질흔과 와도흔으로 인해 일부는 지워진 상태이다. 측면에 접해 분할선이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5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3cm　　너비 12cm　　두께 2cm

탐본 5-①(사진 69-⑤)은 연한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조금 섞여 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 일부에는 폭 6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의 형태는 삼각집선문의 모습이다. 내면에는 상하방향의 빗질흔으로 인해 포목흔은 대부분 지워진 상태이며 포목을 이은 매듭흔이 좌우방향으로 선명하게 관찰된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5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여 분할면이 거칠게 처리하였다.

잔존길이 13.5cm　　너비 12cm　　두께 2~2.5cm

탐본 5-②(사진 69 ⑥)는 회백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7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문양의 모습으로 보아 탐본 5-①(사진 69-⑤)기와와 동일문양임을 알 수 있다. 내면에는 희미한 포목흔과 빗질흔이 관찰된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1/6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2.5cm　　너비 9.5cm　　두께 1.6~1.9cm

탐본 5 ③(사진 71 ①)은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석립이 많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등면의 마멸이 심해 문양이 희미해져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내면에는 빗질흔과 측면에 접해 폭 0.6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는데 분할면이 매우 거칠다.

잔존길이 14.5cm　　너비 12cm　　두께 2.1~2.6cm

탑본 6 ①(사진 71-②)은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석립이 많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 일부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상면을 물손질하여 문양이 뚜렷하지 않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굵은 빗질흔이 관찰된다. 미구부 5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정하였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5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9cm　　너비 15.5cm　　두께 1.1~2.3cm

탑본 6 ②(사진 71-③)는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석립이 섞여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4.5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등면은 물손질하여 문양이 뚜렷하지 않다. 미구부 4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에는 빗질흔에 의해 포목흔이 대부분 지워졌다. 측면에 접해 분할선이 남아있으며 미구부 4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양 측면 모두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7cm　　너비 25cm　　두께 2cm

탑본 6 ③(사진 71 ④)은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상면을 물손질하여 문양이 뚜렷하지 않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빗질흔이 관찰된다. 측면에 접해 폭 0.6cm, 깊이 0.2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미구부분 7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6.5cm　　너비 14cm　　두께 1.1~2.3cm

탐본 7-②(사진 73-②)는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석립이 들어간 점토질로 거친 편이다.

등면에는 폭 4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어골문이 변형된 형태의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이 정연하지 않아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다. 내면에는 굵은 삇질흔으로 인해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측면에 점해 폭 0.3cm, 깊이 0.1cm 정도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양 측면 모두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1/4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8cm　　너비 24cm　　두께 2.3cm

탐본 7 ③(사진 73-③)은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4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시문구에 의해 등면에 5단의 각이 져 있다. 미구부분 2.5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다. 내면에는 굵은 포목흔이 일부 나타나며 미구부분 3.5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5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8cm　　너비 17cm　　두께 1.2~2.1cm

탐본 8-①(사진 75-①)은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석립이 들어간 점토질로 정선되지 않아 표면에 석립이 노출되어 있다.

등면에는 폭 4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어골문이 변형된 형태의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바탕흙이 고르지 않아 균열이 많이 일어났고 상하방향의 삇질흔으로 인해 포목흔이 대부분 지워진 상태이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5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는데 분할선이 매우 거칠다.

잔존길이 16cm　　너비 13.5cm　　두께 1.9~2.2cm

탐본 8 ②(사진 75-②)는 회백색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사립이 많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5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일부 남아 있으나 잿질흙으로 인해 대부분 지워진 상태이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9.5cm　　너비 11cm　　두께 1.2~1.5cm

탑본 8-③(사진 75-③)은 회백색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석립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어골문이 변형된 형태의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분양이 정연하지 않아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다. 내면에는 사선방향의 잿질흔과 희미한 포목흔, 좌우방향의 포목집합흔이 나타난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10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2cm　　너비 12.5cm　　두께 1.7cm

탑본 8-④(사진 75-④)는 황갈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사립이 많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분양의 마멸이 심한 편이다. 내면에는 사선방향의 잿질흔과 포목흔이 남아있으며 바탕흙을 빗댄 흔적이 관찰된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분할면은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처리하였다.

잔존길이 12cm　　너비 14.4cm　　두께 2~2.2cm

탑본 8-⑤(사진 75 ⑤)는 회백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사립이 많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5.5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어골문이 변형된 형태의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고운 포목흔과 사선방향의 잿질흔이 관찰된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9.3cm　　너비 10.7cm　　두께 1.6~2.1cm

**다) 파도문**

탐본 1-②(사진 63-②)는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로 언강부 일부가 조금 결실되었다. 바탕흙은 석립이 조금 혼입된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 전면에는 폭 4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파도문을 시문하였다. 등면 양 끝단부의 각 3cm 구간은 물손질하여 문양을 지워냈다. 한쪽 끝단에는 길이 3cm, 두께 1.2cm의 언강부를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연결하였다. 내면에는 좌우방향의 굵은 빗질흔으로 인해 포목흔이 대부분 지워졌고 포목적합흔이 관찰된다. 한쪽 측면에 접해 폭 0.4cm, 깊이 0.2cm의 분할선이 남아있고 미구부 4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양 측면 모두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1/4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길이 34cm　　너비 25cm　　두께 2cm

탐본 9-①(사진 77-①)은 회백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사립이 섞인 점토질로 정선된 편이다.

등면에는 폭 3.5~4cm 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고 상면을 물손질하여 문양 일부를 지워냈다. 등면 끝단에는 길이 2cm, 두께 1cm의 언강부를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연결하였다. 내면에는 상하방향의 빗질흔이 관찰되며 포목흔이 일부 남아있다. 양 측면에 접해 폭 0.3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양 측면 모두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1/4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분할면을 정면하여 매끄럽게 처리하였다.

잔존길이 28cm　　너비 24cm　　두께 2cm

탐본 9-②(사진 77-②)는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질로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등면에는 폭 5.5cm 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고 물손질로 문양 일부를 지워냈는데 좌우방향의 물손질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등면 끝단에는 길이 2cm, 두께 1.4cm의 언강부를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연결하였다. 내면에는 상하방향의 빗질흔이 나 있으며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양 측면에 접해 각각 폭 0.5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양 측면은 모두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1/4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7cm　　너비 23.5cm　　두께 1.5~2cm

탑본 9-③(사진 77-③)은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석립이 약간 들어간 점토질로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등면에는 폭 4cm 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였는데 끝단부분을 불손질해 문양을 지운 흔적이 나타난다. 등면 끝단에는 길이 2cm, 두께 1cm의 언강부를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연설하였다. 양 측면 모두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8cm　　너비 21.5cm　　두께 2cm

탑본 10-①(사진 77-④)은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5cm 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였는데 시문구에 의해 등면에 각이 져 있다. 등면 끝단에는 길이 1.5cm, 두께 1cm의 언강부를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연결하였다. 내면에는 포목집합흔과 굵은 빗질흔이 관찰되며 측면에 접해 폭 0.5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9cm　　너비 21cm　　두께 2cm

탑본 10-②(사진 77-⑤)는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석립이 들어간 점토질로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등면에는 폭 4cm 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였는데 물손질하여 문양 일부를 지워냈다. 내면에는 사선방향의 빗질흔과 포목집합흔이 관찰된다. 양 측면에 접해 폭 0.2cm, 깊이 0.05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양 측면 모두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5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7cm　　너비 22.5cm　　두께 2cm

탑본 10-③(사진 79-①)은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많이 혼입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4cm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였다. 미구부분 2.6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고 상면을 물손질하여 문양 일부를 지워냈다. 내면에는 굵은 포목흔이 관찰되며 빗질흔이 일부 남아있다. 미구부분 4cm 구간

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동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1cm　　너비 18.5cm　　두께 1~2.2cm

탐본 11-①(사진 79-②)은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4cm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였는데 미구부분 3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다. 내면에는 빗질흔이 약하게 관찰되며 길이 12cm 정도의 상하방향의 합전흔이 나타난다. 미구부분 3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6.5cm　　너비 14cm　　두께 1.1~2.3cm

탐본 11-②(사진 79-③)는 회백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3.5~4cm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였다. 시문구에 의해 등면에 4단의 각이 져 있으며 미구부분 3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다. 내면에는 사선방향의 굵은 빗질흔이 남아있으나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미구부분 3cm 구간을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여 측면처리가 매끄러운 편이다.

잔존길이 14.5cm　　너비 13cm　　두께 1~2.1cm

탐본 11-③(사진 79-④)은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사립이 들어간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4cm 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였는데 미구부분 3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다. 내면에는 상하방향의 굵은 빗질흔이 남아 있으며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측면에 접해 폭 0.4cm, 깊이 0.15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미구부분 3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3.5cm　　너비 12cm　　두께 0.9~2.4cm

탑본 11-④(사진 79-⑤)는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3cm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였는데 미구부분 3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일부 남아있으나 박손질로 인해 대부분 지워졌다. 미구부분 3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8.6cm　　너비 13.5cm　　두께 0.9~2cm

탑본 12 ①(사진 81-①)은 표면 회청색, 속심 자주색을 띠는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석립이 조금 섞인 점토질로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등면에는 폭 4cm 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였는데 고온소성으로 인해 등면 전체에 자연유가 배어있다. 등면 끝단에는 길이 3cm, 두께 1.2cm의 언강부를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연결하였다. 내면에는 시선방향의 빗질흔이 나 있으며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측면에 접해 폭 0.4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으며 고온소성으로 내면에도 자연유가 배어나와 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는데 분할면이 매끄러운 편이다.

잔존길이 23cm　　너비 13.5cm　　두께 1.5~2cm

탑본 12 ②(사진 81-②)는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질로 정선된 편이다.

등면에는 폭 4cm 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였는데 물손질로 문양 일부를 지워냈다. 내면에는 상하방향의 굵은 빗질흔과 바탕흙을 접합한 흔적이 관찰되며 포목흔은 일부 희미하게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는데 와도를 한번에 긋지 않고 양쪽 끝방향에서 나누어 각각 1회씩 그은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길이 23.5cm　　너비 12cm　　두께 1.7~2.2cm

탑본 12 ③(사진 81-③)은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사립이 섞인

점토질로 정선된 편이다.

동면에는 폭 3.5cm 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였는데 미구부분 1.5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다. 내면에는 좌우방향의 굵은 빗질흔으로 인해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미구부분 3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측면에 접해 폭 0.4cm, 깊이 0.15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동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4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6.3cm　　너비 15.5cm　　두께 0.9~2cm

탑본 13-①(사진 83-①)은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동면 일부에는 파도문을 시문하였는데 동면을 물손질하여 문양이 뚜렷하지 않다. 미구부분 7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게 관찰되며 일부에서는 빗질흔이 나타난다. 미구부분 7cm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조절하였다. 측면에 접해 폭 0.5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동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4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5.5cm　　너비 14cm　　두께 1~2.4cm

탑본 13-②(사진 83 ②)은 회백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동면에는 폭 4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고 끝단 일부를 물손질하여 문양을 지워냈다. 동면 끝단에는 길이 2.5cm, 두께 1cm의 언강부를 물손질하여 연결하였다. 내면에는 사선방향의 빗질흔으로 인해 포목흔은 대부분 지워졌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동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5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1.5cm　　너비 18.5cm　　두께 2cm

탑본 13-③(사진 83-③)은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동면 일부에는 폭 4.5cm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빗질흔이 관찰되며 포목흔은 대부분 지워졌다. 측변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5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3.5cm　　너비 12cm　　두께 0.9~2.4cm

탐본 14-①(사진 85-②)은 회백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많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파도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의 중복이 심해 시문구와 문양의 정확한 형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내면에는 사선방향의 빗질흔이 관찰되며 상면에 바탕흙을 덧대고 손끝으로 누르며 정변한 흔적도 남아있다. 포목흔은 일부에서 관찰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워진 상태이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5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여 분할선이 비교적 가친 편이다.

잔존길이 12cm　　너비 11cm　　두께 2.2~2.4cm

탐본 14-②(사진 85-①)는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많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4cm 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의 중복이 심한 편이다. 미구부분 2.5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다. 내면에는 좌우방향의 굵은 빗질흔이 나 있으며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미구부분 4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측면에 집해 폭 0.5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측반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4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4.8cm　　너비 12cm　　두께 1~2.1cm

탐본 14 ③(사진 85 ③)은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사립이 조금 포함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6cm 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파도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굵은 포목흔이 관찰되며 상하방향의 빗질흔이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5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1.5cm　　너비 12cm　　두께 2cm

탑본 15-①(사진 85-④)은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석립이 많이 들어간 점토질로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등면 일부에는 폭 5cm 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굵은 와도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좌우방향의 굵은 빗질흔이 남아있다. 미구부분 4.5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정하였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5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1cm　　너비 23cm　　두께 2cm

탑본 15-②(사진 85-⑤)는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와도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이 고르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미구부분 2.5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다. 내면에는 상하방향의 빗질흔이 관찰되며 포목흔은 대부분 지워졌다. 미구부분 2.5cm 구간은 와도로 조금씩 깎아내어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9.7cm　　너비 18.5cm　　두께 1~2.2cm

탑본 15-③(사진 85-⑥)은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여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등면에는 폭 3.5cm 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와도문을 시문하였는데 미구부분 1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다. 내면에는 굵은 빗질흔이 관찰되며 포목흔은 대부분 지워졌다. 미구부분 3.5cm 구간은 와도로 조금씩 깎아내어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여 비교적 가친 편이다.

잔존길이 14cm　　너비 15.5cm　　두께 1~1.7cm

**라) 복합문**

① 집선문+화문

탑본 16-①(사진 87-①)은 회백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석립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집선문과 화문이 배치된 복합문을 중첩되게 시문하여 정확한 문양과

악이 어렵다. 미구부 4cm 구간은 손으로 눌러가며 정번하였고 동면 끝단에는 길이 2cm, 두께 1.3cm의 언강부를 문손질하여 매끄럽게 연결하였다. 내면에는 굵은 포목흔과 포목섬합흔이 관찰된다. 양 측변 모두 와도를 내면에서 동면을 향해 넣고 측변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5cm　　너비 24cm　　두께 2.2cm

탑본 16 ②(사진 87 ②)는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동면에는 집선문과 화문이 배치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이 뚜렷하지 않다. 문양의 형태는 집선문 사이에 직경 2.5cm의 화문이 배치된 모습이다. 미구부 5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다. 내면에는 굵은 포목흔이 관찰되지만 정연하지는 않다. 미구부 4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양 측변에 점해 폭 0.5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양 측면 모두 와도를 내면에서 동면을 향해 넣고 측변 두께의 1/2~1/5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3cm　　너비 22.5cm　　두께 2cm

탑본 16 ③(사진 87-③)은 회백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질로 정선된 편이다.

동면에는 폭 4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집선문과 화문이 배치된 복합문을 중복되게 시문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문양의 형태는 상하방향으로 집선문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직경 4cm 내외의 화문이 들어간 모습이다. 내면에는 빗질흔에 의해 포목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길이 12cm　　너비 11.5cm　　두께 2.3~2.5cm

탑본 17 ①(사진 89-①)은 연한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석립이 뒤어간 점토질로 표면 곳곳에 석립이 노출되어 있다.

동면 일부에는 폭 6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집선문과 화문이 배치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문양은 집선문 사이에 4×4.5cm 크기의 화문이 배치된 모습이다. 내면에는 사선방향의 빗질흔과 포목흔이 관찰되며 좌우방향의 포목섬합흔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16.5cm　　너비 13.5cm　　두께 1.6~2cm

탑본 17-②(사진 89-②)는 회백색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석립이 조금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6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집선문과 화문이 배치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는데 포목흔에 의해 문양이 선명하게 나타나진 않는다. 내면에는 빗질흔에 의해 포목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5cm　　너비 13.5cm　　두께 1.8~2cm

탑본 17-③(사진 89-③)은 회백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석립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6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집선문과 화문이 배치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문양은 집선문이 주문양을 이루고 직경 5cm내외의 화문이 표현된 모습이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되나 마모되어 뚜렷하지 않다.

잔존길이 10.5cm　　너비 10.5cm　　두께 1.8cm

탑본 17-④(사진 89-④)는 연한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일부 섞여 있으나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5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집선문과 화문이 배치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문양의 형태는 집선문과 직경 4cm 내외의 화문이 상하방향으로 배치된 모습이다. 내면에는 고운 포목흔과 좌우방향의 포목접합흔이 관찰된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5.5cm　　너비 5.6cm　　두께 1.8~2cm

탑본 18-①(사진 91-①)은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4cm내외의 시문구를 이용해 집선문과 화문이 배치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 중복이 심한 편이다. 화문의 형태는 직경 4cm의 원형내에 격자문이 배치된 모습이다. 등면 끝단에는 길이 2cm, 두께 1cm의 언강부를 매끄럽게

연결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포목접합흔이 관찰되며 측변에 접해 폭 0.6cm, 깊이 0.15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5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31cm　　너비 15.5cm　　두께 2cm

탑본 18 ②(사진 91 ②)는 회백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로 고르지 못하다.

등면에는 폭 4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집선문과 화문이 배치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시문이 정확하지 않아 집선문의 확인은 어렵다. 화문은 직경 3cm의 원형내에 8개의 꽃잎을 가진 모습이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일부 관찰되며 측면에 접해 폭 0.3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변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3cm　　너비 11cm　　두께 1.8cm

탑본 18-③(사진 91-③)은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조금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6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집선문과 화문이 배치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문양의 형태는 집선문의 중앙부에 화문이 중복타날되어 표현되었는데 정면과정에서 일부는 지워졌다. 등면 윗단에는 길이 2cm, 두께 1cm의 언강부를 비교적 연결하였다. 내면에는 굵은 빗질흔에 의해 포목흔이 대부분 지워졌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변 두께의 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0cm　　너비 14cm　　두께 1.5cm

탑본 19 ①(사진 93 ①)은 회백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석립이 약간 혼입되었지만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 일부에는 집선문과 화문이 배치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문양의 형태는 파도문의 가운데에 직경 3.5cm의 화문이 배치된 모습이다. 내면에는 굵은 빗질흔에 의해 포목흔이 대부분 지워졌고 포목접합흔이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2/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5cm　　너비 17cm　　두께 1.6~1.9cm

② 파도문+화문

탑본 19-②(사진 93-③)는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 일부에는 파도문과 화문이 배치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이 뚜렷하지 않아 정확한 문양확인이 어렵다. 내면에는 굵은 포목흔과 빗질흔이 관찰되며 미구부 2.5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정하였다. 측면은 와도한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3cm　　너비 14.5cm　　두께 1~1.7cm

탑본 19-③(사진 93 ②)은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폭 4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파도문과 화문이 배치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중복이 심한 편이다. 문양의 형태는 파도문과 원안에 격자문이 표현된 화문으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빗질흔이 일부 나타나는데 바탕흙을 덧대 대부분 지워졌다. 측면에 점해 폭 0.3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4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8.4cm　　너비 8.5cm　　두께 1.8~2cm

**바) 무문**

탑본 20-①(사진 95-①)은 회백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잔 석립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본래 문양을 시문한 후 정면하는 과정에서 물손질을 통해 문양을 지워냈고 등면 전체에 물손질흔적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좌우방향의 굵은 빗질흔이 남아있고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측면의 분할면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길이 23cm　　너비 26cm　　두께 1~2.2cm

탑본 20 ②(사진 95-②)는 암갈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문양을 시문하였다가 정면하는 과정에서 문양을 지웠고 물손질흔적

이 등변 곳곳에 나타난다. 내면에는 좌우방향의 빗질흔이 일부 남아있으며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1/4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3.5cm　　너비 18.5cm　　두께 1.1~1.6cm

탑본 20 ③(사진 95-③)은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섞여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상면을 물손질하여 일부에 물손질흔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굵은 빗질로 인해 포목흔은 대부분 사위졌다. 미구부 2.5cm 구간은 와도로 깎아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9.2cm　　너비 10.6cm　　두께 1.4~2.4cm

탑본 21 ①(사진 97-①)은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굵은 석립이 들어간 점토질로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등면에는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고 희미한 빗질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전반에 빗질흔이 남아있으며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내면의 측면으로 손누름 자국이 선명히 관찰되며 측면에 섬해 폭 0.2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양 측면 모두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1/10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1cm　　너비 31.5cm　　두께 1.3~2cm

탑본 21 ②(사진 97 ②)는 회백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섞여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일부를 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빗질흔에 의해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으며 14cm 간격으로 2개소의 포목집합흔이 나타난다. 측면에 섬해 폭 0.4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는데 와도를 한번에 긋지 못해 2번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20.5cm　　너비 12cm　　두께 1.5~2.3cm

탑본 21-③(사진 97-③)은 적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들어간 점토질로 정선된 편이다.

등면에는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물손질하였는데 손누름자국이 3~4개소 나타난다. 내면에는 좌우방향의 빗질흔으로 인해 포목흔은 대부분 지워졌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2.5cm　　너비 10cm　　두께 2.2cm

탑본 22-①(사진 97-④)은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석립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상면을 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등면 끝단부를 손으로 눌러가며 정면하여 'U'자형의 홈을 만들었다. 내면에는 사선방향의 빗질흔이 관찰되며 포목흔은 남아있지 않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4cm　　너비 19cm　　두께 1.8cm

탑본 22-②(사진 97-⑤)는 흑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빗질흔에 의해 포목흔은 대부분 관찰되지 않는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3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0.5cm　　너비 15.5cm　　두께 1.7~2.3cm

탑본 22-③(사진 99-①)은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내림면 중앙과 등면의 접합부를 손으로 눌러가며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빗질흔이 관찰되며 물손질로 인해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10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와도가 닿지 않은 부분을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15.5cm　　너비 21cm　　두께 1.7~2cm

탑본 23-①(사진 99-②)은 회백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본래 문양을 시문하였으나 상면을 물손질하여 문양을 지워냈다. 등면 끝단부를 손으로 눌러가며 정면하여 'U'자형의 홈을 만들었다. 내면에는 빗질흔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측변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1cm　　너비 19.5cm　　두께 1.8cm

탑본 23-②(사진 99-③)는 회백색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많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등면 끝단부를 손으로 눌러가며 정면하여 'U'자형의 홈을 만들었다. 내면의 포목흔은 대부분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길이 5.5cm　　너비 6.5cm　　두께 1cm

탑본 23-③(사진 99-④)은 회백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사립이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본래 문양을 시문하였으나 상면을 물손질하여 문양을 지워냈다. 등면 끝단부를 손으로 눌러가며 정면하여 'U'자형의 홈을 만들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측변은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 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9cm　　너비 11cm　　두께 1.6cm

탑본 23-④(사진 99-⑤)는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립이 들어간 점토질로 정선된 편이다.

등면에는 본래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등면 끝단에는 길이 3cm, 두께 1.3cm의 인강부를 매끄럽게 연결하였다. 인강부 상면을 절함하고 1/2정도를 손으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U'자 홈처럼 나타난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일부는 빗질흔에 의해 지워졌다.

잔존길이 18cm　　너비 19cm　　두께 2.5cm

### 2) 土器類

土器類는 無文土器類와 百濟土器類, 陶器類등이 출토되었다. 그 중 無文土器類와 百濟土器類는 북사면에서 주로 보여지며 특히 북동단면 확장Tr.내의 파괴된 住居址 주변과 城牆의 盛土層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류 중에서는 百濟土器類가 142점으로 가장 많으며 개체수와 점유율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임진산성 출토 토기류 현황표

| 구 분 | | 계 (%) | |
|---|---|---|---|
| 무문토기류 | 구 연 부 | 10점 (4.9%) | 28점 (14%) |
| | 동 체 부 | 14점 (6.9%) | |
| | 저 부 | 4점 (1.9%) | |
| 백제토기류 | 구 연 부 | 19점 (9.4%) | 142점 (70%) |
| | 동 체 부 | 120점 (59.2%) | |
| | 저 부 | 3점 (1.5%) | |
| 도기류 | 구 연 부 | 22점 (10.9%) | 33점 (16%) |
| | 동 체 부 | 4점 (1.9%) | |
| | 저 부 | 6점 (2.9%) | |
| | 파 수 부 | 1점 (0.5%) | |
| 계 | | 203점 (100%) | |

#### (1) 無文土器類

무문토기류는 지표와 북동확장Tr. 주변에서 주로 출토되었는데 적은 양이지만 비교적 여러 기종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완형이 거의 없는 관계로 부위별로 나누어 口緣部, 胴體部, 底部의 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 ○ 구연부류

도면 14-①(사진 101-①)은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고 속심은 흑색을 띠는 구

연부편이다. 구연은 直立口緣이며 口唇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口唇의 약 0.8cm 아래에 지름 0.4cm의 구멍이 밖에서 안으로 완전히 透孔되었다. 기벽의 두께는 동체부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다. 현재 구연부에 잔존하는 孔列은 3개이다. 내·외면에는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정면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로 소성도는 연질이다.

두께 0.3~0.8cm　흙토지 지표

도면 14-②(사진 101-②)는 흑갈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直立口緣이며 口唇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口唇의 약 0.8cm 아래에 지름 0.4cm의 구멍이 밖에서 안으로 완전히 透孔되었다. 기벽의 두께는 동체부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다. 현재 구연부에 잔존하는 孔列은 2개이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소성도는 연질이며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두께 0.5~0.7cm　흙토지 지표

도면 14 ③(사진 101 ③)은 구연부편으로 내·외면은 황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을 띤다. 口唇은 약간 기울어져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口唇에서 약 1.0cm 아래 지름 4.0cm의 구멍 2개가 밖에서 안으로 완전히 透孔되었다. 내·외면은 물손질에 의해 깔끔하게 정면되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로 연질이다.

두께 0.4~0.9cm　흙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4 ④(사진 101 ④)는 외면은 회흑색, 내면은 황갈색을 띠고 속심은 흑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孔列이 뚫려 있는 부분에서 절실되어 일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孔列은 3개가 보이는데 바깥에서 안쪽으로 완전히 透孔되었다. 표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木刷痕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로 연질소성되었다.

두께 0.6~0.8cm　흙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4-⑤(사진 101-⑤)는 구연부편이다. 외면은 황갈색, 내면은 암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갈색을 띠고 있다. 구연은 口唇에서 약 2cm 정도에서 약간 내경하고 있으며 口唇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전면에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나 시문구를 이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내면에 구순부는 물손질이 잘 되어 있으

나 전체적으로 거칠게 정면되어 석영알갱이들이 돌출된 상태이다. 태토는 운모와 장석이 약간 섞인 점토로 연질이다.

두께 0.6~0.8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4 ⑥(사진 101 ⑥)은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口脣은 대부분 박리된 상태이나 잔존부위로 보아 둥글게 처리된 것으로 추측된다. 구연부의 기벽은 동체부로 내려갈수록 두꺼워진다. 내면은 물손질로 인한 정면흔적이 일부 보이며 마모가 심해 석영알갱이가 많이 돌출되어 있다. 태토는 석영과 운모가 섞인 점토로 연질이다.

두께 0.3~0.6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4 ⑦(사진 101 ⑦)은 황갈색을 띠는 구연부편으로 속심은 흑색을 띠고 있다. 구연은 直立口緣이며 口脣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기벽의 두께는 일정하다. 내면에는 상하로 木理같기한 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이다.

잔존길이 5.7cm　두께 0.5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4 ⑧(사진 101 ⑧)은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口脣은 둥글게 처리되어 있으며 구연은 약 40° 각도로 짧게 외반되었다. 기벽은 동체부로 내려갈수록 두꺼워진다. 내·외면은 모두 물손질에 의해 정면되었으며 내면은 부분적으로 석영알갱이들이 노출되어 있다. 태토는 가는 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추정구연지름 18.0cm　두께 0.3~0.6cm　출토지 N2E1 Tr.

도면 14 ⑨(사진 101 ⑨)는 외면은 황갈색, 내면과 속심은 적갈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口脣은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구연은 약 45° 정도의 각도로 짧게 외반하였다. 기벽은 口脣에서 동체부로 내려갈수록 두꺼워진다. 내면은 모두 물손질에 의해 정면되었다. 태토는 가는 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추정구연지름 22.0cm　두께 0.5~1.0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5-①(사진 101-⑩)은 적갈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약 45° 로 외반하였으며 口脣은 비교적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에 의해 정

면되었으며 외면은 동체부로 내려갈수록 마모가 심해 굵은 석립이 돌출되어 있다. 내면은 가로·세로 방향으로 희미하게 木板긁기한 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추정구연지름 14.0cm　두께 0.4~1.0cm　출토지 N2E1 Tr.

○ 동체부편

도면 15-②(사진 101-①)는 동체부편으로 내·외면은 회백색을 띠며 속심은 흑갈색을 띠고 있다. 내·외면은 모두 물손질에 의해 정면되었으며 木板를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윤모와 석영이 섞인 점토이다.

두께 0.5~1.0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5-③(사진 102-①)은 전체적으로 흑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내·외면은 모두 물손질에 의해 정면되었으며 내면은 박리상태가 심하여 선명에 굵은 석립들이 돌출되어 있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이다.

두께 0.3~0.5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5-④(사진 102-②)는 외면은 황갈색을 띠며 내면과 속심은 암갈색을 띠고 있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일부분에서는 약하게 木理痕이 보인다. 내면은 박리상태가 심해 정면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며 굵은 사립이 전면에 돌출되어 있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많이 혼입된 점토이다.

두께 0.4~0.7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5 ⑤(사진 102 ③)는 동체부편으로 내면은 흑색, 속심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외면은 소성시 발생한 그을음이 반달모양으로 나뉘어 보이고 있다. 전면에 물손질을 하였고 木理痕이 약하게 보인다. 내면은 외면보다 木板긁기한 흔적이 뚜렷히 보이며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태토는 윤모가 약간 섞여 있지만 정선된 점토로 소성도는 연질이다.

두께 0.4~0.6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5 ⑥(사진 103 ①)은 전체적으로 흑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한 후 木板긁기한 흔적이 전면에 약하게 보이며 방향은 일정하지 않

다. 하단부에는 기벽위로 굵은 모래가 돌출되어 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횡방향으로 돌려가며 木理로 굵은 흔적이 남아 있다. 하단부에는 마모가 심해 굵은 모래가 돌출되어 있다. 태토는 석영과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이다.

두께 0.5~0.9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5-⑦(사진 103-②)은 내·외면은 황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내·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외면의 경우 木理痕이 사선방향으로 약하게 남아 있다. 내면은 기벽에 사립이 노출되어 있다. 태토는 석영이 많이 섞인 점토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두께 0.5~0.7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5-⑧(사진 103-③)은 흑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전면에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해 굵은 사립이 돌출되어 있다. 내면은 박리가 심한 상태이다. 태토는 굵은 모래가 섞인 점토이다.

두께 0.4~0.6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6-①(사진 104-①)은 암갈색과 흑색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약하게 木理로 굵은 흔적이 보인다. 木理굵기한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내면은 물손질을 전체적으로 하였으며 횡방향으로 木理를 이용하여 굵은 흔적이 나타나 있다. 하단부에는 물손질한 면이 박리되어 굵은 사립이 돌출되어 있다. 태토는 석영이 많이 혼입된 점토이다.

두께 0.3~0.9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6-②(사진 104 ②)는 외면은 황갈색, 내면은 흑색, 속심은 회백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외면의 상단부에는 빗자로 두드린 흔적이 보인다. 내면에는 木理로 굵은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며 木理痕의 방향은 가로방향이다. 태토는 석영과 운모가 약간 섞인 점토이다.

두께 0.7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6 ③(사진 104-③)은 외면은 회백색을 띠고 내면과 속심은 흑색인 동체부편이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에 의해 정면되었으며 木理굵기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운모가 약간 섞인 점토이다.

두께 0.7~1.1cm　출토지 N2W3 Tr.

도면 16-④(사진 104-④)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회흑색, 내면과 속심은 흑갈색을 띠고 있다. 잔존해 있는 동체부의 상단부에 살짝 외반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남아 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나 시문이 노출되어 있다.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木理紋기한 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이다.

두께 0.4~0.9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6 ⑤(사진 104-⑤)는 외면은 황갈색을 띠며 내면과 속심은 흑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에 의해 정면되었으며 외면에는 木理紋기한 흔적이 희미하게 보인다. 태토는 운모가 약간 섞인 점토이다.

두께 0.6~0.8cm　출토지 N2W2 Tr.

도면 16 ⑥(사진 104-⑥)은 외면은 황갈색을 띠며 내면과 속심은 흑색인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물손질을 하였으며 일부 석영알갱이들이 돌출되어 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한 뒤 木理紋기한 흔적이 선명하게 보인다. 태토는 시영과 운모가 약간 섞인 점토로 연질이다.

두께 0.7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6 ⑦(사진 104-⑦)은 내면과 속심이 흑갈색을 띠고 있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황갈색을 띠며 木理紋기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내·외면 모두 물손질에 의해 정면되었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두 곳에서 나타난다. 태토는 운모와 상석이 약간 섞인 점토이다.

두께 0.7~1.0cm　출토지 N2W3 Tr.

### ○ 저부류

도면 17-①(사진 105)은 저부편으로 외면과 속심은 황갈색을 띠며 내면은 흑갈색을 띠고 있다. 저부는 중앙부가 오목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대부분 결실되어 추정하기 힘들며 일부에서는 糊土한 흔적이 보인다. 동체부에는 박자로 두드린 흔적이 보인다. 내면은 비교적 일정하게 횡방향으로 선명한 木理紋기한 흔

적이 나타나 있다. 태토는 운모가 약간 섞여 있지만 정선된 점토이다.
두께 0.5~0.9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7-②(사진 106-①)는 선체저으로 황갈색을 띠는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平底이며 일부만 잔존해 있는 상태이다. 바닥은 동체부와 곧바로 연결되며 외면에는 깍기기법에 의해 정면된 흔적이 보인다. 내면은 물손질에 의해 정면되었으나 일부는 박리되어 석영알갱이들이 노출되어 있다. 태토는 운모와 석영이 많이 섞인 점토이다.
추정저부지름 16.0cm 두께 0.8~1.5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17-③(사진 106-②)은 외면은 회흑색, 내면은 황갈색, 속심은 흑갈색을 띠는 저부편이다. 저부의 형태는 平底이며 바닥에서 곧바로 동체부와 연결된다. 내·외면은 모두 물손질에 의해 정면되었으며 내면은 석립들이 노출되어 있고 일부 指頭痕이 나타난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이다.
추정저부지름 9.0cm 두께 0.6~1.2cm 출토지 N1W3 Tr.

도면 17-④(사진 106-③)는 외면은 적갈색을 띠며 내면과 속심은 흑갈색을 띠는 저부편이다. 저부의 형태는 平底이며 일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내·외면은 모두 물손질에 의해 정면되었으며 내면은 기벽의 일부가 박리되어 석영알갱이들이 돌출되어 있다. 태토는 운모와 석영이 약간 섞인 점토이다.
추정저부지름 10.0cm 두께 0.7~1.4cm 출토지 S1W3 Tr.

### ○ 석기류

도면 17-⑤(사진 107)는 반월형석도로 直背刃형에 가까우며 좌측단에 약간의 결실이 있다. 한쪽면에서 날을 세웠으며 마연흔은 양면에서 관찰된다. 구멍은 양면에서 穿孔하였다. 암질은 사암계통이며 자주빛이 도는 갈색을 띠고 있다. 날은 사용하여 많이 무뎌진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를 경계로 2개의 편으로 나뉘어져 5.5m 거리를 두고 출토되었다.
길이 11.2cm 두께 0.7cm 폭 4.7cm 구멍지름 0.4cm 중량 69g
출토지 N2E1·N2W2 Tr.

도면 17-⑥(사진 108)은 원판형의 석제방추차이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청색이지만 부분적으로 흑색을 띠는 부분도 있다. 단면은 중간부분이 약간 볼록한 장방형이다. 암질은 사암계통이며 양쪽면에 마연흔이 관찰된다.

지름 5.3cm 구멍지름 0.9cm 두께 0.8cm 중량 42g 출토지 N2E1 Tr.

### (2) 打製土器類

打製土器類는 打捺文土器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기의 파편으로 출토되었다. 따라서 기형복원이 되는 것은 적으며 주로 동체부 중심이다. 태토는 고운 점토질이며 사질성 점토를 사용한 것도 상당수 보인다. 여기서는 부위별로 口緣部, 胴體部, 底部 순으로 기술하며, 수량이 많은 동체부는 문양별로 나누어 유사승석문, 승문, 교차승문, 격자문, 사격자문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구연부류

도면 18-①(사진 109 ①)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거의 직립이며 구연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승석문이 0.2cm 간격으로 타날되어 있으나 거의 시위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내면에 물레흔은 남아 있지 않다. 태토는 점토질로서 아주 작은 운모가 섞여 있다.

구연추정지름 14.8cm 두께 0.4~0.5cm 출토지 N1W3 Tr.

도면 18 ②(사진 109 ②)는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되었고 口唇은 원권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물레흔이 보인다. 태토는 약간의 운모와 균데균데 아주 작은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는 점토질이다.

두께 0.6~0.8cm 출토지 N2W3 Tr.

도면 18-③(사진 109 ③)은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밝은 갈색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직립하다가 끝이 살짝 외반된 형태이며 口唇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물레흔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굵은 석영알갱이가 보인다. 태토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석영알갱이와 장석이 섞여있는 모래질이다.

구연추정지름 16.4cm　　두께 0.5~0.6cm　　출토지 N2E1 Tr.

도면 18-⑨(사진 109-⑨)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며 속심은 검은색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많이 깨져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판판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형태는 外反口緣이다. 외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물레흔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군데군데 비짐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점토질이며 약간 굵은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구연추정지름 16cm　　두께 0.5~0.7cm　　출토지 S1W3 Tr.

도면 18-⑩(사진 109-⑩)은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直立口緣으로 口脣은 내면쪽으로 비스듬히 다듬어 처리하였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N2W3 Tr.

도면 18-⑪(사진 109-⑪)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外反口緣으로 口脣은 편편하게 눌러서 처리하였다. 구연의 단면형태는 사각형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물레흔이 약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여 있지만 정선된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28.2cm　　두께 0.4~0.5cm　　출토지 N2E1 Tr.

도면 18-⑫(사진 110-①)는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하였고 口脣은 판판하게 눌러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남아 있고 내면에는 비짐흔적도 보인다. 태토는 점토질로서 운모와 군데군데 작은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구연추정지름 13.6cm　　두께 0.6cm　　출토지 N2W3 Tr.

도면 18-⑬(사진 110-②)는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작은 석영알갱이가 섞여있는 점토질이다. 구연부는 동체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구연에서 약간 외반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동체에서 구연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손으로 누른 흔적이 남아 있다. 외면에는 동체가 시작하는 부분에 격자문이

약하게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보이며 군데군데 갈라져 있다.

구연추정지름 7.4cm　구순두께 0.5cm　두께 0.3~0.5cm　출토지 N2E1 Tr.

도면 19 ①(사진 111 ①)은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구연부편이다. 동체는 약간 둥그랗게 올라와 구연부와 연결되며 구연은 급하게 외반하였다. 口脣은 눌리어 판판하게 처리하였다. 구연 아래로 가로방향의 얇은 음각선이 돌아간다. 외면에는 승석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남아 있는데 내면에는 군데군데 손으로 누른 자국이 보인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28cm　구연너비 0.5cm　구연두께 0.5cm　두께 0.3~0.5cm

출토지 N2E1 Tr.

도면 19 ②(사진 111-②)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직립에 가깝다. 외면에는 동체부가 시작되는 부분에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한 편이다. 태토는 굵은 석영알갱이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7cm　출토지 N2W3 Tr.

도면 19-③(사진 111-③)은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되었으며 口脣은 판판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동체부가 시작하는 부분에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시표

도면 19 ④(사진 111-④)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며 속심은 검은색인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되었으며 口脣은 비교적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동체부가 시작되는 부분에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한 편이다. 내면에 물레흔은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석영알갱이와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3~0.5cm　출토지 N2W1 Tr.

도면 19-⑤(사진 111-⑤)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되었으며 口脣은 판환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N1W3 Tr.

○ 동체부편

· 유사승석문

도면 19-⑥(사진 112)은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인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잘고 정연하게 배열된 유사승석문이 선명하게 시문되어 있다. 승문이 타날된 후 약 0.3cm 정도의 얇은 침선이 돌려졌다.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남아 있으며 내면에는 정면한 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3~0.6cm　출토지 N1E2 Tr.

도면 20-①(사진 113-①)은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승문이 얕지 타날된 후 약 0.2cm 정도의 침선이 돌려졌으며 침선의 간격은 0.9cm이다. 태토는 굵은 석영알갱이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6~0.7cm　출토지 N1W2 Tr.

도면 20-②(사진 113-②)는 외면은 적갈색을 띠며 내면과 속심은 회갈색인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깊고 선명하게 타날된 후 약 0.2cm 정도의 침선이 돌려졌다. 태토는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N2E1 Tr.

도면 20-③(사진 113-③)은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노끈이 감긴 막자에 의해 타날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승문은 먼지 타날된 뒤 0.2~0.3cm 정도의 침선이 돌려졌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2~0.4cm　출토지 N1W3 Tr.

도면 20-④(사진 113-④)는 외면은 회갈색, 내면은 흑색, 속심은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된 후 약 0.7cm 정도의 침선이 돌려졌다. 전체적으로 마모된 상태이다. 태토는 운모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7cm　출토지 N1W2 Tr.

도번 20 ⑥(사진 113-⑥)은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된 후 약 2.5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침선이 돌려졌다. 태토는 운모가 섞인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cm　출토지 N1W3 Tr.

도번 20-⑦(사진 113-⑦)은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된 후 약 0.2cm 정도의 침선이 1cm의 간격을 두고 돌려졌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7cm　출토지 N1W3 Tr.

도번 20-⑧(사진 113-⑧)은 외반은 회갈색을 띠며 내면과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약간 기울어지게 타날된 후 약 0.3cm 정도의 침선이 돌려졌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한 편이다. 태토는 운모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7cm　출토지 S1W3 Tr.

도번 20-⑨(사진 113-⑨)는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된 후 0.1~0.2cm 정도의 침선이 돌려졌다. 태토는 굵은 석영안갱이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N2W3 Tr.

도번 20 ⑩(사진 113 ⑩)은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된 후 0.2~0.3cm 정도의 침선이 약 1.5cm의 간격으로 돌려졌다. 태토는 운모가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7cm　출토지 N2W3 Tr.

도번 20-⑪(사진 113-⑪)은 외면은 흑색, 내면은 회흑색, 속심은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된 후 약 0.1cm 정도의 침선이 교차하며 돌려져 있다. 내면에 물테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N1W3 Tr.

도면 20-⑫(사진 113-⑫)는 외면과 속심은 회백색, 내면은 회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된 후 0.1~0.2cm 정도의 침선이 0.8cm 간격으로 돌려졌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N1W1 Tr.

도면 20-⑬(사진 113-⑬)은 외면은 적갈색, 내면과 속심은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된 후 0.3cm 정도의 침선이 2cm의 간격으로 돌려졌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5cm　출토지 S1W3 Tr.

도면 20-⑭(사진 113-⑭)는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된 후 0.2cm 정도의 침선이 약 0.8cm의 간격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졌다. 태토는 작은 석영알갱이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N1W3 Tr.

· 승문

도면 21-①(사진 114-①)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가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모래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3~0.5cm　출토지 N1W1 Tr.

도면 21-②(사진 114-②)는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두께 약 0.2cm 정도의 승문이 정연하게 타날되어 있다. 내면의 물레흔은 희미하게 남아있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모래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N2E1 Tr.

도면 21-③(사진 114-③)은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정연한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일부는 문질러 지워졌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와 모래가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3~0.5cm　출토지 지표

도면 21 ④(사진 114-④)는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정연하지 않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많이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다량의 유모와 약간의 장석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3~0.4cm　출토지 N2E1 Tr.

도면 21-⑤(사진 114-⑤)은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정연하게 배열된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일부는 겹쳐 있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두께 0.5cm　출토지 N2E1 Tr.

도면 21-⑥(사진 114-⑥)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배열이 정연한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일부는 겹쳐 있다. 내면에는 일부 손으로 누른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유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3~0.5cm　출토지 N2E1 Tr.

도면 21 ⑦(사진 114-⑦)은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고 속심인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지 않지만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작은 석입알갱이가 많이 섞여 있는 점토질이다.

두께 0.7~0.8cm　출토지 N2E1 Tr.

도면 21 ⑧(사진 114-⑧)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정연하게 배열된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4cm　출토지 지표

• 교차승문

도면 21-⑨(사진 114-⑨)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교차승문이 일부 겹쳐서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유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N2E1 Tr.

도면 21-⑪(사진 114-⑪)은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교차승문이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N2E1 Tr.

도면 21-⑫(사진 114-⑫)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명하게 교차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운모가 약간 섞여 있으나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N1E2 Tr.

도면 21-⑬(사진 114-⑬)은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교차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외면에는 일부 손으로 누른 흔적이 남아있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N2E2 Tr.

도면 21-⑭(사진 114-⑭)는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명하게 교차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일부는 마모되어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는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며 일부 손으로 누른 자국이 남아있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여 있지만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N2E1 Tr.

도면 22-①(사진 115-①)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교차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 일부 손으로 누른 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작은 석영알갱이와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지표

도면 22-②(사진 115-②)는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교차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외면 모두 많이 마모된 상태이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7cm　출토지 N1W2 Tr.

도면 22 ③(사진 115-③)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교차층문이 조밀하지 타날되어 있으나 선명한 편은 아니다. 태토는 유모와 석영알갱이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7cm　출토지 N2W3 Tr.

도면 22-④(사진 115-④)는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마모가 심해 선명한 편은 아니나 교차층문이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많은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N2E1 Tr.

도면 22 ⑤(사진 115-⑤)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명하게 교차층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의 일부에는 손으로 누른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5~0.7cm　출토지 N2E1 Tr.

도면 22 ⑥(사진 115-⑥)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명하지 않지만 교차층문이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유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6~0.7cm　출토지 N2W3 Tr.

도면 22-⑦(사진 115-⑦)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조밀하게 교차층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일부 손으로 누른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와 석영이 다량 혼입된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7cm　출토지 N2W3 Tr.

**· 격자문**

도면 23 ①(사진 116 ①)은 외면은 밝은 갈색과 회흑색, 내면과 속심은 밝은 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세격자문이 정연하게 타날되어 있고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일부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와 작은 석영알갱이가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8~0.9cm　출토지 N2W3 Tr.

도면 23-②(사진 116-②)는 외면은 회흑색, 내면은 회색, 속심은 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는데 타날된 방향이 다르며 일부 시위져 있다. 내면에는 일부 박리현상이 보인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지표

도면 23 ④(사진 116-④)는 외면은 회흑색을 띠며 내면과 속심은 밝은 갈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3~0.4cm　출토지 N2E1 Tr.

도면 23-⑤(사진 116-⑤)는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일부가 마모된 상태이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8~1.0cm　출토지 지표

도면 23 ⑦(사진 116-⑦)은 외면과 내면은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세격자문이 정연하게 타날되어 있고 군데군데 박리된 상태이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일부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7~0.9cm　출토지 지표

도면 23-⑧(사진 116 ⑧)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해 선명하지 않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6~0.7cm　출토지 N1W2 Tr.

도면 23-⑨(사진 116-⑨)는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을 타날한 후 2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내면은 물레흔이 있으며 태토는 정선

되었다.

두께 0.4~0.6cm　출토지 N2W3 Tr.

도면 23-⑪(사진 116-⑪)은 외면과 내면은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손질한 격자문이 있고 선명하게 타날되었으며 격자문 위로 침선이 그어졌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보이며 약하게 마진한 흔적도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cm　출토지 N1W2 Tr.

도면 23-⑫(사진 116 ⑫)는 외면과 내면은 회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타날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내면은 일부 박리된 상태이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N1E1 Tr.

도면 23-⑬(사진 116 ⑬)은 외면은 회흑색, 내면은 회흑색과 적갈색,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정연하게 타날되었는데 타날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내면에는 일부 손으로 누른 자국과 박리현상이 보인다. 태토는 세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3~0.4cm　출토지 N2E1 Tr.

도면 23 ⑮(사진 117 ②)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작은 석영알갱이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3cm　출토지 N2E1 Tr.

도민 23-⑭(사진 117-④)은 외면과 내면은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해 문양이 선명하지 않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N1W2 Tr.

도민 23-⑱(사진 117-⑤)은 외면과 내면은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

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정격자문이 정연하게 타날되어 있고 내면에는 일부 박리현상이 보인다. 태토는 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cm　출토지 N1E2 Tr.

도면 23-⑲(사진 117-⑥)는 외면과 내면은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지만 마모가 심해 상당부분 지워진 상태이다. 태토는 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cm　출토지 N2E1 Tr.

도면 23-⑳(사진 117-⑦)은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겹치서 타날되었는데 격자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중복타날되었다. 내면은 비교적 깐끔하게 정면되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5cm　출토지 N2E1 Tr.

도면 23-㉑(사진 117-⑧)은 외면과 내면은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밝은 갈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면에 물레흔은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cm　출토지 N2E1 Tr.

도면 24-①(사진 117-⑨)은 외면과 내면은 회갈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마모가 심해 무늬가 선명하지 않다. 내면에 물레흔은 보이지 않으며 표면이 갈라진 상태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4cm　출토지 N2W3 Tr.

도면 24-④(사진 117-⑫)는 외면은 회흑색, 내면은 회흑색과 적갈색을 띠며, 속심은 적갈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타날방향은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분은 마모되어 무늬가 선명하지 않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3~0.4cm　출토지 N2E1 Tr.

도면 24-⑥(사진 117-④)은 외면과 내면은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밝은 갈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비교적 뚜렷히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3cm　출토지 N2E1 Tr.

도면 24-⑦(사진 117-⑤)은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회갈색, 속심은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마모가 심해 선명하지 않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7cm　출토지 지표

도면 24-⑧(사진 117-⑥)은 외면은 회갈색, 내면과 속심은 적갈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마모가 심해 무늬가 선명하지 않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S1W3 Tr.

도면 24-⑨(사진 117-⑦)는 외면은 회갈색을 띠며 내면과 속심은 회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일부분은 마모되어 문양이 선명하지 않다. 내면에는 일부 박리현상이 보인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7cm　출토지 N1W2 Tr.

도면 24-⑩(사진 118 ①)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겹쳐서 타날되었는데 마모가 심한 편이고 박자 한 변의 크기는 최소한 2.0cm이상 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4~0.8cm　출토지 N1W2 Tr.

도면 24-⑪(사진 118 ②)은 외면과 속심은 적갈색을 띠며 내면은 소성시 불에 닿는 면의 차이에 따라 색조차를 보이며 적갈색과 검은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타날하였고 내면에는 일부 비질흔적이 나타난다. 또한 부분적으로 박리된 상태이다. 태토는

운모와 석영알갱이가 많이 섞인 점토이다.

두께 0.6~0.8cm 출토지 지표

**· 사격자문**

도면 25-①(사진 119-①)은 외면과 속심은 흑색, 내면은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타날방향은 일정하다. 동체부편의 중간부분에 가로 방향으로 선이 돌려졌다. 내면에는 일부 비신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점토질이다.

두께 0.6~0.7cm 출토지 지표

도면 25-②(사진 119-②)는 외면과 속심은 흑색을 띠며 내면은 적갈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타날방향이 일정한 사격자문이 사문되었으며 일부 정면시 지운 흔적이 보인다. 사격자분 위로 약 1.5cm 간격으로 가로선이 돌려 졌다. 내면은 손으로 누른 자국이 뚜렷히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N2E1 Tr.

도면 25-③(사진 119-③)은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중복타날되었지만 비교적 선명한 편이며 타날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내면에는 일부 손으로 누른 자국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7~0.8cm 출토지 N1W2 Tr.

도면 25-⑤(사진 119-⑤)는 외면과 속심은 회갈색, 내면은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사격자분이 타날되었으며 가로 방향으로 침선이 돌려졌다. 내면에는 보토한 흔적이 일부 보인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6cm 출토지 N1E1 Tr.

도면 25-⑥(사진 119-⑥)은 외면은 밝은갈색, 내면은 회갈색, 속심은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타날방향은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분은 마모되어 무늬가 선명하지 않다. 내면에는 일부 손으로 누른 자국이 보인다. 태토는 사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N2E1 Tr.

도면 25-⑦(사진 119 ⑦)은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타날방향은 일정하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8cm　출토지 S1W3 Tr.

도면 25-⑧(사진 119-⑧)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왼쪽으로 경부가 약간 남아 있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지표

도면 25-⑨(사진 119-⑨)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 물레흔은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2~0.3cm　출토지 N2E1 Tr.

도면 25-⑩(사진 119 ⑩)은 외면은 회갈색, 내면은 적갈색, 속심은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해 문양이 선명하지 않다. 내면에 물레흔은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7cm　출토지 지표

도면 25-⑪(사진 119-⑪)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N2W3 Tr.

도면 25-⑫(사진 119-⑫)는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6~0.7cm　출토지 지표

도면 25-⑬(사진 119-⑬)은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비교적 깊은 사격자문이 선명하게 타날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한 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6cm　출토지 지표

도면 25 ⑭(사진 119-⑭)는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겹쳐서 타날되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4cm　출토지 N1W2 Tr.

도면 25-⑮(사진 119-⑮)는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한 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8~0.9cm　출토지 지표

도면 25-⑯(사진 119-⑯)은 외면은 적갈색을 띠며 내면과 속심은 회갈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조밀한 사격자문이 얕게 타날되어 있으며 일부는 마모되었다. 내면에 굵은 석영알갱이가 노출되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지표

도면 26-①(사진 120-①)은 내·외면은 회갈색, 속심은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타날방향이 일정한 사격자문이 시문되었으며 타날한 후 약 2.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가로 방향으로 침선이 돌려졌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6~0.8cm　출토지 S2W2 Tr.

도면 26-②(사진 120-②)는 외면과 속심은 흑색을 띠며 내면은 적갈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배열이 정연한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부분적으로 타날한 후 누른 흔적이 보인다. 내면에는 불규칙적으로 가로선이 돌아가고 있다. 태토는 운모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7~0.8cm　출토지 지표

도면 26-④(사진 120-④)는 외면과 내면은 밝은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비교적 배열이 정연하게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일부 박리된 상태이며 깔끔하게 정면되지 않았다. 태토는 운모가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3~0.5cm　출토지 N2W3 Tr.

도면 26-⑤(사진 120-⑤)는 외면은 회갈색, 내면은 밝은 갈색, 속심은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타날 후 약하게 침선을 가로 방향으로 돌렸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6cm　출토지 N2E1 Tr.

도면 26 ⑥(사진 120 ⑥)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타날 후 정면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워진 흔적이 보인다. 사격자문 위로 약 3.0cm 정도의 침선이 가로 방향으로 돌려졌다. 내면에는 비설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점토질이다.

두께 0.3~0.5cm　출토지 S2W2 Tr.

도면 26 ⑦(사진 120-⑦)은 외면은 회갈색, 내면은 적갈색, 속심은 회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타날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사격자문은 타날한 후 정면시 많이 지워졌다. 태토는 사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7cm　출토지 S1W2 Tr.

도면 26-⑧(사진 120-⑧)은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배열이 정연하게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일부 타날한 후 지운 흔적이 보인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태토는 점토질이다.

두께 0.6~0.7cm　출토지 N2W2 Tr.

도면 26-⑩(사진 120-⑩)은 외면과 속심은 회갈색을 띠며 내면은 밝은 갈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cm　출토지 N2W3 Tr.

도면 26-⑪(사진 120 ⑪)은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타날 방향은 일정한 편이다. 정면시 문질러 지운 흔적이 보인다. 내면에는 일부 손으로 누른 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8cm　출토지 N2W3 Tr.

도면 26-⑫(사진 120-⑫)는 외면과 속심은 회갈색, 내면은 밝은 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한 편이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지표

도면 26-⑬(사진 120-⑬)은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중복타날되었으며 타날방향은 비교적 일정하다. 사격자문 위에 약 1.8cm 정도의 간격으로 침선이 가로 방향으로 돌려졌다. 내면은 일부 박리된 상태이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3~0.5cm　출토지 S1W2 Tr.

도면 26-⑭(사진 120-⑭)는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타날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일부분은 타날한 후 문지른 흔적이 보인다. 내면은 물레흔으로 보기 어려운 선들이 가로 방향으로 돌아 가고 있으며 일부 손으로 누른 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점토질이다.

두께 0.4~0.7cm　출토지 N2E1 Tr.

도면 27 ①(사진 121-①)은 외면과 내면은 회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타날한 후 정면하면서

놀린 흑색이 남아 있다. 내면은 일부 박리된 상태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3~0.4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27-②(사진 121-②)는 외면과 내면은 회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반에는 비교적 배열이 정연하고 선명한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일부분에 거칠게 가로의 선을 그은 흔적이 보인다. 내면은 일부 박리된 상태이다. 태토는 석영알갱이가 일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3~0.6cm　출토지 N2E1 Tr.

도면 27-③(사진 121-③)은 외반은 회흑색, 내면과 속심은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매우 작은 크기의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한 편이어서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6~0.7cm　출토지 S1W2 Tr.

도면 27 ④(사진 121 ④)는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겹쳐서 타날되었는데 박자 한 변의 크기는 3.5cm 남짓으로 추측된다. 태토는 운모가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지표

도면 27-⑤(사진 121-⑤)는 외면과 내반은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반은 마모가 심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비교적 배열이 정연하게 타날된 것으로 보인다. 내면은 박리가 심한 편이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지표

도면 27-⑥(사진 121-⑥)은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작은 석영알갱이와 운모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N1W2 Tr.

도면 27-⑦(사진 121-⑦)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겹쳐서 타날되었다. 태토는 약간의 석영알갱이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cm　출토지 N3W2 Tr.

도면 27-⑧(사진 121 ⑧)은 외면은 회갈색, 내면은 적갈색, 속심은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사격자문이 중복타날되었으며 타날한 후 지운 흔적이 보인다. 사격자문 위로 약 3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가로 방향으로 선이 돌려졌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불규칙적인 비질흔적이 보이나 비교적 잘 정리된 편이다. 태토는 점토질이다.

두께 0.6~0.7cm　출토지 N2E1 Tr.

도면 27-⑨(사진 121-⑨)는 외면은 회갈색을 띠며 내면과 속심은 회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일부 타날한 후 문질러 지운 흔적이 보이며 정연타날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내면은 손으로 누른 자국이 보인다. 태토는 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6~0.7cm　출토지 N2E1 Tr.

도면 27-⑩(사진 121-⑩)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겹쳐서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 물레흔은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작은 석영알갱이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6~0.8cm　출토지 N2W1 Tr.

도면 27-⑪(사진 121-⑪)은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중복타날되어 문양이 정연하지 않으며 타날된 후 약 2.3cm의 간격을 두고 2조의 횡선이 돌려졌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흔적이 일부 보인다. 비교적 깔끔하게 정면한 편이다. 태토는 유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N2E1 Tr.

도면 27-⑫(사진 121-⑫)는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회색, 속심은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된 후 0.2cm 정도의 침선이 1.

5~2.0cm 간격을 두고 돌려졌다. 내면에 물레흔은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운모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N2E1 Tr.

도면 27-⑩(사진 121 ③)은 외면과 속심은 흑색, 내면은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의 배열이 정연하게 타날되었으며 타날된 후 약 0.2cm 정도의 침선이 가로방향으로 돌려졌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약하게 보이며 그 위에 비질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6cm　출토지 지표

도면 27-⑫(사진 121-④)는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나 속심은 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된 후 0.2cm 정도의 침선이 1.5cm의 간격을 두고 돌려졌다. 내면에 물레흔은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N2E2 Tr.

도면 28-①(사진 122-①)은 외면과 내면이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교차승문이 정연하지 못하게 타날되었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많이 되었으며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다.

두께 0.5cm　출토지 지표

도면 28-②(사진 122-②)는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된 후 0.2~0.3cm의 침선이 2.0cm 간격을 두고 돌려졌다. 내면에 물레흔은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운모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4~0.6cm　출토지 지표

도면 28-③(사진 122-③)은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사격자문이 방향을 달리하여 타날되었다. 내면은 조금 박리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두께 0.4~0.5cm　출토지 N2E1 Tr.

도면 28-④(사진 122-④)는 외면과 내면은 회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한 편이다. 내면에는 補土한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 태토는 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6~0.7cm　출토지 S1W2 Tr.

도면 28-⑤(사진 122-⑤)는 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해 선명하지 않다. 내면에 물레흔은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운모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7cm　출토지 N2E1 Tr.

도면 28-⑥(사진 122-⑥)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지름 0.7cm 정도의 구멍 두개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뚫려 있어 시루의 저부편으로 보여진다. 태토는 약간의 운모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3~0.6cm　출토지 N2W3 Tr.

도면 28-⑦(사진 122-⑦)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인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일부 보인다. 태토는 많은 운모와 약간의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8~0.9cm　출토지 S1W3 Tr.

도면 28-⑧(사진 122-⑧)은 외면과 내면, 속심이 모두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 문양이 시문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마모가 많이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다. 기벽이 얇으며 태토가 매우 정선되었다.

두께 0.5~0.6cm　출토지 N2W2 Tr.

○ 저부류

도면 28-⑨(사진 122-⑨)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인 연질의 저부편이다. 저부의 형태는 凹底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겹쳐서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0.8cm　출토지 N1W3 Tr.

도면 28-⑩(사진 122-⑩)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인 연질의 저부편이다. 형태는 平底로 저부의 중심이 약간 들려 있으며 동체부와 바닥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8~0.9cm　출토지 N2W3 Tr.

### (3) 陶器類[50]

출토된 陶器類는 주로 구연부편이며 형태로 보아 기종은 甕이나 동이류가 많다. 대체적인 속성은 태토에 사립의 미립을 섞이 경도를 높였으며 이를 고온소성하여 硬質이 많고 일부는 자안유가 흐르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는 파편 중심이기 때문에 부위별로 口緣部, 胴體部, 底部, 把手部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구연부

도면 29 ①(사진 123 ①)은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수평으로 반듯어져 있는데 口脣은 눌러서 편편하게 처리하였다. 구연의 내면에는 약간의 단이 져 있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보인다. 태토는 운모가 섞인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14cm　구연두께 0.3cm　두께 0.4cm　출토지 지표

도면 29-②(사진 123-②)는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하였고 口脣은 편편하게 마무리되었다. 구연의 단면형태는 사각형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보이는데 내면에는 소성할 때 빠져 나온 듯한 석영알갱이들이 군데군데 보인다. 태토는 점토질에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구연추정지름 7.2cm　　두께 0.4~0.6m　　출토지 N2E1 Tr.

도면 29-③(사진 123-③)은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의 구연부

50) 여기서 말하는 도기류는 삼국시대 이후의 토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용어상의 의미보다는 삼국시대 토기보다 소성온도가 높은 土器를 지칭하는 의미로만 한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된이다. 구연은 동체에서 수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끝은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단이 져 있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소성시 태토에 섞여 있던 이물질이 빠져 나간 틈이 있다.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보인다. 태토는 점토질이나 정선되지는 않았다.

구연추정지름 24.6cm　구연너비 2cm　두께 0.4~0.5cm　출토지 지표

도면 29-④(사진 123-④)는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띠며, 속심은 밝은 갈색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수평으로 만들어 졌는데 너비은 둥글게 마무리되어 동체부와 연결된다. 구연단면의 형태는 타원형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고 내면에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약간의 석영알갱이가 섞인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26cm　구연너비 1.8cm　구연두께 1.2cm　두께 0.3~0.4cm
출토지 지표

도면 29-⑤(사진 123-⑤)는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둥글게 말아서 동체부에 완전히 밀착시킨 형태이고 너비은 약간의 각이 지게 살짝 꺾아 놓았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보인다. 태토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석영알갱이가 섞인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38cm　구연두께 1.2cm　두께 0.4~0.5cm　출토지 N2W2 Tr.

도면 29-⑥(사진 123-⑥)은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안에서 밖으로 약 45° 정도 외반되었고 너비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있는데 내면에는 구연에서 동체로 이어지는 부분에 단이 져 있다. 태토는 운모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34cm　두께 0.5cm　출토지 지표

도면 29-⑦(사진 123-⑦)은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며 속심은 밝은 갈색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수평으로 만들어졌고 너비은 약간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와 연결되는 부분은 약간 안으로 들어 가면서 이어지고 있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보이는데 내면에는 소성시 석영알갱이가 빠져나온 구멍이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섞인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40cm　구연너비 0.9cm　두께 0.3~0.6cm　출토지 지표

도면 29-⑧(사진 123-⑧)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부의 외면특징은 구연에서 2cm정도 아래 쪽으로 0.2cm 정도의 얇은 홈이 한 줄 돌아가고 있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보이며 안쪽으로 구연이 끝나는 부분에 단이 져 있고 물레질을 한 후 깎아낸 듯한 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34cm　구연너비 1.9cm　두께 0.5cm　출토지 N2W3 Tr.

도면 30 ①(사진 123-⑨)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안에서 밖으로 밀듯이 만들어져 있으며 약간 아래로 처져 있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잘 정선된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23.6cm　구연너비 1.9cm　구연두께 0.5cm　두께 0.5~0.6cm
출토지 N2W3 Tr.

도면 30-②(사진 123-⑩)는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안에서 밖으로 밀면서 만들어졌으며 약간 동체부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이다. 구연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보인다. 태토는 매우 정선된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25.2cm　구연너비 1.5cm　구연두께 0.5cm　두께 0.4cm
출토지 N2W3 Tr.

도면 30-③(사진 123-⑪)은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의 구연부편이다. 口脣은 둥글게 말려 있으며, 약간 동체부 쪽으로 기울어지게 처리하였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있으며 구연 밑으로 얇은 홈이 돌아간다. 태토는 점토질이며 약간의 운모가 섞여 있다.

구연추정지름 22.4cm　　두께 0.4~0.5cm　　출토지 N2W3 Tr.

도면 30-④(사진 123-⑫)는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며 속심은 회흑색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안에서 밖으로 편편하게 처리하고 한 번 접어서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문양이 없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보이며 물레질을 하면서 생긴 얇은 홈이 가로방향으로 나 있다. 태토는 약간의 운모가 소량 섞인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24cm　구연너비 1.5cm　두께 0.4~0.5cm　출토지 N2W1 Tr.

도면 30-⑤(사진 123-⑬)는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넓고 편편하다. 口脣은 둥글게 처리되어 부드럽게 내려 오며 내면쪽과 수평을 이루며 2cm정도 뻗어 있다. 외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소성시에 태토가 갈라진 틈새로 석영알갱이들이 노출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보인다. 태토는 점토질에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석영알갱이가 많이 섞여 있다.

구연추정지름 32.2cm　구연너비 4cm　구연두께 0.7cm　두께 0.8~1.3cm　출토지 지표

도면 30-⑥(사진 123-⑭)은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안쪽에서부터 수평으로 만들어졌으며 口脣은 둥글게 말아서 처리했는데 동체부와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다. 구연에서 밑으로는 두께 0.3cm의 돌대가 한 줄 돌아간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보이는데 내면에는 소성시 태토가 갈라진 틈으로 석영알갱이들이 노출되어 있다. 태토는 크고 작은 석영알갱이가 다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34cm　구연너비 4cm　구연두께 0.7cm　두께 0.8~1.3cm　출토지 지표

도면 31-①(사진 124-⑧)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며 속심은 회백색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동체에서 수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끝을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 처리하였다. 口脣에는 두 줄의 얕은 홈이 0.6cm간격으로 돌려져 있다.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14.8cm　구연너비 1.7cm　두께 0.3~0.5cm　출토지 N1W2 Tr.

도면 31-②(사진 124-①)는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며 속심은 적갈색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안에서 밖으로 밀듯이 말려 있는 형태이고 口脣은 안으로 완전히 말려 있으며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에 문양은 없고 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크고 작은 석영알갱이가 혼입된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6cm　두께 0.4~0.7cm　출토지 N1W3 Tr.

도면 31-③(사진 124-②)은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안에서 바깥으로 밀듯이 말아서 끝이 안쪽으로 휘어 돌아갔으며 口脣은 약간 뾰

축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보이는데 내면에는 동체부가 시작되는 부분에 약간의 단이 져 있다. 태토는 석영알갱이가 혼입된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16cm　　두께 0.5~0.6cm　　출토지 N2E1 Tr.

도면 31-④(사진 124-③)는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완전히 말려 들어간 형태이고 口唇은 뾰족하게 말려 있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소성시 석영알갱이가 빠진 작은 구멍들이 보인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있고 외면과 마찬가지로 소성시에 빠진 석영알갱이가 많이 박혀 있다. 태토는 고운 석영알갱이가 섞인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18cm　　두께 0.4~0.7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31-⑤(사진 124 ④)는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며 속심은 적갈색의 구연부편이다. 口唇은 안쪽으로 약간 편편하게 만들었지만 바깥쪽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남아 있는데, 내면에는 소성시 빠진 석영알갱이들이 보인다. 태토는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16cm　구연두께 1cm　두께 0.4~0.7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31-⑥(사진 124 ⑤)은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안에서 밖으로 뒤돌이 말려서 바깥쪽에 완전히 닿아 있고 口唇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구연 밑의 동체부에는 0.2cm 정도 두께의 돌대가 돌아간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있는데 내면에는 소성시 갈라진 틈으로 석영알갱이가 빠져 나와 있다. 태토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석영알갱이가 섞여있는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18cm　구연두께 1cm　두께 0.5~0.7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31-⑦(사진 124 ⑥)은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안에서 밖으로 뒤돌이 말려 있는 형태이고 口唇은 안으로 완전히 말려 있으며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면에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구연추정지름 16cm　　두께 0.4~0.7cm　　출토지 N2W3 Tr.

도면 31-⑧(사진 124-⑦)은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끝을 바깥쪽으로 말아 처리하였으며 약간의 자연유가 남아 있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보이는데 내면에는 소성시 태토가 갈라진 흔적이 있다. 태토는 점토질에 소량의 운모가 섞여 있다.

구연추정지름 16.4cm 구순두께 0.8cm 두께 0.4~0.5cm 출토지 N1W3 Tr.

○ 동체부류

도면 32-①(사진 125-①)은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을 시문하였으며 약하게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태토를 일부분 보강하였으며 거친 물손질 자국과 손으로 누른 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약간의 석영알갱이가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1.0cm 출토지 북동확장Tr.

도면 32-②(사진 125-②)는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0.5cm 정도되는 2조의 굵은 횡대가 0.6cm의 간격으로 돌려져 있다. 내면에는 내박자로 두드린 흔적과 군데군데 손으로 누른 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석영이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1.1~1.5cm 출토지 지표

도면 32-③(사진 125-③)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2조의 횡침선 사이로 파도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 물레흔은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약간의 석영이 섞인 점토질이다.

두께 0.5cm 출토지 S1W2 Tr.

도면 32-④(사진 125-④)는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을 시문한 후 거친 물손질을 한 자국이 보인다. 또한 일정하지 않은 침선 2조가 횡으로 돌아가고 있다. 내면에는 물레흔 뚜렷이 남아 있다. 태토는 굵은 석영알갱이가 군데군데 박힌 점토질이다.

두께 0.4~0.6cm 출토지 N1W2 Tr.

○ 바닥류

도면 32-⑤(사진 125-⑤)는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 경질의 파수부편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동체부와 접합부에 보도한 후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보이며 동체부와 접합하기 위해 손으로 누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약간 섞인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이다.

파수 너비 2.2cm　　파수 두께 0.8cm　　동체부두께 0.4~0.5cm

출토지 N2W3 Tr.

○ 저부류

도면 33-①(사진 126-①)은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연한 갈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편이다. 저부의 형태는 平底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일부분에 자연유가 묻어 있다. 내면에는 바닥과 동체부를 접합한 후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이다.

바닥추정지름 11.5cm　　바닥두께 0.5cm　　동체부두께 0.4~0.6cm

출토지 N3W2 Tr.

도면 33 ②(사진 126 ②)는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편이다. 저부의 형태는 平底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남아 있는데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보인다. 태토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석영알갱이가 섞인 점토질이다.

바닥추정지름 14cm　　바닥두께 0.7cm　　동체부두께 0.7~0.9cm　　출토지 지표

도면 33 ③(사진 126 ③)은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편이다. 저부의 형태는 중심이 약간 들린 平底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거친 비짐흔적이 보이며 태토가 붕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뚜렷이 나타나 있고 바닥과 동체부의 연결부에 補土한 흔적이 보이며 접합상태는 양호하지 않다. 태토는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석영알갱이가 많이 섞인 점토질이다.

바닥추정지름 12cm　　바닥두께 0.6cm　　동체부두께 0.7cm　　출토지 N2W3 Tr.

도면 33-④(사진 126-④)는 외면은 회청색, 내면과 속심은 회색을 띠는 연질의 저부편이다. 저부의 형태는 중심이 약간 들린 平底이다. 바닥과 동체부의 연결부는 약간 직립하면서 연결된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약한 비짐흔적과 물레흔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약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바닥추정지름 14cm　바닥두께 0.5cm　동체부두께 0.5~0.8cm

출토지 N2E1 Tr.

도면 33-⑤(사진 126-⑤)는 외면은 적갈색, 내면과 속심은 회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편이다. 저부의 형태는 平底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다. 내면에는 바닥과 동체부가 연결되는 부분에 손으로 누른 자국이 있으며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운모가 섞인 점토질이다.

바닥추정지름 12cm　바닥두께 0.3cm　동체부두께 0.2~0.5cm

출토지 N1W3 Tr.

도면 33-⑥(사진 126-⑥)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 연질의 저부편이다. 저부의 형태는 平底이며 바닥 근처에 물레질을 한 후 돌려가면서 깎은 흔적이 보인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바닥추정지름 22cm　바닥두께 0.5cm　동체부두께 0.6~0.8cm

출토지 N2W3 Tr.

### 3) 磁器類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기류는 중국자기 9점·조선백자 65점으로, 명문이 있는 중국자기와 상품의 백자가 출토된 것이 특징적이다. 주요기종은 대접, 접시, 잔, 병, 호 등이 있으며 완형은 거의 없는 관계로 구연부, 저부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중국자기류

도면 34 ①(사진 127-①·128-①)은 "大明宣德年製" 銘 청화백자이다. 직선으로 뻗은 구연과 사선을 이루는 몸체의 기벽이 저부에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대접 형태이다. 굽은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고 다소 높으며 전체적으로 기벽이 매우 얇다. 내면의 문양을 살펴보면 구연아래 2조의 청화선이 둘려져 있으며 안바닥에는 굽지름보다 약간 넓은 청화선이 이중원을 그리고 그안에 범어가 쓰

어져 있다. 내접외면은 구연아래 2조의 청화선을 돌리고 이것을 경계로 동체부에 범어가 가득히 쓰여 있고, 동체하단에 청화선을 한줄 그어 다시 경계선을 그려고 있다. 동체에서 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청화선을 한조 그었으며, 굽의 저부에는 2조의 청화선을 돌렸다. 굽바닥에 청화로 그려진 이중원이 있고 그안에 "大明宣德年製"가 쓰여져 있다. 전체적으로 기벽이 얇고, 태토가 치밀질이며 백색을 띤다. 유색은 광택이 있으며 푸른기가 도는 백색이고 청화의 발색이 좋다. 전면시유 후 굽의 접지면 부분을 닦아내었다. 명문으로 보아 중국 명나라 宣德(1426~1435)년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자기이다.

구경 12.6cm 저경 4.5cm 전체높이 7.3cm 굽높이 1.4cm 출토지 N2W2

도면 34 ③(사진 127 ①·128 ①)은 "長春佳器"銘 청화백자편이다. 동체선이 완만한 호를 그리다가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평평하며 저부만 남아있는 형태이다. 외면 동체부에 분양이 있으며 그아래 청화선을 돌려 경계를 이루었고, 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다시 청화선을 돌렸다. 그리고 굽의 중각부분에 청화선 1조를 돌렸다. 대접 안바닥에 지름 6.5cm의 넓은 원을 그리고 안에 국화꽃이 그려져 있다. 분양은 외곽선을 그리고 청화를 덧발라서 면을 채운 것이 특징이며, 토청을 이용하여 그린 것으로 검은 빛이 도는 청화이다. 유색은 푸른기가 도는 백색이며, 광택이 있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다. 저부 바닥에 청화로 원을 돌리고 그안에 "長春佳器"銘이 쓰여있다. 嘉靖(1522~1566)년간의 청화백자가 출토되어 유적의 중심연대를 추정하는 데 중요하다.

저경 5cm 굽높이 1cm 출토지 지표

도면 34-②(사진 129-①~③, 130-①~③)는 청화백자 대접구연편으로 3조각이 한개체이다. 외면 구연아래 청화선을 1줄 돌리고 초화 분양을 아루고 있다. 시분방법을 역시 외곽선을 진은 청화로 그리고 옅은 청화로 면을 채워넣어 그렸다. 내면은 구연아래 청화로 1줄을 돌리고 하단은 문양이 없다. 유조는 푸른기가 도는 백색이며 광택이 있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다.

구경 13cm 출토지 지표

사진 129-④~⑦·130-④~⑦은 청화백자편으로 4조각이 남아있으며 모두 1개체분의 구연에서 동체부에 해당된다. 외면엔 구연아래 2줄의 청화선을 돌리고 그

아래 국화꽃과 잎을 그려넣었으며, 문양의 하단은 삼각형 무늬를 연속하여 시문하였다. 내면의 문양은 구연아래 2줄의 청화선을 돌리고 그 아래 파도문양을 1.5cm정도 넣고 다시 2줄의 청화선을 돌렸다. 외곽선을 진한 청화로 그리고 그안을 옅은 청화로 색을 채워넣거나, 외곽선을 한번더 그리는 방법으로 시문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있고, 유조는 청색을 띄는 백색이고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다.

출토지 지표

○ 백자류

도면 34-④(사진 131-① · 132-①)는 외반된 구연이 남아있는 백자호이다. 표면장식은 없으며, 외면에 잡티가 많다. 구연 아래 불레성형시 생긴 사선이 일렬로 돌려져 있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다. 유약색은 황색이 도는 회색이며 광택이 있다.

구경 12cm 출토지 지표

도면 34-⑤(사진 131-② · 132-②)는 표면장식이 없는 백자호로 구연이 외반되어 있다. 태토색은 백색에 치밀질이며, 소성시 덜구워져서 태토가 다소 성글다. 유약색은 푸른기가 도는 회색이며 광택이 있고 잔빙열이 있다.

구경 10cm 출토지 지표

도면 34-⑥(사진 131-③ · 132-③)은 저부만 남아있는 백자병으로 표면장식이 없다. 굽은 내경하였고 접지면폭이 고르다. 번조시 가는모래를 받침을 사용하였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고 광택이 있다. 유약색은 백색이며 시유상태가 좋고, 굽바닥의 노태된 부분은 백색이다.

저경12cm 굽높이 2.2-1.1cm 접지면폭 0.5cm 출토지 N2W2

도면 34 ⑦(사진 131-④ · 132-④)은 저부편만 남아있는 백자호이다. 완만한 곡선이 굽으로 이어지는 기형이다. 안바닥에 나선형으로 굵은 불레선이 보이며, 안바닥까지 전면시유하였다. 굽은 도립삼각형으로 내경하였으며 접지면폭이 일정하다. 받침은 가는모래를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태토는 백색이며 치밀질이고, 유약은 백색이며 전면시유하였고 광택이 있다.

저경 5.8cm 굽높이 0.8cm 접지면폭 0.3cm 출토지 N1W2

도면 34-⑧(사진 131-⑤·132-⑤)은 표면장식이 없는 백자무경편으로 남아있는 편이 적어서 전체 기형을 추정할 수 없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다. 유약색은 연한 회백색이며 광택이 있다.

출토지 북동확장 Tr.

조선백자 중 다수를 점하는 구연부편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 도면 번호 | 사진 번호 | 기종 | 형태 | 구경 | 태토색 | 태토질 | 유약색 | 광택 방열 | 특 징 | 출토지 |
|---|---|---|---|---|---|---|---|---|---|---|
| 35-① | 133-①<br>134-① | 대접 | 외반 | 18 | 백색 | 치밀질 | 담청백색 | 광택 | | N2E1 |
| 35-② | 133-②<br>134-② | 대접 | 외반 | 16 | 백색 | 치밀질 | 담청회색 | 광택 | | 지 표 |
| 35-③ | 133-③<br>134-③ | 대접 | 외반 | 16 | 회백색 | 치밀질 | 담회색 | 광택 방열 | 동체부에 날래심점시 생긴 음각선2조 | N2E1 |
| 35-④ | 133-④<br>134-④ | 대접 | 외반 | 13 | 백색 | 치밀질 | 담청회색 | 광택 | 안쪽에 잡티약간 | N2W2 |
| 35-⑤ | 133-⑤<br>134-⑤ | 대접 | 외반 | 16 | 회백색 | 치밀질 | 담회색 | 광택 방열 | 저부에 음각선2조 | 지 표 |
| 35-⑥ | 135-⑥<br>136-⑥ | 대접 | 외반 | 16 | 회백색 | 치밀질 | 선백색 | 광택 | 내외면에 잡티가 많음 | 지 표 |
| 35-⑧ | 135-②<br>136-② | 대접 | 외반 | 16 | 회백색 | 치밀질 | 담회색 | 광택 방열 | 저부에 음각선2조 | N2W2 |
| 35-⑨ | 135-③<br>136-③ | 대접 | 외반 | 16 | 회백색 | 치밀질 | 담회색 | 광택 방열 | 저부에 음각선2조 | 북동확장Tr. |
| 35-⑩ | 135-④<br>136-④ | 대접 | 외반 | 16 | 백색 | 치밀질 | 설백색 | 광택 | 외면에 잡티가 많다 | N3W2 |
| 36-① | 135-⑤<br>136-⑤ | 대접 | 외반 | 16 | 회색 | 치밀질 | 담회색 | 광택 | 안바닥에 잡티가 많다. | S1W1 |
| 36-② | 135-⑥<br>136-⑥ | 대접 | 외반 | 18 | 회백색 | 치밀질 | 담회색 | 광택 방열 | | 북동확장Tr. |
| 36-③ | 137-①<br>138-① | 대접 | 외반 | 16 | 회백색 | 치밀질 | 연회갈색 | 광택 | | 지 표 |

| 도면 번호 | 사진 번호 | 기종 | 형태 | 구경 | 태토색 | 태토질 | 유약색 | 광택 빙열 | 특 징 | 출토지 |
|---|---|---|---|---|---|---|---|---|---|---|
| 36-④ | 137-①<br>138-① | 대접 | 외반 | 14 | 회백색 | 치밀질 | 회갈색 | 광택 빙열 | | N1W3 |
| 36-⑤ | 137-②<br>138-② | 대접 | 외반 | 14 | 회색 | 치밀질 | 황적백색 | 광택 | 외반된 부분을 칸로 대충 다듬음 | 지 표 |
| 36-⑥ | 137-③<br>138-③ | 대접 | 외반 | 16 | 회색 | 치밀질 | 회색 | 광택 | | 지 표 |
| 36-⑦ | 137-④<br>138-④ | 대접 | 외반 | 16 | 회색 | 치밀질 | 회색 | 광택 | | N3W2 |
| 36-⑧ | 137-⑥<br>138-⑥ | 대접 | 외반 | 17.5 | 백색 | | 담회색 | 광택 | 외면에 물레흔 | N3W2 |
| 36-⑨ | 137-⑦<br>138-⑦ | 대접 | 외반 | 16.5 | 회색 | | 담회색 | 광택 | 외면에 물레성형시 생긴 얇은 음각선 | 지 표 |
| 36-⑩ | 137-⑧<br>138-⑧ | 잔 | 외반 | 12 | 회백색 | 치밀질 | 회청백색 | 광택 빙열 | 저부에 음각선2조 | N1W3 |
| 36-⑪ | 137-⑨<br>138-⑨ | 접시 | 외반 | 22 | 회색 | 치밀질 | 회색 | 광택 | | S2W2 |

도면 37-①(사진 139-②·140-②)은 백자대접의 저부편이다. 동체부는 저부에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으며 이음부에는 1조의 음각선이 돌아간다. 내면은 가는 모래가 많으며 중앙에는 印花文이 찍혀있다. 외면은 청백색으로 비교적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관찰된다.

내저원각 8.4cm 저경 4.8cm 굽높이 1.0cm 접지면폭 0.3cm 출토지 N3W2

도면 37-②(사진 139-③·140-③)는 저부편만 남아있는 백자대접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굽까지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장식이 없으며 굽은 죽절굽이고 접지면폭이 고르지 못하다. 굽주변과 굽부분은 유약이 없다. 굽바닥에 4곳, 내면 바닥에 5군데 태토비짐눈을 사용하여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태토는 엷은 회색에 치밀질이며, 유약색은 녹색이 도는 짙은 회색으로 잔빙열이 있다.

내저원각 7.7~7.8cm 저경 5.3cm 굽높이 0.9cm 출토지 지표

도면 37-③(사진 139-④·140-④)은 저부편 반절이 남아있으며, 바닥에 "天"이 음각된 백자대접편이다. 내경한 도립삼각형굽에 접지면폭이 고르다. 반침은 가는 모래을 사용하여 소성하였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다. 전면시유하였으며 유색

은 연은회색을 띄는 백색이고 광택이 있다.

내저원각 5.6cm 저경 7cm 굽높이 1.1cm 접지면폭 0.2~0.3cm

흙토지 N2W2

도면 37 ④(사진 141-①·142-①)는 백자대접으로 구연은 외반되어 있으며 동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곡면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안바닥에는 매우 넓은 원각이 있고 편평하고 안바닥에 잡티가 많다. 내경한 도립삼각형굽에 접지면폭이 고르다. 받침은 가는모래를 사용하여 소성하였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며, 유약을 담회색이고 광택이 있다.

구경 13cm 전체높이 6.4cm 내저원각 6cm 저경 5cm

굽높이 0.9cm 접지면폭 0.3cm 흙토지 N3W2

도면 37-⑤(사진 141 ②·142-②)는 백자대접편이다.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곡면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매우 넓은 원각이 있고 편평하다. 굽은 단면 도립삼각형에 내경하였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다. 유색은 푸른기가 도는 담회색으로 전면시유하였으며 광택이 있다.

내저원각 6cm 저경 4.6cm 굽높이 0.7cm 접지면폭 0.1~0.3cm 흙토지 지표

도면 37 ⑥(사진 141 ③·142-③)은 백자대접편이다. 저부편으로 동체부의 기형은 알 수 없다. 표면에 장식이 없으며 안바닥에 잡티가 많다. 굽은 내경한 도립삼각형이며 접지면폭이 고르지 않다. 받침은 가는모래를 사용하여 소성하였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고 유색은 푸른기가 도는 담회색으로 전면시유하였고 광택이 있다.

내저원각 8cm 저경 6.4cm 굽높이 1.6cm 접지면폭 0.2~0.3cm 흙토지 지표

도면 37-⑦(사진 141-④·142-④)은 백자대접편이다. 표면에 장식이 없으며 안바닥에 잡티가 많다. 굽은 단면이 도립삼각형으로 접지면 폭이 고르고 내경하며 가는모래를 받침으로 소성하였다. 태토색은 백색이며 치밀질이다. 유약색은 담회색이며 면에 시유하였고 광택이 있다.

내저원각 8cm 저경 6.4cm 굽높이 1.6cm 접지면폭 0.2~0.3cm 흙토지 지표

도면 37-⑧(사진 143-① · 144-①)은 저부편만 남아있어 있는 백자대접이다. 굽은 내경하였고 접지면폭이 고르지 않은 도립삼각형이다. 받침은 가는모래를 사용하여 소성하였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고 유약색은 담회색이며 전면시유하였다.

저경 5cm 굽높이 1.2cm 접지면폭 0.2~0.5cm 출토지 지표

도면 37-⑨(사진 143-② · 144-②)는 백자대접편이다. 저부편으로 동체부 기형은 알 수 없다. 굽은 내경한 도립삼각형이다. 굽바닥에 나선형 음각선이 있어서 접지면 폭이 고르지 않다. 받침은 가는모래를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태토색은 백색이며, 치밀질이다. 유약색은 담회색이며 전면에 시유하였고 광택이 있다.

저경 4.5cm 굽높이 0.85cm 접지면폭 0.1cm 출토지 지표

도면 37-⑩(사진 143-③ · 144-③)은 백자대접편이다. 구연부는 결실되어 있으며, 동체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곡면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매우 넓은 원각이 있고 편평하다. 굽은 도립삼각형에 내경하였다. 접지면 폭이 불규칙적이고 받침은 가는모래를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에 치밀질이고 유약색은 회색이며 전면시유하였고 광택이 있다.

내저원각 6.5cm 저경 5cm 굽높이 0.8cm 접지면폭 0.1~0.3cm 출토지 지표

도면 37-⑪(사진 143-④ · 144-④)은 저부편만 남아있는 백자대접이다.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조금 큰 원각이 원각이 있다. 도립삼각형굽에 내경하였고 접지면폭이 불규칙적이다. 받침은 가는모래를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에 치밀질이며, 유색은 회색에 전면시유하였고 광택이 있다.

내저원각 8.4cm 저경 8cm 굽높이 1.5cm 접지면폭 0.2~0.3cm 출토지 N2S1

도면 37-⑫(사진 145-① · 146-①)는 백자대접편이다.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곡면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매우 넓은 원각이 있고 편평하다. 굽은 내경한 도립삼각형굽이며 접지면폭이 고르다. 받침은 가는모래를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에 치밀질이며, 유약은 회색에 빙열과 광택이 있다.

내저원각 7.6cm 저경 5.2cm 굽높이 1.4cm 접지면폭 0.35cm
흙토지 북동확장Tr.

도면 38-①(사진 145-②·146-②)은 백자대접편이다. 구연은 외반하였으며,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곡면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매우 넓은 원각이 있고 편평하다. 기벽이 매우 얇다. 굽은 내경한 도립삼각형에 접지면폭이 고르다. 소성시 받침은 가는모래를 사용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이고 치밀질이며 유약색은 녹색을 띠는 회색이며 광택이 있다.
구경 17.2cm 전체높이 9.5cm 내저원각 7.8cm 저경 6.2cm
굽높이 1.3cm 접지면폭 0.5cm 흙토지 지표

도면 38 ②(사진 149 ④·150-④)는 전체의 1/3가량이 남아있는 백자잔이다. 동체부의 완만한 곡선이 바닥까지 이어지며 굽은 안쪽에서 깎아낸 모습이다. 소성시 가는모래를 받침을 사용하였으며 바닥과 저부는 유약이 덜 녹은 모습이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며, 유약색은 황백색에 잔빙열이 보인다.
저경 4cm 접지면폭 0.2~0.1cm 흙토지 지표

도면 38-③(사진 145-③·146-③)은 백자대접편으로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조금 큰 원각이 원각이 있는데 윤곽선이 분명하지 않고 곡선으로 되어있다. 기면에 표면장식이 없다. 굽은 도립삼각형에 내경하였으며 접지면 폭이 불규칙적이다. 받침은 가는 모래를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에 치밀질이다. 유약은 회색이며 전면 시유 후 접지된 부분을 한번 닦아내었고 잔빙열과 광택이 있다.
내저원각 8cm 저경 6.4cm 굽높이 1.3cm 접지면폭 0.3~0.45cm 흙토지 지표

도면 38-④(사진 147-①·148-①)는 저부만 남아있는 백자잔이다. 표면장식은 없으며 저부와 굽부분을 깎아서 다듬은 죽절굽 형태이다. 굽주변과 굽은 시유하지 않았으며, 노태된 부분은 회색이다. 태토색은 연회색에 치밀질이고 유색은 회청백색으로 광택이 있다.
내저원각 7.1~7.2cm 저경 4.5cm 굽높이 0.7cm 흙토지 지표

도면 38-⑤(사진 147-②·148-②)는 백자잔으로 구연은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에 가까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표면장식은 없으며 굽은 축절굽이고 소성시 받침으로 태토비짐눈을 4군데 사용하여 포개구이 한 흔적이 있다. 굽주변과 굽은 시유하지 않았으며 노태된 부분이 갈색을 띤다. 태토색은 백색에 치밀질이며, 유색은 담청백색이며 잔빙열이 있다.

구경 10cm 저경 4cm 굽높이 0.7cm 접지면폭 0.4~0.5cm

내저원각 5.7cm 흙토지 지표

도면 38-⑥(사진 147-③·148-③)은 백자잔으로 외반된 구연에 기벽선은 사선을 이루며 저부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장식은 없으며 안바닥에 잡티와 가는모래가 약간 보인다. 굽은 내경한 도립삼각형이다. 전면시유한 후 굽부분을 한번 닦아내고 가는모래를 받침으로 사용하였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고 유약색은 회청백색이며 광택이 있다.

구경 10cm 전체높이 4.9cm 내저원각 7.1cm 저경 5cm

굽높이 0.8cm 접지면폭 0.3~0.2cm 흙토지 지표

도면 38 ⑦(사진 147 ④·148 ④)은 백자잔편이다. 구연은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에 가까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굽은 내경한 도립삼각형이며 굽접지면이 고르다. 받침으로 가는모래를 사용하여 소성하였으며, 전면시유하였으며 상태가 양호하다. 태토는 회색이며 치밀질이다. 유색은 담회색이고 광택이 있다.

구경 10cm 전체높이 5.6cm 내저원각 7cm 저경 4.5cm

굽높이 1cm 접지면폭 0.1cm 흙토지 지표

도면 38-⑧(사진 149-①·150-①)은 백자잔으로 몸체와 저부편만 남아있다. 몸체의 기벽이 수직에 가까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안바닥에 미세한 잡티가 많다. 저경부터 바닥까지 산화되어 누런기를 띈다. 내경한 도립삼각형굽에 접지면폭이 고르다. 전면시유하였으며 가는모래를 받침으로 사용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에 치밀질이다. 유약색은 담회색이고 광택이 있다.

내저원각 6.8cm 저경 5cm 굽높이 1cm 접지면폭 0.3cm 흙토지 N1W3

도면 38-⑨(사진 149 ②·150-②)는 배자잔편이다. 구연이 결실되어 있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굽은 내경하는 도립삼각형이며 전면시유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산화되어 누런기를 띤다. 받침은 가는모래를 사용하였다. 태토색은 백색에 치밀질이며, 유약색은 회색이다.

내저원각 7.2cm 저경 4.6cm 굽높이 1cm 접지면폭 0.2~0.3cm 흙토지 지표

도면 38-⑩(사진 149-③·150 ③)은 몸체와 저부만 남아있는 백자잔이다. 몸체의 기벽이 수직에 가까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편평한 안바닥 미세한 잡티가 많으며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굽은 내경하였고 접지면폭이 고른 도립삼각형이다. 전면시유 하였으며 접지면부분만 닦아낸 후 가는모래를 받침으로 사용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에 치밀질이며, 유색은 회색에 광택이 있다.

내저원각 7.2cm 저경 5cm 굽높이 0.9cm 접지면폭 0.3cm 흙토지 N2W2

도면 39 ①(사진 139-①·140-③)은 구연이 결실되고 저부만 남아있는 백자접시이다. 굽바닥의 접지면 부분은 전면시유 후 한번 닦아낸 흔적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노태되어 있다. 굽은 내경하였으며 접지면폭이 크고다. 굽바닥에 가는모래, 0.1~0.5cm정도 되는 굵은모래와 석립이 붙어있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다. 유색은 옅은 푸른색이 도는 백색이며 광택이 있다.

저경 14cm 굽높이 0.35cm 접지면폭 0.15cm 흙토지 지표

도면 39-②(사진 151-①·152 ①)는 저부만 남아있는 백자접시이다. 기벽선은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다가 저부에서 수평선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기형이다. 안바닥은 편평하고 넓다. 굽은 내경한 도립삼각형이며 소성시 가는모래를 받쳐 사용하였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다. 유색은 푸른기를 도는 백색이며, 산병열과 광택이 있다.

내저원각 9.4cm 저경 8.2cm 굽높이 1.4cm 접지면폭 0.25~0.3cm

출토지 지표

도번 39-③(사진 151-② · 152-②)은 백자접시편으로 외반한 구연에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고 안바닥에는 커다란 원각이 있다. 굽은 도립삼각형으로 내경하였고 접지면폭이 고르지 않다. 받침은 가는모래를 사용하여 소성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치밀질이다. 유색은 회백색이며 전면시유 하였고 광택이 있다.

구경 15.2cm 전체높이 3.6cm 내저원각 10.1cm 저경 5.5cm

굽높이 1cm 접지면폭 0.2~0.3cm 출토지 지표

도면 39-④(사진 151-③ · 152-③)는 저부편만 남아있는 백자접시로 전체기형은 알수 없다. 굽은 도립삼각형으로 내경하였으며 접지면폭은 고르지 않다. 받침은 가는모래를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태토는 백색이며 치밀질이다. 유색은 푸른기가 도는 옅은 회색이며 광택이 있다.

저경 6cm 굽높이 1cm 접지면폭 0.1~0.3cm 출토지 지표

도번 39-⑤(사진 151-④ · 152-④)는 구연이 결실된 백자접시로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커다란 원각이 있다. 굽은 도립삼각형으로 내경하였으며 접지면폭은 고르지 않다. 받침은 가는모래를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태토색은 백색이고 치밀질이다. 유약색은 푸른기가 도는 회백색이며 전면시유하였고 광택이 있다.

내저원각 9.4cm 저경 5.7cm 굽높이 0.8cm 접지면폭 0.2~0.3cm

출토지 N2W3

도면 39-⑥(사진 151-⑤ · 152-⑤)은 동체편만 남아있고 표면장식이 없는 백자접시이다. 태토는 백색이며 치밀질이다. 유약색은 설백색에 광택이 있고 상품자기에 해당된다.

내저원각 26cm 출토지 북동확장 Tr.

도면 40(사진 153 · 154)은 경부, 동체, 굽부분에 해당되는 세조각이 1개체이며, 동체가 저부로 갈수록 풍만한 기형을 이루는 백자병이다. 전체적으로 기벽이 두

짧고 표면장식은 없다. 굽은 내경하였으며, 접지면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시유상태와 광택이 좋으며 빙열이 약간 보인다. 바닥에 가는모래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굽바닥의 노대된 부분은 백색이다. 태토는 백색에 치밀질이며 완전 유리질화 되어있다. 유색은 약간 푸른색을 띠는 백색이다.

저경 11.4cm 굽높이 2.3~1.9cm 접시면폭 0.7cm 출토지 N2W2

() 흑유도기류

도면 41-①(사진 155-①·156-①)은 흑유도기소호편으로 전체기형에서 구연에서 동체부까지 남아있다. 구연은 외반하였고, 동체는 저부쪽으로 갈수록 풍만해지는 형태로 부주머니와 유사하며, 굽은 유실되었다. 흑색유약이 내·외면 전면 시유되어 있으며, 시유상태가 양호하다. 태토는 옅은 회색에 소성도는 경질이고, 사립이 약간씩 섞여 있다. 외벽 바닥면에는 받침흔적이 2곳 남아있는데, 지름이 약 1.5~2.5cm이고 가는모래와 흙으로 이루어져있다.

구경 9cm 출토지 N2E1

도면 41-②(사진 155-②·156-②)는 흑유도기호편으로 구연과 동체부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아있다. 구연은 직립하며 이깨부분이 풍만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기형이다. 동체부에는 물레선이 보인다. 흑색유약이 외벽 전면에 얇게 시유되었으며, 동체부과 경부에 유약이 뭉치서 흘러내린 흔적이 보인다. 내면은 구연부에 유약이 흘러내린 모습이고, 동체부에는 녹갈색 유약이 약간씩 보인다. 태토는 진한 회색에 소성도는 경질이며, 사립이 약간 섞여있다.

출토지 지표

### 4) 金屬類

金屬類는 크게 鐵製類, 靑銅類, 金銅類로 나눌 수 있는데 靑銅類는 6점(일괄포함), 金銅類 2점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鐵製類이다.

이를 각각 鐵製遺物, 靑銅·金銅遺物로 나누어 알아보기로 한다.

#### (1) 鐵製遺物

■ 調査內容

平辰山城에서 출토된 철제유물은 모두 106점으로 크게 무기류와 농·공구류, 기타(건축부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무기류 64점, 농·공구류 2점, 기타(건축부재) 40점에 해당하며 무기류(60.4%)와 기타 건축부재(37.7%)가 98.1%를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이며 농·공구류는 1.9%에 불과하다.

출토된 철제유물을 위 3가지로 크게 구분한 후 이를 세분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임진산성 출토 철제유물 현황표

| 구 분 | | | 계 (%) | | |
|---|---|---|---|---|---|
| 무 기 류 | 현자총통 | | 2점 (1.9%) | | 64점 (60.4%) |
| | 철제단환 | | 4점 (3.8%) | | |
| | 철모 (철촉포함) | | 6점 (5.6%) | | |
| | 鐵刀 | 소도 | 1점 (0.9%) | | |
| | | 도자 | 2점 (1.9%) | | |
| | 철할잡편 (鐵甲포함) | | 6점 (5.6%) | | |
| | 철촉 | 전촉 | 2점 (1.9%) | | |
| | | 촉 | 41점 (38.8%) | | |
| 농·공구류 | 철겸 | | 1점 (0.95%) | | 2점 (1.9%) |
| | 철겸편 | | 1점 (0.95%) | | |
| 기 타 (건축부재) | 철제돌쩌귀 | | 2점 (1.9%) | | 40점 (37.7%) |
| | 철차 | | 1점 (0.9%) | | |
| | 철정 | | 16점(15.1%) | 26점 (24.5%) | |
| | 장식용 철정 | | 10점 (9.4%) | | |
| | 철제손잡이 | | 2점 (1.9%) | | |
| | 철제꺽쇠 | | 2점 (1.9%) | | |
| | 철제고리 | | 6점 (5.7%) | | |
| | 철제품(철봉) | | 1점 (0.9%) | | |
| 계 | | | 106점 | | 100% |

(1) 玄字銃筒[51]

도면 42(사진 157~162)는 右筒式 玄字銃筒으로 筒身에는 竹節이 7마디로 施條되어 있다. 藥室은 藥室과 砲口사이 셋째와 다섯째 죽절 사이에 걱쇠형으로 조성하였으며 크기는 길이 11.9cm, 높이 6.2cm, 두께 1.6cm이다. 筒身내부에는 砲口에서 57.4cm 지점에 彈丸이 장착되어 있으며 藥室은 筒身보다 지름이 약간 크다. 線穴은 砲尾에서 약 7.5cm 지점에 뚫렸고 砲尾는 폭 1.1cm로 한 단이 지며 원형으로 마무리하였다. 筒身은 砲尾에서 7條를 이루며 조금씩 좁아지다가 砲口 5.4cm 앞에서 밖으로 살짝 벌어져 砲口를 형성하였다.

전체길이 78.5cm 重量 43.7kg

筒長 63.8cm 藥室 14.7cm 竹節 7條

藥室外徑 11.8×14cm(가로×세로)

筒口: 外徑 11.9×12.5cm, 內徑 6.9×6.7cm(가로×세로)

(2) 鐵矛

도면 43 ①(사진 163-①)은 완형의 상태로 출토된 칠모이다. 모두 5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제일 크며 鋒部 끝부분이 약간 휘어져 있을 뿐이다. 鋒部와 銎部로 이루어진 二鍛柄式의 형태로 鋒部는 서서히 넓어져 내려와 關部에서 최대폭을 가지며 銎部 역시 하부로 내려오면서 넓어진다. 銎部는 철판을 원형으로 말아서 鍛接시켜 만들었으며 자루결박을 위한 圓孔이 확인된다. 그 반대편에는 木質痕이 잔존한다. 鋒部의 단면은 稜形에 가까운 볼록렌즈형이다.

전체길이 37.8cm 폭 : 銎部 1.9~3.2cm 鋒部 1.0~4.7cm

출토지 N2W2 D15

도면 43-②(사진 163-②)는 철모로 전체적으로 부식이 많이 된 상태이나 鋒部 상단의 우측부분이 조금 떨어졌을 뿐 완형이다. 鋒部는 稜角이 鋒部 끝까지 서 있으며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의 형태를 보인다. 銎部 내부에는 자루 木質痕이 많이 확인된다. 銎部는 철판을 원형으로 말아서 鍛接시켜 만들었는데 단면의 형태는 圓形이며 접합부는 붙지 않았다.

---

51) 발견된 2점의 총통가운데 1점은 문화재청에 국가귀속된 후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보존처리후 국립중앙박물관에 귀속조치한 관계로 본고에서는 경기도박물관에서 보존처리한 총통만을 다루었음을 밝혀둔다.

전체길이 32.5cm　폭:莖部 1.9~3.2cm　鋒部 1.0~4.7cm
두께:莖部 2.5cm　鋒部0.4~1.1cm

도면 43-③(사진 163-③)은 철모로 鋒部와 莖部로 2구분 되는데 鋒部 끝이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 안쪽으로 약간 말려져 있을 뿐 완형으로 출토되었다. 鋒部는 稜角이 서 있는 마름모꼴의 단면을 가지고 있다. 莖部하단에는 자루를 고정시키기 위한 못이 있으며 그 주위로 목질의 흔적이 남아있다. 莖部는 鐵板의 하단을 좌우 수평으로 잘라서 말았는데 끝부분을 바깥쪽으로 말아 올려 마무리 하였다.
전체길이 25.4cm　폭:莖部1.9~2.8cm　鋒部 0.3~3.2cm
두께:莖部 0.3cm　鋒部 0.1~0.6cm　출토지 북동확장 Tr. D95

도면 43-④(사진 164-①)는 鋒部만이 남아 있는 철모이다.
鍛造製品으로 鋒部 선단부가 결실되어 있으며 關部아래로 莖部는 결실되어 없어진 형태이다. 鋒部부분은 幅이 좁으며 단면은 稜角이 서 있는 이등변삼각형이다. 부식은 많이 되었으나 안쪽에 芯鐵芯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길이 19.5cm　폭 2.7cm　두께 0.25~1.1cm

도면 43-⑤(사진 164-②)는 莖部만 남아 출토된 철모이다.
鍛造製品으로 鋒部는 완전 결실되어 莖部부분만 부식이 심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鋒部와 莖部의 경계부는 오른쪽 끝이 벌어져 鋒部의 결실시 충격에 인한 것으로 보인다. 莖部는 철판을 원형으로 말아서 단접시켰는데 부식으로 鍛接部도 떨어지거나 휘어져 있다. 莖部 末端部에는 자루와의 고정을 위한 못이 휘어져 남아있고 木質痕이 군데군데 확인된다.
전체길이 18.1cm　폭:莖部 2.8~3.4cm　두께 0.2cm　출토지 N2W3 D20

(3) 鐵製小刀

도면 44-①(사진 164-④)은 直背式 小刀로 先端部와 莖部가 결실되었다. 刃部는 片刃으로 背部가 위쪽으로 약간 휘었으며 刃部 중간과 先端部의 두군데가 심하게 부식되었다. 刃部의 폭은 좁으나 날은 잘 서 있다. 절단부의 단면형태는 0.4cm의 날등이 있는 폭 2.1cm의 이등변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전체길이 36.2cm　폭 2.1cm　두께 0.1~0.4cm　출토지 N2E1 Tr. D20

(4) 鐵製刀子

도면 44-②(사진 165-①)는 刀部가 3개의 편으로 나뉜 刀子이다. 전체적으로 사선의 木質痕과 부식물질이 많이 붙어 있다. 刀部 先端部가 약간 결실되었고 날은 單刃이다. 鍛造品으로 背部는 거의 直線的이며 刀部 先端部로 가면서 폭이 좁아지고 있다. 關部는 背部와 刃部 모두 둔각으로 꺾여 약간의 莖部로 연결되고 있다.

전체길이 22cm　폭: 刀部 2.6cm　莖部 0.9cm

두께: 刀部 0.2~0.5cm　莖部 0.6cm　출토지 N1W1 Tr. D30 적갈색점질토층

도면 44-③(사진 165-②)은 先端部가 'ㄱ'자로 꺾인 刀子로 刀部의 상태는 완형에 가깝지만 날이 조금 떨어져 나갔고 莖部의 末端部가 결실되어 있다. 잘 발달된 直刃으로서 關部에까지 날이 서 있으며 背部는 莖部로 가면서 점점 높아지다가 양쪽에 단이 꺾여 莖部로 이어진다. 莖部는 부식되어 갈라져 있다. 刀部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고, 莖部는 장방형이다.

길이:刀部 17.0cm 莖部 3.5cm　폭:刀部 2.3cm 莖部 0.75cm

두께:刀部 0.3cm　莖部 0.1cm　출토지 N1E1 Tr. D35 사질점토층

(5) 鐵鎌

도면 44-⑤(사진 165-⑤)는 小形 鐵鎌으로 흙과 녹흑이 덮여 있으며 완형을 기의 유지하고 있다. 刃部의 끝부분이 아래쪽으로 약간 기운것으로 보아 오른손잡이용인 것으로 보인다. 莖部와 刃部가 이어지는 지점의 단면이 가장 좁고 刃部와 背部는 基部에서 身部까지 거의 동일한 폭으로 완만한 곡선을 유지하다가 先端部로 가면서 조금씩 좁아가고 있다. 基部아래에는 자루와의 연결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못을 박았던 소형 구멍이 남아 있다. 身部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고, 基部는 장방형이다.

전체길이 10.6cm　폭 0.9~0.5cm　두께 0.3cm　출토지 북동확장Tr. D100

(6) 鐵製箭鏃

도면 44 ④(사진 165-③)는 평면상 柳葉形이고, 단면상 稜形을 이루는 箭鏃으로 鏃頭에서 鏃身으로 곡선을 이루며 내려와 연결되는 부분이 뚜렷하게 구별된

다. 莖部 下端部는 부식되어 갈라졌다. 鏃身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며, 莖部는 정방형이다.

전체길이 19.9cm

길이 : 鏃頭 6.7cm 莖部 13.2cm

폭 : 鏃頭 2.3cm 鏃身 1.1cm 莖部 0.5cm

두께 : 鏃頭 0.7cm 鏃身 0.7cm 莖部 0.5cm

층토지 N2W2 Tr.

도면 46-⑳(사진 165-④)은 鏃頭가 6각추형의 형태를 가진 箭鏃으로 鏃頭의 단면이 最經에서는 6각형에서 先端部로 가면서 4각으로 끝을 이루고 있다. 莖部는 촉신이 없이 바로 鏃頭와 이어진다. 뒷면에는 도래가 섞인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으며 금속재질이 많이 남아 무게가 있다. 鏃頭의 단면형태는 6각형이며 莖部는 장방형에서 下端部로 갈수록 세장방형이다.

전체길이 7.6cm 폭: 鏃頭 2.5cm 莖部 0.8cm

두께: 鏃頭 2.5cm 경부 0.2~0.9cm

(7) 鐵鏃

鐵鏃의 길이는 3.1~9.7cm이며 몇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鏃頭 先端部와 莖部 下端部가 결실되어 있다. 鏃頭의 전체적인 평면상 형태는 有莖式으로 蛇頭形과 柳葉形을 이루며 단면상 형태는 볼록렌즈형, 능형을 이루고 있다. 莖部는 鏃頭에서 下端部로 완만하게 좁아 내려오며 단면형태는 대체로 방형과 능형이며 전체적으로 鏃頭에서 稜角이 보이고 있다. 칠촉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도면번호 | 사진번호 | 크기(cm) 全長 | 鏃頭長 | 鏃頭幅 | 鏃頭厚 | 莖部長 | 莖部厚 | 形態 | 단면형태 鏃頭 | 莖部 | 備考 |
|---|---|---|---|---|---|---|---|---|---|---|---|
| 45 ① | 166-① | 8.5 | 3.3 | 1.6 | 0.3 | 3.0 | 0.6 | 蛇頭形 | 볼록렌즈형 | 정방형 | 3등분, 촉두는 평면상 이등변삼각형, 촉신이 긴며 두께는 두꺼움. |
| 45-② | 166-② | 7.6 | 4.1 | 2.1 | 1.0 | 2.1 | 0.5 | 〃 | 〃 | 上:장방형 下:정방형 | 3등분, 촉두 선단부와 경부 끝이 결실. 촉신의 두께와 폭이 다른 촉에 비해 두꺼움. |

| 도면번호 | 사진번호 | 크기(cm) 全長 | 鏃頭長 | 鏃頭幅 | 鏃頭厚 | 莖部長 | 莖部厚 | 形態 | 단면형태 鏃頭 | 莖部 | 備考 |
|---|---|---|---|---|---|---|---|---|---|---|---|
| 45-③ | 166-③ | 7.4 | 3.2 | 2.0 | 0.6 | 2.7 | 0.4 | 蛇頭形 | 볼록렌즈형 | 정방형 | 3등분, 촉두 선단부와 경부 하단부는 부식으로 결실. 촉두에 능각이 서 있고 전면에 木質痕. |
| 45-④ | 166-④ | 6.6 | 3.3 | 1.8 | 0.5 | 2.2 | 0.5 | 〃 | 〃 | 上:장방형 下:정방형 | 3등분, 촉두 선단부와 양날부분이 부식되어 결실. 촉쉬 표출. 경부의 하단부 결실. |
| 45-⑤ | 166-⑤ | 6.6 | 3.9 | 1.4 | 0.6 | 1.4 | 0.6 | 〃 | 〃 | 정방형 | 3등분, 부식이 심한 상태로 촉두 선단부와 양날부분 결실, 다른 사두형 촉에 비해 촉두가 길다. |
| 45-⑥ | 166-⑥ | 6.5 | 2.7 | 2.0 | 0.6 | 2.1 | 0.6 | 〃 | 〃 | 장방형 | 3등분, 촉두의 선단부 결실, 경부는 부식되어 철신이 드러나 있고 하단부 결실. |
| 45-⑦ | 166-⑦ | 6.8 | 2.9 | 1.7 | 0.6 | 3.0 | 0.5 | 〃 | 〃 | 上:장방형 下:정방형 | 3등분, 촉두에 이물질이 부착, 전체적으로 심하게 부식, 인경부의 구분이 뚜렷. |
| 45-⑧ | 167-① | 9.4 | 3.2 | 1.7 | 0.5 | 4.0 | 0.5 | 〃 | 능형 | 上:장방형 下:정방형 | 3등분, 촉두에 비해 경부가 길어 날렵, 부식은 심하나 온형의 형태 유지. |
| 45-⑨ | 167-② | 8.2 | 2.7 | 1.2 | 0.5 | 3.5 | 0.5 | 〃 | 볼록렌즈형 | 장방형 | 3등분, 경부 하단부 결실, 경부 상단부에 木質痕. |
| 45-⑩ | 167-③ | 7.2 | 3.4 | 1.5 | 0.5 | 2.3 | 0.5 | 〃 | 〃 | 〃 | 3등분, 경부에 목질의 흔적, 경부 하단부 결실, 촉두의 긴 이로 볼 때 경부 하단부의 길이가 길었을 것으로 추측. |
| 45-⑪ | 167-④ | 7.8 | 2.7 | 1.7 | 0.6 | 3.8 | 0.5 | 〃 | 〃 | 〃 | 3등분, 촉두가 원형의 모습으로 형태 유지, 촉두에 능각, 경부 하단부 결실. |
| 45-⑫ | 167-⑤ | 7.1 | 2.6 | 1.6 | 0.8 | 3.1 | 0.6 | 〃 | 능형 | 上:원 형 下:방 형 | 3등분, 경부 상단부의 단면이 원형으로 추정되고 하단부로 완만하게 좁아지는 형상이다. 비교적 양호한 상태. |
| 45-⑬ | 167-⑥ | 5.6 | 2.8 | 1.7 | 0.6 | 1.6 | 0.5 | 〃 | 볼록렌즈형 | 장방형 | 3등분, 촉두와 경부 상단부가 심한 부식으로 촉두 선단부 결실, 경부 하단부에 木質痕 결실. |
| 45-⑭ | 167-⑦ | 5.1 | 1.9 | 1.4 | 0.5 | 1.7 | 0.6 | 〃 | 〃 | 〃 | 3등분, 촉두의 선단부 결실, 전부에 목질흔이 보이며 사두형 촉 작은 것에 속함. |

■ 調査內容

| 도면번호 | 사진번호 | 크기(cm) 全長 | 鏃頭長 | 鏃頭幅 | 鏃頭厚 | 莖部長 | 莖部厚 | 形態 | 단면형태 鏃頭 | 莖部 | 備考 |
|---|---|---|---|---|---|---|---|---|---|---|---|
| 45-⑮ | 168-① | 8.1 | 2.9 | 1.2 | 1.0 | 5.2 | 0.5 | 柳葉形 | 능형 | 정방형 | 2등분, 촉두의 부식으로 형상이 불분명하며 경부의 길이가 가장 길다. |
| 45-⑯ | 168-② | 6.6 | 4.5 | 1.2 | 1.1 | 2.1 | 0.5 | 〃 | 〃 | 타원형 | 2등분. 촉두 양날부분 결구. 촉신의 길이가 길며 경부 하단부 결실. |
| 45-⑰ | 168-③ | 5.8 | 3.8 | 0.9 | 0.6 | 2.0 | 0.5 | 〃 | 〃 | 정방형 | 2등분. 경부 하단부 부식으로 결실. |
| 45-⑱ | 168-④ | 5.6 | 2.6 | 1.5 | 0.5 | 1.4 | 0.4 | 蛇頭形 | 볼록렌즈형 | 〃 | 3등분, 연결부의 구분이 뚜렷하고 경부 하단부의 부식으로 결실이 심한 상태. |
| 45-⑲ | 168-⑤ | 5.7 | 2.6 | 0.8 | 0.8 | 3.1 | 0.5 | 〃 | 능형 | 上:능형 下:방형 | 3등분, 촉두 선단부와 한쪽 날부분 결실, 촉두에 능각. |
| 45-⑳ | 168-⑥ | 3.7 | 2.3 | 1.1 | 1.1 | 3.4 | 0.7 | 〃 | 〃 | 능형 | 2등분, 연결부위 이물질 확인, 경부의 폭이 완만하게 좁아 내려옴. |
| 45-㉑ | 168-⑦ | 5.4 | 2.7 | 1.2 | 1.2 | 2.9 | 0.6 | 〃 | 〃 | 〃 | 2등분, 전체적으로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고 보존상태 양호, 촉두에서 경부까지 능각. |
| 45-㉒ | 168-⑧ | 5.2 | 1.9 | 1.0 | 1.1 | 3.3 | 0.6 | 〃 | 〃 | 〃 | 2등분, 전체적인 길이에 비해 촉두 길이가 짧고 촉두 하단부분에 목질흔, 경부 하단부는 왼쪽으로 휘어진 상태. |
| 46-① | 169-① | 9.7 | 7.9 | 0.9 | 0.7 | 1.8 | 0.5 | 柳葉形 | 〃 | 방형 | 2등분, 전체적으로 부식되어 있고 경부에 비해 촉두 길이가 길며 경부 일부 결실, 폭이 좁아 날렵. |
| 46-② | 169-② | 9.1 | 7.2 | 1.0 | 0.7 | 1.9 | 0.5 | 〃 | 〃 | 〃 | 2등분, 전체적인 부식으로 촉두 양날과 경부가 일부 결실, 부분적으로 목질흔. |
| 46-③ | 169-③ | 7.9 | 5.7 | 0.9 | 0.8 | 2.2 | 0.5 | 〃 | 〃 | 〃 | 2등분, 부식으로 속심이 표출, 촉두부에 사질의 유기물 부착, 경부의 하단부 결실. |
| 46-④ | 169-④ | 7.5 | 4.8 | 0.8 | 0.9 | 2.7 | 0.6 | 〃 | 〃 | 능형 | 2등분, 전체적으로 능각, 경부의 하단부 결실. |
| 46-⑤ | 169-⑤ | 6.5 | 4.4 | 0.7 | 0.7 | 2.0 | 0.4 | 〃 | 〃 | 〃 | 2등분, 촉두 선단부와 경부 하단부 결실. |
| 46-⑥ | 169-⑥ | 5.8 | 4.0 | 0.9 | 0.8 | 1.8 | 0.4 | 〃 | 〃 | 방형 | 2등분, 심한 부식으로 촉두 선단부와 경부 하단부 결실, 촉두에 능각. |

| 도면번호 | 사진번호 | 크기(cm) 全長 | 鏃頭長 | 鏃頭幅 | 鏃頭厚 | 莖部長 | 莖部厚 | 形態 | 단면형태 鏃頭 | 莖部 | 備考 |
|---|---|---|---|---|---|---|---|---|---|---|---|
| 46-⑦ | 169-⑦ | 6.3 | 4.4 | 0.8 | 0.5 | 1.9 | 0.4 | 柳葉形 | 능형 | 능형 | 2등분. 부식은 심하나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 |
| 46-⑧ | 169-⑧ | 6.1 | 3.9 | 0.9 | 0.9 | 2.3 | 0.6 | 〃 | 〃 | 〃 | 2등분. 촉두의 모서리각이 잘 남아 있고 촉두부의 상태 양호. 경부의 하단부 결실. |
| 46-⑨ | 170-① | 7.1 | 3.3 | 1.1 | 1.1 | 3.8 | 0.7 | 尾頭形 | 〃 | 〃 | 2등분. 전체적인 부식으로 녹흑의 흔적 확인. |
| 46-⑩ | 170-② | 6.0 | 2.5 | 0.9 | 0.9 | 3.5 | 0.5 | 〃 | 〃 | 〃 | 2등분. 촉두 선단부와 경부 하단부 일부 결실. 인결부에 이물질과 목질흔. |
| 46-⑪ | 170-③ | 6.2 | 2.8 | 0.8 | 0.9 | 3.4 | 0.5 | 〃 | 〃 | 〃 | 2등분. 촉두부에 부식물질 부착. |
| 46-⑫ | 170-④ | 6.2 | 2.8 | 1.0 | 0.9 | 3.4 | 0.5 | 〃 | 〃 | 〃 | 2등분. 촉두 전체의 부식으로 속심 표출. 인결부에 목질흔 보이고 경부 두께가 완만하게 좁아 내려옴. |
| 46-⑬ | 170-⑤ | 5.5 | 2.8 | 0.8 | 0.8 | 2.7 | 0.5 | 〃 | 〃 | 〃 | 2등분. 촉두와 경부의 연결부에 목질흔 경부 하단부 결실. |
| 46-⑭ | 170-⑥ | 5.3 | 2.8 | 0.7 | 0.8 | 2.5 | 0.2 | 〃 | 〃 | 〃 | 2등분. 촉두에 부식물질이 엉켜 있고 균열이 생겨 갈라짐. 원형이 불분명하고 경부 하단부 결실. |
| 46-⑮ | 171-① | 4.8 | 3.4 | 0.8 | 0.7 | 1.4 | 0.5 | 〃 | 〃 | 〃 | 2등분. 경부에 목질흔이 보이고 경부 하단부 결실. |
| 46-⑯ | 171-② | 4.7 | 3.3 | 0.9 | 0.8 | 1.4 | 0.4 | 柳葉形 | 〃 | 〃 | 2등분. 촉두 선단부가 충격으로 구부러짐. 경부 하단부 결실. |
| 46-⑰ | 171-③ | 3.3 | 2.6 | 0.8 | 0.7 | 0.7 | 0.4 | 〃 | 〃 | 〃 | 2등분. 촉두 선단부와 경부 하단부 결실. |
| 46-⑱ | 171-④ | 3.7 | 2.3 | 1.1 | 1.0 | 1.4 | 0.4 | · | 타원형 | 원형 | 전체적으로 목질흔이 횡방향으로 확인되고 경부 하단부 결실. |
| 46-⑲ | 171-⑤ | 3.2 | 1.7 | 1.1 | 0.4 | 1.5 | 0.7 | · | 〃 | 〃 | 크기가 작고 촉두 선단부 결실. |

(8) 鐵鑿

도면 47-①(사진 172-①)은 전착으로 부식은 심하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釘頭部와 몸통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釘頭는 평면상으로 볼록렌즈형이다. 釘端部 3cm정도부터 좁아지기 시작하여 끝으로 향하고 있다. 몸통 중간 중간에 목질흔이 남아 있다.

전체길이 17.3cm　　폭 : 頭部 1.1cm　몸통 0.7cm

(9) 鐵釘

| 도면번호 | 사진번호 | 전체길이(cm) | 단면형태 | 특　　징 |
|---|---|---|---|---|
| 47-② | 172-② | 10.1 | 장방형 |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한 편이나 형상은 곧게 유지하고 있다. |
| 47-③ | 172-③ | 9.2 | 장방형 | 下端部가 부식되어 갈라져 있다. 상부의 단면은 방형에 가까우나 下端部로 내려 오면서 장방형으로 변하고 있다. |
| 47-④ | 172-④ | 8.1 | 장방형 | 얇고 긴 방형의 철정으로 釘頭는 이물질이 엉겨 있어 형태가 불분명하며 몸통 중앙에 鐵芯이 보이고 있다. |
| 47-⑤ | 172-⑤ | 5.5 | 장방형 | 下端部가 부식에 의해 결실되었다. |
| 47-⑥ | 172-⑥ | 6.0 | 장방형 | 단면은 말각방형이며, 세로로 갈라져 있다. |
| 47-⑦ | 172-⑦ | 5.6 | 장방형 | 비교적 얇은 철정으로 세로로 크랙이 생겨 갈라져 있으며, 속철심이 녹슬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
| 47-⑧ | 172-⑧ | 4.9 | 釘頭:장방형<br>釘端部:정방형 | 釘頭部分이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으며 밑으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다가 굽어 있는 부분부터 일정하게 내려오고 있다. |
| 47-⑨ | 172-⑨ | 4.2 | 장방형 | 釘頭部가 'ㄱ'자로 휘어 있으며 그 위로 부식물질이 덮고 있고 釘端部하단이 결실되어 있다. |
| 47-⑩ | 172-⑩ | 4.1 | 장방형 | 두께가 얇은 철정으로 상부와 하부가 결실되었으며 중간부분에 부식물질이 붙어 있다. |
| 47-⑫ | 173-② | 5.7 | 장방형 | 장방형의 釘頭를 가진 철정으로 釘頭部에 橫防向의 목질흔이 잘 남아 있다. |

| 도면 번호 | 사진 번호 | 전체길이 (cm) | 단면형태 | 특 징 |
|---|---|---|---|---|
| 47-⑬ | 173-③ | 4.8 | 장방형 | 頭部에 부식물질이 붙어 정확한 단면형태는 알 수 없다. |
| 47-⑭ | 173-④ | 3.5 | 釘頭:장방형<br>釘端部:장방형 | 釘頭를 갖고 있으며 몸통 상부만 남고 釘端部는 부식으로 결실되었다. |
| 47-⑮ | 173-⑤ | 3.0 | 장방형 | 얇은 방형의 釘頭를 갖고 있으며 釘端部分은 상부만이 세로로 얇게 갈라져 있고 下端部는 결실되었다. |
| 47-⑯ | 174-① | 4.8 | 장방형 | 몸통에서부터 하단부까지 왼쪽으로 'U'자형으로 휘어져 있다. |
| 47-⑰ | 174-② | 3.7 | 장방형 | 몸통에서 'L'자형으로 휘어 있다. 속철심이 드러나 속이 들어 있다. |

(10) 철제돌쩌귀

돌쩌귀는 철판을 둥글게 감아 구멍을 내고 다른 하나는 장부를 감아 넣어 구멍에 맞아 문을 돌려 여는 창호철물로서 지도리 철물이라고 하는데[52] 임진산성에서는 철제돌쩌귀 한쌍이 출토되었다.

도면 47-⑱(사진 175-①)은 철제암돌쩌귀로 장부가 끼이는 구멍이 나 있으며 보통 수쩌귀 밑에 대어 장부가 들어가는 고리의 폭이 넓게 제작되어 상하의 구분이 가능하다. 원통형으로 말려진 부분의 벗겨진 곳으로 金屬芯이 보이고 있다. 문설에 끼이는 삽입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부의 삽입부는 'O'모양이다.

전체길이 8.3cm　　폭 0.4~2.2cm　　두께 0.5cm　　출토지 S1W2 Tr. D20

도면 47 ⑲(사진 175-②)는 철제수돌쩌귀로 문짝에 붙어 장부가 끼이며 문짝에 붙는 삽입부의 끝부분이 안으로 휘어말려 있다. 회전을 위한 장부를 세로의 판상의 철판으로 감싸고 있다. 부식이 되었으나 내부의 금속재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부의 下端部는 좁아지면서 두툼의 돌기로 띠를 이루어 끼우기 쉽게 되어 있다. 장부의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전체길이 8.3cm　　폭 0.7~4.9cm　　두께 0.5cm

출토지 N1W1 Tr. D30 적갈색점질토층

52) 韓國文化財硏究所, 『獅子巖-發掘調査報告書』, 1994, 195쪽.

(11) 철제손잡이

도면 48-①②(사진 176-①②)는 손잡이 용도로 추정되는 철제 2점으로 부식은 심한 편이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양쪽의 고리부분으로 긴 봉형의 몸체를 고정하거나 매다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추측된다. 장방형의 막대양쪽을 단조한 후 양쪽을 잡아 구부려 고리를 만든 것이다. 몸체의 단면형태는 장방형, 양끝부분은 아래가 뚫린 원형이다.

| 도면번호 | 사진번호 | 전체길이(cm) | 폭(cm) | 두께(cm) | 고리구경(cm) | 비고 |
|---|---|---|---|---|---|---|
| 48-① | 176-① | 7.4 | 0.3 | 1.0 | 1.2 | |
| 48-② | 176-② | 7.7 | 0.8 | 1.1 | 1.2 | |

(12) 철제꺽쇠

도면 48-⑥(사진 177-①)은 출토된 2점의 꺽쇠 중 작은 것으로 兩端部로 갈수록 조금씩 폭이 좁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다. 단면형태는 꺽쇠 몸통 중앙부가 최대폭으로 장방형이며 兩端部는 방형이다.

전체길이 8.2cm　　폭 0.4~10.0cm　　두께 0.2~0.4cm　　출토지 N1W1 D20

도면 48-⑦(사진 177-②)은 단면이 장방형인 鐵芯의 兩端을 직각에 가깝게 구부려 만든 'ㄷ'자형 꺽쇠이다. 몸통부분과 오른쪽 삽입부의 군데군데에 木質痕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다. 兩端部는 末端部로 갈수록 좁아들게 만들었으며 다리는 긴편으로 양끝이 일부 결실되어 있다.

전체길이 7.5cm　　폭 0.4~10.0cm　　두께 0.4~0.5cm　　출토지 N2W3 D40

(13) 철제고리

도면 48-③(사진 178-①)은 철제고리로 鍛造된 鐵板이 고리의 허리부분을 감싸고 있으며 고정용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전체길이 4.0cm　　폭 1.6cm　　두께 0.9cm　　출토지 북동확장 Tr

도면 48-④(사진 178-②)는 철제고리로 판상의 鐵片을 구부려 만든 것으로 부식이 심한 편이지만 鐵芯이 많이 남아 있어 무게가 있는 편이다. 上端部에는 鐵

芯이 조금 드러나 있다.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개의 물체 사이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전체길이 4.8cm　　폭 1.5cm　　두께 0.6cm

도면 48-⑤(사진 178-③)는 鐵板을 구부려 만든 철제고리로 下端部가 결실되었다. 고리모양의 上端部는 옆으로 긴 타원형으로 수평면에서 볼 때 위로 약간 들려 있다.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는 모르나 목재나 어떤 물질에 다른 고리를 연결해 고정시켰던 철제고리로 보인다. 上端部는 사용할 당시 어떤 힘에 의해 구부러진 것으로 보인다.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잔존길이 5.7cm　　폭 0.5~2.4cm　　두께 0.8cm　　內徑 1.3cm

출토지 북동확장 Tr. D100

도면 48-⑧(사진 179)은 장식용 철제고리 일부로 부식이 심하고 군데군데 木質痕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고정용으로 쓰인 것으로 추측된다. 판형의 고리 2개와 반월형의 고리 한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앙끝고리 구멍에는 다른 고리편이 남아 있다.

전체길이 6.8cm　　폭 6.9cm　　두께 0.3~0.9cm

도면 48-⑨(사진 180-①)는 긴 타원형의 연결고리에 배목 2개가 엇갈리게 연결되어 있는 철제문고리로 추정된다. 배목 중 큰 것은 고리를 채우는 배목으로 끝이 뾰족하고 굽어 있다. 짧은 것은 문에 고정시키는 배목으로 끝이 떨어져 나갔다.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배목들이 원형고리에 모두 고정되어 있으며, 표면에는 흙과 이물질이 덮여 있다.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전체길이 9.8cm　　폭 0.7cm　　두께 0.4cm

도면 48-⑩(사진 180-②)은 철제문고리로 추정되며 하나의 연결고리에 고리를 채우는 배목과 문에 고정시키는 배목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원형고리는 많이 사용되어 마모되었고 심한 부식으로 철심이 노출되어 있다. 2개의 배목은 같은형태로 끝이 뾰족하나 길이는 서로 다르다. 2개 모두 끝이 휘어져 있으며 단면은 원형고리가 방형, 배목은 장방형이다.

전체길이 16.3cm　　폭 0.3~0.6cm　　두께 0.2~0.4cm

출토지 N2W3 D20

(14) 철제칼집

도면 49-①(사진 181-①)은 鐵片에 좌측 7개, 우측 6개씩 2열의 구멍을 뚫은 철제칼집이다. 오른쪽 상단 모서리는 약간 결실되어 있으며 鐵片의 표면에는 녹흑이 보인다. 구멍은 한 방향에서 뚫지 않고 양방향에서 뚫어 일정하지 않다. 윗쪽에서 아래로 폭은 조금씩 좁아 내려오고 구멍은 조금씩 커지고 있다. 함께 출토된 같은 모양의 유물의 예로 보아 이것 또한 칼이 입혀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단면의 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전체길이 6.0cm　　폭 1.7cm　　두께 0.2cm　　출토지 N1W1 Tr. D30

도면 49-②(사진 181-②)~도면 49-⑤(사진 181-⑤)는 鍛造한 鐵片에 좌측 7개, 우측 6개씩 2열의 구멍을 뚫은 칼집이다. 칼집 왼쪽에 漆痕이 많이 남아 있으나 심한 부식으로 漆痕이 많이 부풀어 있고 上端部의 구멍은 대체로 확인하기 어렵다. 구멍을 뚫은 방향은 일정하지 않으며 크기 또한 같지 않다. 4개 모두 부분적으로 漆이 된 목재로 덮여있다.

| 도면번호 | 사진번호 | 길 이 (cm) | 폭 (cm) | 두 께 (cm) | 특 징 |
|---|---|---|---|---|---|
| 49-② | 181-② | 6.1 | 1.9 | 0.3 | 우측 구멍 6개 모두 남아있다. |
| 49-③ | 181-③ | 6.1 | 1.8 | 0.3 | 우측 상단부 구멍 4개에 칠흔이 있다. |
| 49-④ | 181-④ | 6.1 | 1.8 | 0.3 | 좌측에 칠흔이 많다. |
| 49-⑤ | 181-⑤ | 5.9 | 1.9 | 0.3 | 칼집 끝이 조금 결실되어 있고 하단에는 구멍이 있다. |

(15) 鐵釘

장식용 철정으로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하여 머리부분 鐵芯이 보인다. 釘端部의 단면은 대부분 방형이다.

| 도면 번호 | 사진 번호 | 크기 (cm) 全長 | (幅)釘頭部 釘端部 | (厚)釘頭部 釘端部 | 단면 형태 | 특성 |
|---|---|---|---|---|---|---|
| 49-⑥ | 182-① | 4.3 | 1.8<br>0.5 | 1.4<br>0.4 | 타원형 | 釘端部에 목질흔이 약간 보인다. |
| 49-⑦ | 182-② | 4.1 | 1.8<br>0.6 | 1.3<br>0.5 | 능형 | 釘端部가 살 남아 있으며, 釘頭部分과 釘端部의 연결부에 오래전의 부식물질이 붙여있다. |
| 49-⑧ | 182-③ | 1.7 | 1.7<br>0.4 | 1.6<br>0.6 | 능형 | 釘頭部에 속철심이 보이고 釘端部가 많이 결실되어 있다. |
| 49-⑨ | 182-④ | 2.2 | 1.8<br>0.6 | 1.7<br>0.6 | 능형 | 釘頭部에 속철심이 보인다. |
| 49-⑩ | 182-⑤ | 2.0 | 1.5<br>0.6 | 1.4<br>0.6 | 능형 | 釘頭部에 속철심이 보이며, 釘端部가 많이 부식되어 결실되어 있다. |
| 49-⑪ | 182-⑥ | 2.2 | 1.7<br>0.5 | 1.5<br>0.4 | 능형 | 釘端部에 녹아 슨 자국이 있다. |
| 49-⑫ | 182-⑦ | 1.9 | 1.5<br>0.5 | 1.5<br>0.4 | 능형 | 釘端部에 부식물질이 붙다. |
| 49-⑬ | 182-⑧ | 2.3 | 1.6<br>0.6 | 1.4<br>0.5 | 능형 | 釘頭部에 속철심이 보인다. |
| 49-⑭ | 182-⑨ | 2.4 | 2.0<br>0.4 | 1.5<br>0.4 | 원형 | 釘頭部에 속철심이 보이고 있으며, 釘頭部와 釘端部 연결부 주위에 관입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
| 49-⑮ | 182-⑩ | 2.2 | 2.7 | 1.7 | 원형 | 부식되는 과정에서 두 개의 鐵釘이 서로 붙어 버렸으며, 釘頭와 釘端部의 연결부 주위에 관입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

(16) 鐵製彈丸

모두 4점의 탄환이 출토되었는데 鍛造製品으로 형태는 모두 球形을 띠고 있다. 2점은 비교적 작은 편이며 나머지 2점은 폭 1.8cm, 두께 1.8cm 정도로 큰 편이다. 4점 가운데 도면 49-⑰(사진 183-②)의 철탄환은 N1W2 Tr.내의 원형 저장공내에서 탐본 1-①(사진 63-①), 탐본 7-①(사진 73-①)의 기와들과 함께 출토되었다.

| 도면 번호 | 사진 번호 | 크기(cm) 幅 | 크기(cm) 厚 | 단면 형태 | 특 징 |
|---|---|---|---|---|---|
| 49-⑯ | 183-① | 0.7 | 0.8 | 球形 | 총통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鐵丸으로 부식이 심하여 갈라지거나 각이 생겨 원형을 잃어 버렸다. |
| 49-⑱ | 183-③ | 1.8 | 1.8 | 〃 | 총통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鐵丸으로 녹흑의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
| 49-⑲ | 183-④ | 1.7 | 1.8 | 〃 | 총통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鐵丸으로 가운데 구멍이 있으나 막혀 있다. 군데 군데 부식물질이 붙어 있으며 일부분은 갈라져 있는 상태이다. |

(17) 鐵製品

도면 49-⑳(사진 184-①)은 말 부속구(馬具類)로 생각되는 철제품으로 얇은 鐵板에 양쪽으로 直徑 0.8cm 정도의 구멍 2개가 뚫려 있다. 오른쪽 구멍 옆으로 木質痕이 남아 있다. 네모서리는 곡선으로 부드럽게 만들었다. 단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전체길이 6.2cm　　폭 2.7cm　　두께 0.1cm　출토지 N1W1 D30

(18) 鐵鋏

도면 49-㉑(사진 184-②)은 刀子의 손잡이와 刃部의 연결부위에 끼우는 칼코로 추정되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잔존길이 2.4cm　　폭 3.0cm　　두께 0.1cm　　출토지 N1W3 Tr. D10

(19) 鐵鎌片

도면 49-㉒(사진 184-③)는 철겸편으로 중앙 일부만 남아 부식된 부분에 토양이 뒤섞인 이물질이 붙어 있다. 刃部의 방향과 身部의 형태로 보아 왼쪽으로 단이 지며 基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背部와 刃部는 身部 끝으로 갈수록 곡선을 이루며 좁아진다. 단면의 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다.

전체길이 6.0cm　　폭 2.6cm　　두께 0.2~0.3cm　　출토지 북동확장 Tr. D100

## (2) 靑銅·金銅遺物

(1) 靑銅環

도면 50-①(사진 185-①)은 靑銅環이다. 鍛造品으로 청동봉을 구부려 제작하였으며 2등분되어 출토되었다. 나뉜 부분의 경계부가 부식으로 靑銅塊이 표출되어 있다. 단면의 형태는 원형이다.

직경 1.9cm　　두께 0.3cm　　출토지 N2W3 Tr. D20 암갈색점질토층

(2) 靑銅箸

도면 50-②(사진 185-②)는 파손되어 중간부분만 남아 있는 청동젓가락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 오면서 약간 가늘어지고 있다. 단면형태는 방형이다.

전체길이 6.4cm　　폭 0.4cm　　두께 0.3cm　　출토지 N2W3 Tr. D20

(3) 靑銅匙

도면 50-③(사진 185-③)은 柄部와 匙部의 연결부만 남아 있는 청동숟가락이다. 匙部의 중간에 세로로 稜線이 있다. 단면형태는 柄部는 반원형이며 匙部는 弧形이다.

전체길이 7.4cm　　폭 2.6cm　　두께 0.1~0.3cm　　출토지 지표

도면 50-④(사진 185-④)는 柄部만 남아 있는 청동숟가락으로 결실된 부분의 모습이 세주둥이처럼 돌출한 특이한 형태로 장신구가 붙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면형태는 柄部 下端部는 精圓形, 上端部는 弧形을 이루고 있다.

전체길이 10.7cm　　폭 2.0cm　　두께 0.2cm　　출토지 층통출토지 주변

(4) 靑銅梨花文粧刀鞘

도면 50-⑤(사진 185-⑤)는 梨花文이 陽刻되어 있는 장도집으로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다. 삽입구의 단면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전체길이 8.4cm　　폭 1.3cm　　두께 0.1~0.4cm　　출토지 총통출토지 주변

(5) 靑銅片

도면 50-⑥(사진 186)은 청동그릇의 구연부로서 밑에서부터 위로 직립하였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두께가 얇아진다.

전체길이 5.4cm　　추정직경 14.0cm　　폭 10.1cm　　두께 0.1~0.2cm

출토지 N2E1 Tr.

(6) 金銅片

도면 50-⑦⑧(사진 187-①②)은 금동편으로 2점 모두 청동에 금박을 입혔으나 금박의 일부만 남아 있다. 금동편의 단면형태는 두께 0.5~0.9cm의 세장방형으로 금동그릇의 일부로 추정된다.

출토지 N2E1 Tr.

# Ⅴ. 綜合考察

## 1. 遺構에 대한 檢討

이번 조사지역인 龍仁 王辰山城 一帶는 炭川과 豊德川이 각각 유직의 동서방향을 진행하다 합류한 뒤 北流하며 漢江에 유입되는 要路상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임진산 일대는 일찍부터 인류의 거주가 가능하여 靑銅器~百濟時代에 걸친 인류생활의 증거물들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壬辰倭亂 당시에는 三南勤王兵과 倭軍과의 치열한 격전이 있었던 지역으로 王辰山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임진왜란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銃筒을 비롯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어 이를 뒷받침해준다.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이전 각종 공사로 인해 유직의 명확한 성격과 학술적 가치를 규명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朝鮮時代에 축조된 土城壁이 3.5m정도 확인되었고 盛土層 下部에서 百濟時代의 住居址 일부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로는 無文土器類를 비롯해 打捺文土器·鐵製武器·銘文陶磁器類 등으로 王辰山城 一帶가 장기간에 걸쳐 존재했던 遺蹟이였음을 알게 해 준다.

우선 성상부의 북동쪽을 절개하고 개설된 도로상에 노출된 住居址는 서벽과 바닥면 일부만 잔존하는데 대략적인 크기는 약 230(동서)×510(남북)cm이다. 현재 남아있는 竪穴의 깊이는 20~42cm정도인데 대부분 竪穴의 어깨선이 파괴된 상태였다. 住居址는 竪穴을 'L'자형으로 掘鑿하고 바닥면은 석비레층을 편평하게 만들어 조성하였는데 바닥면을 따라 大小의 기둥구멍과 掘土痕跡이 복잡하게 나타나며 移木作業시 생긴 각종 구덩이로 인해 훼손이 심한 편이다. 바닥면에 목탄층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住居址는 火災에 의해 廢棄된 것으로 추정된다.

城壁은 각종 공사로 인해 파괴되어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유적 북동쪽에서 3.5m정도의 盛土層이 확인되어 城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城壁은 경사진 기반암층에 점질토를 盛土하여 축조하였는데 현재 잔존구간으로는 자세한 축조수법 등을 밝혀낼 수 없었다. 문헌기록에 의하면[53] 임진산성은 임진왜란중에

53) 본문의 <표 2> 임진산성에 관한 문헌기록 참조.

일본군에 의해 축성되었으며 크기는 90m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비록 이번 조사를 통해 임진산성의 축성주체나 시기, 축조방법 등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문헌에만 전해오던 관방유적의 실체는 확인한 셈이다.

한편 試掘調査에서 盛土層의 바깥으로 폭 30~50cm, 현존깊이 5m정도의 溝施設이 확인되었는데 경사면을 削土한 이후 構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溝는 城壁의 防禦力을 보강하기 위한 施設物 또는 축조작업시 흙막음과 같은 시설의 일종으로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조사·보고된 예가 드물어[54] 다른 遺蹟의 경우와 비교·검토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료가 축적된다면 朝鮮時代 關防施設의 원단변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상부에서 貯藏孔 1기와 小形遺構 2기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貯藏孔 내에서만 유물이 출토되었을 뿐 다른 遺構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遺構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정상부의 남쪽에서 확인된 現代 砲陣地는 주변에서 발견되는 M1, MG50 탄피 등으로 보아 韓國戰爭 당시의 구조물로 여겨지는데 이는 壬辰倭亂과 韓國戰爭 당시 壬辰山城이 치열한 격전지였음을 傍證하는 자료로 생각된다.

## 2. 遺物에 대한 檢討

### 1) 瓦類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기와류는 명문기와 3점을 포함해 모두 73점으로 대부분 평기와류이며 막새기와 및 특수기와류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기와류들은 遺蹟 정상부의 북동지역에 넓게 퍼져 분포하는데 특히 북동확장Tr. 북쪽 바닥면의 와적층과 N1W2 Tr.내의 원형 저장공내에서 집중 출토되었다. 하지만 북동확장Tr.의 경우 기와들이 대부분이 片의 형태를 띠는 반면 N1W2 Tr.내의 저장공내에서는 완형의 암키와 1매(탑본 1-①, 사진 63-①)와 철제단환(도면 49-⑰, 사진 183-②)·철정(도면 49-②, 사진 182 ①)등이 함께 출토되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출토된 기와[55]를 동반의 문양에 따라 분류해보면 명문, 어골문, 집선문, 파도

5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保寧 冠堂里遺蹟』, 2000.

55) 기와류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출토된 기와의 제작시기 및 방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와가 깨어진 편상태로 출토되어 정확한 제작방법, 제작시기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이를 분석하였다.

문, 복합문 I · II식(집선문+화문, 파도문+화문), 무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출토된 기와의 양에 비해 문양의 구성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각 문양별 빈도수는 파도문(31%), 집선문(25%), 무문(19%), 복합문 I 식(15%), 복합문II식(3%), 빙문(3%), 어골문(2%)의 순(<표 3> 참조)을 띠고 있는데 파도문과 집선문, 무문이 다수(75%)를 점하고 있다.

기와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모두 73점의 기와 가운데 암키와 33점(45%), 수키와 40점(55%)로 외견상 수키와가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를 각 문양과 연관하면 아래 <표 6 · 7>과 같다.

<표 6> 임진산성 출토 암키와 등면문양 분류표

| 구 분 | 문 양 | 계 (%) | |
|---|---|---|---|
| 암키와 | 빙문 | 3점 (9%) | 33점 (100%) |
| | 어골문 | - | |
| | 집선문 | 8점 (24%) | |
| | 파도문 | 2점 (6%) | |
| | 집선문 I 화문 | 6점 (18%) | |
| | 파도문 I 화문 | 1점 (3%) | |
| | 무문 | 13점 (40%) | |

<표 7> 임진산성 출토 수키와 등면문양 분류표

| 구 분 | 문 양 | 계 (%) | |
|---|---|---|---|
| 수키와 | 빙문 | - | 40점 (100%) |
| | 어골문 | 2점 (5%) | |
| | 집선문 | 10점 (25%) | |
| | 파도문 | 21점 (52%) | |
| | 집선문+화문 | 5점 (12%) | |
| | 파도문 I 화문 | 1점 (3%) | |
| | 무문 | 1점 (3%) | |

위의 두 표를 놓고 보면 명문은 암키와에서만 나타나고 어골문은 수키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파도문은 23점 가운데 수키와가 21점으로 전체 파도문 가운데 91%의 점유율을 보이며 무문은 전체 13점 가운데 암키와가 12점으로 92%의 점유율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그외 나머지 문양에서는 대개 암·수키와가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명문기와는 모두 3점으로 명문내용은 "大定二年"명과 "千司"명의 2종류이다. "大定二年"(1162年)은 中國 金 世宗 2년으로 高麗 毅宗 17年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중국 연호를 시문한 명문기와가 인근 경기남부지역의 산성에서 보고되고 있어 임진산성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주목되는 바이다.[56]

"千司"명 기와는 2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어골문과 화문의 복합문양(복합문Ⅱ식) 상면에 명문을 표현한 형태이다. 이는 명문기와의 경우 대개 기와 등면에 일정한 구획을 마련하고 명문을 시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비해 명분시문이 부차적이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千司"명 기와의 경우 명문의 내용이나 기와의 제작기법으로 미루어 조선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점 모두 내면에 윤철흔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한정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윤철흔이 조선전기까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평기와류는 대개 회청색 경질의 기와로 측면의 분할방법, 내면의 빗질 등의 제작기법에 있어 대부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기와의 측면 와도흔이 내면에서 등면을 향하고 있으며 분할두께는 완전분할의 예는 보이지 않고 측면의 1/2~1/10정도를 분할한 후 기와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내면은 대부분 빗질흔을 통해 상·하 기와의 접합시 생기는 틈새를 없애주고 있다. 주된 문양은 파도문, 집선문계로 다른 유적의 기와 출토예와 견주어 볼 때 문양구성이 매우 단순하다.

집선문 가운데 문양이 삼각형 형태를 이루는 삼각집선문(탐본 5 ①~탐본 5-②)의 경우 다른 기와류에 비해 제작시기가 다소 이를 수 있으나 화문과 결합된

56) 安城 望夷山城과 平澤의 琵琶山城에서는 "興國"·"俊豊四年"銘 기와와 "乾德三年"銘 기와가 출토되어 보고되었다. "興國"銘은 中國 宋 太宗의 年號로 高麗 景宗~成宗年間에 해당하고 "俊豊四年"銘은 高麗 光宗의 年號로 963年을 가리키며 "乾德三年"銘은 中國 宋의 年號로 高麗 光宗 7年(965年)에 해당한다.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안성 망이산성 2차발굴조사보고서」, 1999, 147쪽.
京畿道博物館, 「平澤 國防遺蹟(Ⅰ) 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9, 340쪽.

복합문(삼각집선문+화문: 탑본 17-①~탑본 17-④)[57]이 나타나고 있어 다소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이 외에 중심의 굵은 종선과 양 옆의 사선문으로 이루어진 집선문(탑본 7-①~탑본 7-③)의 경우도 다른 기와류에 비해 시대가 다소 오를 수 있으나 속단할 수는 없다.

파도문의 경우 평기와류 가운데 35%(파도문(32%), 파도문+화문(3%))를 점할 정도로 출토 기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문양이 정연하고 일정한 방향의 시문방향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문양의 간략화되고 중복이 심한 것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복합문은 크게 집선문+화문, 파도문+화문의 2형식으로 분류되는데 전자의 경우 화문에 따라 4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화문의 중앙부에 연자를 표시한 육화문의 형식(탑본 16-①~탑본 16-③), 삼각집선문과 화문이 결합된 형식(탑본 17 ①~탑본 17-④), 집선문과 연화문이 결합된 형식(탑본 18-①~탑본 18-②), 화문이 도식화되고 간략하게 변한 형식(탑본 18-③~탑본 19-①) 등으로 구분된다. 파도문+화문(탑본 19 ②~탑본 19-③)의 경우 화문의 표현이 간략화되어 내부에 문살문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무문의 경우 (탑본 20 ①~탑본 20-③)의 기와는 등면 끝단부에 사선의 굵은 빗질흔을 남기고 있어 주목되며 일부(탑본 22-①~탑본 23-④)는 등면 끝단부를 손으로 눌러 'U'자 모양의 홈을 만들어 처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로 보아 출토된 기와류의 제작시기는 확실한 紀年名이 나타난 "大定二年"명 기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선 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집선문기와류(탑본 5-①~탑본 5-②, 탑본 17-①~탑본 17-④)의 경우 약간 이의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기와의 양상으로 보아 조선전기의 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기와의 제작지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점은 王蓮山城의 서남쪽 2km 지점의 수지읍 상현리 262번지일대에서 조선시대의 瓦窯址 2개소가 조사되었다는 것이다.[58] 이를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와 이를 비교할 때 문양 및 제작기법 등에서 유사점이 많아 생산지를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57) 이와 문양구성에서 동일한 기와가 행주산성에서도 출토되었는데 보고자는 이 기와를 다른 통일신라대의 유물과는 구별하여 조선시대 제작으로 파악하였다.
서울大學校博物館, 「幸州山城-整備復元을 위한 土城地 試掘調査報告書」, 1991, 45·49·81쪽.

58)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기와가마터 발굴조사 약보고서」, 1998.

### 2) 土器類

土器類는 無文土器類와 百濟土器類, 陶器類등이 출토되었다. 그 중 무문토기류와 백제토기류는 북동확장Tr. 내의 파괴된 주거지 주변과 성벽의 성토층에서 주로 출토되었으며 완형은 한점도 없어 기종파악에 어려움이 있다.[59] 다만 여기서는 기종이 추정 가능한 개체를 중심으로 유물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無文土器 중에서 器種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孔列土器의 구연부편과 鉢形土器편이 있으며 기종을 알 수 없는 것으로는 대형의 胴體片이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파편으로 출토되었지만 소량의 개체분이 파괴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형태는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띠며 모두 흑색의 그을음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태토는 크고 작은 석립과 사립을 비짐으로 섞은 점토질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공렬토기편의 경우 가는 사립만을 소량 혼입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여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내면은 여러번 문질러 정선하였으며 외면은 木拍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 저부의 결합방식은 바닥의 측면에 동체부를 붙였다. 또한 무문토기와 함께 半月形石刀와 紡錘車가 공반 출토되었다. 한편 구연부 중에서는 松菊里型土器와 기형, 태토등이 유사한 것이 보이는데 적갈색을 띠며 구연이 짧게 외반되는 甕形의 토기편이다.(도면 15-①) 이는 비록 소량이지만 이 지역의 무문토기 시대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로 생각된다.

壬辰山城에서 출토된 百濟土器의 유형은 打捺文土器가 주를 이루고 있다. 타날문토기 중 사용된 기종을 구연부를 통해 추정하면 주로 壺·甕類, 鉢類, 甁類등으로 파악된다. 그 중 다수를 점하는 壺類는 短頸壺(도면 18)가 있으며, 直口壺의 비율이 높다. 대개의 동체편이 短頸壺類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날문토기에 나타난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口緣部는 直立口緣이 많으며 외반된 경우에도 완만한 각을 이루고 있다. 회흑색토기의 直立口緣部는 口脣이나 外面을 도구를 사용하여 표면을 깎아내었다. 이러한 양상은 급격한 각을 이루며 외반되는 경우나 구연부 끝에 홈이나 단을 이루는 것에 비해 이른 시기의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60] 胴體部는 외면에 타날된 문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 크게 繩文系列(類似繩蓆文, 繩文, 交叉繩文)과 格子文系列(格子文, 格子文

59) 총 개체수는 본 보고서에 게재된 무문토기 28점, 타날문토기 142점, 그외의 토기류 33점을 대상으로 한다.

60) 朴淳發, 「漢江流域 原三國時代 土器의 樣相과 變遷」, 『韓國考古學報』 23, 1989, 44쪽.

+橫沈線, 斜格子文, 斜格子文+橫沈線)로 나뉜다.[61] 문양의 점유율은 승문계열 30%(유사승석문12%, 승문6%, 교차승문12%), 격자문계열 68%(격자문+횡침선 31%, 사격자문+횡침선 37%)로 격자문계열이 약 3:7의 비율로 많다. 이러한 양상은 원저단경호의 경우에서도 저부보다는 동체부 중심인 것을 아래의 <표 8>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8> 임신산성 출토 타날문토기 문양별 분류표

| 구 분 | 문 양 | | 계 (%) | | |
|---|---|---|---|---|---|
| 구연부 | 승문계열 | 유사승석문 | 2점 | 3점 | 19점 (13%) |
| | | 승문 | 1점 | | |
| | 격자문계열 | 격자문 | 3점 | 4점 | |
| | | 사격자문 | 1점 | | |
| | 무 문 | | 12점 | | |
| 동체부 | 승문계열 | 유사승석문 | 14점 | 36점 | 120점 (85%) |
| | | 승문 | 8점 | | |
| | | 교차승문 | 14점 | | |
| | 격자문계열 | 격자문 | 32점 | 82점 | |
| | | 격자문+횡침선 | 5점 | | |
| | | 사격자문 | 26점 | | |
| | | 사격자문+횡침선 | 19점 | | |
| | 무 문 | | 2점 | | |
| 저부 | 격자문계열 | 격자문 | 2점 | | 3점 (2%) |
| | 무 문 | | 1점 | | |
| 계 | | | 142점 (100%) | | |

한편, 표면색은 赤褐色系列과 灰(黑)色系列이 주로 나타나며, 灰青色系列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소성도와 직접 연관되는데 壬辰山城의 경우 적갈색계열

61) 이러한 분류방식은 원저단경호류의 경우 동체부와 저부의 분별이 어려우며 한 개체 내에서 여러 문양이 나타날 수 있어 분석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으나 신금성 유적이나 장산리 유적과 같이 기종파악이 어려운 것이 주로 출토된 유적의 경우 토기의 태토, 소성도, 내면처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면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忠南大學校博物館, 「神衿城」, 1994 ; 忠南大學校博物館, 「天安長山里 遺蹟」, 1996)

과 회(흑)색계열 모두 연질로 나타나고 있다. 또 아래의 <표 9>와 같이 표면색의 점유율은 적갈색계열 30%, 회(흑)색계열 69%로 후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회색과 회흑색은 약 3:4의 비율로 나뉘어 진다.

<표 9> 임진산성 출토 타날문토기 속성 분류표

| 구 분 | 표면색 | 소 성 도 | | 계 (%) | | |
|---|---|---|---|---|---|---|
| | | 연 질 | 경 질 | | | |
| 적갈색계열 | 적갈색 | 19점 | 3점 | 22점 (15%) | | 43점 (30%) |
| | 황갈색 | 1점 | · | 1점 (1%) | | |
| | 갈색 | 20점 | · | 20점 (14%) | | |
| 회(흑)색계열 | 회갈색 | 24점 | · | 24점 (17%) | | 98점 (69%) |
| | 회백색 | 4점 | 1점 | 5점 (3%) | 44점 (31%) | |
| | 회색 | 15점 | · | 15점 (11%) | | |
| | 회흑색 | 30점 | · | 30점 (21%) | 54점 (38%) | |
| | 흑색 | 24점 | · | 24점 (17%) | | |
| 회청색계열 | 회청색 | 1점 | · | 1점 (1%) | | 1점 (1%) |
| 계 | | 138점 (98%) | 4점 (2%) | 142점 (100%) | | |

지부는 소량만 채집되어 短頸壺類를 제외한 토기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다만 저부의 형태가 좁은 점이나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황갈색 연질의 사례가 보이는 점 등이 특징이다.

또한 鉢類는 저부의 형태가 확실하지 않지만 심발형토기, 시루(도면 19-①), (장)난형토기(도면 19-⑥)등이 보인다. 甁類는 구연부 1점이 관찰된다.(도면 18-⑬)

이와 같은 토기상은 河南 漢沙里 遺蹟[62]의 A地區나 인근의 龍仁 水枝 百濟住居址[63]와 같은 백제시대 생활유적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과는 심발형토기나 장란형토기, 시루 등의 생활용기로 볼 때 器種上 유사하나 고배류나 회청색 경질의 壺·甕類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는 유적의 성격뿐 아

62)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京畿道公營開發事業團, 『漢沙里』1~5, 1994.
최종택, 「미사리유적의 주거양상과 변천」, 『마을의 고고학』,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1994.

63) 한신大學校博物館, 『龍仁 水枝 百濟 住居址』, 1998, 145~149쪽.

니라 시기적인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진산성의 경우 비록 파편중심이지만 原三國에서 百濟土器로 넘어가는 시기의 토기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생활용기는 일부 경질화된 것도 있다. 또한 수지 배제주거지나 夢村土城 등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백제토기상이 갖추어지지 않는 점이나 거의 모든 기종이 연질로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출토유물의 시기적 하한은 늦어도 3세기 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陶器類는 주로 甕이나 동이류에서 구연부의 형태가 직각으로 외반되거나 둥글게 밖으로 말아 쳐리한 것이 많다. 구연부는 대부분이 경질이나 저부는 연질이 전반기량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는 統一新羅~朝鮮時代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 3) 磁器類

임진산성에서 출토된 자기는 대부분 조선백자이며, 여기에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청화백자가 몇점 포함되어 있다. 조선백자는 도립삼각형에 실백색, 회백색 유조의 상품백자류와 축점굽에 상반을 한 회청백색 유조의 하품 백자류이며 이중 상품백자에 해당되는 자기가 상당수이다. 도자기류의 주요기종은 대접, 접시, 잔, 병, 호, 종지, 뚜껑 등이다.

대표유물은 "天"이 음각되어 있는 백자대접의 저부편이다.(사진 139-④) 도립삼각형굽에 가는모래받침을 사용하였고 회백색의 유조를 띄는 것으로 보아 16세기 전반의 상품 자기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천시현황 음각 명문이 발견된 예로는 경기도 광주군 우산리 9호, 도마리 1호, 번천리 9호, 무갑리 2호·17호, 귀여리 11호 등이 있으며 조선전기인 15후반 16세기전반에 운영되던 가마이다.[64]

또한 이 유적에서 발견된 청화백자를 살펴보면 "大明宣德年製", "長春佳器"등의 명문이 있어 明代 宣德(1426-1435)과 嘉靖(1522-1567)년간에 제작된 것으로 공반된 조선백자와도 시기가 일치한다. "大明宣德年製" 청화백자는 경덕진 관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기벽이 매우 얇고 청화의 발색이 매우 좋다. 이에 비해 "長春佳器" 명문이 있는 청화백자는 청화의 발색이 검은 빛을 띠며, 기벽이 두텁고 투박하다. 가정년간(1522-1567) 경덕진 민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시 국화, 모란

64)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廣州中央官窯』, 1998.

등 화폐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이사실과도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상에 남아있는 중국산 청화백자의 수입내용을 살펴보면 「朝鮮王朝實錄」 성종대(1470년대)에 각계층의 많은 백성들이 청화백자를 밀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극심하고 커다란 국가적 문제로까지 나타나는데 이것을 사용금제와 생산의 통제에 이르나 여전히 밀무역과 사치가 범람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65] 그리고 그 이전시기인 세종대에도 선덕년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세종년간(1418-1450) 명사신이 가지고온 청화백자 대접을 우리왕실에 하사하였다.[66] 이러한 기사의 내용은 명문이 있는 중국제 청화백자의 출토예와 상응하며, 공반출토된 도자기의 시기가 조선전기인 점과도 일치한다.

이와같이 임진산성에서 출토된 도자는 조선시대 사옹원의 분원인 경기도 광주에서 생산된 상품백자가 대부분이며, 주요유물은도림삼각형굽의 대접바닥에 "天"의 명문이 음각된 백자와 "大明宣德年製"(1426-1435), "長春佳器"(1522-1567)의 명문이 있는 중국산 청화백자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임진산성에서 출토된 도자의 중심연대는 조선전기에 해당되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임을 알 수 있다.

### 4) 金屬類

壬辰倭城에서 출토된 金屬遺物은 鐵製類 106점, 青銅類 6점의 一括, 金銅類는 金銅片 2점이 확인되고 있다.

### (1) 鐵製類

본 遺蹟에서 출토된 철제유물을 機能에 따라 분류해 보면 모두 106점 가운데 무기류 64점(60.4%), 농·공구류 2점(1.9%), 기타(건축부재) 40점(37.7%)으로 무기류와 기타(건축부재)가 대다수(98.1%)를 점하고 있다. (<표 5> 참조)

---

65) 「成宗實錄」, 卷55, 6年 5月 庚申條."...今觀士大夫之家 日事侈麗 互相誇美 以其甚者言之 大小器皿 非磁器不用... 夫磁器 上國所底貢爲辦 而家家有之 使臣之行 禁令雖嚴 以貨法如是..."

66) 「世宗實錄」, 卷46 11年 11月 甲辰條

### 가) 武器類

총 64점으로 形態에 따라 분류해 보면 銃筒, 鐵製彈丸, 鐵矛(矛, 鏑), 鐵刀(小刀, 刀子, 칼집, 鋏), 鐵鏃(箭鏃, 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鏃이 43점으로 67.1%의 높은 빈도수를 점하고 있다.

출토된 무기류를 각 유물의 형태와 연관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임진산성 출토 철제 무기류 분류표

| 구 분 | 유 물 명 | | 계 (%) | |
|---|---|---|---|---|
| 무 기 류 | 총통 | | 2점 (3.1%) | 6점 (9.4%) |
| | 천제단환 | | 4점 (6.3%) | |
| | 철도 (칼손포함) | | 6점 (9.4%) | |
| | 鐵刀 | 소도 | 1점 (1.6%) | 9점 (14.1%) |
| | | 小刀자 | 2점 (3.1%) | |
| | | 칼집 | 5점 (7.8%) | |
| | | 鋏 | 1점 (1.6%) | |
| | 鐵鏃 | 전촉 | 2점 (3.1%) | 43점 (67.1%) |
| | | 촉 | 41점 (64%) | |
| 계 | | | 64점 (100%) | |

王辰山城에서 출토된 玄字銃筒 2점은 나무 이식 작업중에 발견·신고되었는데 임진산일대가 임진왜란 초기 서울수복을 위해 북상하던 5萬의 三南勤王兵과 後軍과의 光教山戰鬪가 있었던 지역일 뿐만 아니라 임진산성 인근 주변에서 임진왜란시기의 "萬曆二十年"(1592년, 朝鮮 宣祖 25年 壬辰年)명 등 잇따라 총통등이 발견[67]되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시 사용되었던 총통으로 추정되며 또한 이 일대가 임진왜란시 격전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통은 두 점 모두 국가귀속 유물로 지정되었고 한 점은 國立文化財硏究所에서 보존처리를 마친 후 國立中央博物館에 보관하고 있으며 다른 한 점은 본 博

67) 文化財管理局, 「重要發掘遺蹟文化財圖錄」 第Ⅱ輯, 1989, 501쪽.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시 구성면 마북의 삼호건설 아파트사업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1998.

物館에서 보존처리중에 있다. 保存處理 결과 銘文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藥室에는 당시의 火藥이 그대로 남아있고 鐵彈丸이 銃筒내부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소장 銃筒은 鐵製彈丸이 銃筒 내부에서 분리되었으나 우리박물관에서 처리중인 銃筒은 탄환이 銃筒내부에 단단하게 고착되어 분리되지 않았다.

壬辰山城 출토품 중 우리박물관에서 처리중인 銃筒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면 天地玄黃 銃筒中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玄字銃筒으로 추정되며 전체길이는 78.5cm, 중량은 43.7kg이며 筒身에는 竹節이 7마디로 施條되어 있다. 擧金은 藥室과 砲口사이 셋째와 다섯째 죽절사이에 꺾쇠형으로 부착되어 조성하였으며 크기는 길이 11.9cm, 높이 6.2cm, 두께 1.6cm이다. 筒身 내부에는 砲口에서 57.4cm 지점에 彈丸이 장착되어 있으며 藥室 外徑은 가로 11.8cm, 세로 14cm로 筒身보다 지름이 약간 크다. 線穴은 砲尾에서 약 7.5cm 지점에 뚫렸고 砲尾는 폭 1.1cm로 원형으로 마무리하였다. 筒身은 砲尾에서 7條를 이루며 조금씩 좁아지다가 砲口 5.4cm앞에서 밖으로 살짝 벌어져 砲口를 형성하였다. 砲口의 外徑은 11.9×12.5cm(가로×세로), 內徑은 6.9×6.7cm이다.

鐵製彈丸은 銃筒에서 발사된 것으로 모두 4점이 출토되었는데 鍛造製品이며 形態는 모두 球形을 띠고 있다. 두 점은 나른 두 점에 비해 小形이며 이 중 도번 49-⑰(사진 183-②)의 鐵彈丸은 N1W2 Tr.내의 원형 저장공내에서 탑본 1-①(사진 63 ①), 탑본 7-①(사진 73-①)의 기와들과 함께 출토되었다. 나머지 두 점은 朝鮮時代의 각종 銃筒에서 발사된 것으로 한 점은 국가귀속되어 있으며 그 形態가 비슷한 예로 여천 船所 풀뭇간유적[68]에서 지표조사 당시 수습된 鐵丸 1점이 있다.

矛는 찌르기 위한 武器로 일반고분에서 출토되는 일반적인 矛에 비하여 그 크기가 훨씬 큰 철모로 武器類 중 守城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유적에서 출토된 철모는 鐵鏃 1점을 포함해서 모두 6점이 출토되었는데 3점은 완형으로 二段柄式이며 2점은 鋒部 또는 銎部만이 남아 출토된 상태이다. 완형의 3점은 守城用鐵矛로 국가귀속되어 있으며 폭이 전체길이에 비해 좁고 細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3점 모두 鍛造品으로 銎部 단접시 말아붙인 鍛接部가 관찰되고 銎部의 斷面은 圓形에 가까운 형태이다. 銎部 하단에 자루를 결박하기 위한 圓孔과 그 주위에 목질의 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鋒部의 斷面形態는 이등변삼각형 또는 편륙렌즈형이다. 도면 43-④(사진 164-①)는 鋒部만, 도면 43-⑤(사진 164-②)는 銎部

68) 順天大學校博物館, 『여천 船所 풀뭇간』, 1996, 50쪽.

만이 남아 출토되었는데 크기와 형태를 비교해 볼 때 서로 다른 2점으로 판단된다.

鐵鎚은 1점(도면 43-⑥, 사진 164-③)이 출토되었는데 鍛造品으로 鐵鏃의 단변은 고리모양에 가까운 형태이며 자루를 꽂아 쓰기 용이하게 鍛接部를 'V'字形의 결입부로 만들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刀는 小刀 1점, 刀子 2점, 철환집 5점, 鎌 1점 등 모두 9점으로 무기류중 14.1%를 차지하고 있다. 도면 44 ①(사진 164-⑤)은 小刀로 直背式이며 身部의 길이 대 폭의 비율이 17.2 : 1로 폭이 다소 세장하다. 刀子는 2점으로 莖部에 이르기 전 關部의 양쪽에 모두 鈍角으로 꺾여 있는 形態를 보이고 있으며 身部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고 莖部의 단면형태는 細長方形이다. 도면 44 ③(사진 165 ②)은 刃部 先端部가 'ㄱ'자로 꺾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국가귀속되어 있다. 도면 44-②(사진 165 ①)는 3개의 편으로 나뉜 刀子로 木質의 흔적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 철환집은 모두 5점이며 鐵板에 2열의 구멍이 뚫린 형태이다. 도면 49 ①(사진 181-①)은 원형의 상태로 구멍이 좌측 7개, 우측 6개 뚫어진 철제칼집으로 같이 출토된 칼집들의 漆痕으로 보아 이것 또한 漆이 입혀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4점은 부분적으로 漆痕이 많이 남아 있으나 부식이 심한 상태로 漆痕이 많이 부풀어 있고 구멍은 몇 개 확인되지 않고 있다. 鎌은 刀子의 손잡이와 刃部의 연결부위에 끼우는 것으로 일부 결실되어 출토되었다.

鏃은 箭鏃 2점을 포함해서 43점으로 鐵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철기유물 중에서의 점유율은 40.7%이며 武器類 중에서도 64%로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鐵鏃을 분류해 보면 평면상 형태는 蛇頭形과 柳葉形으로 구분할 수 있다. 蛇頭形은 모두 26점인데 9점은 현재 국가귀속되어 있으며 鏃頭의 단면은 렌즈형, 능형이고 莖部의 단면은 방형, 장방형, 능형이다. 柳葉形은 모두 13점으로 2점이 국가귀속되어 있으며 二段柄式을 띠고 있다. 鏃頭의 단면은 능형이고 莖部의 단면은 방형, 능형이다. 鏃頭의 단변이 능형이고 莖部의 단면이 방형인 도면 45-⑰(사진 168-③)의 鐵鏃과 비슷한 예로는 김해 동삼동유적[69]에서 출토된 鐵鏃과 서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箭鏃은 모두 2점인데 도면 44-④(사진 165-③)는 평면상 柳葉形이고 단면상 菱形을 이루고 있으며 莖部의 폭은 길이에 비해 좁은 형태를 띠고 있다. 도면

69) 釜山廣域市博物館, 「김해 동삼동 소방도로 개설구간내 김해옵성지 시굴조사」, 『博物館硏究論集』 7, 1997, 86쪽.

46-⑳(사진 165-④)은 鏃頭가 6角錐形의 형태인 箭鏃으로 莖部는 장방형에서 하단부로 가면서 두께가 줄어들고 있다. 朝鮮初期 銃筒類의 발사물[70]은 대략 12종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도면 44-④(사진 165-③)는 中箭에 속한다.[71]

### 나) 農·工具類

본 遺蹟에서 출토된 농·공구류는 2점인데 소형철겸과 철겸편으로 전체 철기의 1.9%에 불과하다. 도면 44-⑤(사진 165-⑤)는 완형의 소형철겸으로 刃部의 形態로 보아 오른손잡이용이며 基部아래에 자루와의 연결을 공고히 하기 위한 圓孔이 남아 있으며 도면 47-㉒(사진 184-③)는 철겸편이다. 철겸의 가능이 농·공구류외에 武器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扶蘇山城[72]에서 출토된 다량의 대형철검에서 일찍부터 확인되었으나 본 遺蹟에서 출토된 鐵鎌 2점은 소형이어서 農·工具類로 분류하였다.

### 다) 其他(建築部材)

본 遺蹟에서 출토된 기타유물은 총 40점으로 形態에 따라 분류해 보면 돌쩌귀, 鎹, 釘, 손잡이, 꺽쇠, 고리, 기타 철제품(鐵板)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鐵釘은 장식용 철정(10점)을 포함하여 26점으로 점유율 65%의 높은 빈도수를 점하고 있다.

이를 각 유물의 형태와 연관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

70) 조선초기의 총포류의 발사물을 분류하면 銃筒碗口丸, 大箭, 次大箭, 中箭, 次中箭, 小箭, 次小箭, 新製銃筒箭, 細長箭, 次細長箭, 細箭, 次細箭 등 12種이다.

71)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硏究』 第15篇, 1994, 52쪽, Table 9 참조.

72) 扶餘文化財硏究所, 『扶蘇山城』, 1995, 191쪽, 254쪽.

<표 11> 임진산성 출토 철제류 분류표

| 구 분 | 유 물 명 | 계 | |
|---|---|---|---|
| 기 타<br>(건축부재) | 철제돌쩌귀 | 2점 (5%) | |
| | 철착 | 1점 (2.5%) | |
| | 철정 | 16점 (40%) | 26점 (65%) |
| | 장식용 철정 | 10점 (25%) | |
| | 철제손잡이 | 2점 (5%) | |
| | 철제꺽쇠 | 2점 (5%) | |
| | 철제고리 | 6점 (15%) | |
| | 철제판(철판) | 1점 (2.5%) | |
| 계 | | 40점 (100%) | |

돌쩌귀는 철판을 둥글게 감아 구멍을 내고 다른 하나는 장부를 감아 넣어 구멍에 꽂아 문 또는 창문을 돌려 여는 창호철물로서 본 遺蹟에서는 암톨쩌귀와 수톨쩌귀 한 쌍이 출토되었다.

鐵釘은 장식용철정 10점(25%)을 포함해서 모두 26점이 출토되었는데 전체 철제유물 중 철정의 점유율은 24.5%이며 기타(건축부재) 중에서는 65%로 높은 빈도수를 점하고 있다. 현재 국가귀속되어 있는 도면 47-Ⓘ(사진 173 Ⓘ) 1점은 전체적으로 목질이 덮여 있으며 저장공내에서 출토되었다. 철정의 형태를 살펴보면 釘頭가 확인되는 釘은 7점, 釘頭가 없는 釘은 7점, 'U'형과 'L'자형으로 휘어진 釘이 각각 1점씩이다. 鐵釘 10점은 장식용 釘으로 부식상태가 좋지 않아 金屬芯이 드러나 있다.

철제꺽쇠는 2점으로 난조품이며 제작방법은 鐵製板을 'ㄷ'자형으로 구부려 제작하였고 철제손잡이도 2점으로 形態가 서로 비슷하며 장방형의 막대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 고정시킬수 있도록 하였다.

철제고리는 모두 6점으로 용도에 따라 3구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고정용으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하는 3점은 전체길이 4~4.8cm로 2개의 몸체가 다른 고리에 연결을 위해 고정시켰던 고리로 보인다. 도면 48-ⓑ(사진 179)은 장식용 철제고리의 일부로 판형의 고리 2개와 반월형의 고리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2점은 형태만 놓고 본 때 문을 걸기 위한 고리로 볼 수 있겠으나 이 유적의

성격을 보았을 때 兵器등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철제품은 두께 0.1cm의 鐵板으로 直徑 0.8cm 정도의 구멍 2개가 뚫려 있다. 형태상으로는 정확한 용도를 알기 어려우나 유적의 성격상 鐵이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銃筒 및 鐵製彈丸, 鐵製遺物 등의 출토 상황은 이 유적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출토된 철제유물이 다양성을 보이는 점은 그 당시 철이 여러방면에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근·현대까지의 철의 보급과 철기문화의 발전양상을 파악할 수 있겠다.

### (2) 靑銅·金銅類

이번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청동·금동유물은 靑銅梨花文粧刀鞘 1점, 靑銅環 1점, 靑銅箸 1점, 靑銅匙 2점, 靑銅그릇편 1점의 청동일괄, 金銅片 2점 등이다.

靑銅梨花文粧刀鞘는 1점으로 표면에 梨花文이 세밀하게 陽鏨되었다. 梨花文은 조선시대 여인들의 裝身具에 널리 보급되어 구한말까지 사용되었던 문양이다. 남녀가 粧刀를 차는 풍습은 高麗가 元나라에 복속한 후부터 朝鮮時代에 널리 일반화되었고 壬辰倭亂 당시 항상 작은 粧刀를 지니고 있다가 유사시에 자결 혹은 상대를 공격하였다는 기록이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있다.[73]

靑銅環은 2개의 편으로 나뉘어 1점이 출토되었는데 부식으로 靑銅綠의 흔적이 보이며 나뉜 부분의 끝은 얇은 金銅心만이 남아 있다. 靑銅匙는 모두 2점이며 도면 50-③(사진 185-③)은 匙部部分이 남아 柄先端部가 결실되어 있고 匙部의 단면은 弧形을 이루고 있으며 도면 50-④(사진 185 ④)은 柄部만 남아 출토되어 그 모습이 세수등이처럼 돌출한 형태로 장신구가 붙어 있거나 燕尾形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고려말기에 제작되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高麗時代와 朝鮮時代의 숟가락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고려의 匙는 흔히 燕尾形의 형식으로 특히 柄部의 끝이 제비꼬리 모양 두 갈래로 갈라지며 측면의 모양은 S자형을 이룬다[74]. 고려말기로 가면서 퇴화되어 가는데 溫寧君墓에서 출토된 숟가락의 형식[75]으로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숟가락은 柄部 先端部

---

73)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 16, 392쪽 재인용.
74) 李蘭暎, 『韓國古代金屬工藝硏究』, 一志社, 117쪽.
75) 李蘭暎, 앞의 책, 一志社, 138쪽.

의 단변을 자르면 납작하게 변하고 基部는 半月形으로 마무리를 짓는다.[76]

青銅그릇편은 口緣이 직립하였으며 공반유물로는 金銅片 2점과 小刀 1점이 있다. 金銅片은 2점으로 青銅에 金箔을 입혔으나 金箔은 대부분 剝落되어 일부만 남아 있다.

76) 李健映, 앞의 책, 一志社, 137쪽.

## Ⅵ. 맺음말

本 博物館에서는 龍仁市 水枝邑 王辰山城에 대한 緊急發掘調査를 실시하여 이미 확인된 銃筒 2점 이외에 王辰倭亂 당시 龍仁 光教山戰鬪에서 朝鮮軍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武器類, 青銅器時代의 無文土器類, 百濟時代의 打捺文土器類, 朝鮮時代의 中國製 銘文陶磁器·瓦類 등이 出土하였다.

龍仁 王辰山遺蹟의 조사내용을 정리해 볼 때, 青銅器時代에서부터 初期百濟時代를 거쳐 朝鮮時代에 이르는 複合遺蹟으로 특히 입지조건상 해발 129m 고지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초의 유적 형성이후 韓國戰爭까지 계속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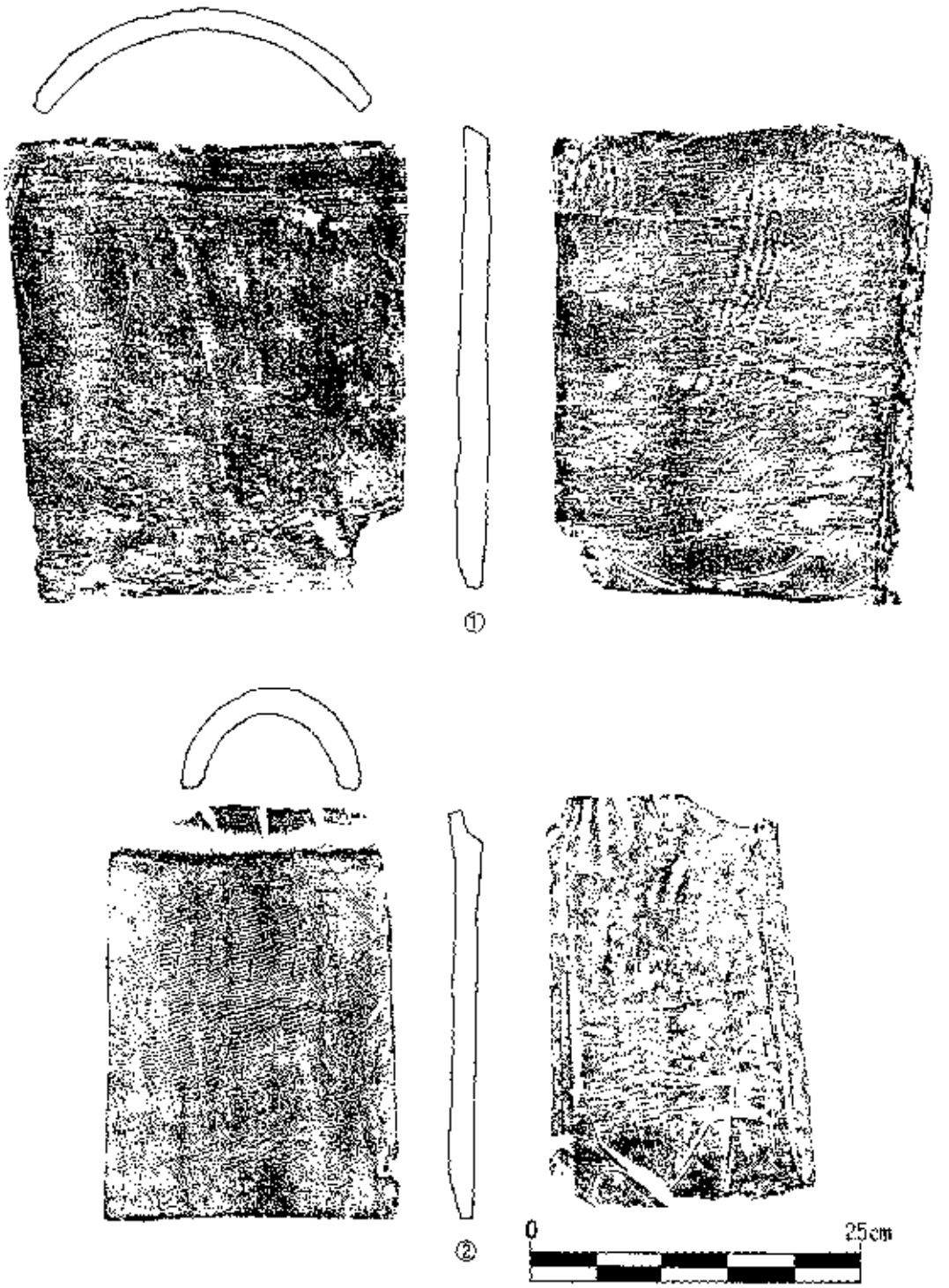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遺蹟이 정식조사 이전에 대부분 훼손되어 정확한 문화상을 비롯한 세반자료들이 멸실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각종 개발로 인한 문화유적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요구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확인된 遺構 가운데 朝鮮時代 城壁의 一部에 해당하는 盛土層은 각종 공사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어 그 전모를 밝힐 수 없지만 盛土層 外部에서 확인된 溝施設과 더불어 朝鮮時代 關防施設 築造의 한 資料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盛土層 下部에서 확인된 百濟時代의 住居址는 移木作業過程에서 대부분 파괴되어 西壁과 바닥면 일부가 확인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無文土器類·半月形石刀·石製紡錘車 등과 더불어 王辰山 일대에 일찍부터 인류가 거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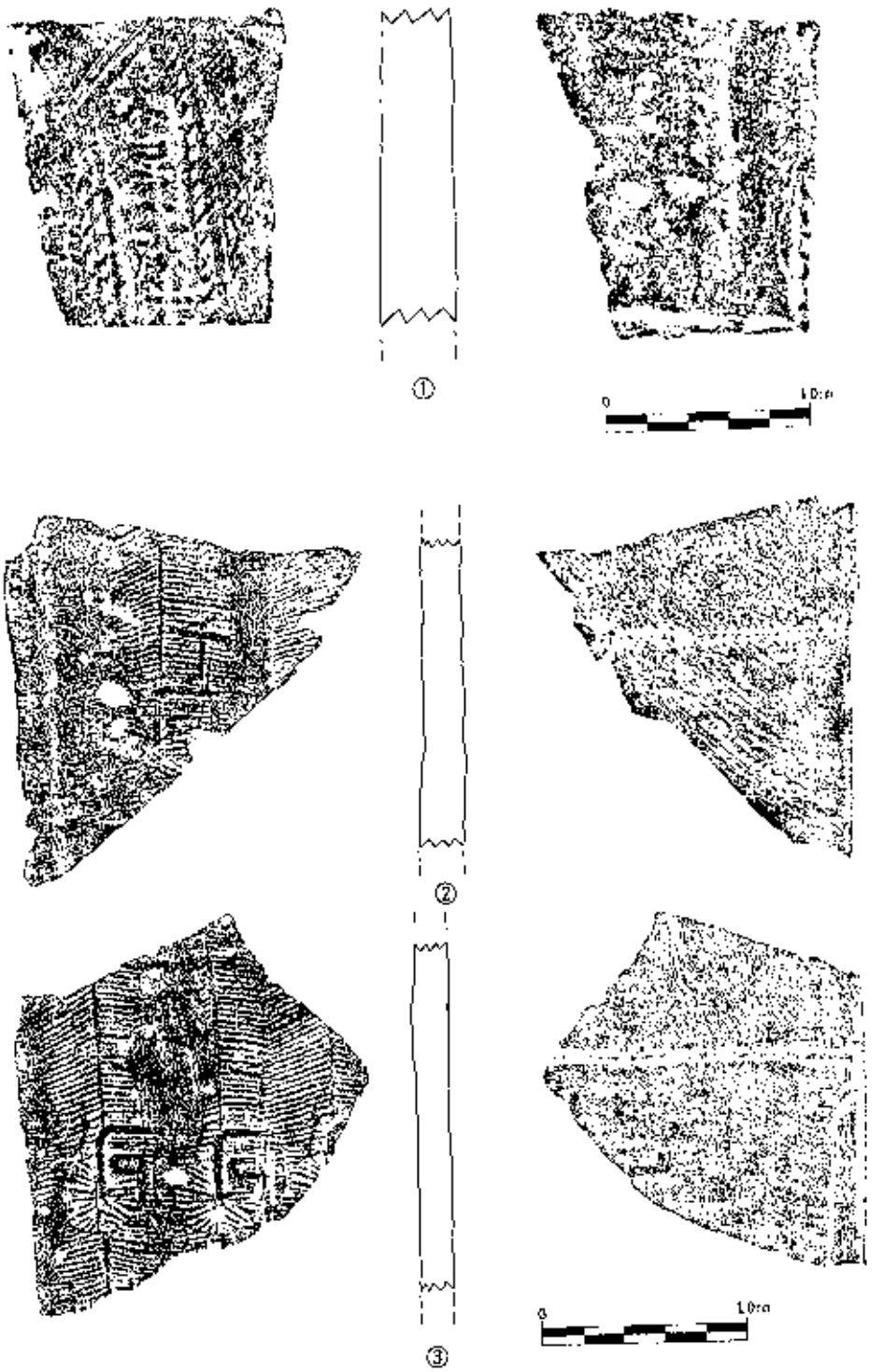
출토된 遺物 가운데 우선 銃筒은 그 기본적인 형태와 크기가 朝鮮 明宗(1545~1567)대에 주조된 보물 1,233호 玄字銃筒과 비슷하여 王辰倭亂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王辰倭亂 당시 격전지에서 기타 무기류와 一括로 출토되어 더없이 귀중한 학술자료로 평가된다. "大明宣德年製"(1426~1435)·"長春作器"(1522~1566)銘 中國製 磁器類 등을 통해 볼 때 王辰山城이 일시적인 목적 아래 축조되었다기 보다는 이 일대의 關防體系 하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조사의 성과와 의의로는 우선 도로개설과 조경을 위한 移木作業으로 심하게 훼손된 유적에서 이렇듯 소중한 자료가 출토되어 유적보존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되었다는 점과 발굴사상 최초로 王辰倭亂 당시 무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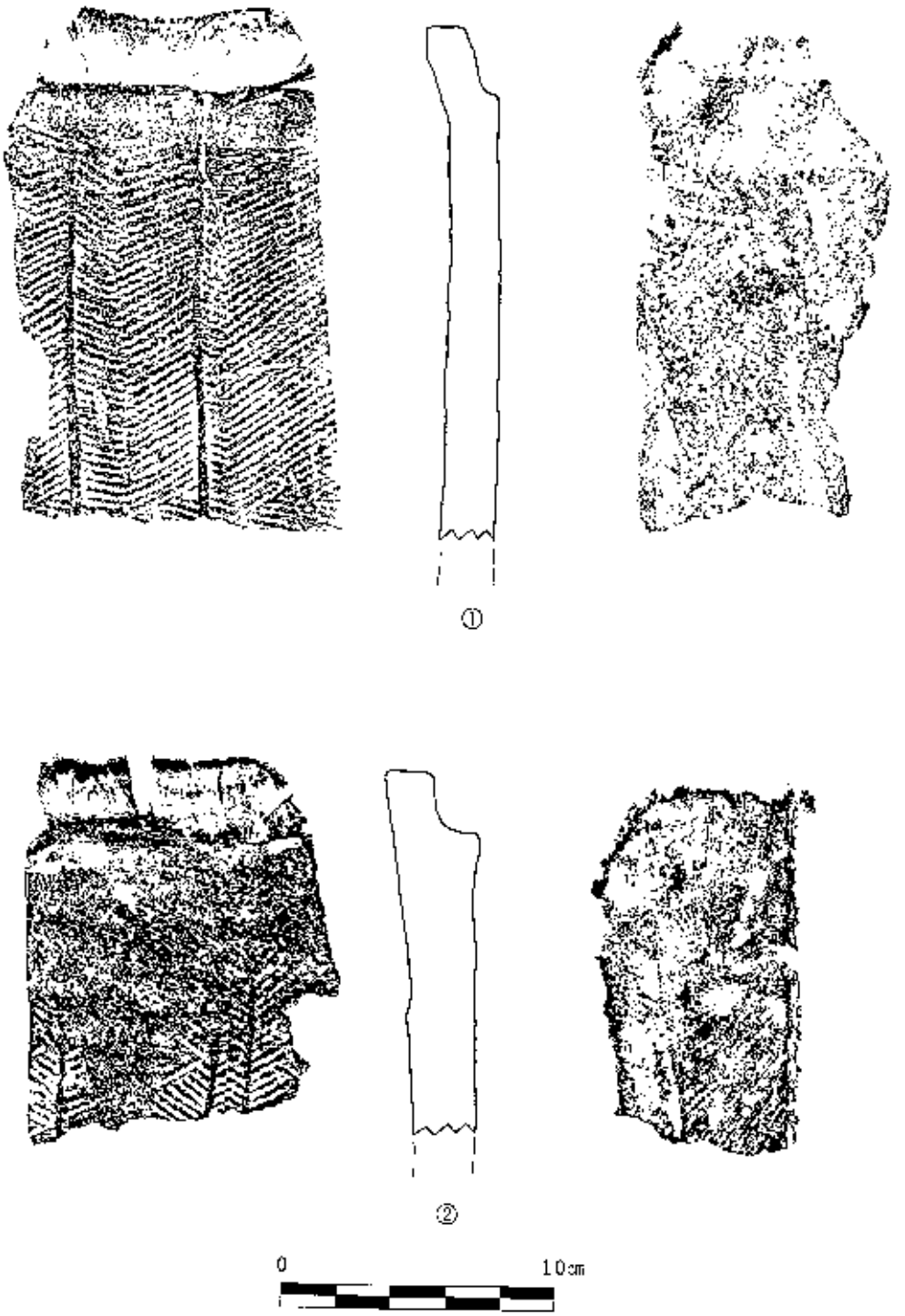
제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일괄로 출토되었고, 그것도 문헌에 격전지로 알려졌던 역사의 현장에서 정식발굴을 거쳐 출토되어 朝鮮時代 武器發達史와 戰鬪方式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학술자료를 확보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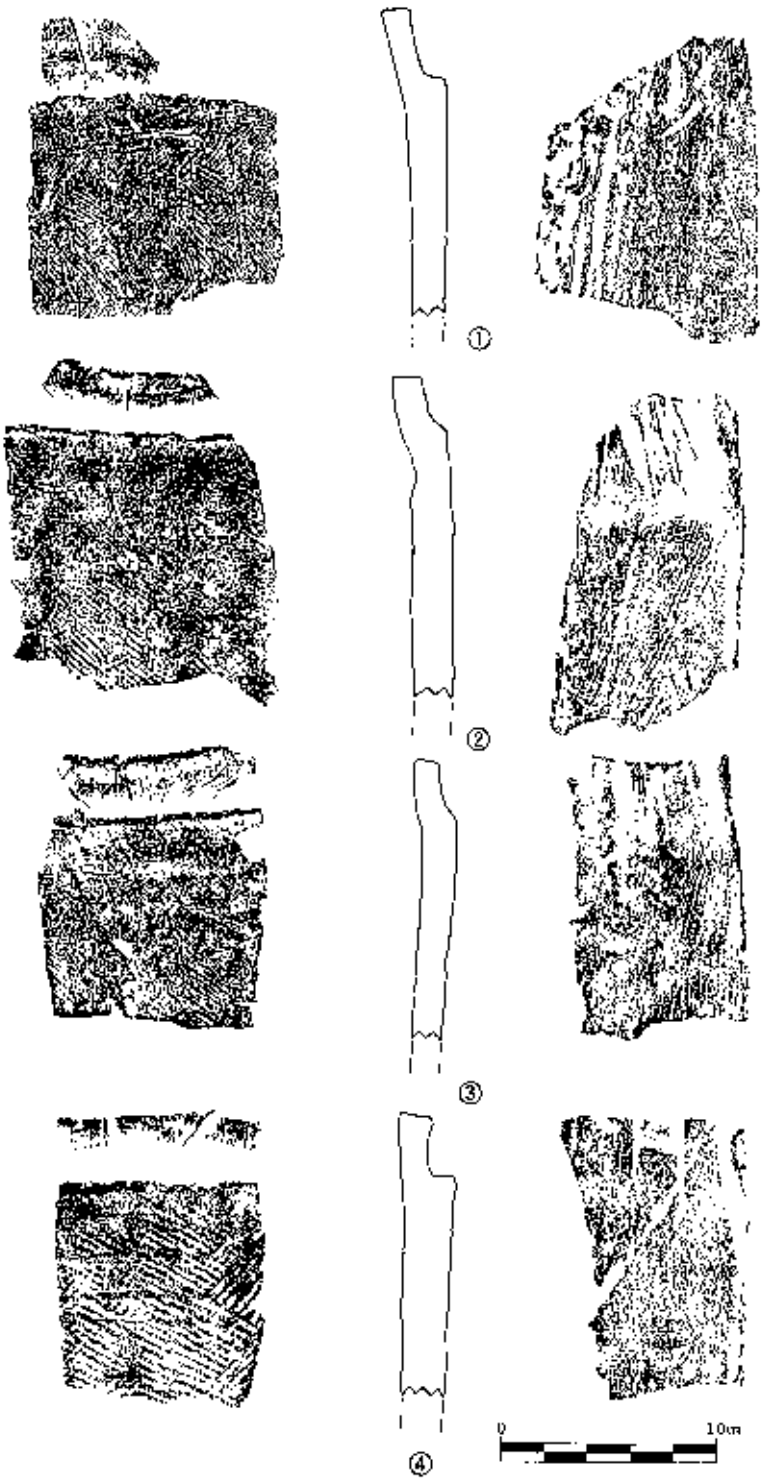

【탑본 1】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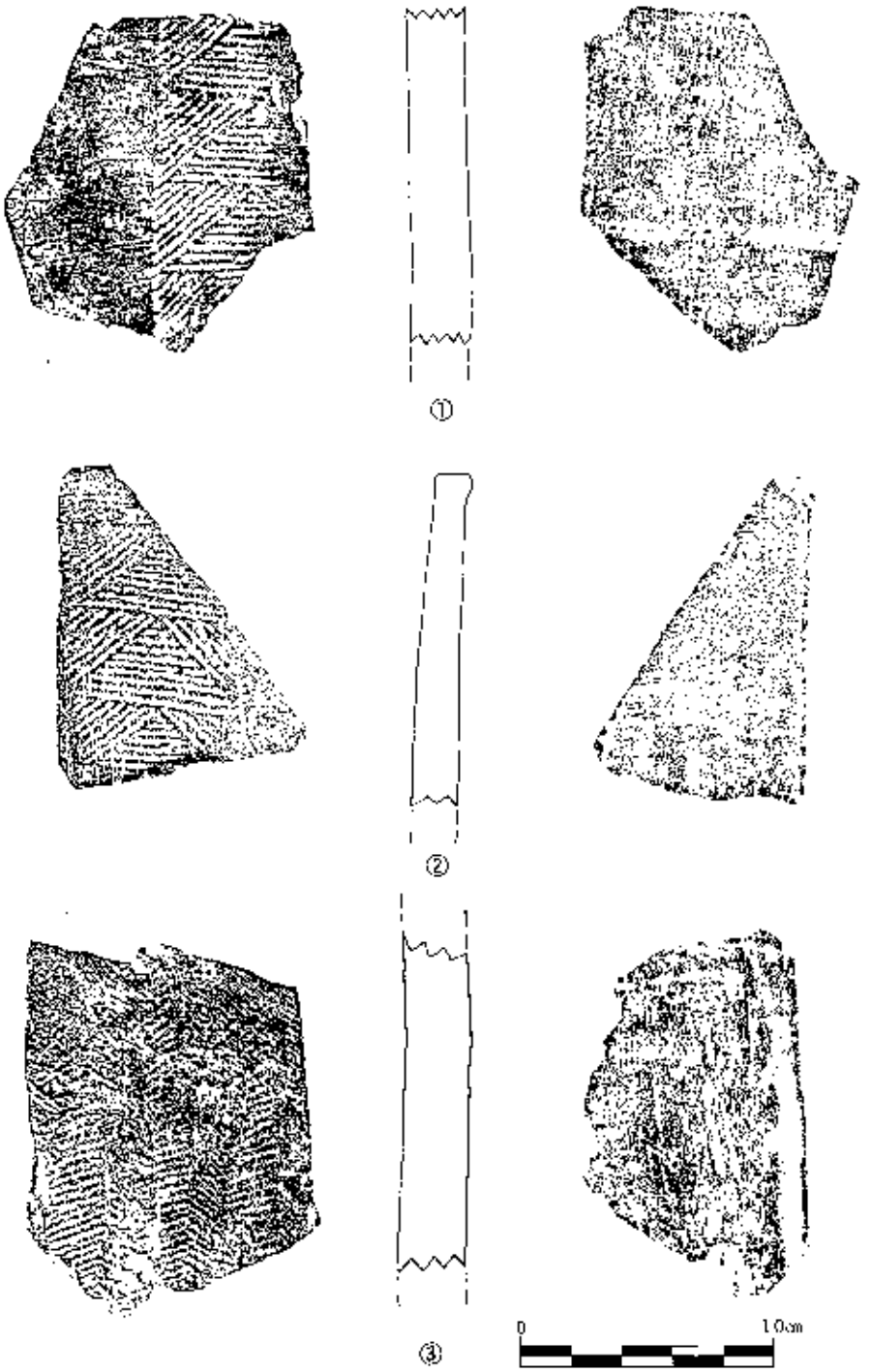

【탑본 2】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2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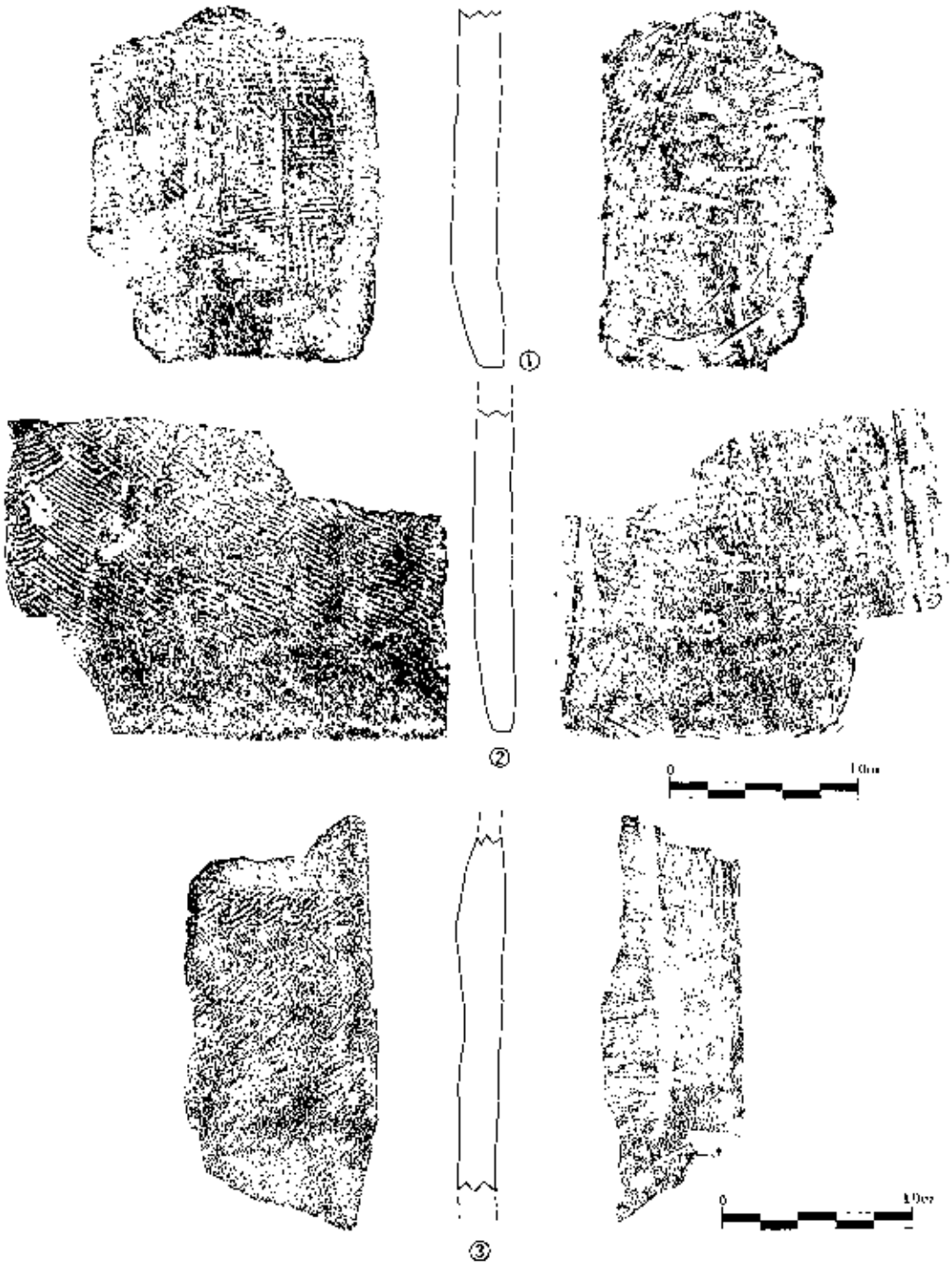

【탁본 3】 임진산성 흙토 기와류 3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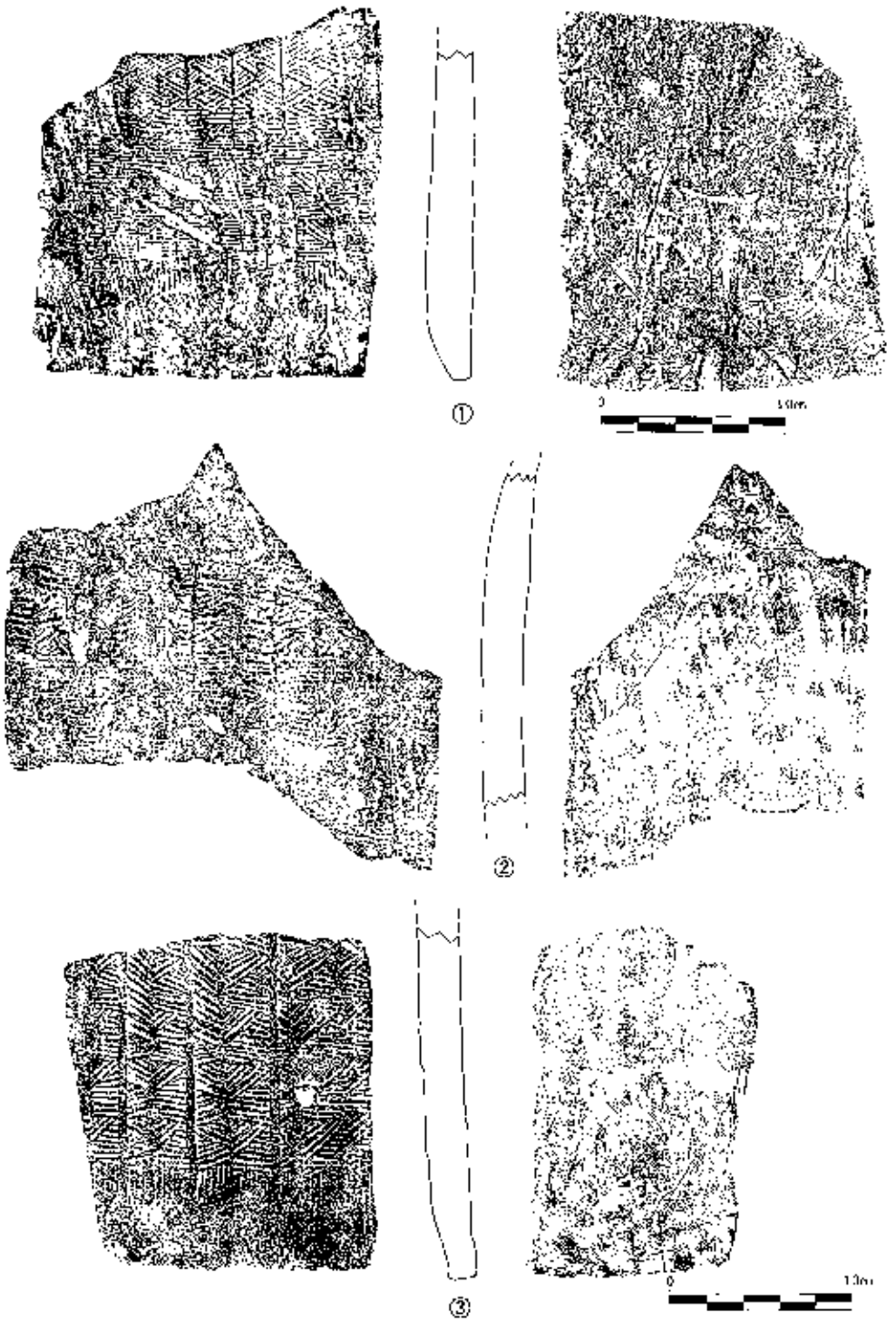

【탑본 4】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4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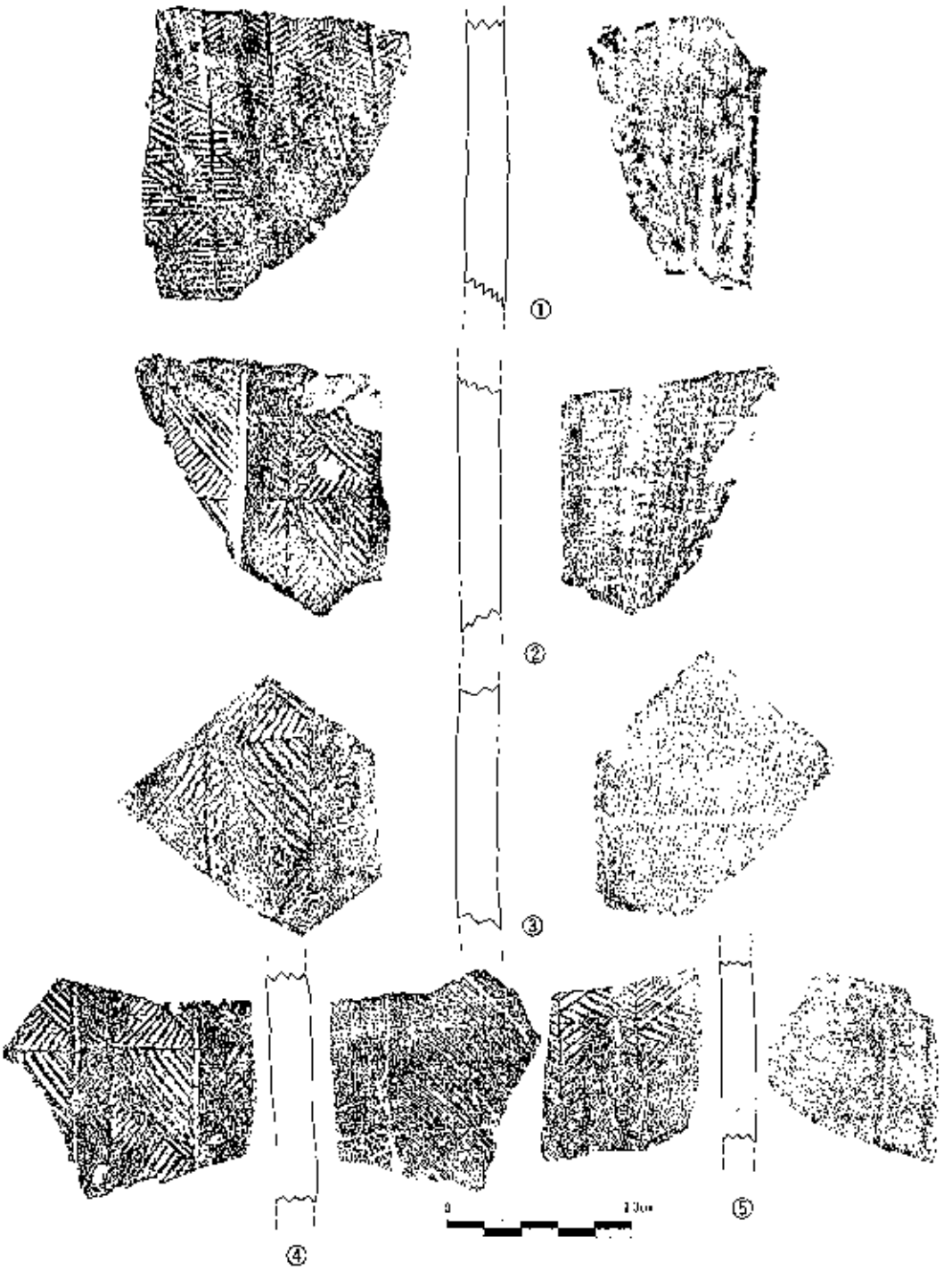

【탑본 5】 인진산성 출토 기와류 5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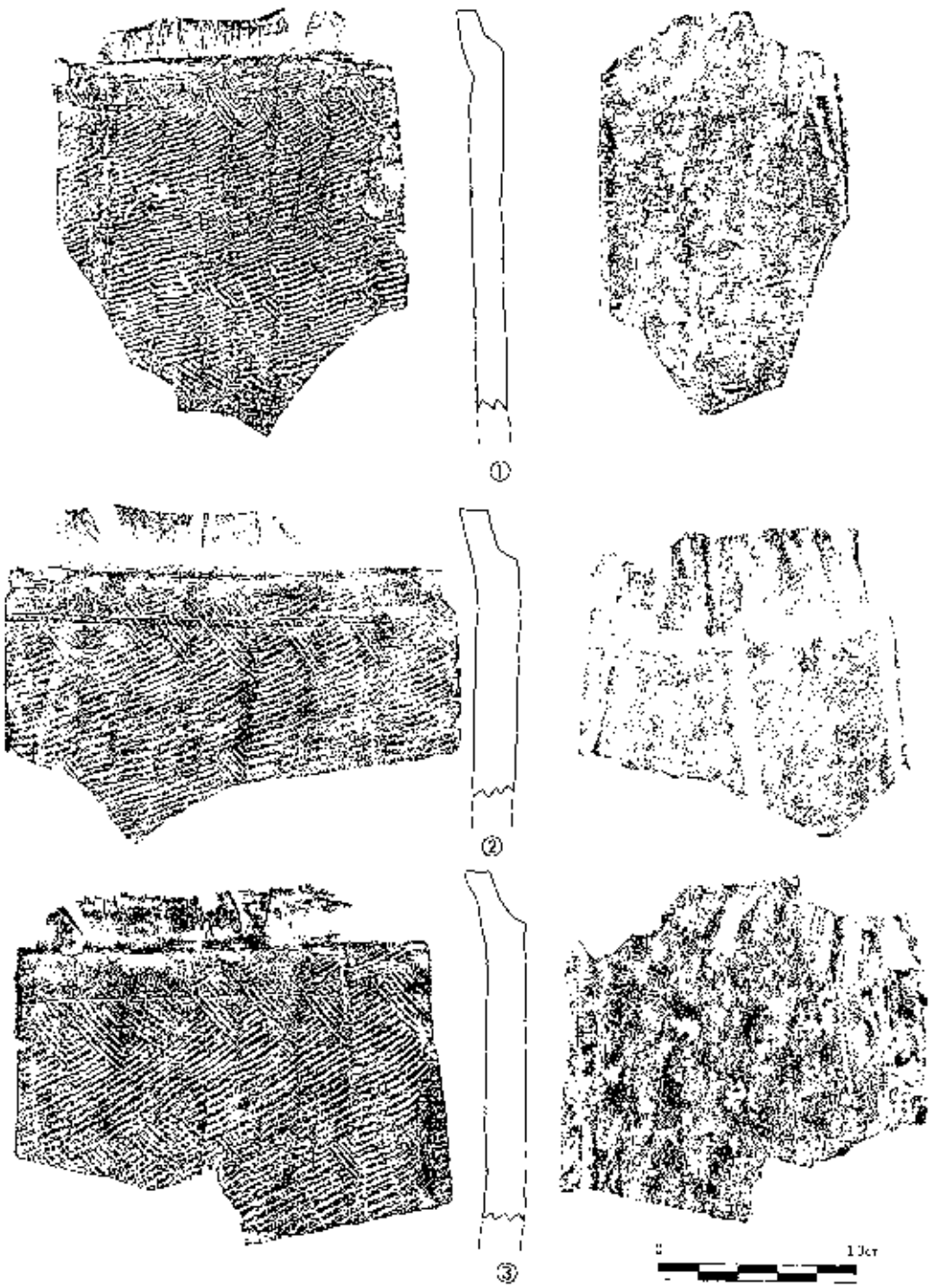
【탑본 6】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6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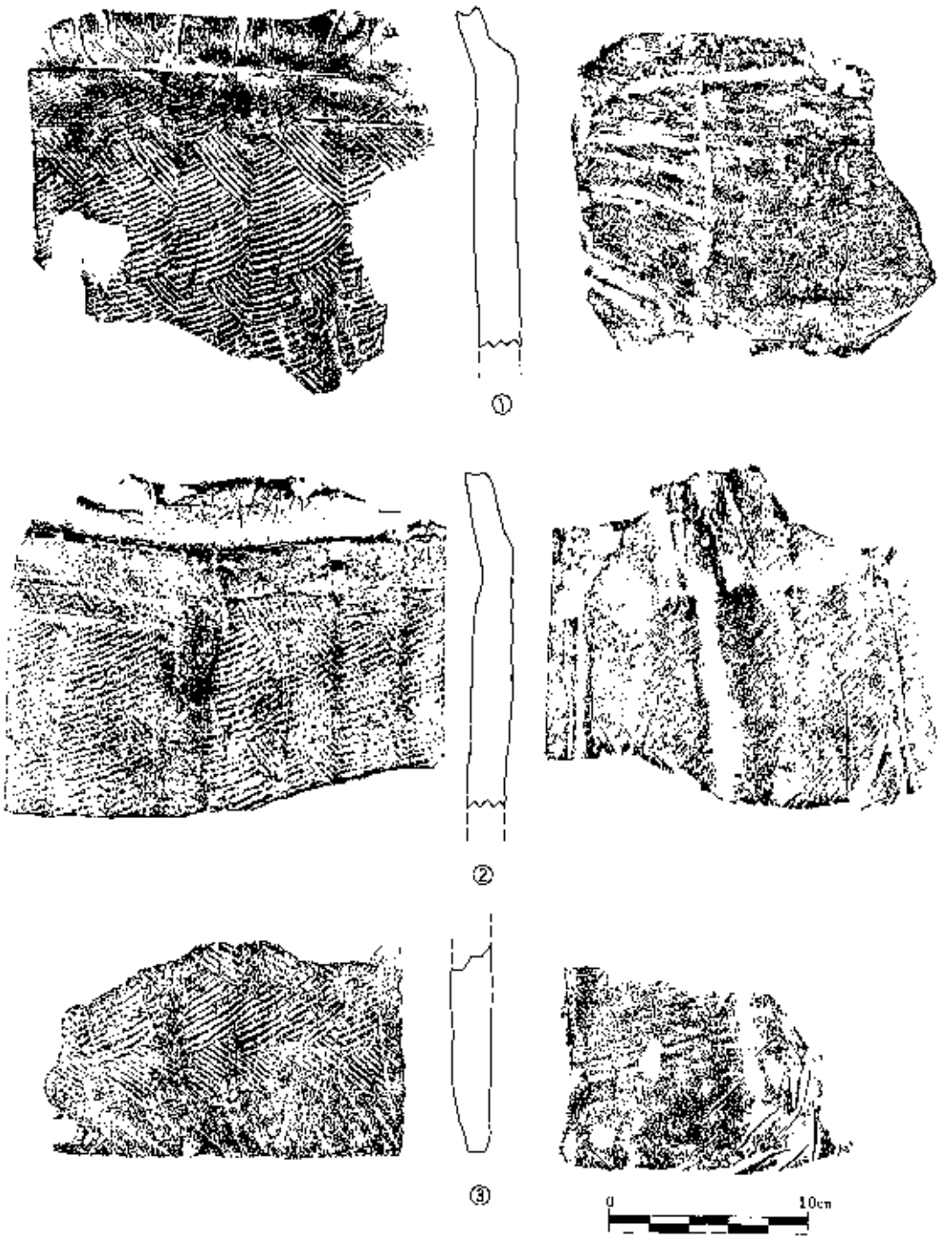

【탑본 7】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7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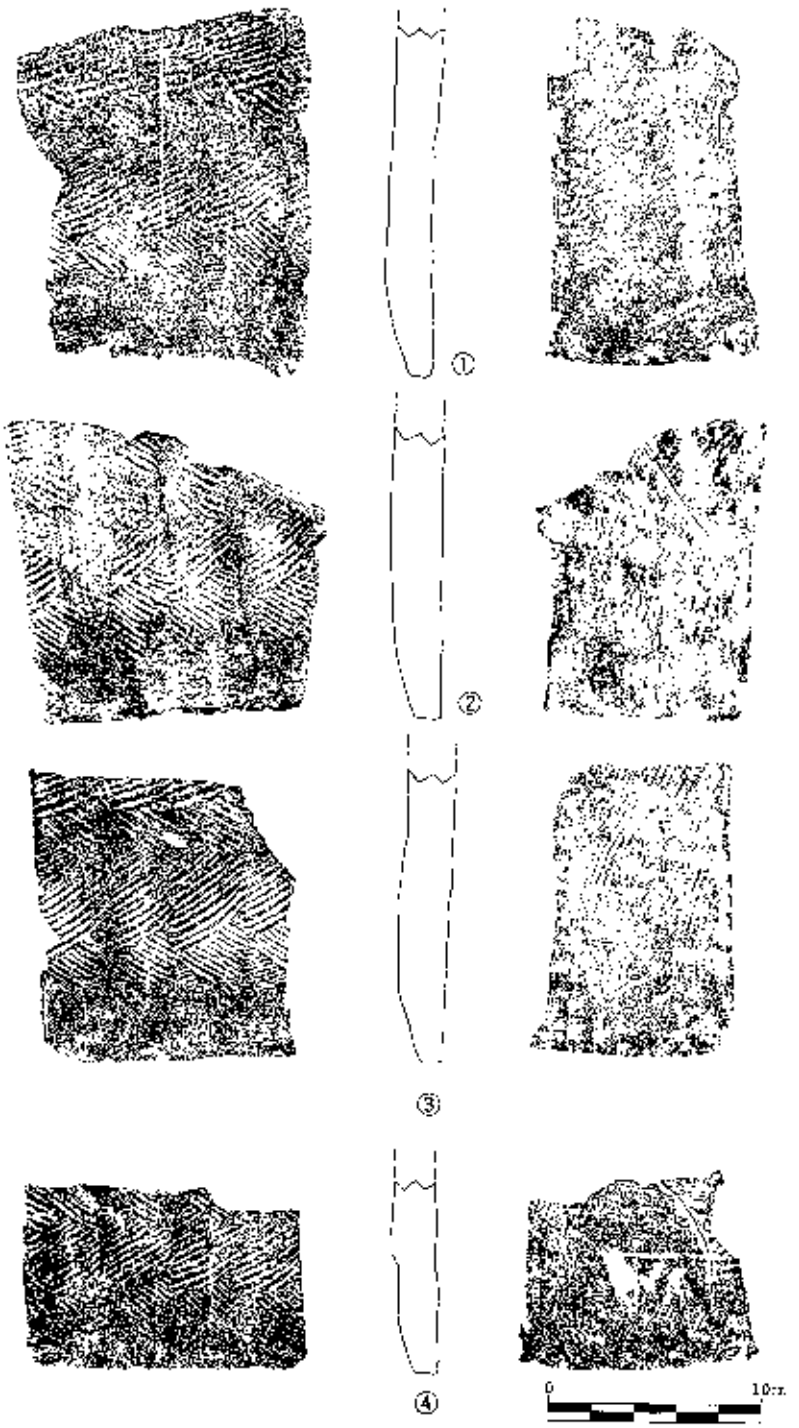

【탐본 8】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8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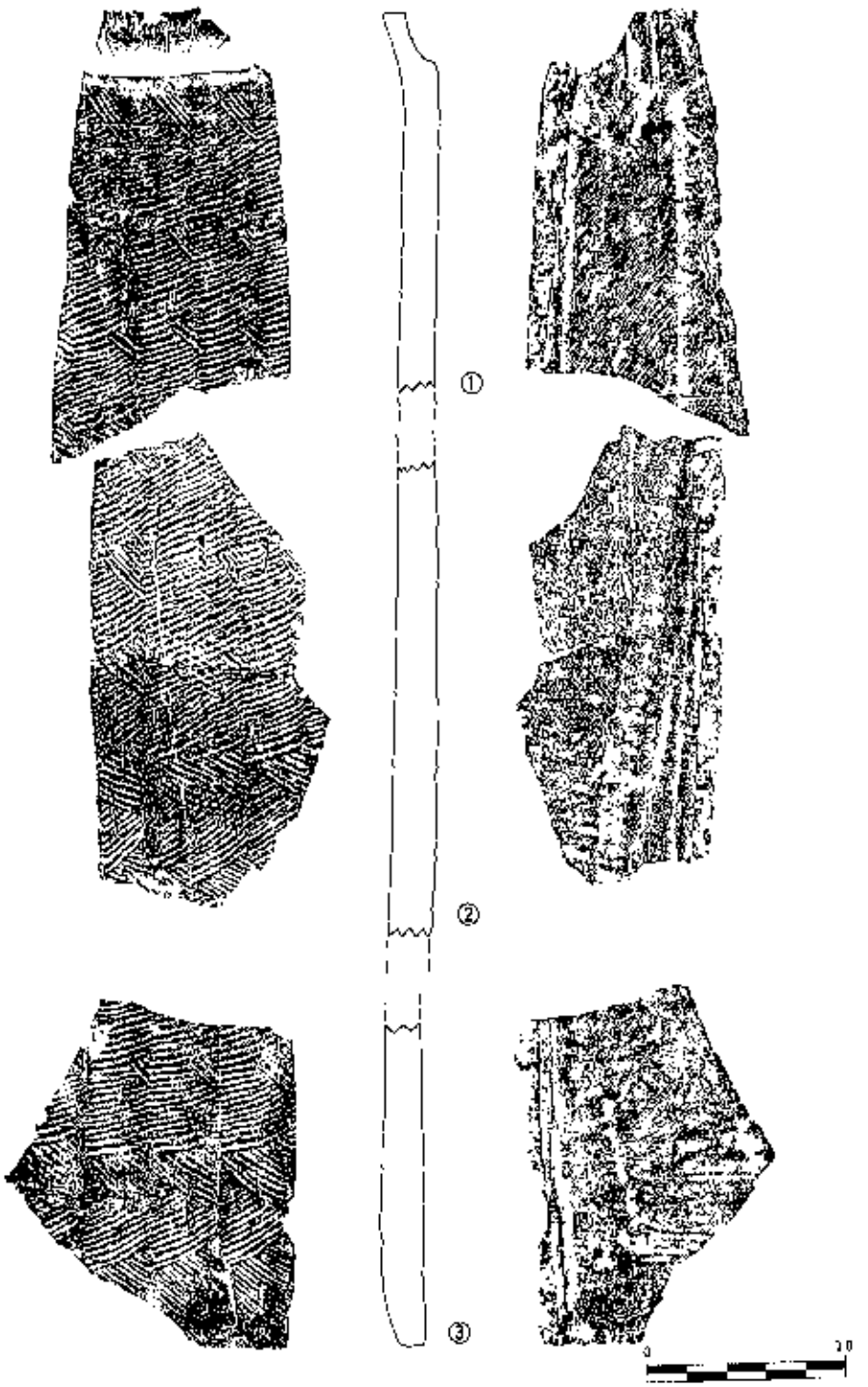

【탑본 9】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9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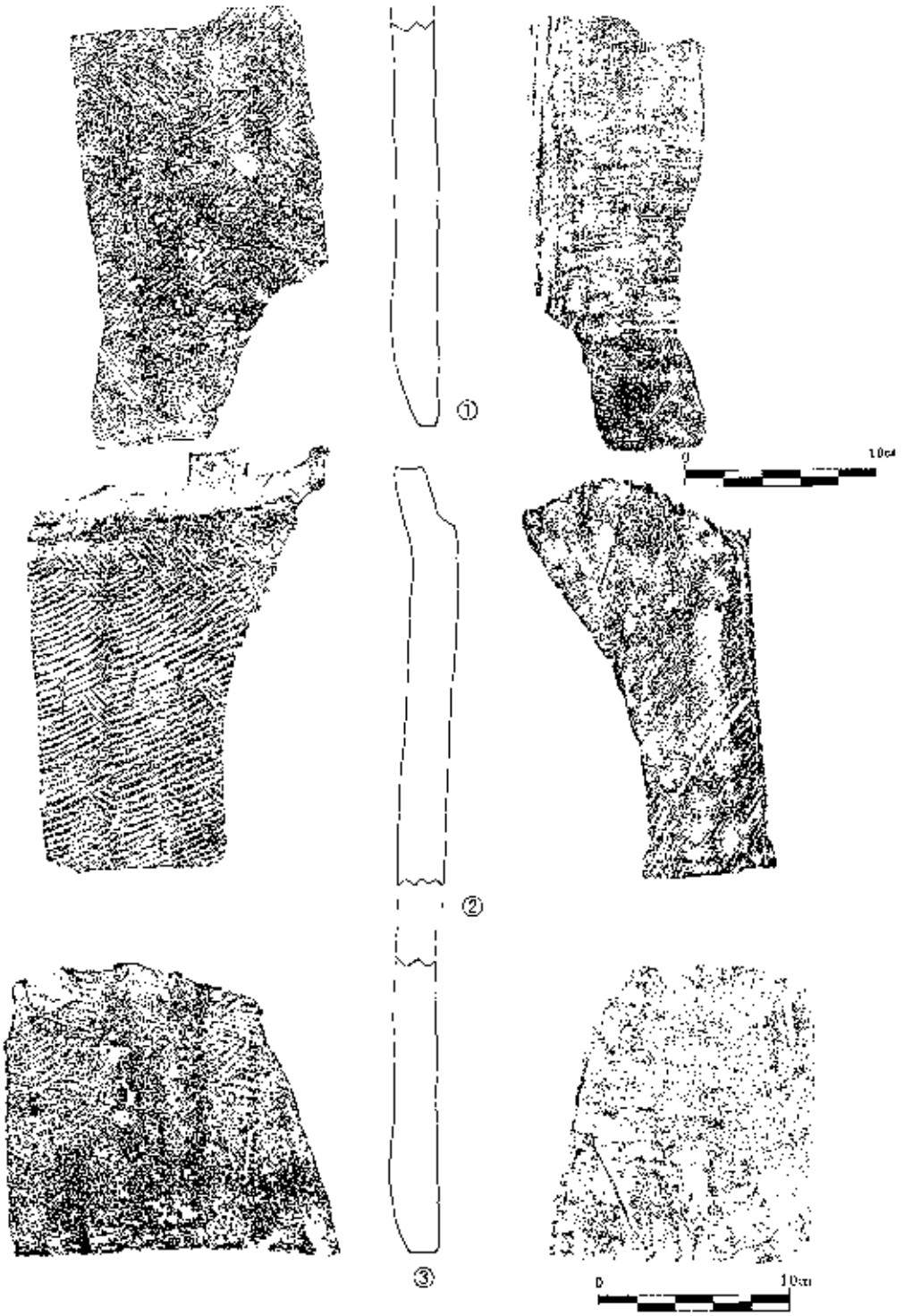

【탑본 10】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0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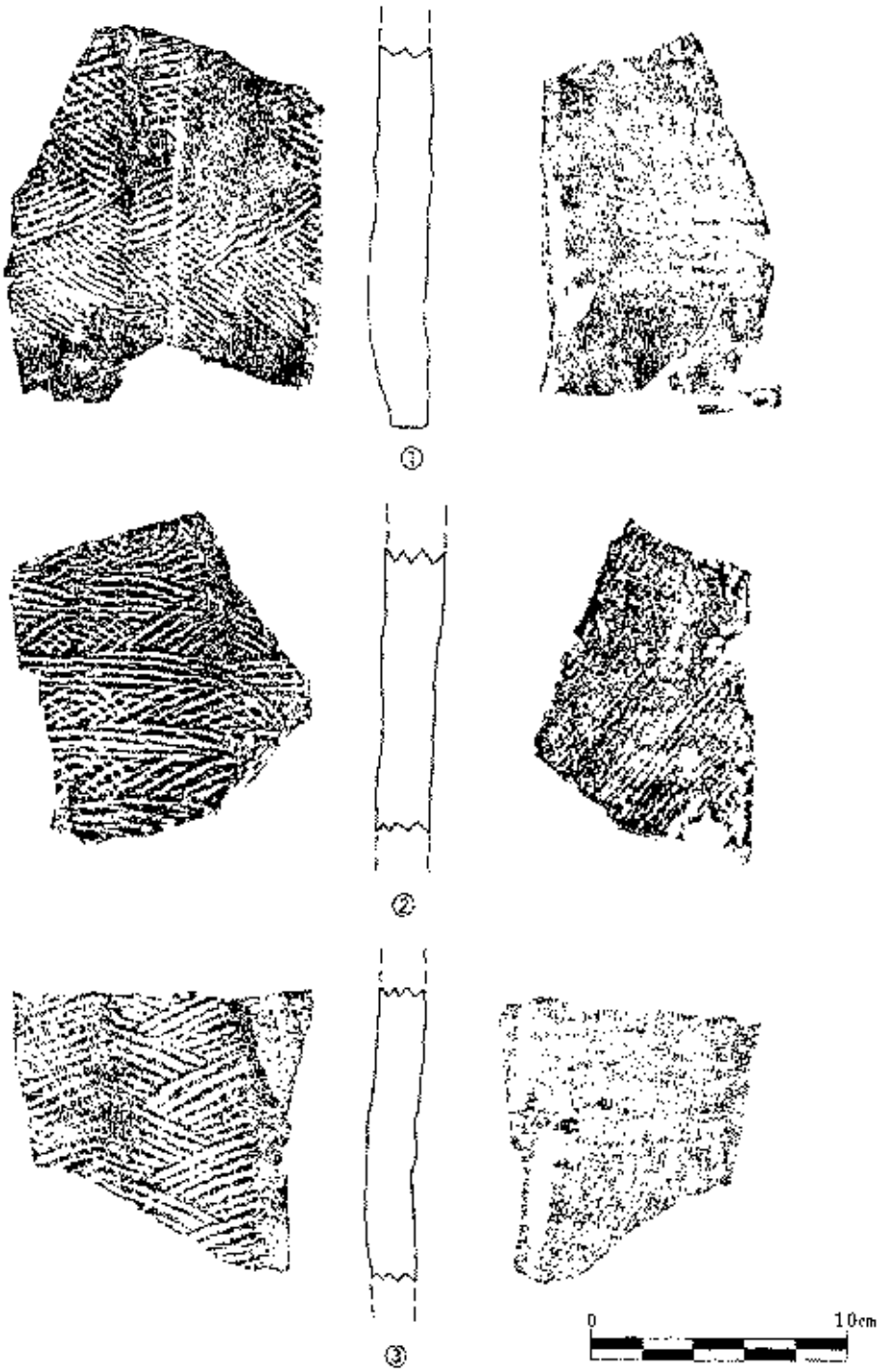

【탑본 11】 임신산성 출토 기와류 11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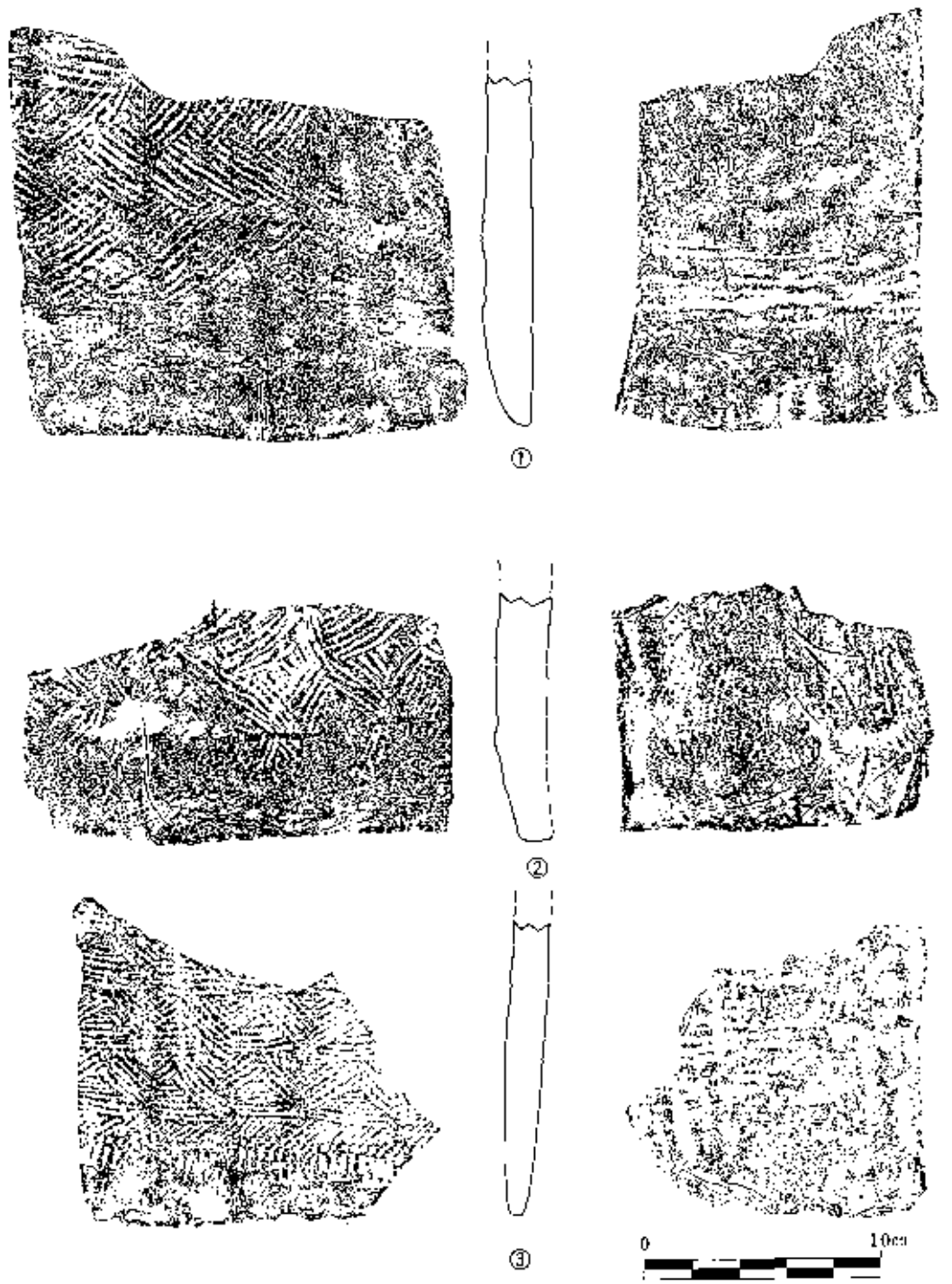

【탑본 12】 임진산성 출토 기와뉴 12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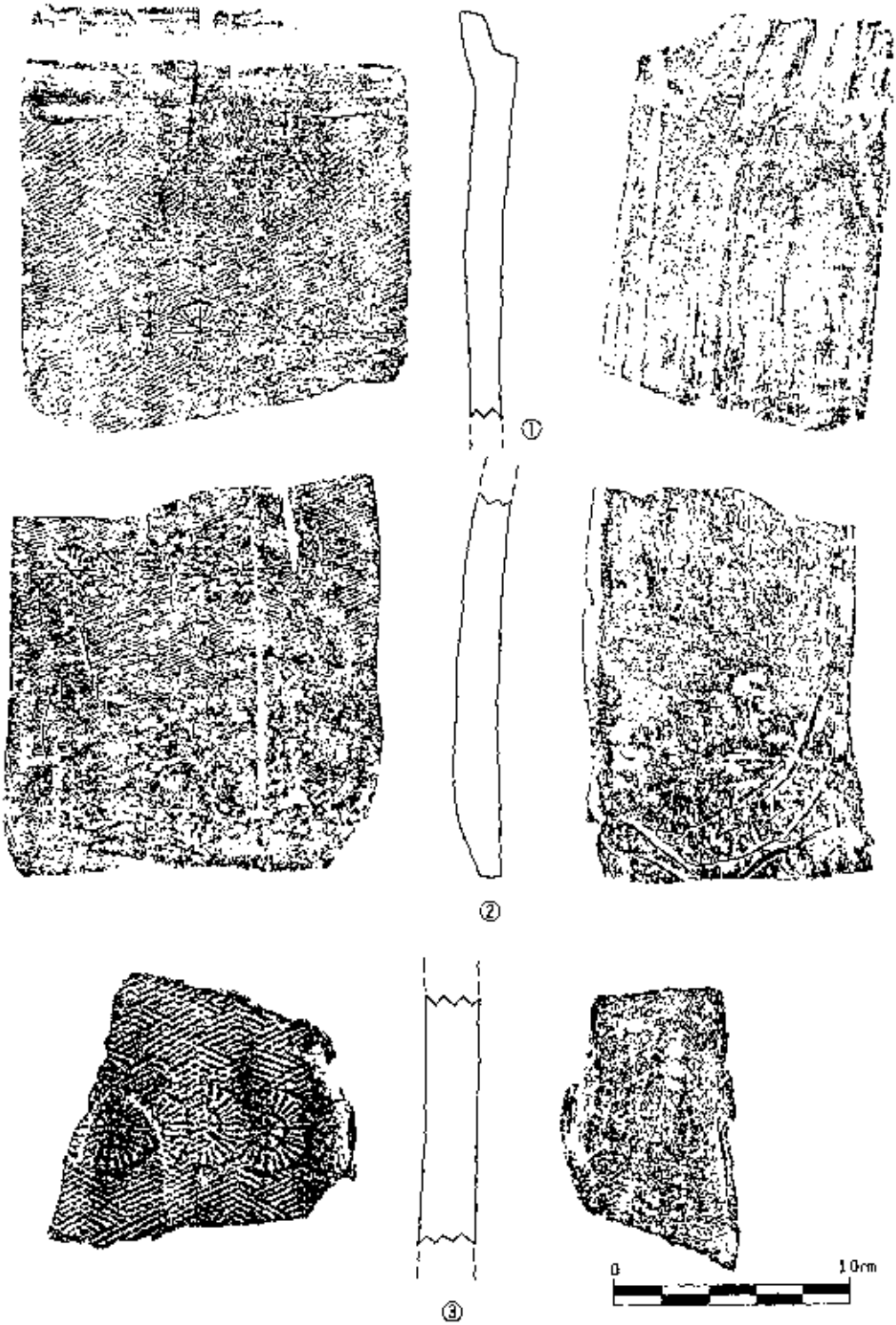

【탑본 13】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3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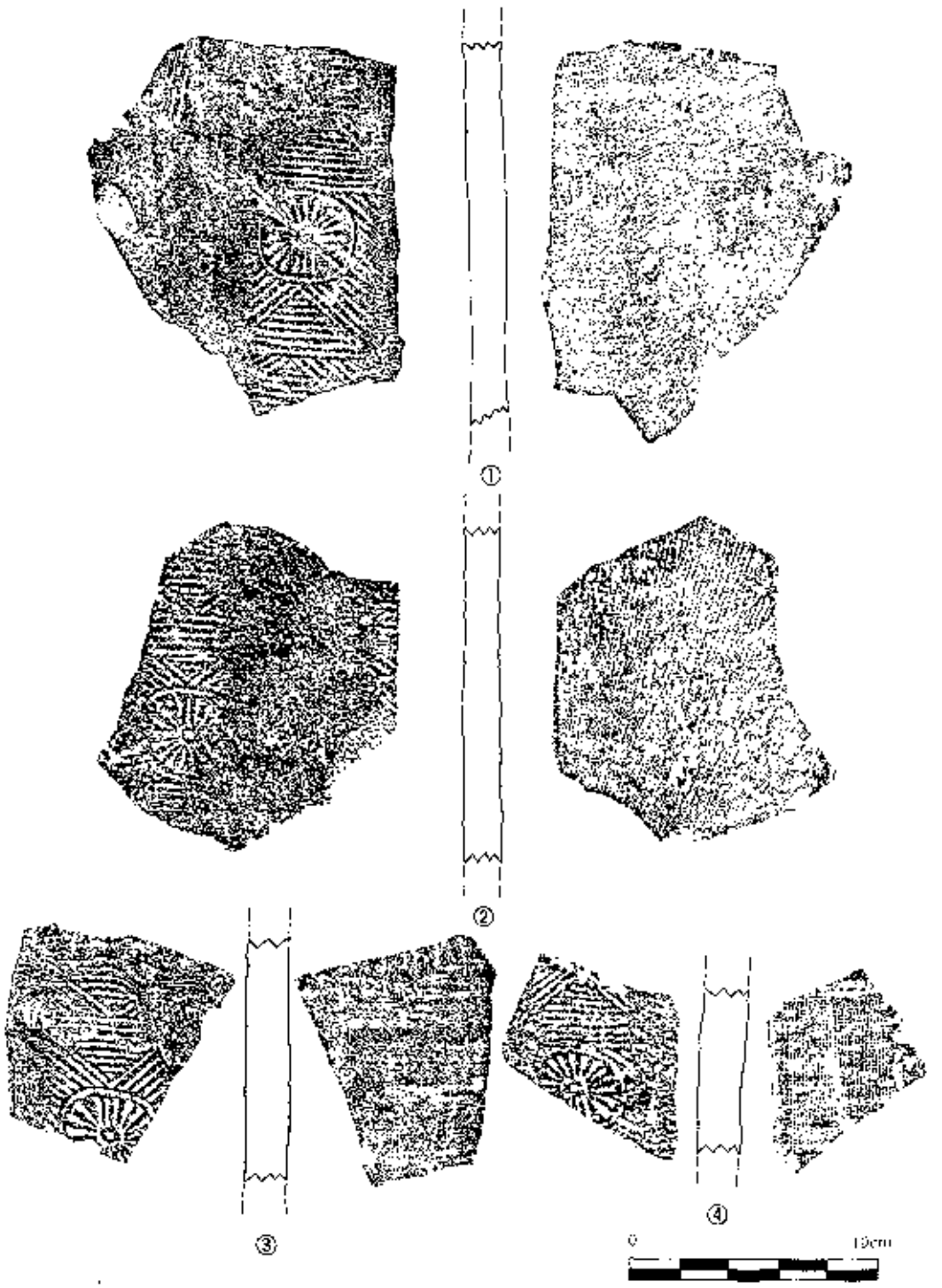

【참본 14】 임잔산성 출토 기와류 1식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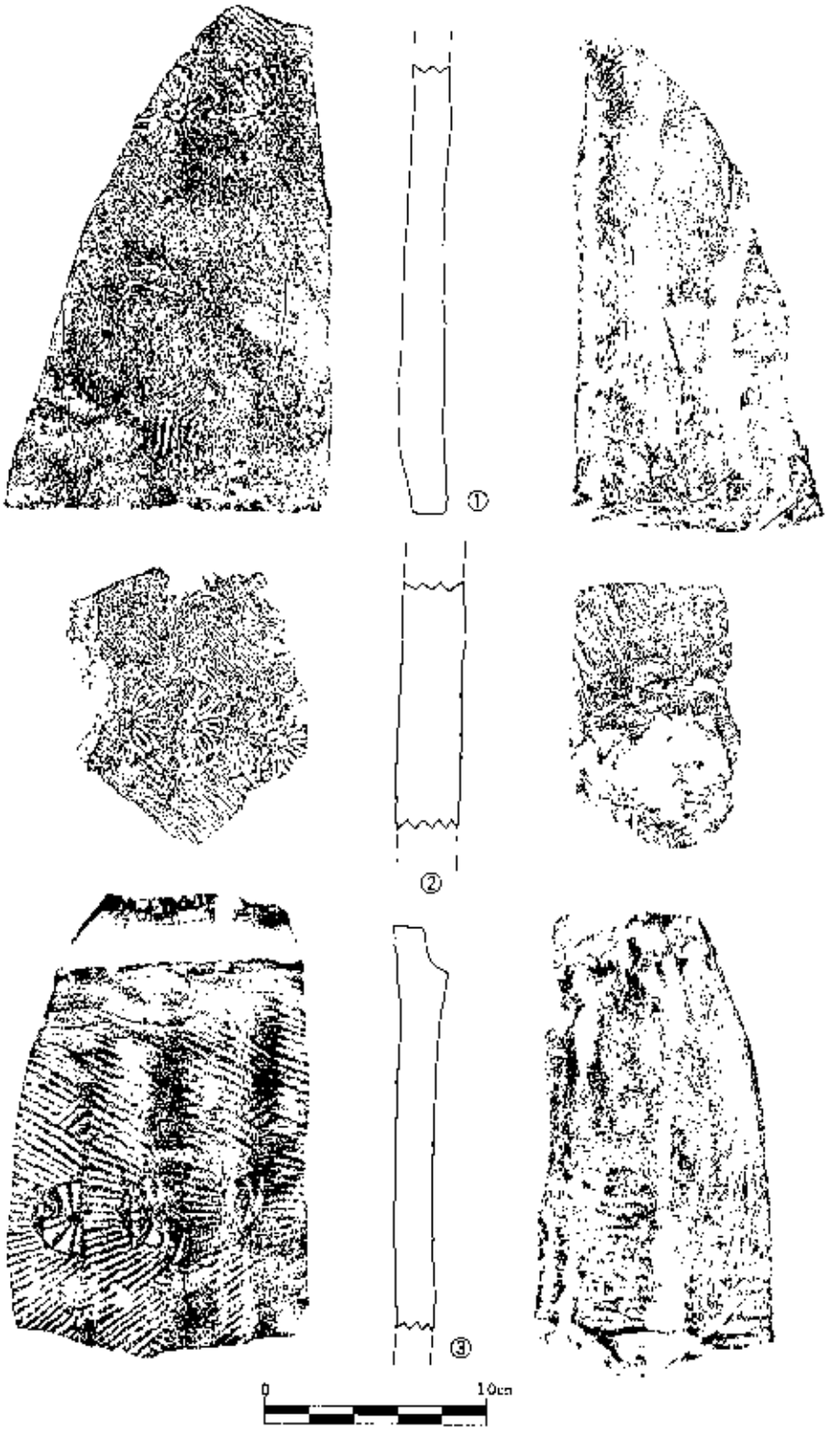

【탑본 15】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5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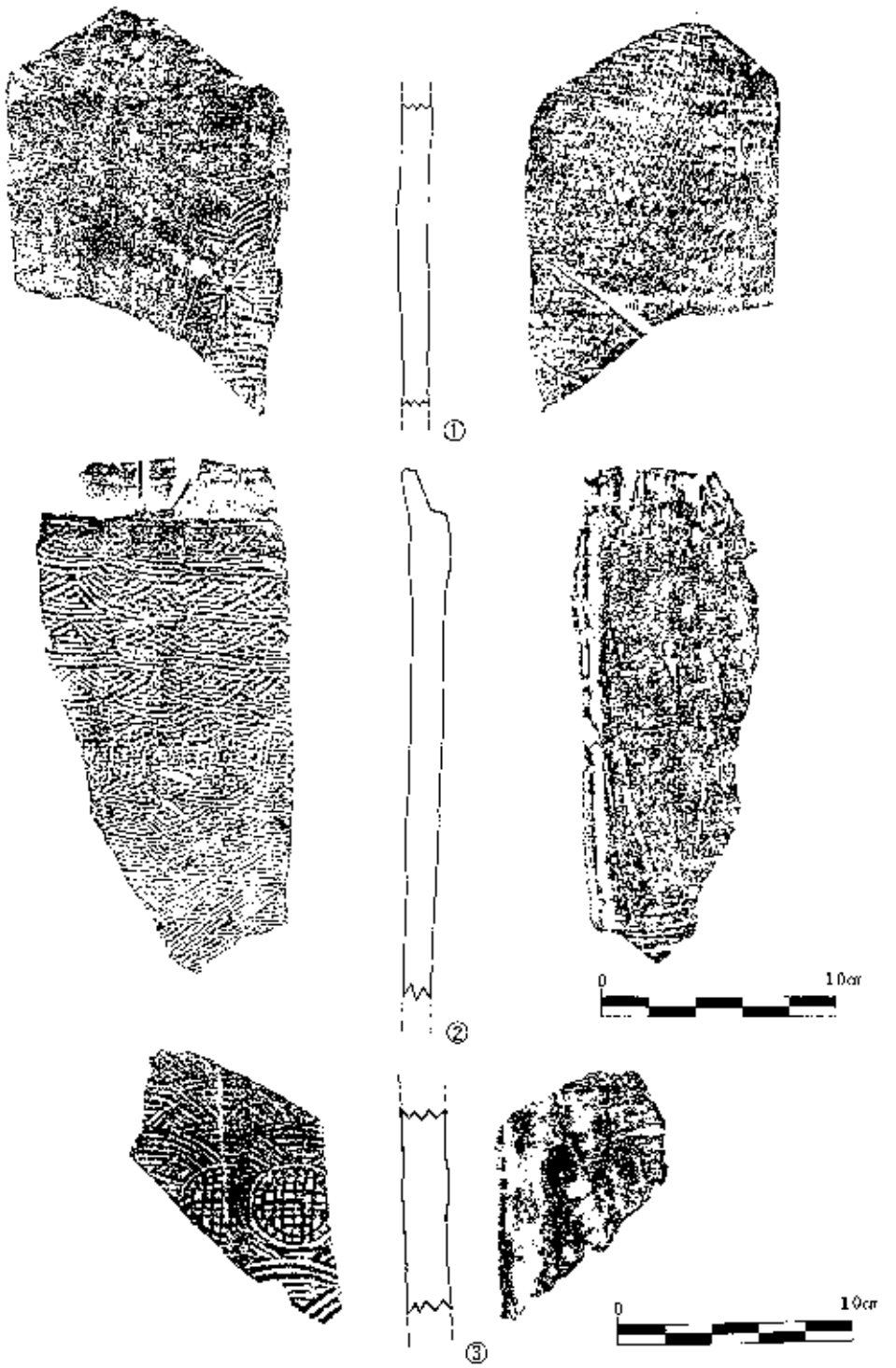

【탐본 16】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6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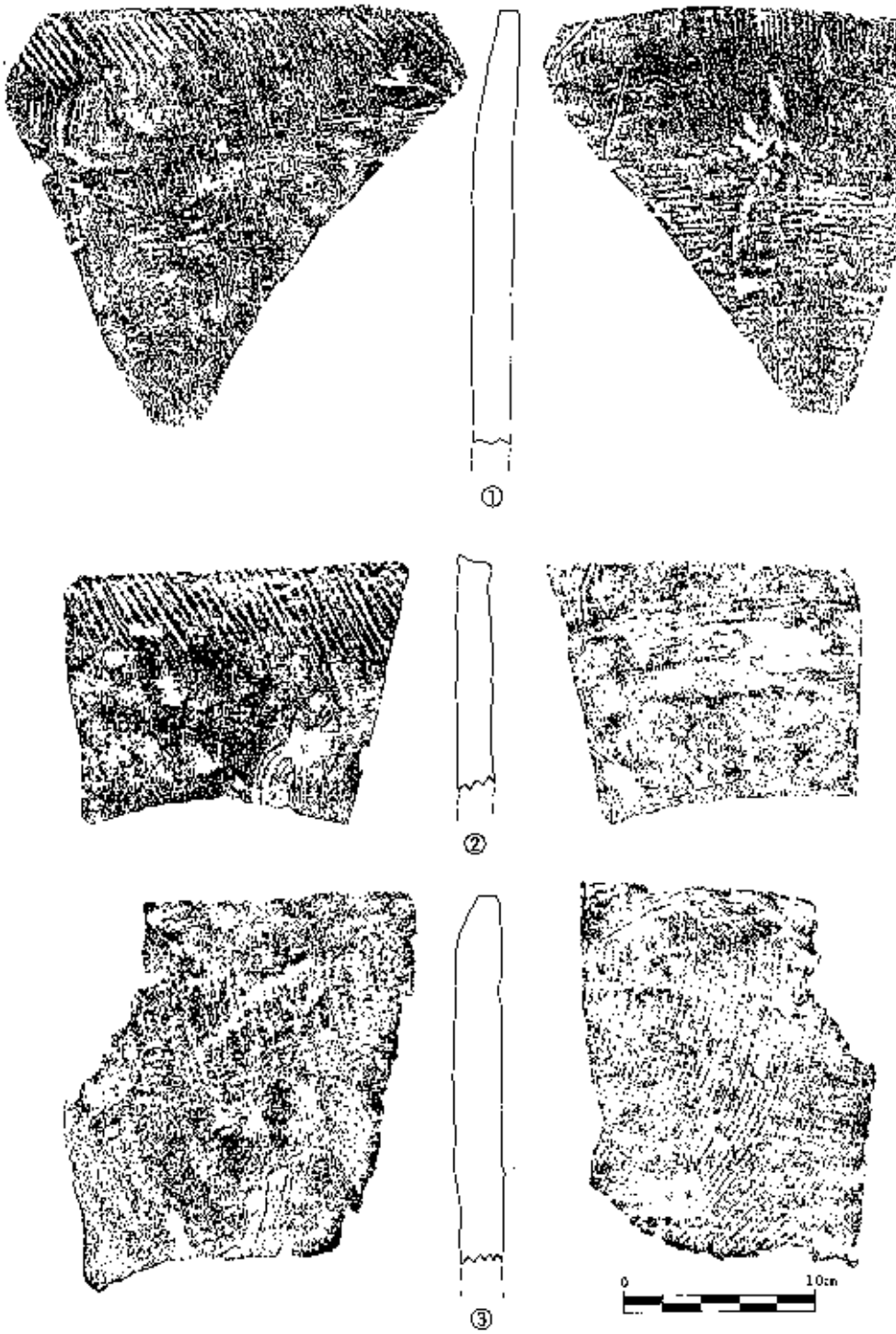

【탑본 17】 임작산성 출토 기와류 17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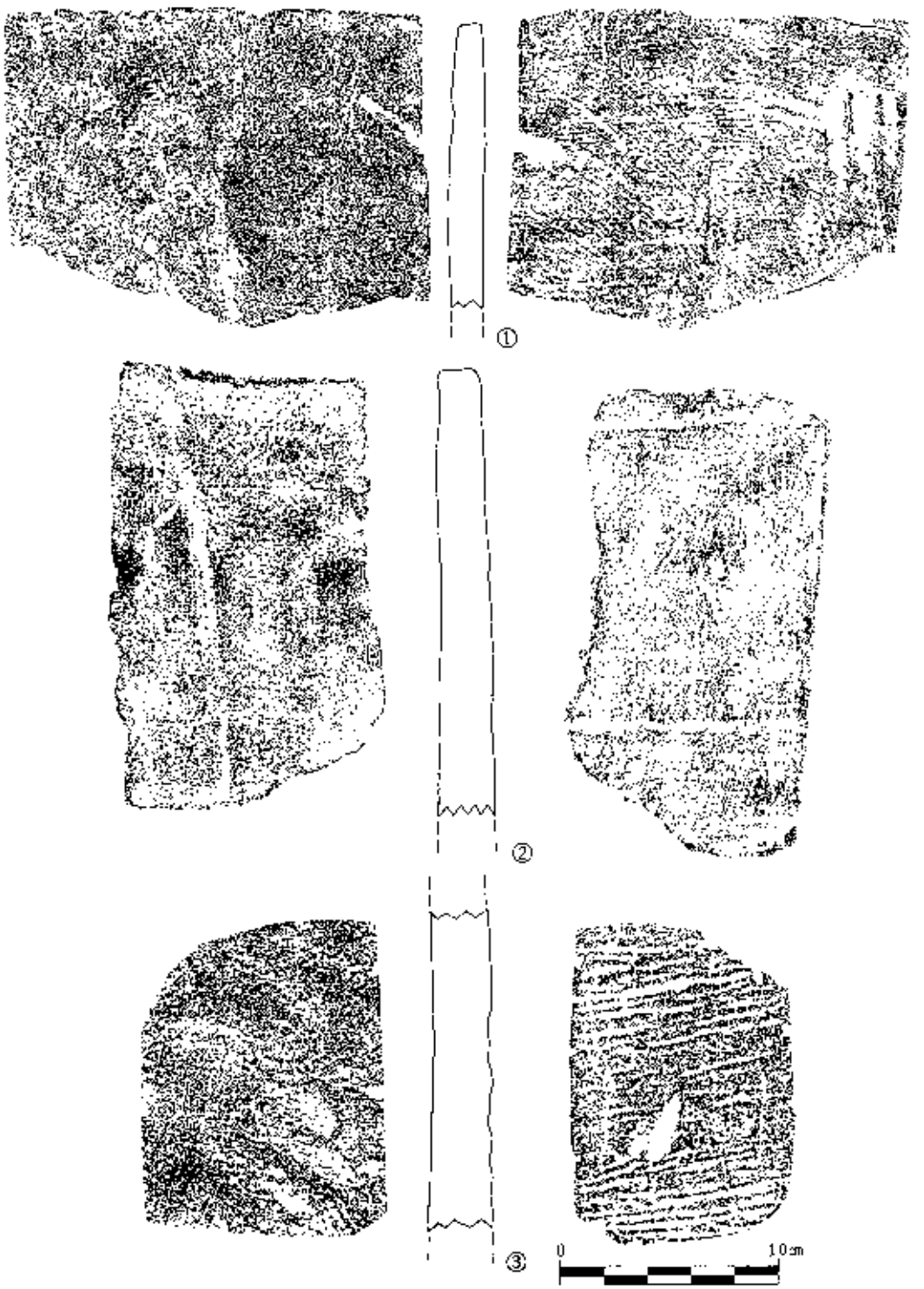

【탐본 18】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8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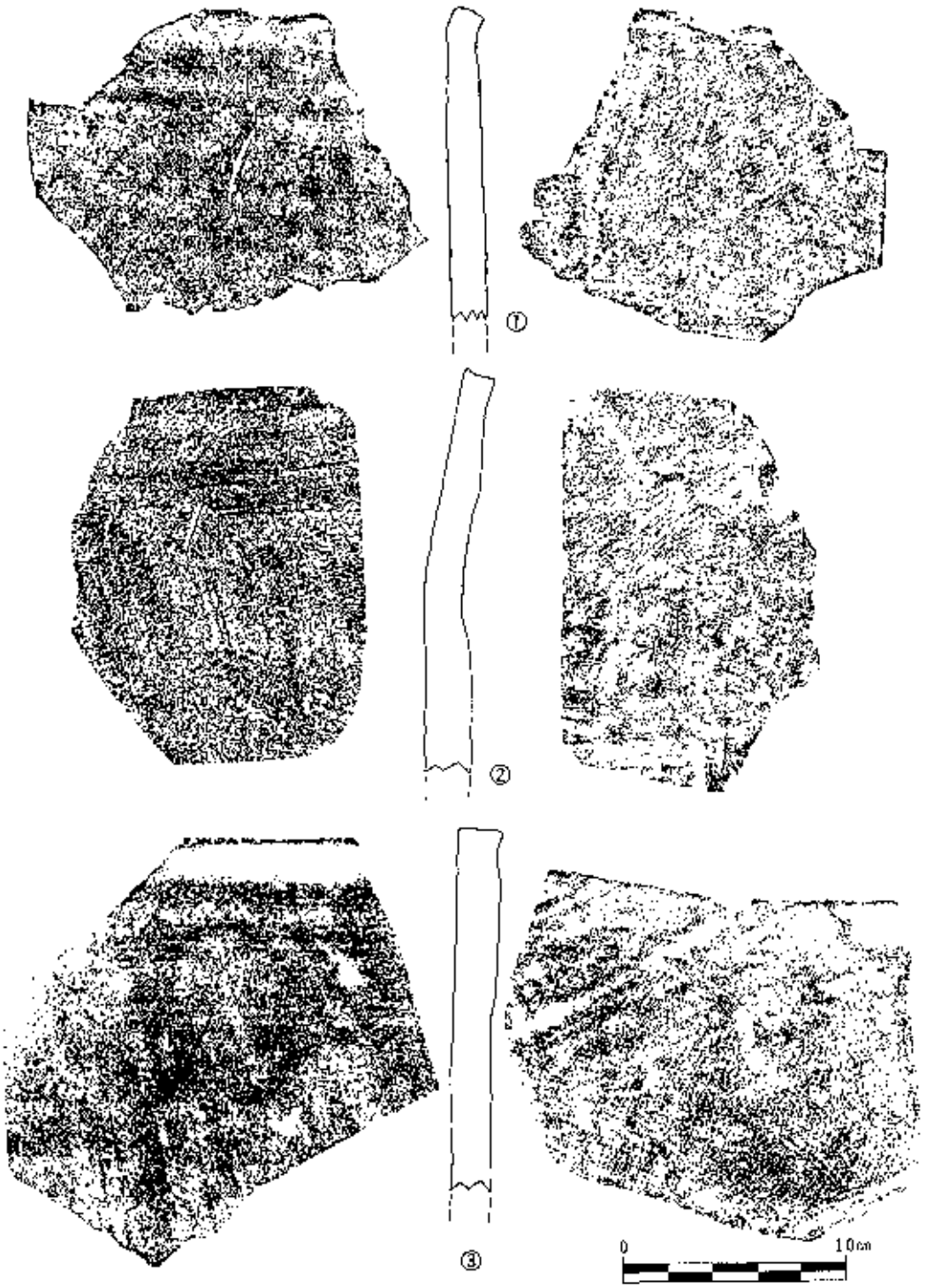

【탑본 19】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9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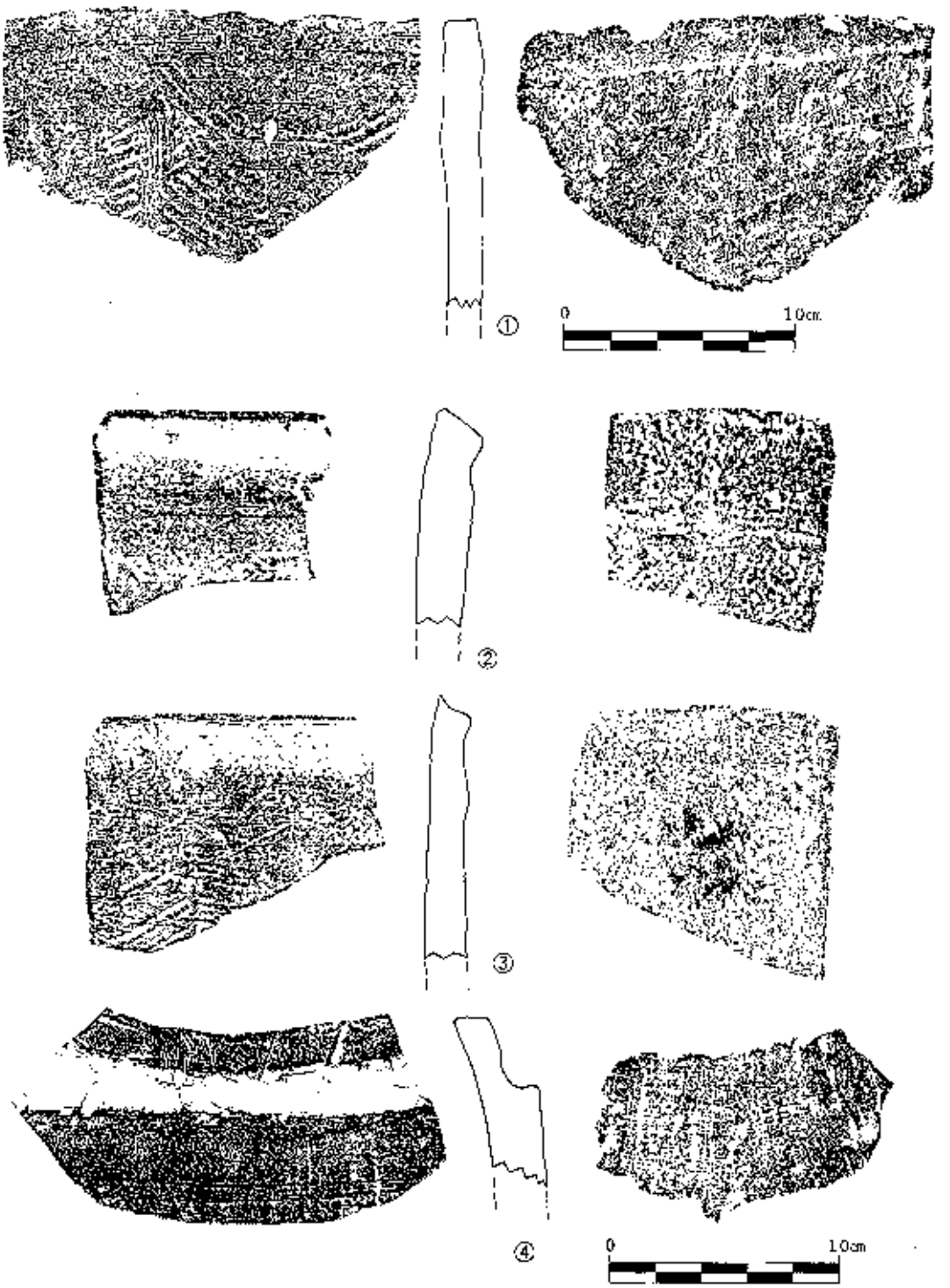

【탑본 20】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20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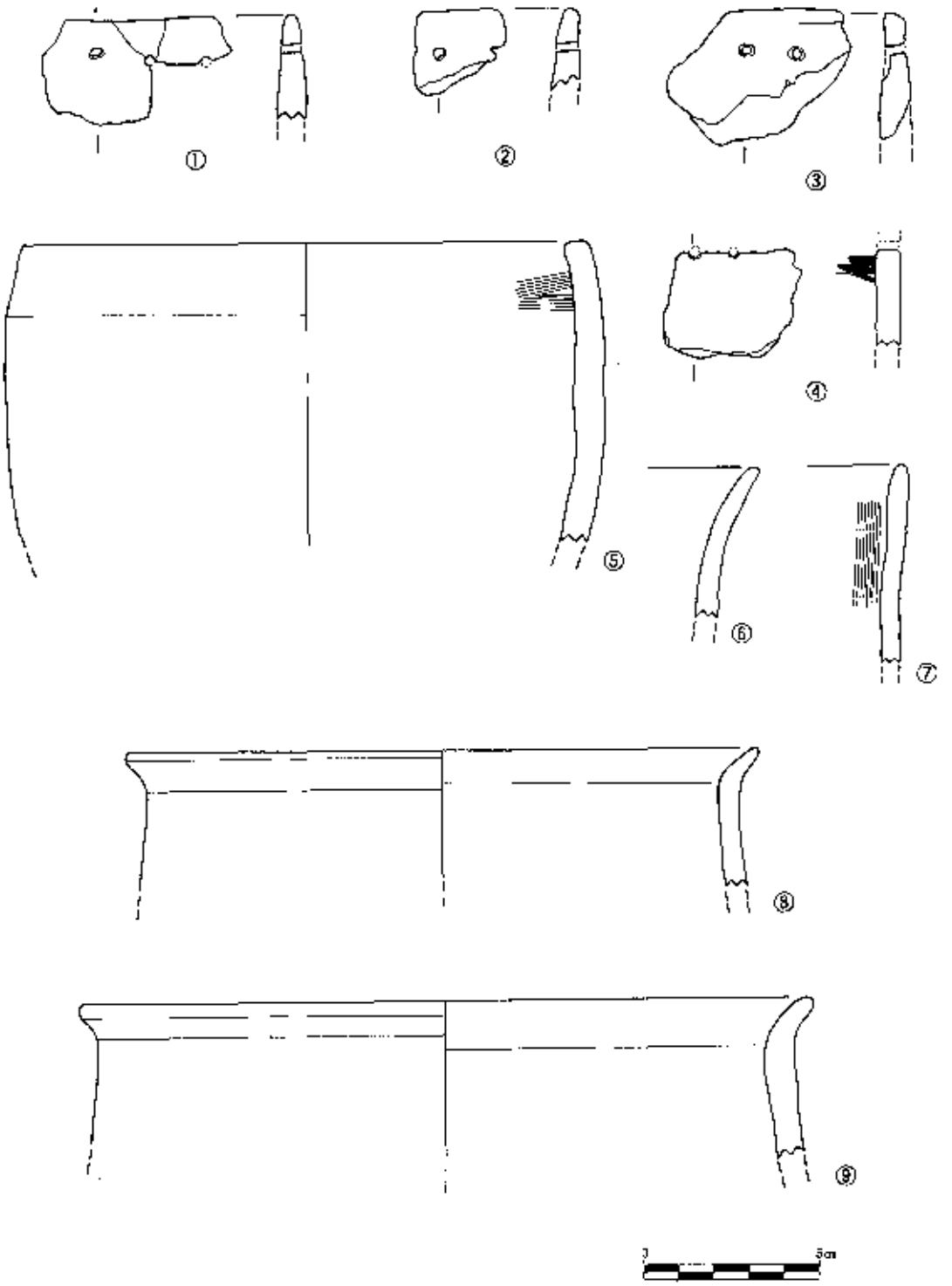

【탑본 21】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21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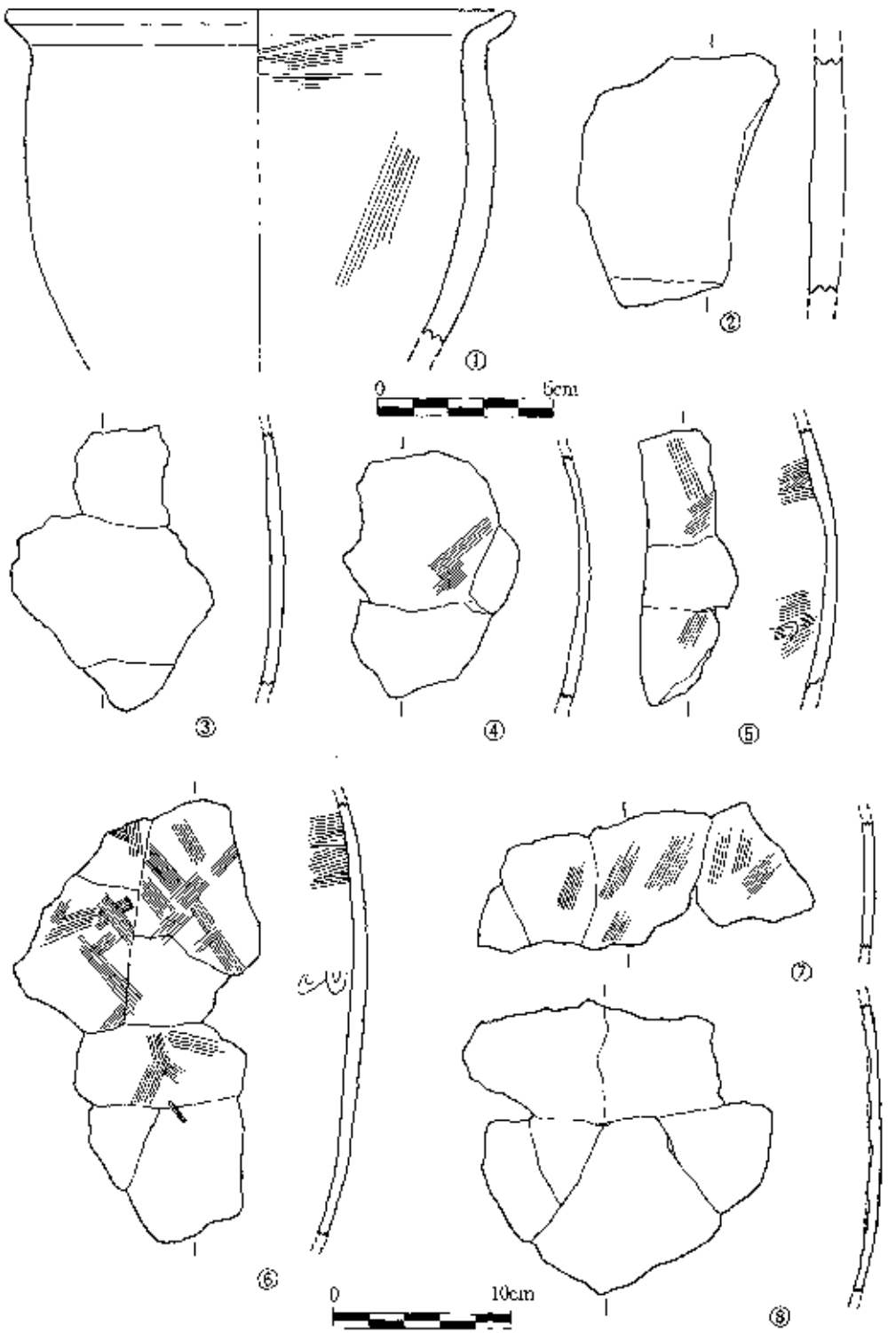

【탑본 22】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22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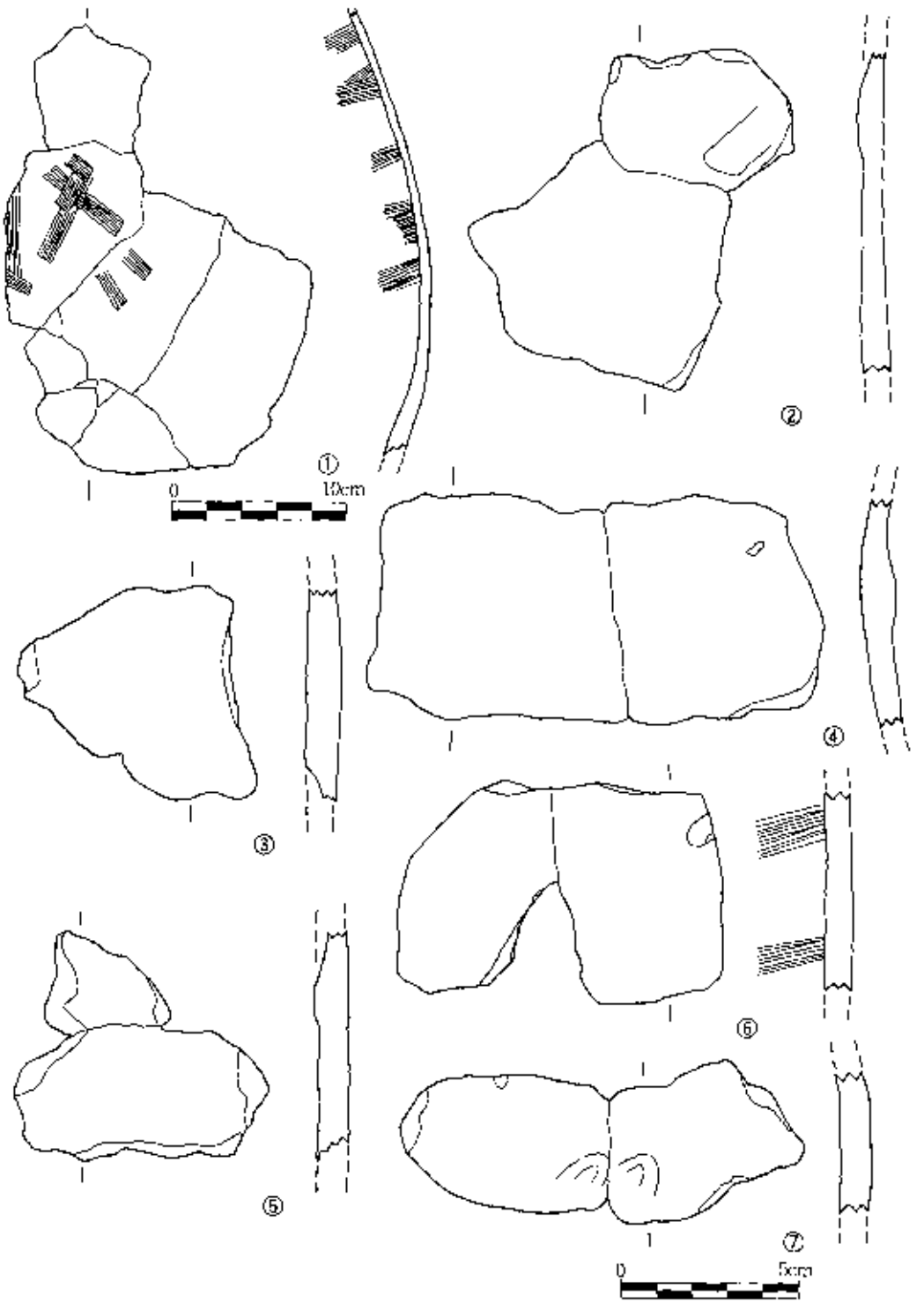

【탐본 23】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23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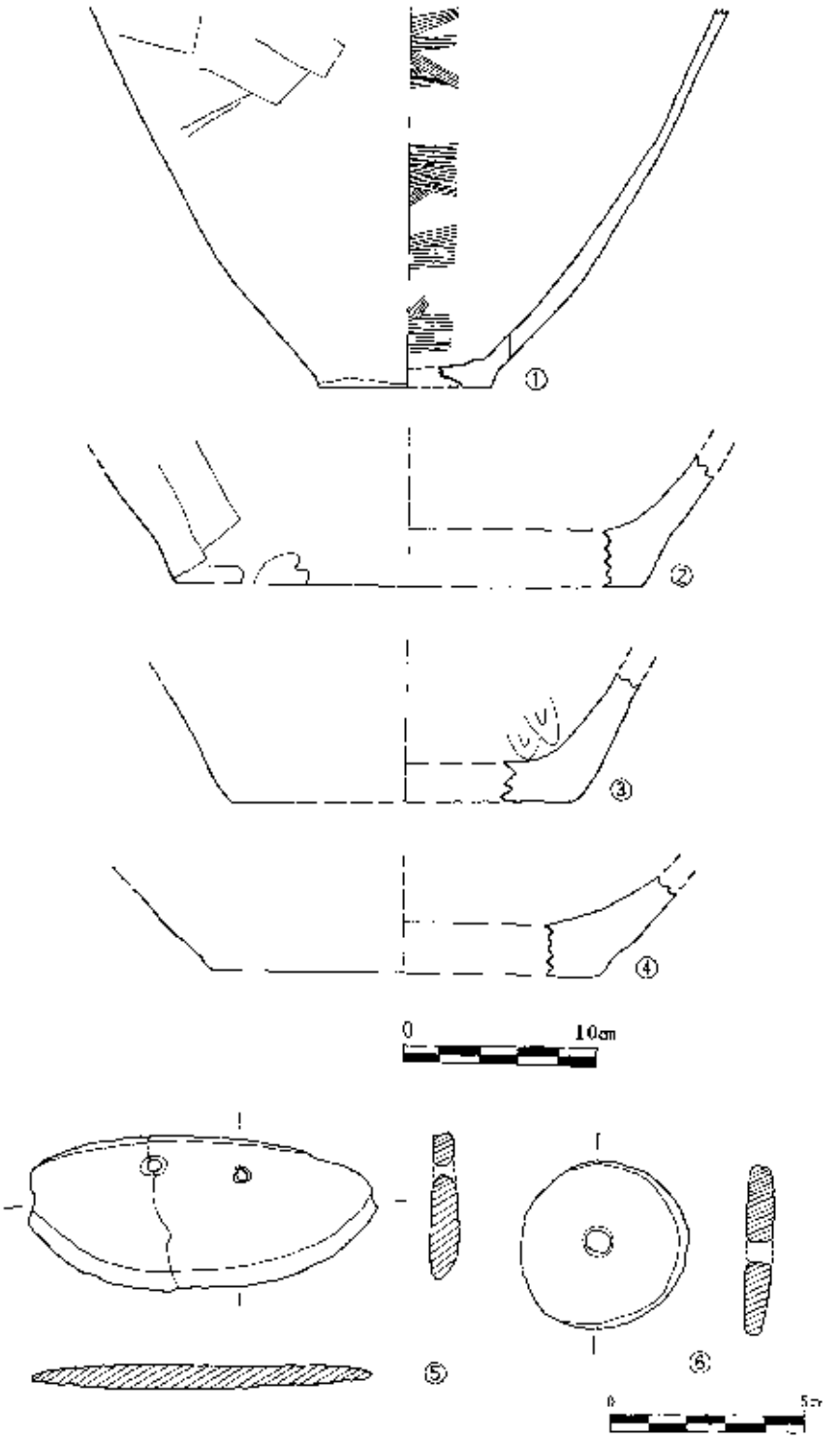

【도면 14】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1 (①~⑨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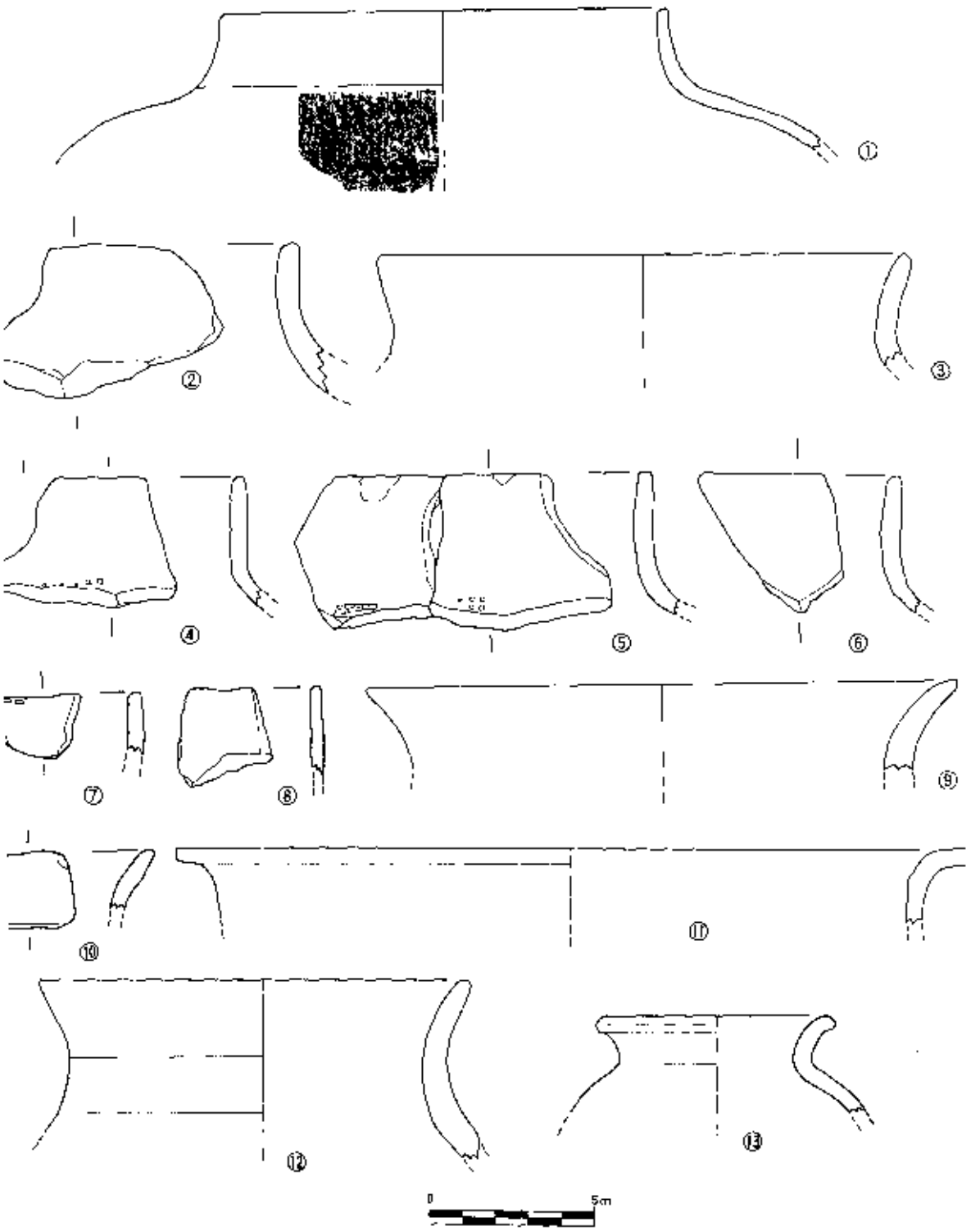

【도면 15】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2 (①구연부편, ②~⑧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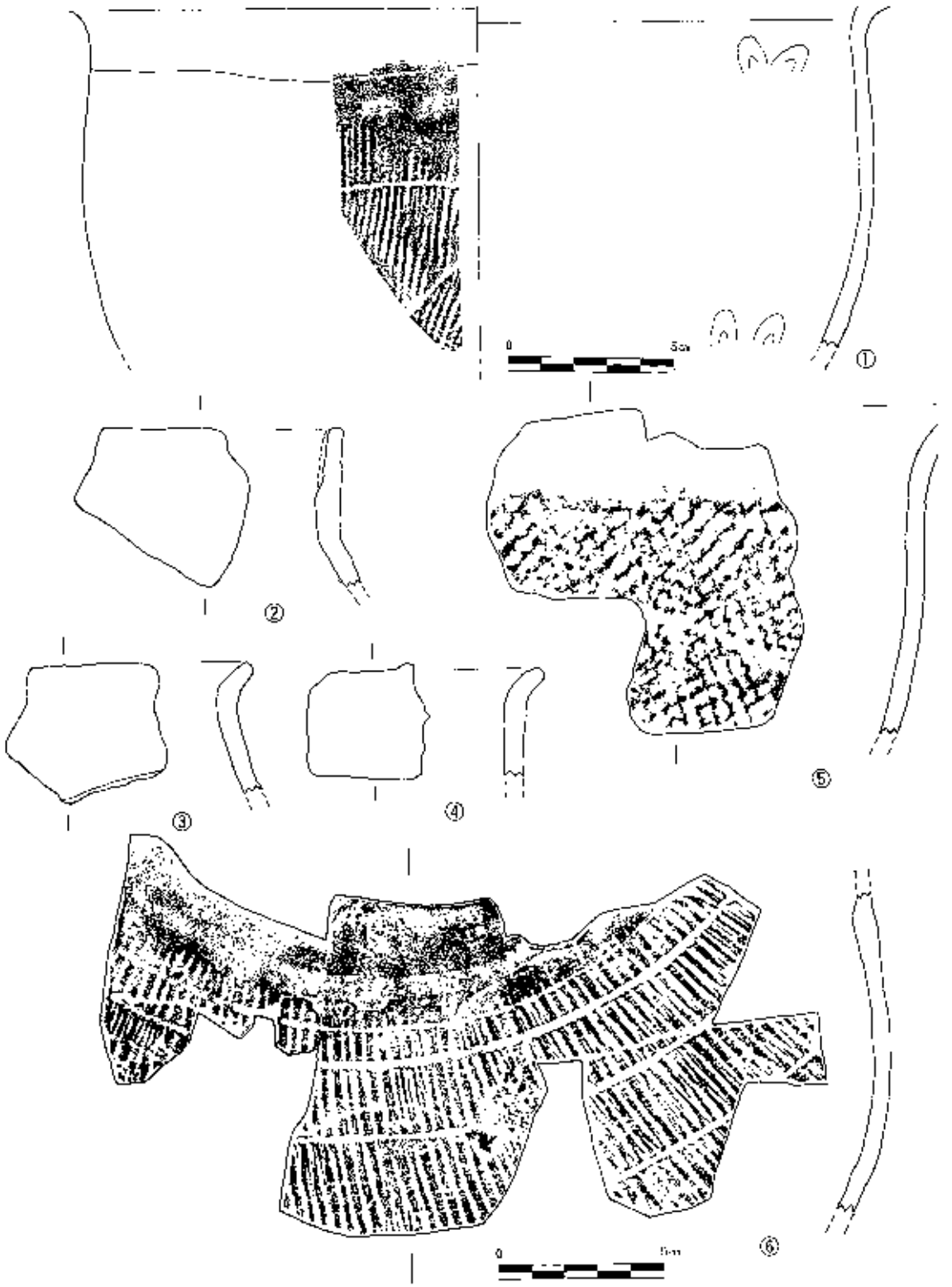

【도면 16】 임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3 (①~⑦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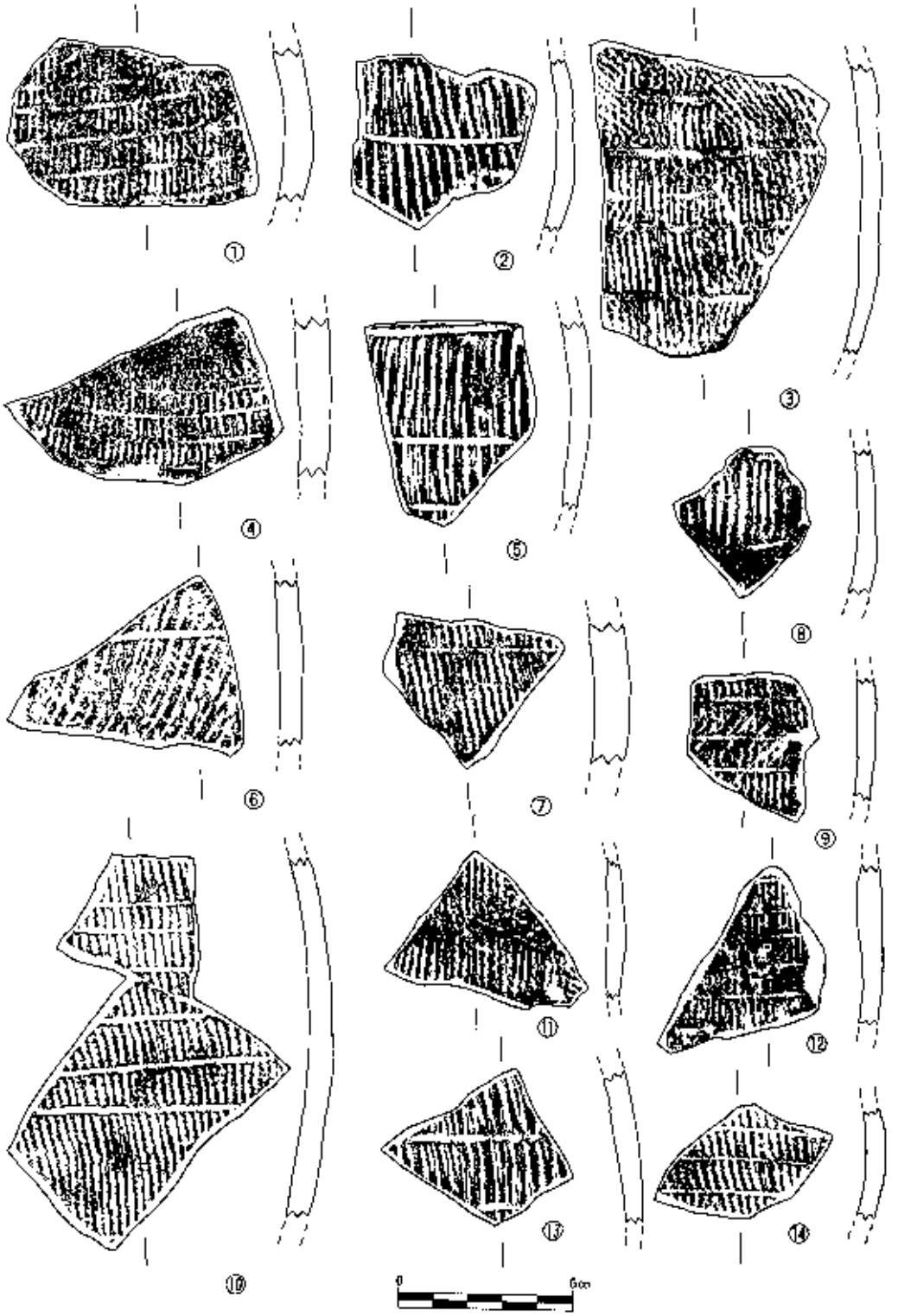

【도면 17】 임진산성 출토 목문토기류 4 · 석기류 (①~④저부편, ⑤반월형석도, ⑥석제방추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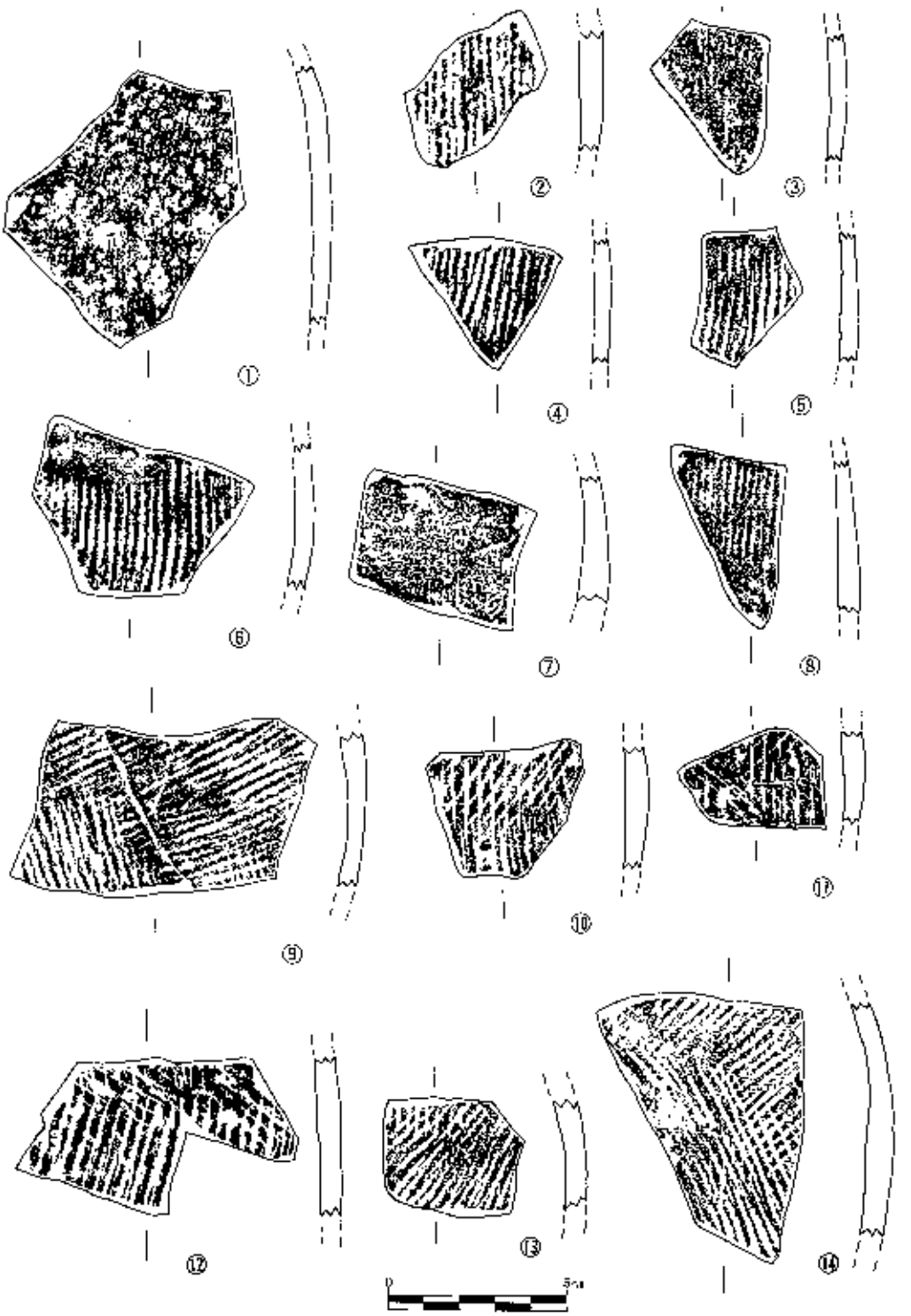

【도면 18】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 (①--⑬구역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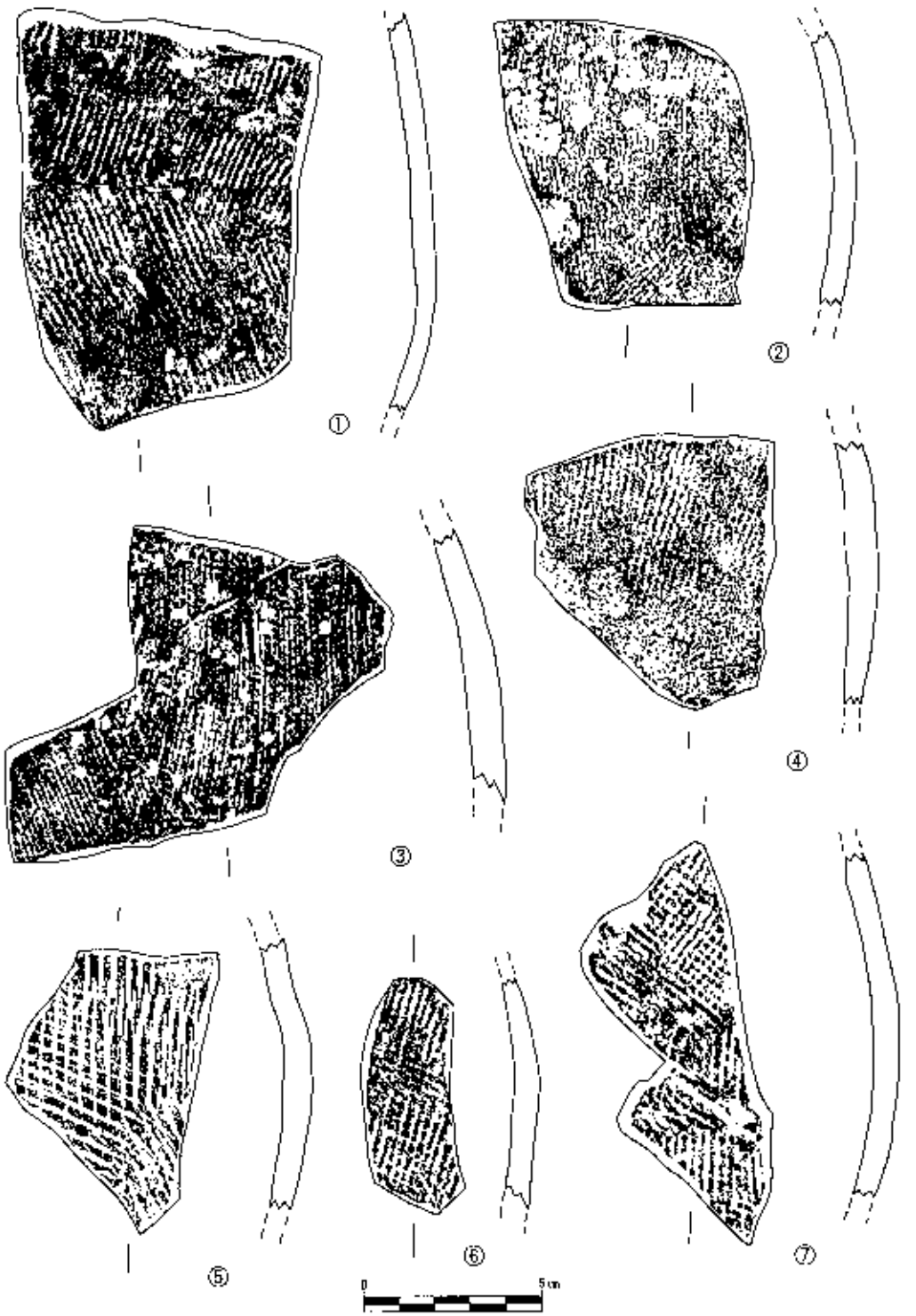

【도면 19】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2 (①~⑥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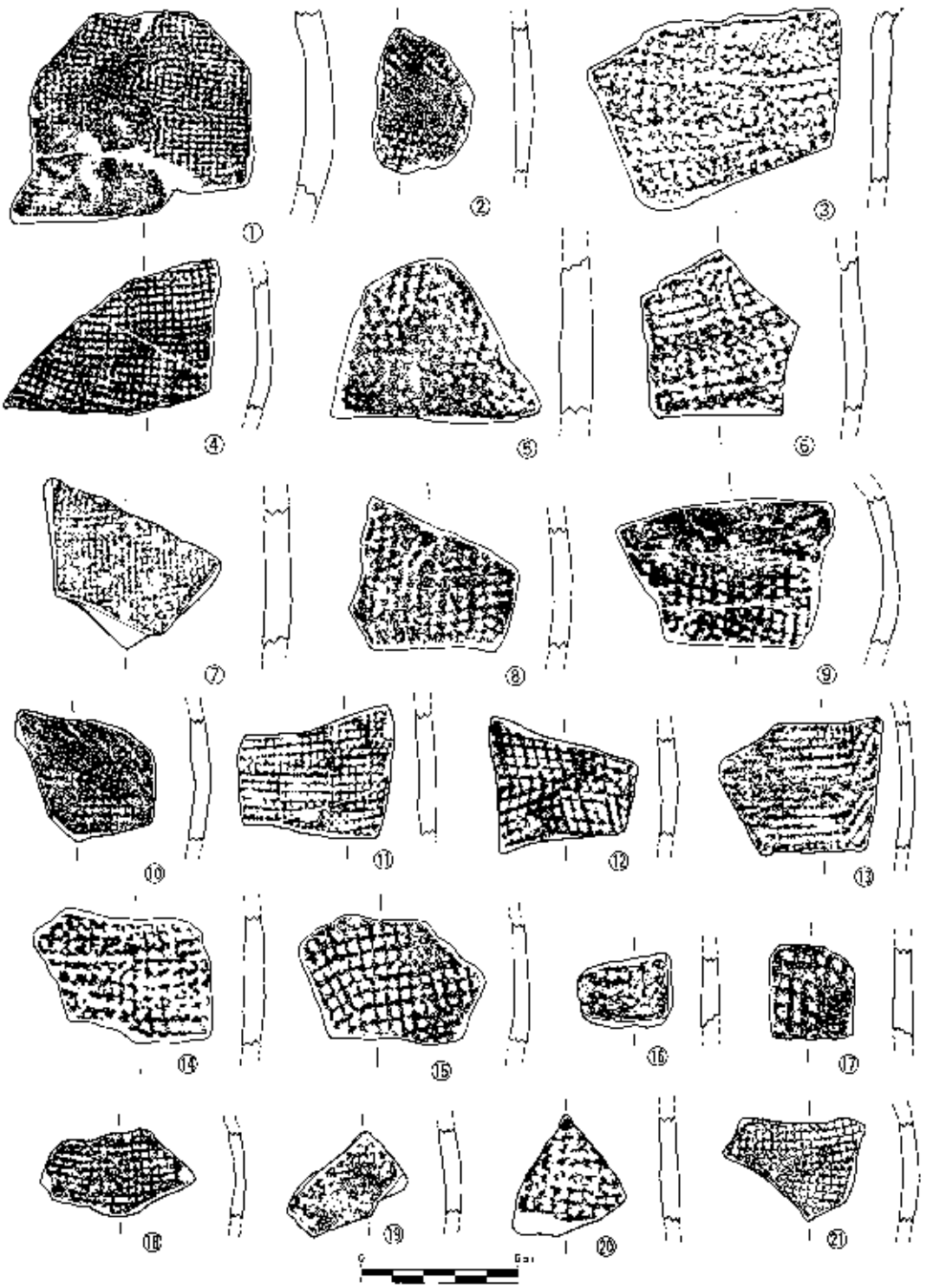

【도면 20】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3 (①-⑭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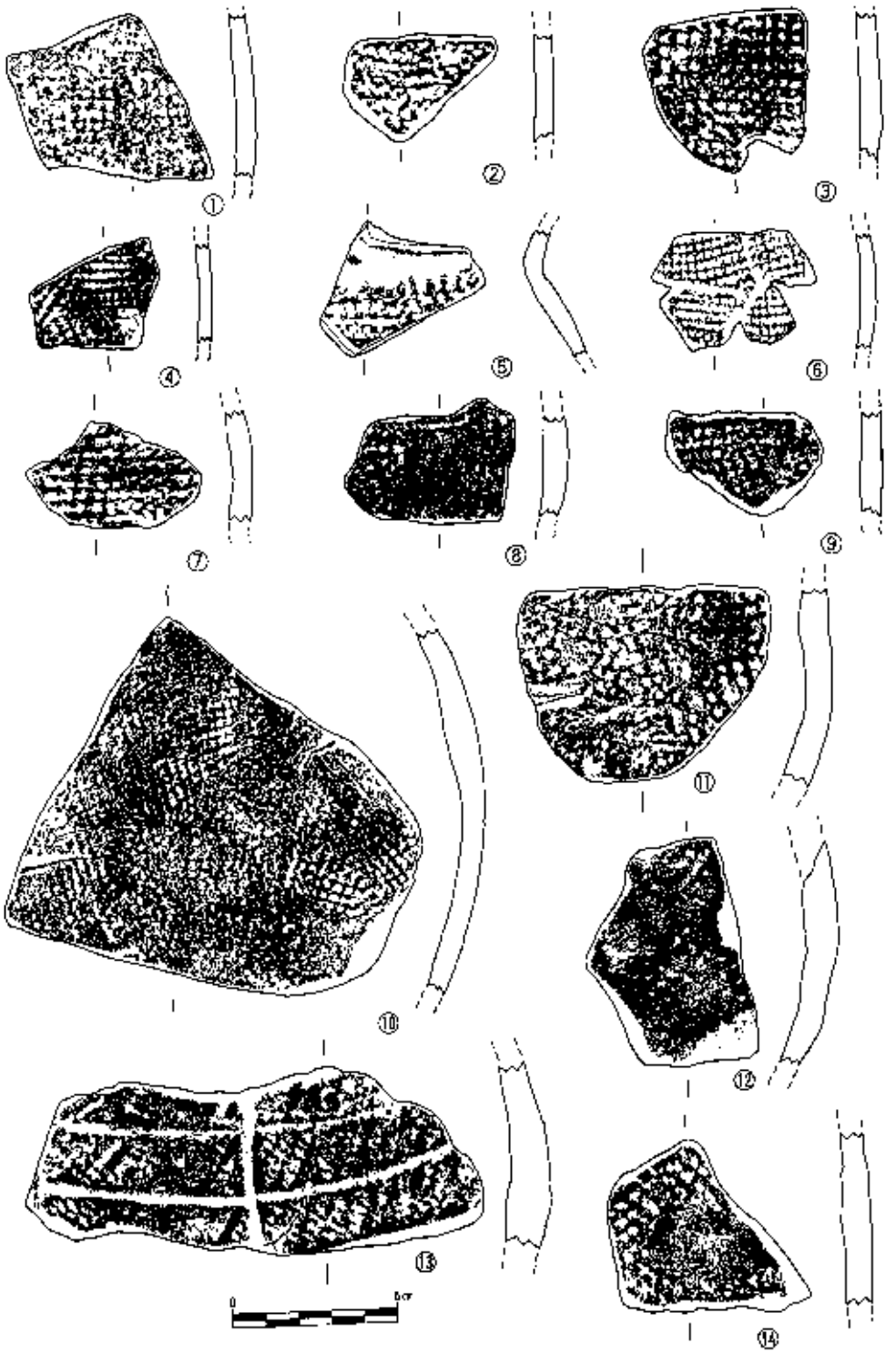

【도면 21】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4 (①-⑭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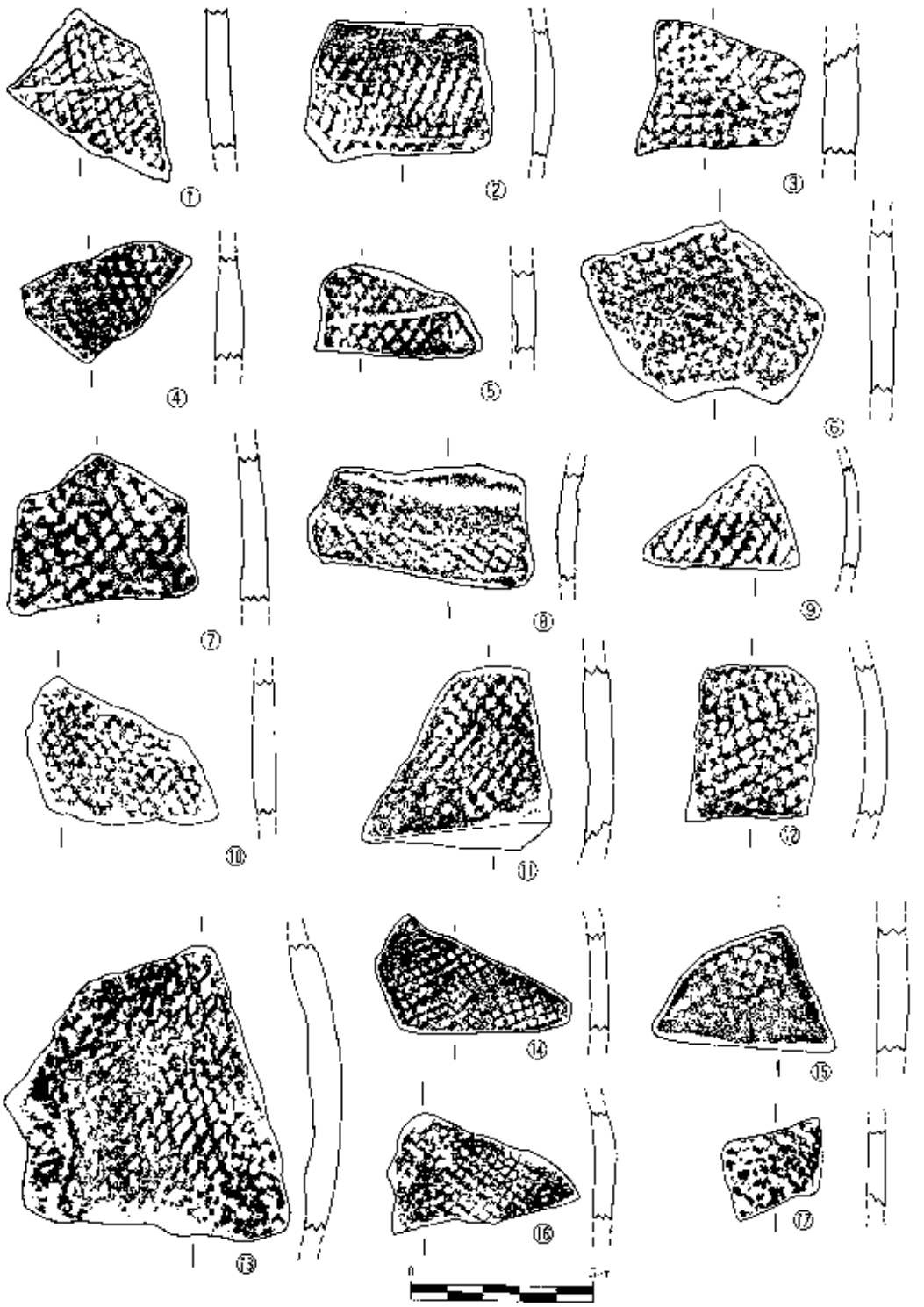

【도면 22】 임진산성 출토 백세토기류 5 (①~⑦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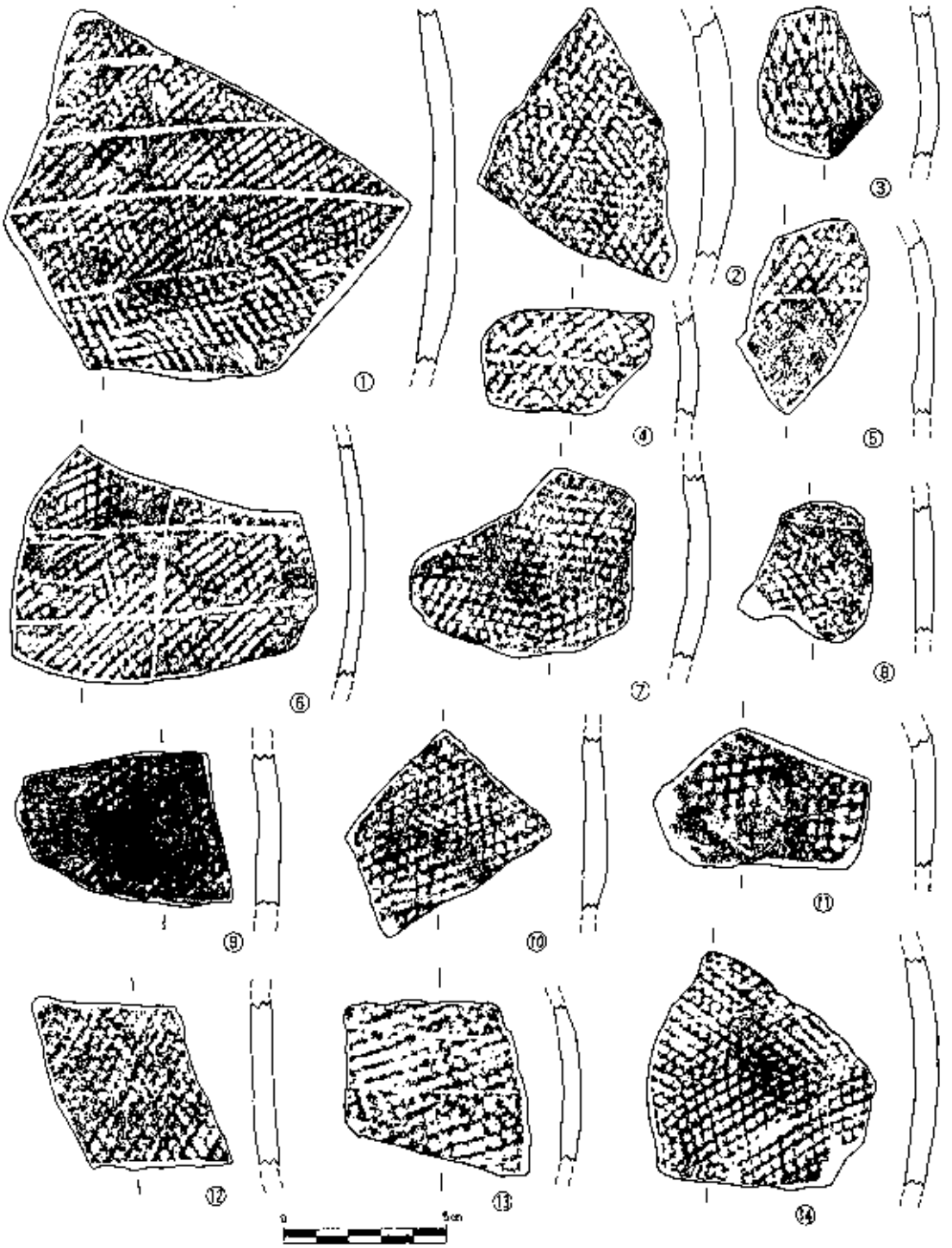
【도면 23】 위진산성 출토 백세토기류 6 (①~㉑동계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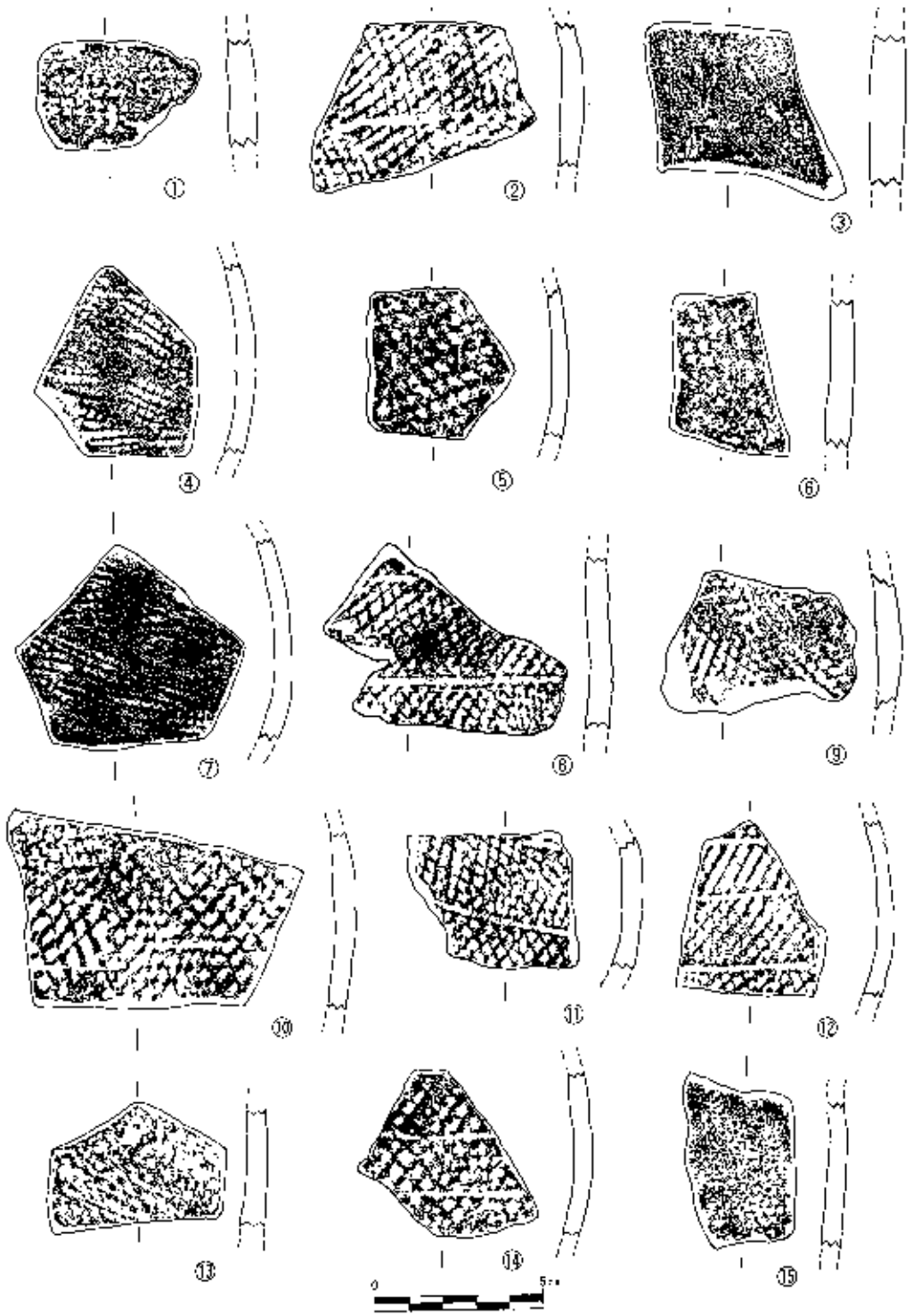
【도면 24】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7 (①~⑭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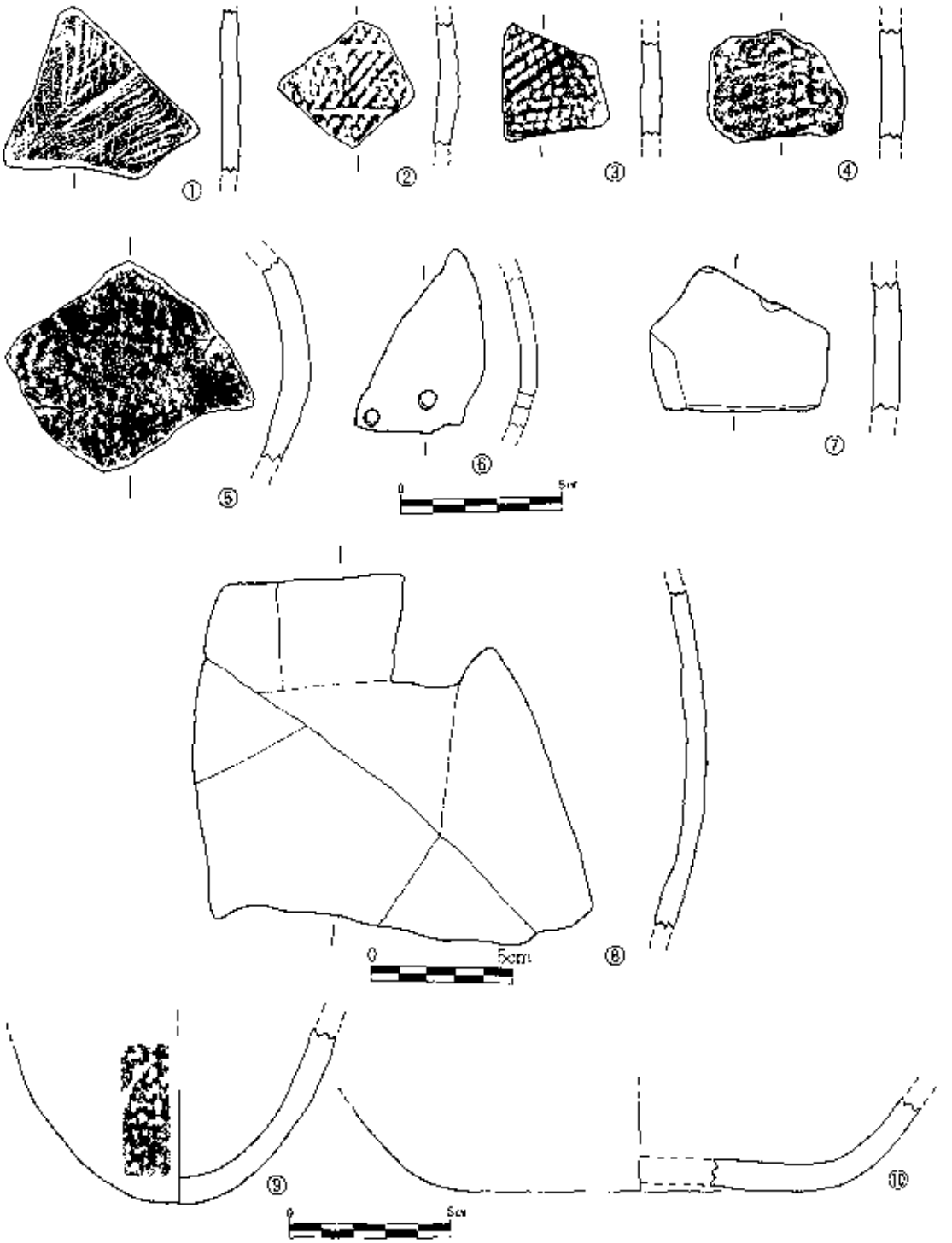

【도면 25】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8 (①~⑰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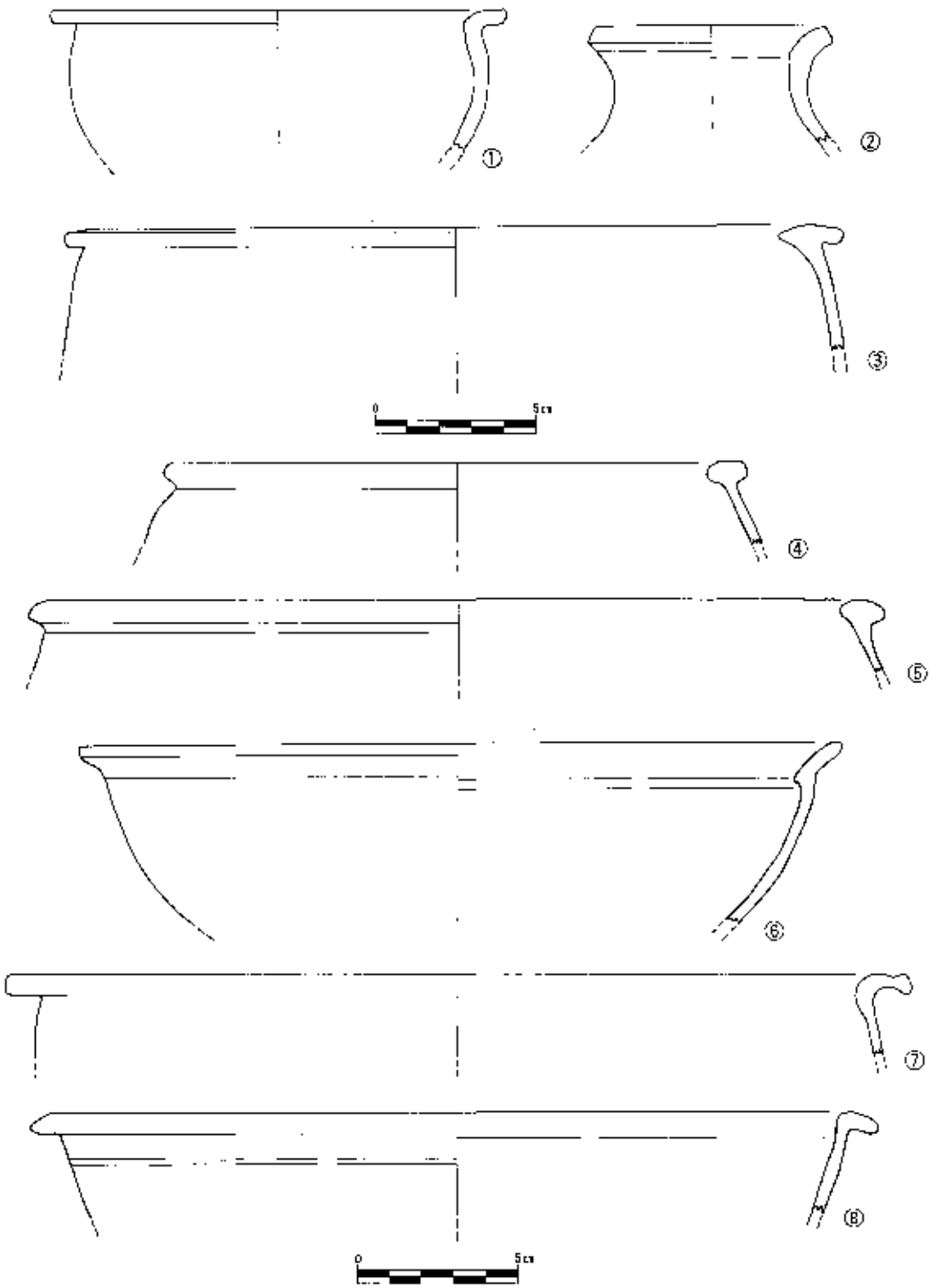

【도번 26】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9 (①~⑭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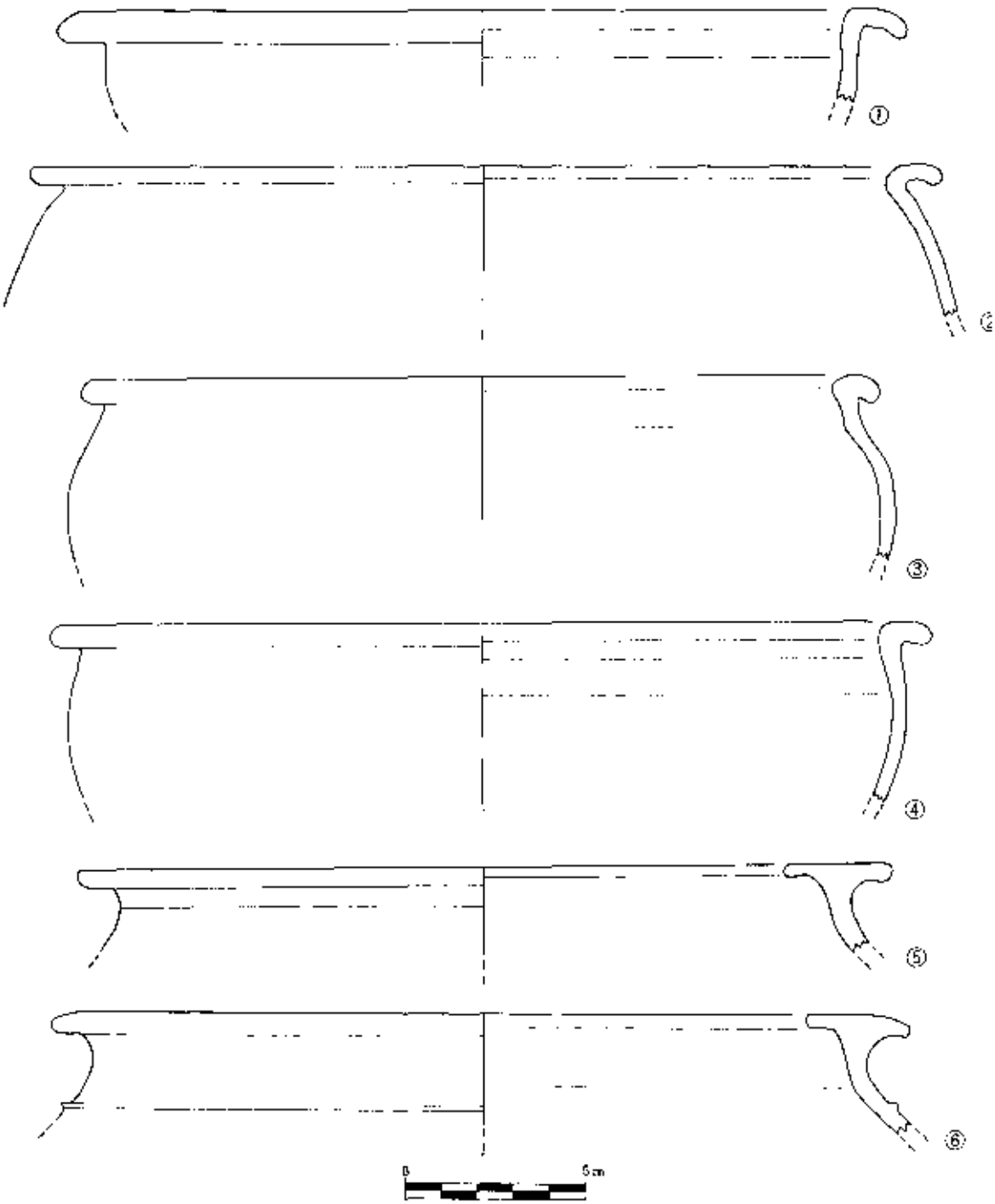
【도면 27】 익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0 (①--⑮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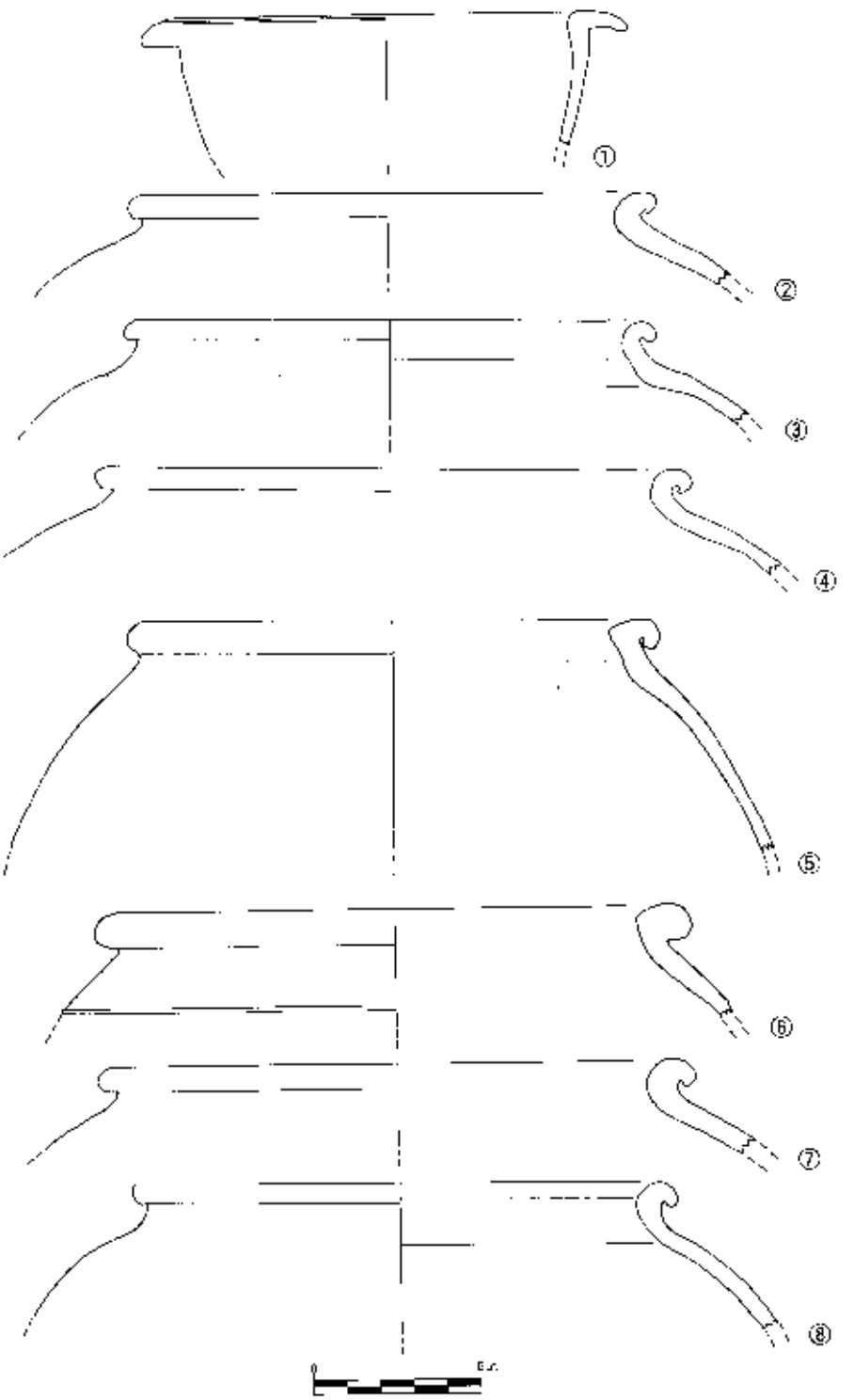

【도넌 28】 임진산성 출도 백제토기류 11 (①~⑤·⑦⑧동체부편, ⑥시루편, ⑨⑩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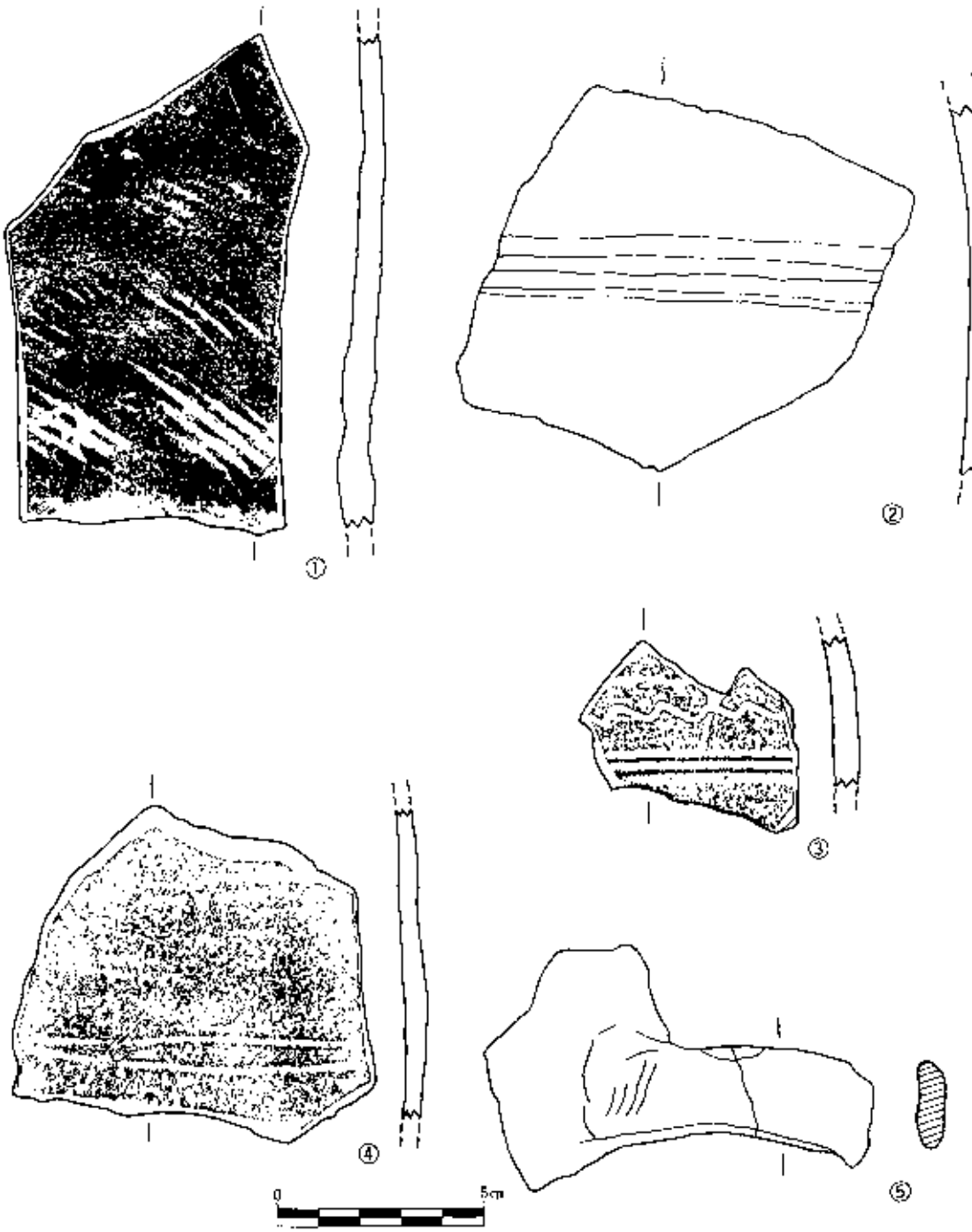

【도면 29】 인진산성 출토 도기류 1 (①~⑧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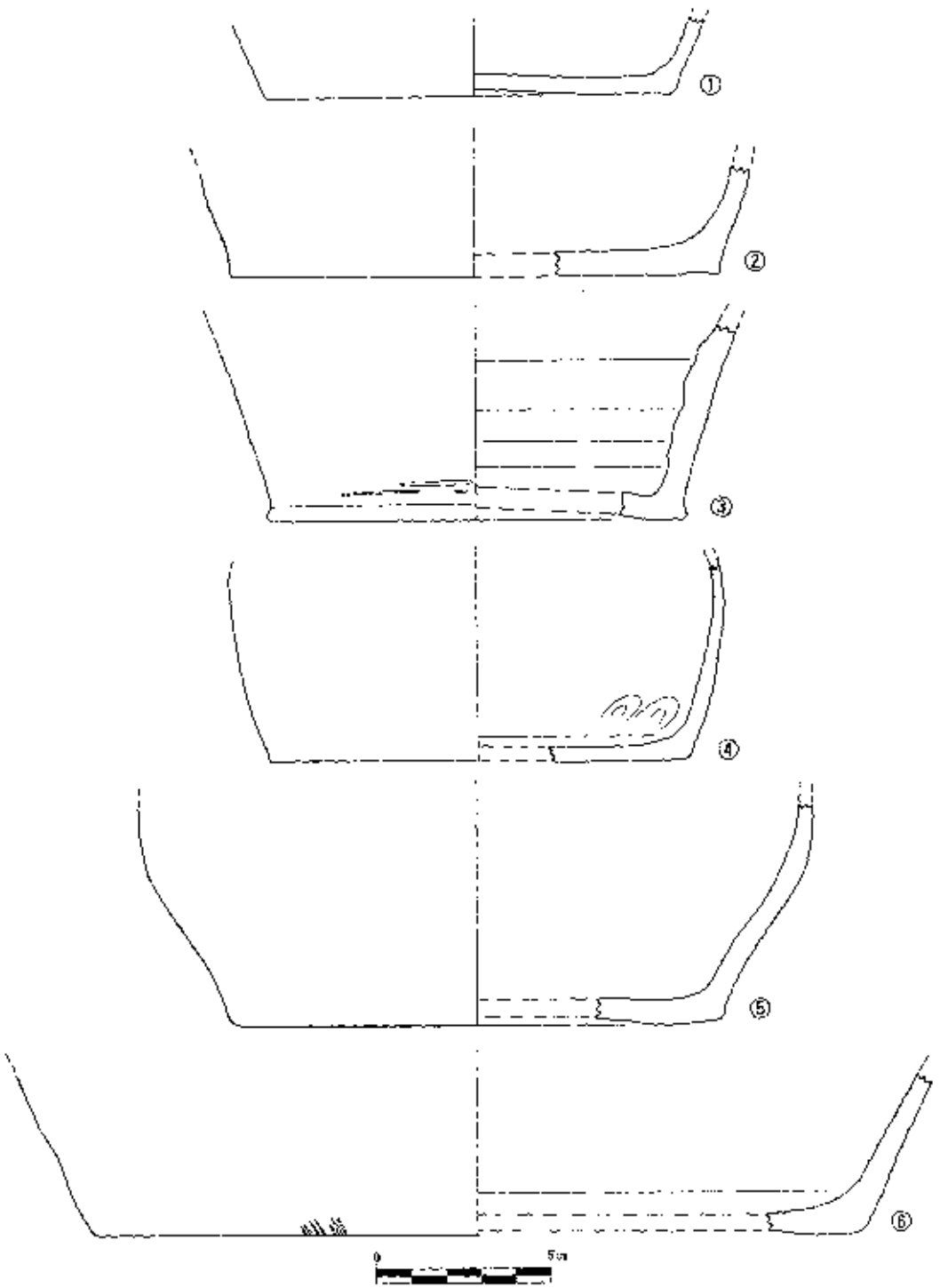

【도면 30】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2 (①~⑥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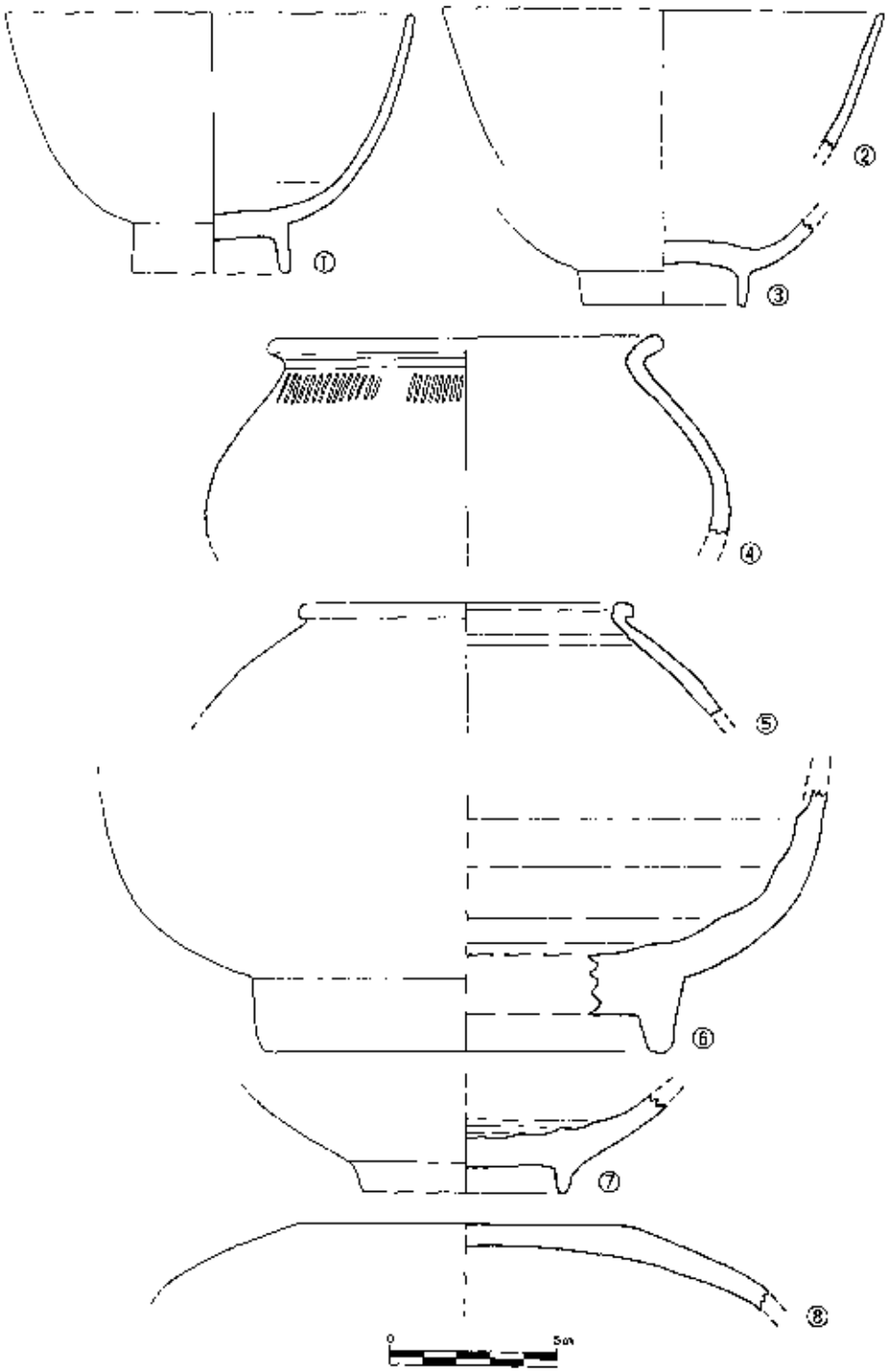

【도판 31】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3 (①--⑧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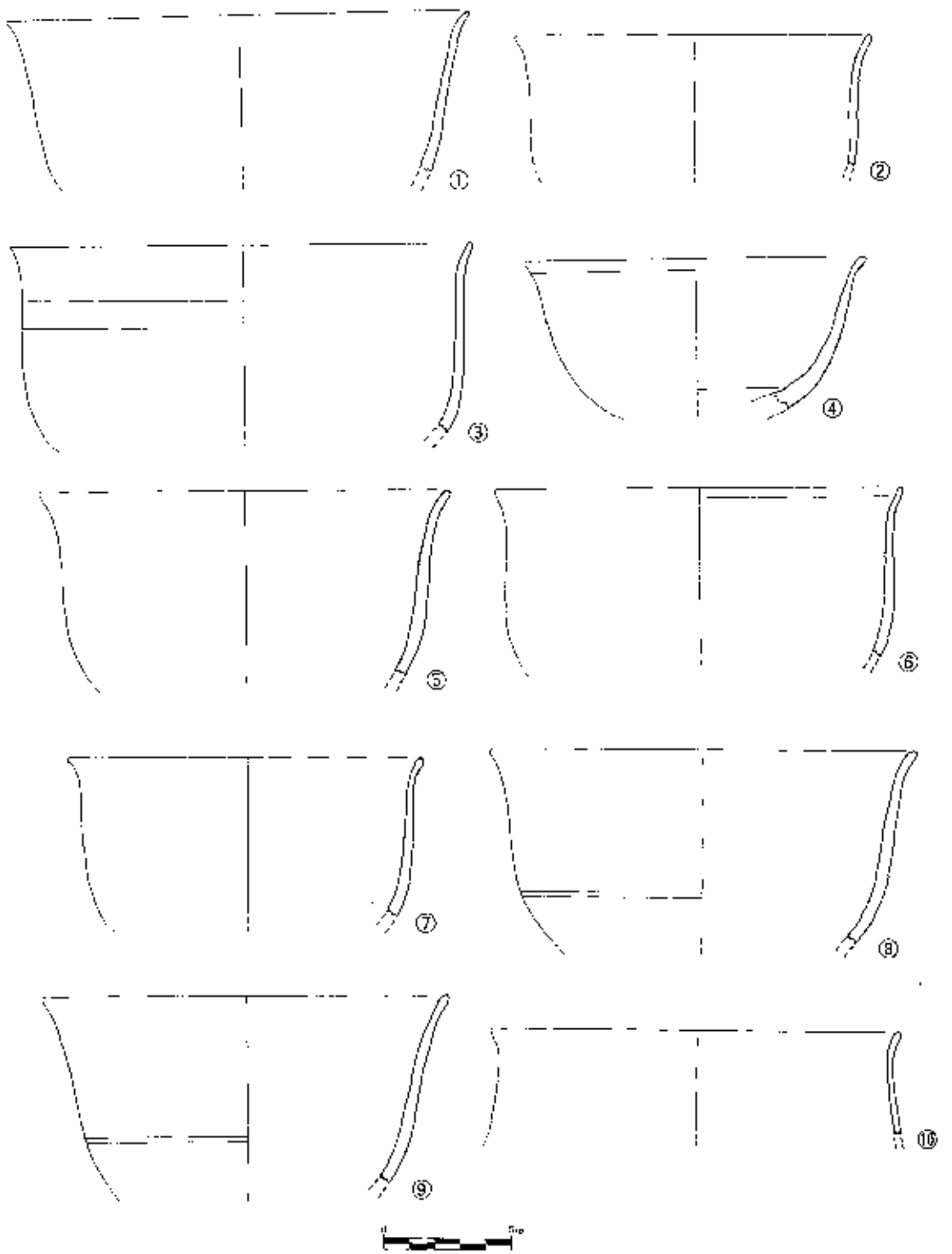

【도판 32】 위진산성 출토 도기류 4 (①-④동체부편, ⑤파수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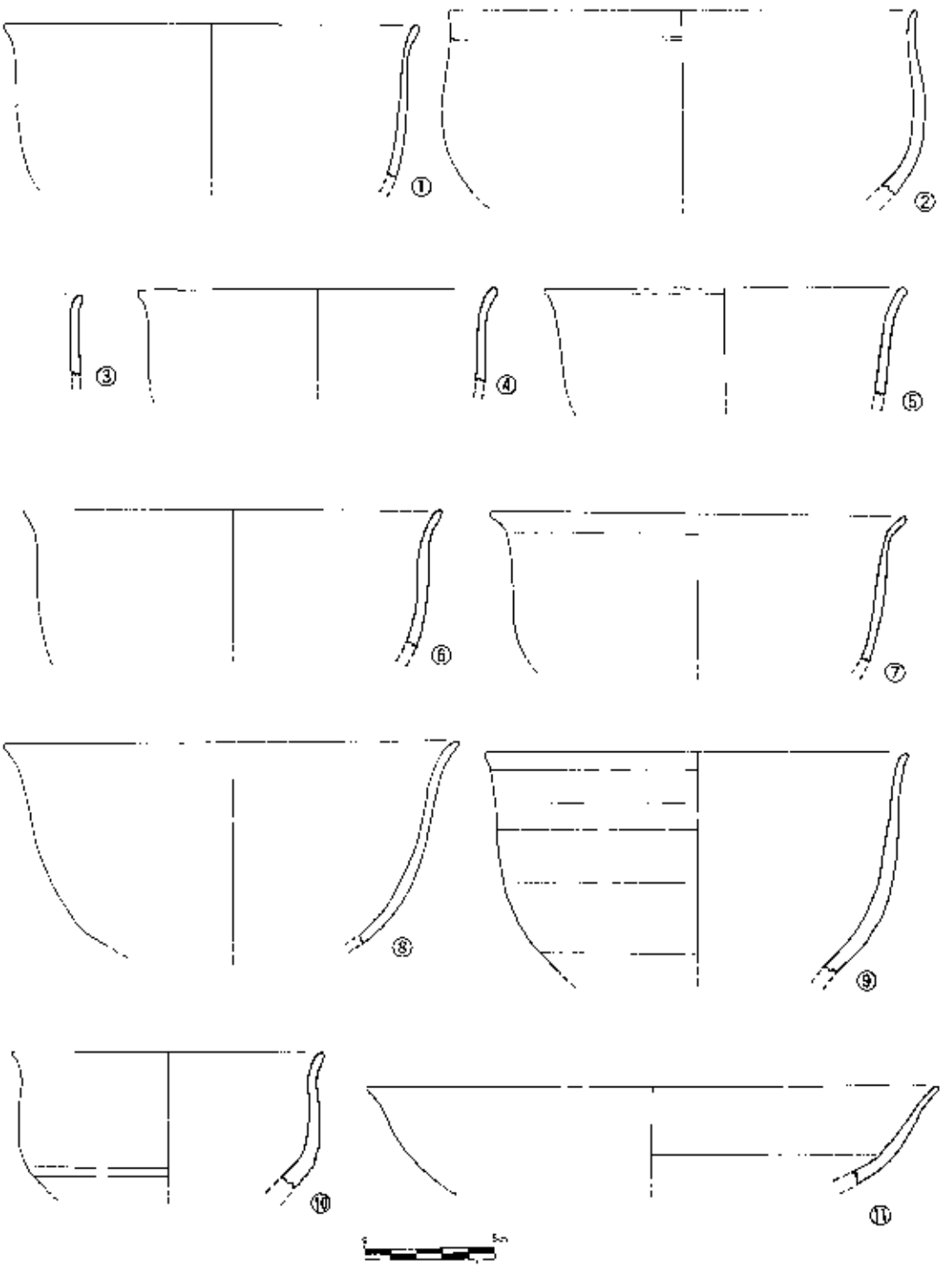

【도면 33】 임전산성 출토 도기류 5 (①~⑥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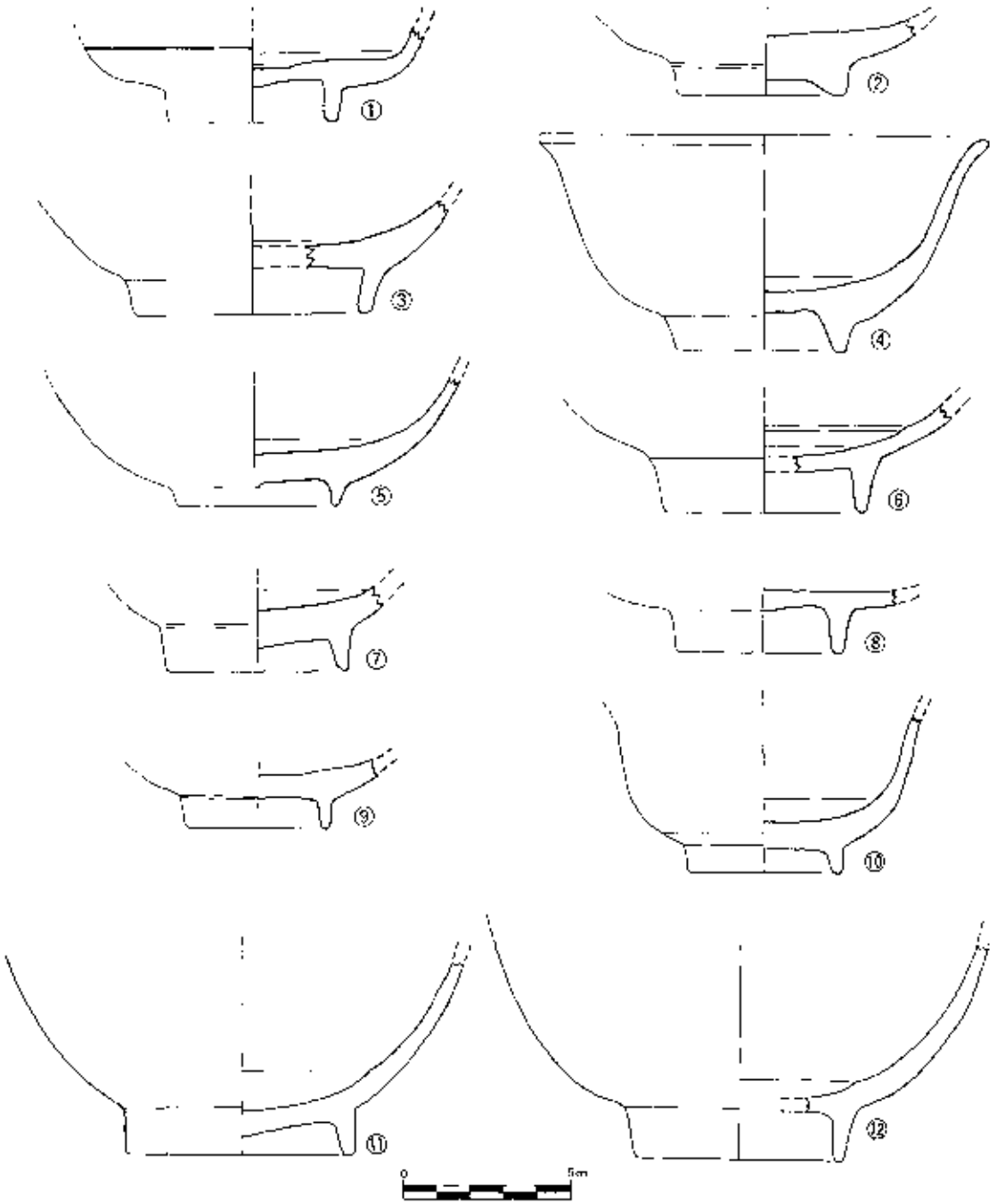

【도면 34】 암진산성 출토 자기류 1 (①~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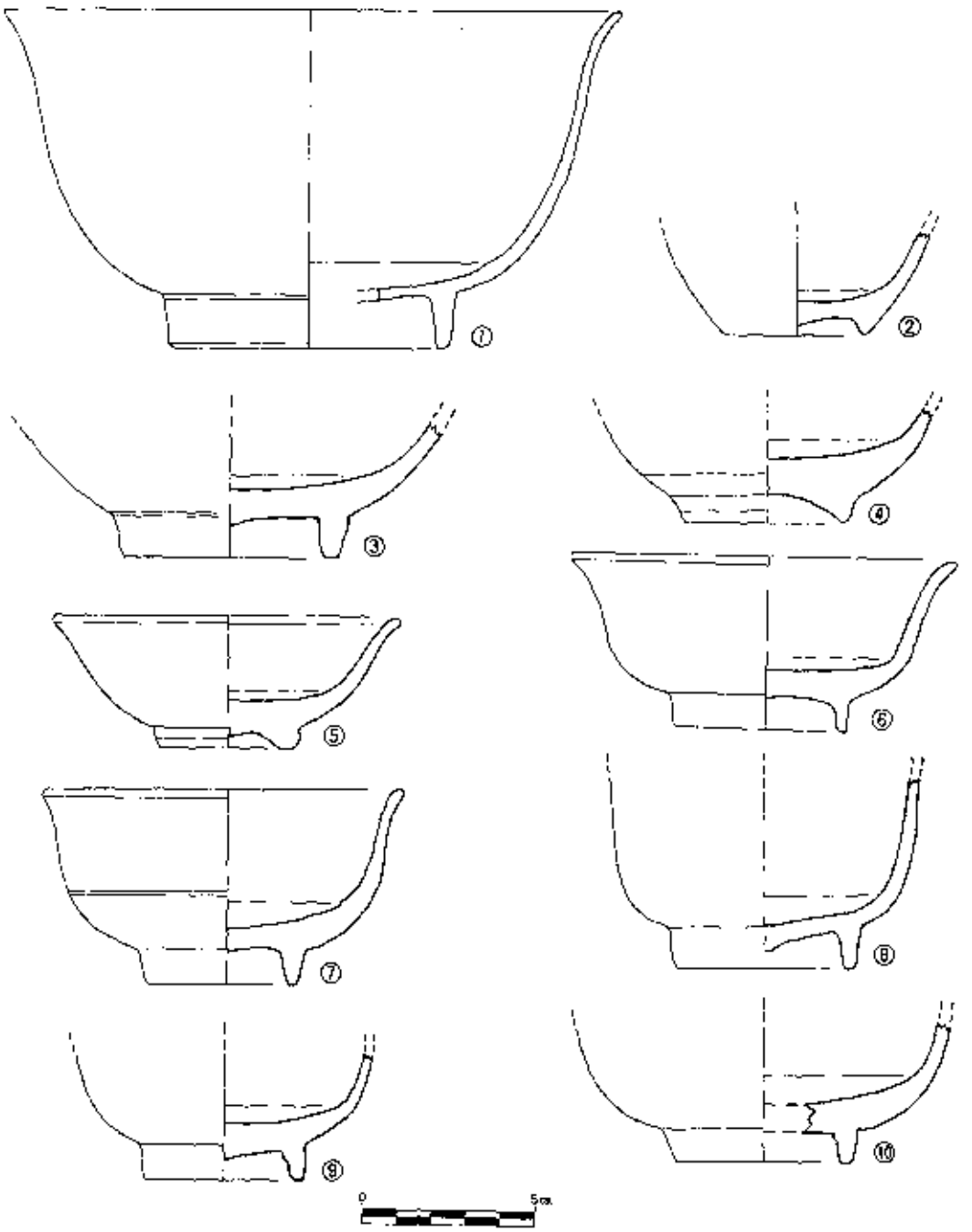

【도면 35】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2 (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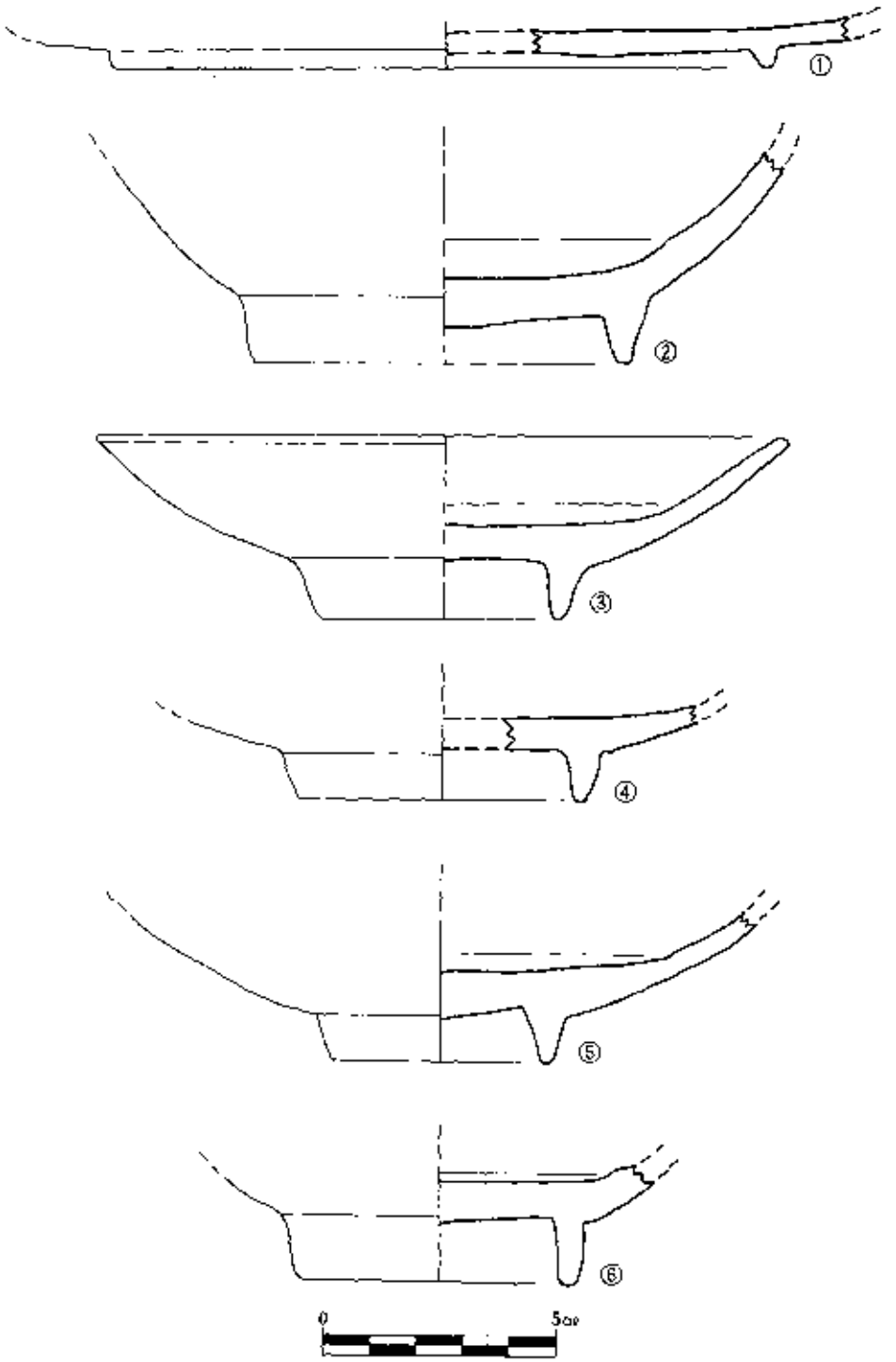

【도면 36】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3 (①~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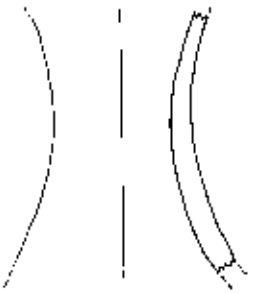

【도판 37】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4 (①~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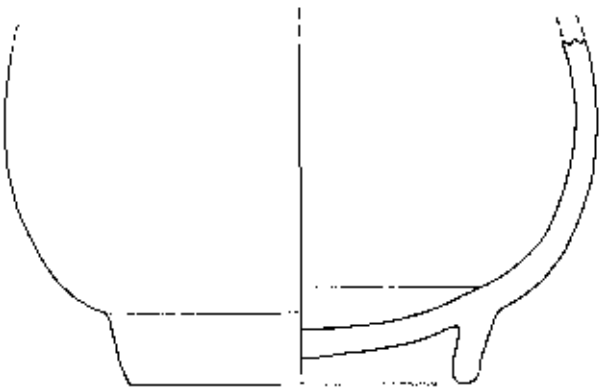

【도면 38】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5 (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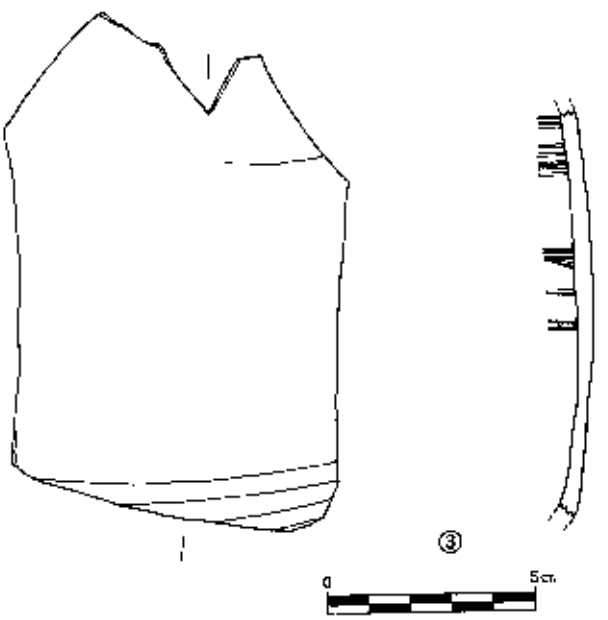

【도면 39】 임신산성 출토 자기류 6 (①~⑥)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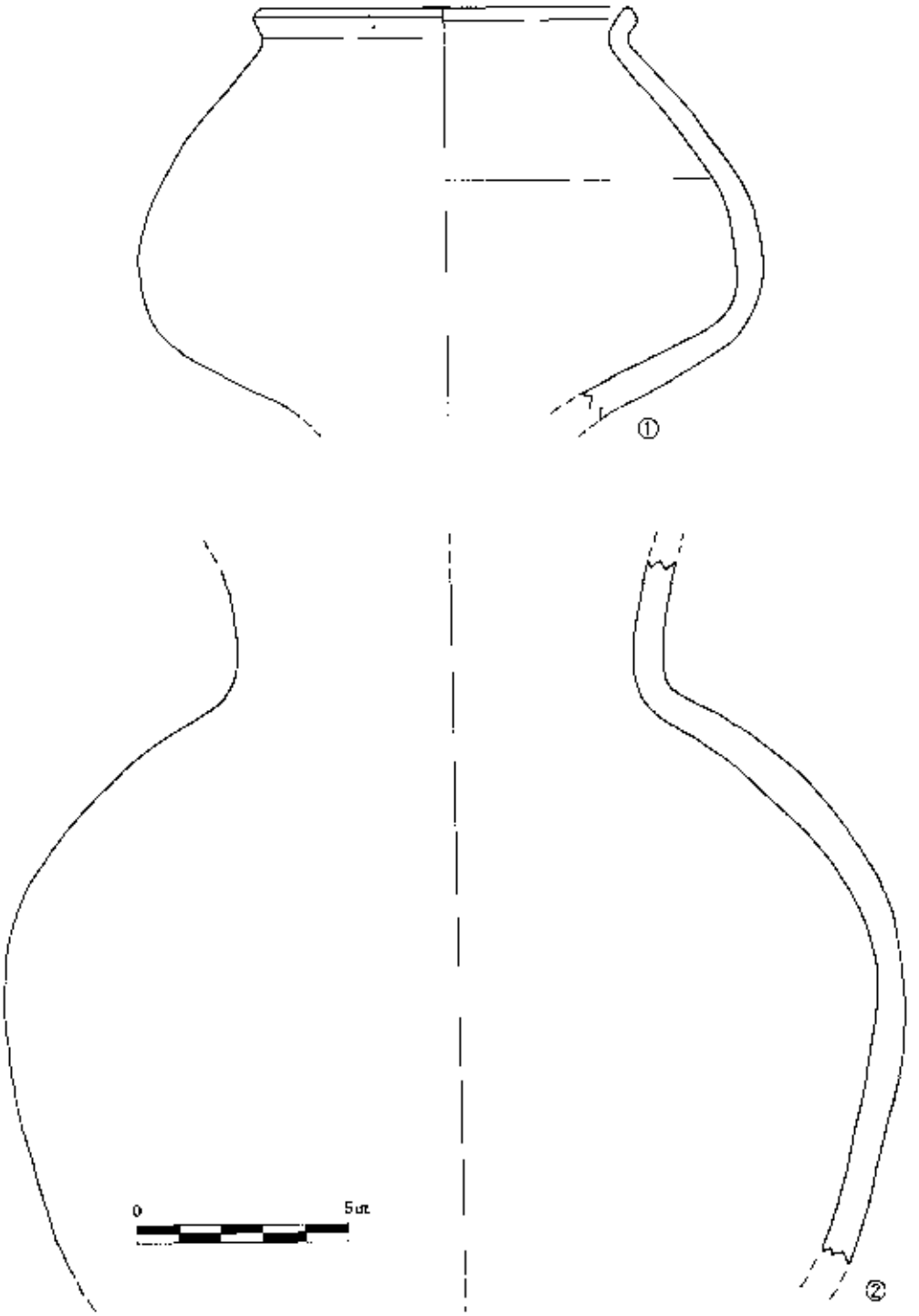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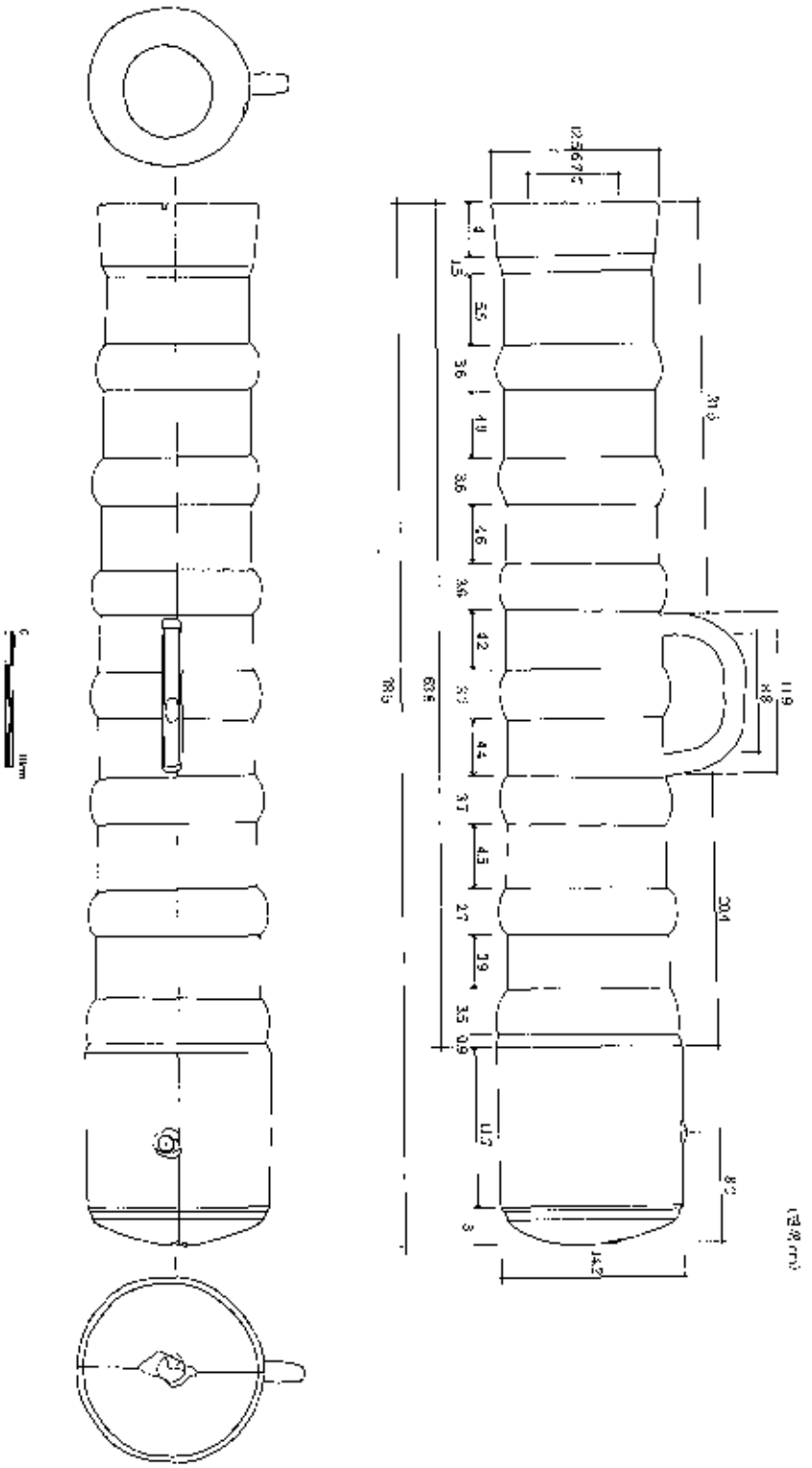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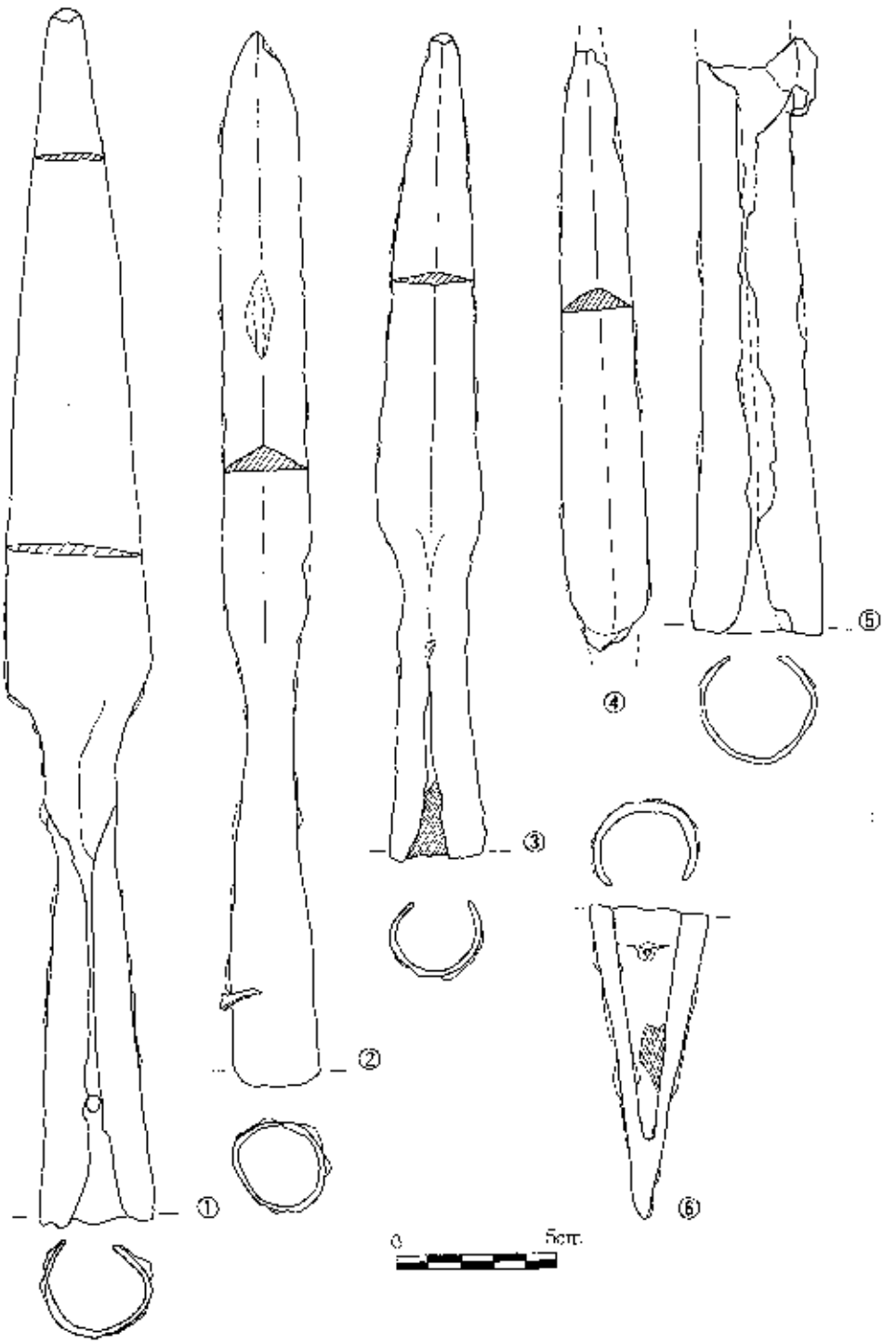
【도면 40】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7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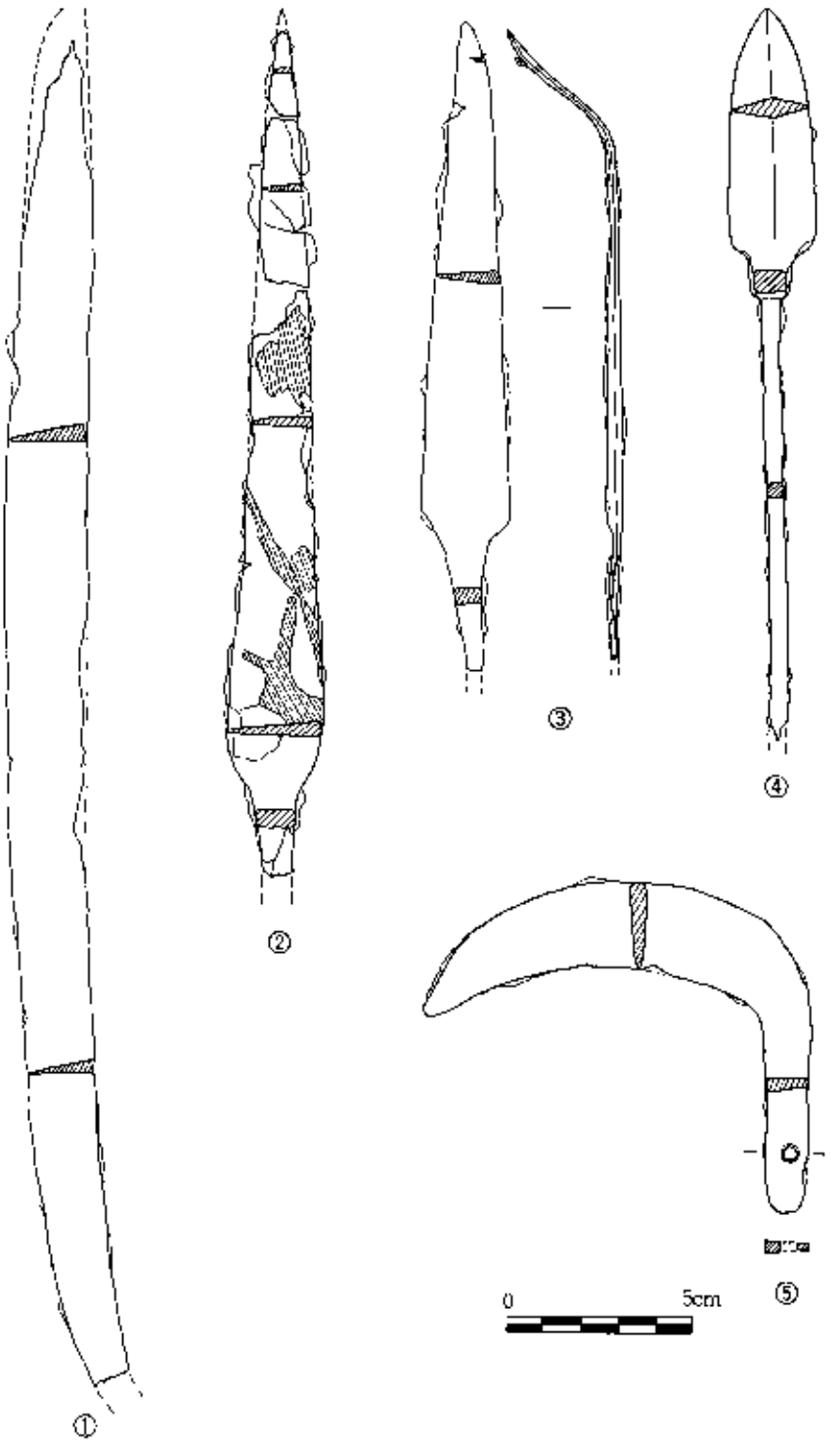

【도면 41】 임전산성 출토 자기류 8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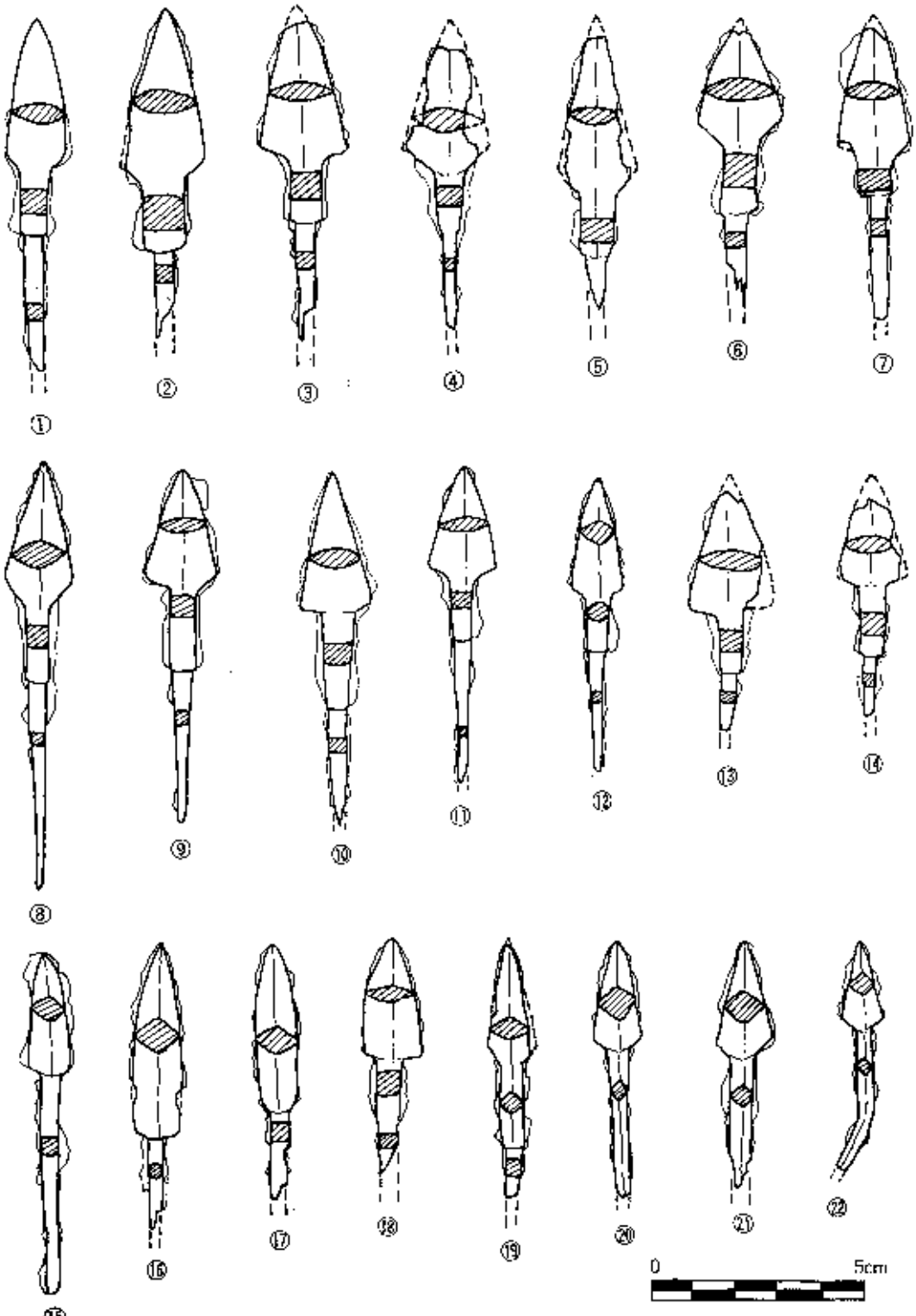
【도면 42】 임진산성 출토 현자총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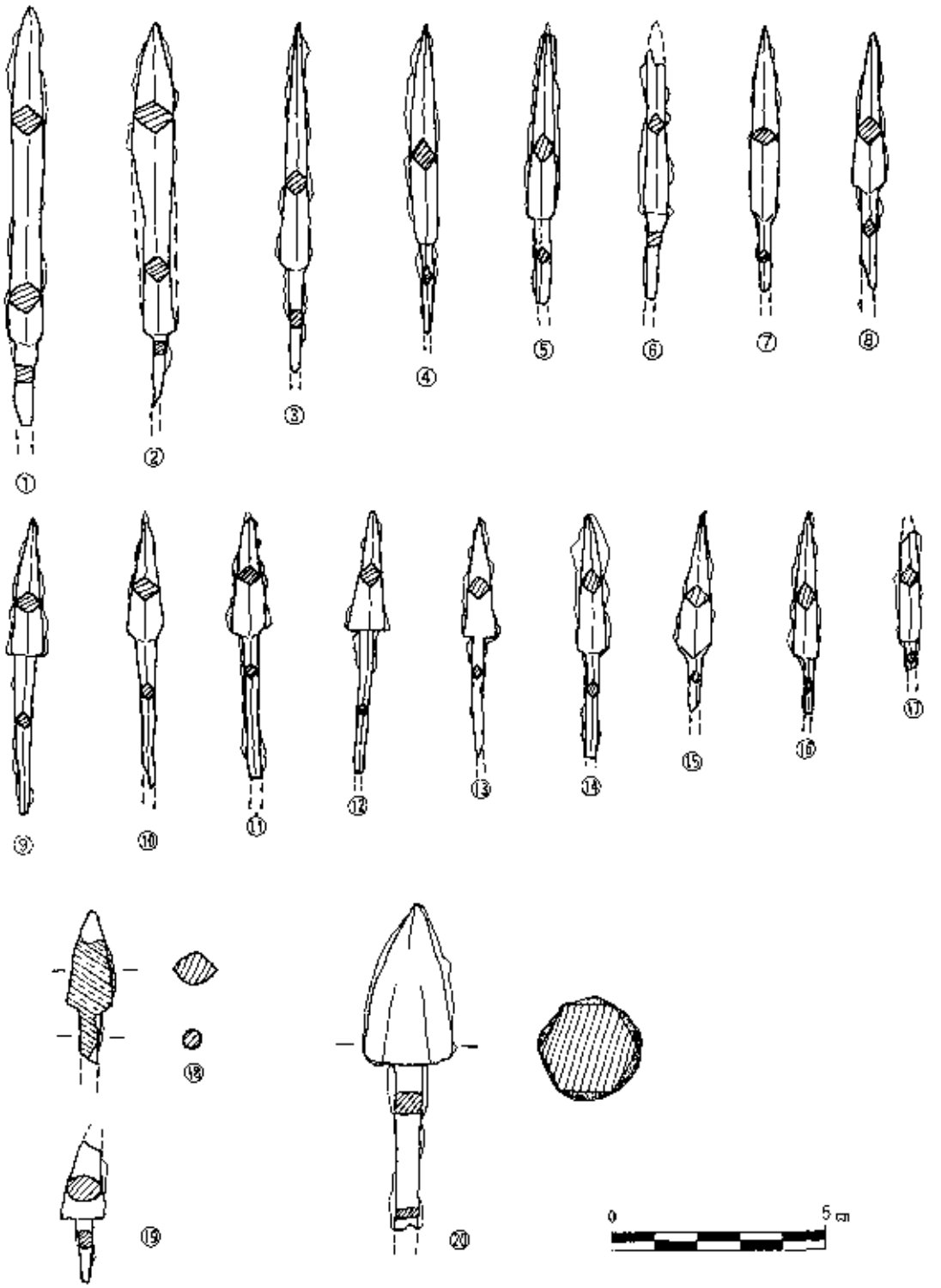

【도판 43】 임진산성 출토 철기류 1 (①~⑤鐵矛, ⑥鐵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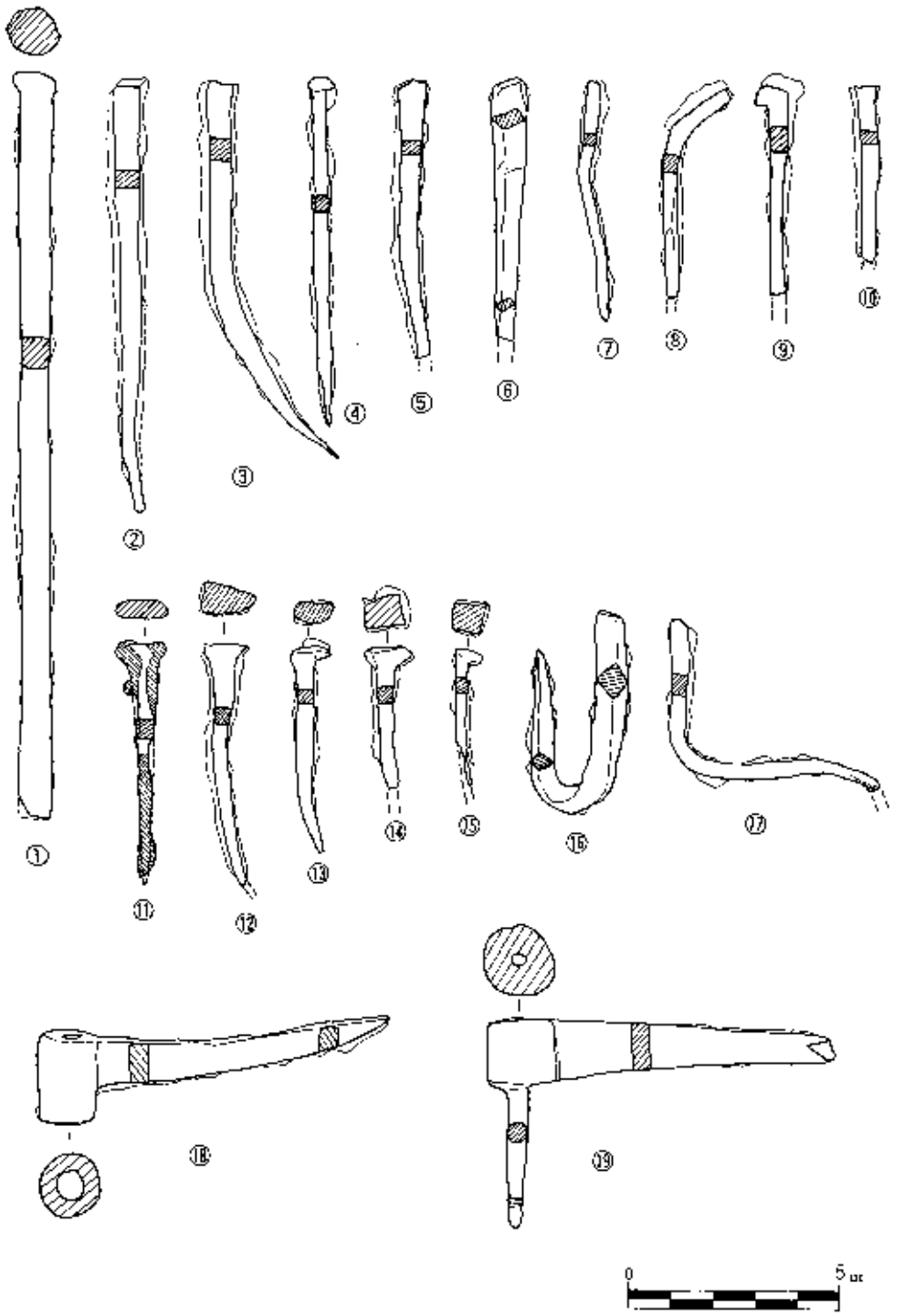

【도면 44】 임진산성 출토 철기류 2 (①鐵製小刀, ②③鐵刀子, ④鐵製箭鏃, ⑤鐵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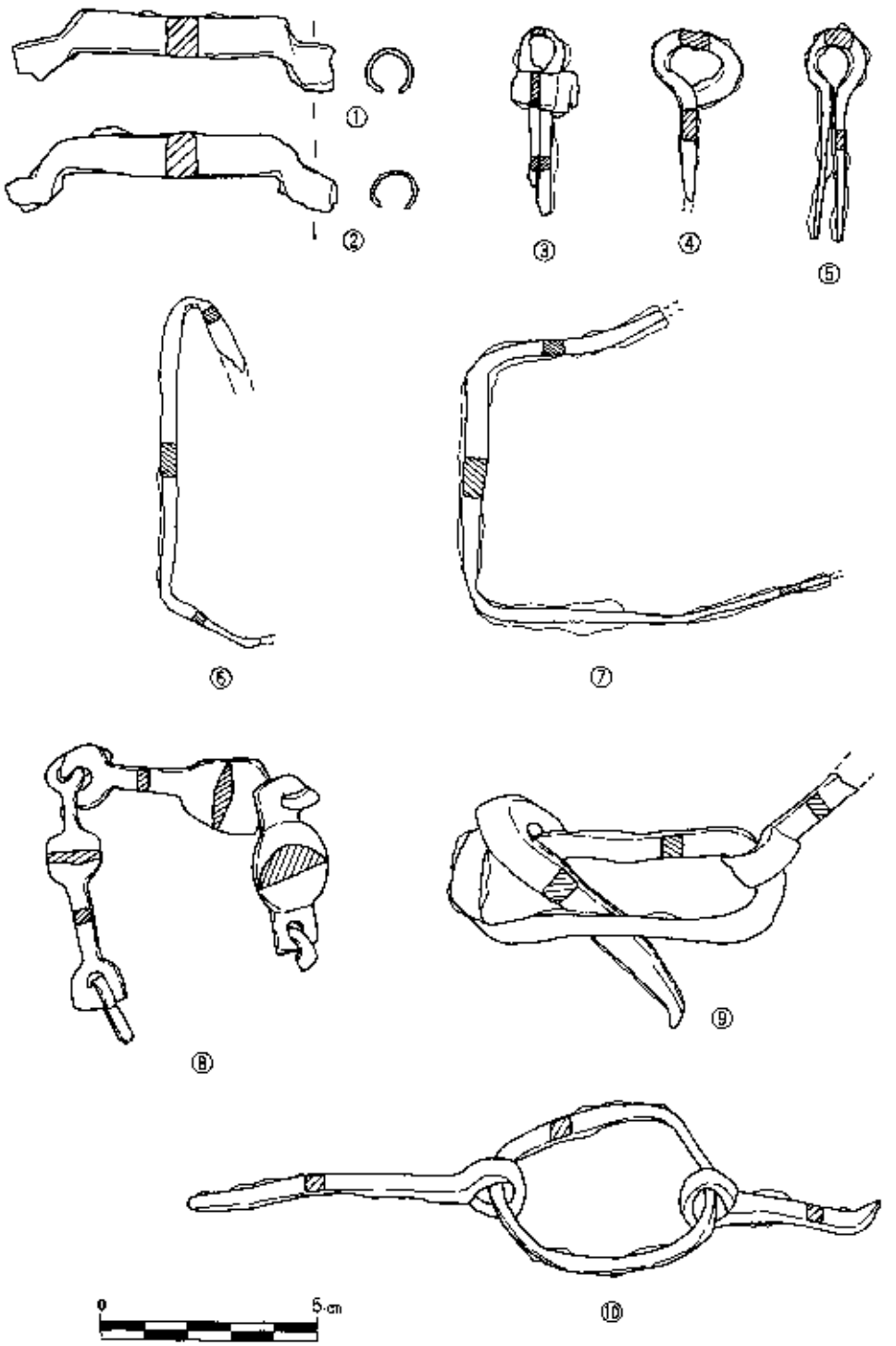

【도면 45】 임진산성 출토 철기류 3 (①~㉒鐵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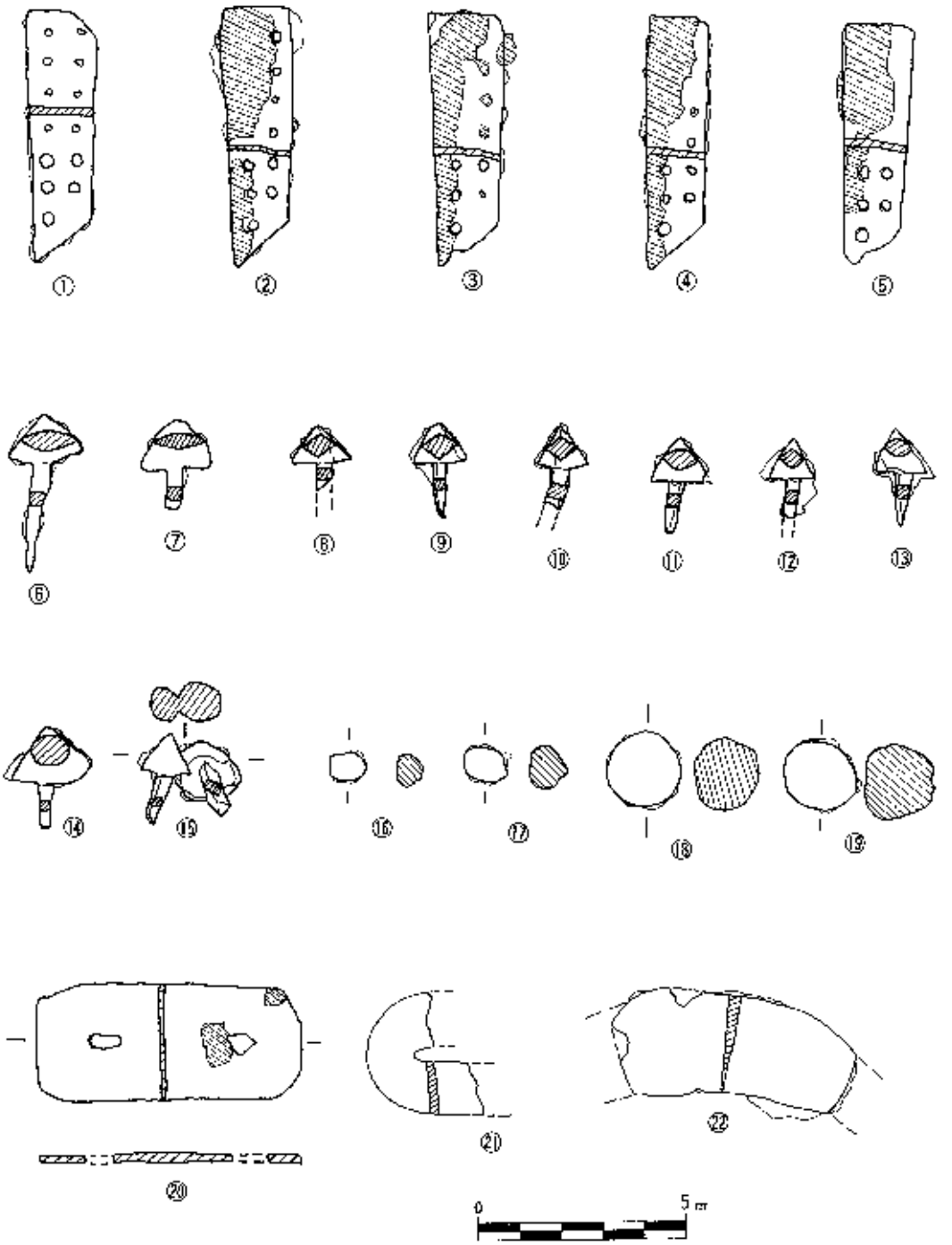

【도면 46】 임진산성 출토 철기류 4 (①~⑲鐵鏃, ⑳鐵製箭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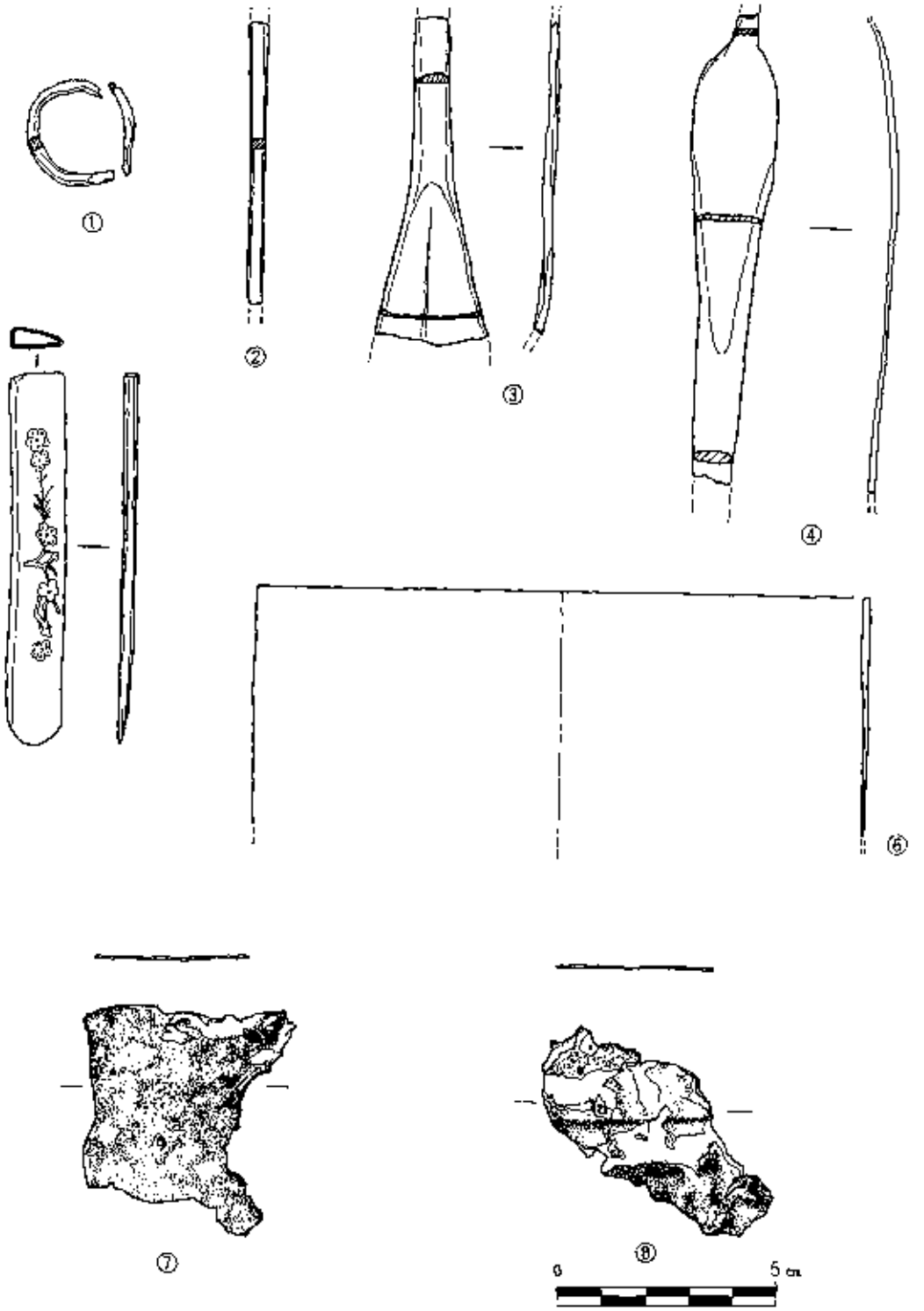

【도면 47】 임진산성 출토 철기류 5 (①鐵鎌, ②-⑰鐵釘, ⑱암쇠찌귀, ⑲수쇠찌귀)




【도면 48】 임진산성 출토 철기류 6
(①②철제손잡이, ③~⑤·⑧~⑩칠제고리, ⑥⑦철제꺽쇠)




【도면 49】 인진산성 출토 철기류 7 (①~⑤천세칼집, ⑥~⑬장식용철정, ⑭~⑲鐵製弾丸, ⑳철제품, ㉑鐵鉇, ㉒천검편)




【도면 50】 임진산성 출토 청동·금동류 (①靑銅環, ②靑銅箸, ③④靑銅匙, ⑤靑銅梨花文粧刀柄, ⑥청동용기편, ⑦⑧금동편)

【사진 1】 임진산성 전경 (북에서)

【사진 2】 임진산성 전경 (남에서)

【사진 3】 임진산성에서 바라본 북쪽 전경

【사진 4】 임진산성에서 바라본 서쪽 전경

【사진 5】 임진산성에서 바라본 남쪽 전경

【사진 6】 임진산성에서 바라본 동쪽 전경

【사진 7】 임진산성 조사전 상태 (북에서)

【사진 8】 임진산성 조사전 상태 (동에서)

【사진 9】 이목작업후 총통 출토지점 상태

【사진 10】 총통 출토지점 세부 상태

【사진 11】 발굴조사 개토제 모습

【사진 12】 조사광경 1 (북에서)

【사진 13】 조사광경 2 (남에서)

【사진 14】 조사광경 3 (서에서)

【사진 15】 조사후 북편 전경 1 (북에서)

【사진 16】 조사후 북편 전경 2 (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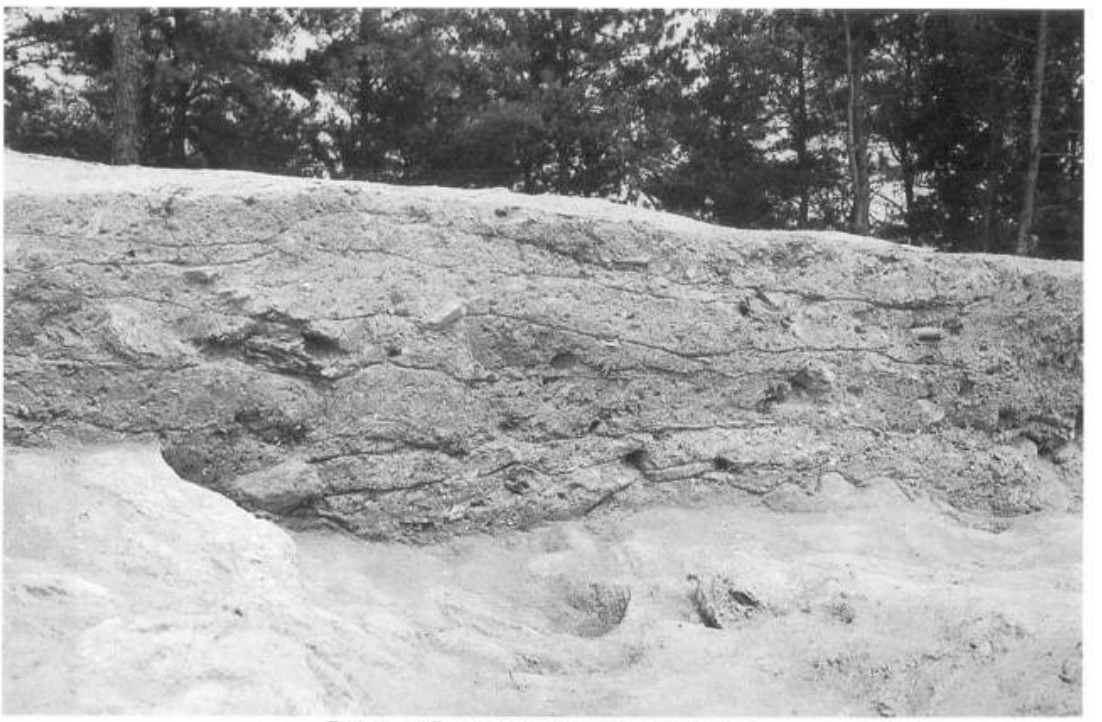
【사진 17】 조사후 서편 전경 (남에서)

【사진 18】 조사후 남편 전경 (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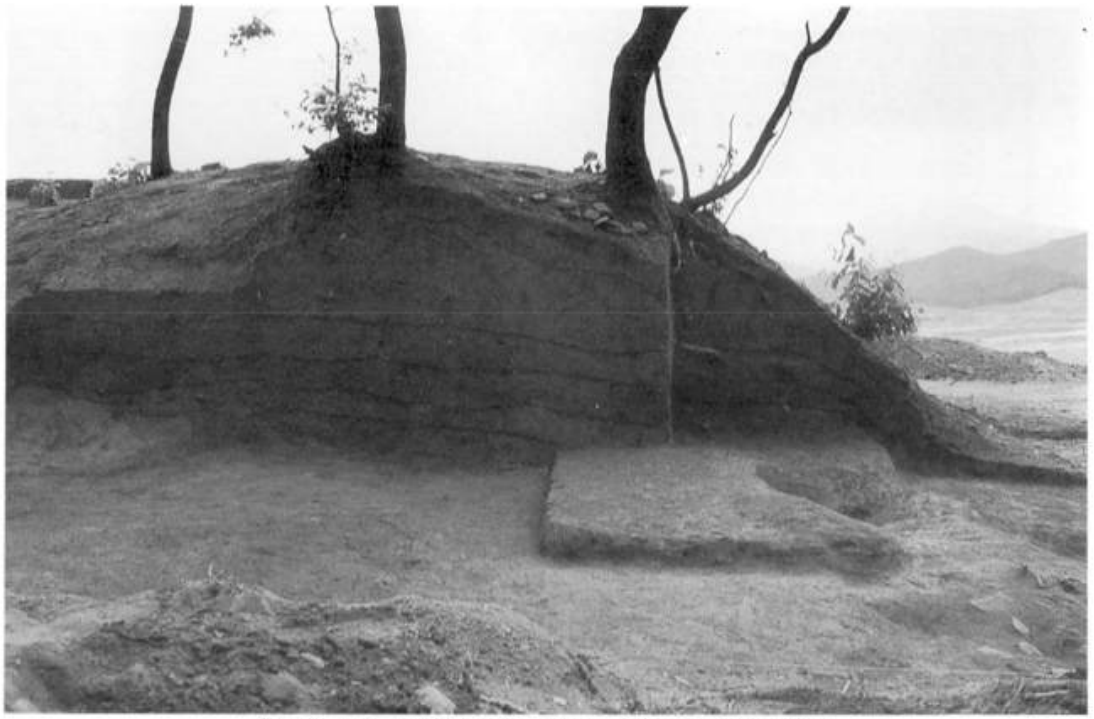
【사진 19】 조사후 동편 전경 1 (동에서)

【사진 20】 조사후 동편 전경 2 (남에서)

【사진 21】 남북단면 토층 상태 (서에서)



【사진 22】 남북단면 토층 세부 상태



【사진 23】 북동확장Tr. 서벽 토층 상태 (동에서)

【사진 24】 북동확장Tr. 남벽 토층 상태 (북에서)

【사진 25】 남서단면 토층 상태 (서에서)

【사진 26】 총통출토지 주변 토층 상태 (동에서)

【사진 27】 북쪽단면 남벽 토층 상태 (북에서)

【사진 28】 북쪽단면 조사 상태 (동에서)

【사진 29】 북쪽단면 동벽 토층 상태 (서에서)

【사진 30】 북쪽단면 서벽 토층 상태 (동에서)

【사진 31】 조사전 주거지 상태 (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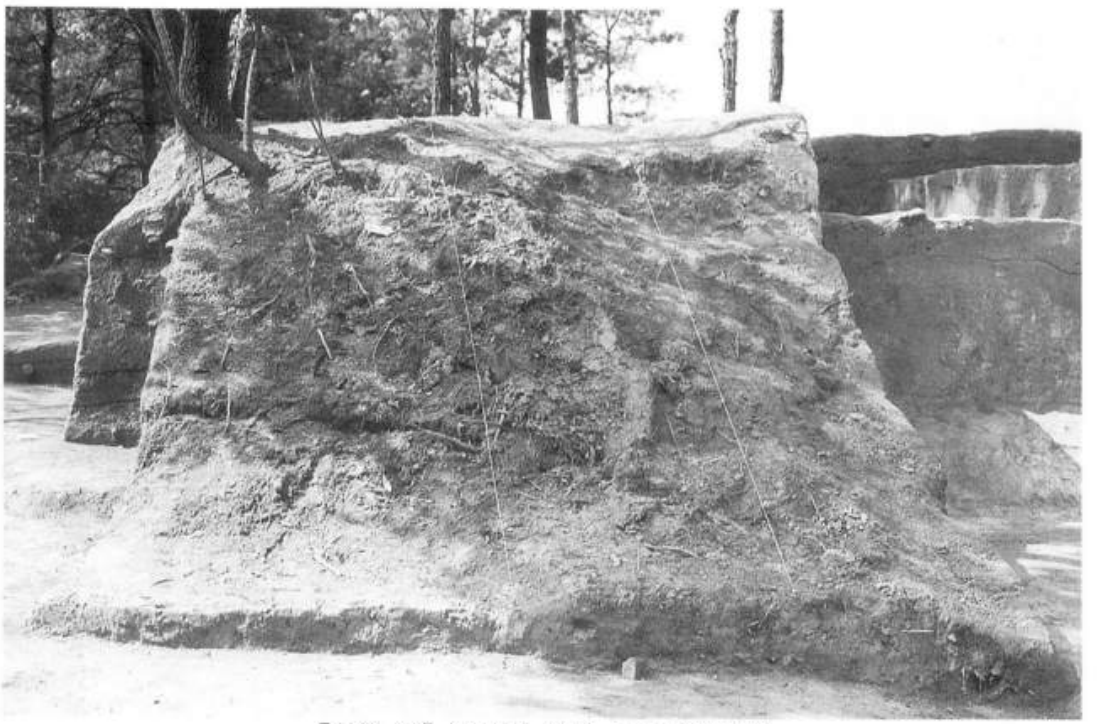
【사진 32】 조사후 주거지 상태 (북에서)

【사진 33】 조사후 주거지 상태 (동에서)

【사진 34】 주거지 남서벽 잔존 상태

【사진 35】 주거지 북쪽 외곽 기와류 노출 상태

【사진 36】 "千司"명 기와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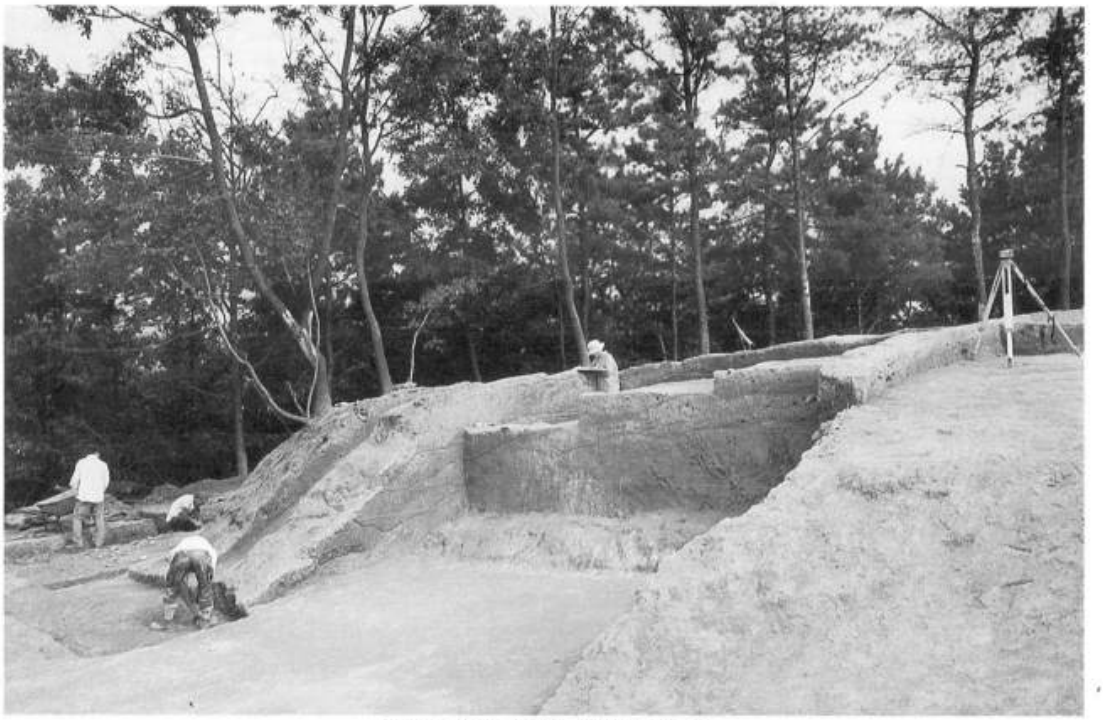


【사진 37】 조사전 성벽 모습 (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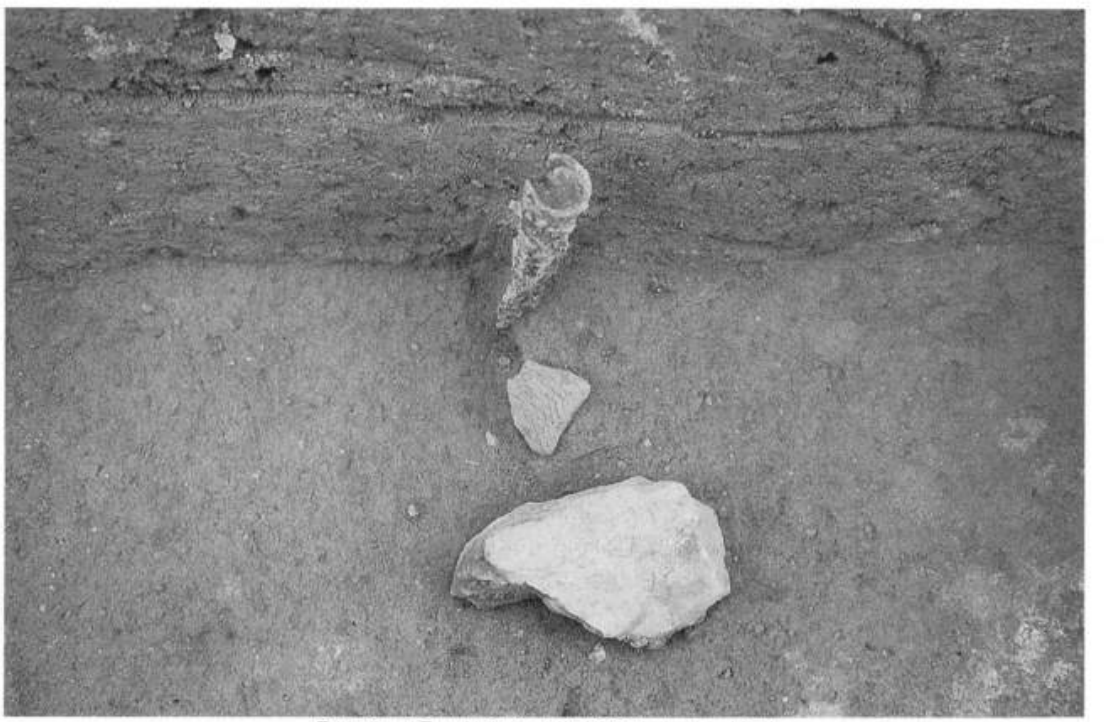
【사진 38】 성벽 조사모습 1

【사진 39】 평면조사후 성벽 모습 (북에서)

【사진 40】 성벽 평면조사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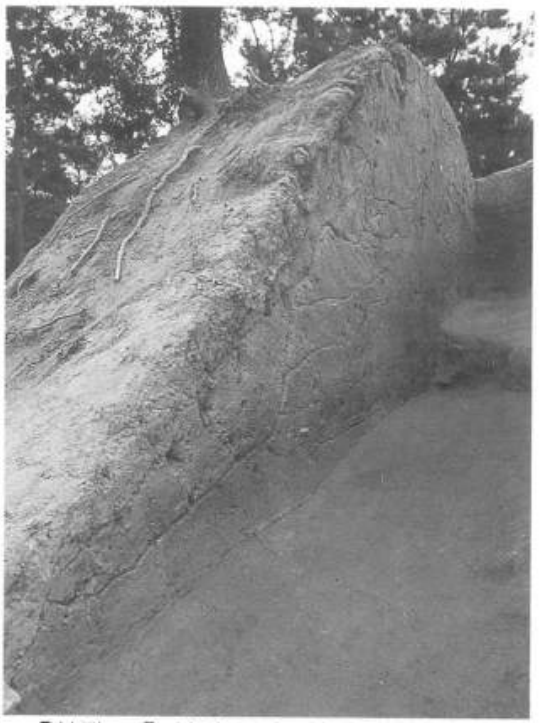
【사진 41】 성벽 조사모습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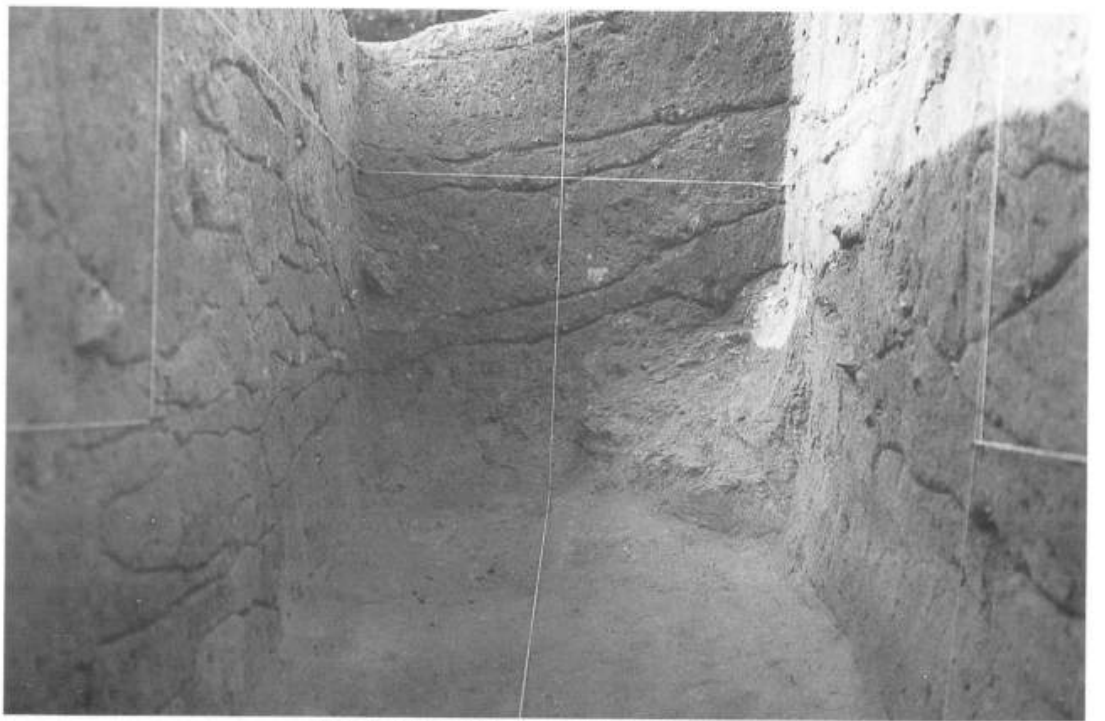
【사진 42】 성벽내 철제유물 노출 상태

【사진 43】 성벽내 자기류 노출 상태

【사진 44】 조사후 성벽 상태 (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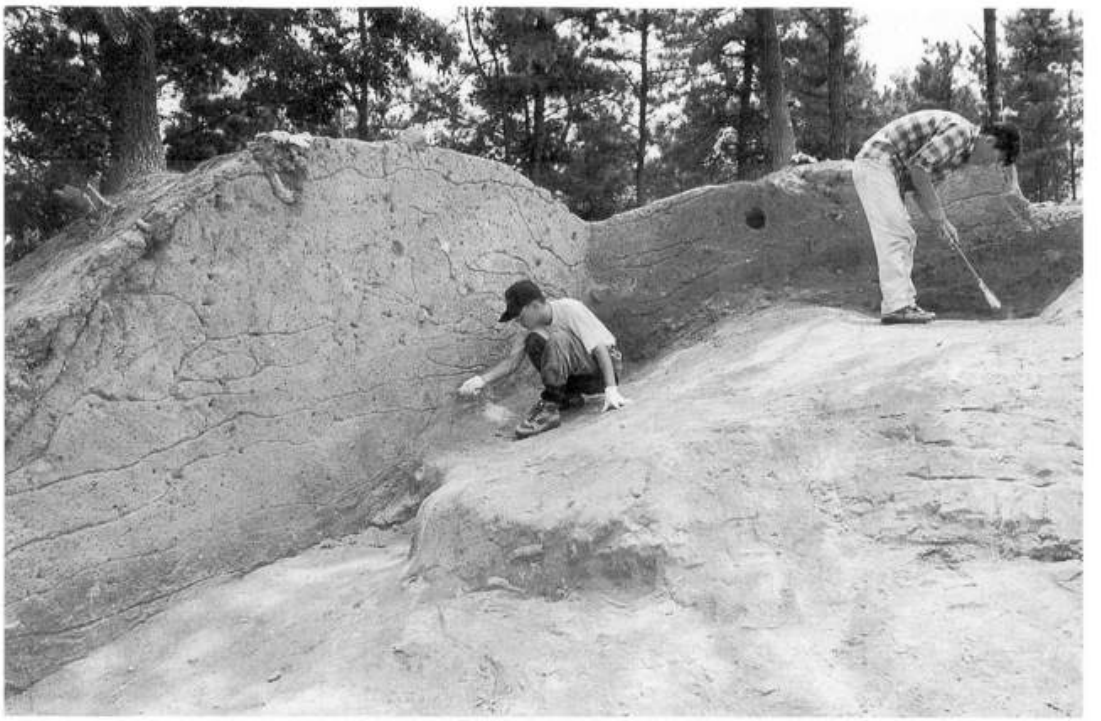
【사진 45】 성벽 토층 상태 1 (서에서)



【사진 46】 성벽 토층 상태 2 (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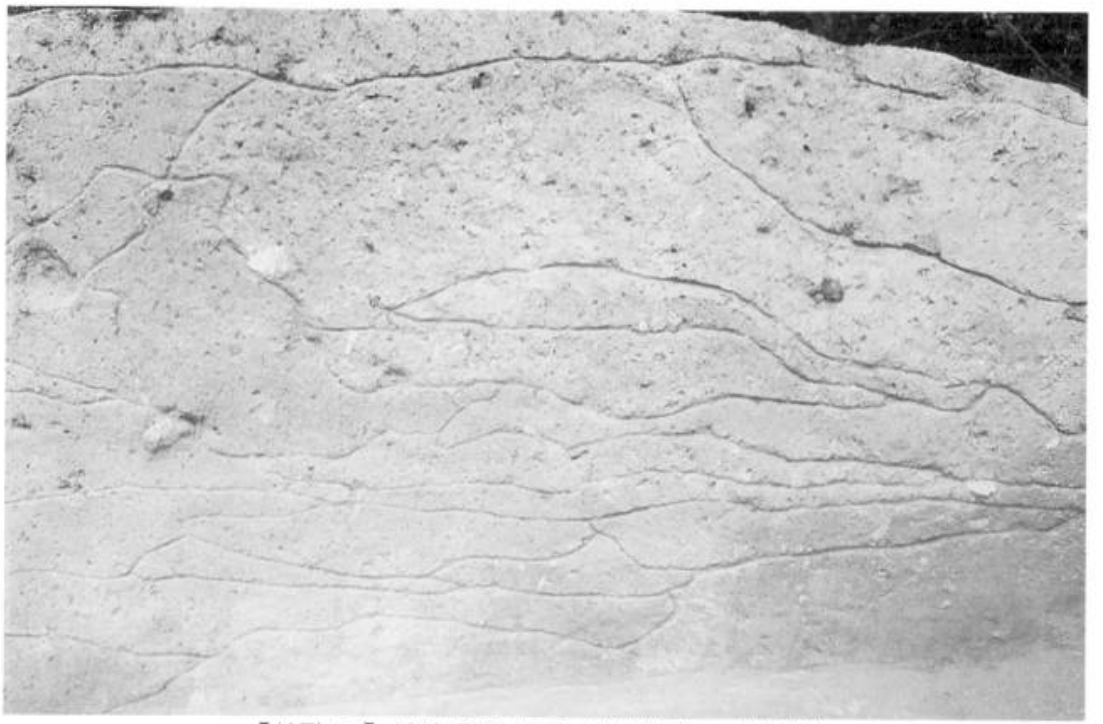
【사진 47】 성벽 토층 상태 3 (동에서)

【사진 48】 성벽 단면 조사 상태 1 (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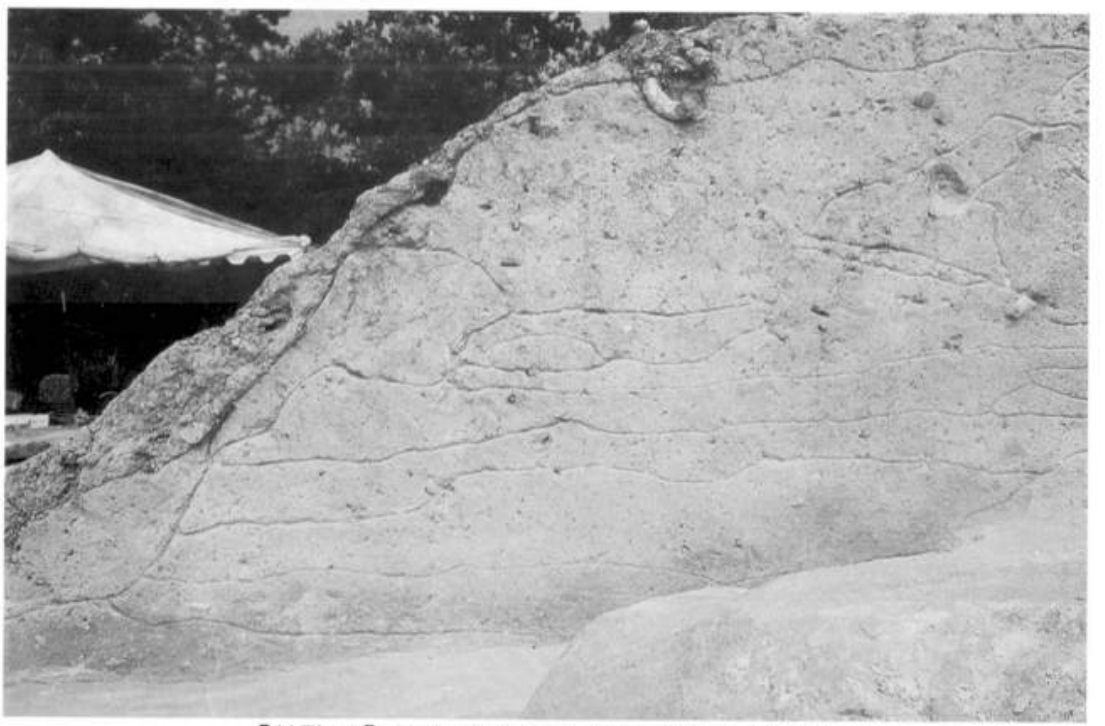


【사진 49】 성벽 단면 조사 광경

【사진 50】 성벽 단면 토층 상태 (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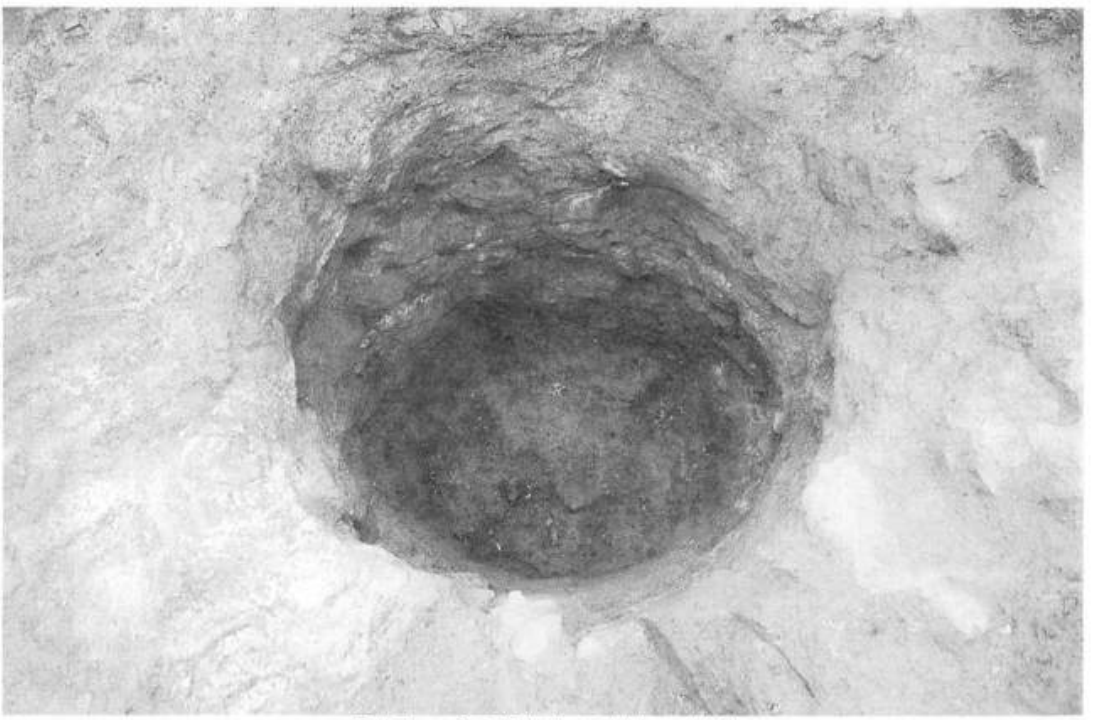


【사진 51】 성벽 단면 토층 세부상태 1 (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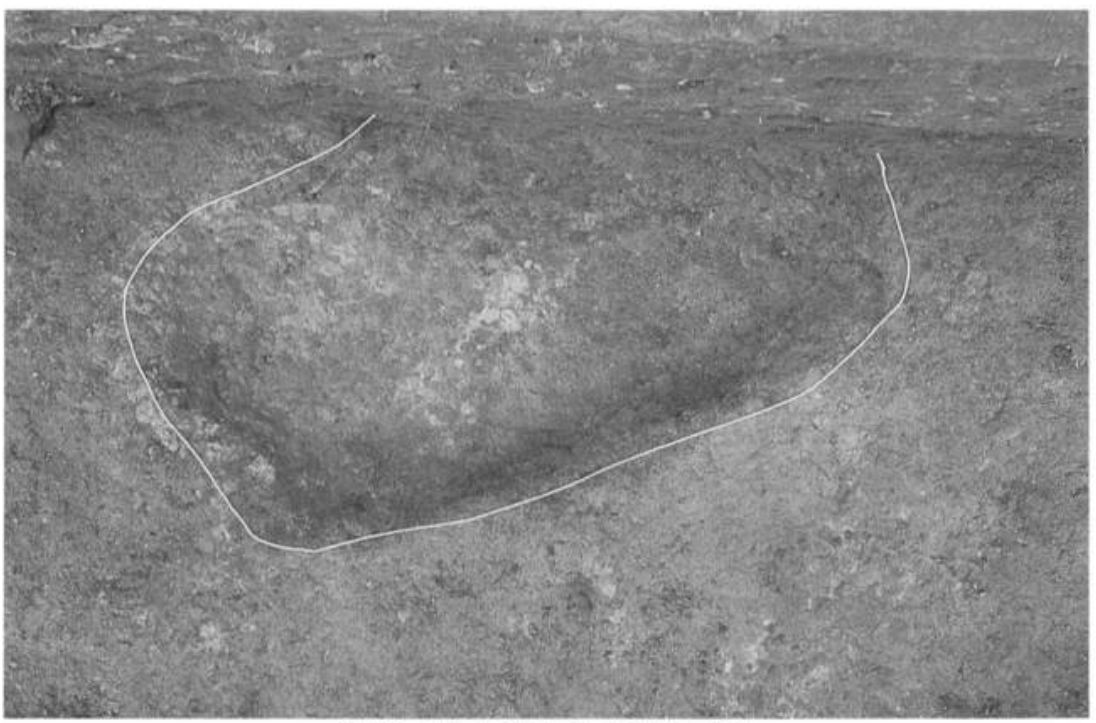
【사진 52】 성벽 단면 토층 세부상태 2 (서에서)

【사진 53】 저장공 조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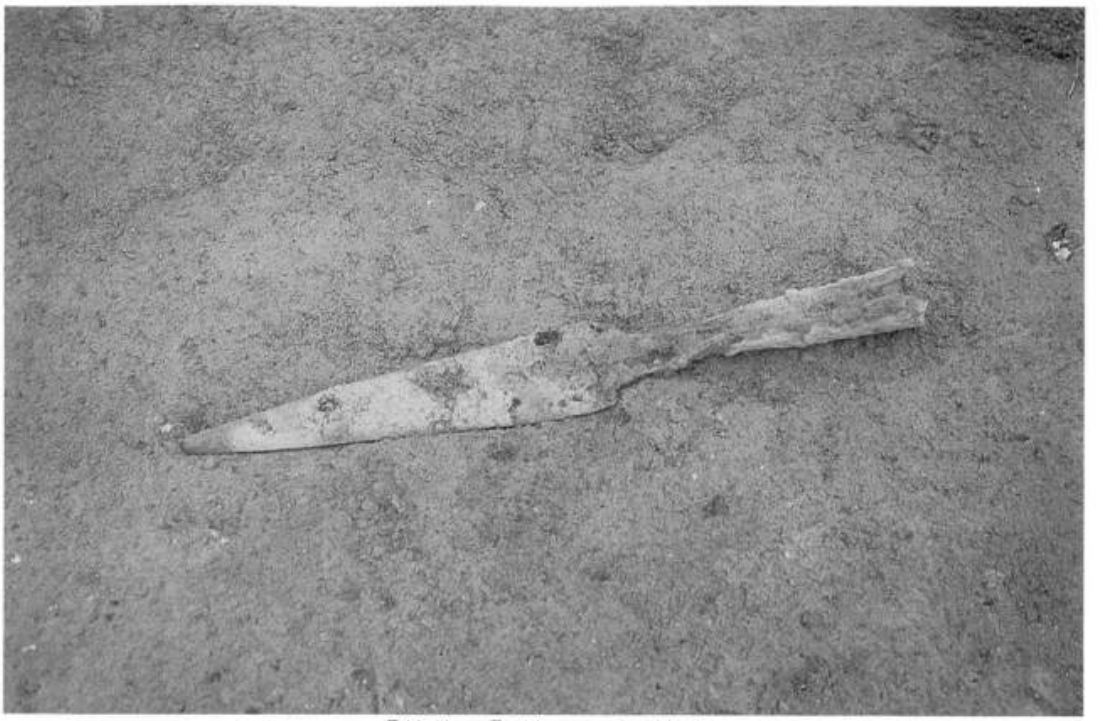


【사진 54】 저장공 조사후 상태

【사진 55】 소형유구1 조사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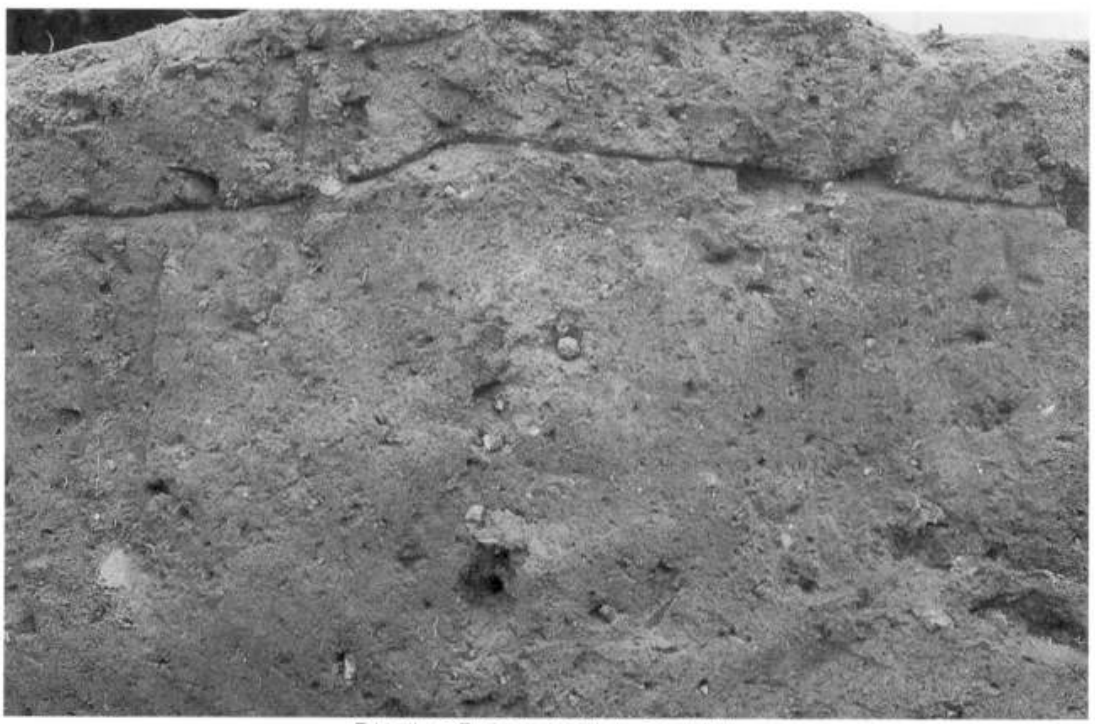
【사진 56】 소형유구2 조사후 상태



【사진 57】 철모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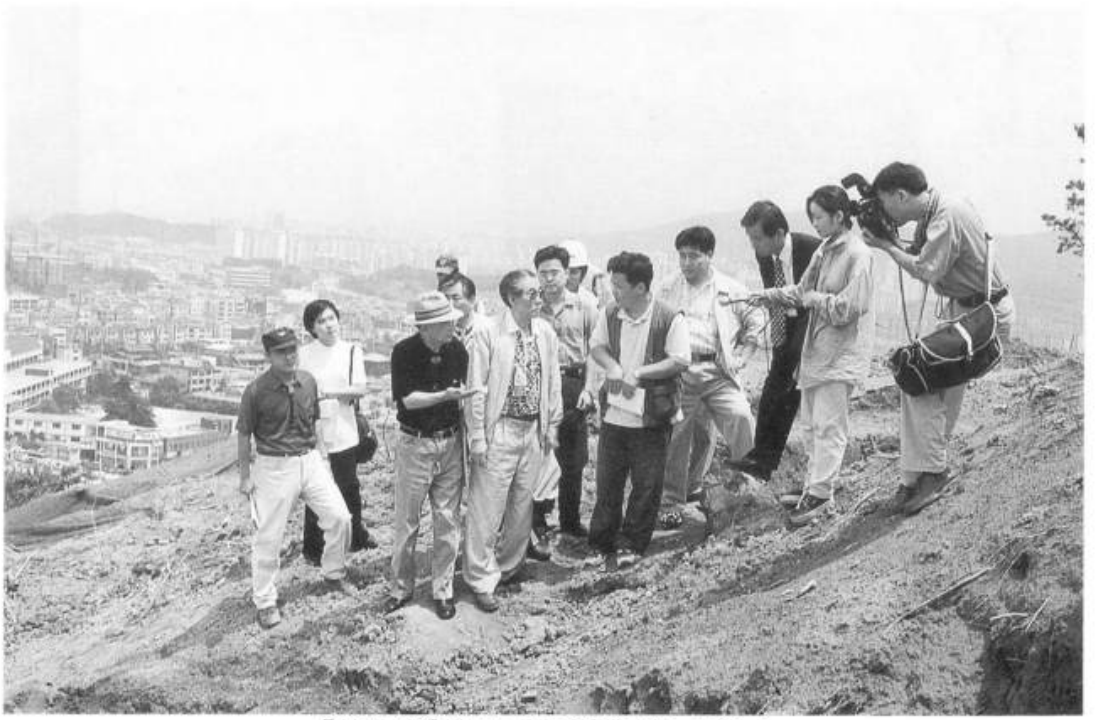
【사진 58】 철제 도자 노출 상태

【사진 59】 철제 칼집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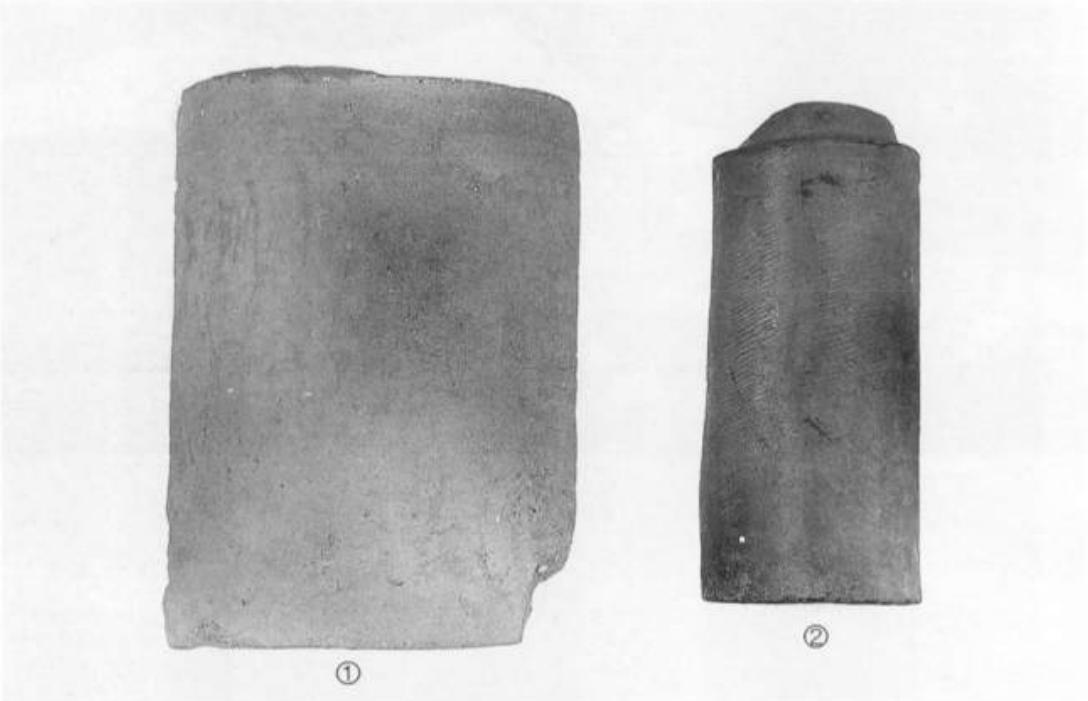


【사진 60】 철제 탄환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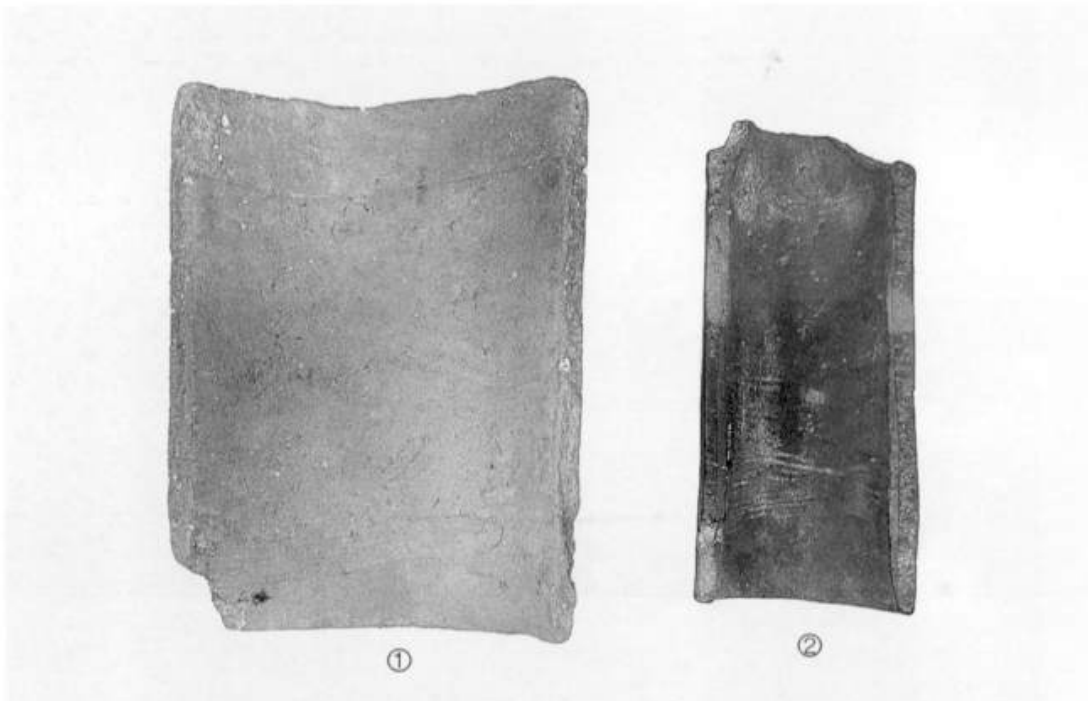
【사진 61】 현장 지도위원회의 모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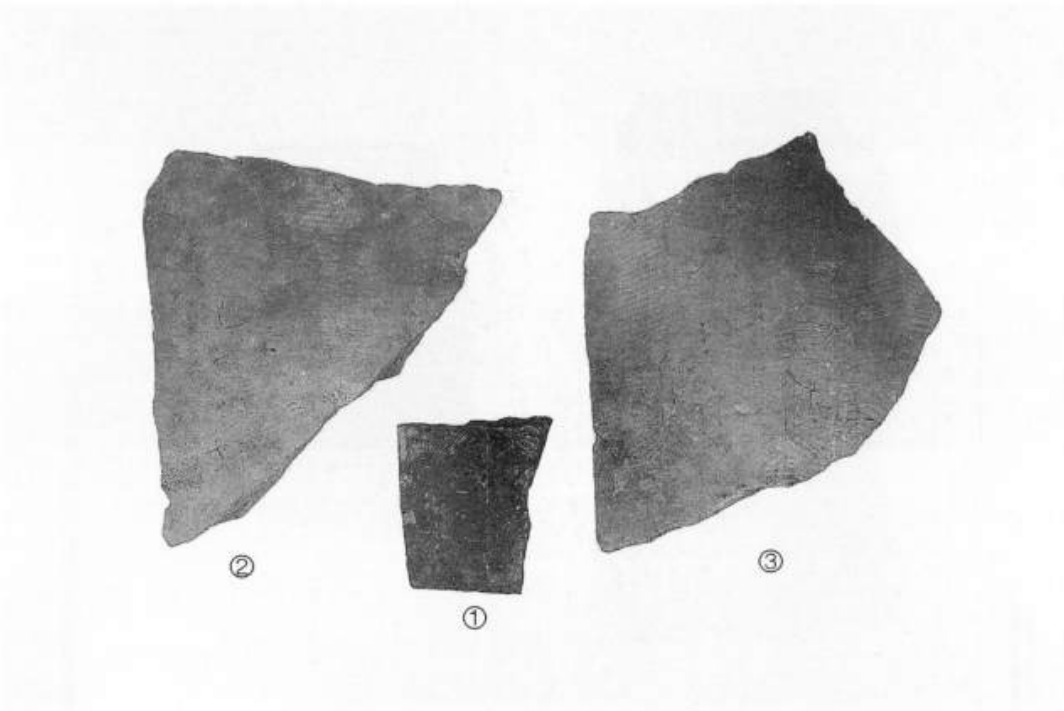
【사진 62】 현장 지도위원회의 모습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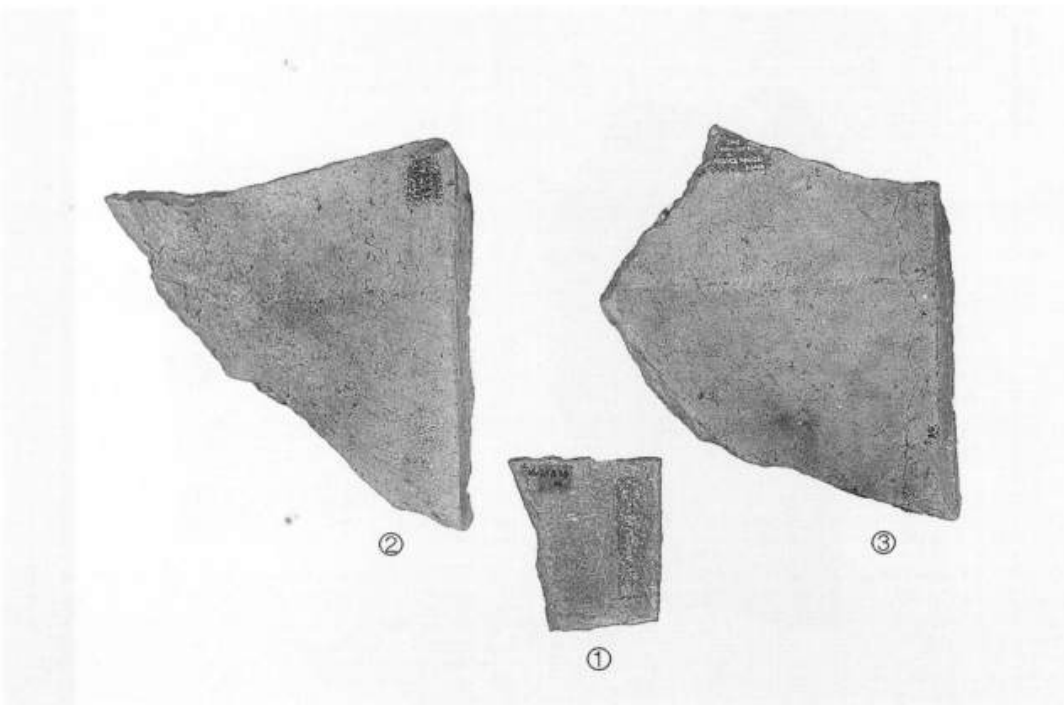

【사진 63】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 (①②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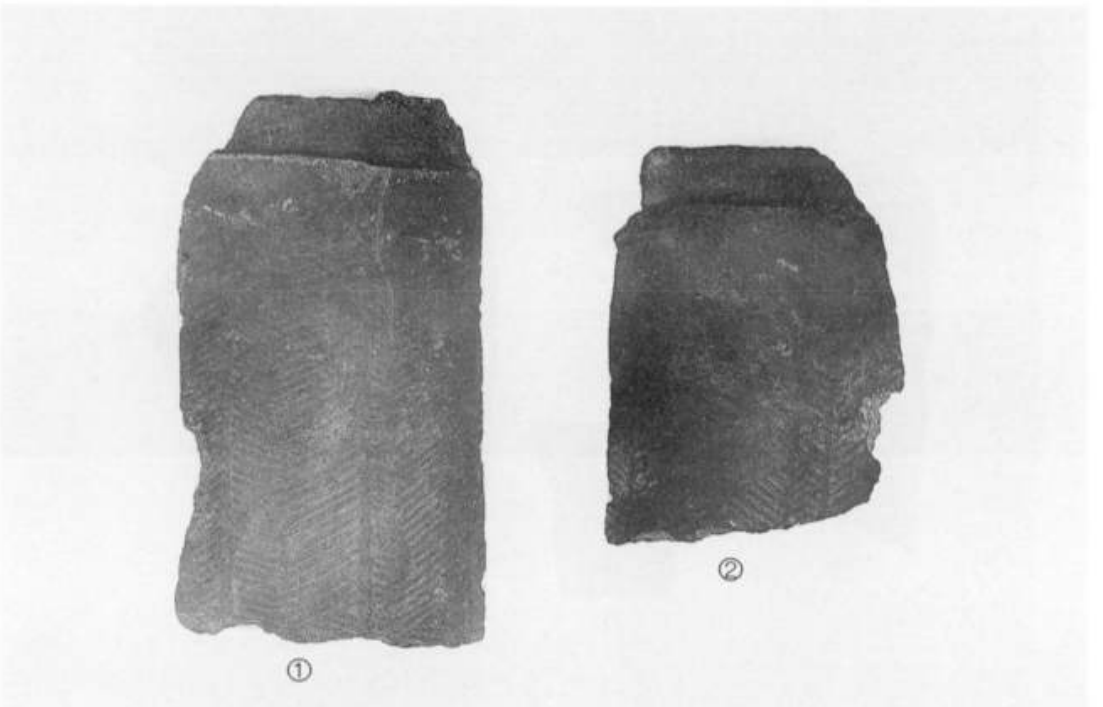

【사진 64】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 (①②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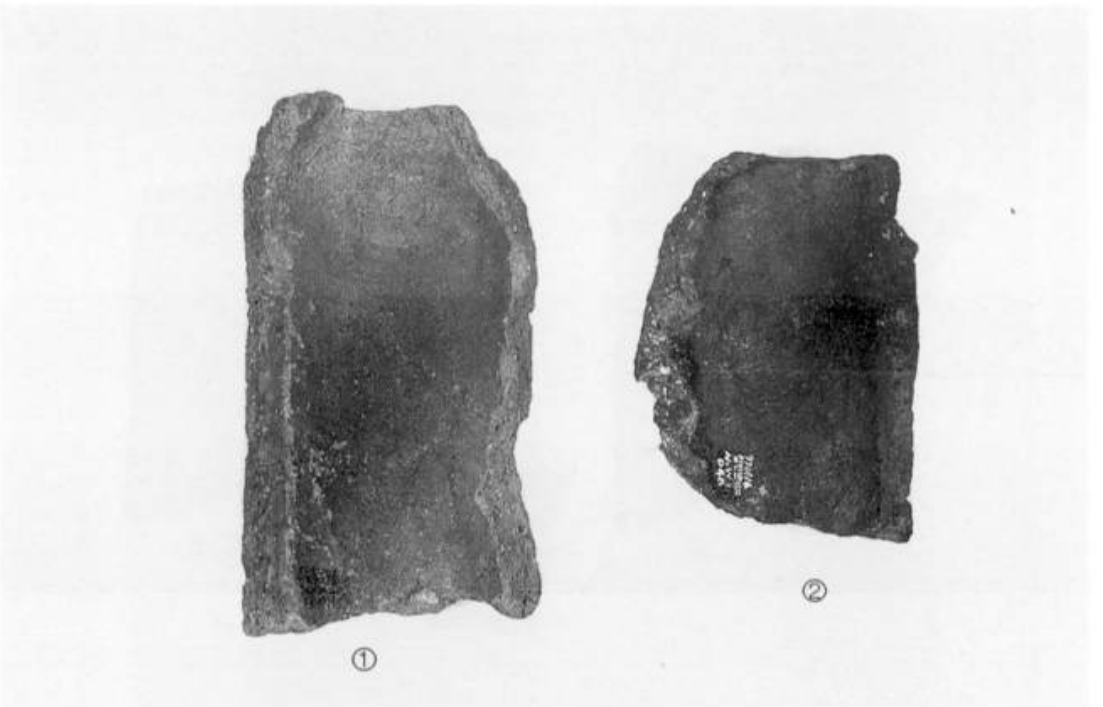

【사진 65】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2 (①~③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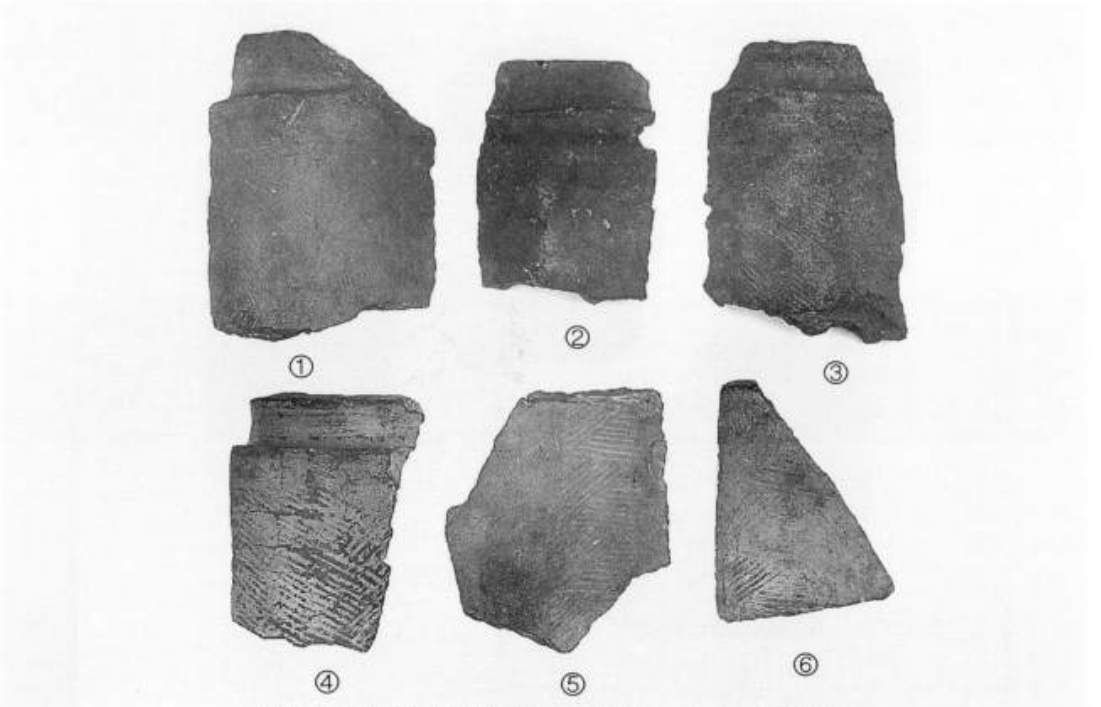

【사진 66】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2 (①~③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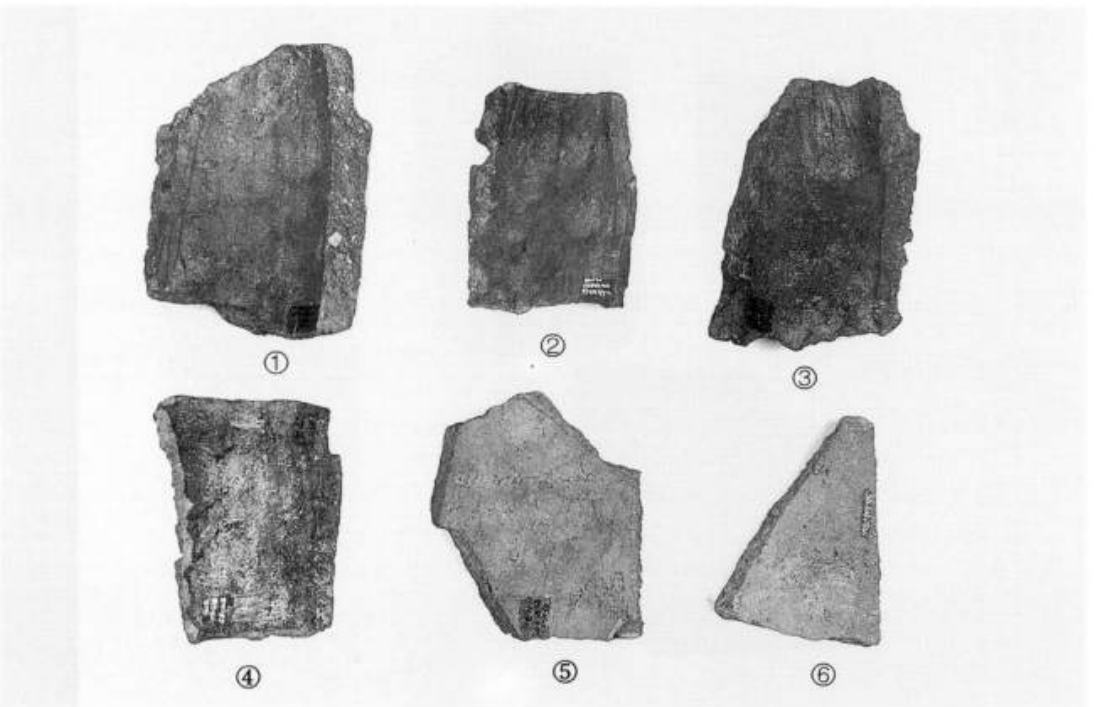

【사진 67】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3 (①②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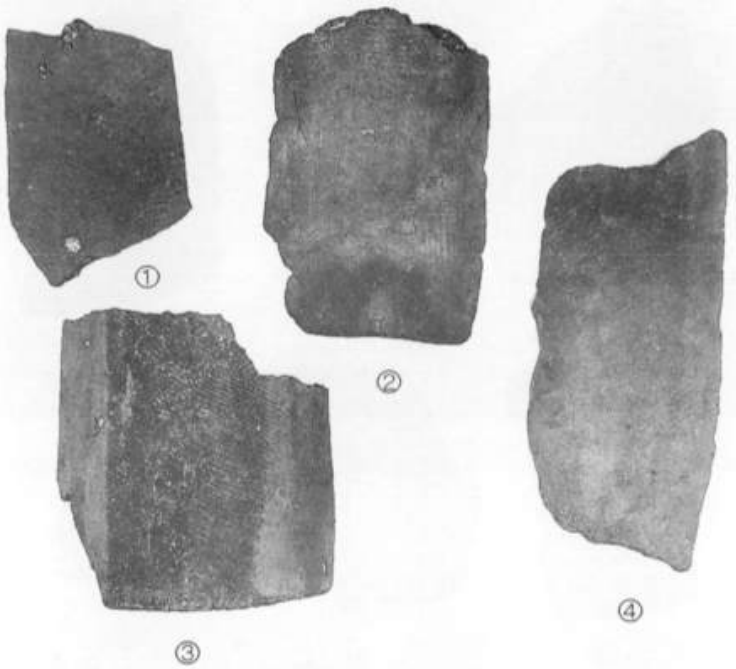

【사진 68】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3 (①②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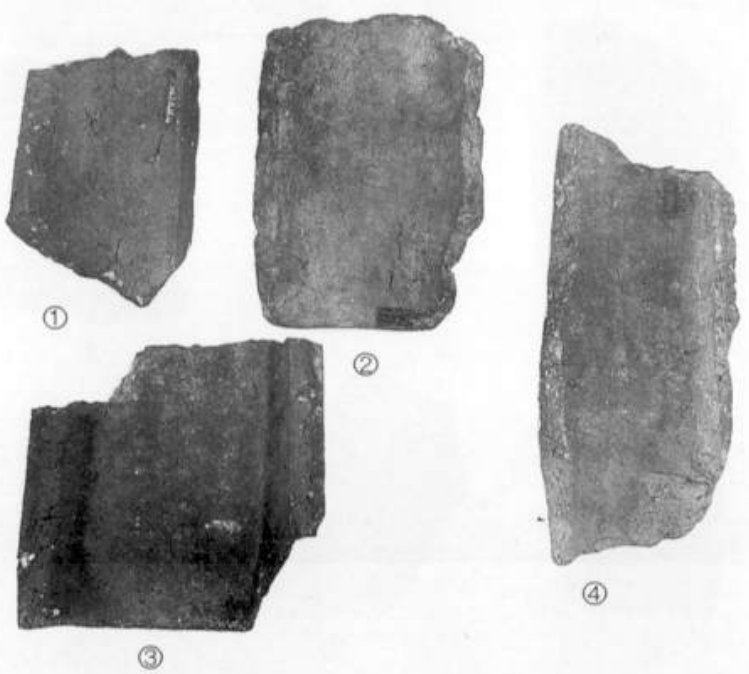

【사진 69】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4 (①~⑥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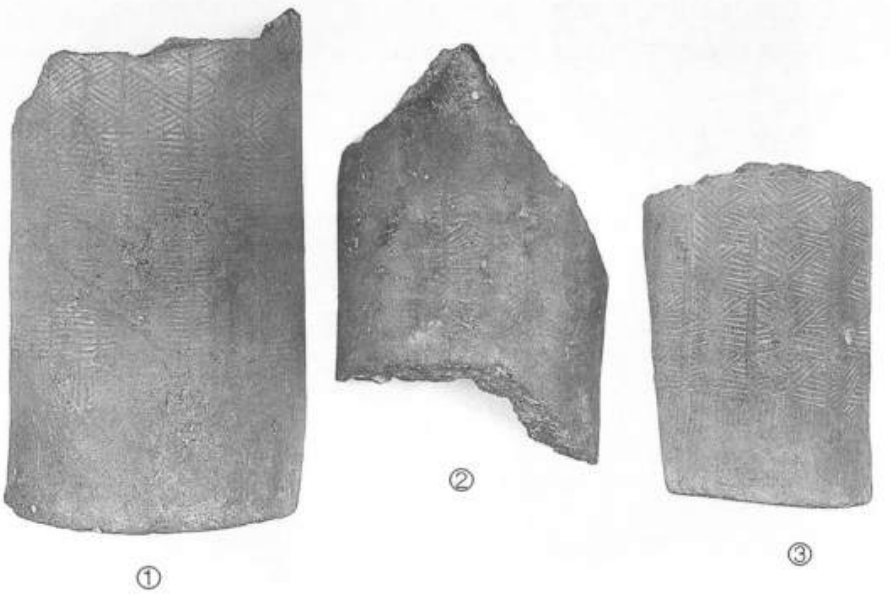

【사진 70】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4 (①~⑥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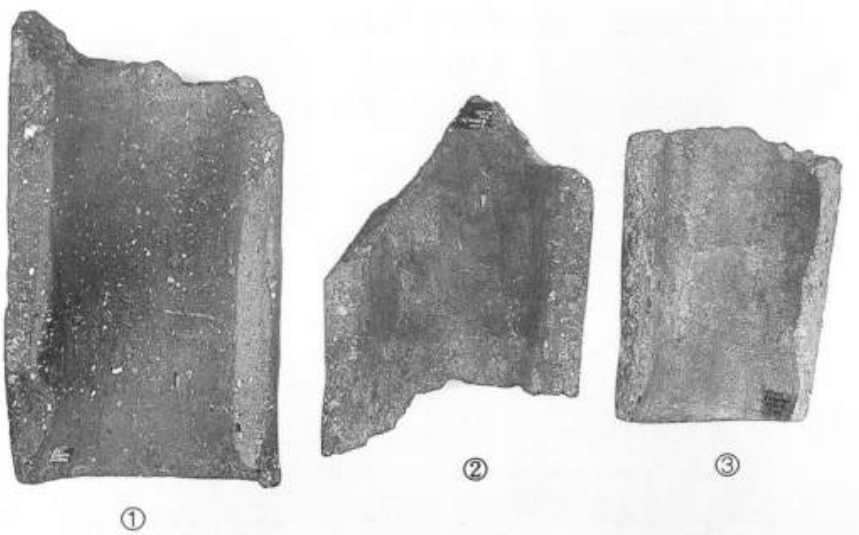

【사진 71】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5 (①~④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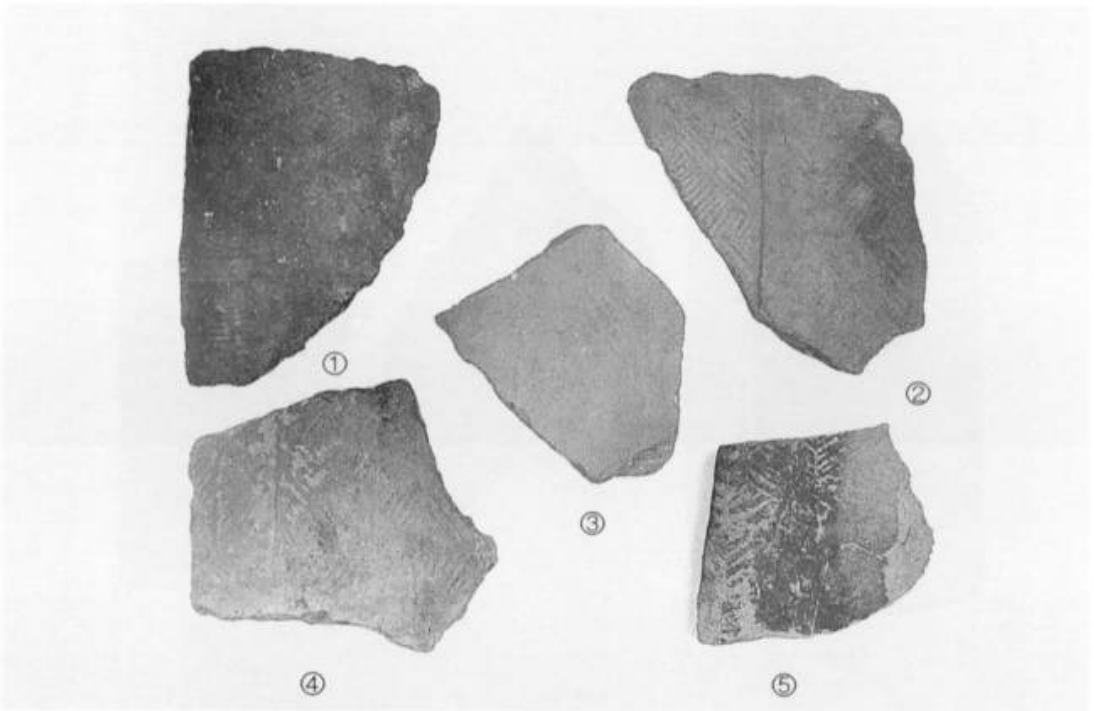

【사진 72】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5 (①~④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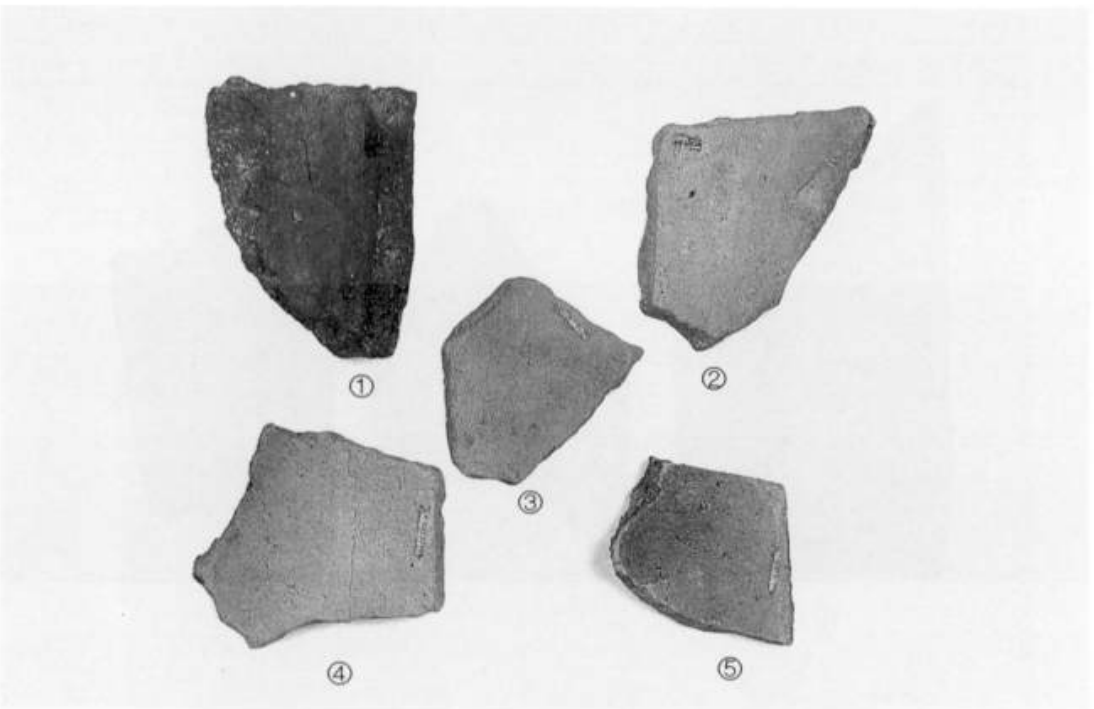

【사진 73】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6 (①~③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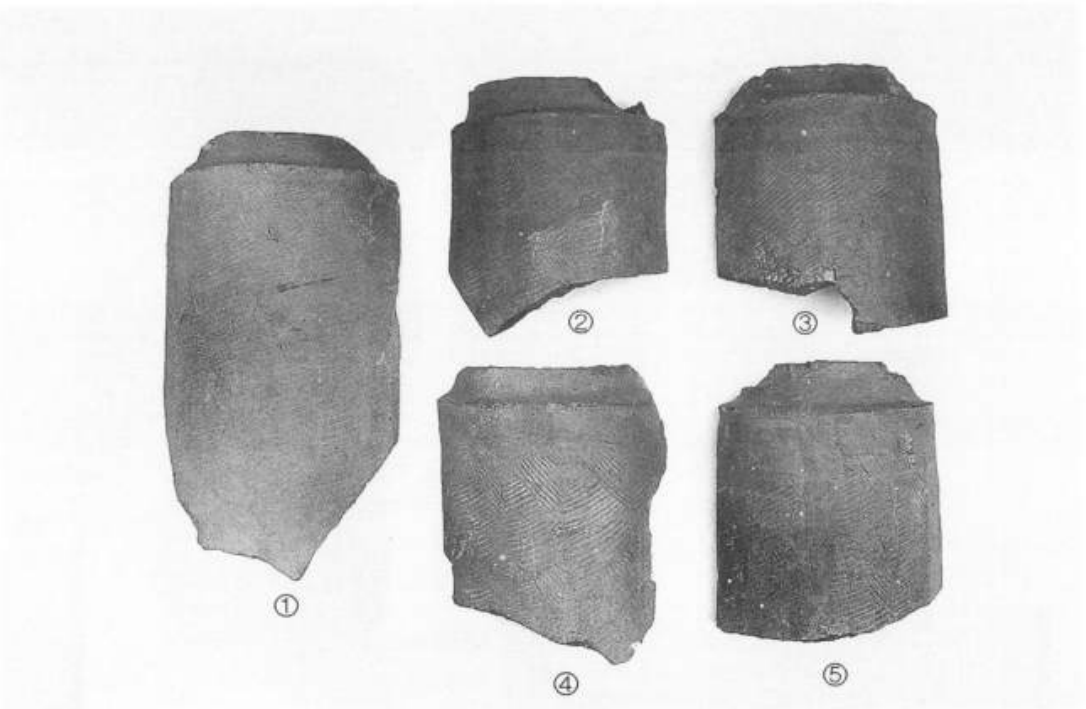

【사진 74】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6 (①~③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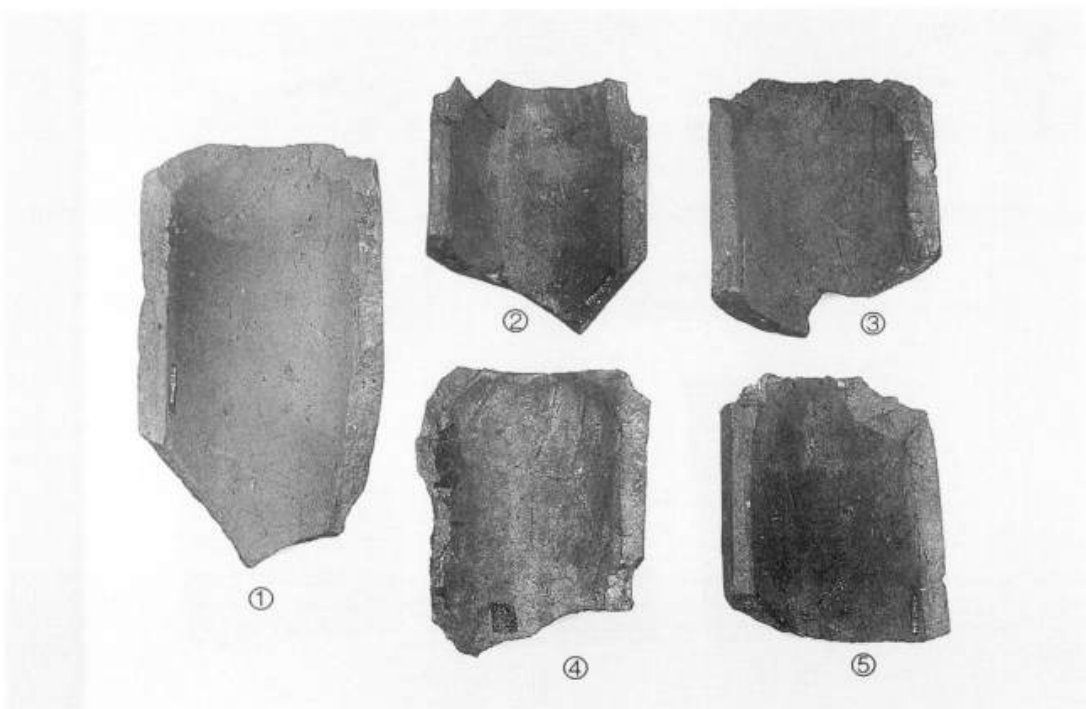

【사진 75】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7 (①~⑤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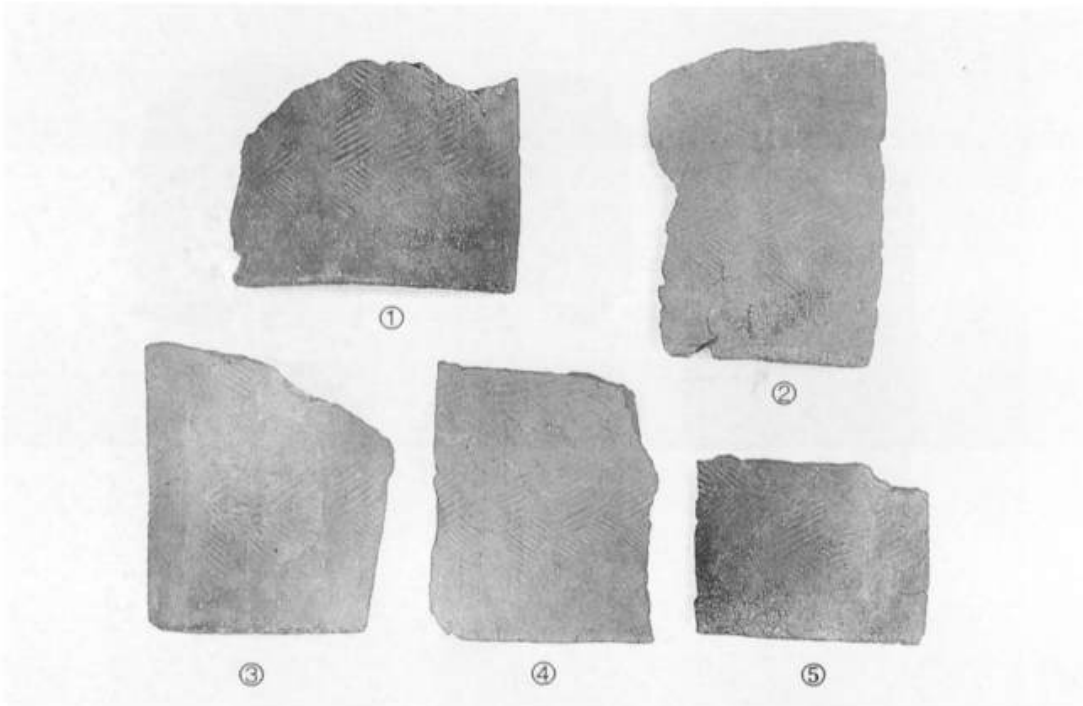

【사진 76】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7 (①~⑤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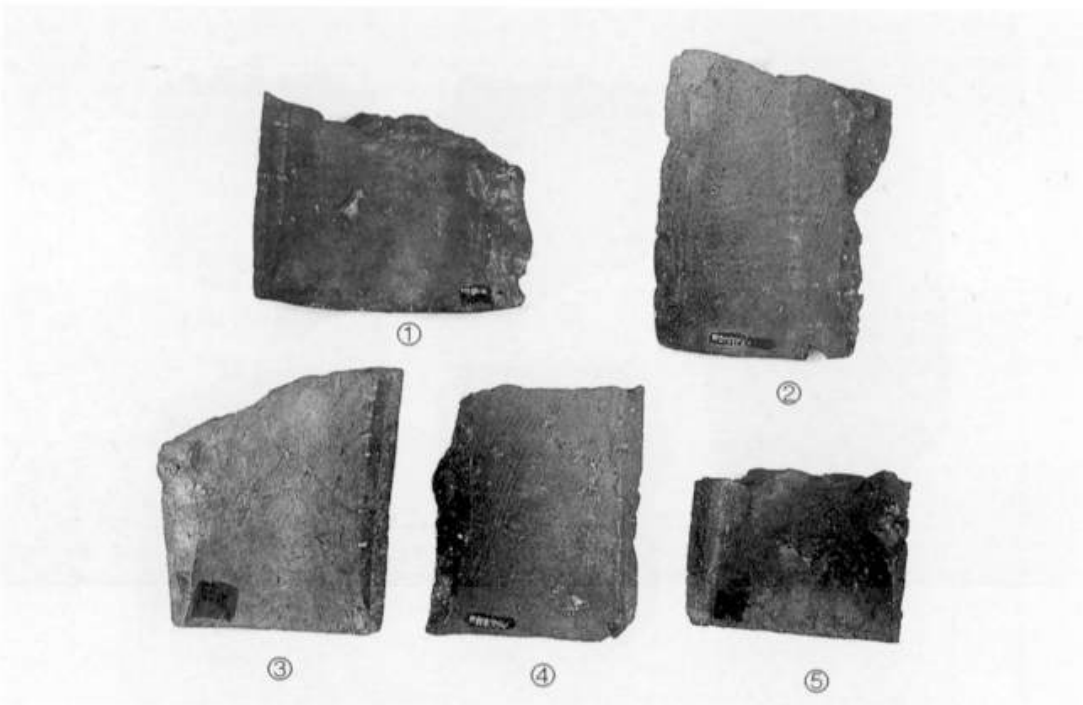

【사진 77】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8 (①~⑤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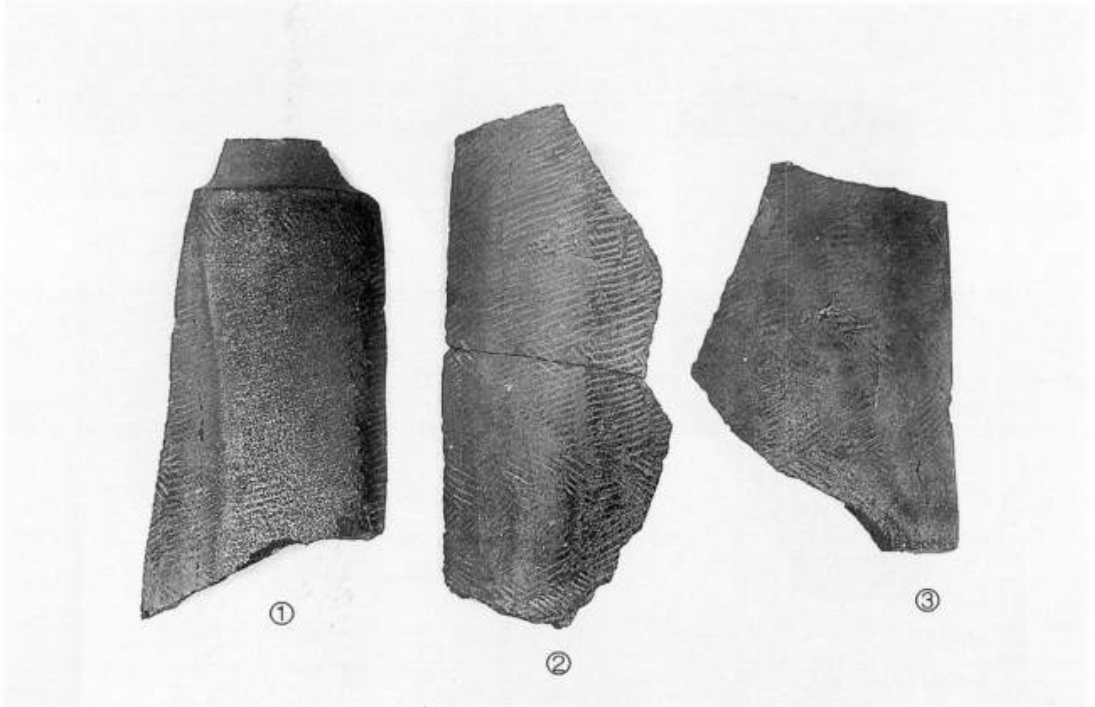

【사진 78】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8 (①~⑤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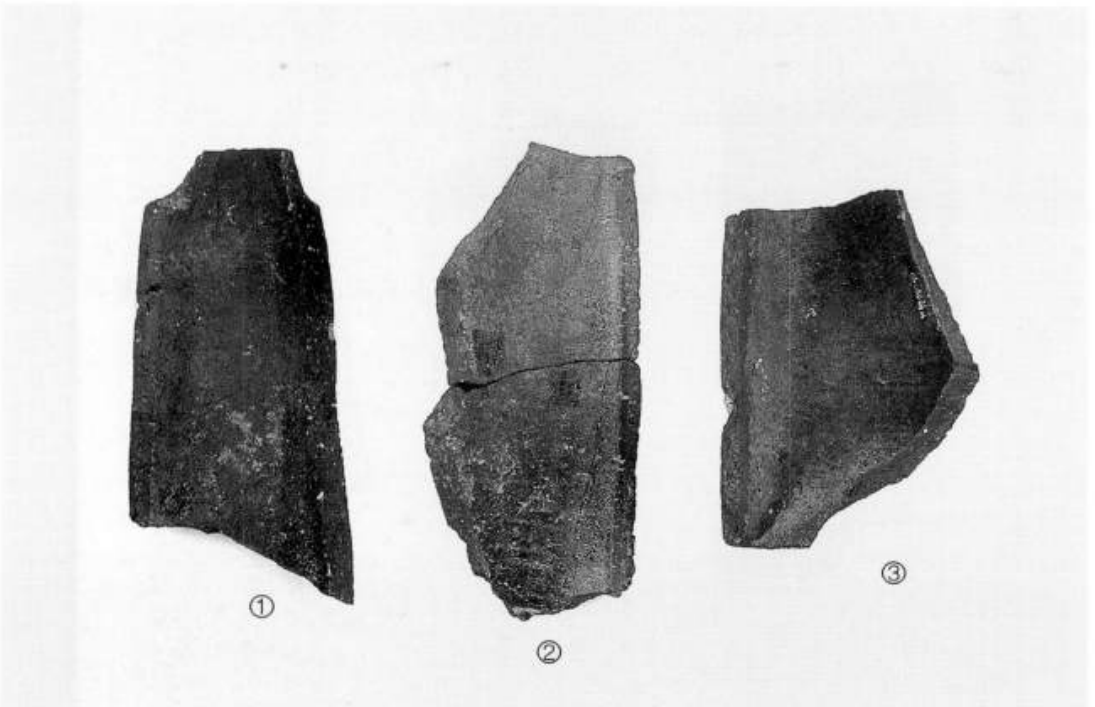

【사진 79】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9 (①~⑤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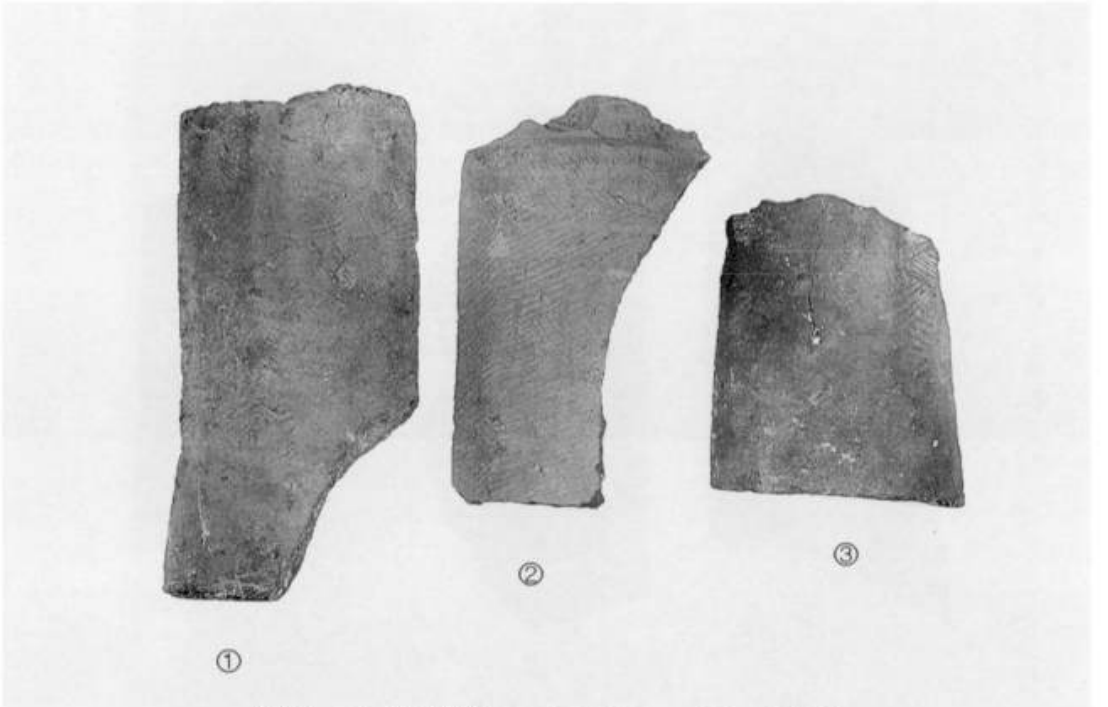

【사진 80】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9 (①~⑤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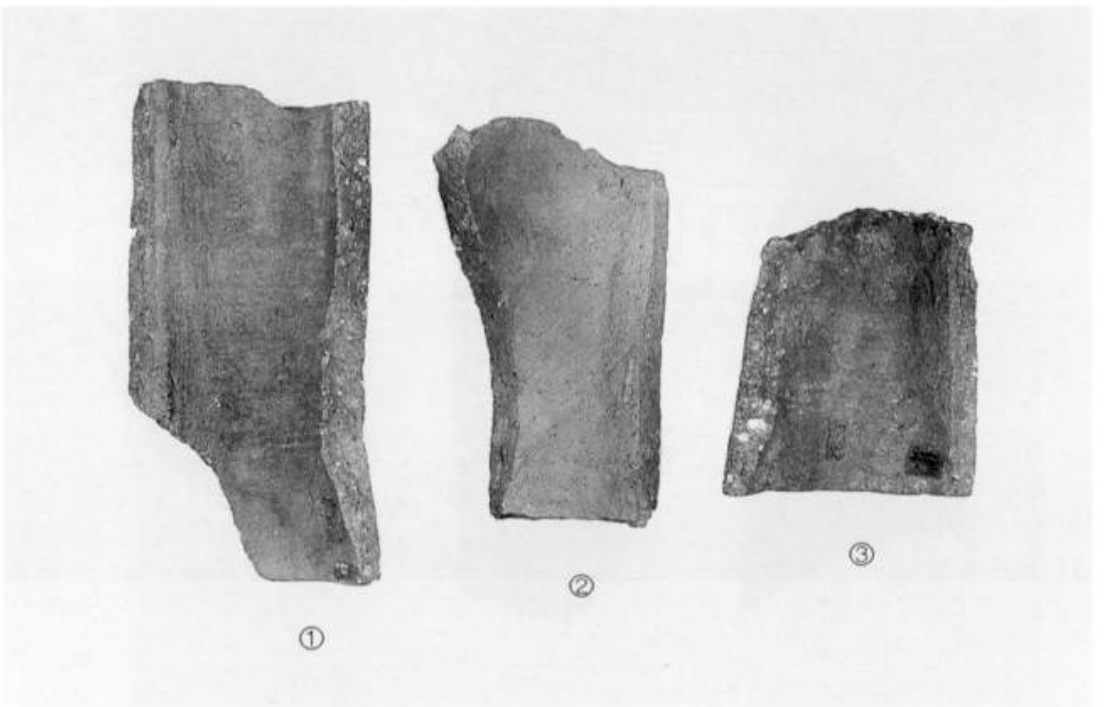

【사진 81】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0 (①~③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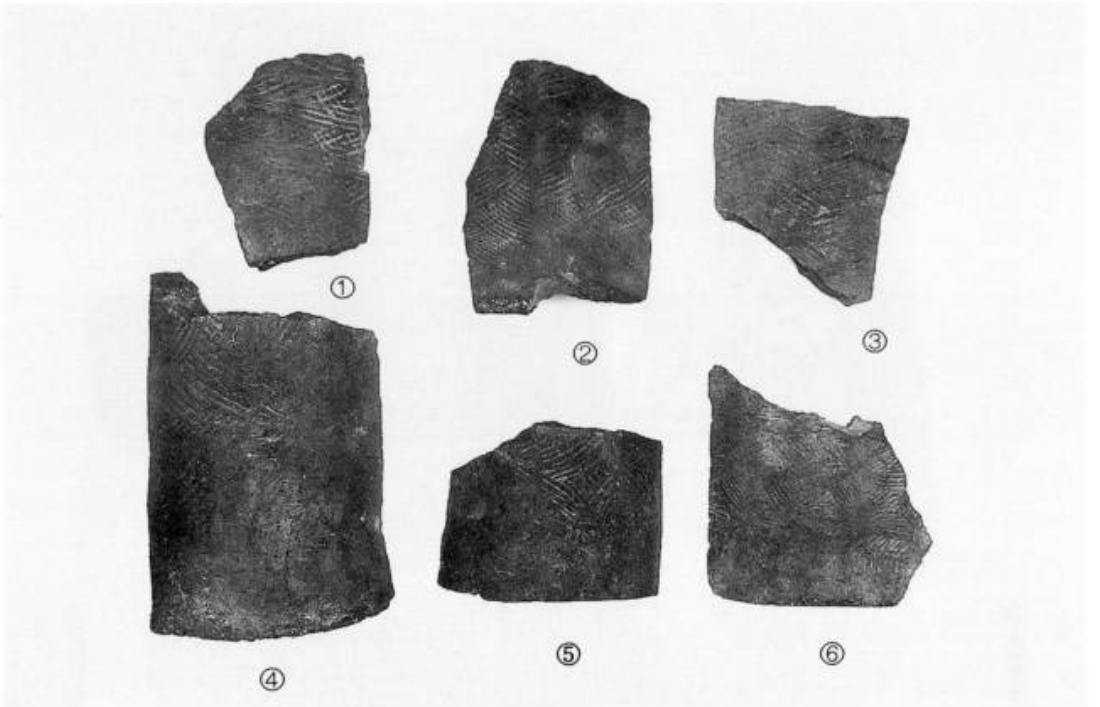

【사진 82】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0 (①~③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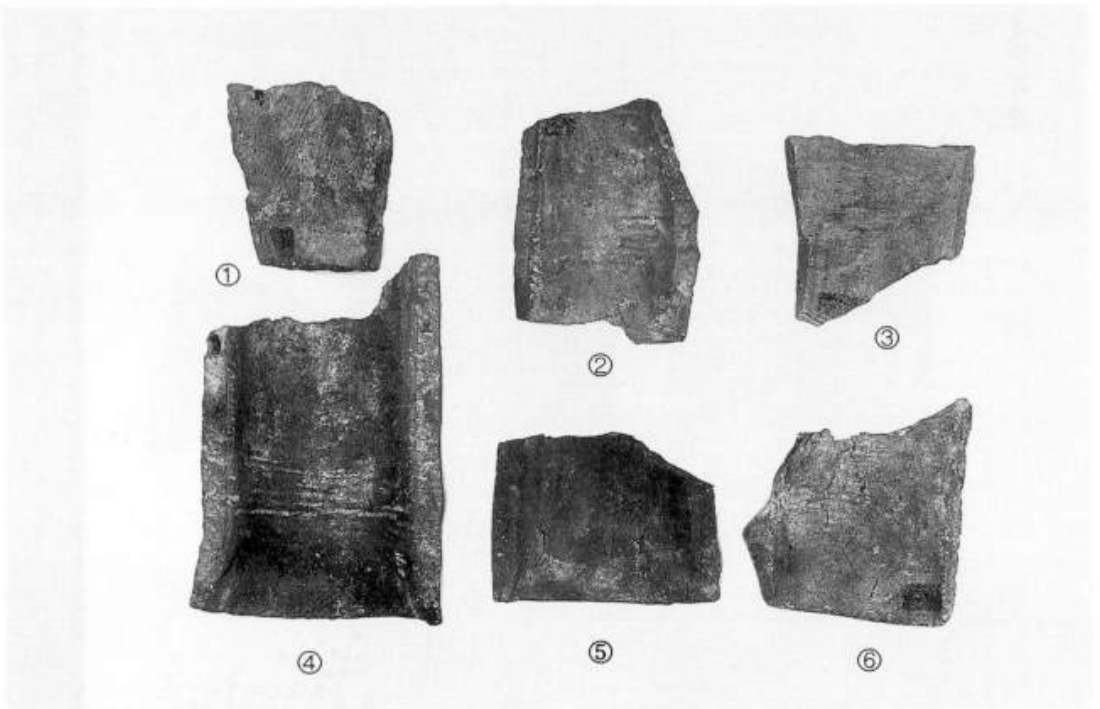

【사진 83】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1 (①~③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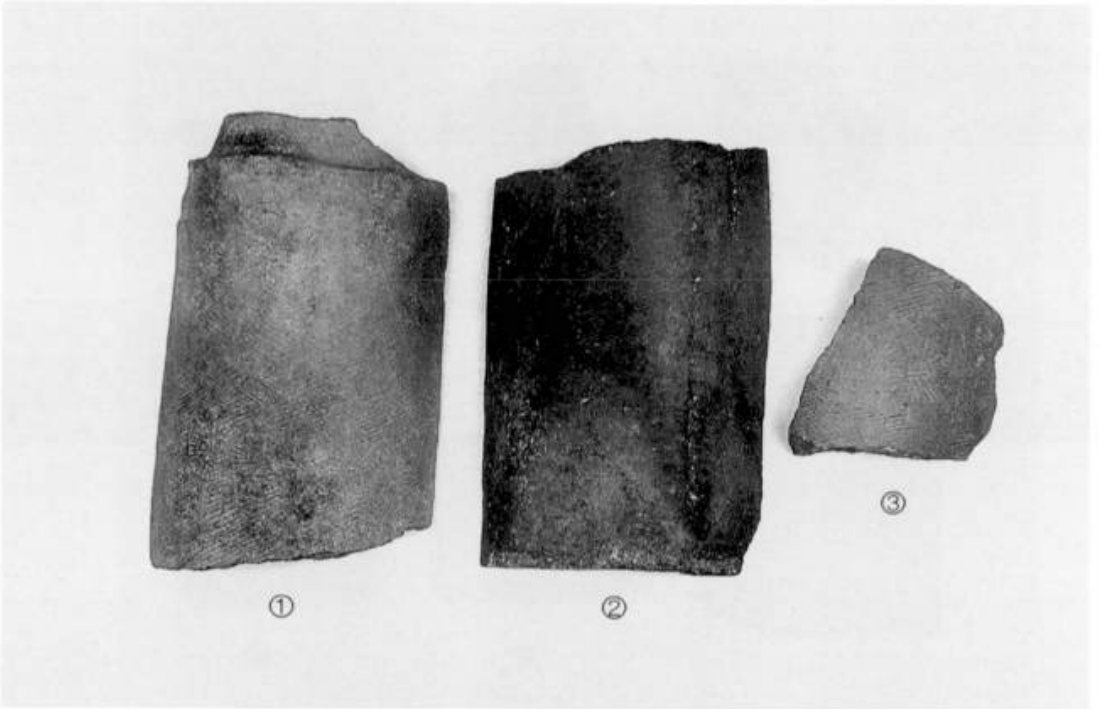

【사진 84】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1 (①~③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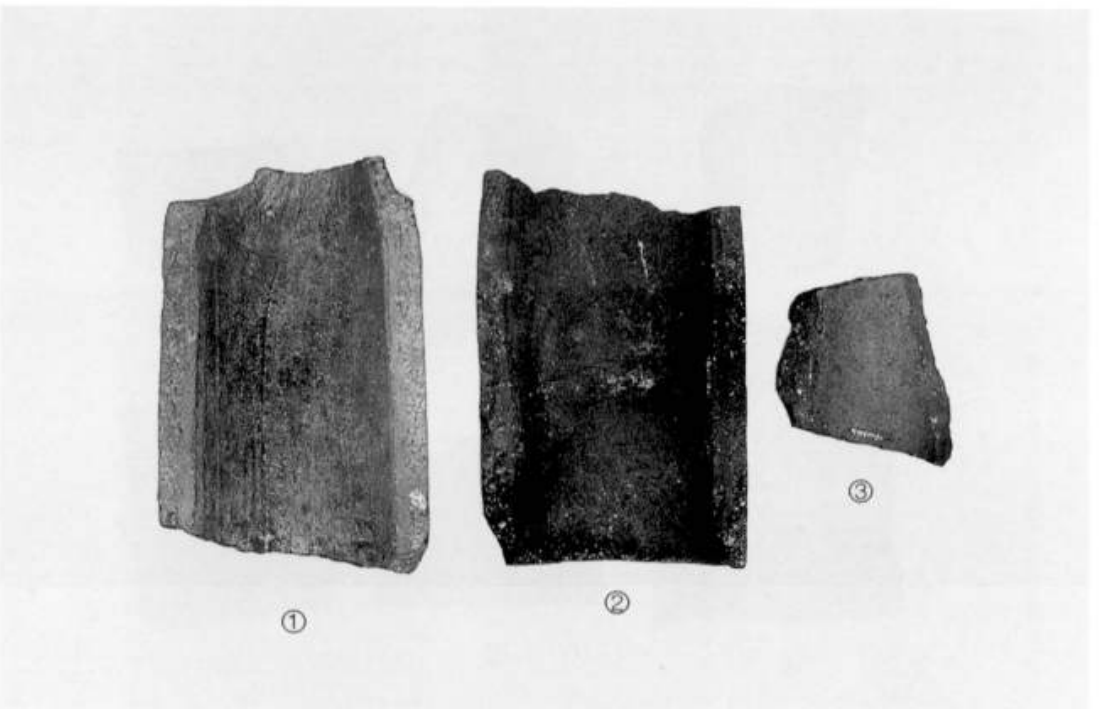

【사진 85】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2 (①~⑥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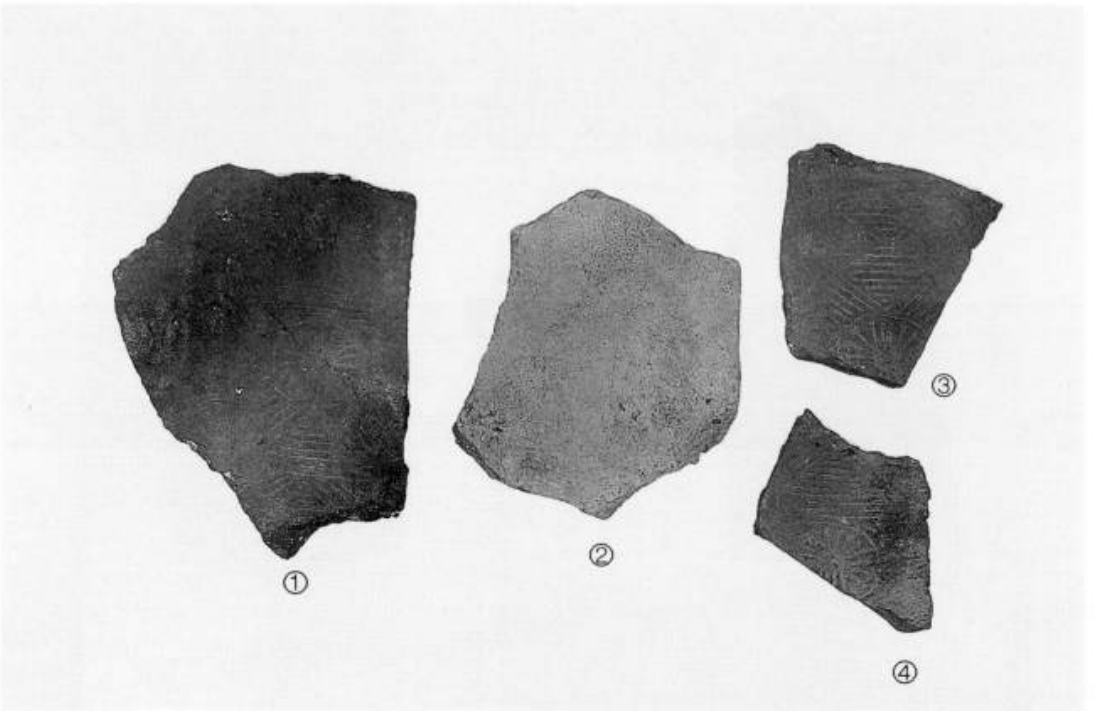

【사진 86】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2 (①~⑥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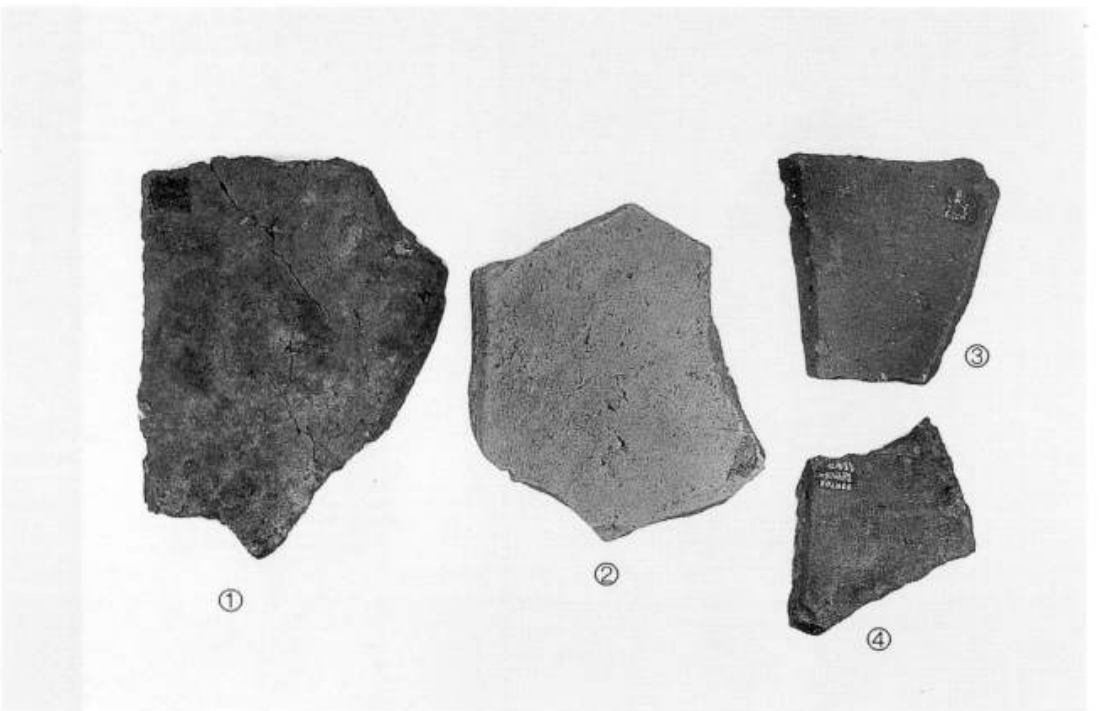

【사진 87】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3 (①~③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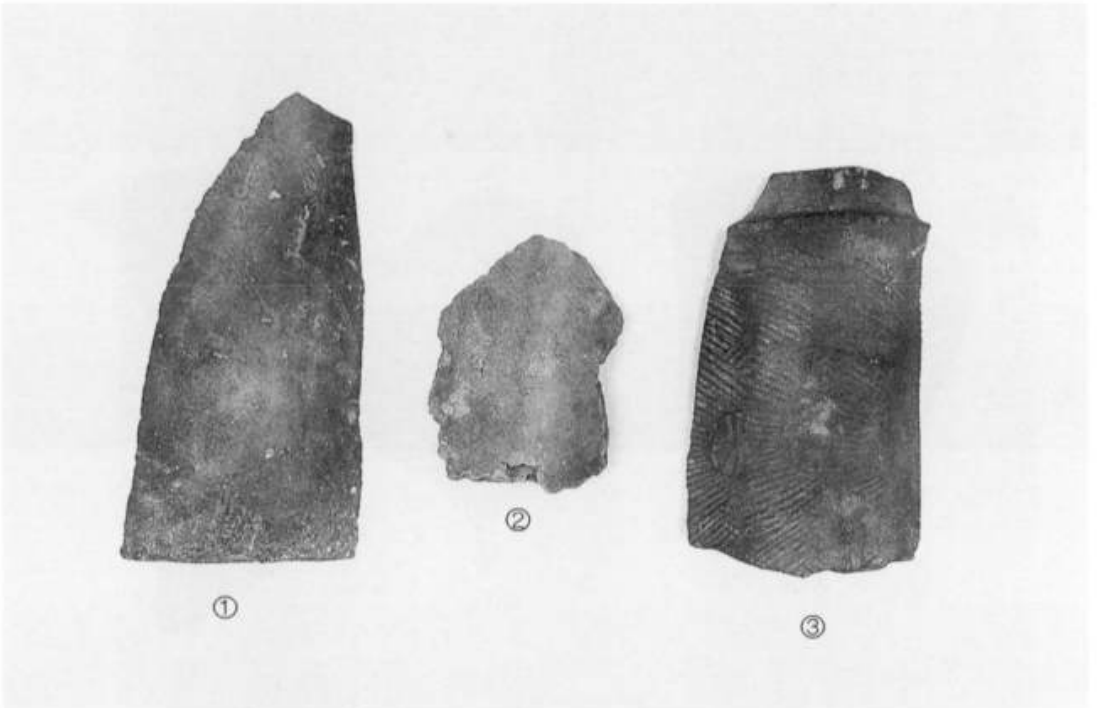

【사진 88】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3 (①~③내면)




【사진 89】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4 (①~④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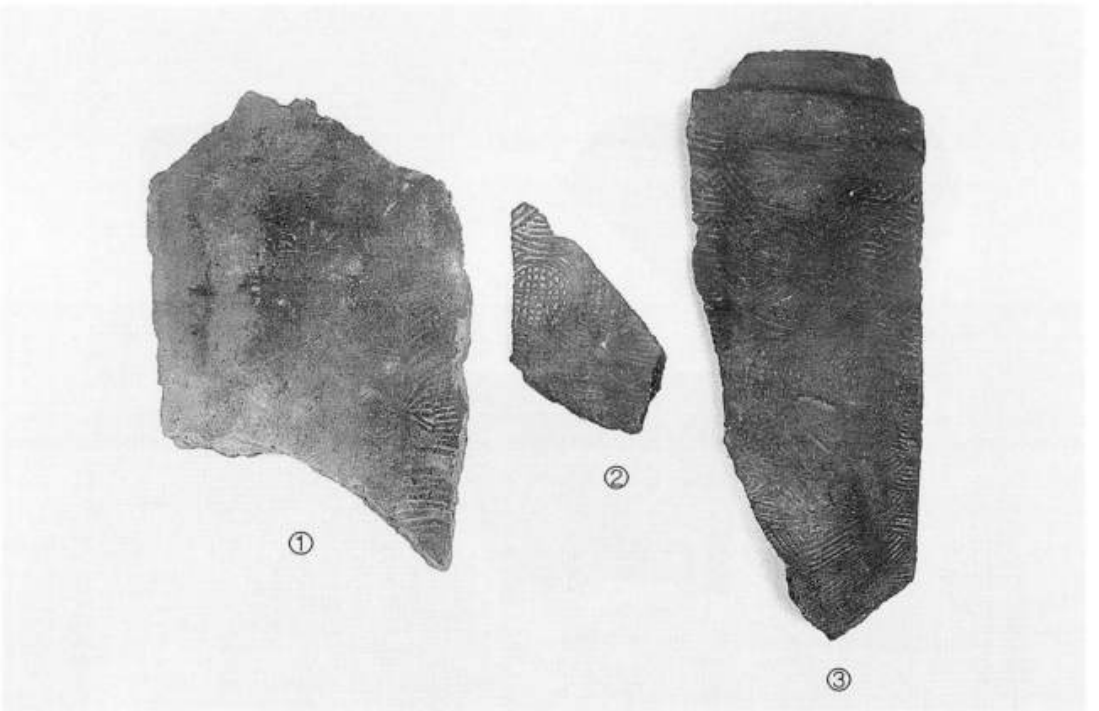



【사진 90】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4 (①~④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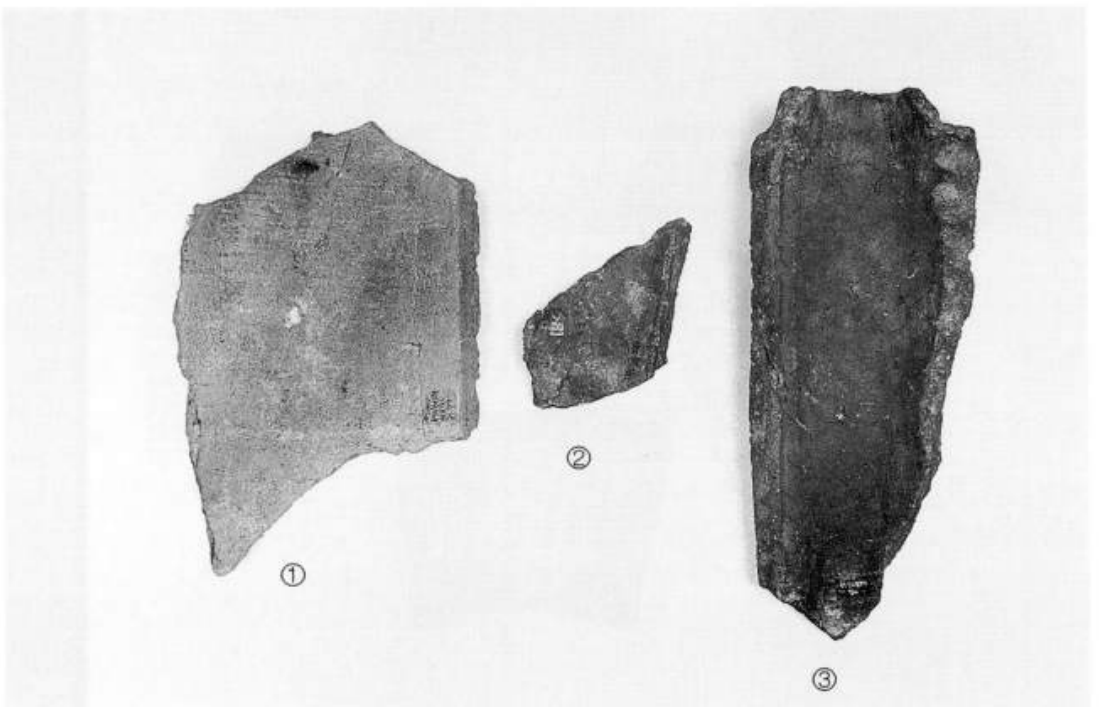



【사진 91】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5 (①~③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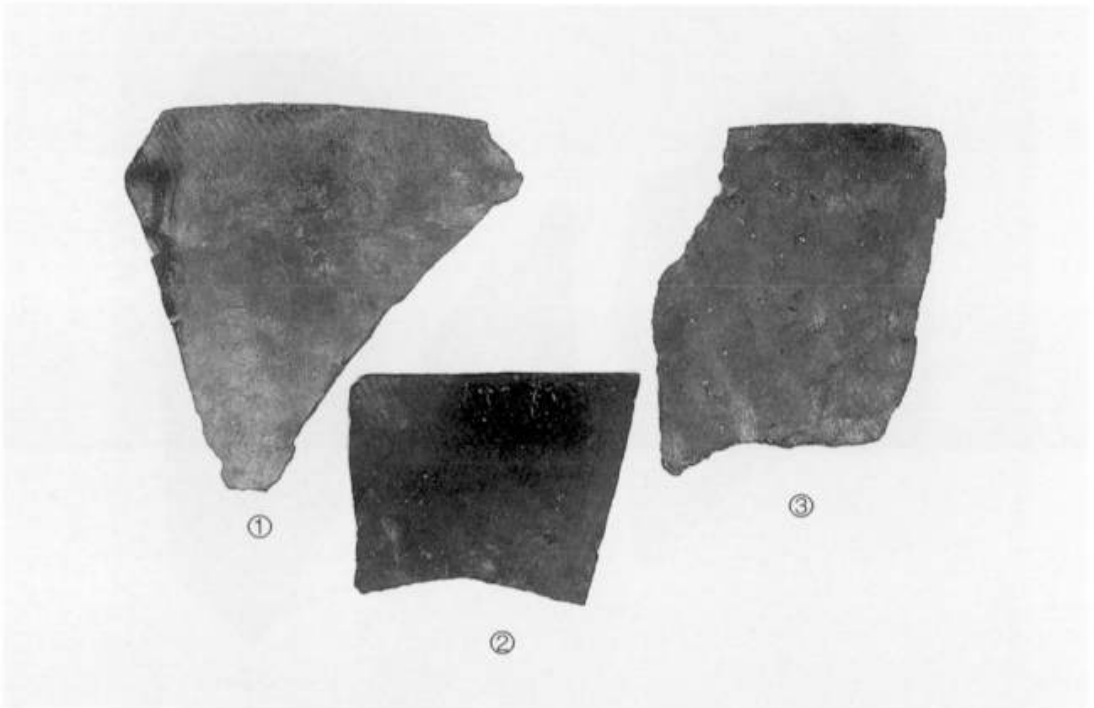
【사진 92】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5 (①~③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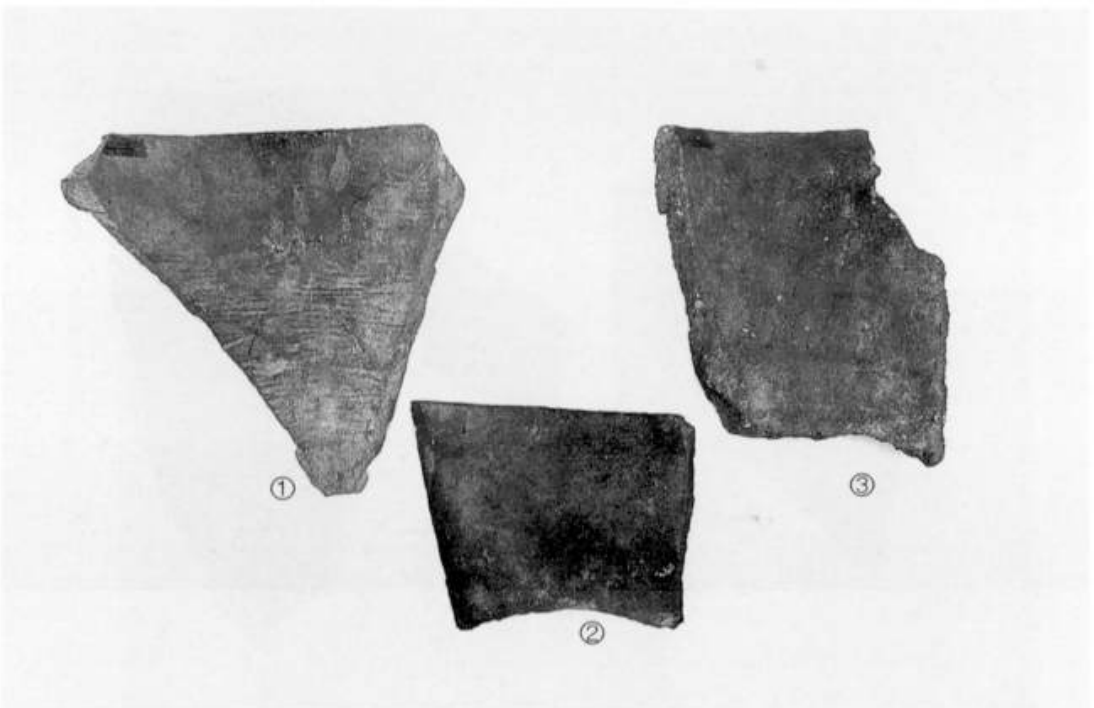

【사진 93】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6 (①~③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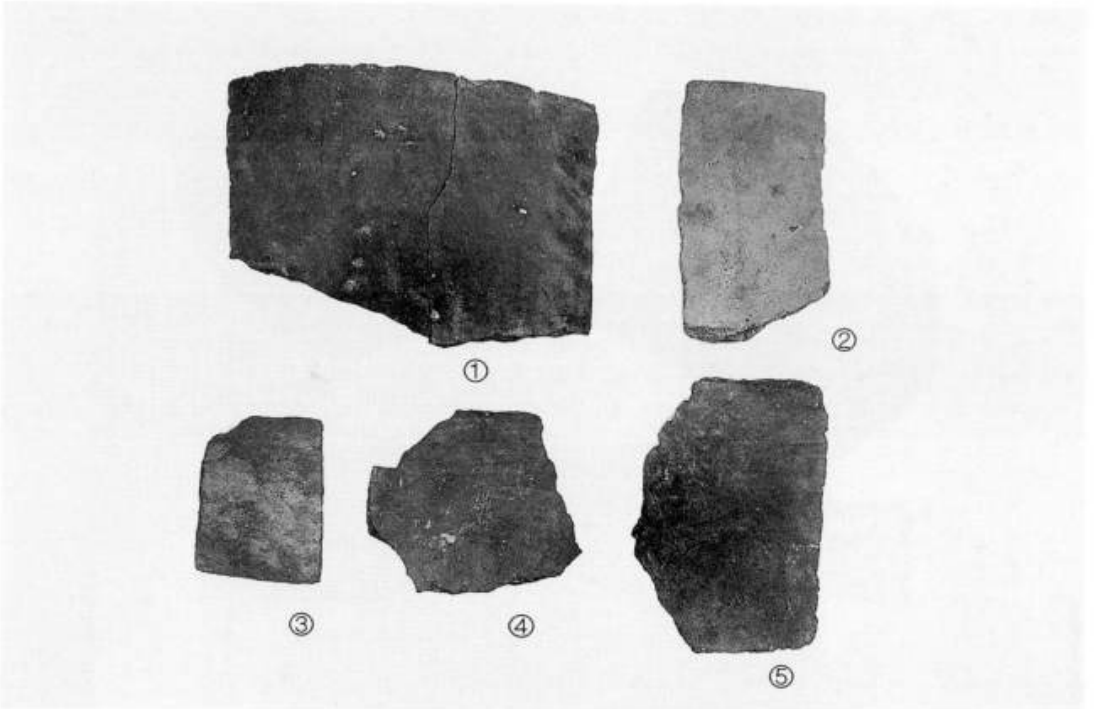

【사진 94】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6 (①~③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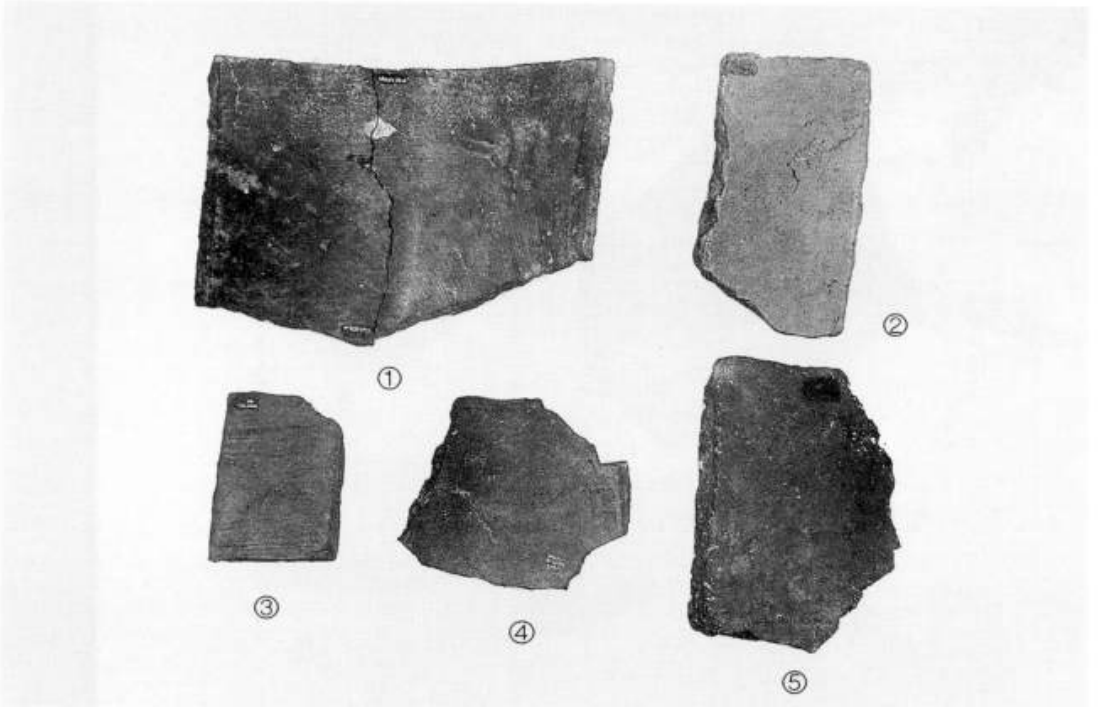

【사진 95】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7 (①~③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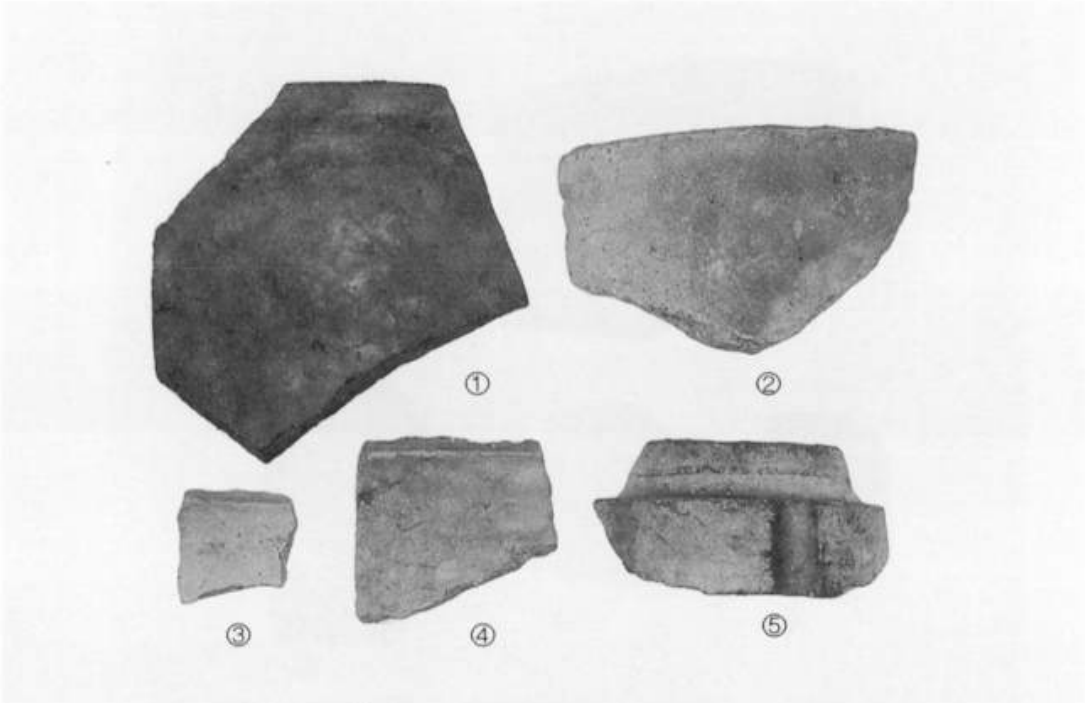

【사진 96】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7 (①~③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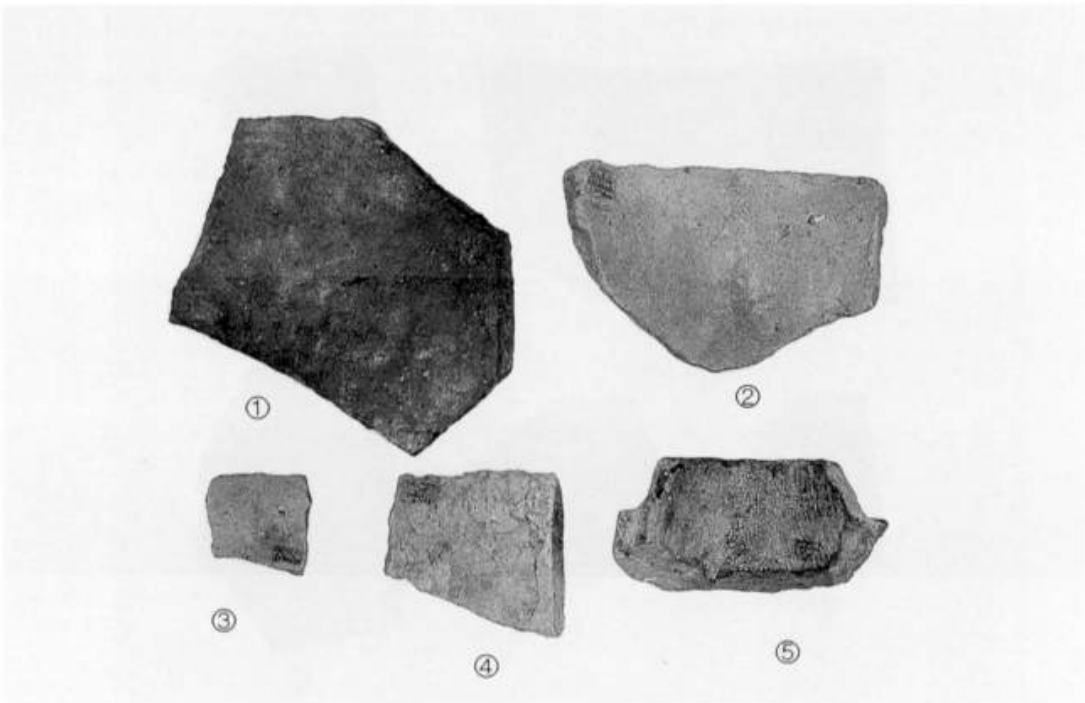

【사진 97】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8 (①~⑤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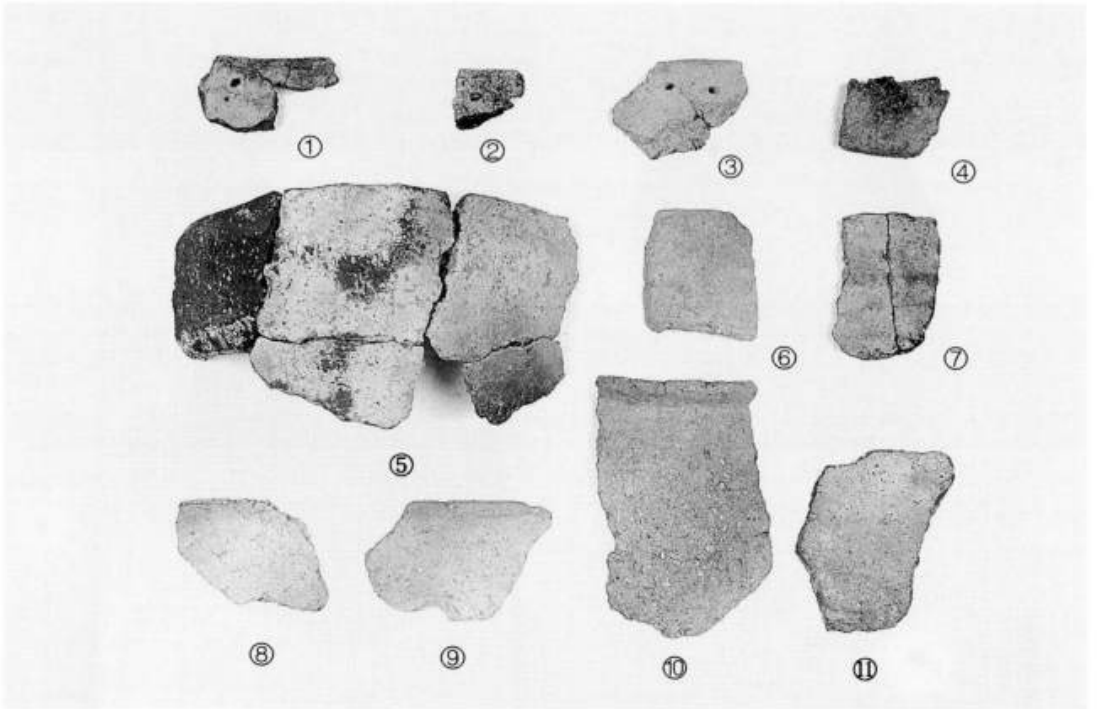

【사진 98】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8 (①~⑤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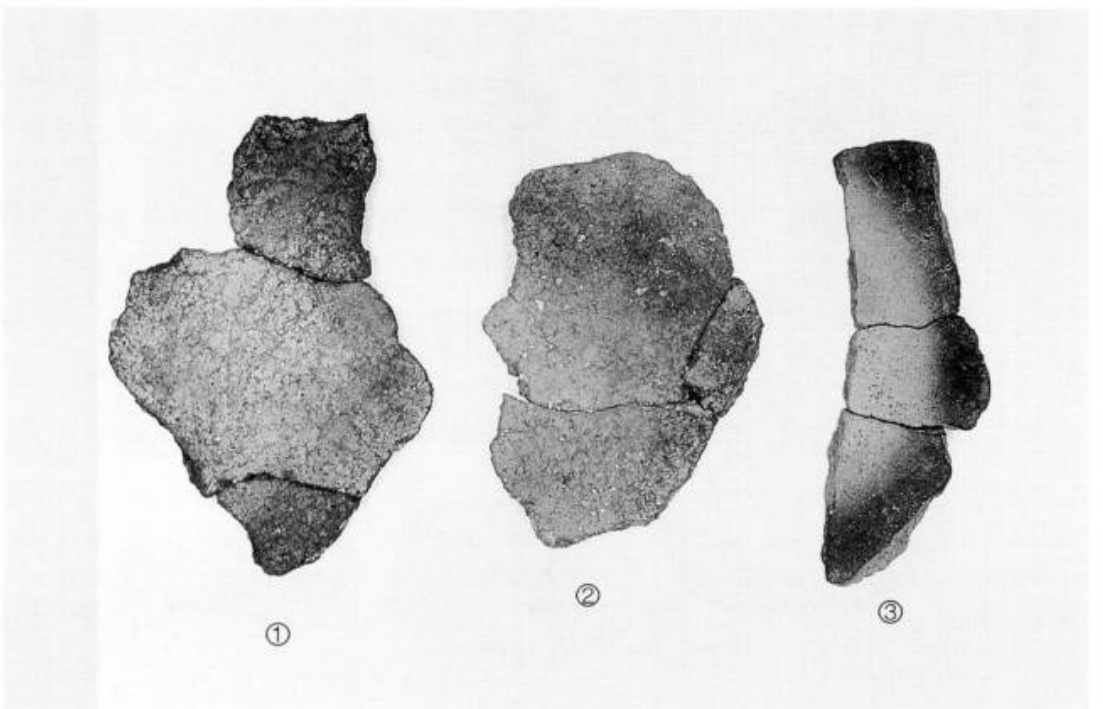

【사진 99】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9 (①~⑤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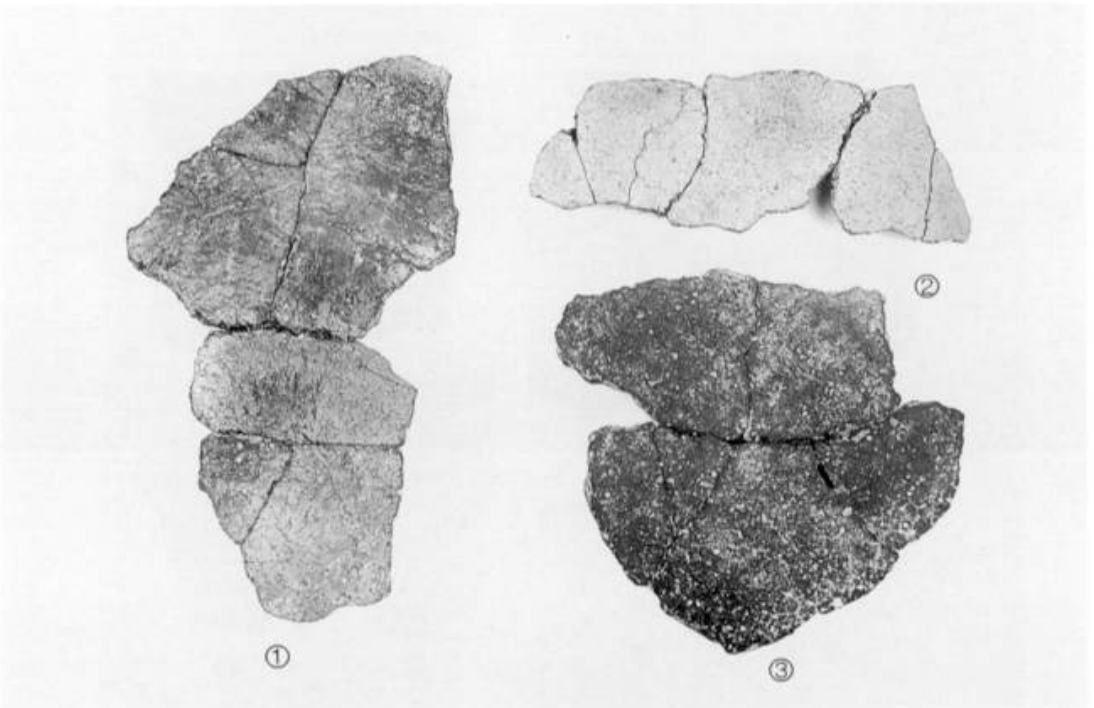

【사진 100】 임진산성 출토 기와류 19 (①~⑤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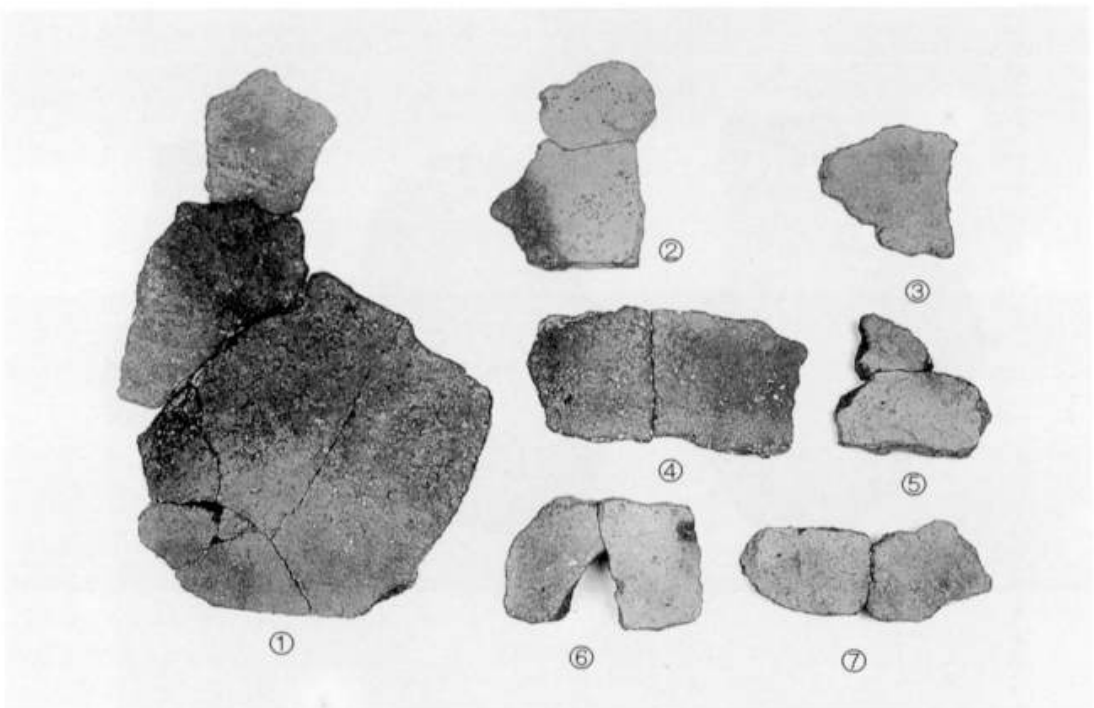

【사진 101】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1 (①~⑩구연부편, ⑪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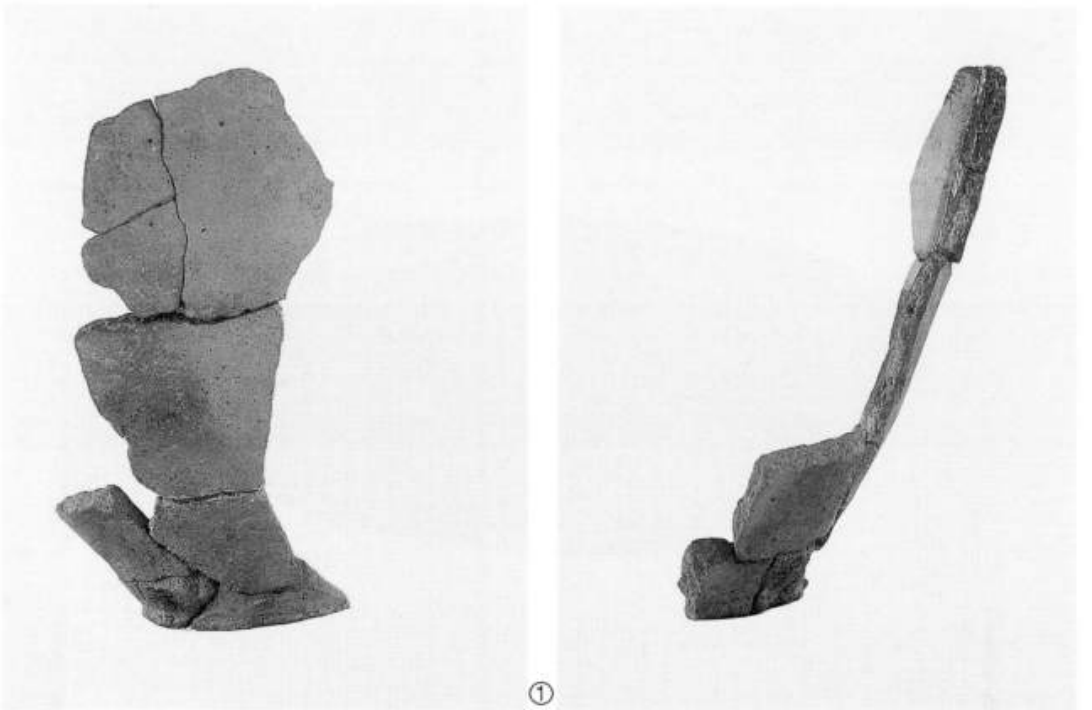

【사진 102】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2 (①~③동체부편)




【사진 103】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3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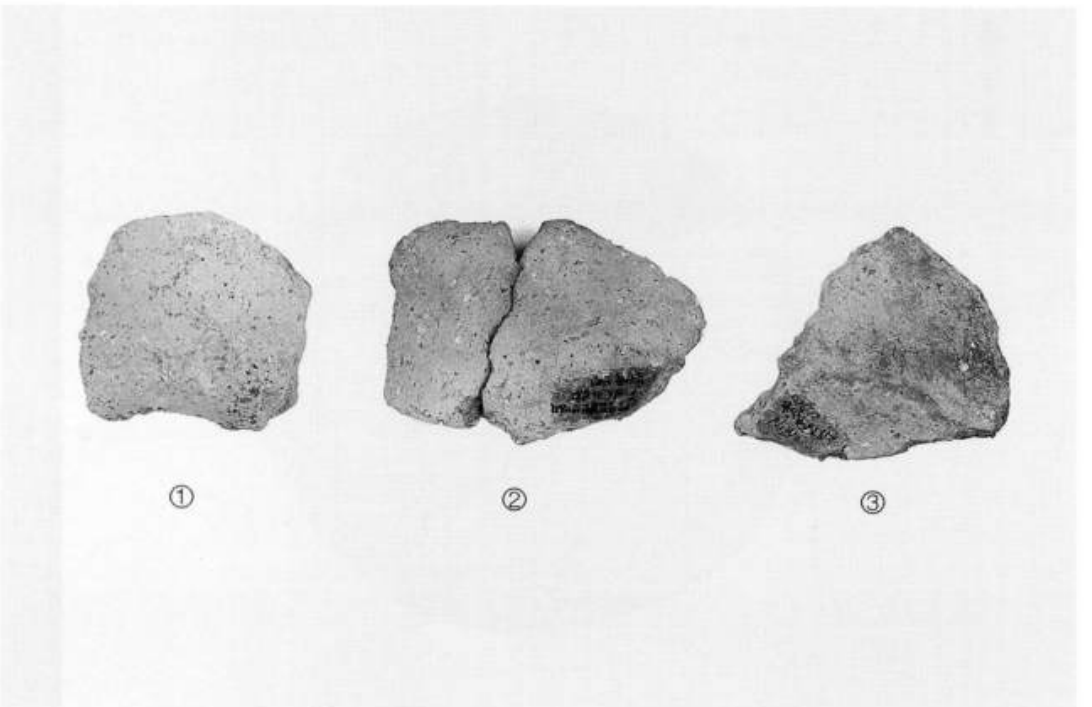



【사진 104】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4 (①~⑦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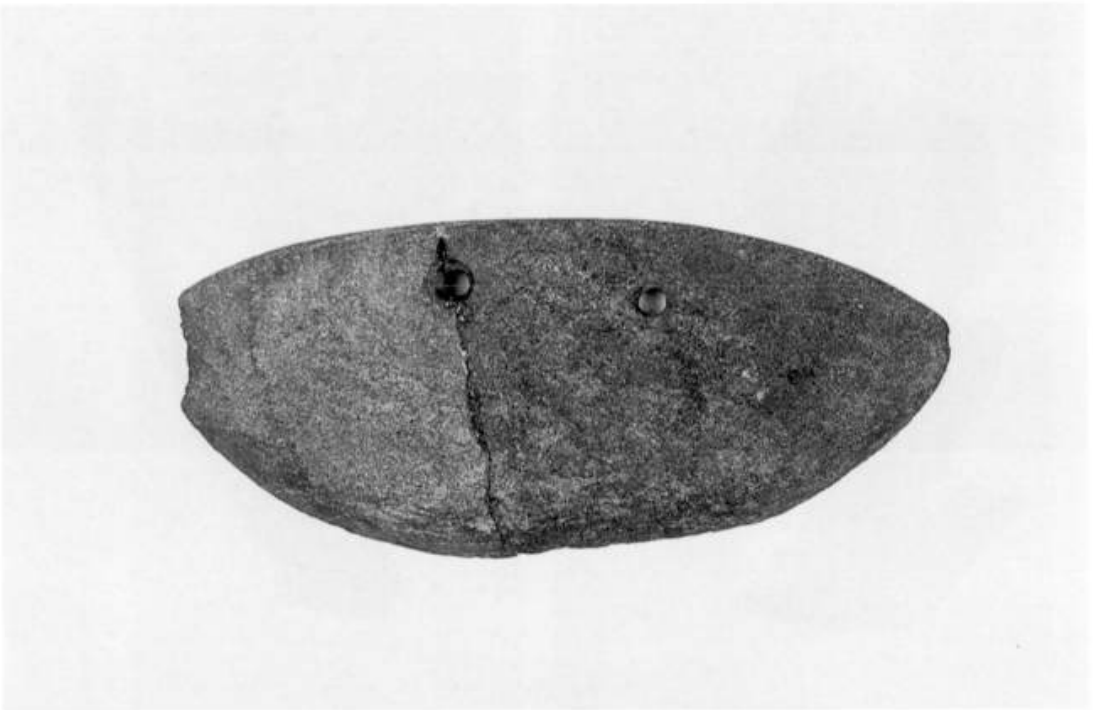
①

【사진 105】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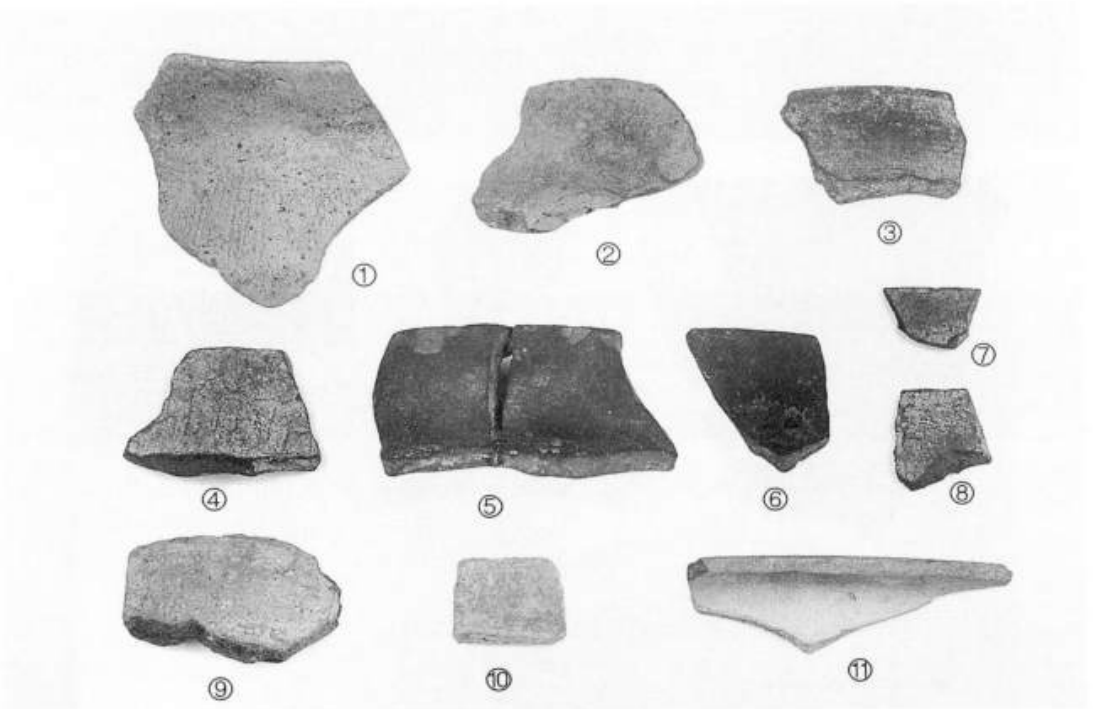
① ② ③

【사진 106】 임진산성 출토 무문토기류 6 (①~③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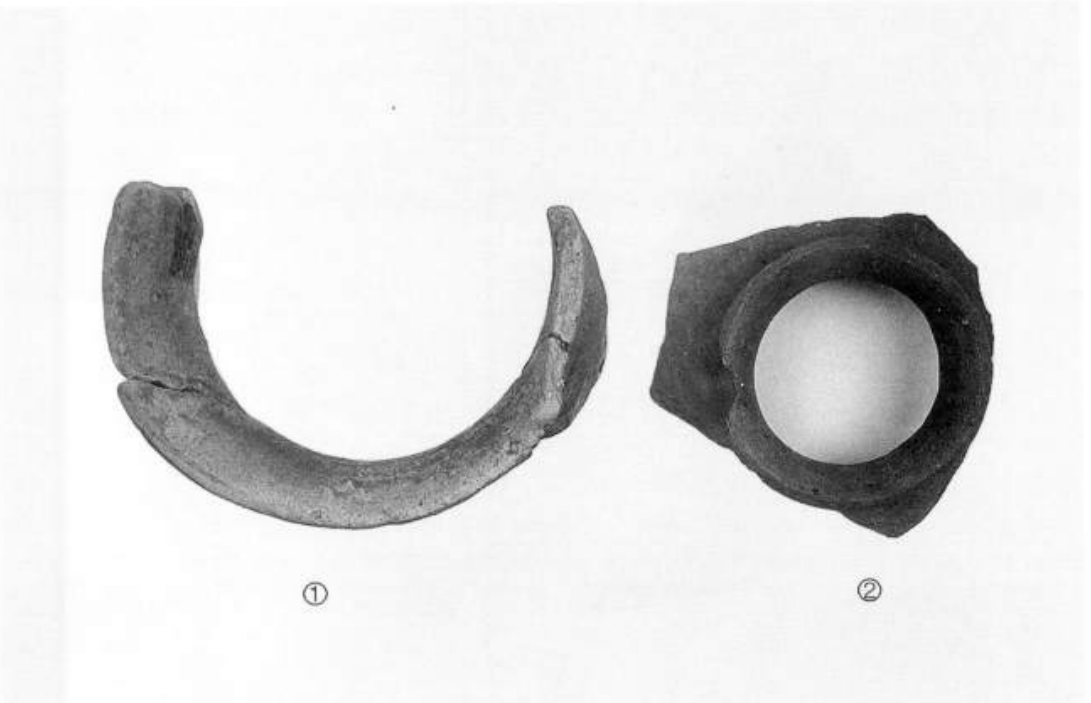


【사진 107】 임진산성 출토 반월형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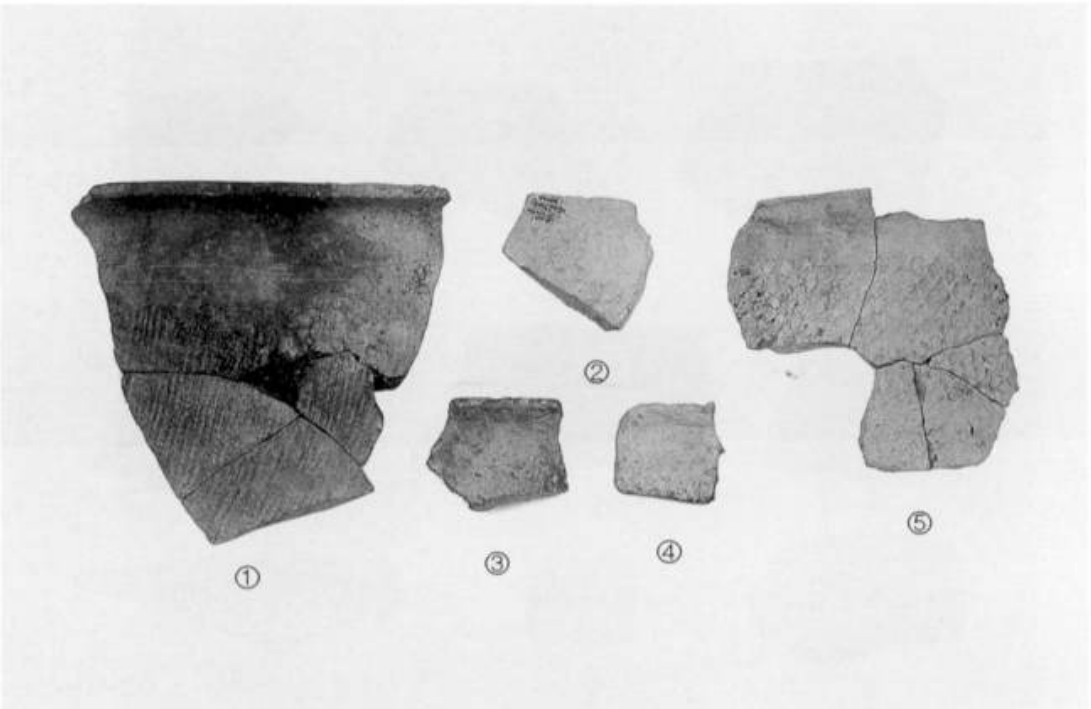
【사진 108】 임진산성 출토 석제방추차




【사진 109】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 (①~⑪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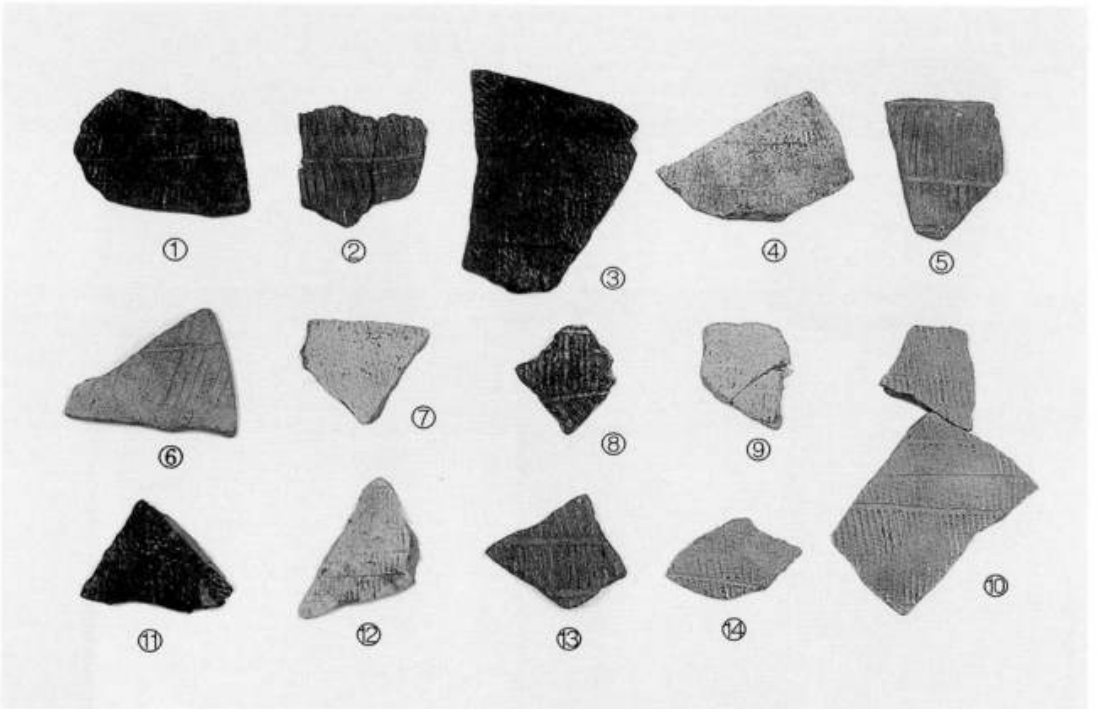



【사진 110】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2 (①②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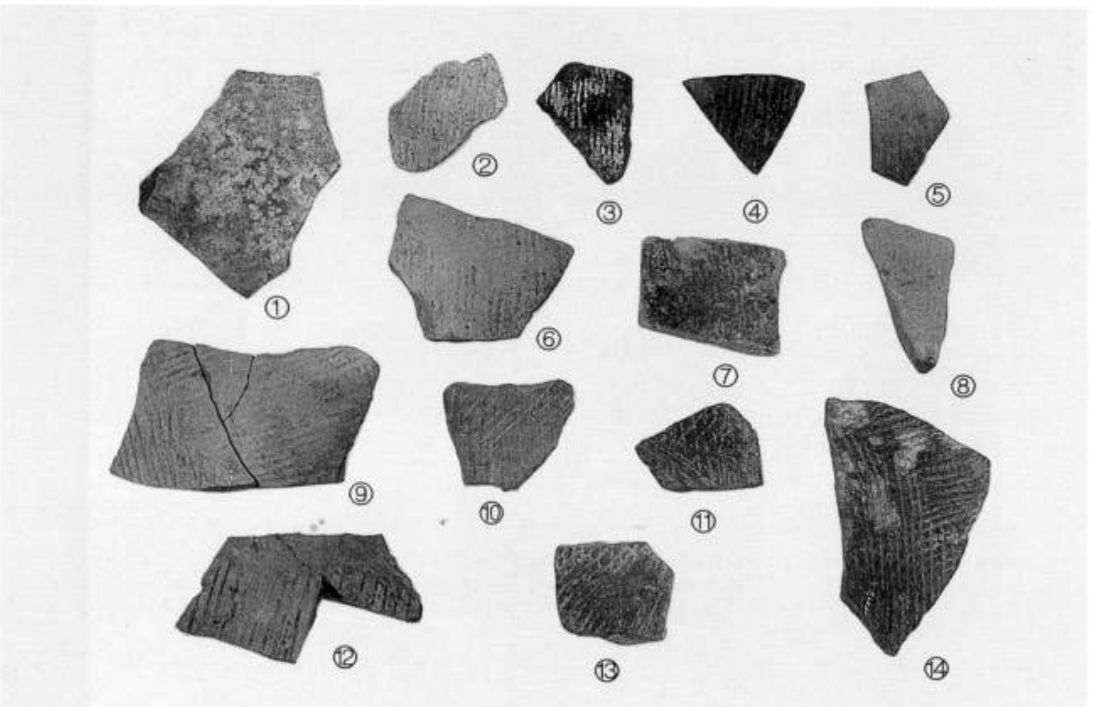



【사진 111】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3 (①~⑤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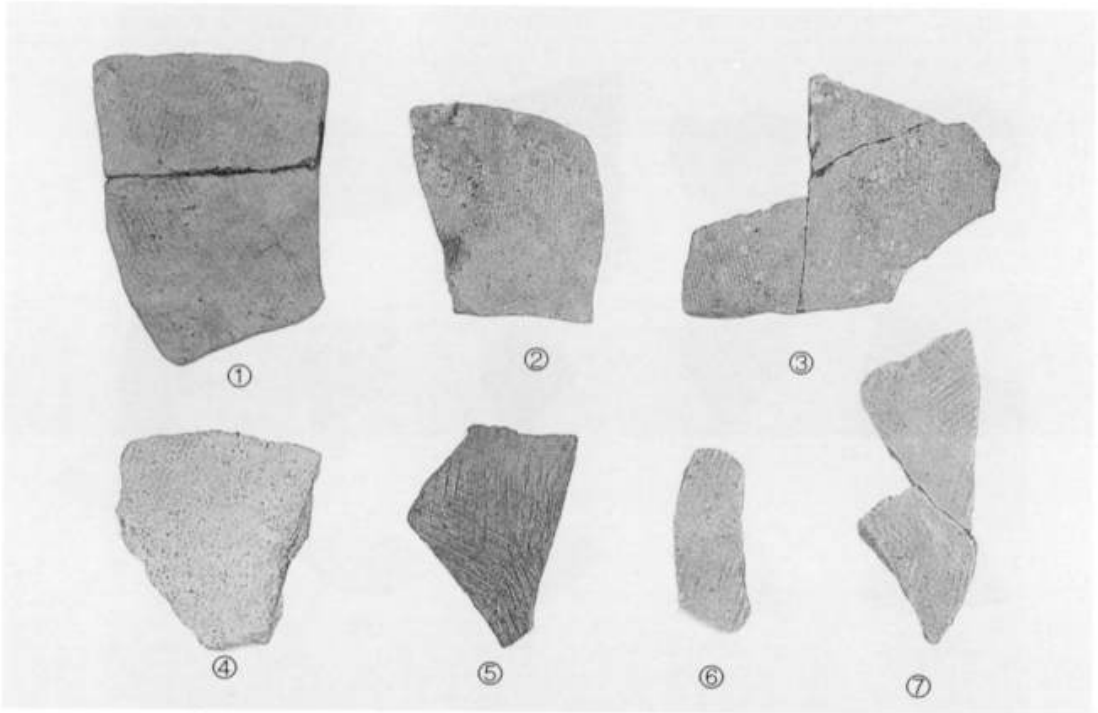
【사진 112】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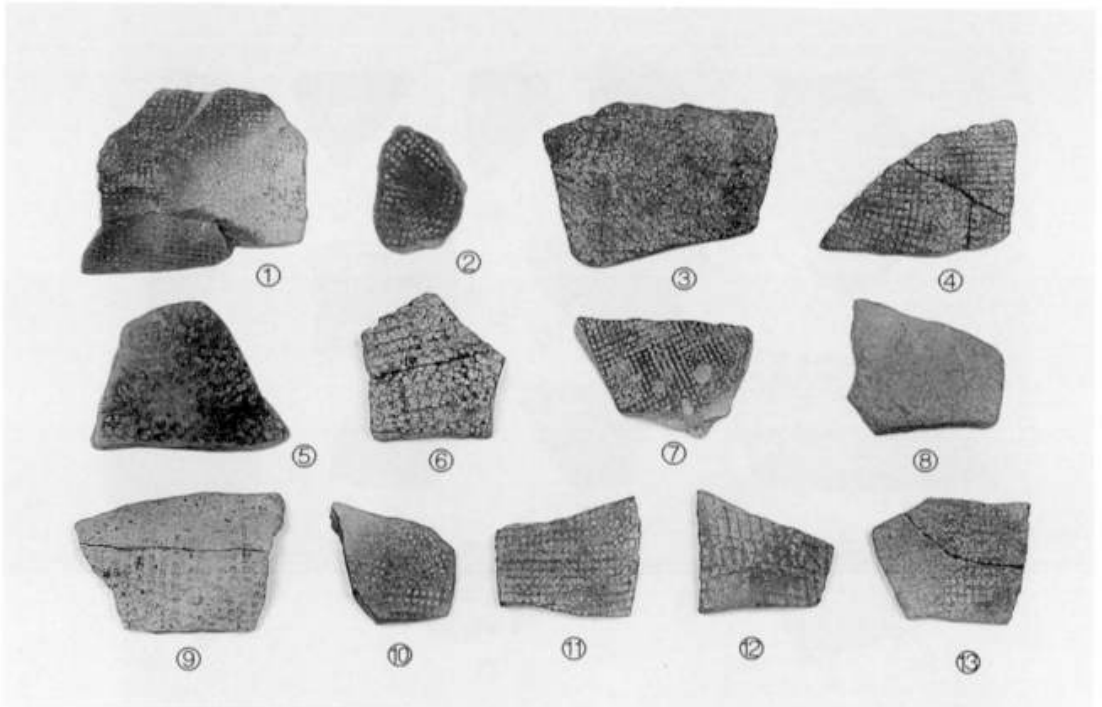

【사진 113】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5 (①~⑭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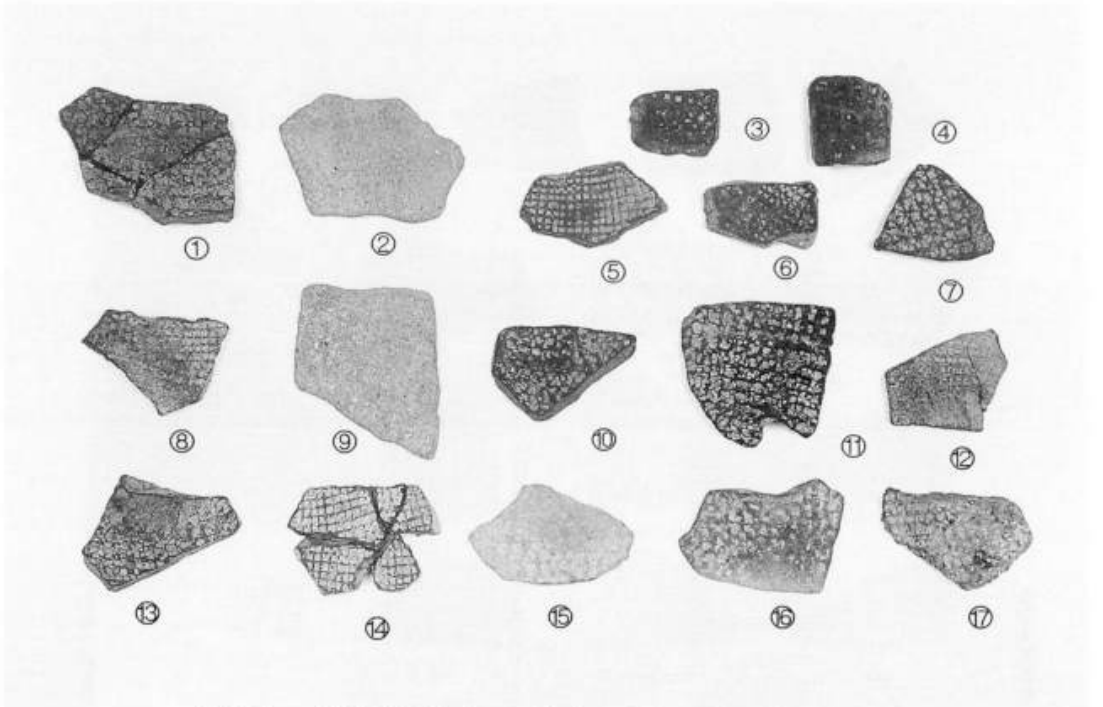

【사진 114】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6 (①~⑭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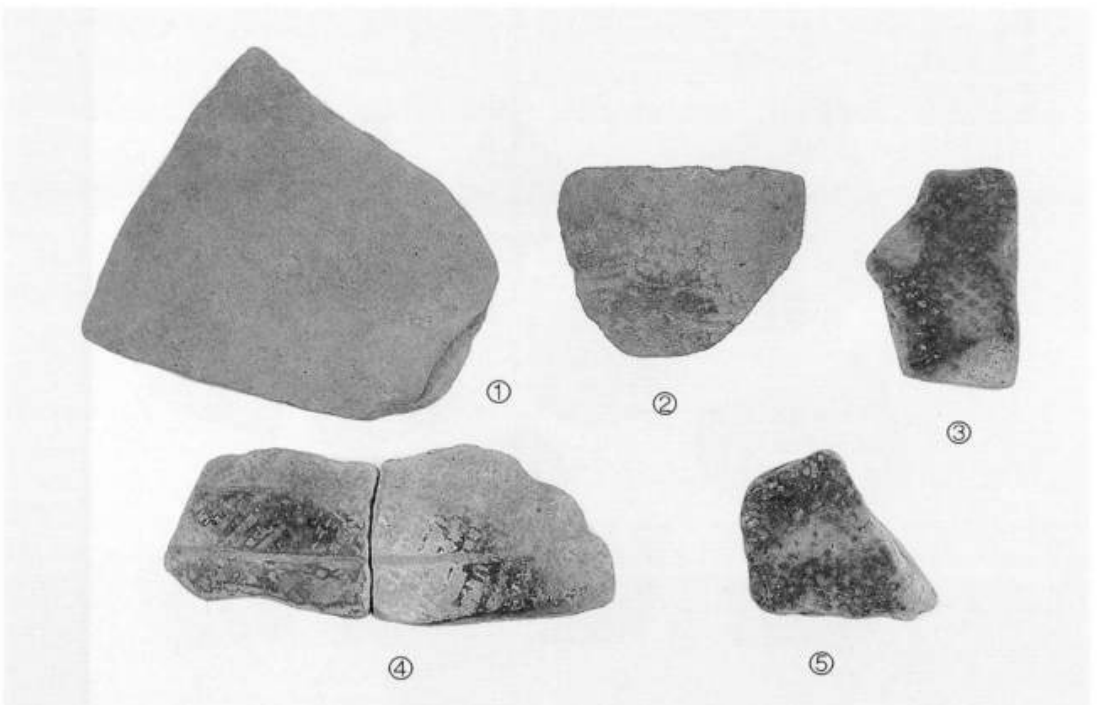

【사진 115】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7 (①~⑦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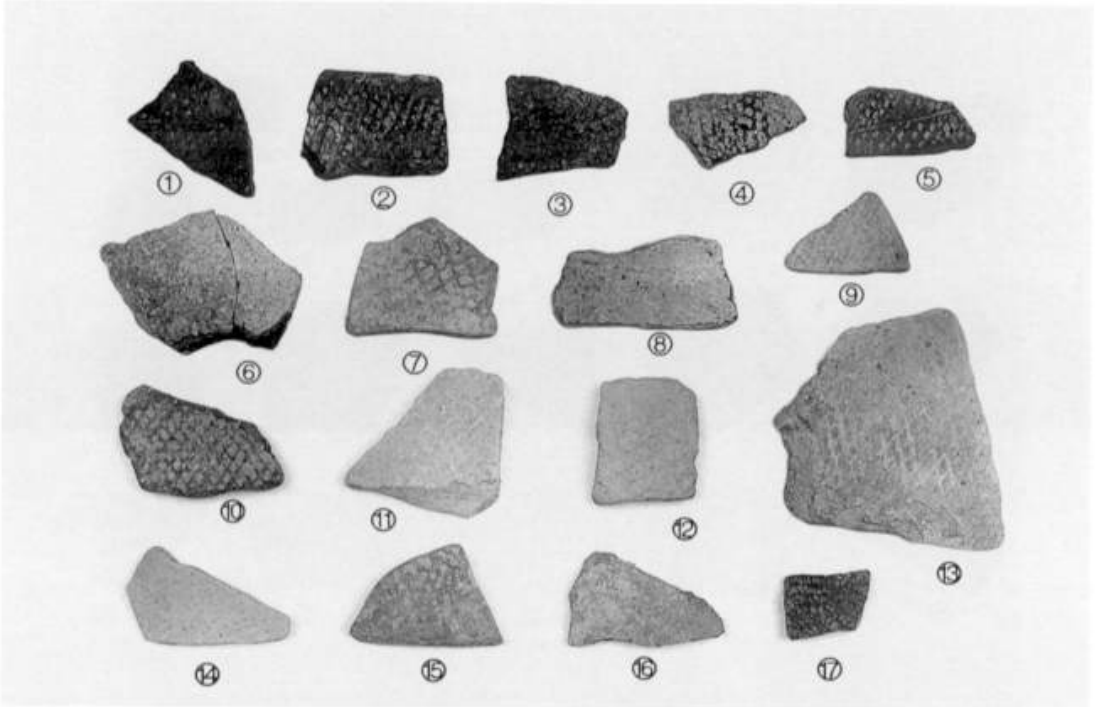

【사진 116】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8 (①~⑬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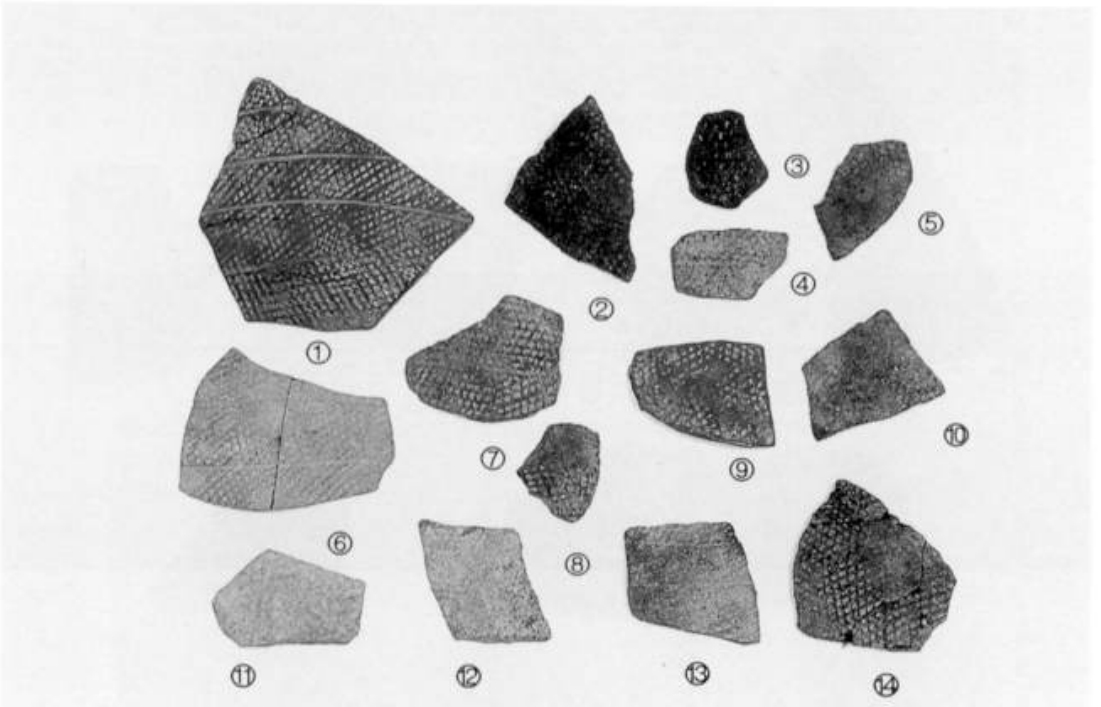

【사진 117】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9 (①~⑰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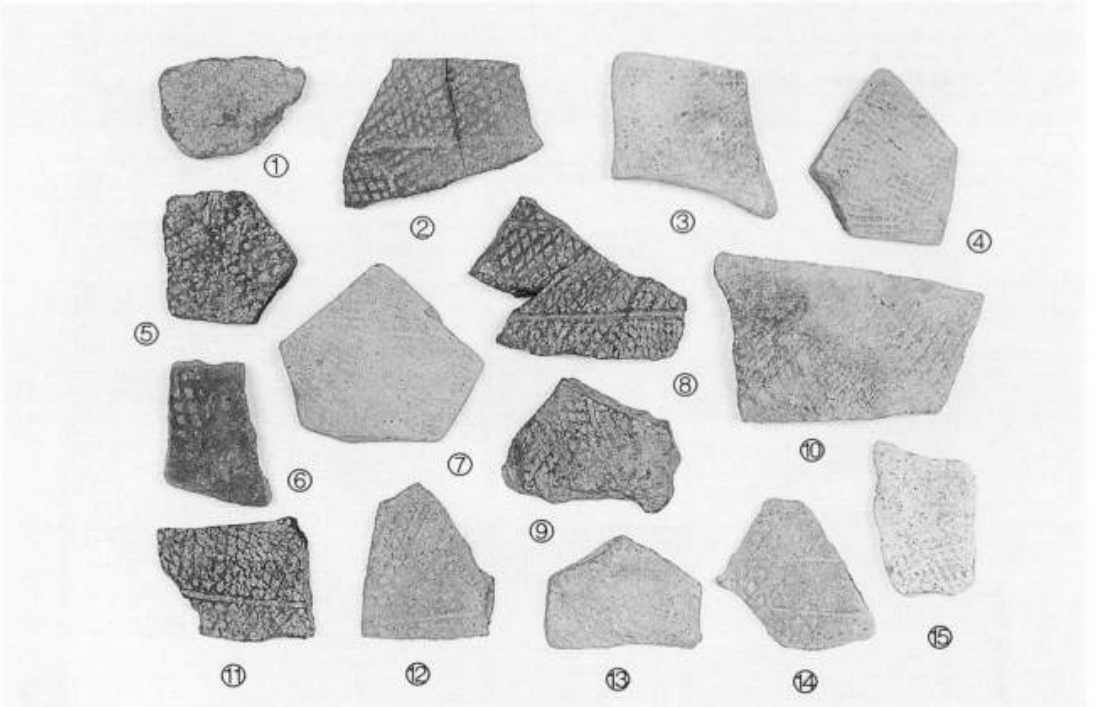

【사진 118】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0 (①~⑤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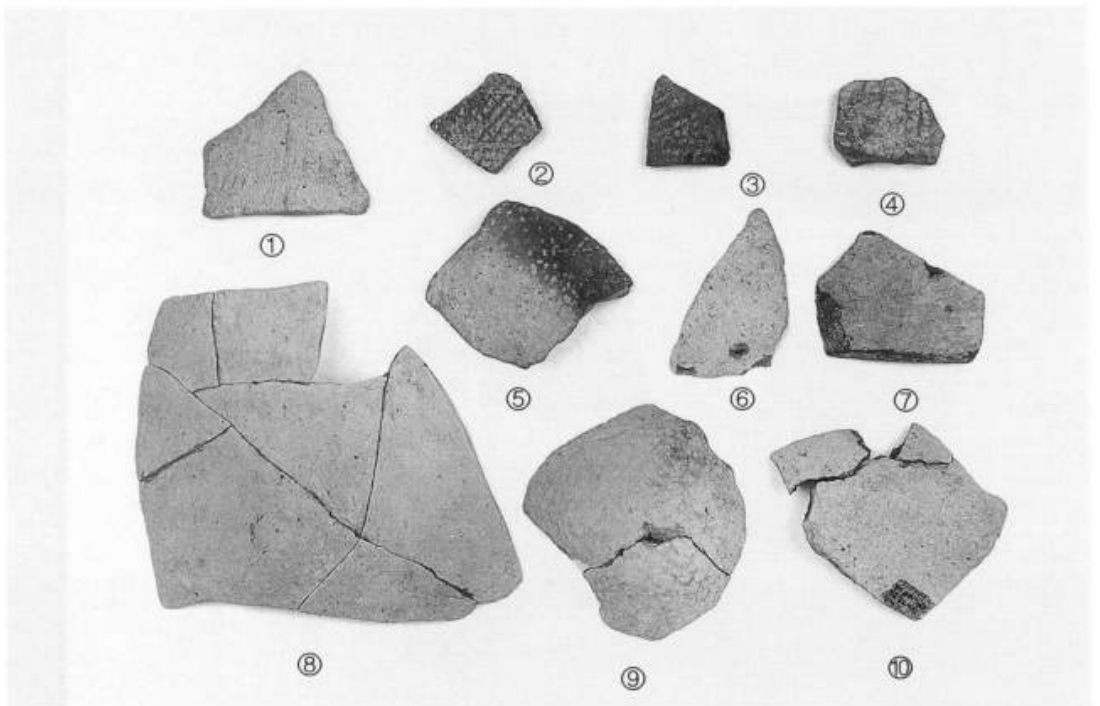
【사진 119】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1 (①~⑰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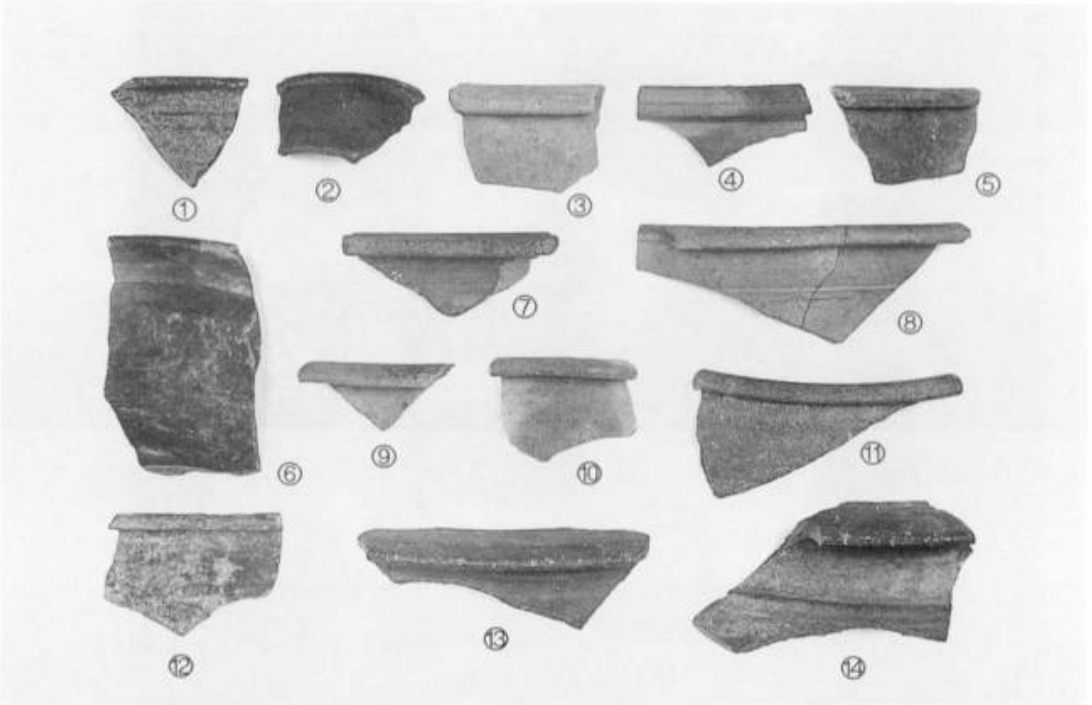
【사진 120】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2 (①~⑭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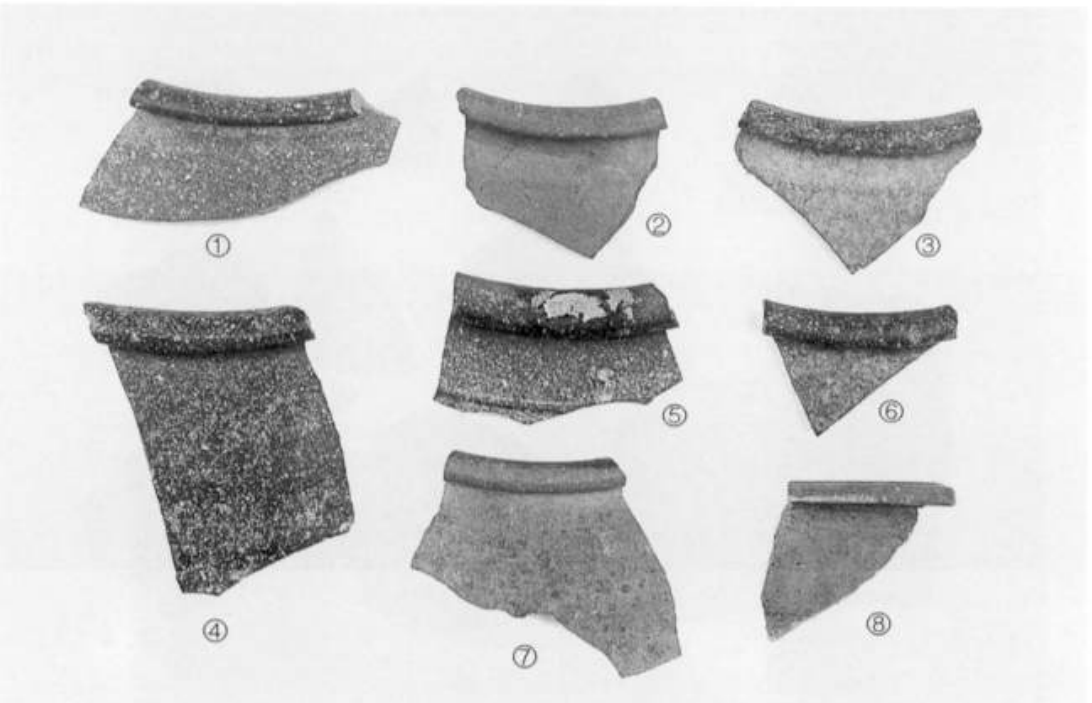

【사진 121】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3 (①~⑮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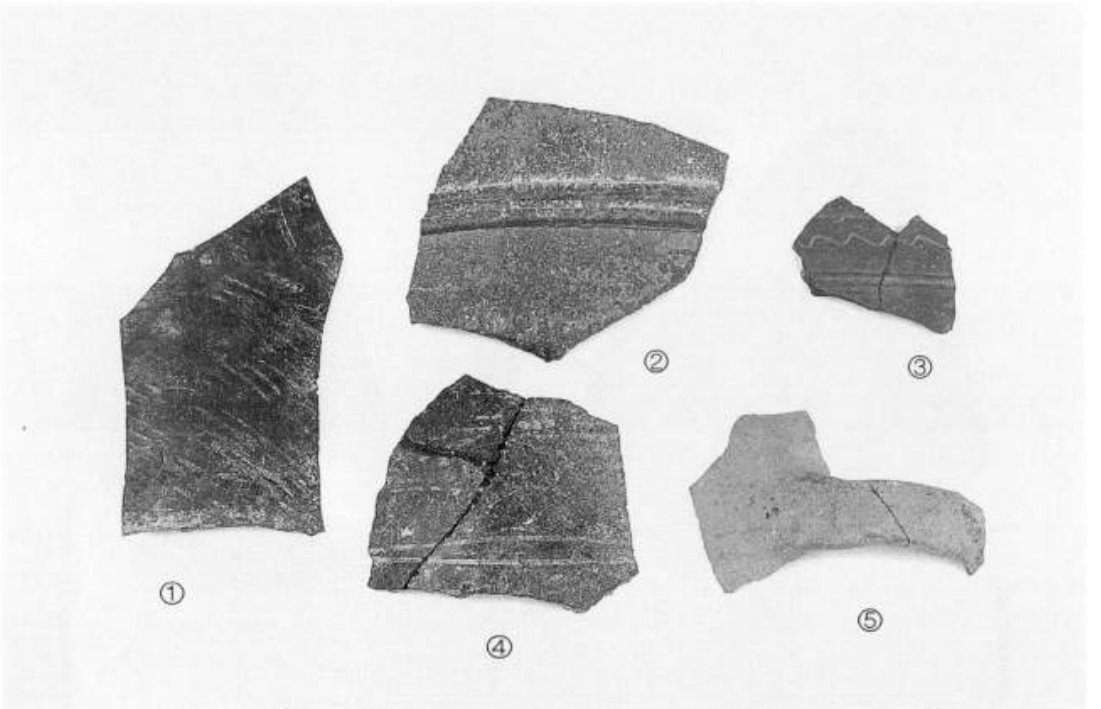

【사진 122】 임진산성 출토 백제토기류 14 (①~⑤·⑦⑧동체부편, ⑥⑨⑩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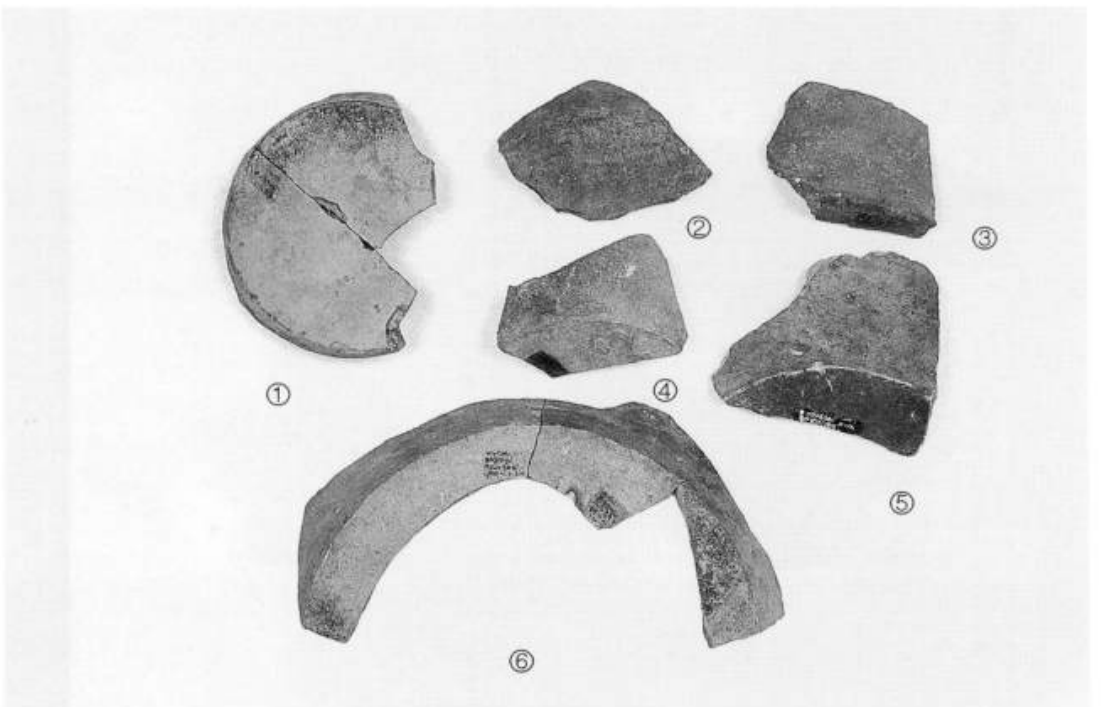

【사진 123】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1 (①~⑭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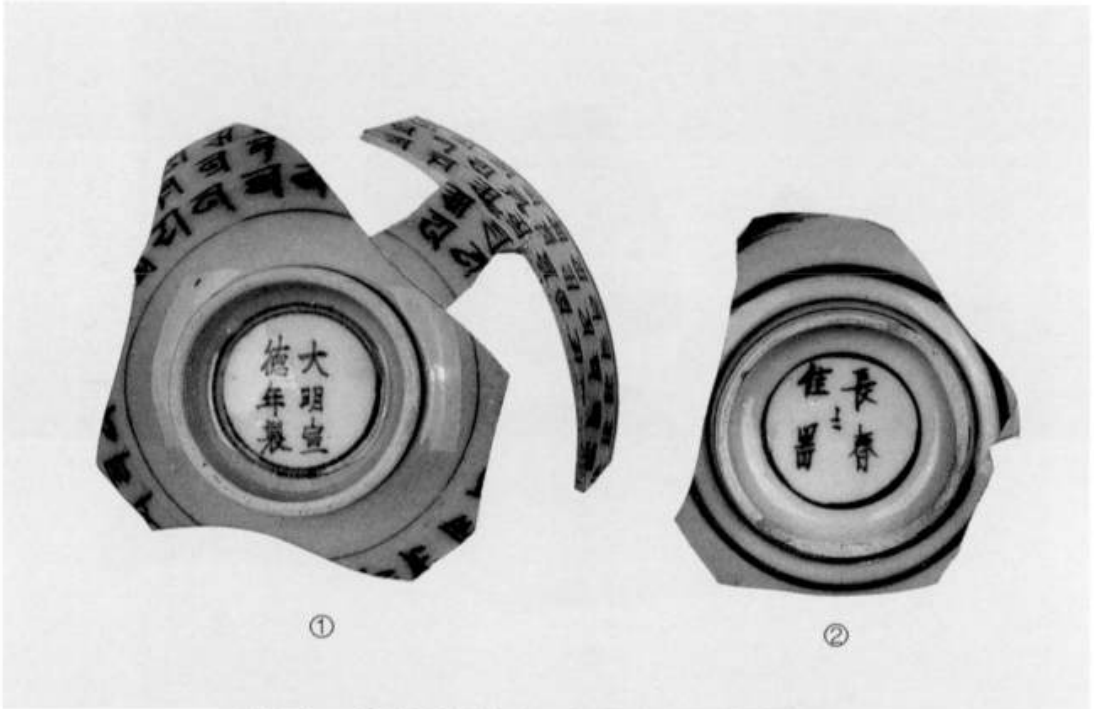

【사진 124】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2 (①~⑧구연부편)




【사진 125】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3 (①~④동체부편, ⑤파수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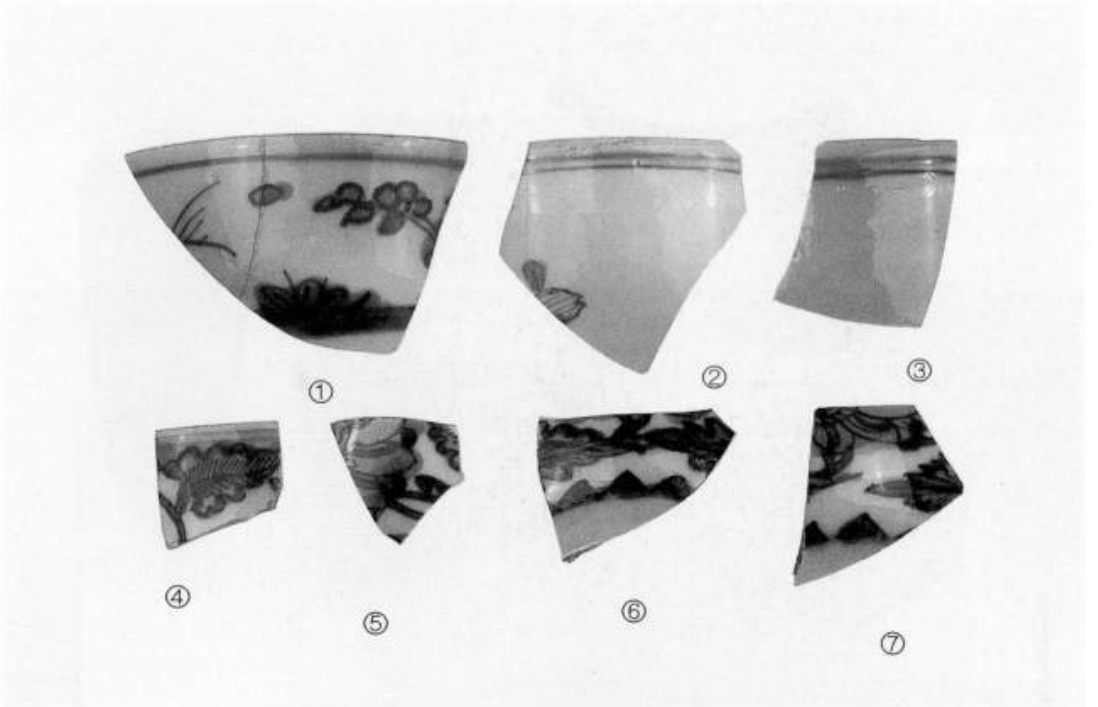



【사진 126】 임진산성 출토 도기류 4 (①~⑥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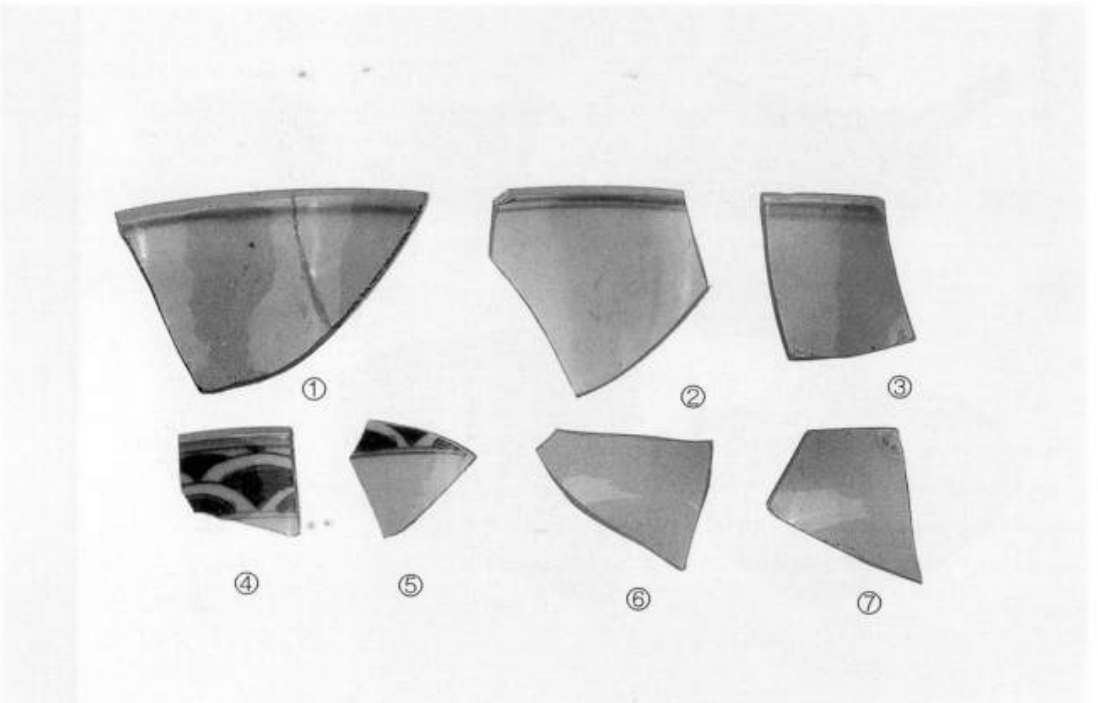



【사진 127】 임진산성 출토 중국자기 1 (①②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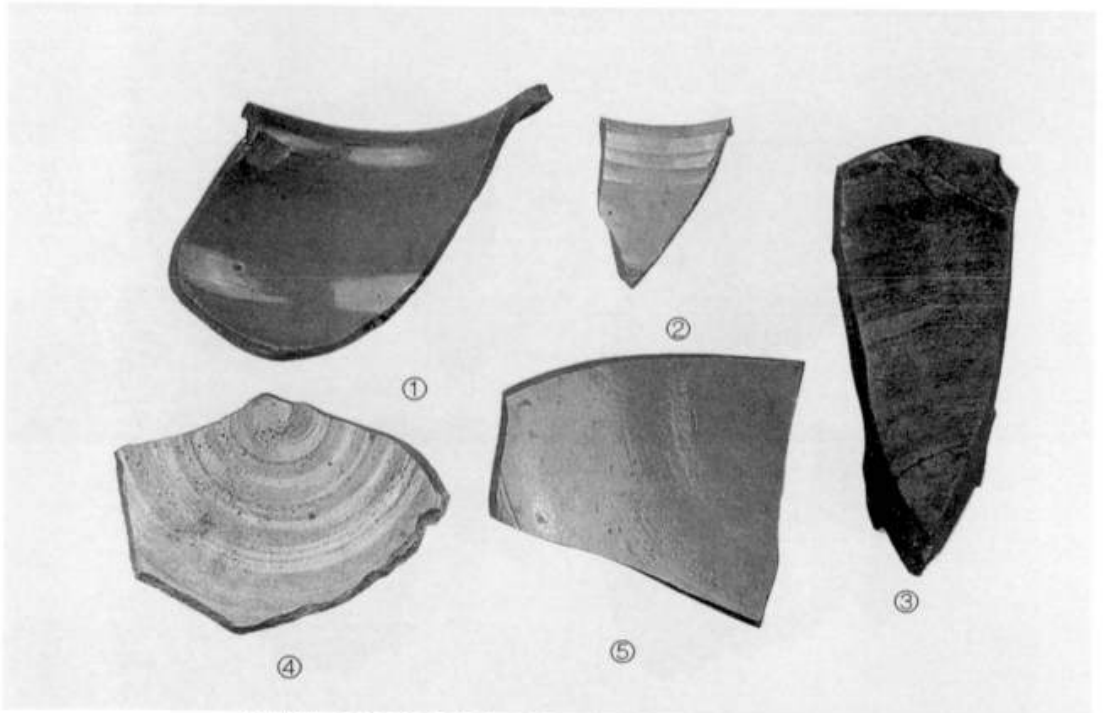
【사진 128】 임진산성 출토 중국자기 1 (①②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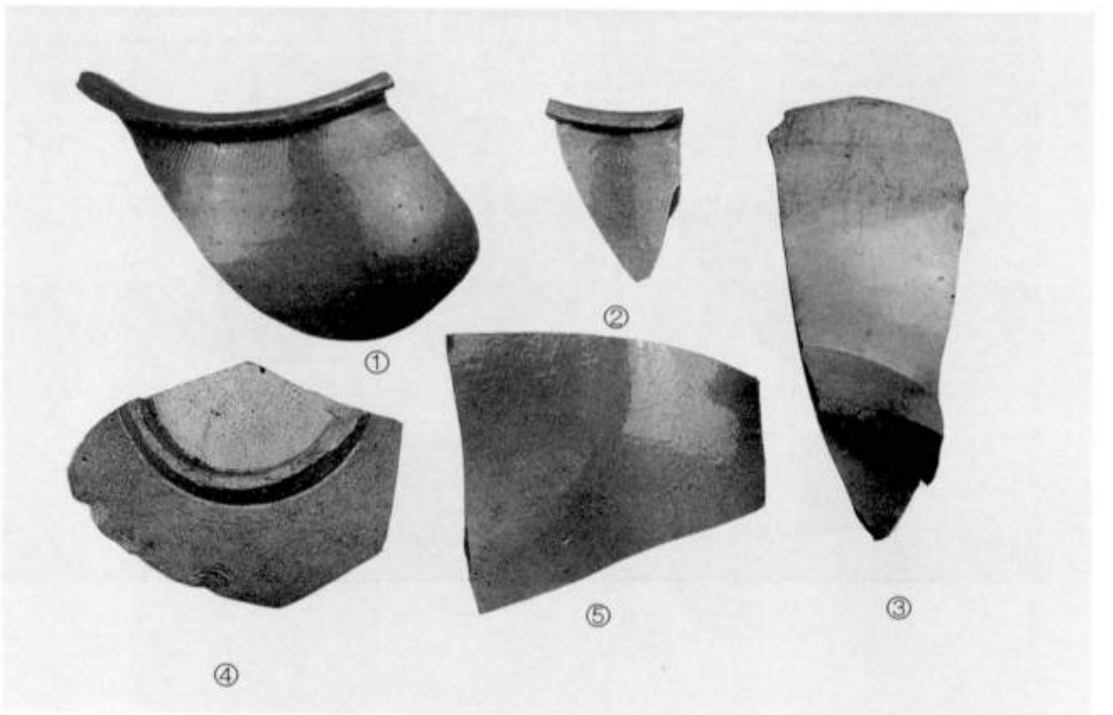

【사진 129】 임진산성 출토 중국자기 2 (①~⑦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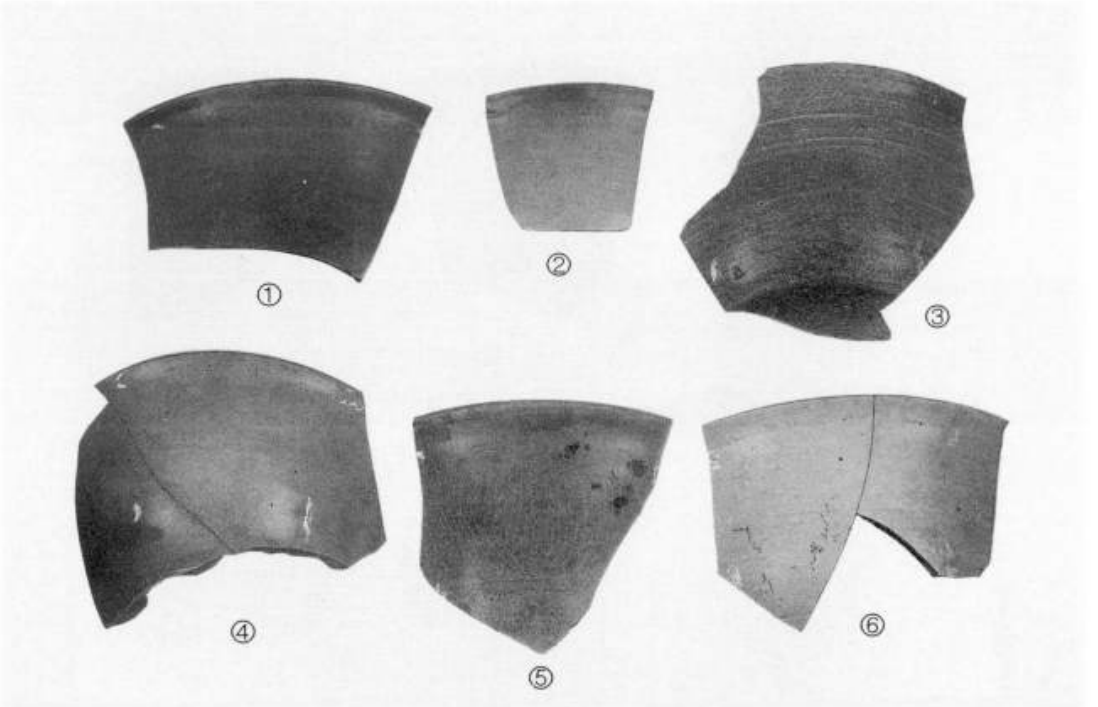

【사진 130】 임진산성 출토 중국자기 2 (①~⑦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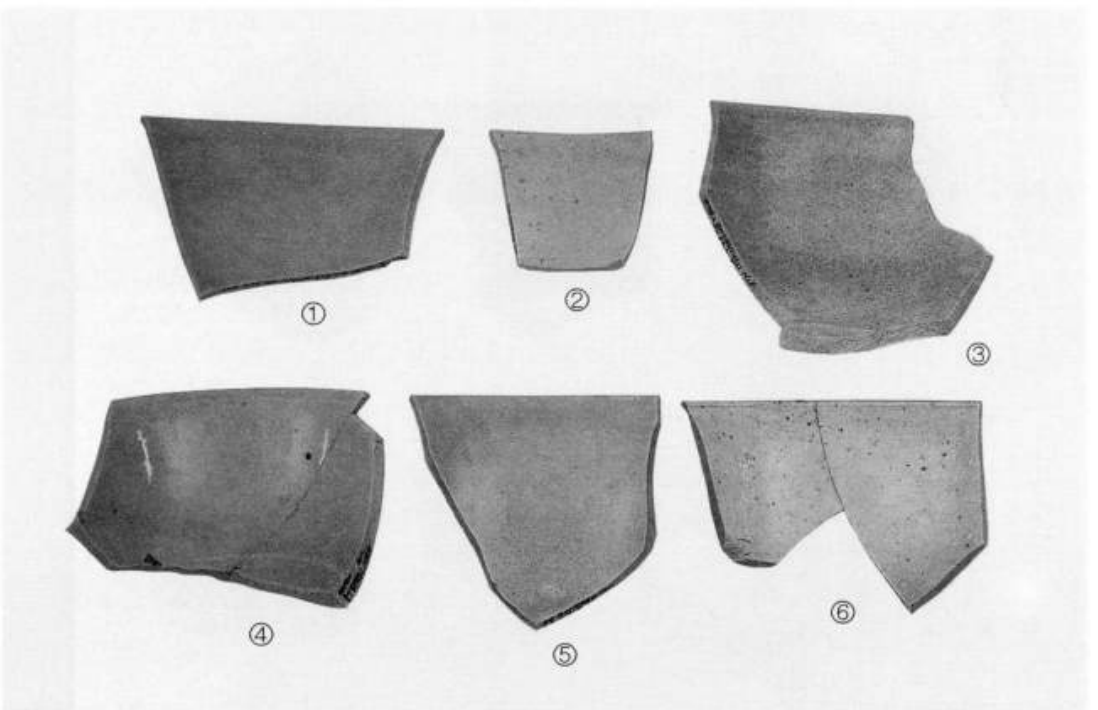

【사진 131】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 (①~⑤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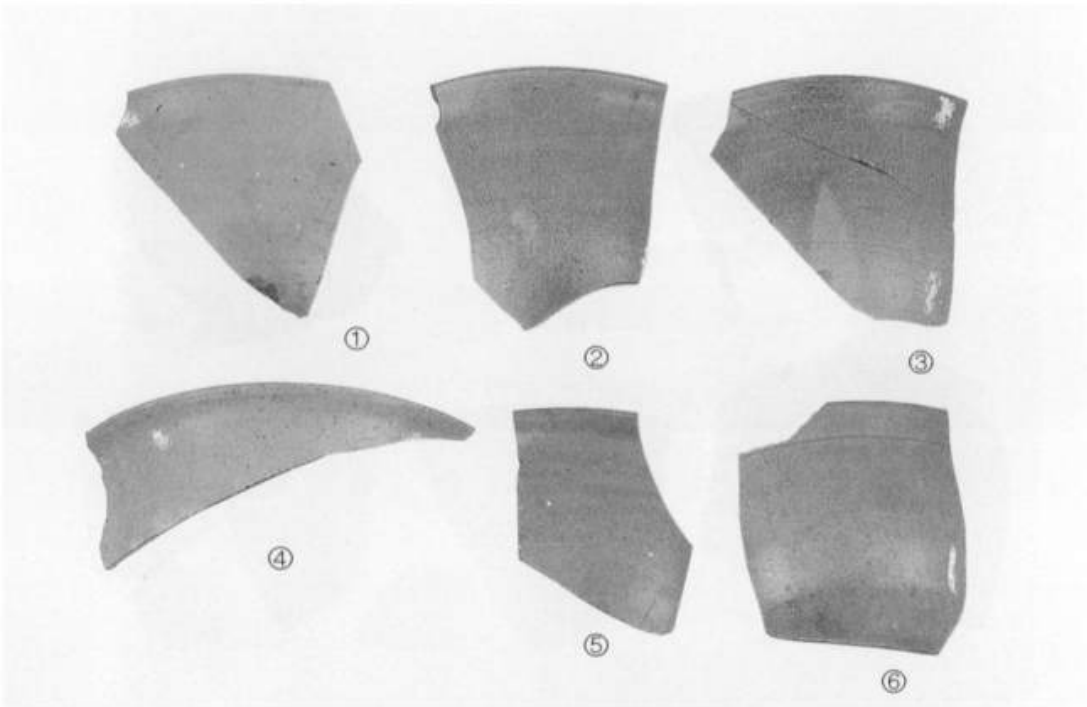

【사진 132】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 (①~⑤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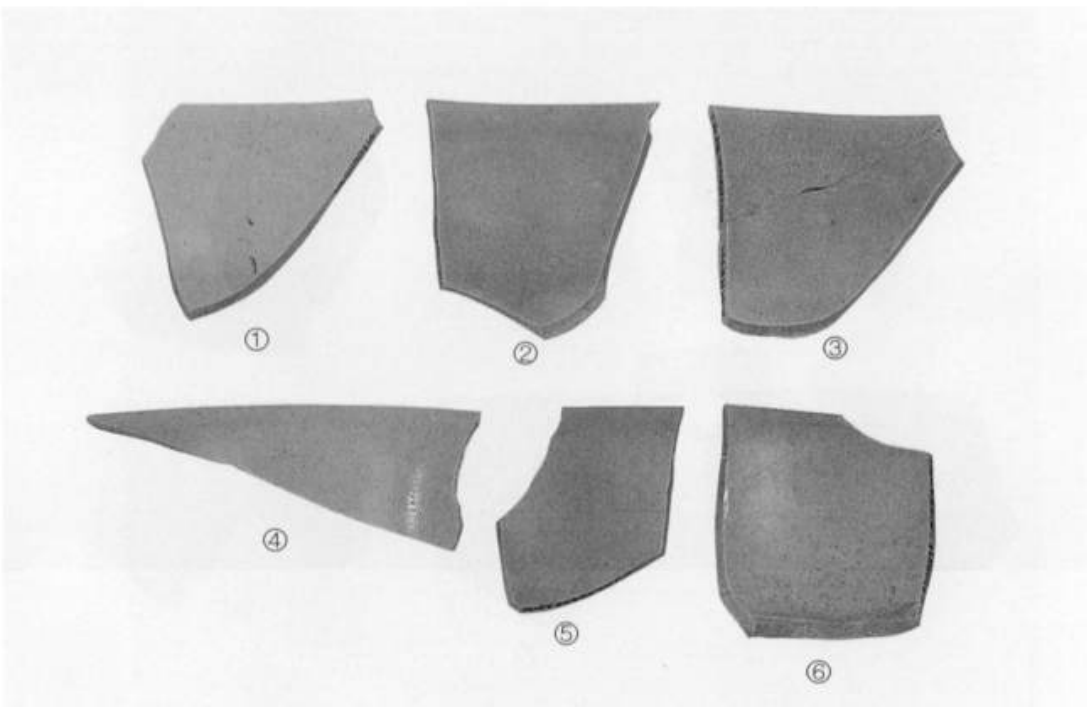

【사진 133】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2 (①~⑥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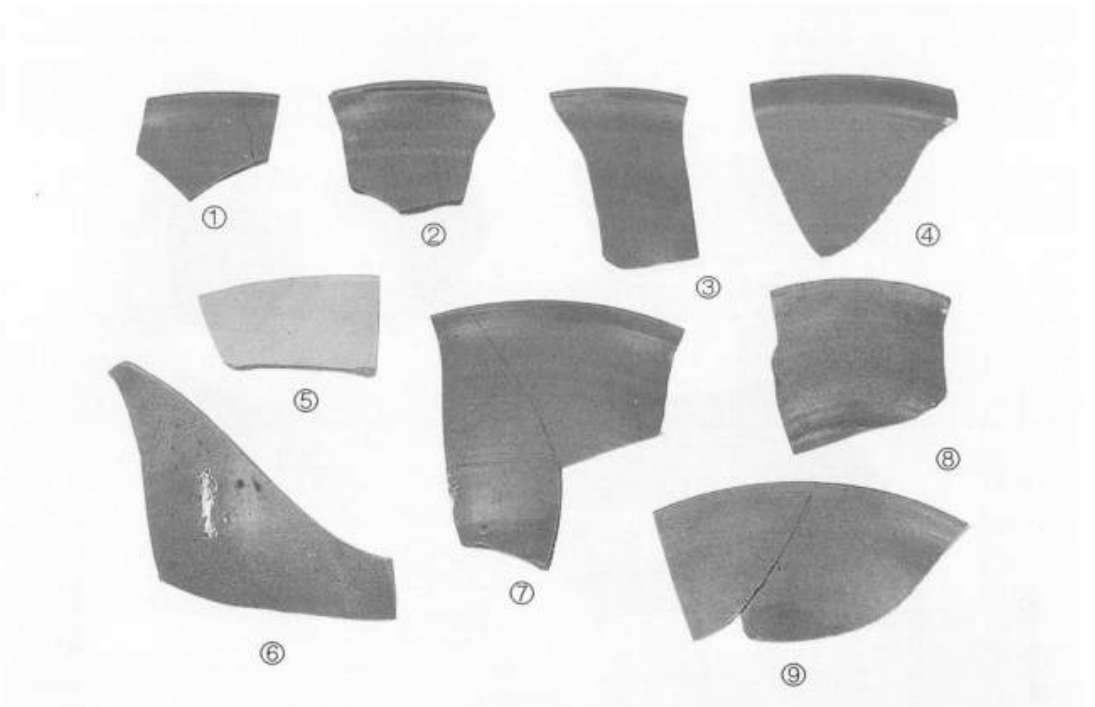

【사진 134】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2 (①~⑥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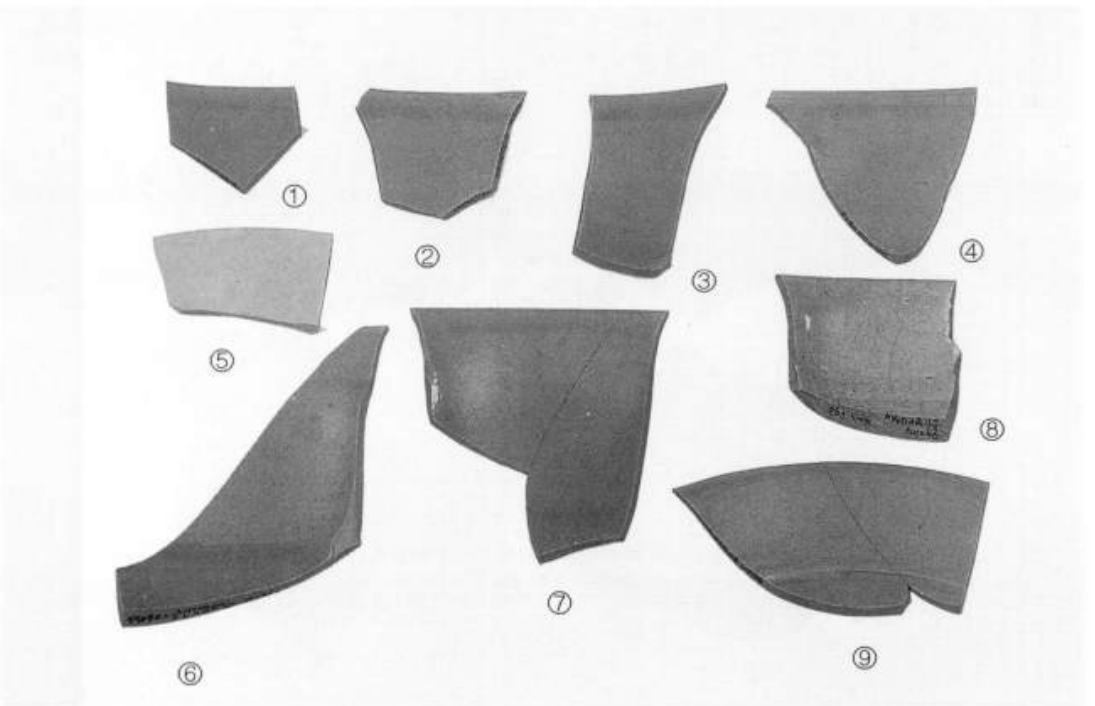

【사진 135】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3 (①~⑥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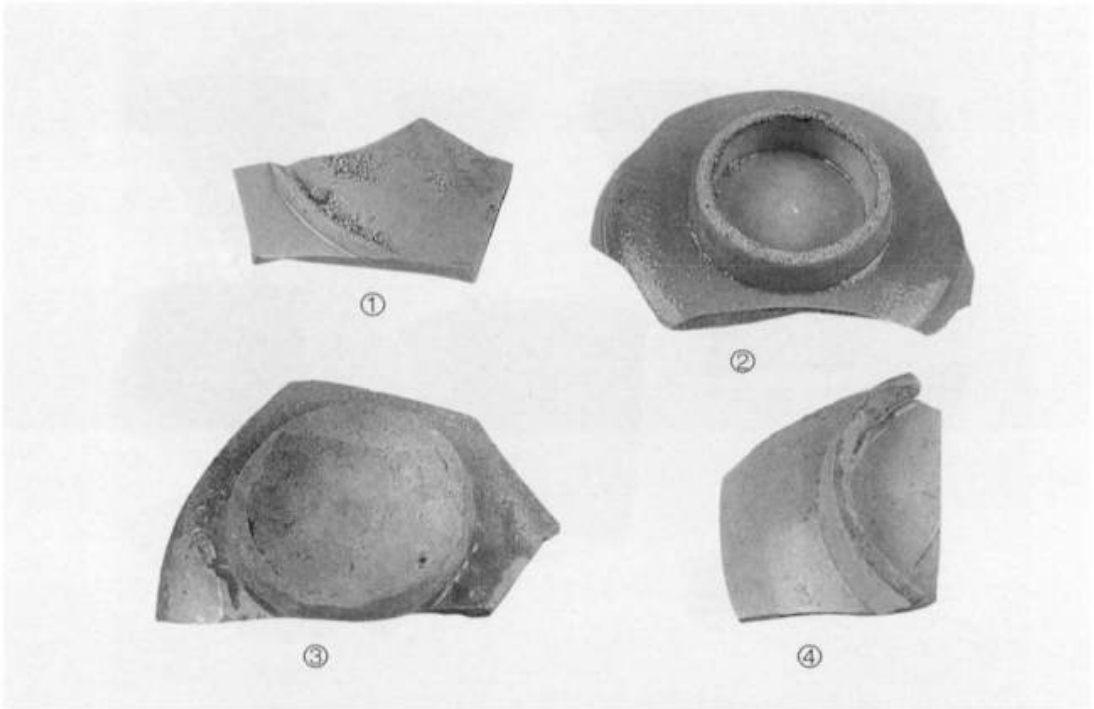

【사진 136】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3 (①~⑥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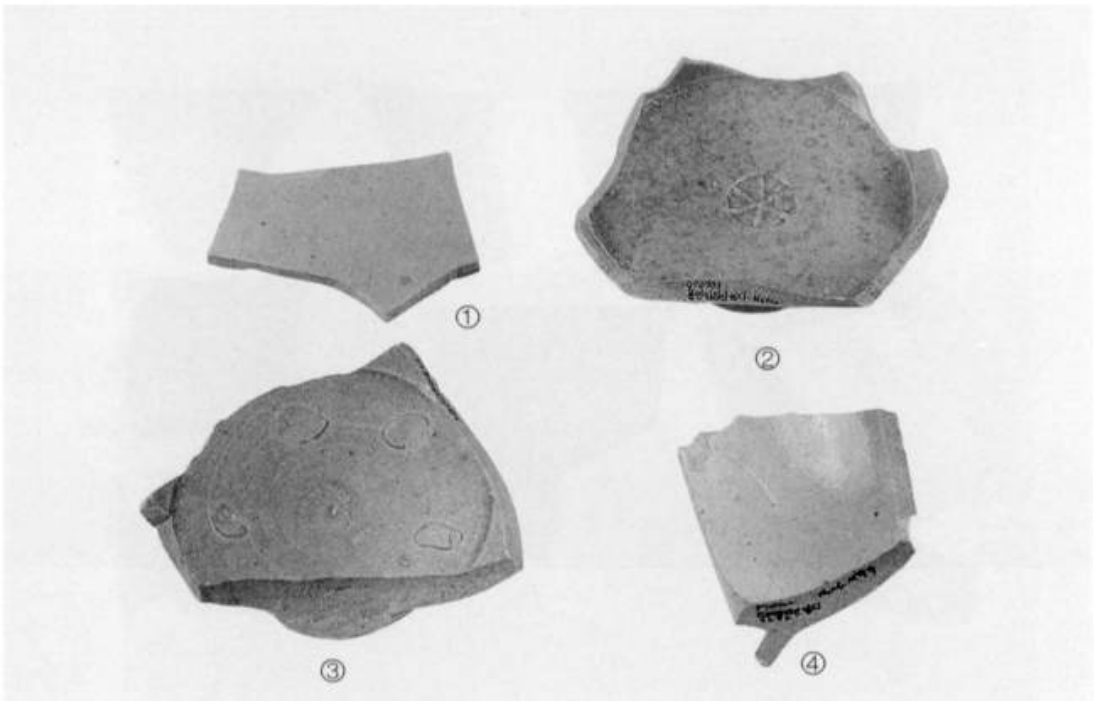

【사진 137】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4 (①~⑨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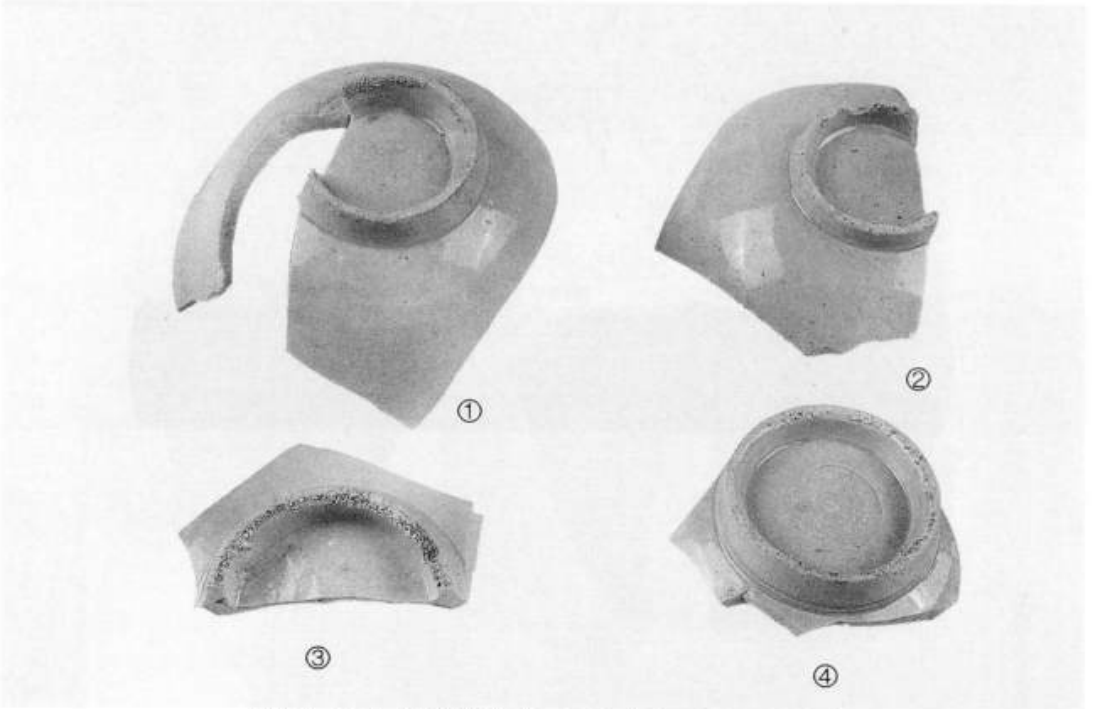

【사진 138】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4 (①~⑨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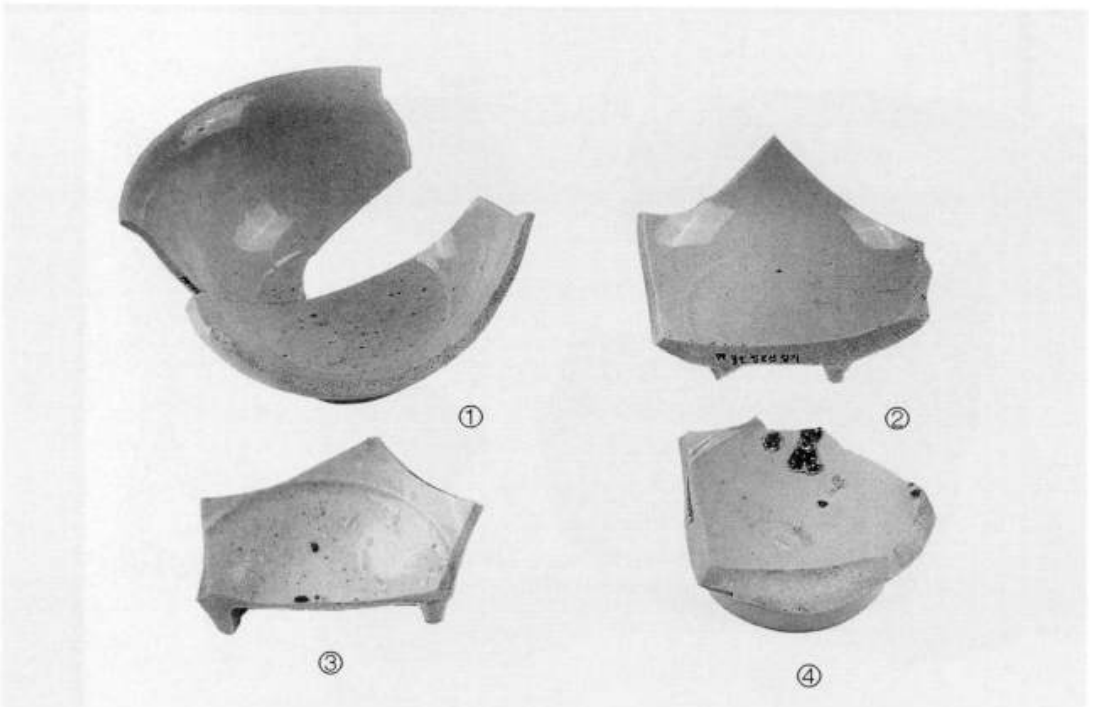

【사진 139】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5 (①~④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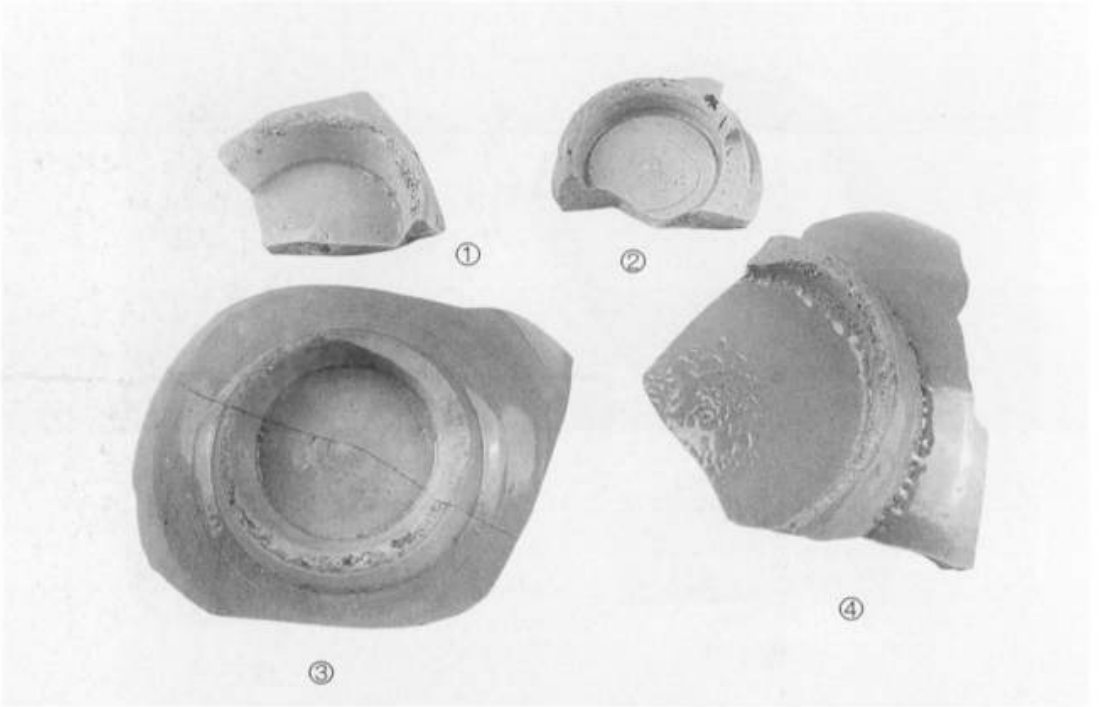

【사진 140】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5 (①~④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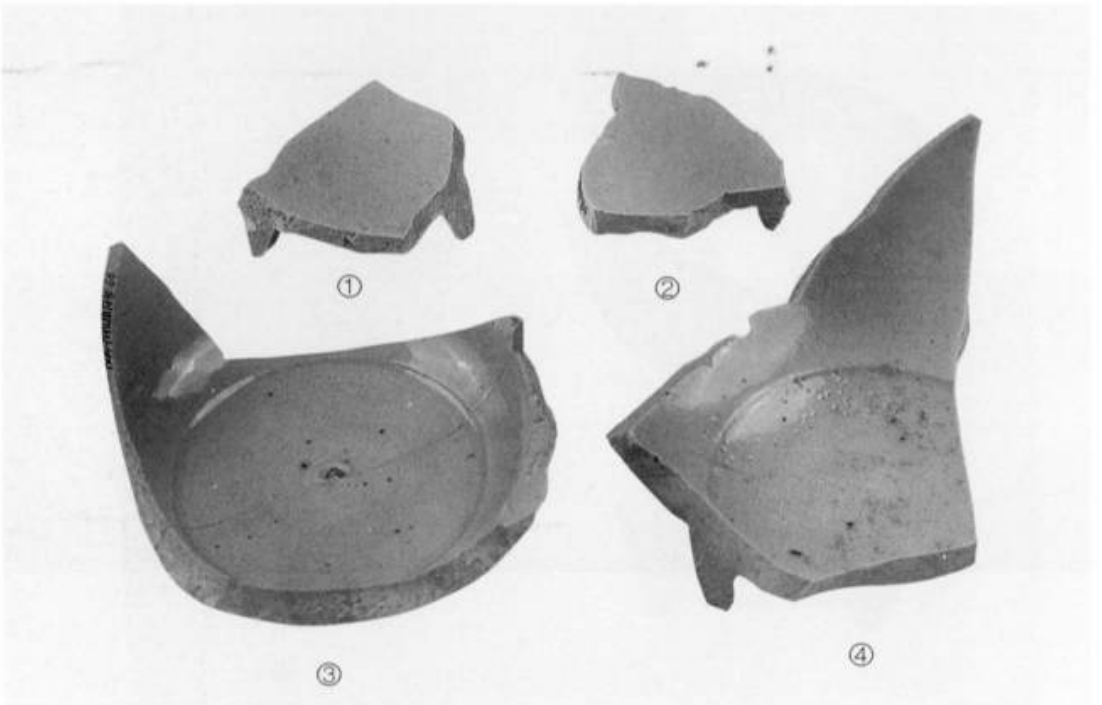

【사진 141】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6 (①~④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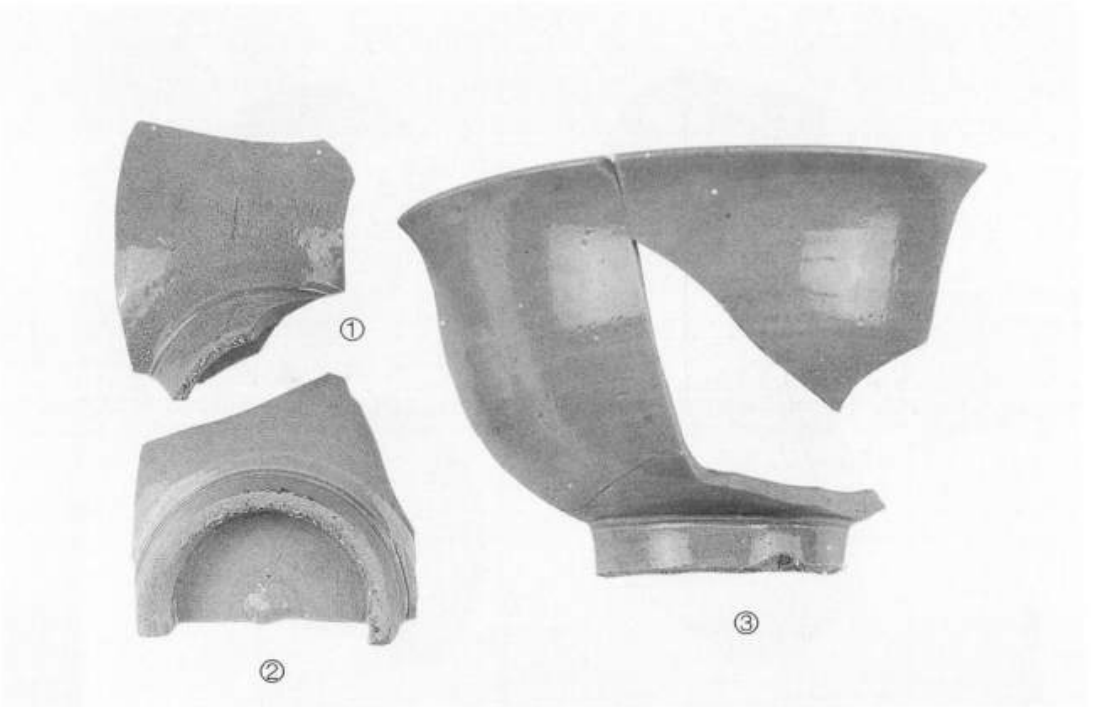

【사진 142】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6 (①~④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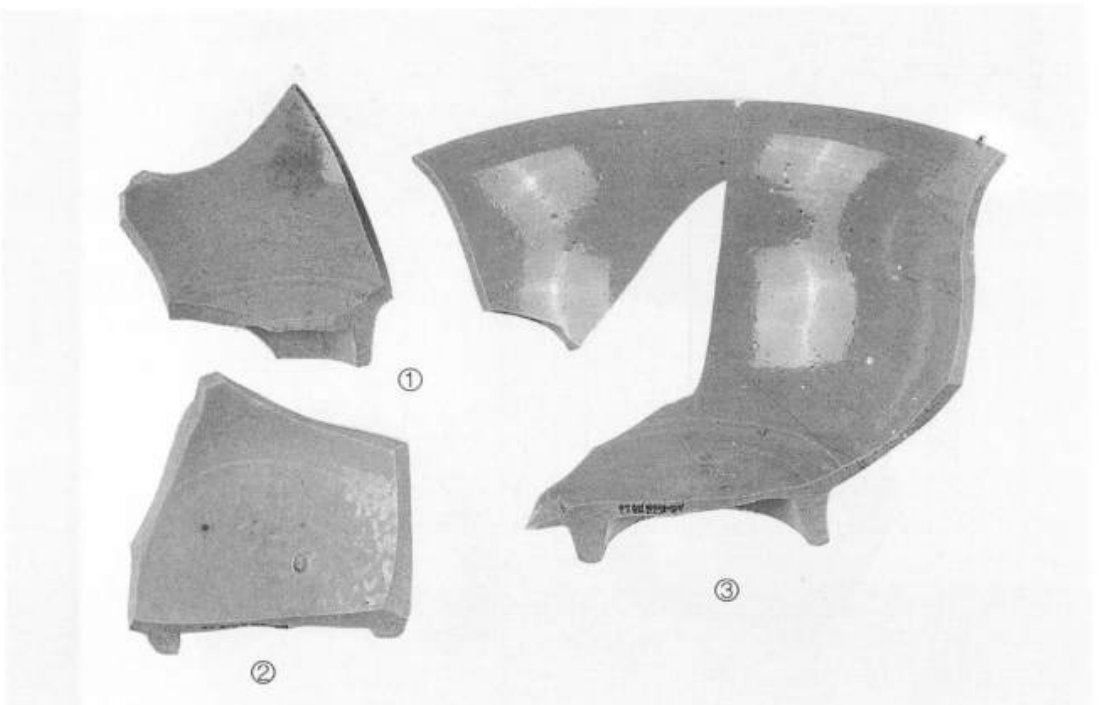

【사진 143】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7 (①~④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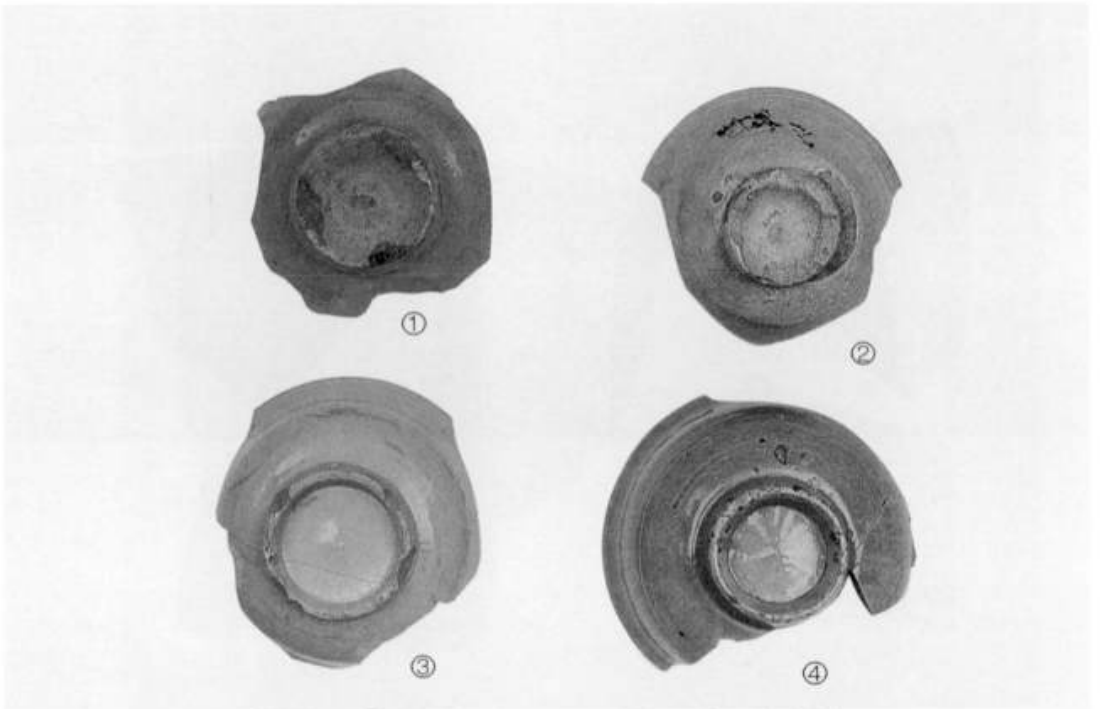

【사진 144】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7 (①~④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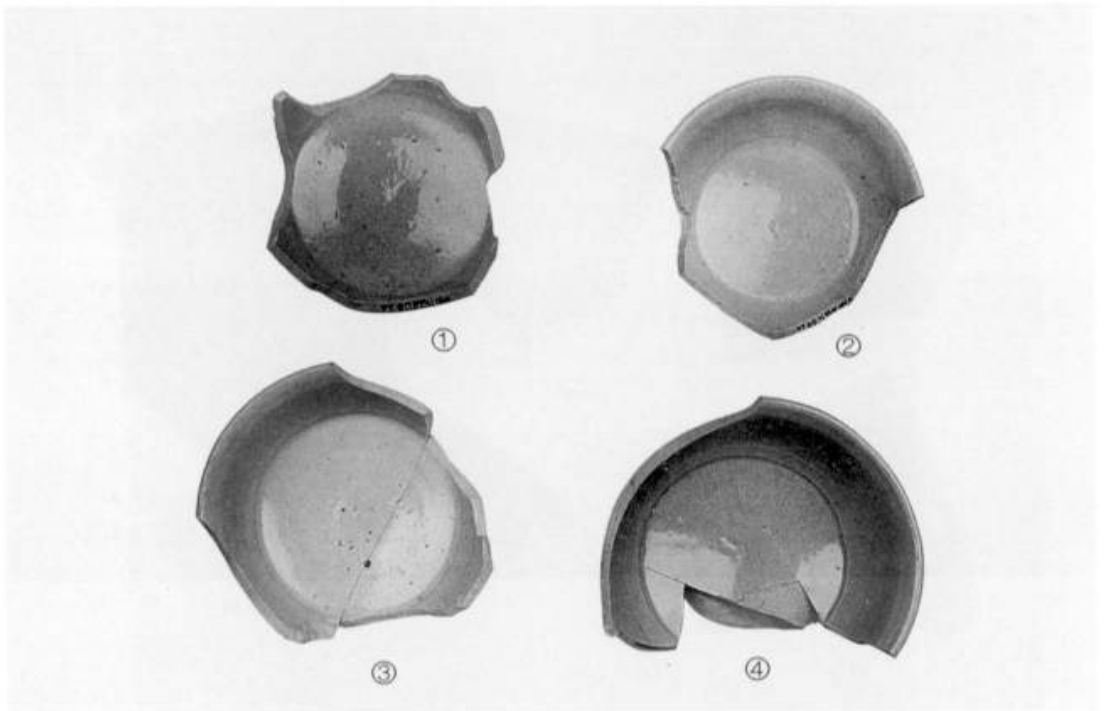

【사진 145】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8 (①~③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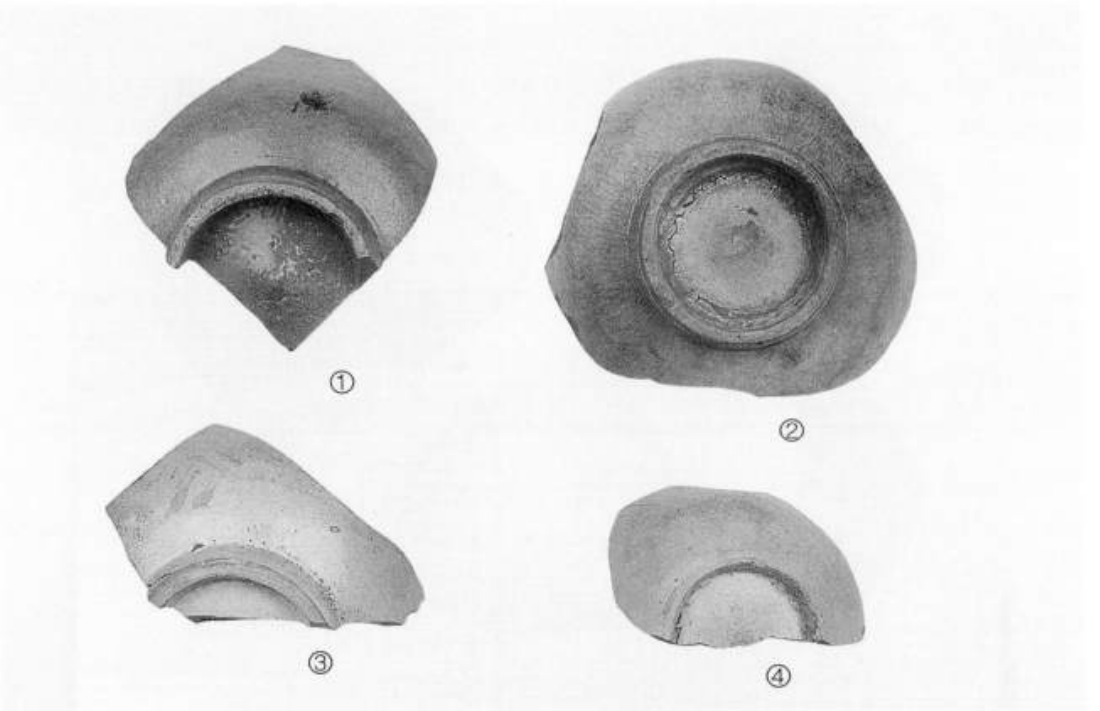

【사진 146】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8 (①~③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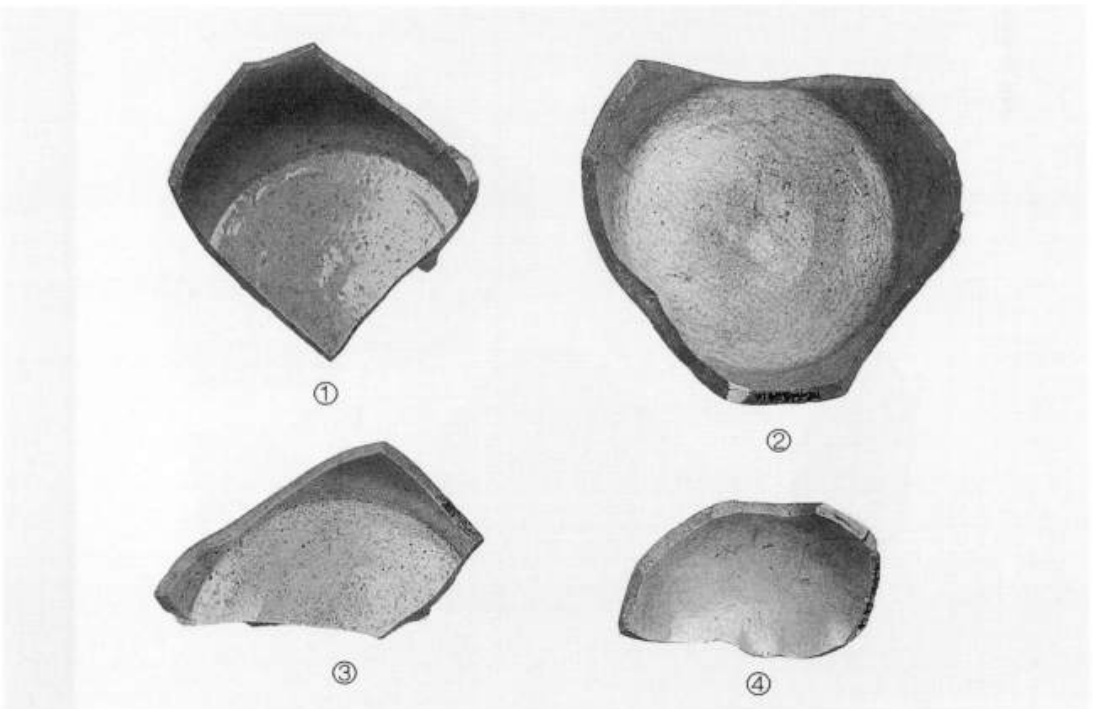

【사진 147】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9 (①~④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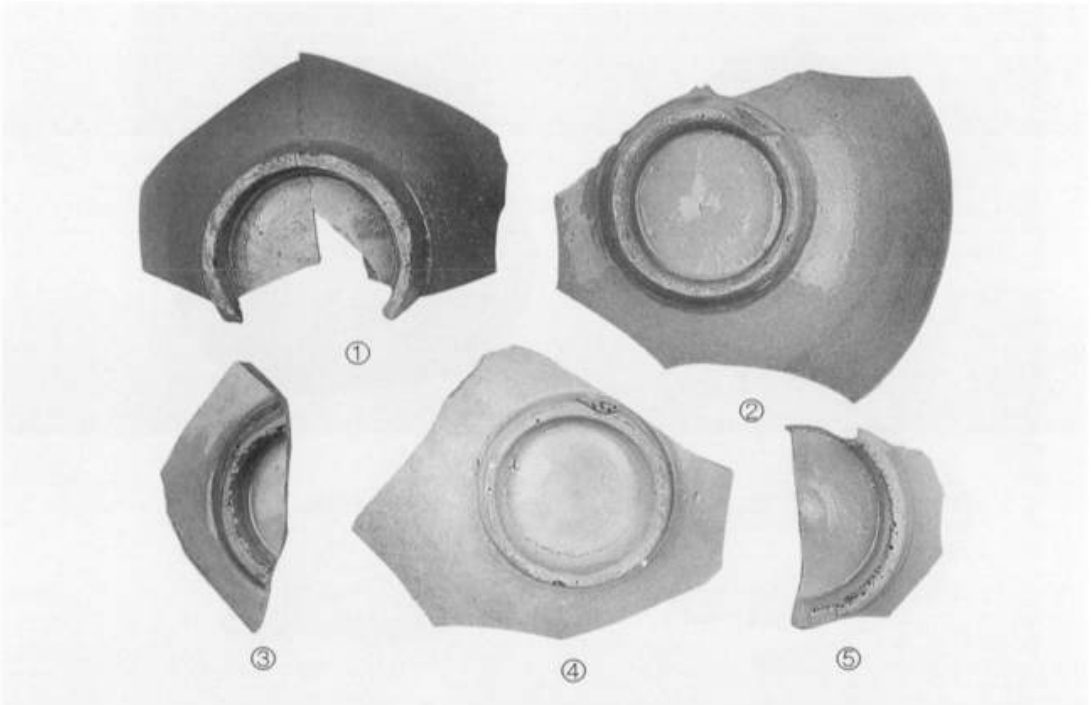

【사진 148】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9 (①~④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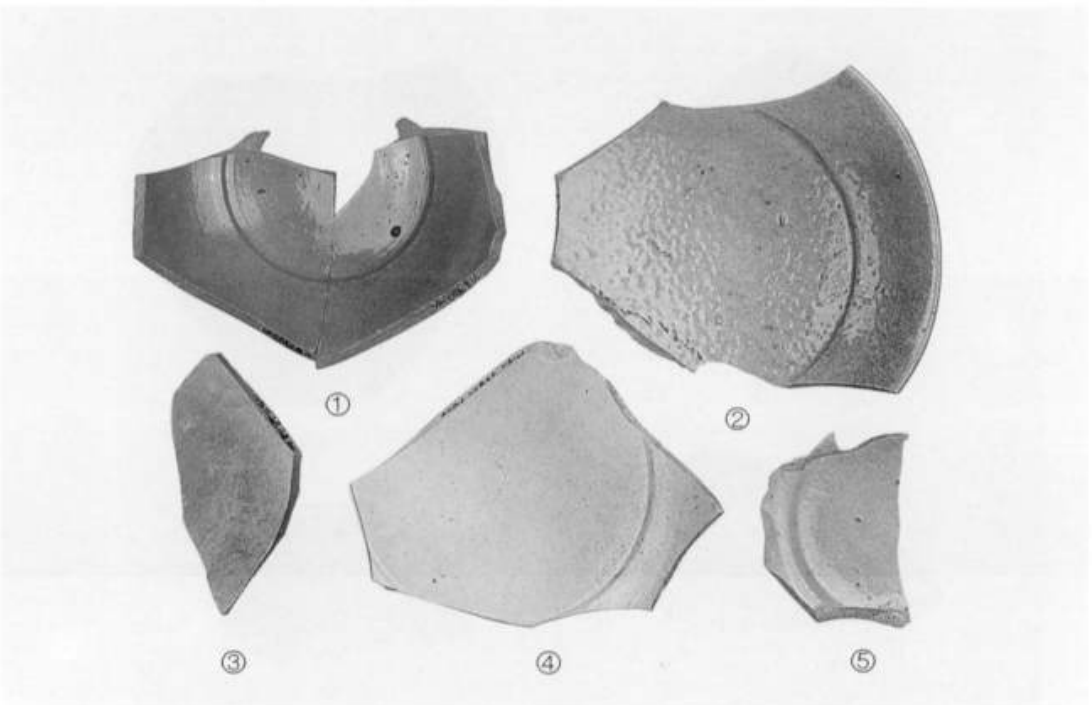

【사진 149】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0 (①~④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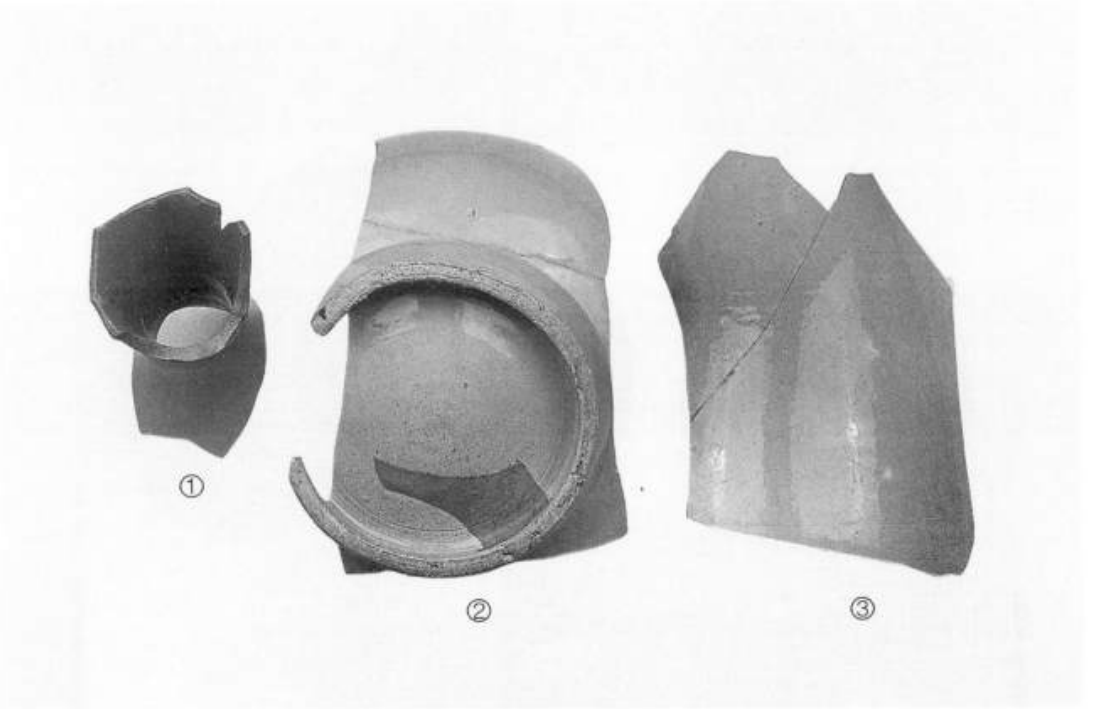

【사진 150】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0 (①~④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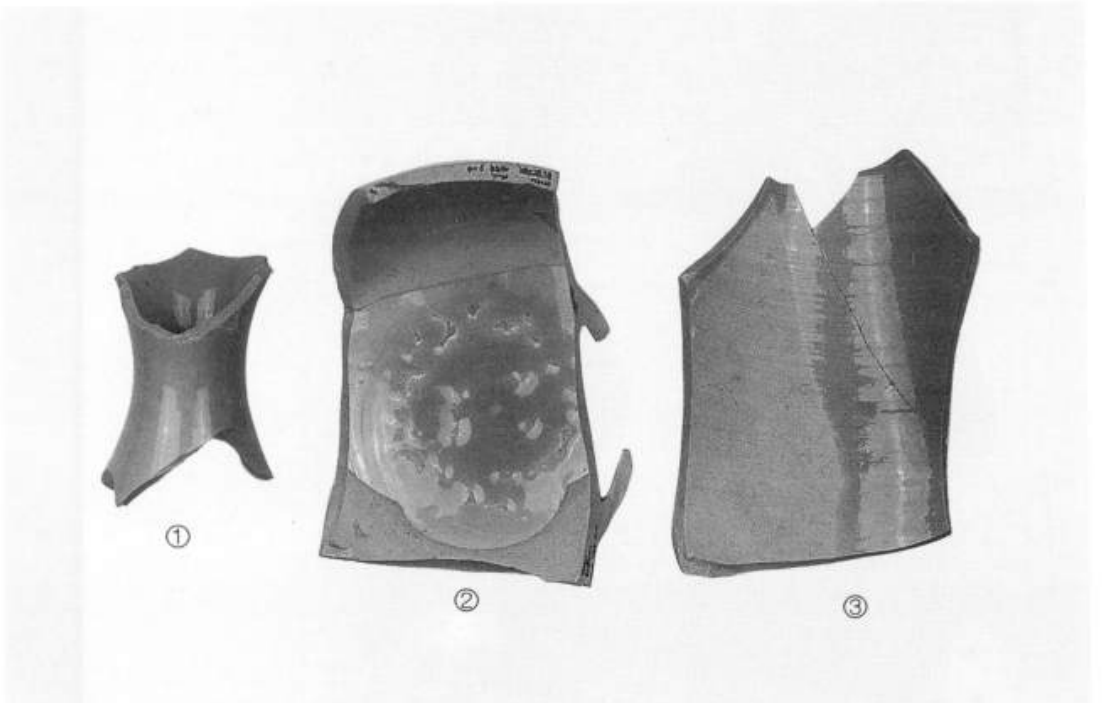

【사진 151】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1 (①~⑤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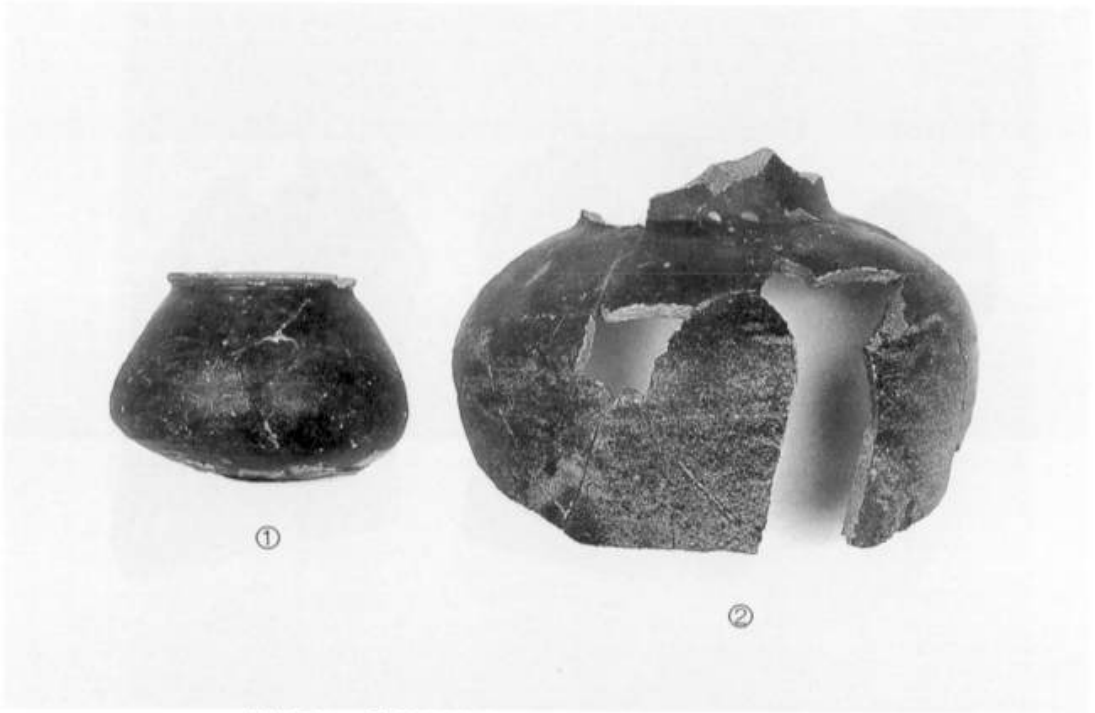

【사진 152】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1 (①~⑤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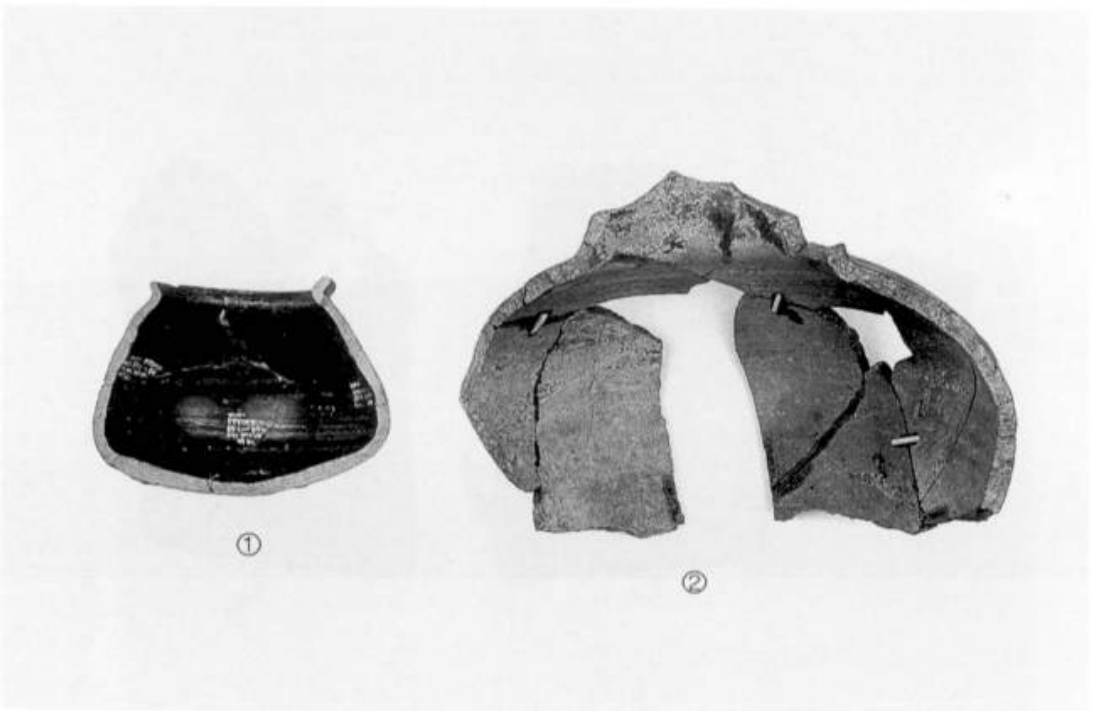

【사진 153】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2 (①~③외면)




【사진 154】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2 (①~③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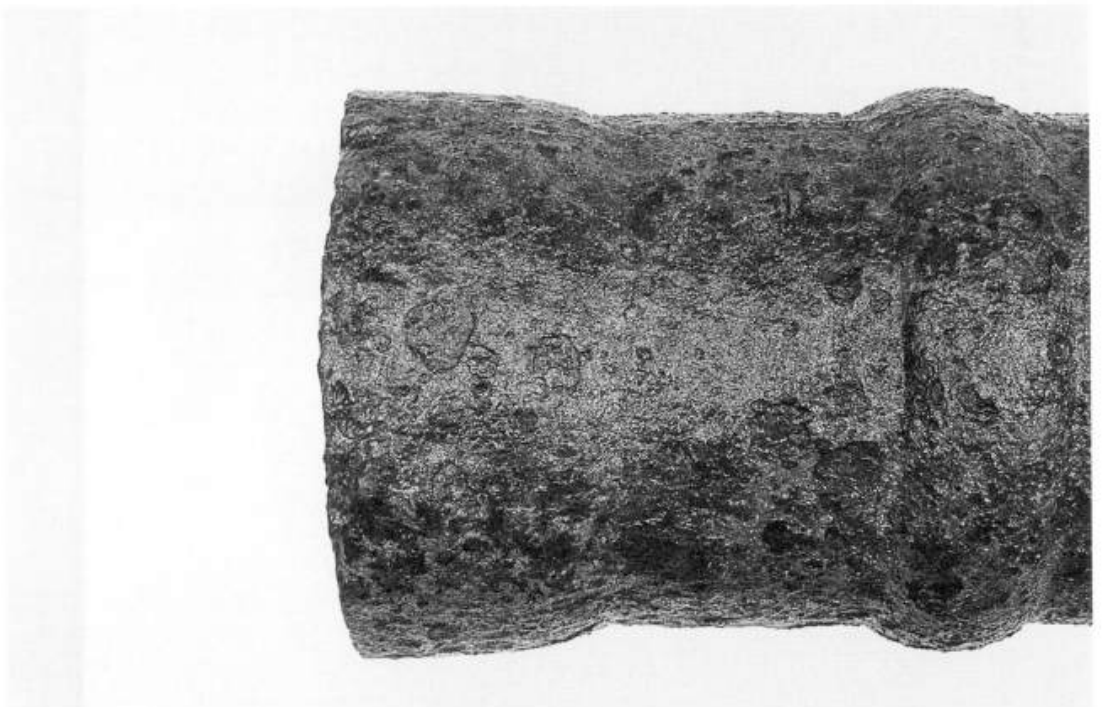



【사진 155】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3 (①②외면)




【사진 156】 임진산성 출토 자기류 13 (①②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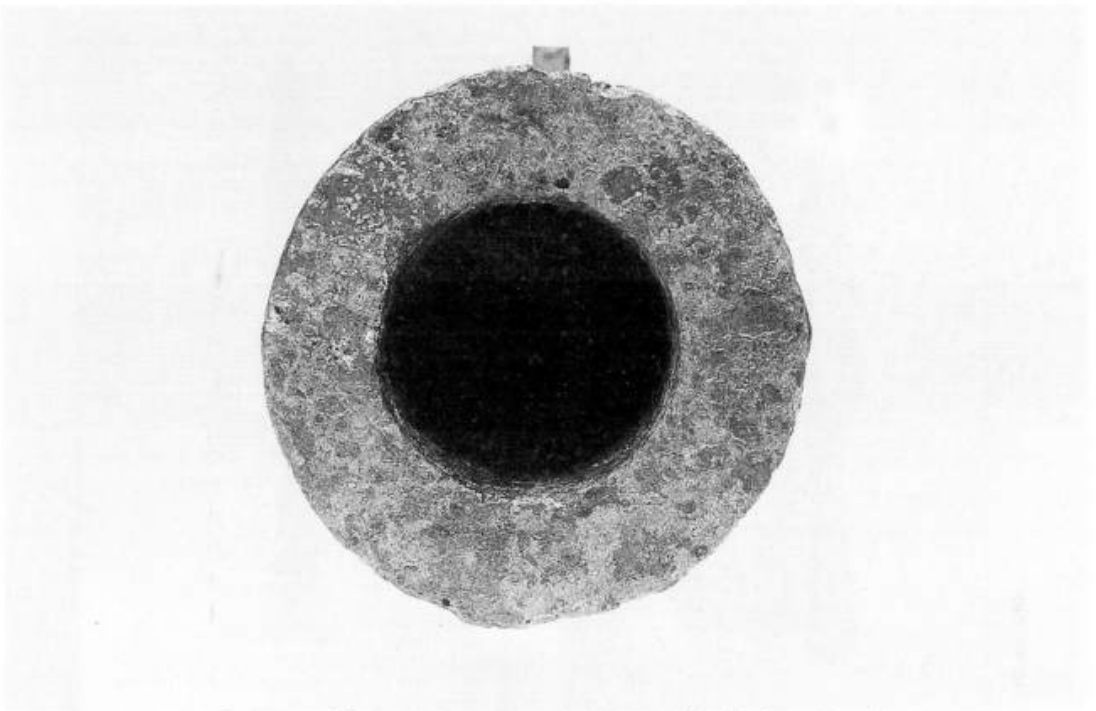
【사진 157】 임진산성 출토 玄字銃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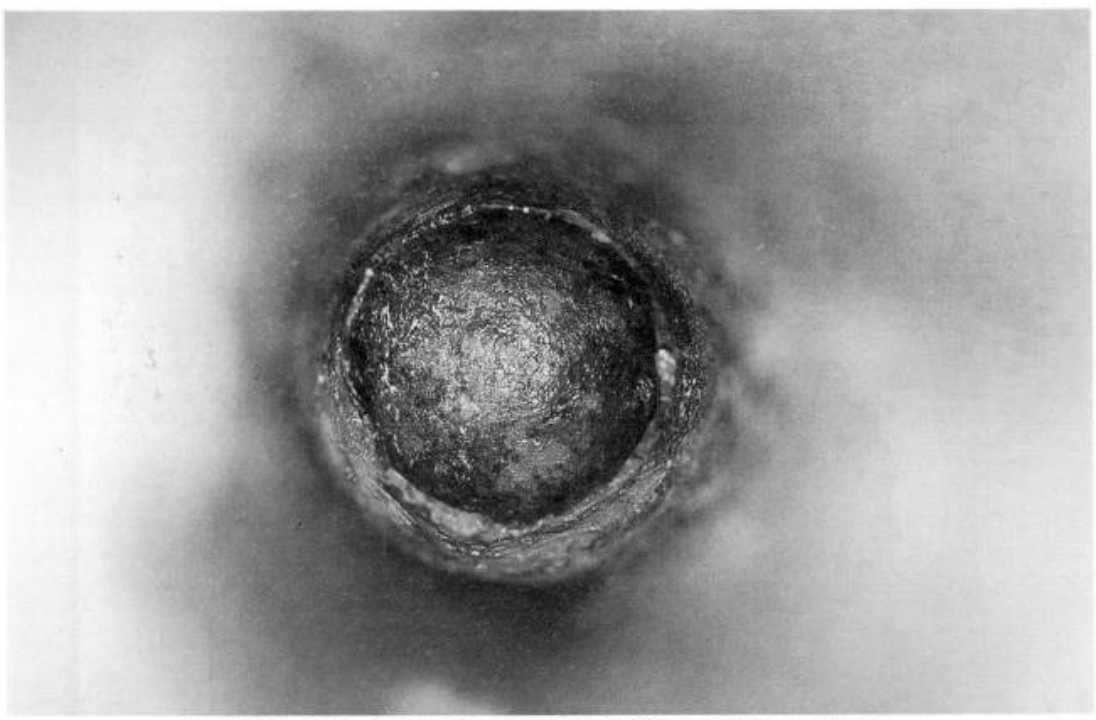
【사진 158】 임진산성 출토 玄字銃筒 세부상태 1 (砲口 入)

【사진 159】 임진산성 출토 玄字銃筒 세부상태 2 (擧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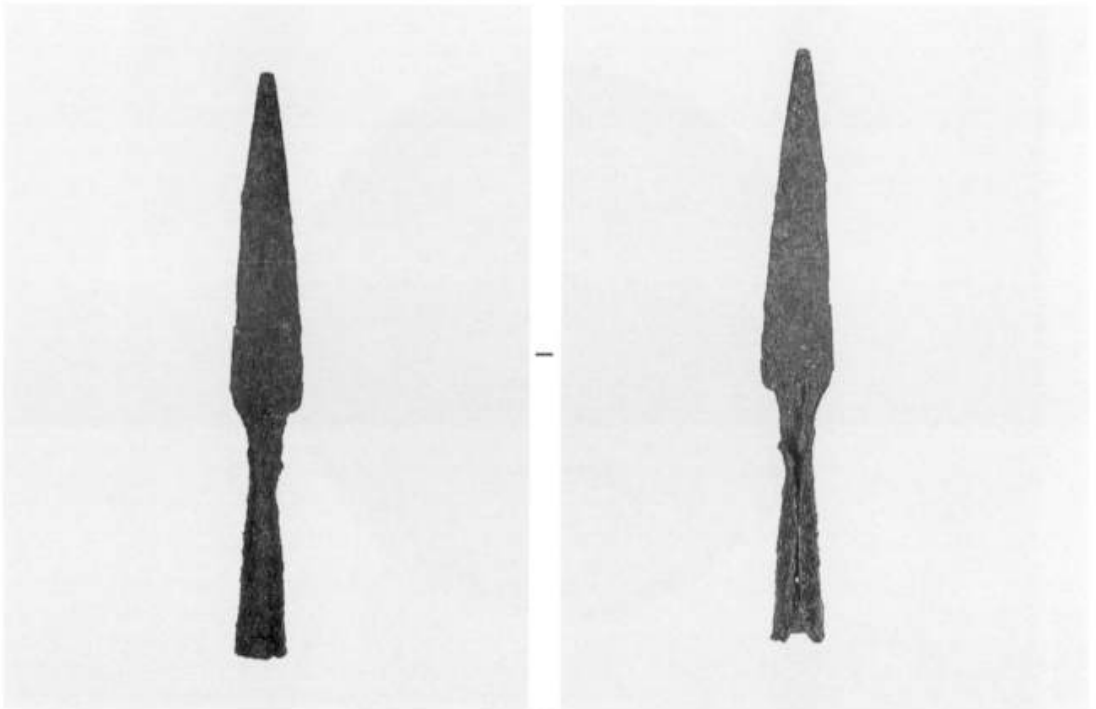
【사진 160】 임진산성 출토 玄字銃筒 세부상태 3 (砲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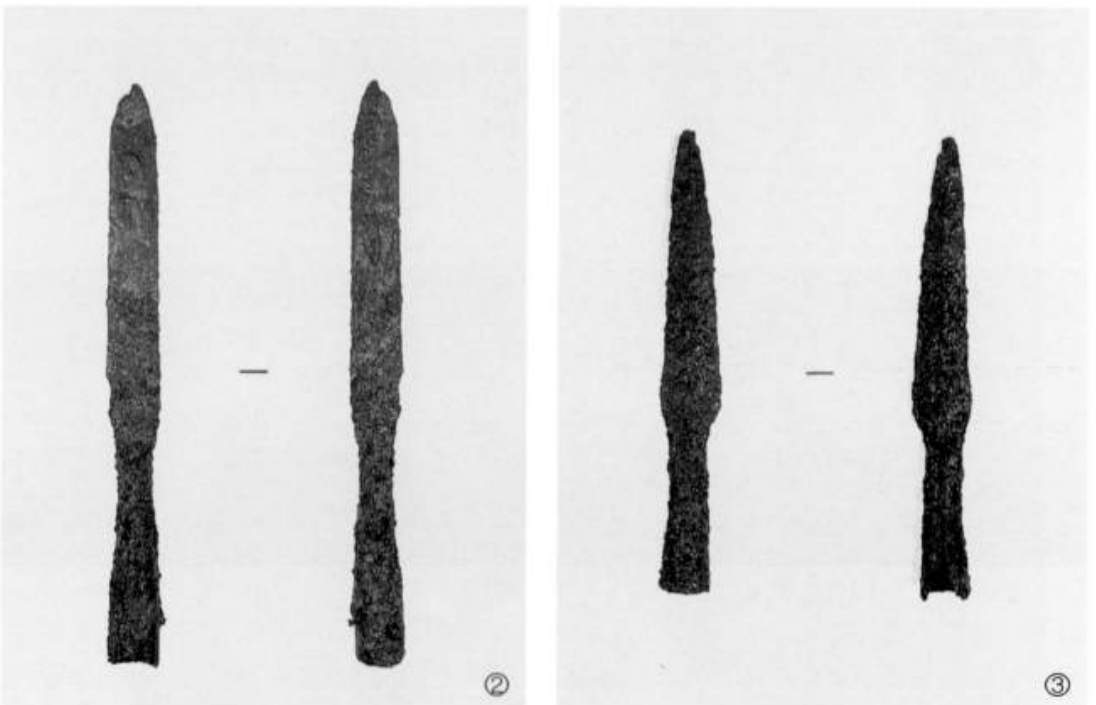
【사진 161】 임진산성 출토 玄字銃筒 세부상태 4 (砲口)



【사진 162】 임진산성 출토 玄字銃筒 세부상태 5 (彈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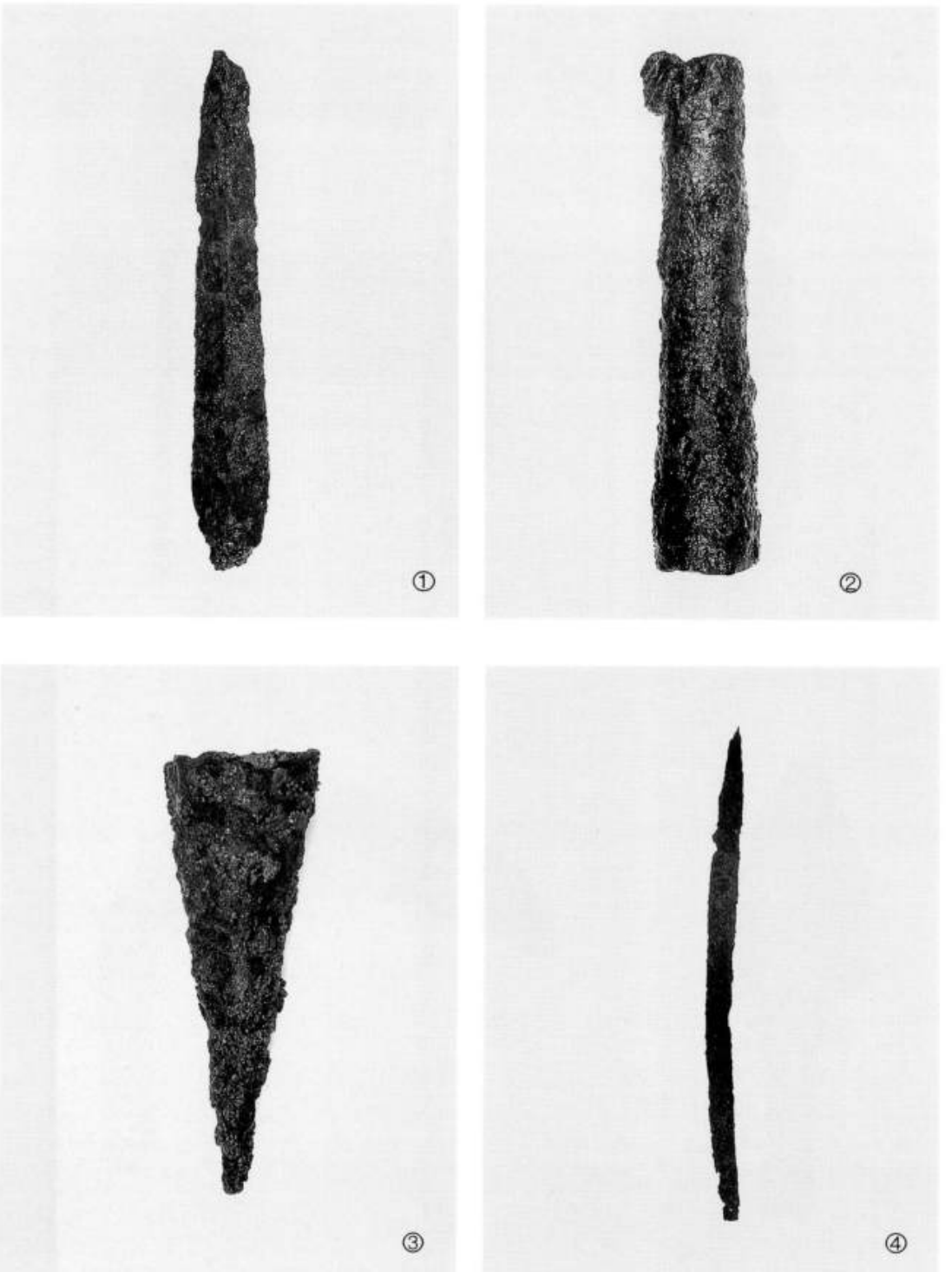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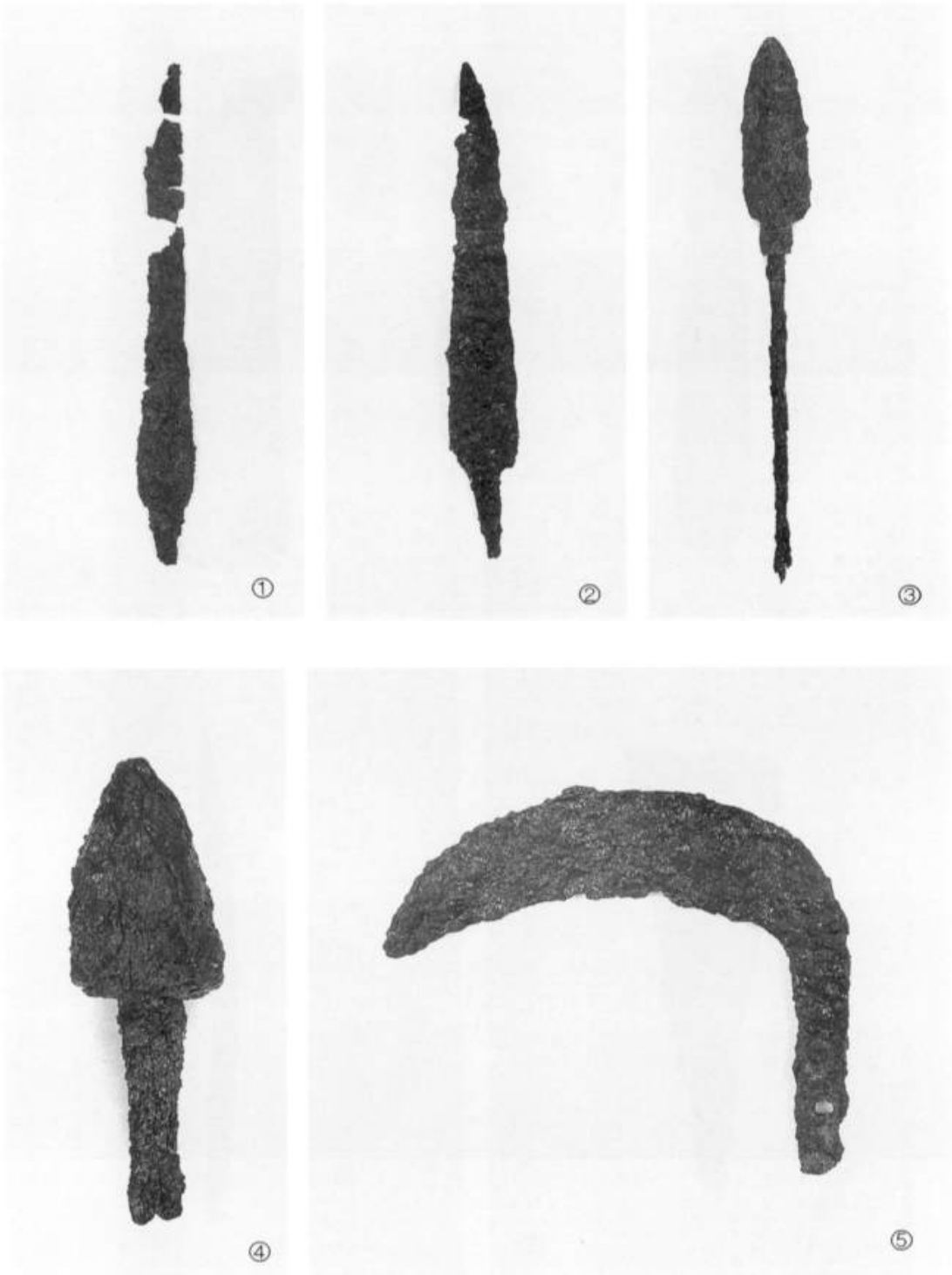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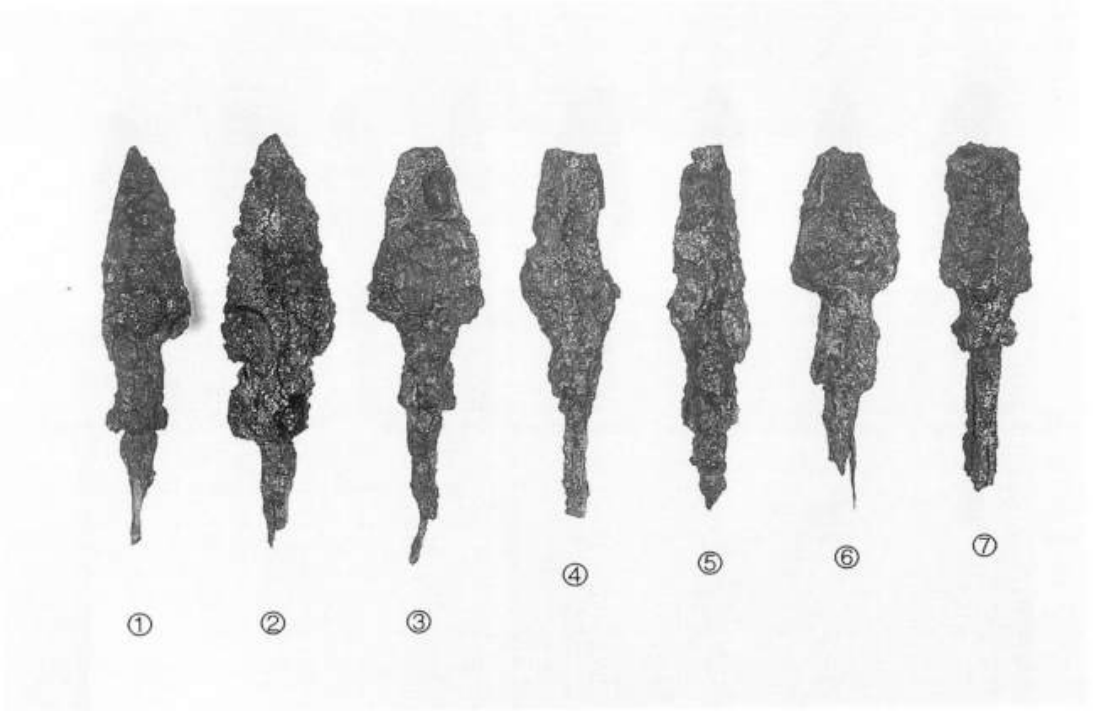
【사진 163】 임진산성 출토 철제무기류 1 (①~③鐵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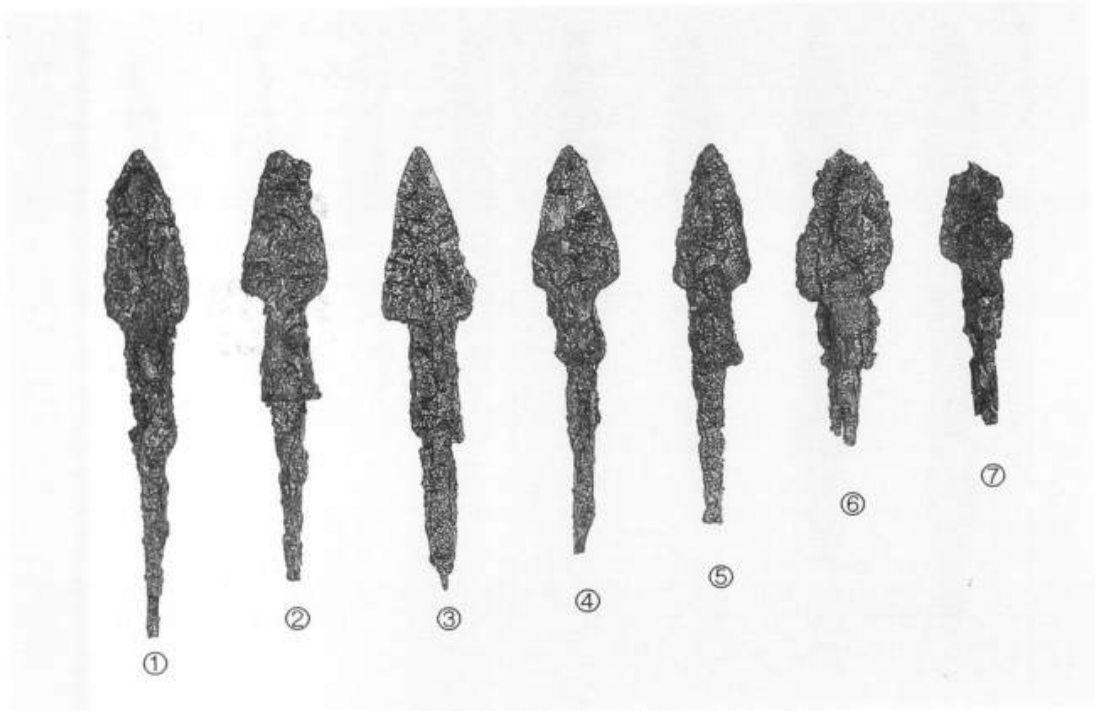

【사진 164】 임진산성 출토 철제무기류 2 (①②鐵矛, ③鐵鏃, ④小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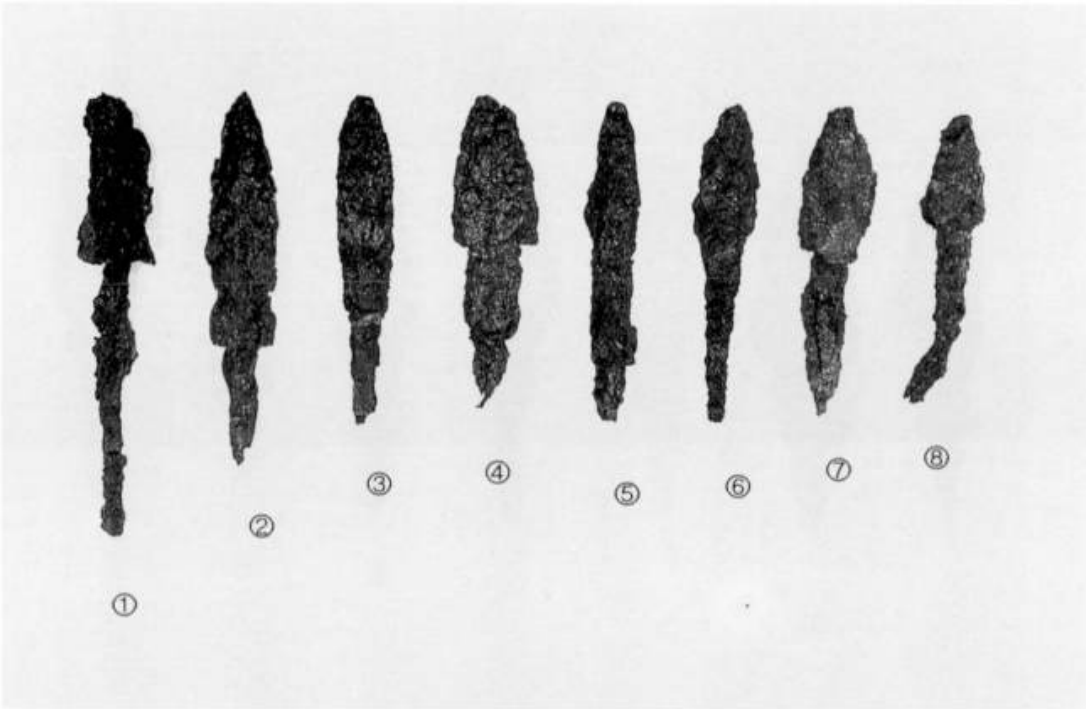

【사진 165】 임진산성 출토 철제무기류 3 (①②刀子, ③④箭鏃, ⑤鐵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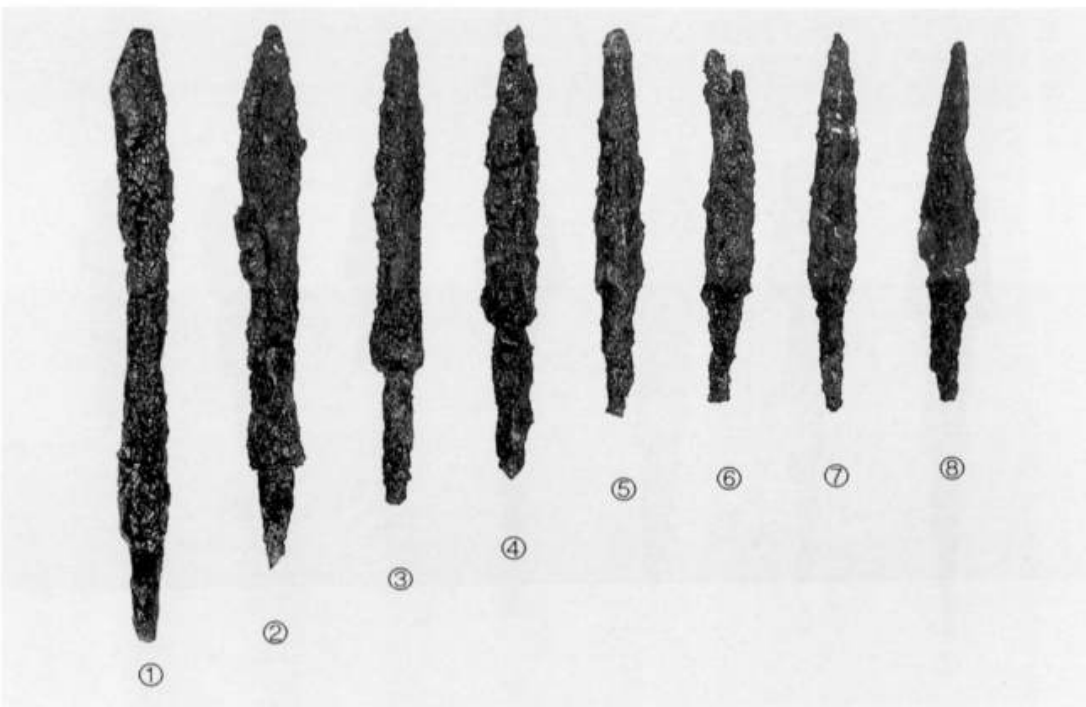

【사진 166】 임진산성 출토 철촉 1 (①~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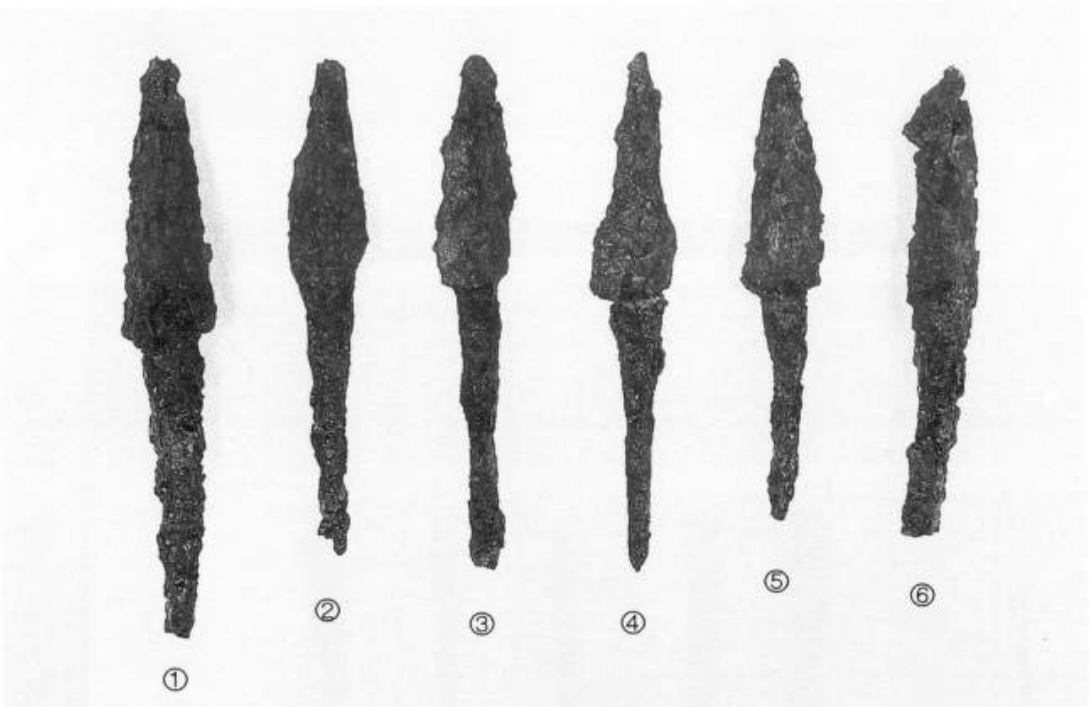

【사진 167】 임진산성 출토 철촉 2 (①~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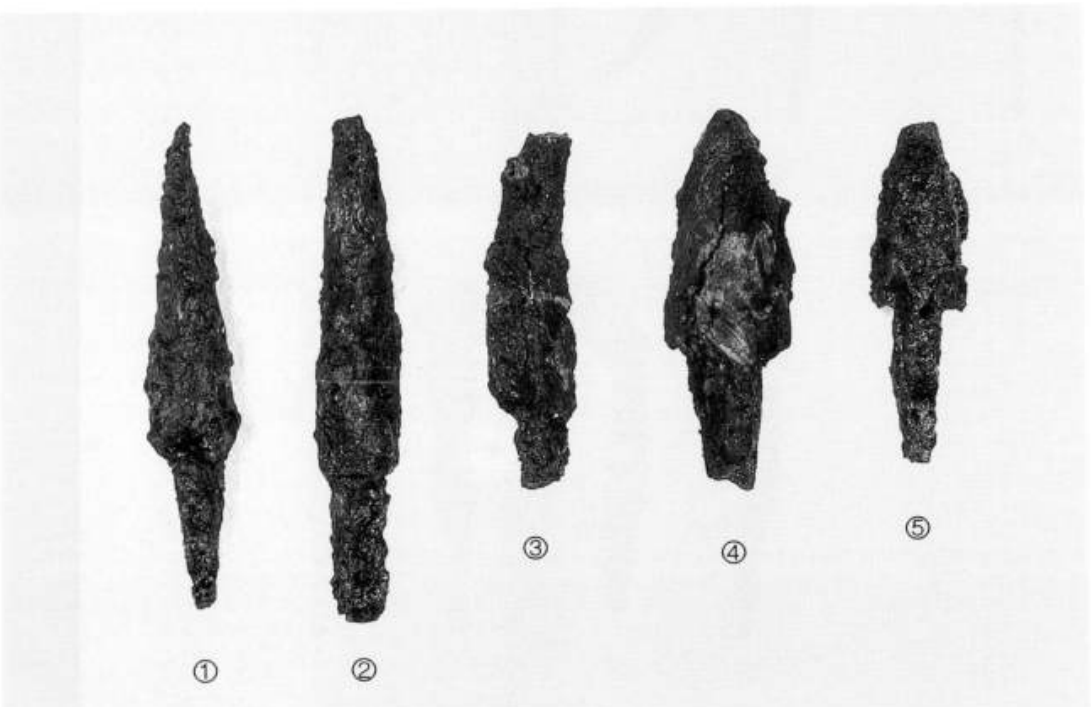

【사진 168】 임진산성 출토 철촉 3 (①~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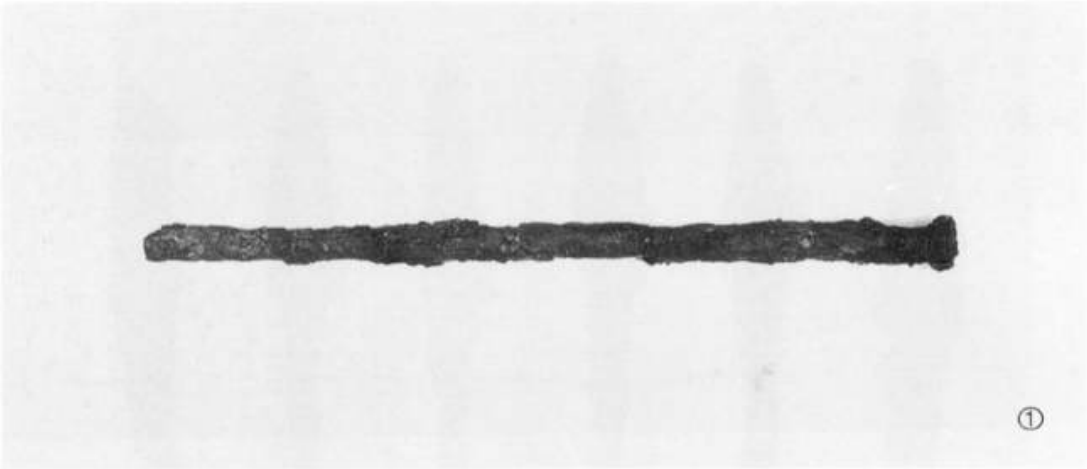

【사진 169】 임진산성 출토 철촉 4 (①~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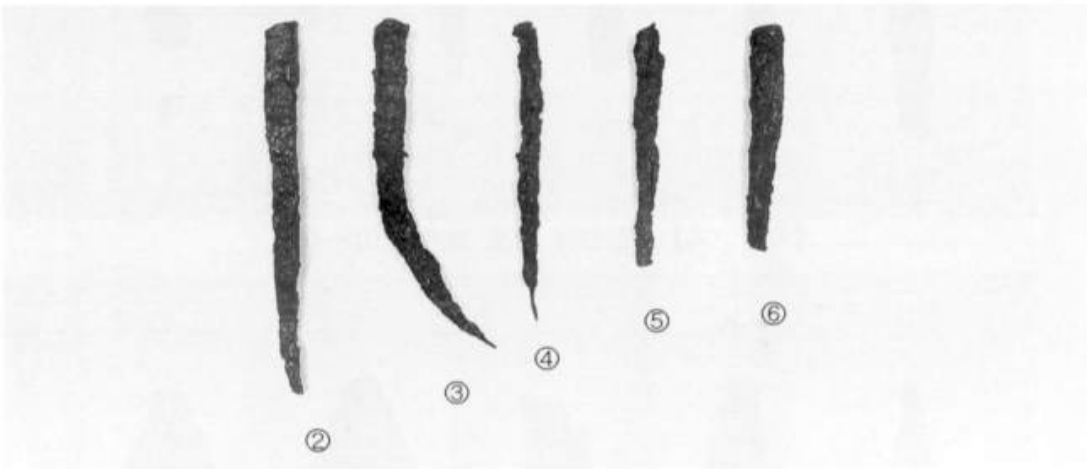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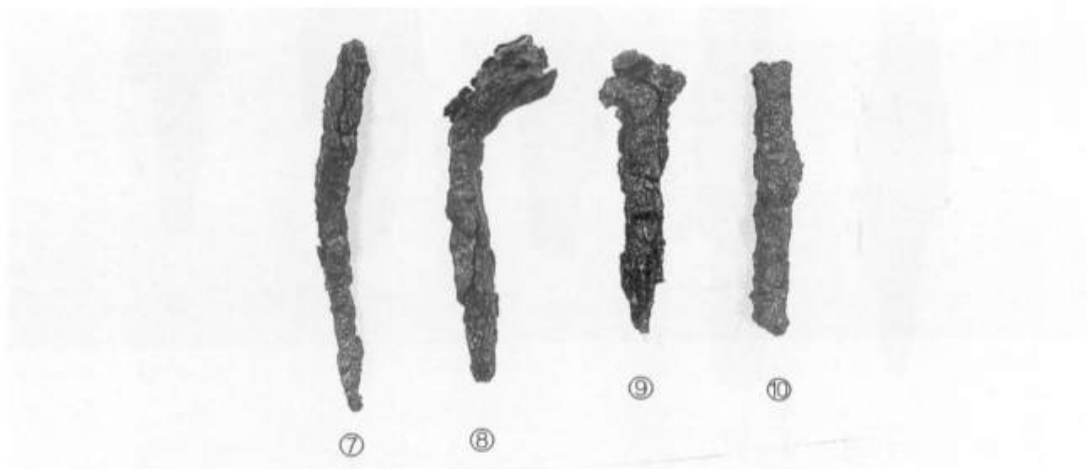

【사진 170】 임진산성 출토 철촉 5 (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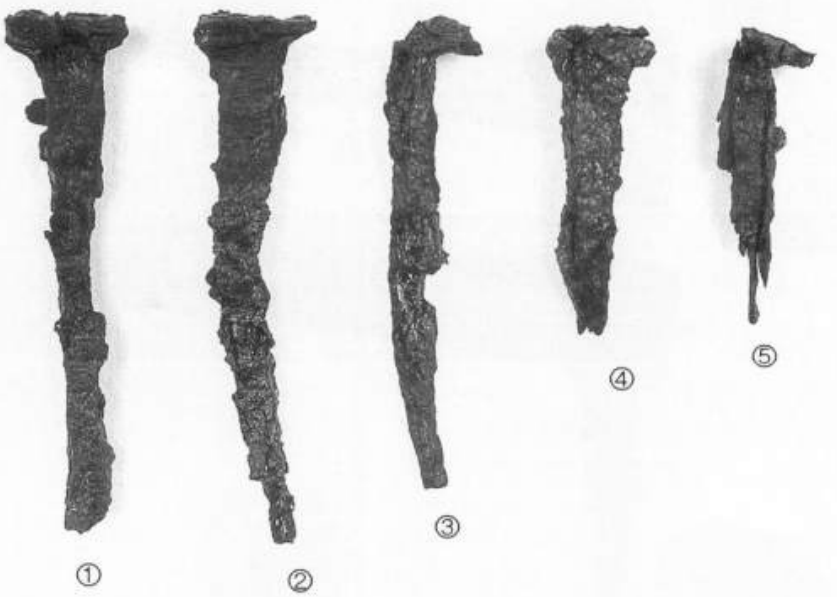

【사진 171】 임진산성 출토 철촉 6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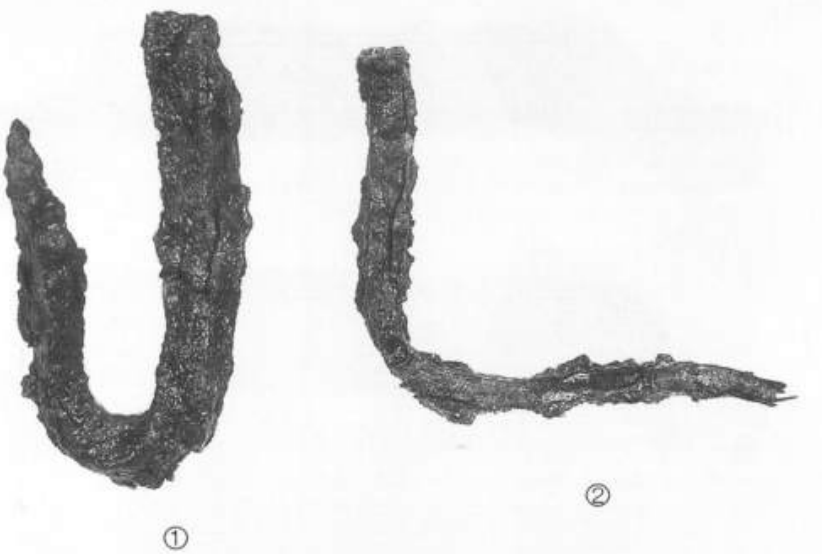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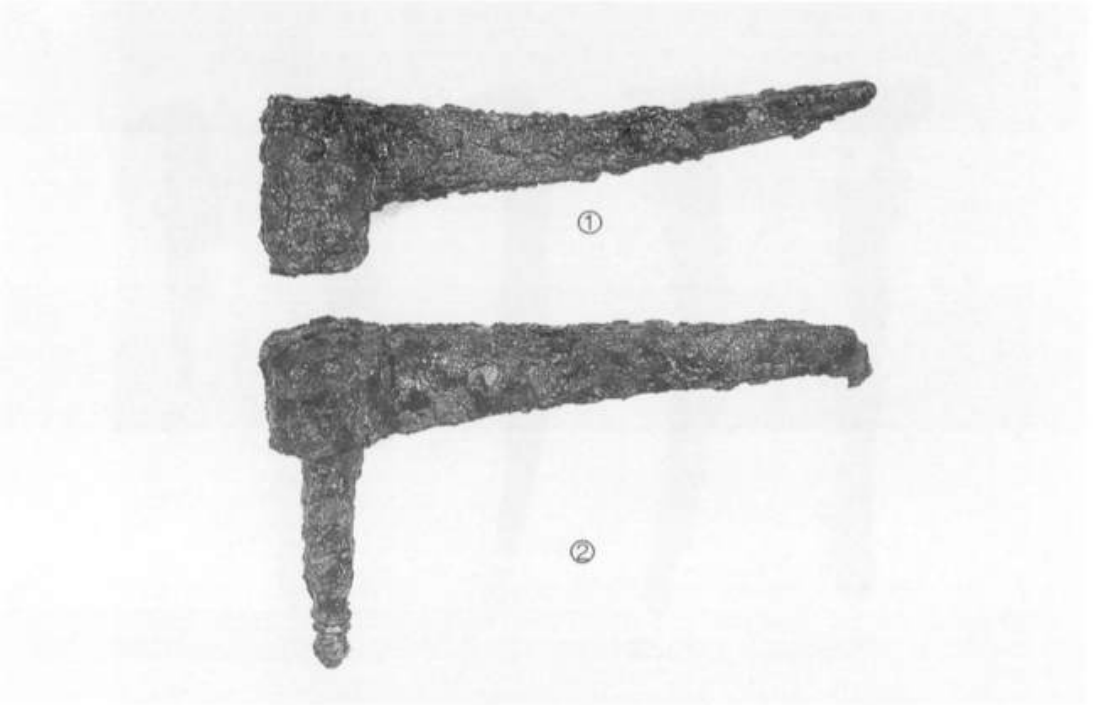

【사진 172】 임진산성 출토 철착·철정 1 (①철착, ②~⑩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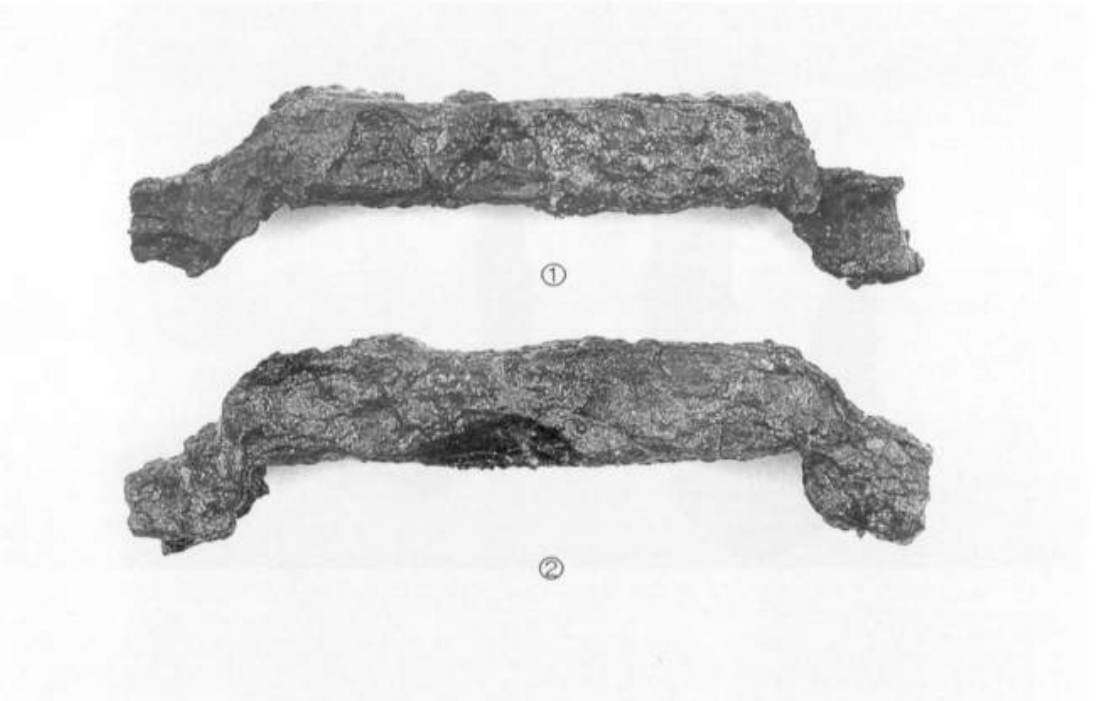

【사진 173】 임진산성 출토 철정 2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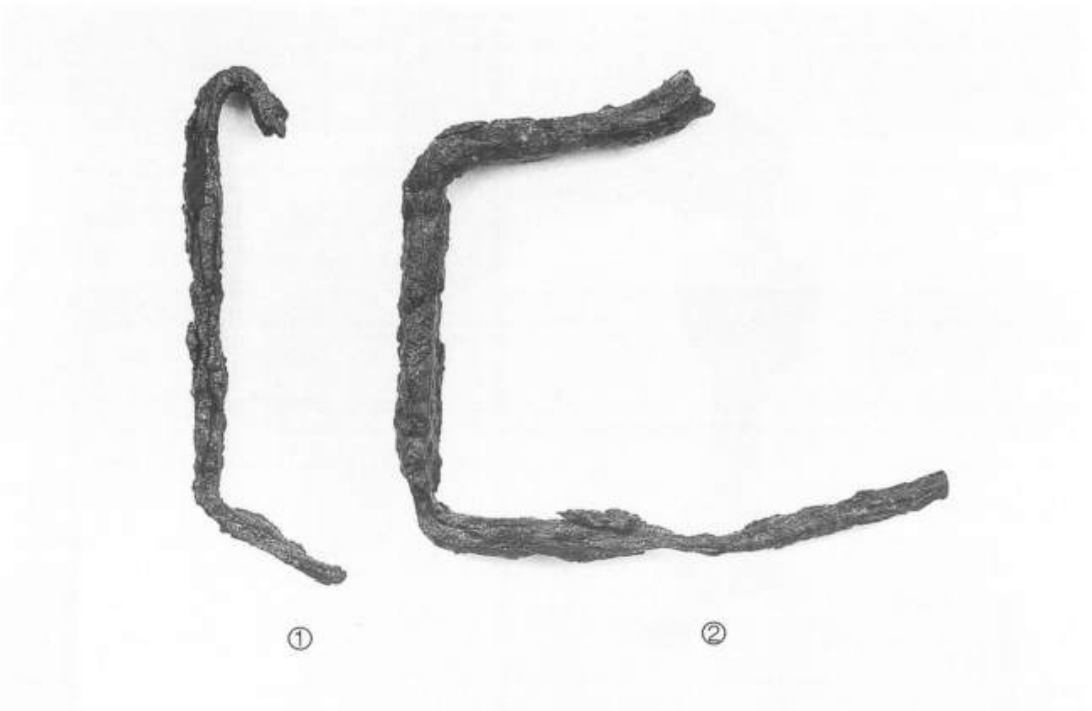

【사진 174】 임진산성 출토 철정 3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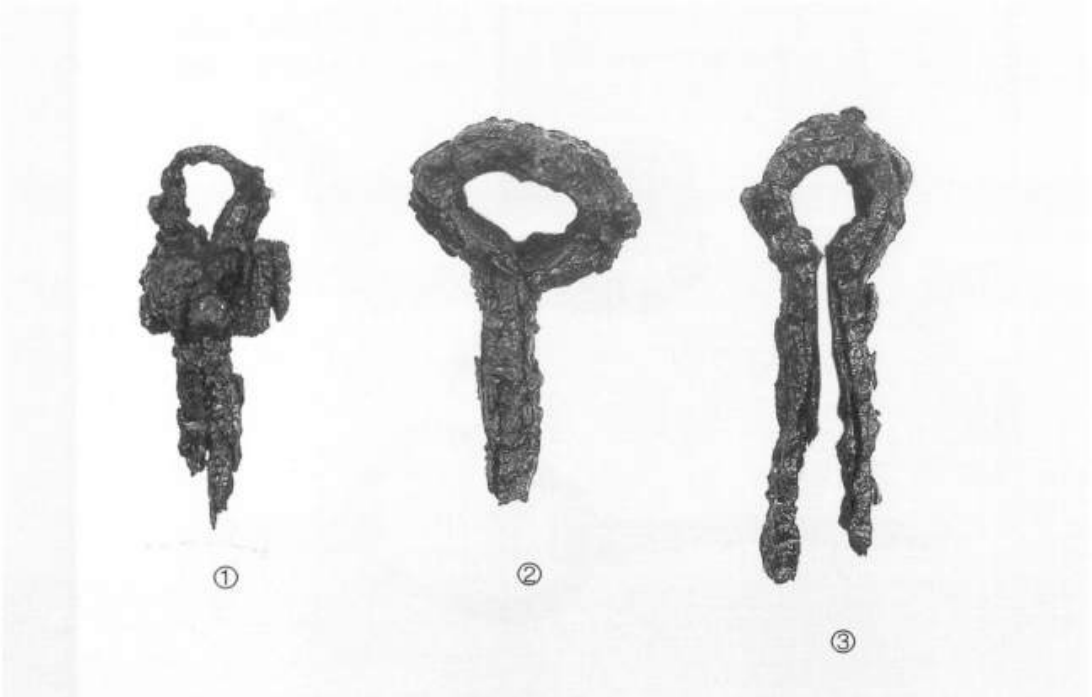

【사진 175】 임진산성 출토 철제돌쩌귀 (①암돌쩌귀, ②수돌쩌귀)




【사진 176】 임진산성 출토 철제손잡이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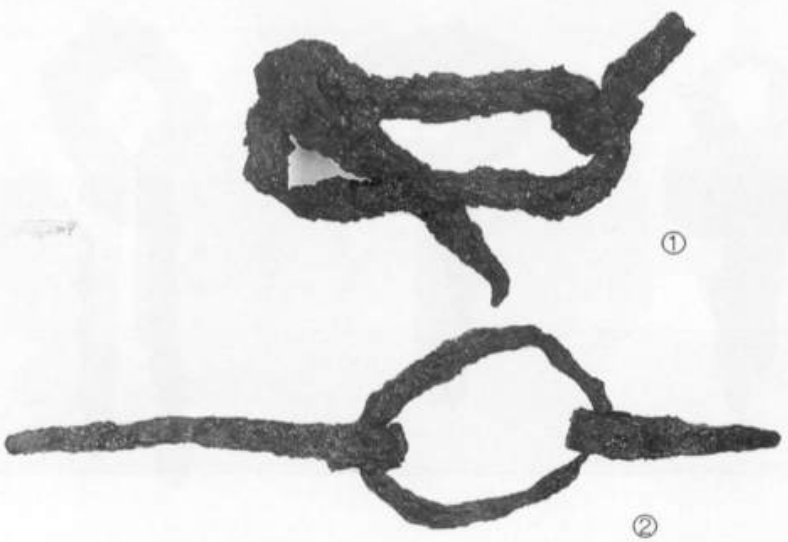



【사진 177】 임진산성 출토 철제꺽쇠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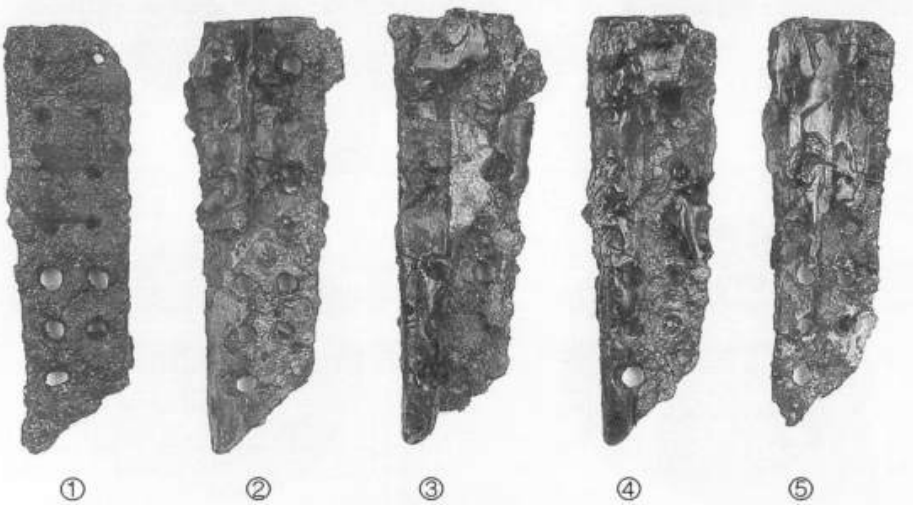



【사진 178】 임진산성 출토 철제고리 1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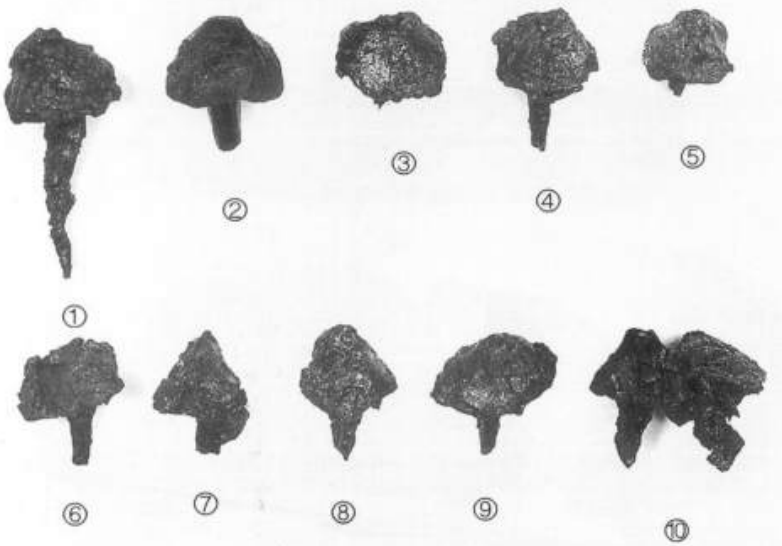
【사진 179】 임진산성 출토 철제고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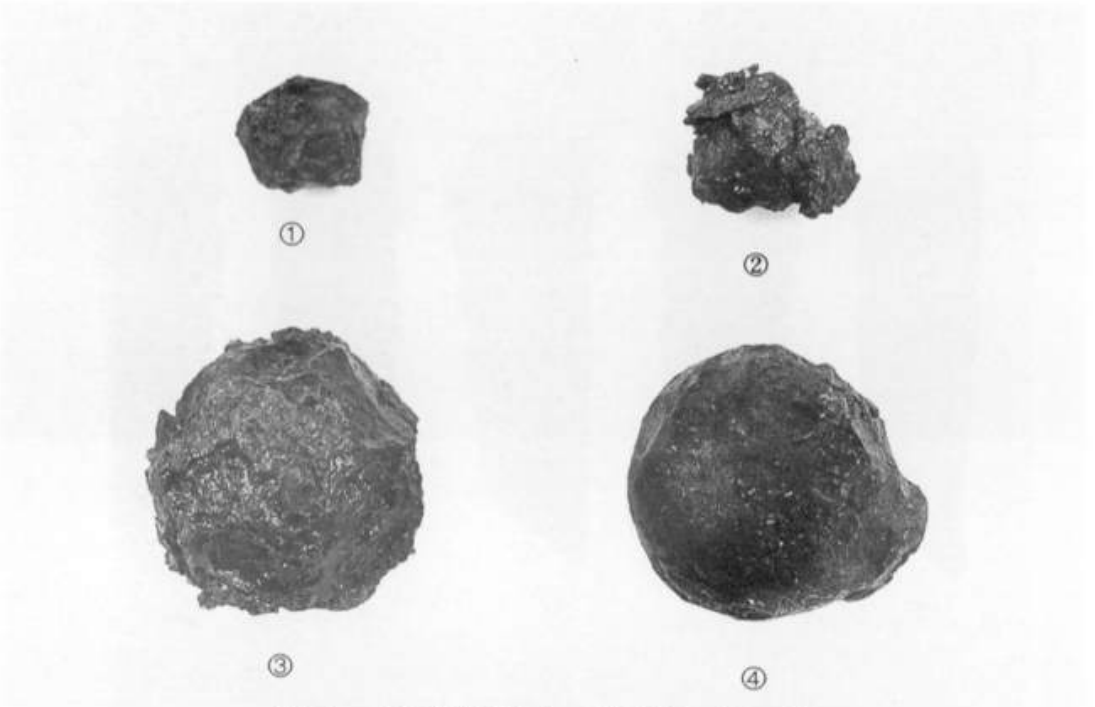

【사진 180】 임진산성 출토 철제고리 3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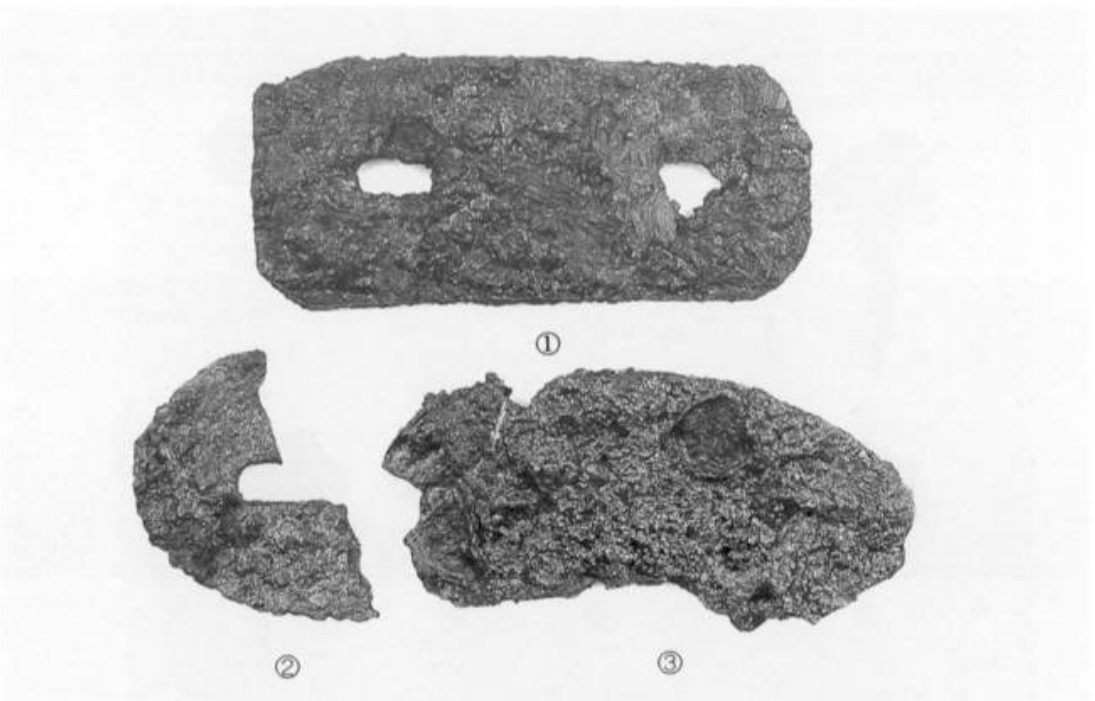

【사진 181】 임진산성 출토 철제칼집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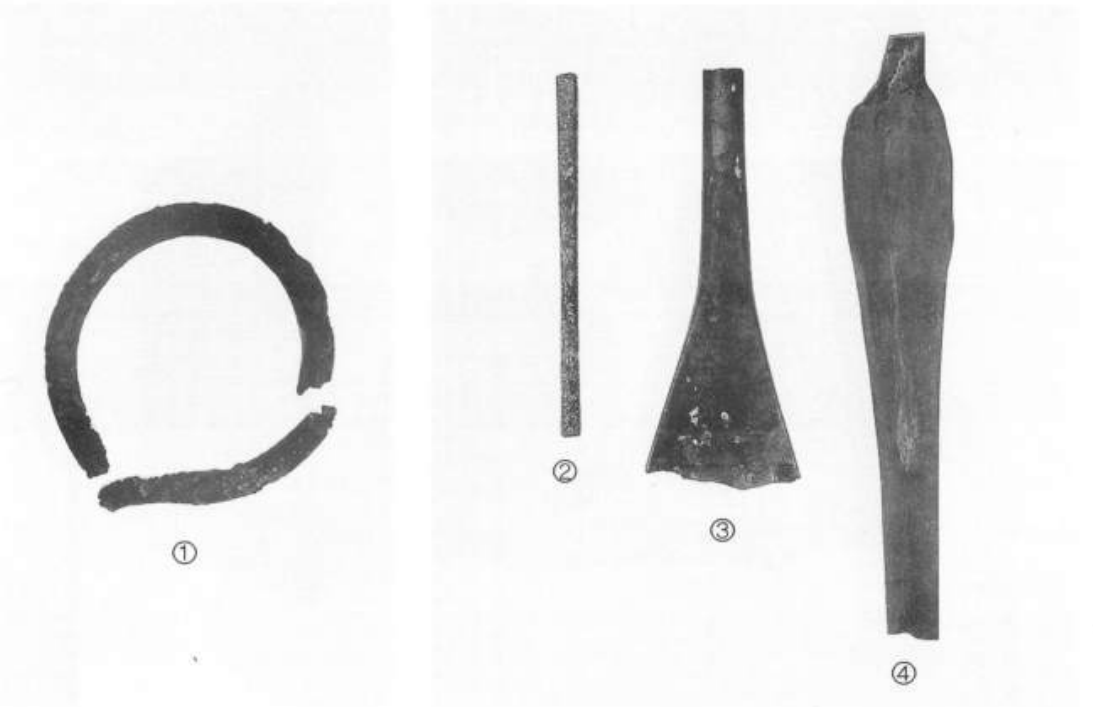

【사진 182】 임진산성 출토 장식용철정 (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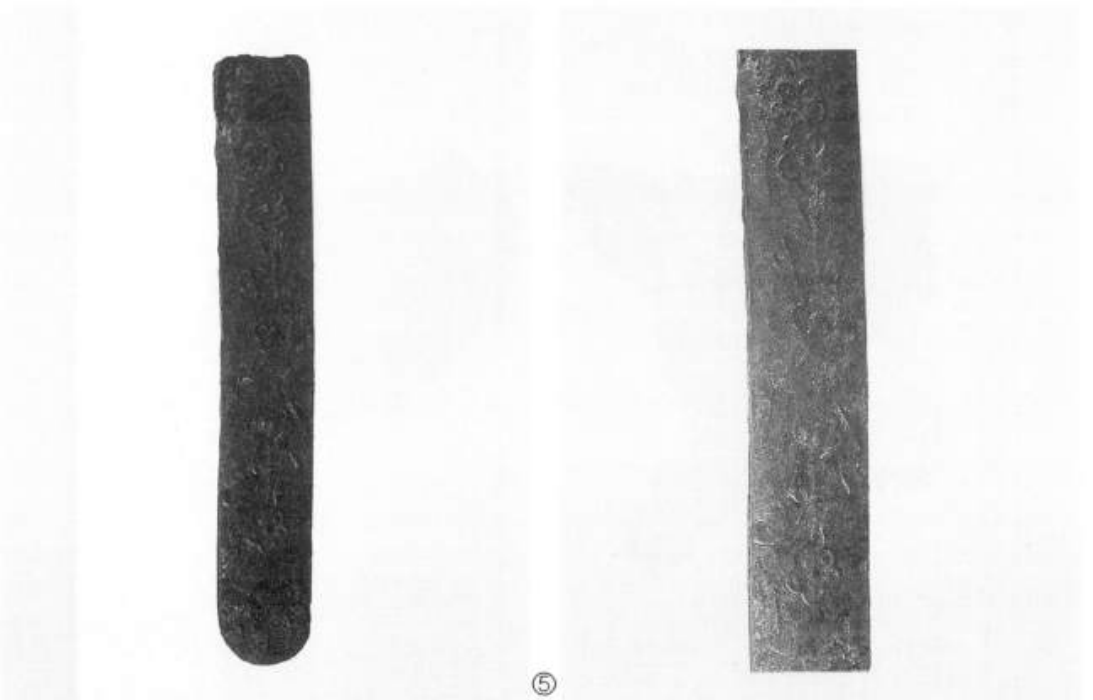



【사진 183】 임진산성 출토 鐵製彈丸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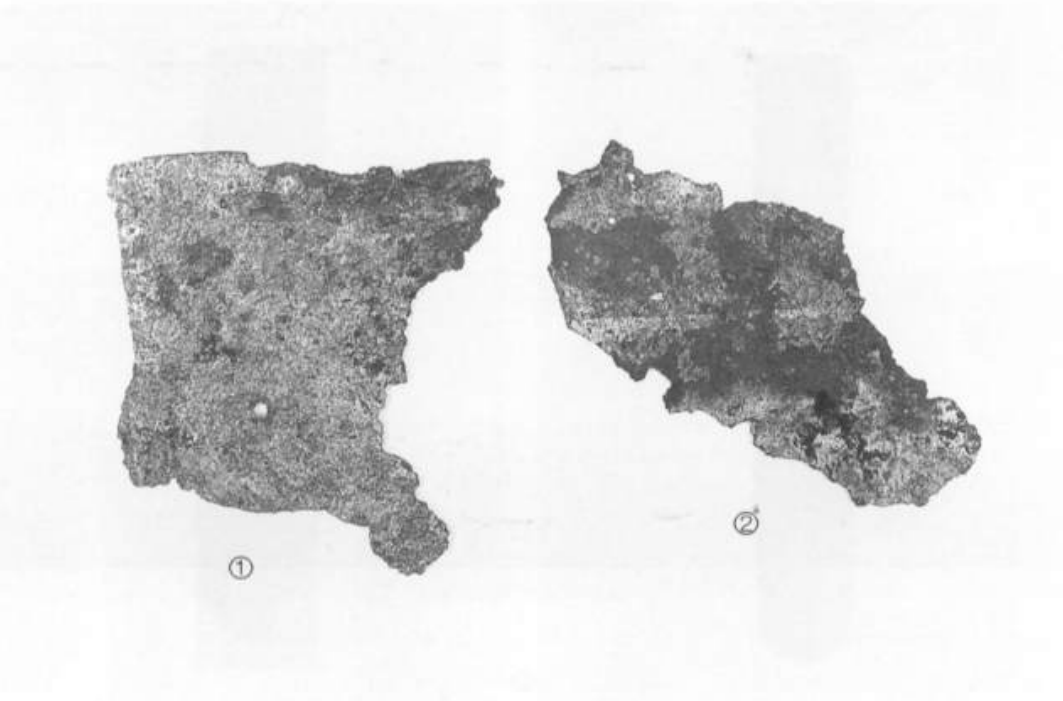

【사진 184】 임진산성 출토 철제류 (①鐵製品, ②鐵鎖, ③鐵鎌片)




【사진 185】 임진산성 출토 청동제류(①靑銅環, ②靑銅箸, ③④靑銅匙, ⑤靑銅梨花文粧刀鞘)

【사진 186】 임진산성 출토 청동용기편




【사진 187】 임진산성 출토 금동편 (①②)

## 【부록】

1. 용인 임진산성 출토 천제유물의 금속조직학적 관찰
2. 용인 임진산성 출토 금동편의 금속학적 고찰
3. 용인 임진산성 출토 금속유물의 과학적 보존
4. 용인 임진산유적 시굴조사 보고

2000

京畿道博物館

【 부록 1 】

# 용인 인진산성 출토 철제유물의 금속조직학적 관찰


성광용(대선보건대학 박물관학과)

최광진(홍익대학교 금속공학과)

박장식(홍익대학교 금속공학과)

백종오(경기도박물관)

김용신(경기도박물관)



2000

京畿道博物館

# 용인 임진산성 출토 철제유물의 금속조직학적 관찰

다음은 용인 임진산성에서 출토된 유물 중 아래 <표 1>에 보인 철기 6점의 금속조직을 관찰한 결과이다.

<표 1> 용인 임진산성 출토 철제유물

| 번호 | 유 물 명 | 규 격 | 출토일 | 비고 |
|---|---|---|---|---|
| 1 | 철모편 | 길이: 18cm 무게: 164g 지름: 4cm | 1997.6 | 보존처리완료 |
| 2 | 철모편 | 길이: 18.6cm 무게: 131g 너비: 2.6cm | 1997.6 | 보존처리완료 |
| 3 | 철탄환편 | 지름: 1.6cm 무게: 17g | 1997.6 | 보존처리완료 |
| 4 | 철정편 | 길이: 2cm 무게: 8g | 1997.6 | 보존처리완료 |
| 5 | 철정편 | 길이: 12cm 무게: 14g | 1997.6 | 보존처리완료 |
| 6 | 철촉편 | 길이: 9.5cm 무게: 24g | 1997.6 | 보존처리완료 |

그림 1.1에는 철판(모신)의 외형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1.2, 1.3 및 1.4에는 광학현미경 조직사진을 실었다. 두 점의 분석시편이 그림 1.1에 화살표로 표시된 두 부분에서 채취되었다. 전체적인 조직의 특성은 시편의 위치에 관계없이 유사하였으므로 두 점의 시편에서 촬영한 대표적인 조직 사진 세 점을 실었다.

우선 그림 1.2의 저 배율 사진의 가로방향으로 확인되는 줄무늬는 시편내의 국부적인 탄소함량의 차이에 의하여 초래되는 조직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상의 변화는 두 개 이상의 판재를 고온에서 단접하여 철제품을 만들 경우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단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기는 가는 리본 모양의 크고 작은 결함이 단접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을 그림 1.1에서는 물론 고배율 사진인 그림 1.3 및 1.4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단접선은 그림 1.3에서 탄소를 거의 함유하지 않아 순철에 가까운 밝은 색의 페라이트 조직을 가로지르고 있으나 그림 1.4에서는 탄소함량이 공석에 조금 못 미칠 경우 얻어지는 조직, 즉 검은 색의 퍼얼라이트내에 밝은 색의 페라이트가 조금 섞여 전체적으로 어둡게 나타나는 부위를 가로지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조직 사

전을 자세히 관찰하면 단접선을 따라 형성된 결함부위 이외의 부분에서는 여타의 介在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치밀한 조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만일 저온환원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괴련철이 원소재이었다면 굳이 단접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함께 그림 1.1의 천부 제작에 사용된 원소재가 강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조직사진에서 확인되는 부위별 탄소함량의 변화는 함탄량이 서로 다른 철소재를 단접하였거나 또는 저탄소의 소재를 침탄처리하여 표면의 탄소함량을 높인 후 단접하였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의 경우는 철소재를 생산할 때 철의 함탄량을 조절하는 기술이 당대에 존재하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의하여 그 자세한 기술상황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저탄소의 소재를 일률적으로 생산한 뒤 그 중 일부를 단접에 앞서 침탄처리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1.3 및 1.4에 나타난 페라이트 조직의 형태로 보아 이 천편은 오스테나이트로 존재하는 높은 온도영역으로부터 비교적 빠른 속도로 냉각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함탄량이 높은 곳에서도 마르텐사이트가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담금질 처리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은 참모편(투겁)의 외형을 보여주는 실측도이며 그림 2.2, 2.3 및 2.4에는 그림 2.1의 화살표 부위에서 채취한 시편에서 찍은 광학현미경 조직사진을 실었다. 그림 2.2에도 그림 1.2에서와 같은 길이방향으로 연신된 리본 모양의 검은색 결함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이 천모편 또한 단접에 의하여 가공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3 및 2.4의 확대도를 자세히 관찰하면 단접흔적으로 추정되는 검은색의 조대한 선형 결함이외에는 별다른 介在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강재가 원소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편에서도 부위에 따라 미세조직에 차이가 있음으로 보아 함탄량이 서로 다른 강재를 단접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탄소함량의 변화가 그림 1.2에 비하여 작은 편이며 전체적인 탄소함량 자체 또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으로는 이 시편에는 공석변태 온도 보다 조금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열처리할 때 얻어지는 구상화된 탄화물 즉 구형 시멘타이트 조직이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열처리를 구상화처리라 하며 이는 철재료의 냉간가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종 사용된다. 이 열처리는 그림 2.1에서 보듯이 판재로부터 시작하여 원통형 손잡이를 정교하게 가공하기 위하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어 그 냉간가공성을 향상시

키려는 의도 하에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미세조직 상에 나타나는 페라이트의 결정립 형태로 보아 오스테나이트 온도구역에서 상온으로의 냉각은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에는 철탄환편의 외형을 나타내었으며 여기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을 보여주는 광학현미경 사진을 그림 3.2, 3.3 및 3.4에 실었다. 철탄환은 그 형태와 대량 수요를 감안할 때 주조 등 대량생산 체제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그림 3.2의 조직사진에는 이 역시 함탄량이 서로 다른 소재를 단접하여 생산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2의 중앙을 상하로 가로지르는 검은 색의 단접흔적을 기준으로 그 좌측은 탄소함량이 공석조성인 0.78%를 조금 못 미치는 아공석 조직을, 그 우측은 완전한 공석조직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철탄환제조시 먼저 탄소함량이 다른 띠 모양의 강철 판재를 여러 겹으로 겹쳐 상당한 두께의 강철괴 형태로 만든 다음 이를 입방체의 형태로 절단한 후 모서리를 두드려 구 형태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독특한 제조방법이 사용된 것은 당대의 제강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나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탄환의 경우 굳이 함탄량이 서로 다른 소재를 써서 강도와 연성을 부위별로 조정해야할 필요가 크지 않은 점과 그림 3.2에서와 같이 공석을 전후한 탄소함량 차이로는 물성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단접에 의한 가공은 소재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탄소함량이 서로 다른 판재간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겨지기보다는 강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소함량의 조절이 균일하지 않아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그림 3.3 및 3.4에 보인 아공석과 공석 부위에서의 미세조직으로부터 이 철탄환은 관찰대상인 전체 6점의 유물 가운데 가장 탄소함량이 높으며 그림 3.3에 나타난 페라이트 설정립의 형태로 보아 장기 중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냉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은 철정으로 분류된 유물의 외형 실측도이며 이 그림의 두 화살표 부위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을 그림 4.2와 4.3에 실었다. 그림 4.2 및 4.3 모두에 좌우를 가로지르는 자국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유물 또한 얇은 철판재를 단접하여 제조된 것이 확실하며 탄소함량은 0.2%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단접 부위이외의 곳에는 별다른 介在物이 보이지 않으며 조직이 치밀한 점으로 보아 이 유물 또한 원소재로 강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두 그림에

서 볼 수 있는 조직상의 큰 차이는 오스테나이트 구역에서 상온으로의 냉각속도와 단접 후 열처리 정도가 크게 달랐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천정의 몸체 즉 그림 4.2의 부위가 단조정도나 열처리 면에서 더욱 완벽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림 5.1은 철정으로 분류되었으나 천축 형태를 띤 유물의 실측도이며 그림 5.2와 5.3에는 유물의 침상 선단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을, 그리고 그림 5.4와 5.5에는 그 중간 몸통부위에서 취한 조직 사진을 실었다. 그림 5.3 및 5.5는 그림 5.2 및 5.4의 확대도이다. 그림 5.4의 검은 색 리본 모양의 결함은 단접흔적으로 이 유물 또한 상기한 유물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선단은 선단대로 몸체부위는 몸체부위대로 조직이 전체적으로 지극히 균일함을 볼 수 있다. 한편 선단과 몸체간에 관찰되는 조직상의 변화는 탄소함량과 냉각속도의 차이에 기인한다. 선단에서의 탄소함량은 몸체보다는 높으나 총 함탄량이 0.1%를 초과하지 못하며 그림 5.2 및 5.3의 페라이트 결정립 형상으로 볼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냉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미세조직상의 특징으로부터 이 유물은 최초 순철에 가까운 강괴재를 단접에 의하여 천축 형태로 가공한 후 선단부위만 침탄처리에 의하여 그 탄소함량을 높였으며 그 뒤 빠른 속도로 냉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은 천축으로 분류된 유물의 실측도이며 그림 6.2는 그림 6.1의 두 화살표 부위에서 채취한 시편의 대표적인 미세조직을 보여주는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이 유물 또한 단접에 의하여 가공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시편에서와는 달리 시편의 전 부위에 걸쳐 균일한 조직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함탄량 0.2% 부근의 저탄소강의 괴재를 단접하여 제작한 뒤 비교적 빠른 속도로 냉각시킴으로서 그림 6.2에 보이는 것과 같은 침상의 페라이트 결정립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관찰한 임진산성 출토 철기유물은 그 미세조직으로 보아 강을 기초 소재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리본 형태의 철판 여럿을 단접하여 가공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의 부위에 따른 탄소량의 변화는 대부분 단접 소재로 선택된 철판의 원래 탄소함량이 서로 다른 것에 기인하나 그림 5.1의 유물에서와 같이 침탄에 의하여 국부적으로 탄소량을 높인 경우도 있었다. 그림 1.1 및 그림 5.1의 유물에서와 같이 사용 부위에 따라 강도를 크게 다르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탄소함량이 다른 철관을 사용한 경우도 있으나 그 외의 시편에서는 단접에 사용된 철판 자체에 비교적 경미한 함탄량의 변화가 있어 이로 말미암아 유물 내에 국부적인 탄소함량 변화가 초래된 경우도 확인되었다. 열처리 후 냉각방법으로는 부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펄라이트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경화를 목적으로 담금질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발굴 보고서에는 화학조성 분석표를 첨부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화학조성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기에서와 같이 시편 부위에 따라 탄소함량 등 화학조성 변화에 의하여 심각한 조직변화가 유발되는 경우에는 국부적인 화학조성 분석결과가 전체시편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로부터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결론은 거의 없음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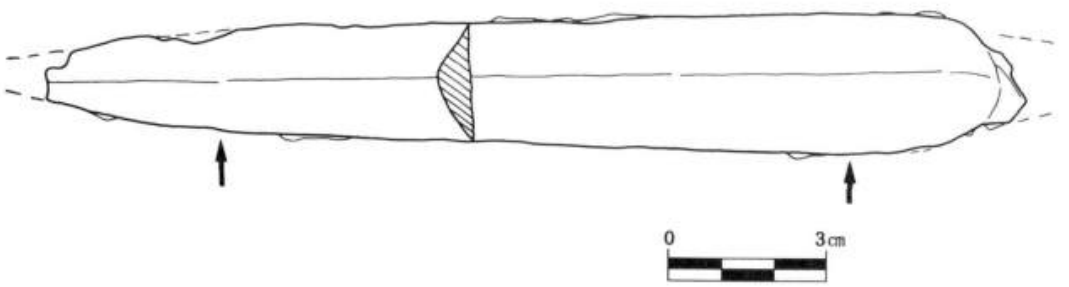



그림 1.1 철모편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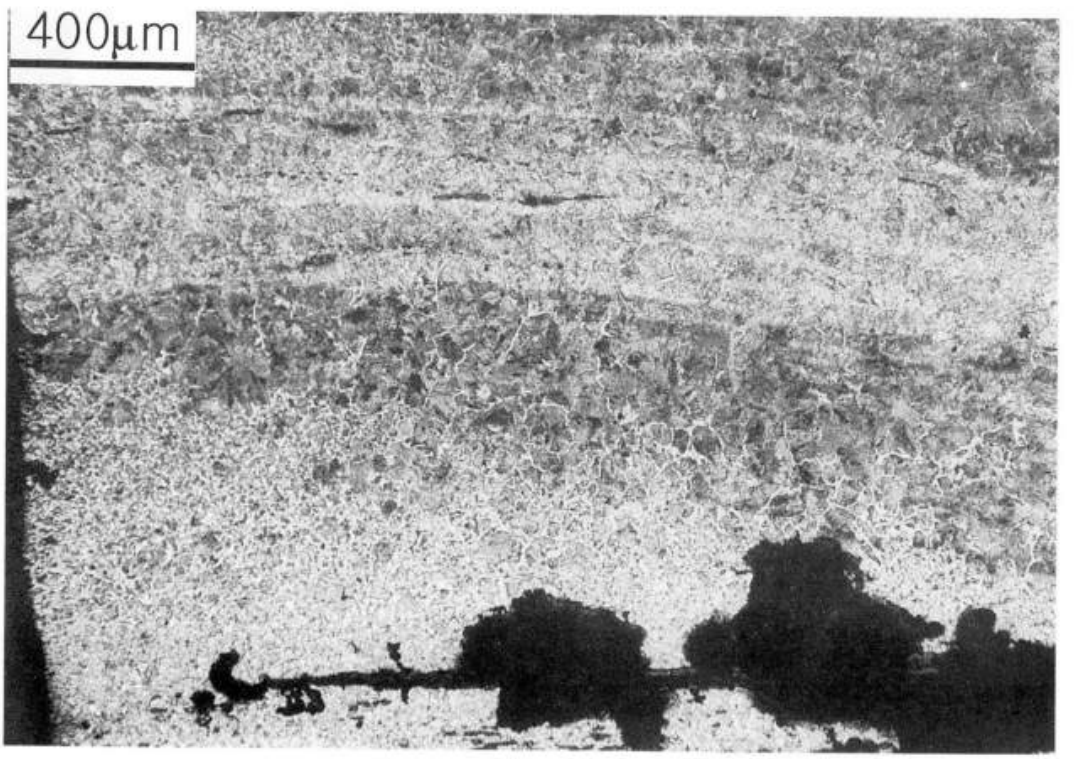



그림 1.2 철모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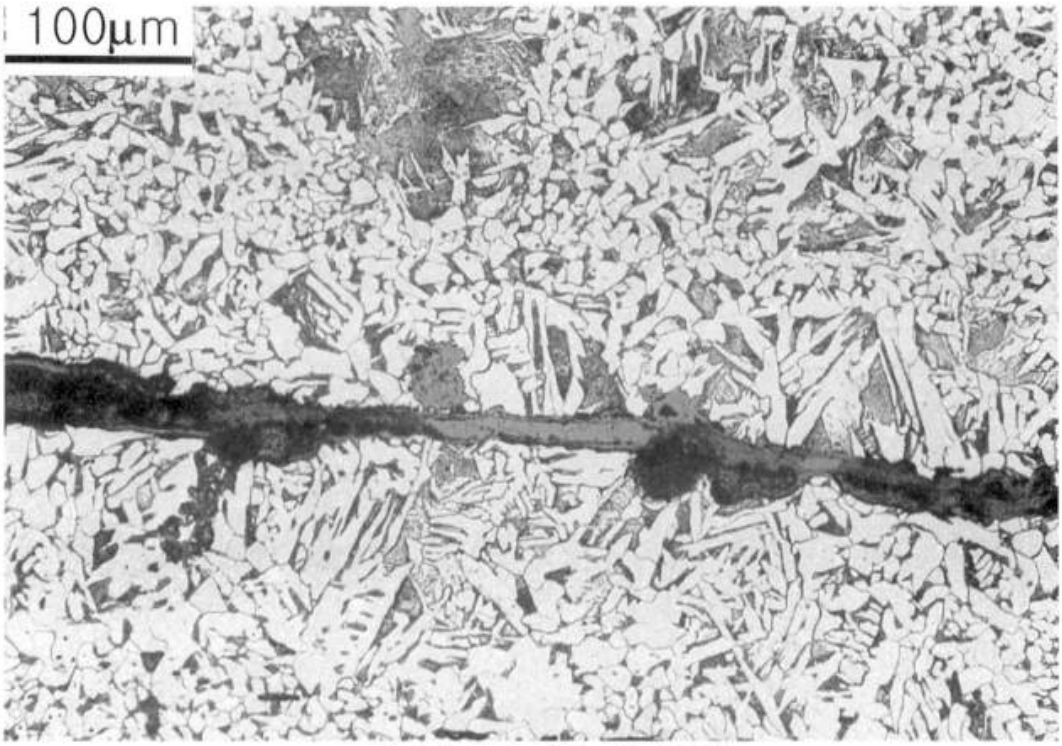



그림 1.3 철모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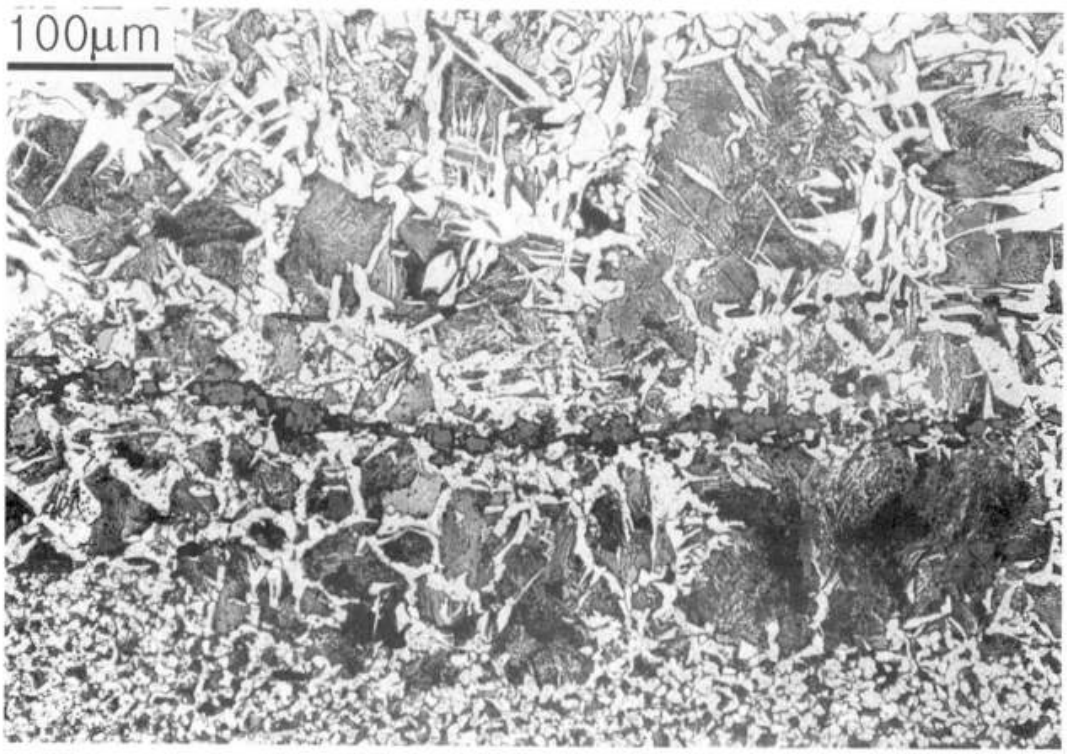



그림 1.4 철모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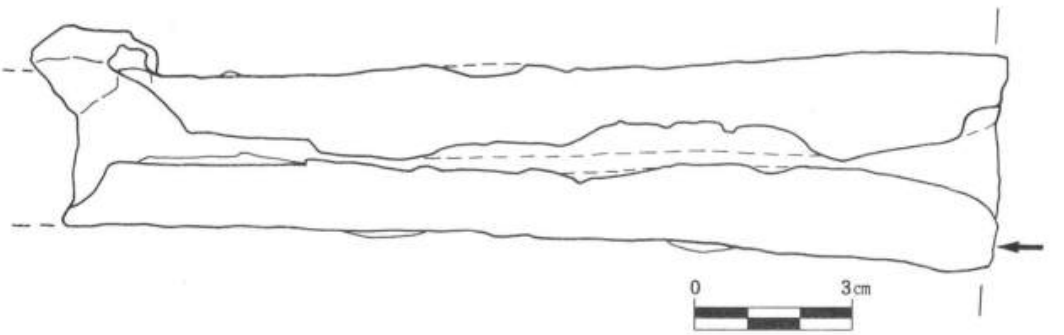



그림 2.1 철모편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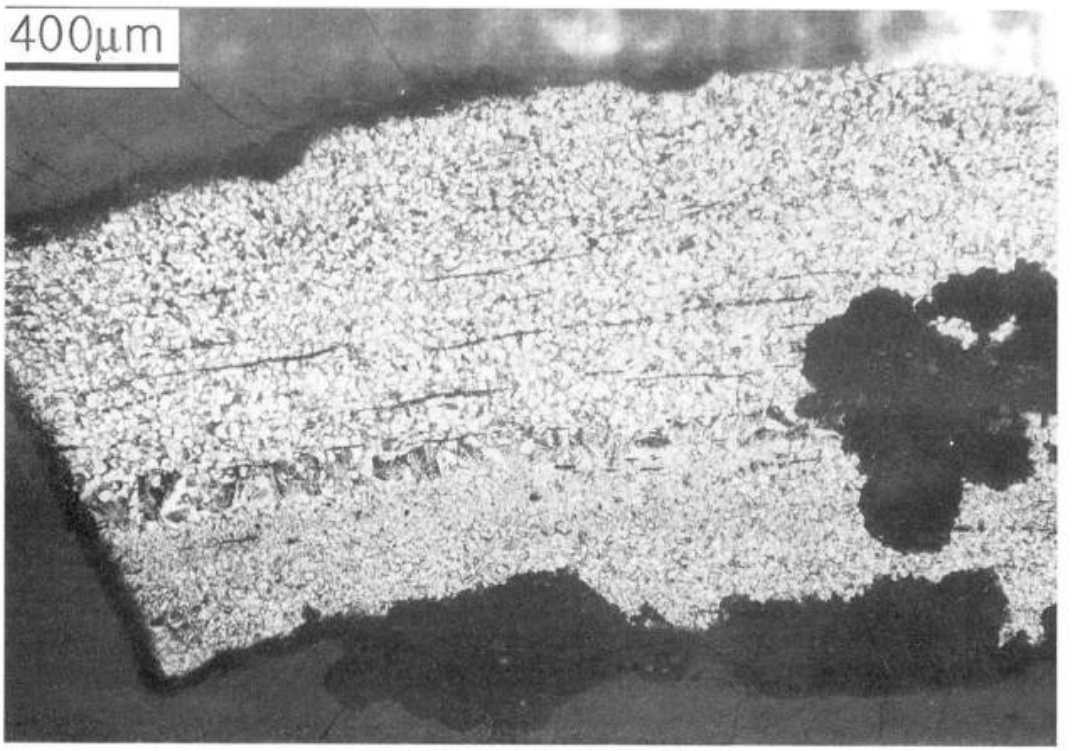



그림 2.2 철모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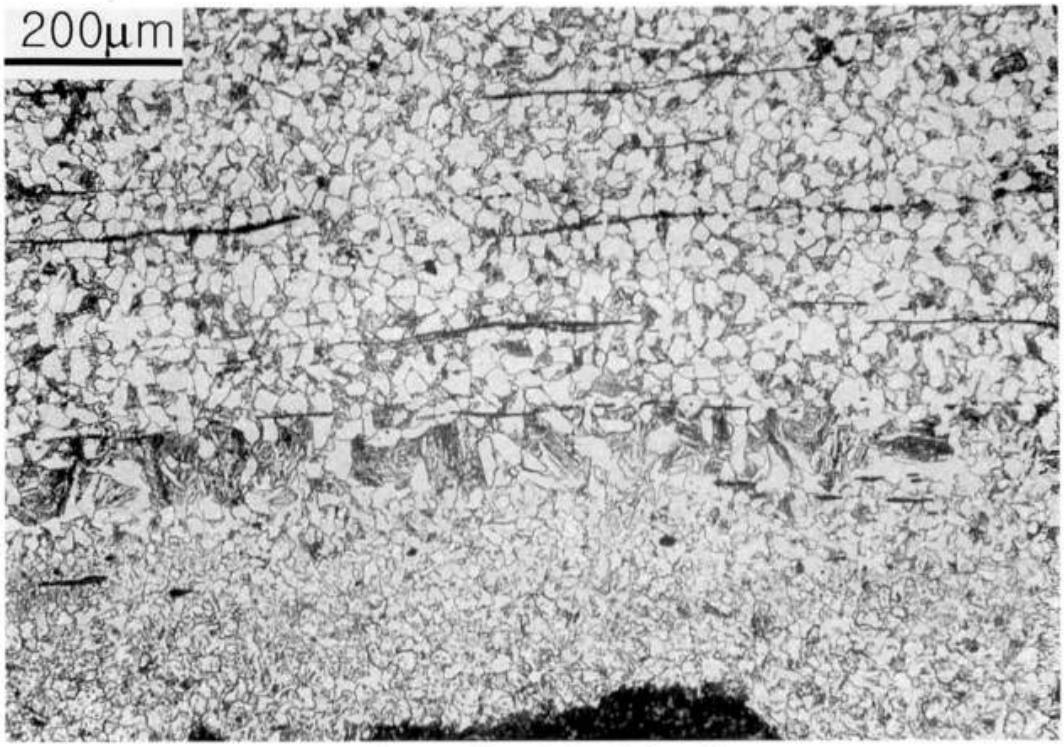



그림 2.3 철모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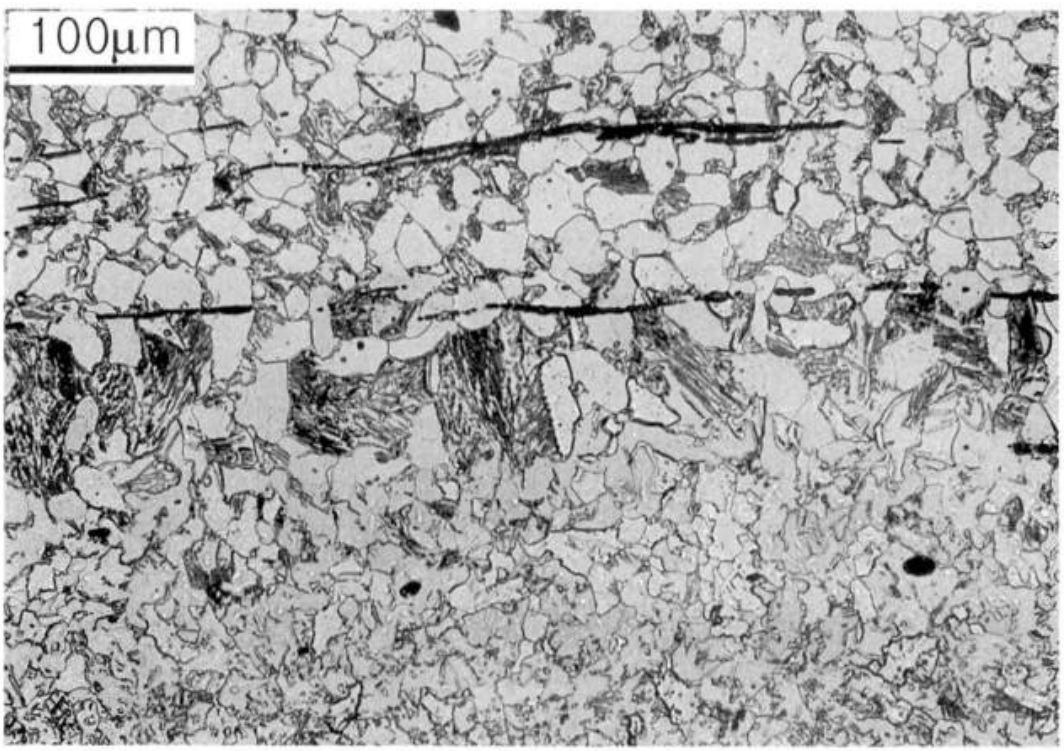



그림 2.4 철모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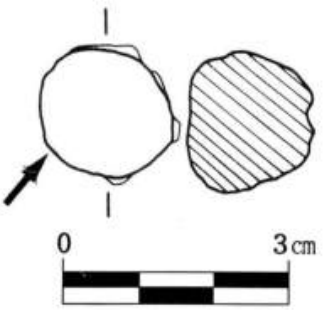



그림 3.1 철탄환편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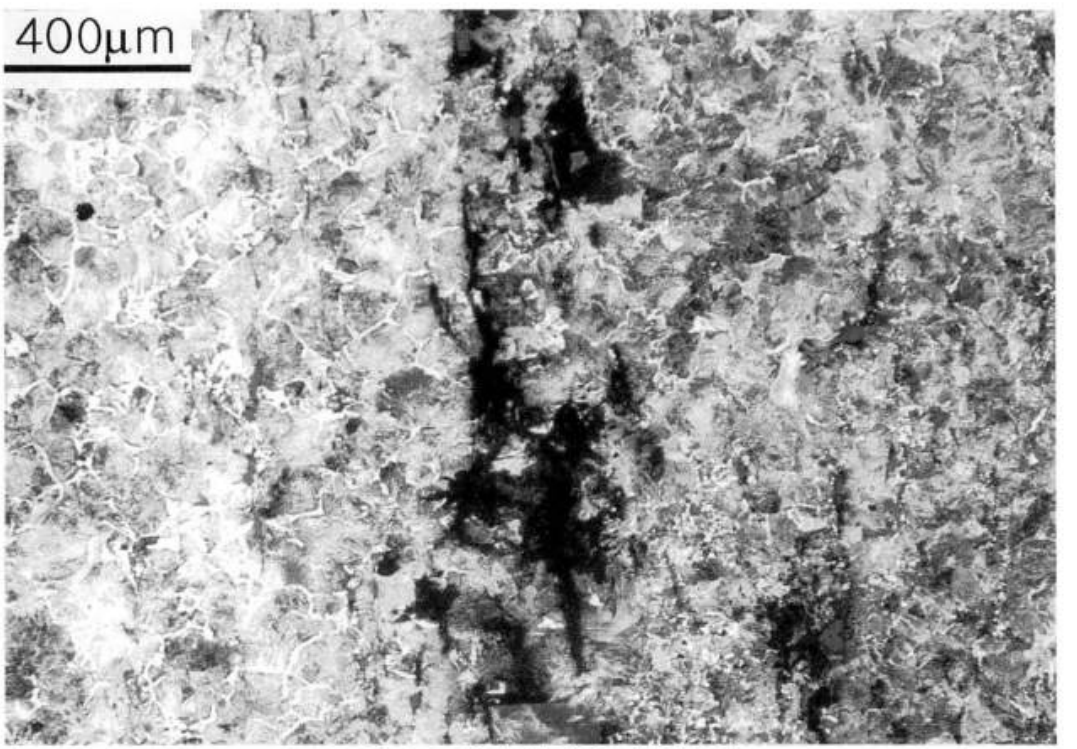



그림 3.2 철탄환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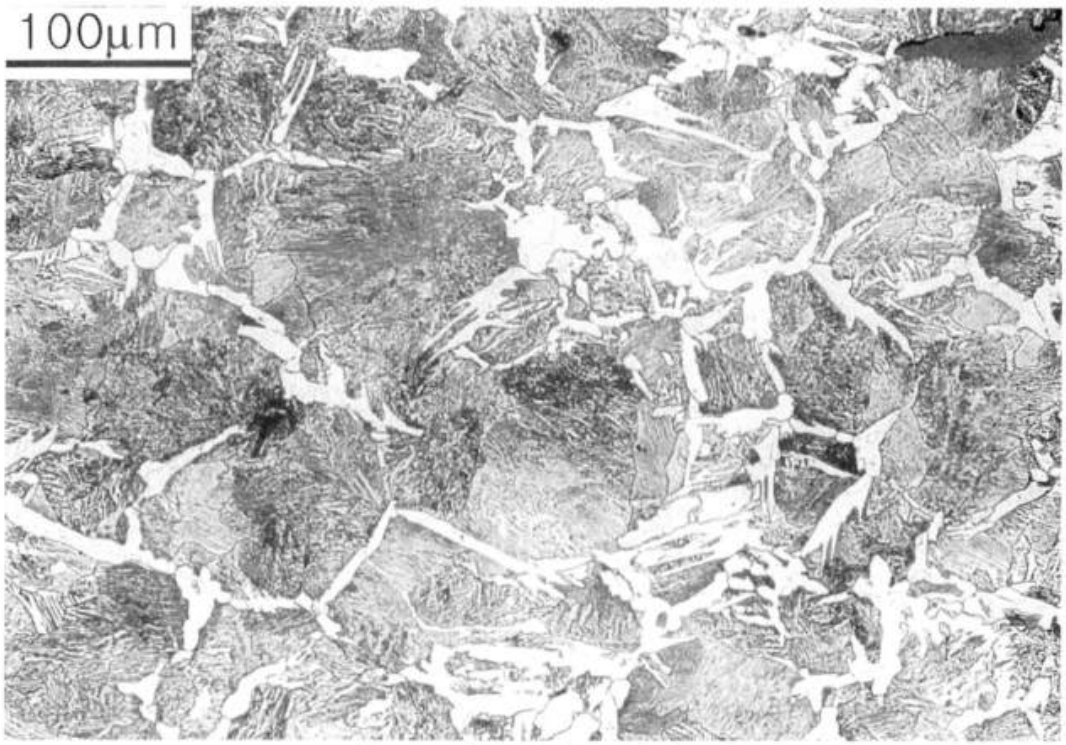



그림 3.3 철탄환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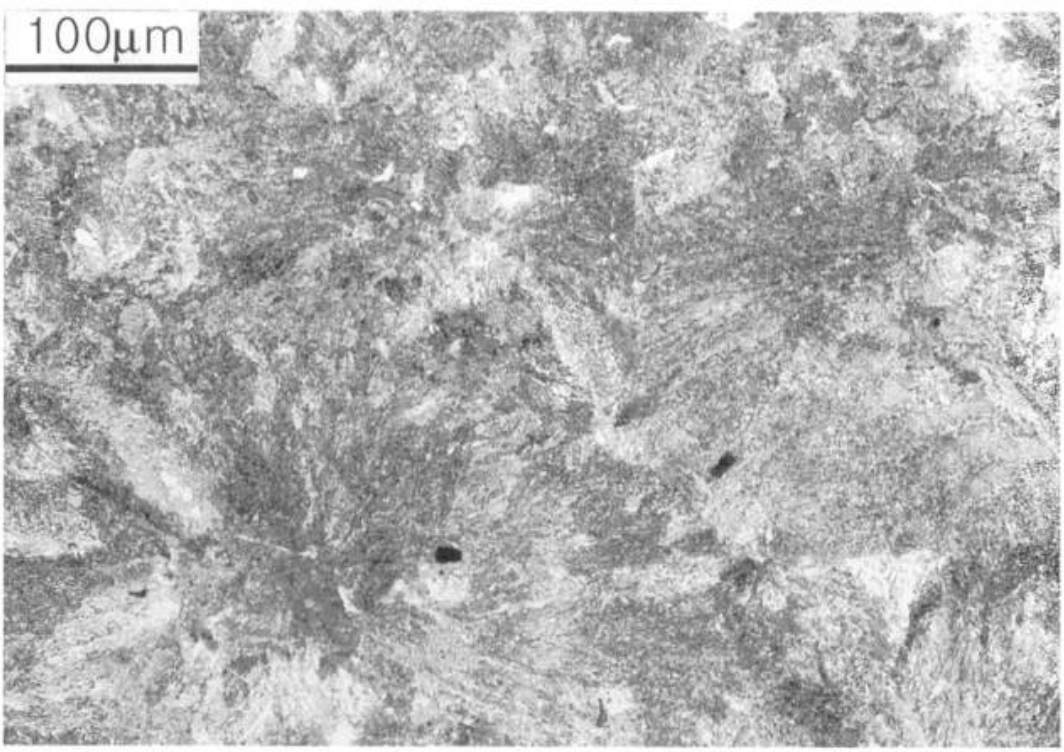



그림 3.4 철탄환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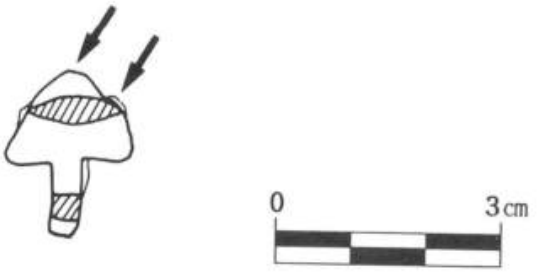



그림 4.1 철정편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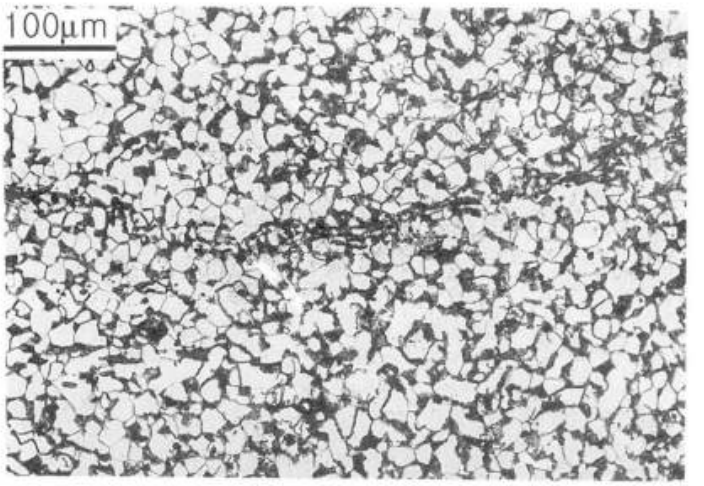



그림 4.2 철정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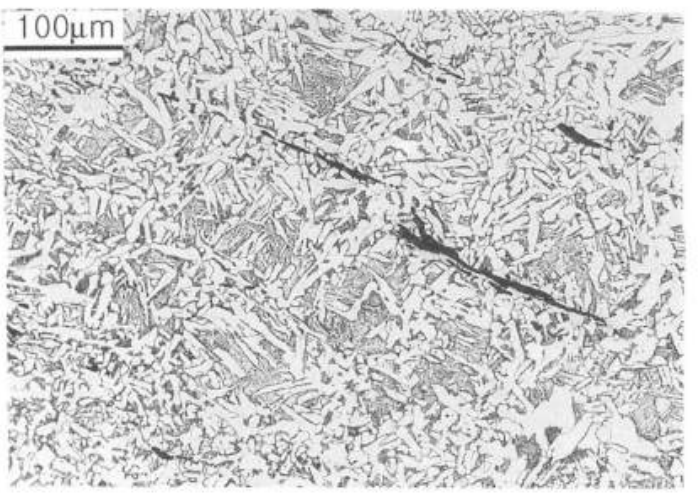



그림 4.3 철정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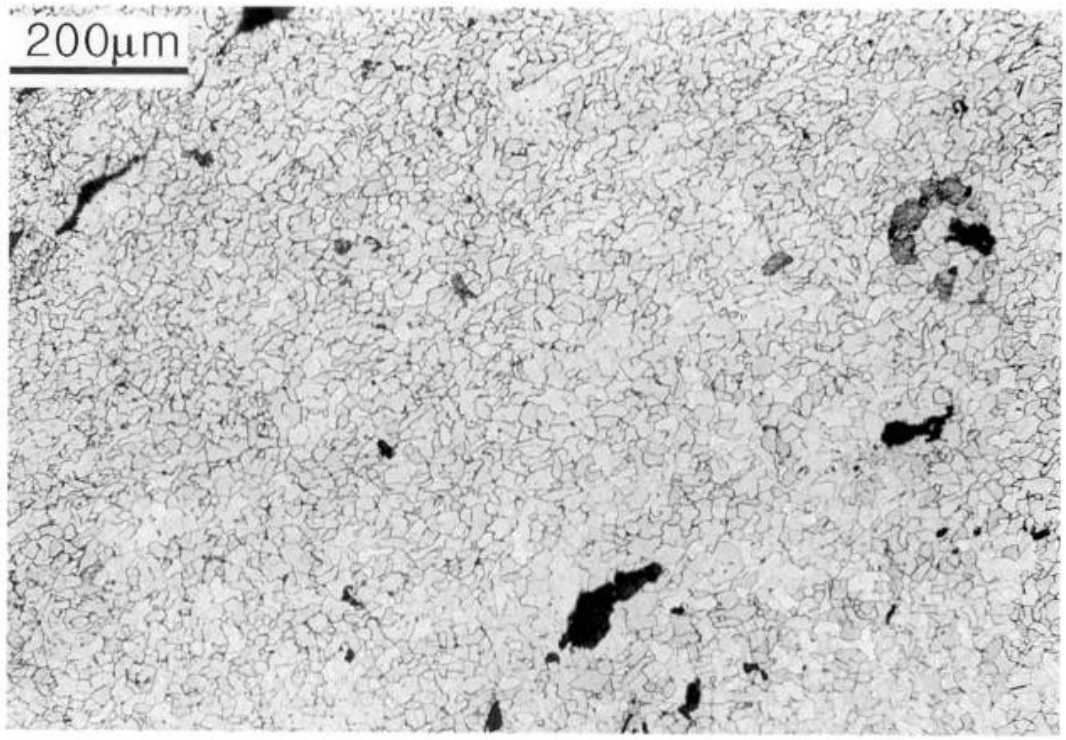



그림 4.4 철정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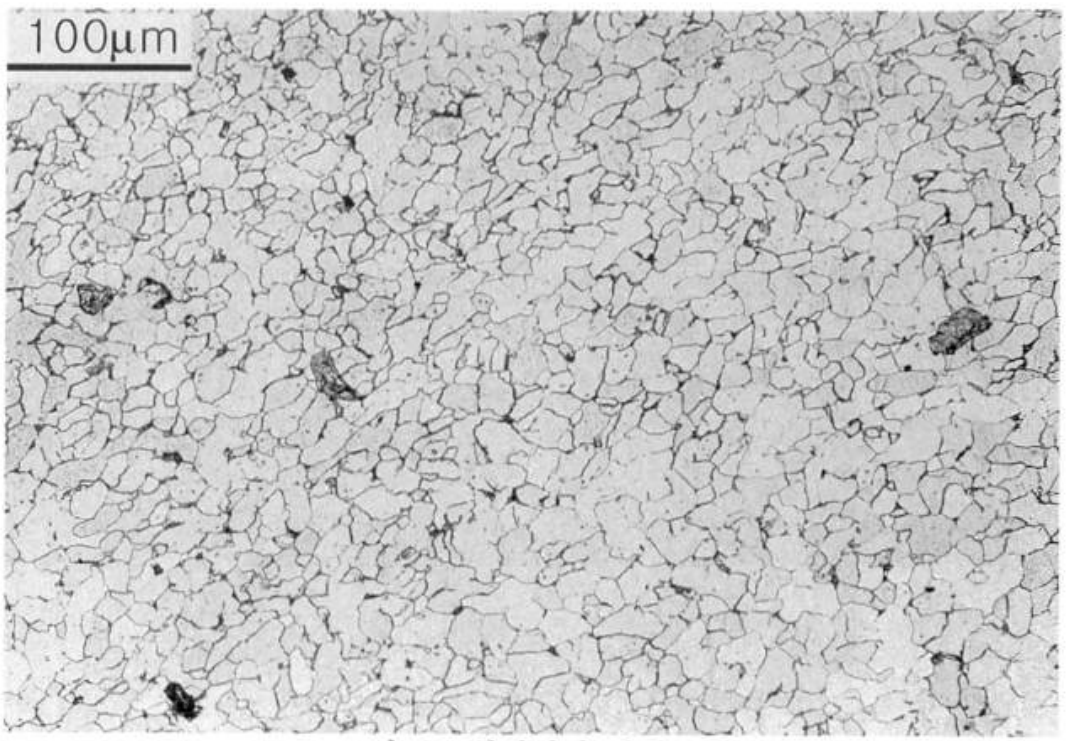



그림 4.5 철정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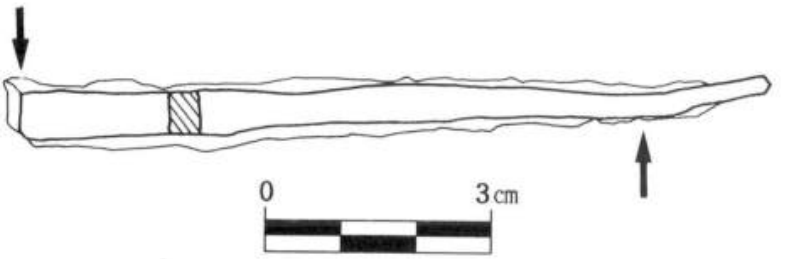



그림 5.1 철정편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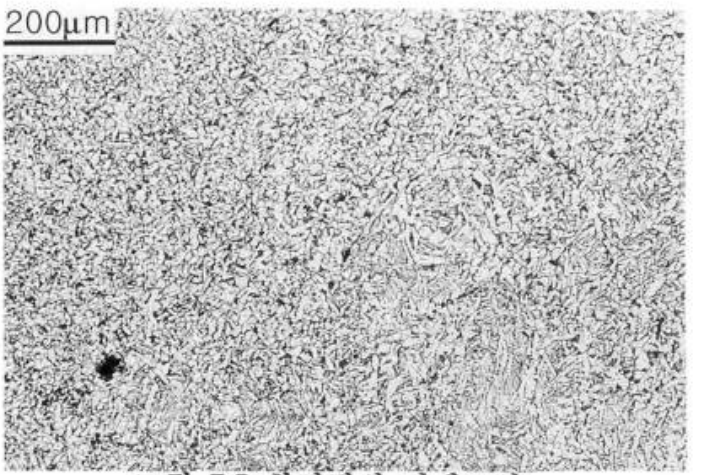



그림 5.2 철정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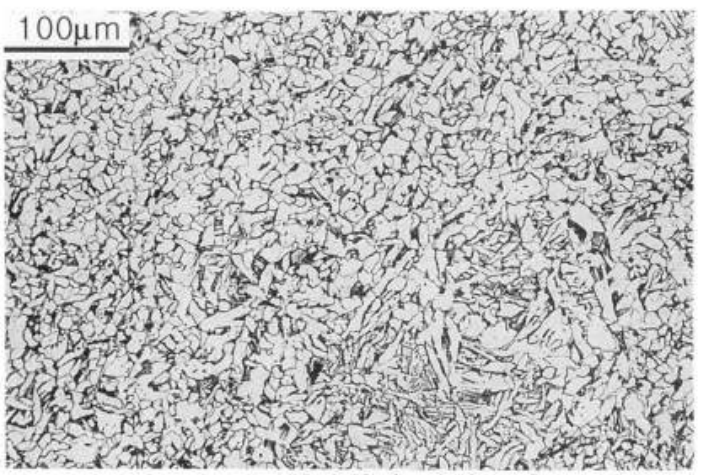



그림 5.3 철정편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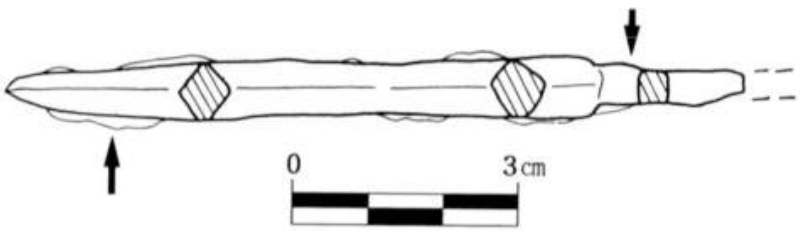



그림 6.1 철촉편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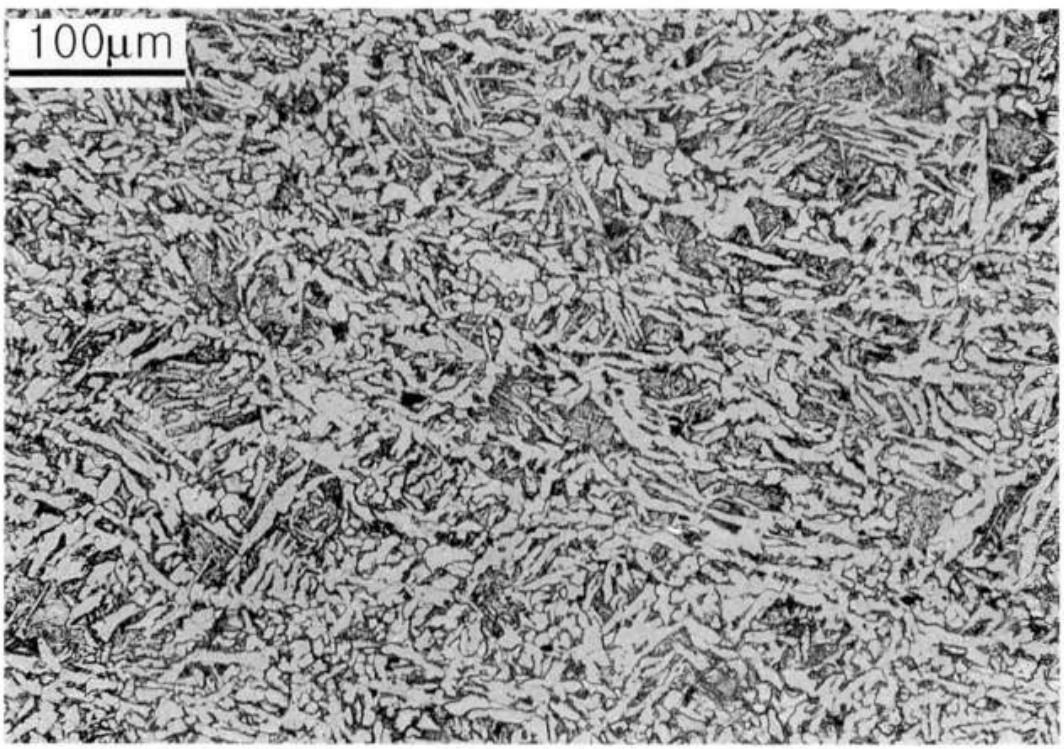



그림 6.2 철촉편의 미세조직

【 부록 2 】

# 용인 임진산성 출토 금동편의 금속학적 고찰

박학수(경기도박물관)

2000

京 畿 道 博 物 館

# 용인 임진산성 출토 금동편의 금속학적 고찰

목 차

1. 서 론
2. 조사방법
3. 결과 및 고찰

1. 서론

임진산성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와 구성면 보정리 경계의 임진산 위에 축조된 조선시대의 토성이다. 군사적 요충지로서 임진왜란때는 왜병과 용인전투가 있었고 병자호란때는 청군과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1997년 긴급발굴조사가 실시되어 현자총통 2점을 비롯한 철제무기류와 도자기류, 기와류 등이 출토되었다. 이번에 조사하게 된 금동편은 얇은 판의 형태이지만 부숴진 상태로 발굴되어 원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금동은 금이 가진 아름다운 색, 내식성 등의 우수한 성질을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진 유물에 부여한 것으로 오래전부터 불교공예품, 장신구, 마구류 등에 널리 사용되어왔다.

2. 조사방법

금동편의 성분은 X-선형광분석기(XRF)로 정성분석을 하고 금박과 구리바탕을 각각 에너지분산형분석기(EDS)로 정성분석하였다. 미세조직의 관찰과 금도금층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금동편을 수지에 넣어 굳힌 후 연마하여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시료의 에칭에는 증류수 60ml에 $CuCl_2 \cdot 4H_2O$ 8g과 $NH_4OH$ 3ml를 넣어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a는 X선형광분석기로 금박을 정성분석한 결과로서 구리와 금이 주로 검출되었으며 미량이 검출된 원소로는 Hg, Ag, Zn, Fe, Pb, Sn, Sb 등이 있다. 이중 수은은 그 강도가 매우 미약하여 금박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들어 갔다기보다는 금의 제련과정에서 들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1-b참조).

그림 2는 금동편의 단면으로서 바탕을 이루고 있는 구리의 거의 대부분이 부

식되어 일부만이 남아 있다. 구리가 남아있는 부분에는 입자들이 한방향으로 늘어서 있는 것이 보인다. 이것은 구리판을 얇게 펴기 위해 가공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부와 하부에 도금층이 존재하지만 워낙 그 두께가 얇아서 이 그림에서는 관찰할 수 없다. 도금층을 관찰하기 위해 확대한 것이 그림 3으로 두께가 1㎛도 안되는 도금층이 매우 균일한 두께로 존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보고된 대표적인 금도금층의 두께는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출토 금동편이 5.99~12.97㎛와 백제대향로가 10㎛로 본 유물에 비해 상당히 두껍다.[1, 2, 3] 이들 유물의 성분분석 결과는 다량의 수은이 검출되어 금도금층이 아말감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분석한 유물과 같은 두께가 1㎛이하이며 균일한 도금층을 아말감기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대의 전기도금을 한 장식품의 도금층 두께가 5~10㎛정도인점 고려해보면 이 도금층이 얼마나 얇은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4] 한편 중국 금동유물의 분석사례에서 두께가 1~2㎛인 금도금층이 보고되었지만, 1㎛라는 것이 도금층 중에서 얇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금층의 두께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5] 금을 도금하는 방법으로는 아말감기법 외에도 금을 얇게 펴 금박을 붙이는 금박도금기법, 사경(寫經)할 때 쓰이는 금니(金泥)기법 등이 있다.[6, 7, 8] 임진산성 출토 금동편은 금박도금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는 구리가 남아있는 부분을 에칭하여 관찰한 것이다. 쌍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구리판을 가공한 후 열처리하였다. 열처리는 가공으로 인해 생기는 강화에 의해 금속이 부숴지기 쉬운 것을 막아준다. 그림 5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금도금층을 확대한 것으로 두께는 약 0.6㎛ 정도이다. 도금층과 바탕부분 사이에 두 층을 접합시켜주는 물질의 존재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6은 금도금층을 에너지분산형분석기로 분석한 것으로 금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은과 구리도 검출되었다. 그러나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앞서 언급한 유물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구리바탕의 특성에너지는 그림 7과 같이 구리 이외의 다른 성분의 검출은 미약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임진산성 출토 금동편은 얇게 편 구리판을 열처리한 후 금박을 구리판위에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어떤 물질을 사용하여 금박을 붙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보고된 금동편 중에서 가장 얇은 금도금층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제작기술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자현미경 촬영에 협조해 주신 국립중앙박물관 유혜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

다.

참고문헌

1. 皇南大塚遺物保存處理報告書,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1995, p57,p139
2. 林善基, 姜鎭君, 보존과학회지 vol.1, No.1, 1992, p60
3. 姜大一, 韓成熙, 姜炯台, 安喜均, 黃振周, 林善基, 보존과학회지 vol.3 No.1, 1994, p19
4. 금속표면처리편람, 금속표면처리편람편집위원회, 도서출판 세화, 1980, p349
5. 齋藤 努, 國立歷史博物館硏究報告 第38集, 1992, p103
6. 崔炷 주역, 宋應星, 天工開物, 전통문화사, 1997, p297
7. 이난영, 한국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51
8. 조선기술발전사1, 조선기술발전사편찬위원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 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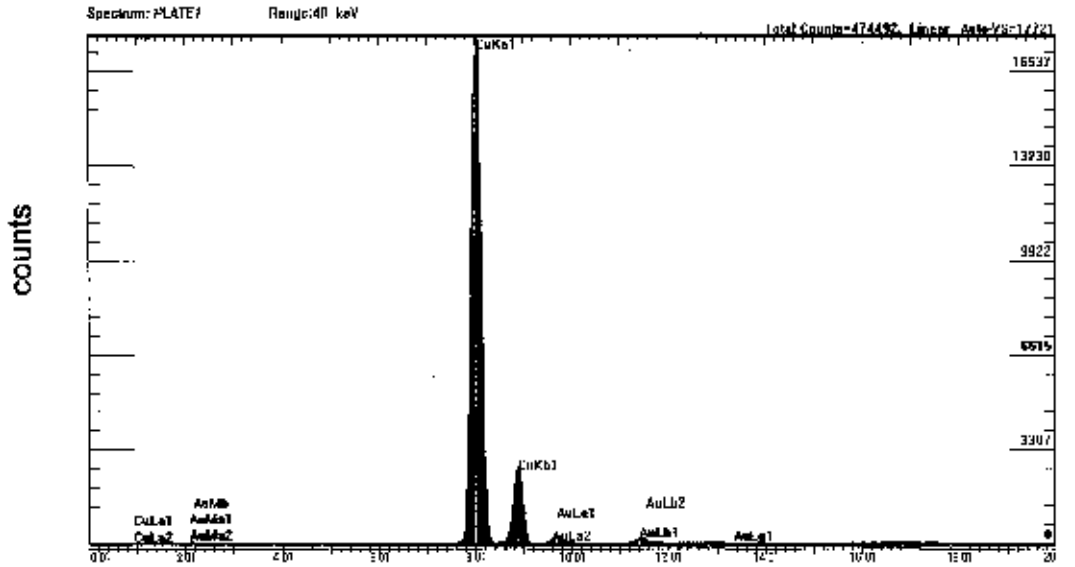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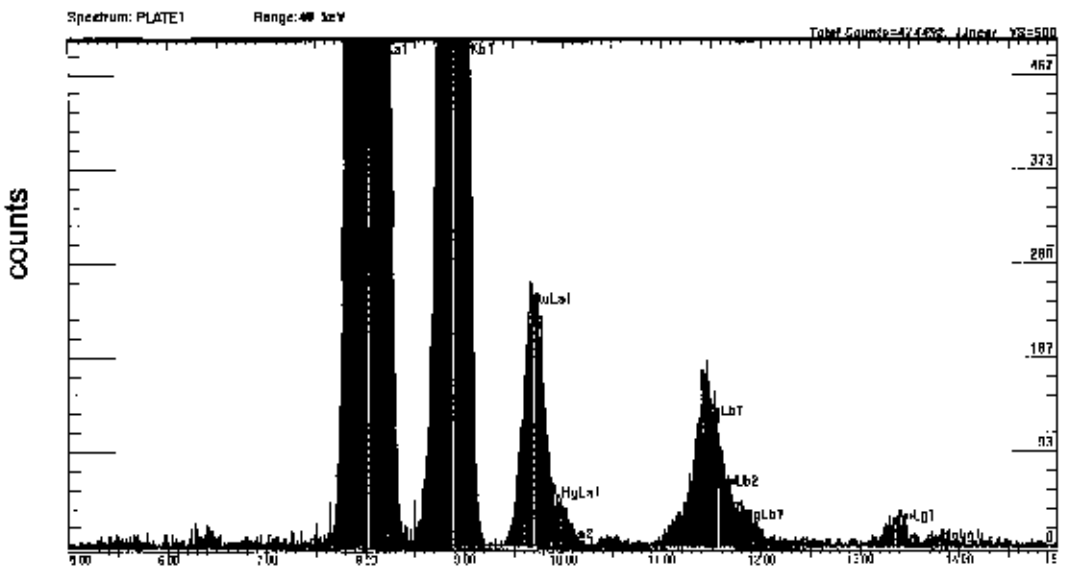



그림 1-a. 금동판의 정성분석 결과




1-b. 금동판의 정성분석 결과(수은영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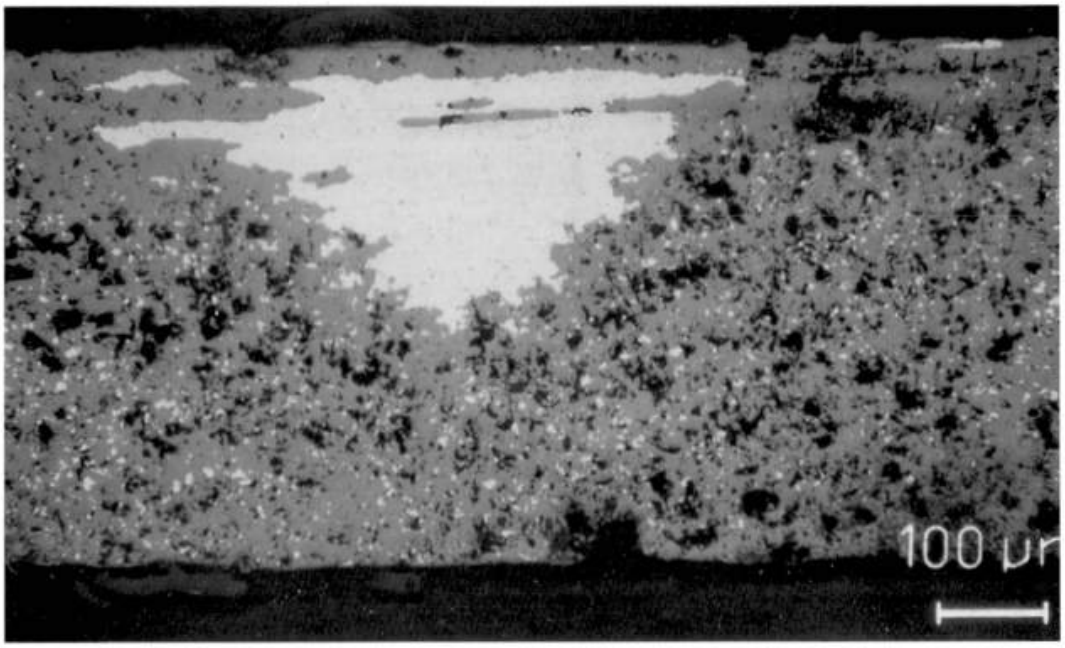



그림 2. 금동편의 횡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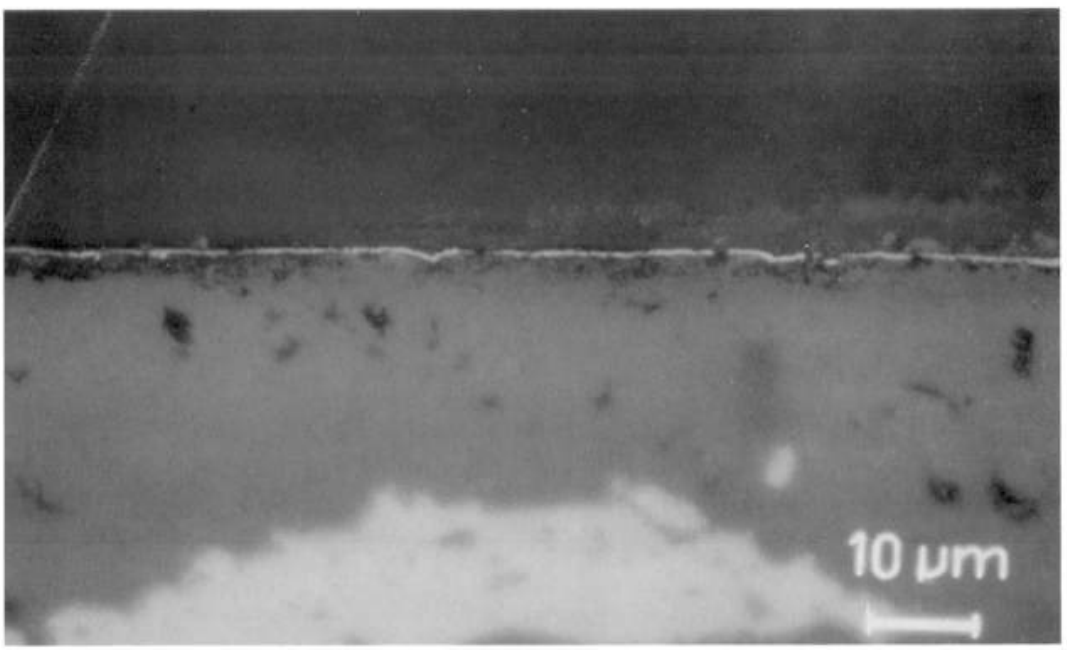



그림 3. 금동편의 금박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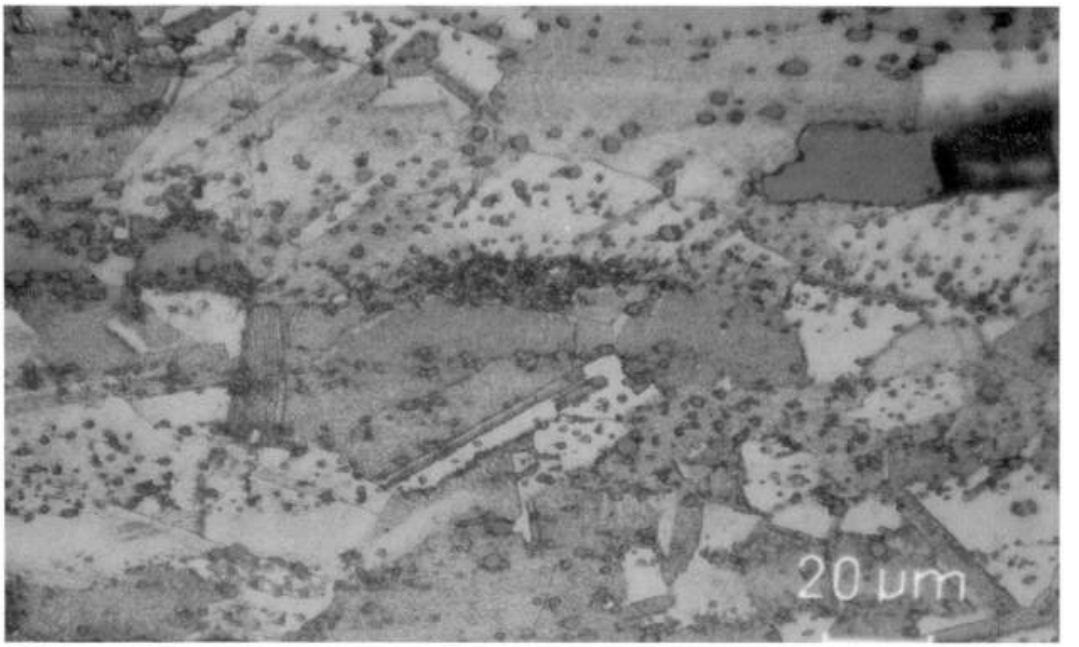



그림 4. 구리부분의 미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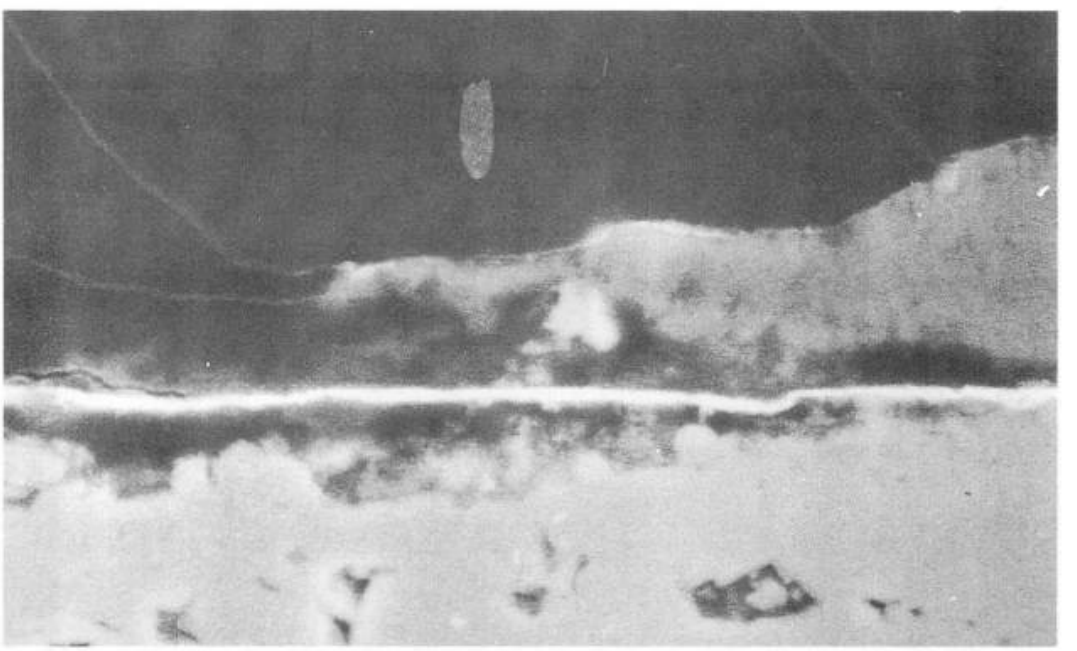


그림 5. 금도금 부위의 전자현미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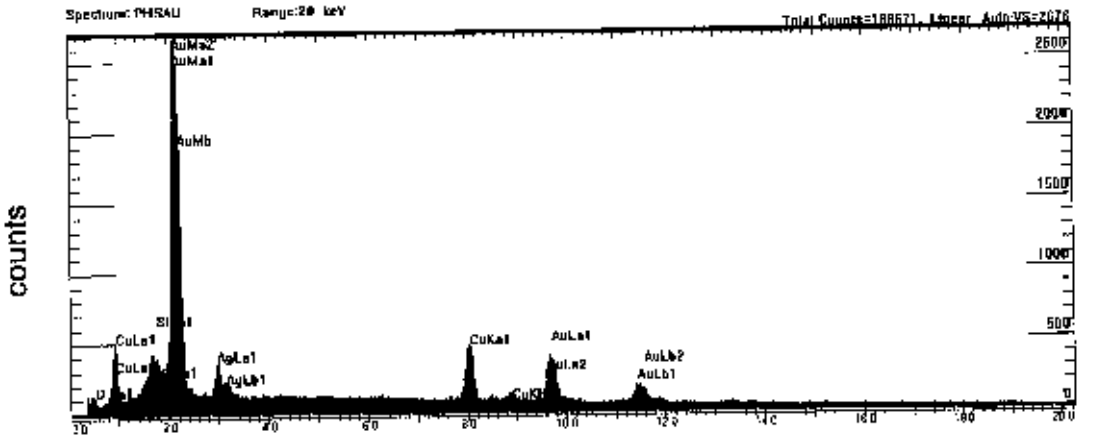



그림 6. 금도금층의 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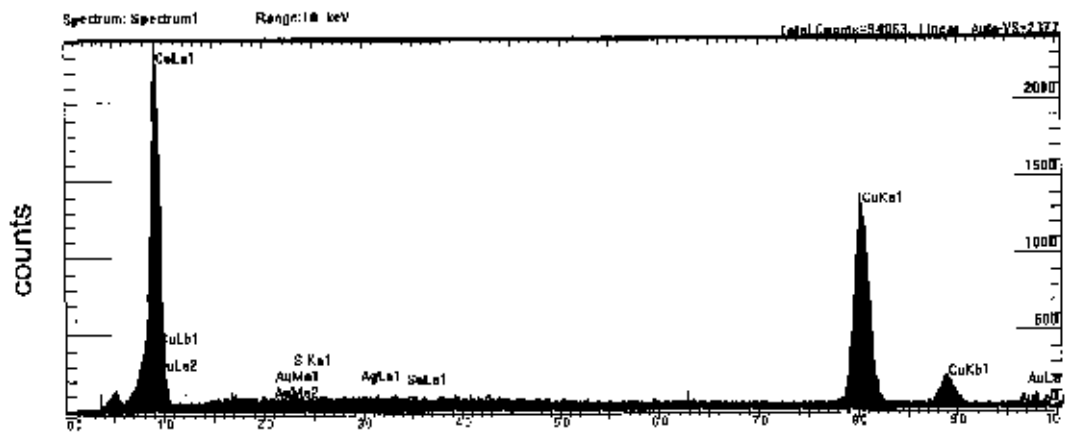



그림 7. 구리부분의 성분

【 부록 3 】

# 용인 임진산성 출토 금속유물의 과학적 보존

Conservation of Objects Excavated From Imjin Mountain fortress Site

김선덕, 김용신, 이경선

(경기도박물관)

2000

京 畿 道 博 物 館

# 용인 임진산성 출토 금속유물의 과학적 보존

목 차

Ⅰ. 머리말
Ⅱ. 출토유물의 보존처리전 상태
Ⅲ.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Ⅳ. 맺음말

## Ⅰ. 머리말

임진산성은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구성면 보정리에 위치하는 토축산성으로 건설현장에서 이목작업중 조선시대 총통 2점이 발견되어 매장문화재 발견신고가 이루어져, 경기도박물관에서 긴급발굴을 실시 천모를 비롯한 금속유물 143점(천제류: 130점, 동제류: 13점)과 다수의 도기, 토기 및 기와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에 경기도박물관 보존과학연구실에서는 금속유물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발견 신고된 총통 2점중 1점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존처리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1점은 경기도박물관 보존과학연구실에서 1997. 7. 10.~ 1998. 4. 7.까지 9개월에 걸쳐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긴급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금속유물은 1998. 4. 14.~1999. 3. 30.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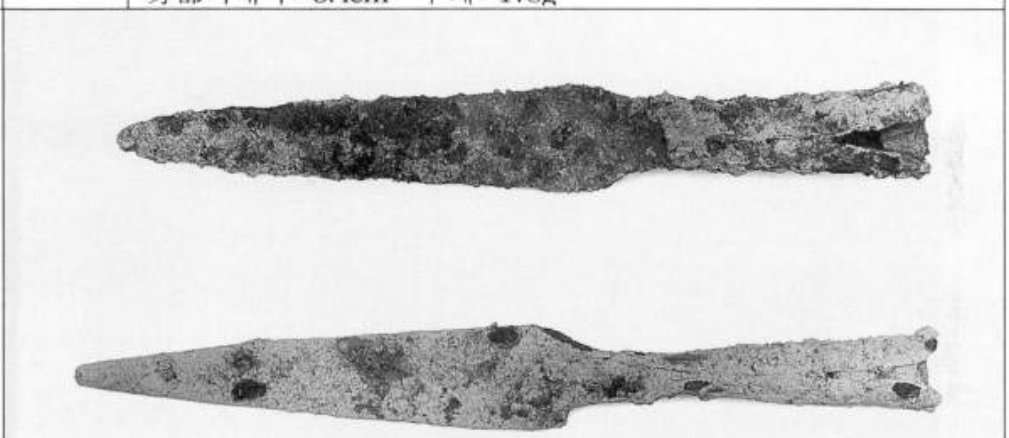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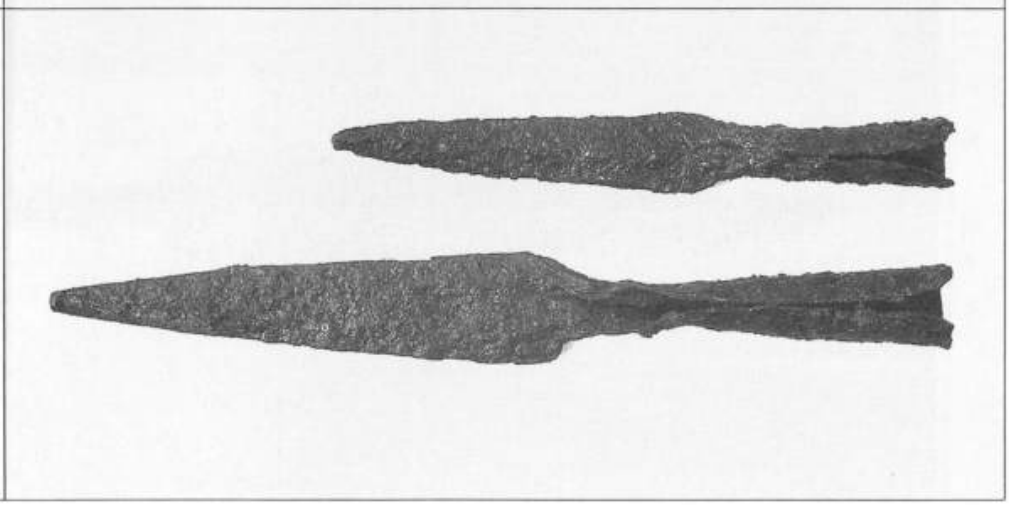
본고는 임진산성 출토 총통 1점을 비롯한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및 과학적인 조사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 Ⅱ. 출토유물의 보존처리전 상태

금속유물중 철제품은 총통을 비롯하여 무기류가 대부분이며, 청동제품은 숟가락 및 용도미상의 편들이다. 발굴조사 결과 임진산성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조까지 이르는 유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출토 금속유물 114점중 특징적인 금속유물 10점에 대하여 출토된 상태와 형식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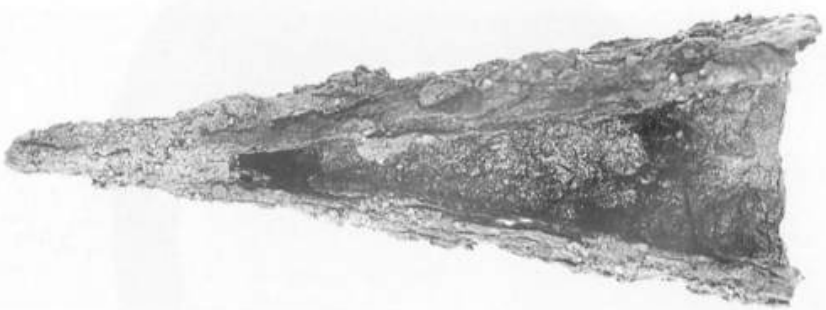
| 번호 | 유물명 | 유 물 상 태 |
|---|---|---|
| 1 | 현자총통 | 전체적으로 표면은 부식화합물과 황갈색의 흙으로 덮혀있으며, 녹혹이 많이 발생되어 있다. 竹節의 수는 7條로 손잡이는 셋째와 다섯째 竹節 사이에 부착되어 있고, 약실부분의 點火線 구멍은 보이지 않으며, 銘文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에는 鐵彈丸이 잔존해 있다.<br>전체길이: 76.7cm 前端口徑: 6.5cm 外徑: 12 cm<br>藥室部外徑: 13.7cm 손잡이 길이: 11.4cm 무게: 43.7kg |
| 처리전 | | |
| 처리후 | | |

| 번호 | 유물명 | 유 물 상 태 |
|---|---|---|
| 2 | 철도 | 전체적으로 흙과 부식화합물로 덮혀있으며 녹혹도 보인다. 柄部 일부분이 결실되어 있으며, 刀身은 부식이 심해 표면층 전체가 결실되어있다. 刀身의 단면은 二等邊三角形이며 柄部는 長方形을 이루고 있다.<br>전체길이: 38.4cm 두께: 0.4cm 폭(刀身): 2cm<br>폭(柄部): 1.2cm 무게: 118g |
| 처리전 | | |
| 처리후 | | |

| 번호 | 유물명 | 유 물 상 태 |
|---|---|---|
| 3 | 철모 | ① 전체적으로 흙과 부식화합물로 덮혀있고 完形이다. 身部와 銎部는 鈍角으로 이어져있고 身部의 단면은 볼록렌즈형이며 銎部는 圓形이다. 판을 안으로 말아 제작한 마무리 線이 보인다.<br>전체길이: 39cm 공부길이: 15.9cm<br>身部최대폭:47cm 무게: 351g<br>② 완형으로 출토되었다. 上記 ①의 鐵矛와 같은 양식이며 銎部 내에는 흙으로 채워져있다.<br>전체길이: 26.2cm 공부길이: 9.2cm<br>身部최대폭: 3.4cm 무게: 178g |
| 처리전 |  | |
| 처리후 |  | |

| 번호 | 유물명 | 유 물 상 태 |
|---|---|---|
| 4 | 도자 | 身部는 先端 50cm면에서 약 30 °가량 꺽여 있으며 柄部先端도 결실되어있다. 身部의 단면은 二等邊三角形이며 전체적으로 흙과 부식화합물로 덮혀있다.<br>전체길이: 18cm 두께(背部): 0.5cm 刀身최장폭: 2.4cm<br>柄部폭: 1cm 무게: 46g |
| 처리전 | | |
| 처리후 | | |

| 번호 | 유물명 | 유 물 상 태 |
|---|---|---|
| 5 | 철겸 | 小形鎌으로 完形이며 身部의 先端은 부식으로 인해 둥근형태를 가진다. 柄部 先端에 자루와 연결하기 위해 못을 박은 구멍이 남아있다. 身部의 단면은 二等邊三角形이며 柄部는 長方形이다.<br>전체길이: 15.3cm 두께: 0.6cm 身部최장폭: 2.5cm 무게: 65g |
| 처리전 | | |
| 처리후 | | |

| 번호 | 유물명 | 유 물 상 태 |
|---|---|---|
| 6 | 철준 | 판을 말아 제작된 것으로 銎部에서 先部쪽으로 가늘어져서 뾰족하게 된다.<br>단면은 원형이며 銎部내에는 흙으로 채워져있다.<br>전체길이: 9.7cm 최대지름: 3.3cm 무게: 69g |
| 처리전 | | |
| 처리후 |  | |

| 번호 | 유물명 | 유 물 상 태 |
|---|---|---|
| 7 | 철탄환 | ① 큰 彈丸으로 흙으로 덮혀있어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고 부식으로 인해 많이 손상되어 있다.<br>최대지름: 1.8cm 무게: 19g<br>③④⑤ 부식으로 표면이 결실되어 원형의 彈丸으로 남아있지 않다. 부식물과 흙으로 덮혀있다.<br>③ 최대지름: 0.6cm 무게: 2g ④ 최대지름: 0.8cm 무게: 3g<br>⑤ 최대지름: 0.7cm 무게: 3g |
| 처리전 | | |
| 처리후 | | |

| 번호 | 유물명 | 유 물 상 태 |
|---|---|---|
| 8 | 전촉 | 蛇頭形 鐵鏃으로 완형으로 출토되었다. 鏃頭의 단면은 菱形이며 슴베는 方形이다. 슴베가 촉두와 촉목보다 2배가량 긴 양식이다.<br>전체길이: 21cm 鏃頭 최대폭: 2.5cm<br>슴베길이: 14.4cm 무게: 58g |
| 처리전 | | |
| 처리후 | | |

| 번호 | 유물명 | 유 물 상 태 |
|---|---|---|
| 9 | 돌쩌귀<br>(암·수) | 암·수돌쩌귀가 ㄱ형태로 결합되어 출토되었다. 암돌쩌귀는 수돌쩌귀보다 2배정도 길며 말단부분이 심하게 꺽여있는 것외에는 암·수모두 완형이다. 특히 수돌쩌귀의 말단부는 2개의 段을 이룬 후, 돌기처럼 제작된 정밀한 가공이 있었음을 볼수 있다.<br>전체길이: 8.4cm(암돌쩌귀), 3.3cm(수돌쩌귀)<br>연결부지름: 2.1cm 무게: 48g |
| 처리전 | | |
| 처리후 | | |

| 번호 | 유물명 | 유 물 상 태 |
|---|---|---|
| 10 | 靑銅梨花文粧刀鞘 | 소형의 粧刀鞘로 등과 날이 뚜렷이 구분되는 단면이 이등변삼각형인 양식으로 제작되었다. 한쪽면에만 배꽃의 문양을 표현하였으며 반대면은 무문으로 모서리면의 일부분이 결실되어있다. 도자집 내부는 흙으로 채워져 있다.<br>전체길이: 8.5cm 폭: 1.3cm<br>두께: (背) 0.3cm 날 0.1 cm 무게: 12g |
| 처리전 | | |
| 처리후 | | |

## Ⅲ.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임진산성출토 금속유물의 보존처리는 예비조사 → Cleaning → 안정화처리 → 건조 →강화처리 → 접합 및 복원 → 재강화처리 → 처리후 기록 및 보관의 공정을 기저 실시하였다

### 가. 예비조사

발굴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마친 후 밀폐용 수습봉지에 담아 보존과학실로 옮겨온 후 종류별로 유물을 분류하여 유물의 보존처리전상태, 중량, 길이 등을 측정하여 카드에 기록하였다. 기록을 마친 유물은 촬영실에서 기록용 사진촬영(color, silde, B/W)을 실시하였으며 흙과 부식화합물로 덮혀 육안으로 확인이 불분명한 유물은 X-ray촬영을 통하여 유물의 부식상태 및 전체형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형광X-선분석기(EDXRF)를 이용한 비파괴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동편 1점은 금동으로 밝혀졌다.

### 나. Cleaning

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부식화합물과 흙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보존처리용 소도구와 정밀분사 가공기(Air Brasive)를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각각의 유물은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유물은 정밀분사 가공기를 사용하였다.

특히, 철편에 옻칠흔이 잔존해있던 유물(사진 3)과 목질, 유기질흔이 남아있던 유물의 경우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였는데 옻칠의 경우는 박락상태가 심해 아크릴계 수지인 3% Acryloid B72(in Aceton)를 붓으로 도포하여 경화 및 접착시킨 후 처리하였으며 박락된 편을 이용하여 IR스펙트럼에 의한 분석과 단면을 조사하였다. 현자총통의 경우는 내부에 박혀있는 철환이 심하게 고착되어있어 무리하게 빼어내지 않고 장전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두었다.

청동유물은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하며 메스(Scapel)와 Vibro-tool, Motor-tool등을 이용하여 제거하였으며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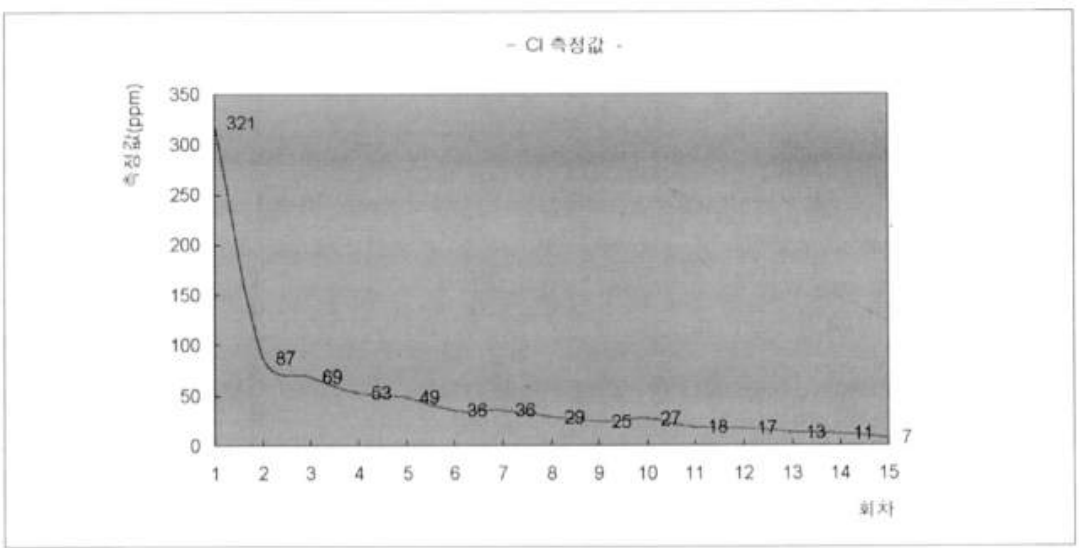
금동으로 판명된 유물은 도금층의 경우 메스와 소도구를 사용하면 손상의 우려가 있어 화학적 방법의 하나인 5% Formic Acid 수용액을 사용하여 녹을 제거하고 금빛을 재현하였다.

다. 안정화처리

금속은 부식화합물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였더라도 안정화처리 등의 후속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부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부식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따라서 부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Cl 이온을 제거하는 안정화처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을 탈염처리라고도 한다. 안정화처리 기간은 유물에 손상이 적고 탈염효과가 뛰어난 0.1M Sodium-Sesquicarbonate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0.1M Sodium-Sesquicarbonate법은 이온수 1ℓ당 $NaHCO_3$ 8.4g과 $Na_2CO_3$ 10.9g을 제조하여 용해시킨 후 유물을 침적시켜 처리하는 것으로 용액은 유물 총 중량의 10배로 하여 밀폐용기에 유물을 침적시켰다. 용액은 7일을 주기로 교체하였으며 각 시기마다 샘플을 채취하여 간이염도측정기(Genway.co)를 이용, 측정값을 구하여 최종 10ppm이하로 Cl 값이 측정되었을 때 안정화처리를 종료하였는데 총 15회 처리하였다. 표1는 매회 Cl 측정값을 평균하여 나타낸 것이다.

- 표 1 -



탈염처리를 마친 유물은 냉수와 온수에 2회 반복침적하여 탄알카리처리를 실시한 다음 Ethyl-Alcohol에 침적시켜 유물에 잔존해 있는 수분을 치환시켰다.

청동유물은 5% Benzotriazole(in Ethyl-Alcohol) 용액에 침적하여 진공함침기에 넣은 후 76cm/Hg 상태에서 약 2시간정도 강압함침시켜 부식억제 처리를 실시하였다.

라. 건조

탈염처리시 수용액에 침적되어 있던 유물의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열풍순환식 항온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하였다. 건조는 105℃에서 48시간가량 건조하였는데 옻칠이 남아있는 유물의 경우에는 건조기의 온도를 낮추어(60℃, 48시간) 탈락 및 결실을 방지하였고 건조처리후 탈염처리시 용출되어 부착된 부식화합물을 정밀분사가공기(Air Brasive)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청동유물의 경우는 건조온도 80℃정도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마. 강화처리

위와같은 처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에 노출된다면 재부식이 급격히 진행되므로 이 외부환경을 차단시켜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크릴계 투명 합성수지를 이용한 강화처리는 재질을 강화시키고 표면에 Coating 피막을 형성시켜 줌으로서 외부와 차단되어 부식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코팅처리는 20% Acryloid NAD-10을 사용하였고 처리방법으로는 우선 대상유물을 진공함침기에 넣은후 76cm/Hg 상태에서 Acyloid NAD-10를 주입시켜 유물을 침적시켰다.

청동유물의 경우는 아크릴계 수지 20% Incralac을 사용하여 철제와 같은 처리방법으로 강화처리 하였다.

바. 접합 및 복원

유물의 결실 및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으로 주로 Epoxy계 접착제 (상품

명:Araldite Rapid type)와 아크릴계 순간접착제 (상품명:Cyanoacrylate.ALTECO)를 사용하였다. Araldite Rapid type 경우는 재질이 강하고 접합면이 크거나 복원되어야할 부위가 있을 때 사용하였는데 충진제로 Phenol계의 Microballoons을 사용하였으며 무기안료를 혼합하여 색맞춤을 하면서 접합·복원하였다. 또한 재질이 약하고 접합면이 작거나 큰 강도를 요구하지 않을때엔 순간접착제를 사용하였다. 접합·복원중에는 접착면 이외의 표면에 고착된 접착제를 유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제거하였으며 청동유물은 순간접착제를 사용할때 표면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였다.

사. 재강화처리

접합·복원과정을 거치면서 유물 표면의 Coating 피막이 손상되었거나 복원부의 강화처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손상되었거나 복원된 면에서의 재부식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으로 1차 강화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실시하였으나 다른 점은 접합·복원에 사용된 접착제가 용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짧은 시간내에 진공함침을 하여 재강화처리를 완료하였다.

아. 기록 및 보관

보존처리가 완료된 유물은 보존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나 처리에 사용된 약품, 처리방법 등을 기록카드에 상세히 기록하고 기록사진촬영(Color, Silde, B/W)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든자료는 전산 입력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한편 출력을 통해 기록카드를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다.

처리가 끝난 유물은 주변환경에 의한 재부식의 우려가 있어 밀폐포장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포장은 우선 이축연신비닐내에 Flastic Foam을 깔아 유물의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유물과 함께 제습제(Silicagel)를 넣어 진공포장하였다.

## Ⅳ. 보존처리 결과 및 고찰

앞에서 임진산성 출토 금속유물에 대한 유물의 형태, 특징 및 과학적 보존처리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식발굴전에 발견·신고된 철제 현자총통 2점은 조선시대 총통 및 무기 발달사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보존처리 결과 약실부에서 點火線 구멍이 있고 내부에는 彈丸이 장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총통은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총통 2점 모두 탄환이 장전되어 발사되지 않은 상태로 반전되어진 것으로 보아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해 준다. 현재까지 국내·외에 유존하는 조선시대 철제총통 가운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일본 遊就館에 5점이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2점은 「鐵匠字文監官甫世元昌原庸造玄字嘉靖三十五年十月日」명 명문이 있어 임진왜란 전인 1556년(명종11)에 만들어진 것으로 비교·연구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에 현존하는 비교자료로는 嘉靖年間(1522~1566, 中宗17~明宗21)에 만들어진 보물1223호로 지정되어 있는 「玄亩四十六年大中館嘉靖二」 匠樂內了同」銘 천동세 현자총통이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

옻칠 시료(사진 1)에 대한 IR분석은 채취한 천박시료를 Aceton과 Xylene에 함침하여 세척한 후 칠박시료 pellet을 제작하여 IR Spectra를 얻었다. 표2은 분석 스펙트럼이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산화철이 많아서 Noise가 심하지만 3,400, 2,900, 2,850, 1,720~1,600, 1,450$cm^{-1}$ 부근에서의 적외선의 흡수는 천의 특성흡수( "Infrared Absorption Spectra of a few Natural products similar to Japanese Urushi" Kenzo, 보존과학, 21호, 1982)와 거의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분석에 사용된 시료는 옻칠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천박 단면의 구조관찰을 위하여 채취된 소편(2cm~4cm)을 투명 에폭시수지(Epofix Resin)로 包埋하고 단면을 연마한 후 슬라이드 그라스에 부착, 이것을 다시 10㎛이하의 두께로 연마하여 현미경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사진 2)

현미경 관찰결과 칠도막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하부(칠판 연접부)에는 투명칠(현미경 下에서는 황색층)을 도포하고 그 위에 검은색 안료(Carbon 종류로 추정됨)를 혼합한 칠을 칠하고 최상층에 투명칠(현미경 下에서는 황색층)을 하여 마무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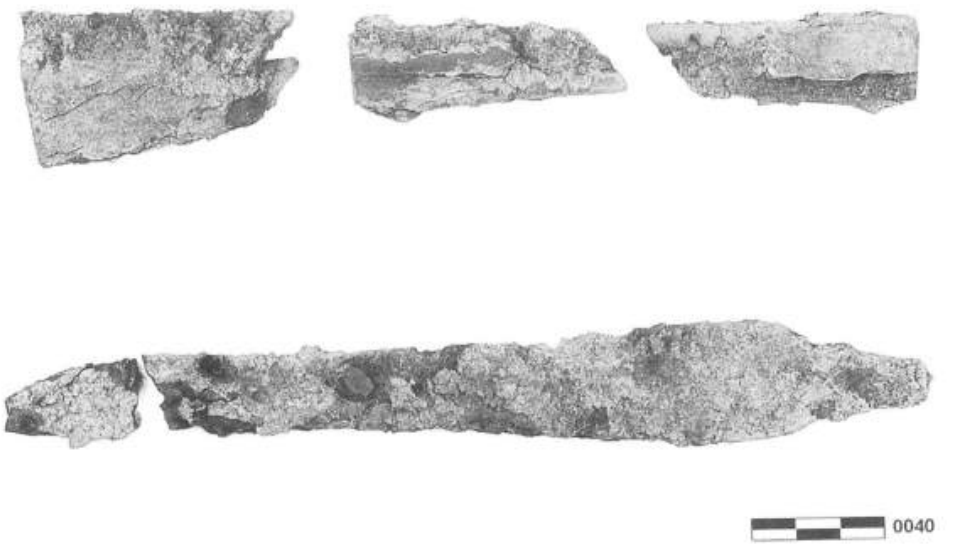
전체 두께는 약 270㎛이며 최하부(사진 2-a)가 약 33㎛, 가운데층이 146㎛(사진 2-b), 최상층이 약 91㎛(사진 2-c) 정도이다.

옻칠은 표면을 아름답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방수·내화학성이 좋고 방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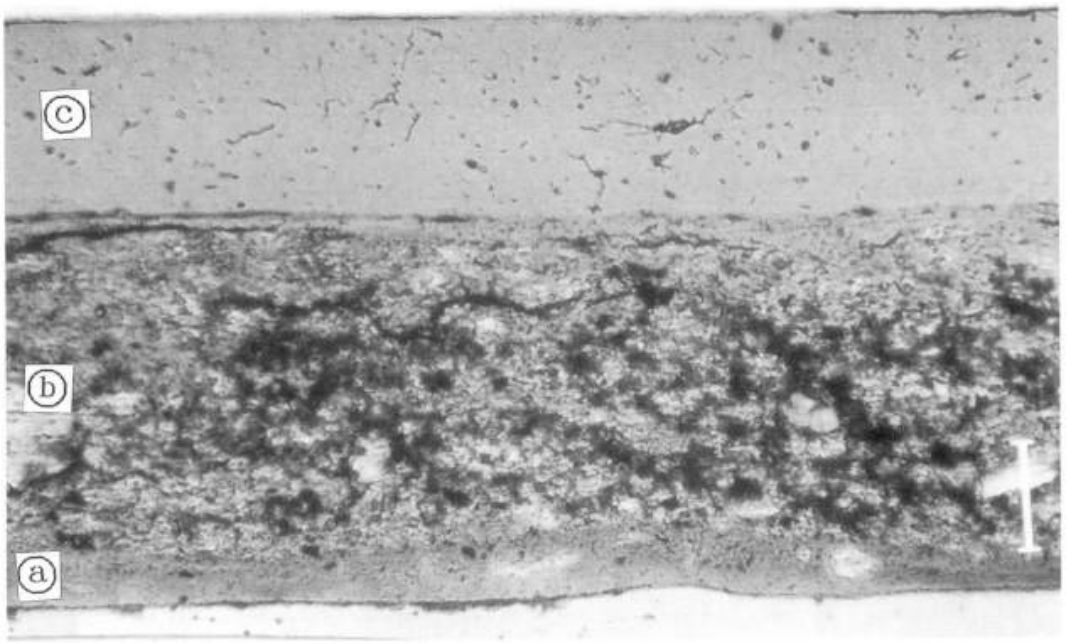
방부효과가 뛰어나 옛부터 우수한 도료로 응용되어 왔는데 인진산성에서 출토된 옻칠이 된 유물의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금속(철)에 옻칠을 함으로서 상식적 효과뿐만 아니라 방식효과를 고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목되는 유물은 금동편인데 전자현미경(SEM) 및 형광X선분석기(XRF) 등을 통한 분석결과 도금층의 두께는 0.6㎛정도로 나타났는데,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부록2"의 「용인 인진산성 출토 금동편의 금속학적 고찰」편에서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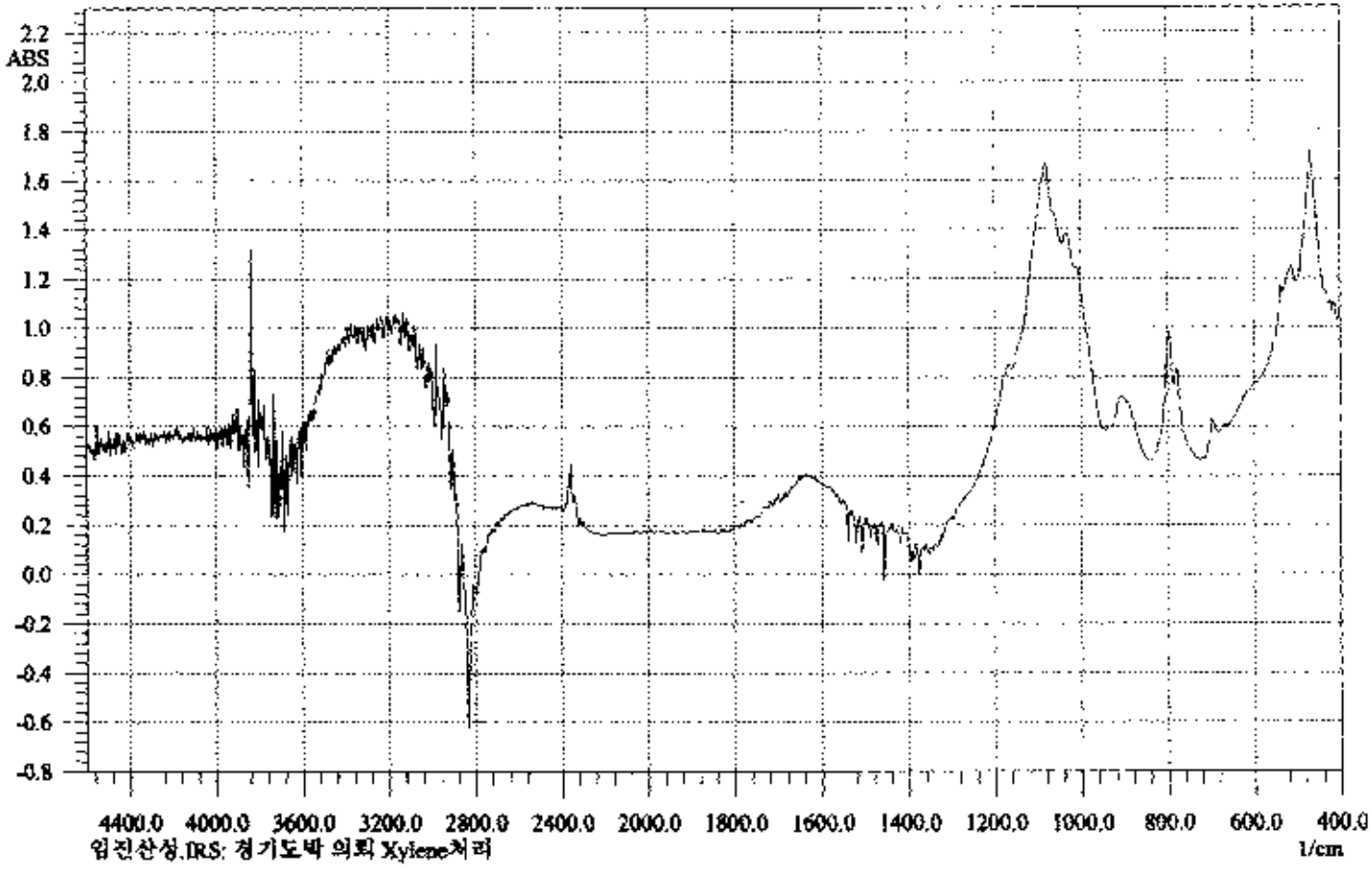
끝으로 IR분석을 담당해주신 목포해양유물전시관 김악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사진 1 - 임진산성 출토 옻칠시료




- 사진 2 - 옻칠편의 현미경 사진 (×200)




그 림 .. 이전산성 출토 옻칠편의 IR 분석표

## 《참 고 문 헌》


1. 韓國初期火器研究, 蔡述錫著, 一志社. 1981
2. 韓國의 火砲, 李康七著, 軍事博物館. 1997
3. 火砲式諺解, 李日著, 1636
4. 科學技術文化財調査報告書Ⅱ, 文化財管理局. 1986
5. 保存科學研究15輯, 國立文化財研究所. 1994
6. 韓國古火器圖鑑, 趙仁福編著, 文化財管理局
7. 金基雄 <三國時代의 武器研究 考古學資料를 中心으로-->
   韓國學報 5輯
8. 金性泰 <古濟의 兵器> 古濟研究 26輯, 忠南大學校 古濟研究所. 1996
9. 尙州 新興里 古墳群, <尙州 新興里古墳群 出土 金屬遺物의 保存>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10. 京畿道博物館 發掘調査概報, 京畿道博物館. 1997
12. 文化財의 科學的 保存, 文化財研究所
13. 도유호, 이태녕 ,「고려팔만대장경 장판의 옻칠」
    보존과학회지11. 1999.
14. T. Kenzo, "Infrared Absorption Spectra of a few Natural products similar to Japanese Urushi" .
    Science for Conservation , 21 , 47~53 , 1982.
15. 岡田文男, 古代出土漆器の 研究. 京都書院. 1995.

【 부록 4 】

# 용인 임진산유적 시굴조사 보고

宋 滿 榮

2000

京 畿 道 博 物 館

# 目　次


Ⅰ. 머리말 ..... 391

Ⅱ. 調査 方法·過程 및 層位 ..... 394

1. 調査 方法 및 過程 ..... 394

2. 遺蹟의 層位 ..... 394

Ⅲ. 調査 內容 ..... 397

1. 靑銅器時代 住居址 ..... 397

1) 遺構 ..... 397

2) 出土遺物 ..... 399

2. 朝鮮時代 溝渠 ..... 400

3. 朝鮮時代 創土部 ..... 400

4. 文化層 出土遺物 ..... 400

1) 初期古墳時代 出土遺物 ..... 400

2) 朝鮮時代 出土遺物 ..... 403

(1) 磁器類 ..... 403

(2) 陶器類 ..... 406

(3) 瓦類 ..... 408

Ⅳ. 맺음말 ..... 415

# 圖 面 目 次


도면 1. 용인 임진산유적 시굴조사지역 위치도 ..... 393
도면 2. 용인 임진산유적 시굴 피트 및 트렌치 구획도 ..... 395
도면 3. 용인 임진산유적 유구배치도 ..... 398
도면 4.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출토 토기 ..... 416
도면 5.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 417
도면 6. 조선시대 구상유구 ..... 418
도면 7.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 419
도면 8.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 420
도면 9.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 421
도면 10. 문화층 출토 백자편 ..... 422
도면 11. 문화층 출토 도기편 ..... 423
도면 12. 문화층 출토 도기편 ..... 424
도면 13. 문화층 출토 수키와 ..... 425
도면 14. 문화층 출토 수키와 ..... 426
도면 15. 문화층 출토 수키와 ..... 427
도면 16. 문화층 출토 수키와편 ..... 428
도면 17. 문화층 출토 기와편 ..... 429
도면 18. 문화층 출토 기와편 ..... 430
도면 19. 문화층 출토 기와편 ..... 431
도면 20. 문화층 출토 기와편 ..... 432
도면 21. 문화층 출토 기와편 ..... 433
도면 22. 문화층 출토 기와편 ..... 434
도면 23. 문화층 출토 기와편 ..... 435

# 寫眞目次


사진 1. 용인 임진산유적 조사지역 원경(①:남서에서, ②:동에서) ..... 437
사진 2. 용인 임진산유적 조사지역 근경(①:동쪽 능선부, ②:동남쪽 경사면) ..... 438
사진 3. 용인 임진산유적 조사완료후 전경(①:동쪽 능선부, ②:동남쪽 경사면) .... 439
사진 4. 용인 임진산유적 층위(①:청동부 층위, ②:Pit 가3 북벽 층위) ..... 440
사진 5. 청동기시대 주거지 노출 전경(①:조사 완료후, ②:윤곽선 확인후) ..... 441
사진 6. 청동기시대 주거지 내부 층위(①) 및 토기 출토상태(②) ..... 442
사진 7. 청동기시대 주거지 내부퇴적층 출토유물 ..... 443
사진 8. 청동기시대 주거지 내부퇴적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 444
사진 9. 조선시대 우물(①:우물 노출 전경, ②:기둥구멍 세부) ..... 445
사진 10. 조선시대 사도부(①:사도부 층위, ②:사도부 노출 전경) ..... 446
사진 11.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 447
사진 12.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 448
사진 13.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 449
사진 14.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 450
사진 15.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 451
사진 16.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 452
사진 17. 문화층 출토 백자편 ..... 453
사진 18. 문화층 출토 백자편 ..... 454
사진 19. 문화층 출토 백자편 ..... 455
사진 20. 문화층 출토 토기편 ..... 456
사진 21. 문화층 출토 토기편 ..... 457
사진 22. 문화층 출토 숙기와 ..... 458
사진 23. 문화층 출토 기와편 ..... 459
사진 24. 문화층 출토 기와편 ..... 460
사진 25. 문화층 출토 기와편 ..... 461
사진 26. 문화층 출토 기와편 ..... 462
사진 27. 문화층 출토 기와편 ..... 463

# 表 目 次

표 1. 청동기시대 주거지 상부퇴적층 출토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 399
표 2. 임진산유적 출토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 402

# Ⅰ. 머리말

용인 임진산유적(도면 1, 사진 1)은 삼성물산에서 건설 계획 중에 있는 최첨단 과학기지 예정부지로 이목작업시 총통 2점과 함께 칠촉 등 조선시대의 무기류가 발견됨에 따라 경기도박물관에서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한 유적이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임진산유적은 임진왜란 당시 下三道勤王兵 6萬이 日本軍 1,600명에게 참패를 당한 용인전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사 유적으로 추정되었으며, 경기도박물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추정을 입증케 하는 중요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출토된 조선시대 유물 가운데에는 천보, 천모, 천촉, 소도, 대도, 창고날, 도자, 이화문장식환건철, 전골, 흑칠칼집편, 이형철기 뿐만 아니라 총통으로 생각되는 전환 5점이 출토되어 임진왜란 당시의 무기체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 무기류와 함께 출토된 도자기는 조선백자뿐만 아니라 중국 명나라 宣德(1426~1435)과 嘉靖(1522~1566)년간의 중국 청화백자가 출토되어 유적의 중심연대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기타 청동기시대의 반월형석도, 갈판, 공렬토기편, 무문토기편 등과 함께 초기철기시대의 타날문토기편, 천촉, 철정 등이 출토되어 임진산유적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유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의 임진산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총통이 발견된 임진산 정상부(해발 129m)의 한정된 지역에 대한 긴급발굴조사이었으며, 그나마도 이사작업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출토된 유물과 관련된 유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임진산(해발 129m)의 동쪽과 동남쪽 경사면에 대한 시굴조사를 계획하게 되었는데, 이는 해당 조사지역이 비록 급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지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遺構의 유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1997년 8월 18일에 착수하여 단기간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10월 9일에야 철수하게 되었다. 본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현 기전문화재연구원장)

자 문 위 원 : 최영희(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한병삼(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태진(서울대 교수)
김병모(전 한양대학교 교수, 현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이강칠(전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장)
차용걸(충북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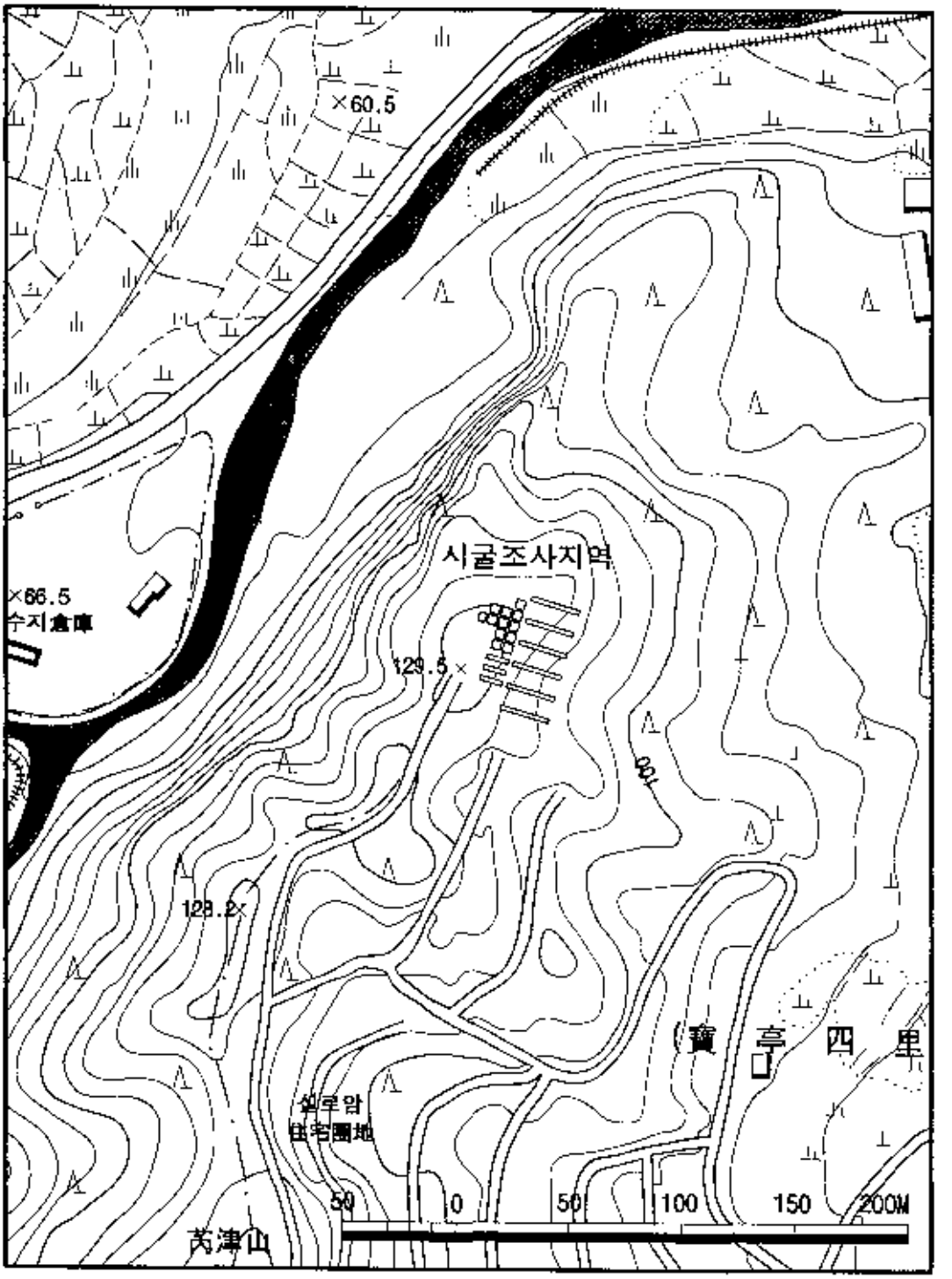
책임조사원 : 이인숙(전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현 경기도박물관장)

조 사 원 : 김성대(전 경기도박물관 고고미술부장, 현 기전문화재연구원 실장)
송만영(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사보조원 : 소상영(현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유은식(현 숭실대학교 박물관 조교)
김국환(컴퓨터그래픽 담당)
나신균(현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윤재민(숭실대학교 사학과 학부생)
김형진( 〃 〃 )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10월 8일에는 현장에서 지도위원회의를 갖고 유적의 성격 및 향후 보존을 위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일부만 남아 있는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제외하고 특별히 유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재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추가 조사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총통 등이 출토된 본 유적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역사전시관을 건립하여 역사교육의 산 현장으로 활용하자는 결론이 내려졌다.

현장 조사는 송만영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유적 및 유구의 사진 촬영은 소상영, 유은식이 담당하였으며, 유구 실측은 유은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의 원고는 송만영이 작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부 유물에 대한 원고는 구문경(숭실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이인주(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대학원)가 작성한 것을 송만영이 가필하였다. 유구 및 유물 도면의 제도 및 트레이싱 작업은 송호(추계예술대학 동양화과 졸업)가 전담하였고, 유물 사진의 촬영 및 현상·인화는 이상봉(동국전문대학 문화재관리과 졸업)이 수고해 주었다. 기타 임진산유적의 유구배치도 및 조사구획도는 김국환이 작성하였다.




도면 1. 용인 인진산유적 시굴조사지역 위치도

## Ⅱ. 調査 方法·過程 및 層位

### 1. 調査 方法 및 過程(도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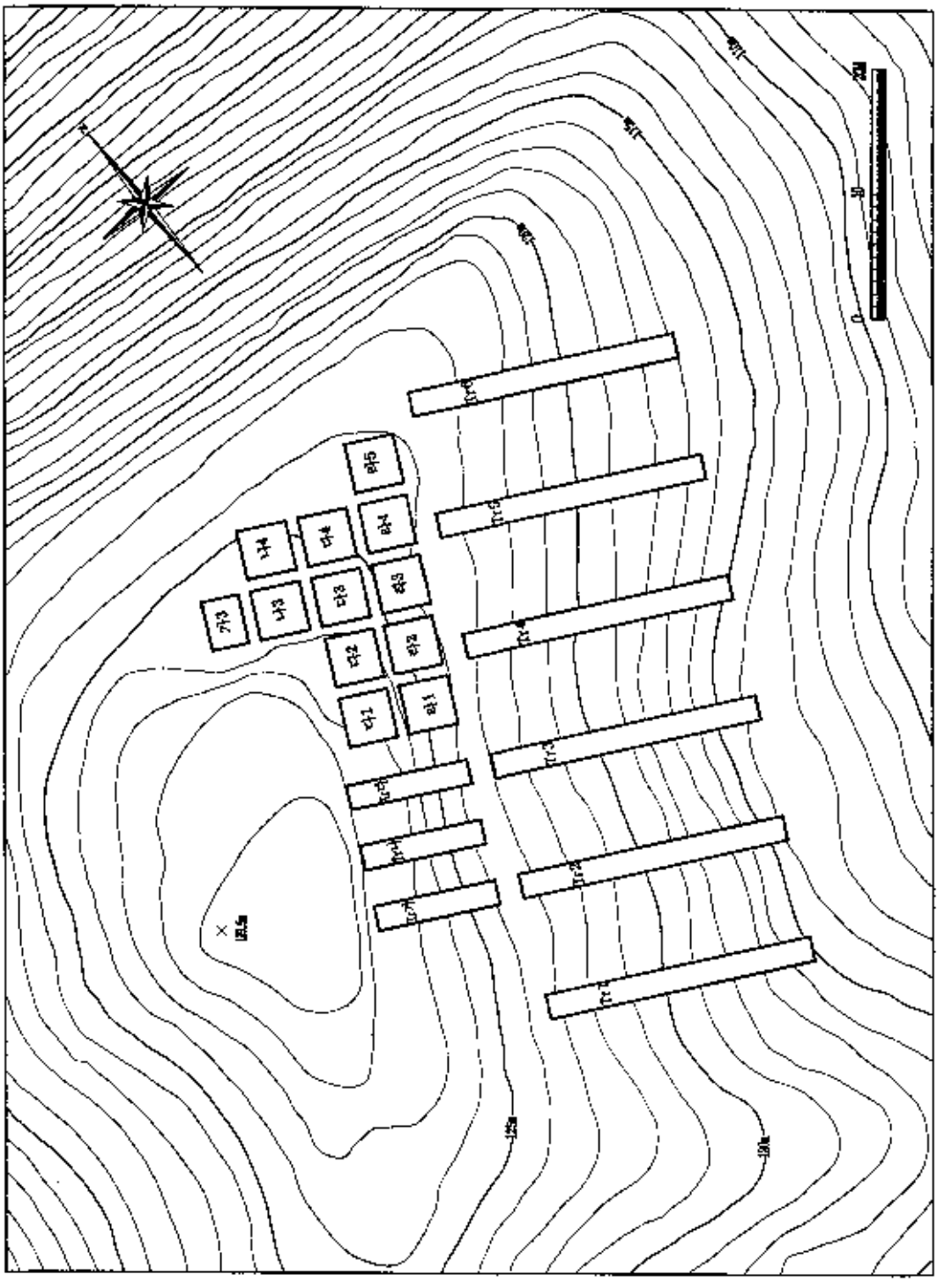
이번 임진산유적에 대한 조사는 긴급발굴조사에서 제외되었던 임진산(해발 129m)의 동쪽과 동남쪽 경사면(해발 114m)에 대한 시굴조사와 함께 긴급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성토부 하단의 주거지에 대한 발굴조사로 진행되었다. 시굴조사는 임진산유적의 정확한 성격 규명을 위하여 주변 부대 방어시설을 찾는데 주력하였으며 이외에도 유적 주변에서 청동기시대 및 초기백제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유구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리드 설정은 긴급발굴조사시 남북방향으로 설치되었으나, 이번 조사지역의 지형이 남동-북서 방향으로 경사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리드 방향에서 30도 가량 들어 설치하였다. 시굴조사는 지형에 따라 지역을 2구분하여 조사 방법을 달리하였다(사진 2). 먼저 산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비교적 완만한 능선을 이루고 있는 지역은 유구의 유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폭 4m의 Pit 12개소를 구획하여 층위조사 및 유구 확인 작업을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라1 피트에서 구상유구와 함께 가능성이 확인되었을 뿐, 여타의 유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나3, 나4 피트 내에서는 조선시대 문화층 아래에서 목탄과 함께 타날문토기편이 출토되는 유물포함층이 관찰되어 정밀 유구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유구의 존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산 정상부에서 동남쪽으로 급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지역은 道構의 잔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폭 2m, 길이 10m의 트렌치를 상단부에 3개소(Tr 가, 나, 다) 구획하고 하단에는 폭 2m, 길이 22.5m의 트렌치를 6개소(Tr 1~6) 구획하였다. 조사 결과, 트렌치 가, 나에서만 산 경사면을 인위적으로 삭토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위적인 삭토흔의 규모 및 성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면 재토하였으나 남서쪽으로 좀더 연장되고 있어 폭 25cm의 뚝을 남기고 확장 조사를 실시하였다(사진 3).

### 2. 遺蹟의 層位(사진 4)

유적의 상당부분이 이목작업 및 도로개설 등으로 교란되어 원 상태의 층위가 남아



노면 2. 용인 인진산유적 시굴 피트 및 트렌치 구획도

있는 부분은 극히 적다. 다행히도 유적의 동쪽 및 동남쪽 경사면은 공사지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층위 파악이 가능하다. 층위는 초기백제시대 문화층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단순하고 전체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Ⅰ층(지표층), Ⅱ층(조선시대 문화층), Ⅲ층(초기백제시대 유물포함층), Ⅳ층(생토층)으로 구성된다.

조선시대 문화층은 조사지역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층의 두께는 5cm~30cm 가량이다. 특히 성토부 주변부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문화층에는 비교적 많은 기와편들이 퇴적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토부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초기백제시대층은 주로 임진산 정상부와 동북쪽의 완만한 능선부 일부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이 층에서는 주로 타날문토기편이 출토되고 있으며 목탄편과 함께 불에 탄 흙이 혼입되어 있다. 따라서 Ⅲ층은 층의 성격상, 유적 전반에 걸쳐 형성된 문화층이기 보다는 산 정상부에 형성된 생활 유구가 화재로 인하여 폐기된 이후, 후대에 성토되거나 또는 그 아래쪽으로 재퇴적된 유물포함층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적 주변에서 청동기시대 및 초기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문화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 시기의 생활유적들이 고지성 집락과 같이 단기적 점유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 Ⅲ. 調査 內容

이번에 조사한 遺構는 긴급발굴조사시에 확인된 靑銅器時代 住居址 1기와 시굴조사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朝鮮時代의 溝渠 등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도면 3).

### 1. 靑銅器時代 住居址

#### 1) 遺構(도면 4, 사진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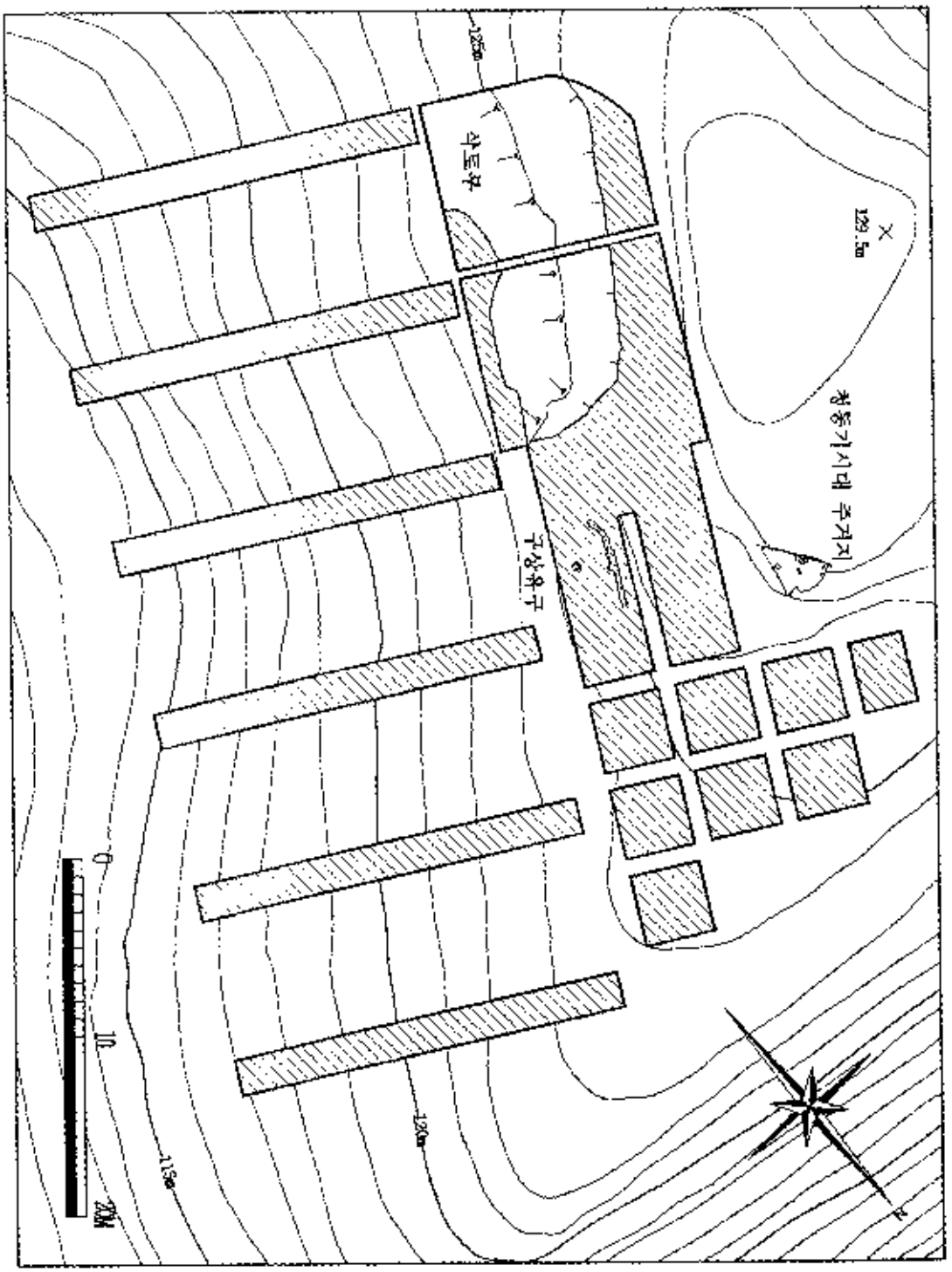
靑銅器時代 住居址는 정토부 하단부에서 노출되었는데, 대부분이 파괴되고 서벽 일부만이 잔존한 상태이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현재의 잔존 상태로 보았을 때,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등고선의 방향에 따라 신시된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는 암반 내지 암반풍화토를 파고 조성하였으며, 주거지 내부 퇴적도는 7~8개 층으로 세분된다(사진 6 ①). 주로 벽면에서 바닥으로 연결된 부분의 토층에서는 목탄이 다량 섞인 흑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채워져 있어 화재로 인하여 폐기된 주거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벽면은 "J"자상으로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처리되었으며 현존하는 수혈의 깊이는 25~30cm 가량이다. 특별히 주거지 바닥 처리를 한 흔적은 없으며, 비교적 평탄면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기둥자리만이 7개 가량 확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1~2개에 불과하다. 기둥구멍의 깊이는 5 cm 가량으로 얕은 편이다.

유물은 내부퇴적층에서만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바닥 부근에서는 비교적 큰 무문토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사진 6 ②). 또한 상부퇴적층에서는 무문토기편과 함께 타날문토기편[1]이 섞여 출토되었다[7].

---

1) 주거지의 시期와 관련하여 유물의 출토양상으로 볼 때, 타날문토기와 관련된 주거지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타날문토기편들이 주로 유구의 상부퇴적층에서 출토된 반면, 무문토기편들은 바닥면에 가까운 퇴적층에서 출토되었으며, 특히 도면 5-①과 같은 큰 무문토기 동체부편이 주거지의 바닥면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청동기시대 주거지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사 당시에 파악한 주거지의 상부퇴적층은 주거지의 내부퇴적층이기보다는 주거지 폐기 이후에 재퇴적된 토층인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도면 3. 용인 일산산유적 유구배치도

### 2) 出土遺物

도면 4-①(사진 7-①)은 작은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든 무문토기 구연부편으로 도면상 복원하였다. 산존 상태로 보았을 때, 완형토기로 추정된다. 색조는 내외 황갈색 내지 흑갈색을 띠다. 구연은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직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토기 외면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내면에는 불규칙하게 목리조정한 흔적이 남아 있다. 복원 구경: 21.5cm, 잔존고: 8cm

도면 4-②(사진 7-②)는 작은 석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든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색조는 황갈색 내지 회황색을 띠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횡으로 기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4.5cm

도면 4-③(사진 7-③)은 호형토기의 경부편으로 도면 5-①의 동체부편과 동일 개체로 추정된다. 굵은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내외 황갈색 내지 흑갈색의 색조를 띤다. 목부분은 큰 굴곡없이 외반하여 구연부로 연결된다.

도면 5-①(사진 7-④)은 거의 바닥 부근의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호형토기의 동체부편으로 도면상 복원하였다. 굵은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황갈색 내지 흑갈색의 색조를 띤다. 동체부의 배가 부른 것이 특징이며, 내면에는 거친 목리조정흔 내지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5-②(사진 8-①)는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든 구연부편으로 주거지 상부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면서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외 황갈색 내지 갈색을 띤다. 잔존고: 3.5cm

기타 도면 5 ③~⑩는 주거지 상부퇴적층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 동체부편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청동기시대 주거지 상부퇴적층 출토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심도 | 태토 | 특징 |
|---|---|---|---|---|---|
| 5-③ | 8-② | 흑회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승문-격자타날 |
| 5-④ | 8-③ | 황갈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격자문, 흑색 회색 |
| 5-⑤ | 8-④ | 회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격자문-횡선, 회색 흑색 |
| 5-⑥ | 8-⑤ | 회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횡선 |
| 5-⑦ | 8-⑥ | 흑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
| 5-⑧ | 8-⑦ | 황갈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격자문-횡선 |
| 5-⑨ | 8-⑧ | 흑갈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격자문 |
| 5-⑩ | 8-⑨ | 흑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교차타날 |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징 |
|---|---|---|---|---|---|
| 5-① | 8-⑨ | 흑색 | 연질 | 사립성 점토 | 회자문 교차타날 |
| 5-② | 8-⑩ | 회갈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승문 교차타날 |

도면 5-③(사진 8-⑪)은 토제 방추차편으로 상부에는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거치문을 시문하였다. 황색 내지 회색의 색조를 띠며 비교적 정선된 점토로 만든 연질 소성이다.

### 2. 朝鮮時代 周溝(도면 6, 사진 9)

청동기시대 주거지 남쪽 7~8m 지점에서 확인, 조사되었다. 층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周溝는 조선시대 문화층 하에서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다. 현재의 잔존상태로 볼 때, 평사진 사면을 타원형으로 절토하고, 삭토 지역 상단부에 溝를 돌린 것으로 판단된다. 좌측면에도 원부 溝가 돌려져 있으나 우측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급경사면에 입지하여 많은 부분이 삭토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원래는 구가 돌려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구의 규모는 폭 30~50cm, 길이 5m 가량이다. 구 내부에서는 극소량의 목탄편과 함께 황갈색 사질점토부식토가 채워져 있었으며 출토유물은 2점의 와편뿐이다.

한편, 溝 하단부 1.5m 지점에서 기둥구멍이 함께 조사되었다. 기둥구멍은 상단 폭 50cm, 하단 폭 20cm~30cm 가량이며, 깊이는 45cm 정도이다. 출토된 유물은 없으며 내부는 작은 목탄편이 많이 혼입된 명갈색 사질 부식토로 채워져 있었다.

### 3. 朝鮮時代 削土部(도면 3, 사진 10)

구상유구 남서쪽에서 발견되었는데, 삭토부의 동쪽 부분만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인 지형 여건으로 볼 때, 인위적으로 삭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 정상부의 방어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안반 내지 암반풍화토를 파고 조성하였으며, 규모는 잔존길이 19.9m, 폭 6.6m 가량이다. 유물은 소량의 기와편 및 자기편이 출토되었으며, 이 외에도 타날문토기편이 채집되었다.

## 4. 文化層 出土遺物

### 1) 初期百濟時代 出土遺物

출토유물은 대부분 토기편으로 여기에서는 임신산 정상부와 동쪽의 완만한 능선부에 형성된 초기삼국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 뿐만 아니라 지표층과 조선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토기편도 일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대부분이 기형을 알 수 없는 동체부편이기 때문에 구연부편과 저부편 위주로 설명하며, 동체부편은 표로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1점의 도제방추차편이 출토되었다.

도면 7-①(사진 11 ①)은 Pit 가3과 Pit 나3의 초기삼국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토기편들을 모아 접합한 원저단경호이다. 매우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색조는 내외 적갈색을 띤다. 잔존상태로 보았을 때, 동체부 상방이 최대부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연부는 동체부와 축약을 이루며 거의 직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사선적으로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여러 줄의 횡선을 돌렸으며, 구연부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복원 구경: 18cm, 잔존고: 12.1cm

도면 7-②(사진 11-②)는 흑회색 원저 壺와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많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색조는 내외 흑회색 내지 흑색을 띠나 벽심은 황갈색이다. 목에서 큰 축약없이 직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에는 조밀한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구연의 내외면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고: 4.4cm

도면 7-③(사진 11-③)은 황갈색 연질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에는 희미하게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렸다. 잔존고: 5.1cm

도면 7-④(사진 11-④)는 지표층에서 출토된 회색 연질의 구연부편으로 사립이 약간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壺의 구연부편으로 추정되는데, 구연단은 약간 둥글게 처리되었다. 속심은 흑회색을 띠며, 토기 내면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4.2cm

도면 7-⑤(사진 11-⑤)는 Tr 1의 지표층과 조선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것을 접합한 것이다. 동체부 상부인 남은 원길 소성의 타날문토기로 색조는 황갈색 내지 회황색을 띠며,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을 타날하고 구연으로 연결되는 목부분에는 돌아가며 두터운 횡선을 돌렸다.

도면 7-⑬(사진 12-⑧)은 Pit 나4의 조선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마연분토기 구연

(표 2) 임진산유적 출토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도 | 특징 |
|---|---|---|---|---|---|
| 7-⑥ | 12-① | 황갈색 | 연질 | 정토 | 격자문+횡선 |
| 7-⑦ | 12-② | 회백색 | 연질 | 정토 | 교차승문 타날 |
| 7-⑧ | 12-③ | 회황색 | 연질 | 정토 | 격자문+횡선 |
| 7-⑨ | 12-④ | 회황색 | 연질 | 정토 | 격자 타날, 내면은 황색 |
| 7-⑩ | 12-⑤ | 적갈색 | 연질 | 정토 | 격자 타날, 속심은 암갈색이며 경질에 가까움 |
| 7-⑪ | 12-⑥ | 회색 | 연질 | 정선된 정토 | 교차승문+희미한 2조의 횡선 |
| 7-⑫ | 12-⑦ | 흑갈색 | 연질 | 정토 | 교차승문 타날, 속심 및 내면은 황갈색 |
| 7-⑬ | 12-⑨ | 적갈색 | 연질 | 정토 | 격자 타날, 속심 및 내면은 황갈색 |
| 8-① | 12-⑩ | 회색 | 경질 | 정선된 정토 | 교차승문+횡선 |
| 8-② | 12-⑪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정토 | 승문+얇은 횡선 |
| 8-③ | 13-① | 황색 | 연질 | 정토 | 승문+횡선, 속심은 흑색 |
| 8-④ | 13-② | 회황색 | 연질 | 심토 | 승문+얇은 횡선 |
| 8-⑤ | 13-③ | 회황색 | 연질 | 정토 | 격자 타날 |
| 8-⑥ | 13-④ | 암갈색 | 연질 | 정토 | 격자문+횡선 |
| 8-⑦ | 13-⑤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정토 | 교차승문 타날 |
| 8-⑧ | 13-⑥ | 회색 | 경질 | 심토 | 격자문+횡선 |
| 8-⑨ | 13-⑦ | 흑색 | 연질 | 심토 | 격자 타날 |
| 8-⑩ | 13-⑧ | 황색 | 연질 | 사질성 정토 | 교차승문 타날 |
| 8-⑪ | 13-⑨ | 회황색 | 연질 | 정토 | 동체부에 승문+횡선, 하방에는 교차승문 |
| 8-⑫ | 13-⑩ | 황색 | 연질 | 심토 | 승문 타날 |
| 8-⑬ | 13-⑪ | 회백색 | 연질 | 정토 | 격자문+횡선 |
| 8-⑭ | 14-① | 황색 | 연질 | 사질성 정토 | 교차승문 타날 |
| 8-⑮ | 14-② | 회색 | 연질 | 정토 | 격자 타날 |
| 8-16 | 14-③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정토 | 교차승문 타날 |
| 9-① | 14-④ | 회색 | 연질 | 심토 | 격자 타날, 속심은 흑색 |
| 9-② | 14-⑤ | 황색 | 연질 | 정토 | 격자 타날 |
| 9-③ | 14-⑥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정토 | 격자 타날 |
| 9-④ | 14-⑦ | 암회색 | 연질 | 정토 | 격자 타날 |
| 9-⑤ | 14-⑧ | 흑회색 | 연질 | 사질성 정토 | 격자 타날 |
| 9-⑥ | 14-⑨ | 회황색 | 연질 | 심토 | 격자 타날 |
| 9-⑦ | 14-⑩ | 회색 | 경질 | 정토 | 격자 타날 |
| 9-⑧ | 14-⑪ | 암회색 | 연질 | 정토 | 격자문+횡선 |
| 9-⑨ | 15-① | 회백색 | 연질 | 심토 | 승문 타날 |
| 9-⑩ | 15-② | 암갈색 | 연질 | 정토 | 교차승문 타날 |
| 9-⑪ | 15-③ | 암갈색 | 연질 | 정토 | 격자 타날 |
| 9-⑫ | 15-④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정토 | 격자 타날 |
| 9-⑬ | 15-⑤ | 암갈색 | 연질 | 정토 | 격자 타날 |
| 9-⑭ | 15-⑥ | 회색 | 경질 | 정토 | 교차격자문+횡선 |
| 9-⑮ | 15-⑦ | 회색 | 연질 | 정토 | 승문+횡선 |
| 9-16 | 15-⑧ | 흑색 | 연질 | 사질성 정토 | 승문+횡선 |
| 9-17 | 16-① | 회황색 | 연질 | 정토 | 격자 타날 |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속질 |
|---|---|---|---|---|---|
| 9-18 | 16 ② | 암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 타날 |
| 9-19 | 16-③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타날 |
| 9-20 | 16-④ | 회색 | 연질 | 점토 | 승문 타날 |
| 9-21 | 16-⑤ | 암갈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
| 9-22 | 16-⑥ | 황갈색 | 연질 | 점토 | 격자 타날 |
| 9-23 | 16-⑦ | 회백색 | 연질 | 점토 | 승문 타날 |
| 9-24 | 16-⑧ | 회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
| 9-25 | 16-⑨ | 회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교차승문 타날 |
| 9-26 | 16-⑩ | 회황색 | 연질 | 점토 | 격자+횡선 |
| 9-27 | 16-⑪ | 황갈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
| 9-28 | 16-⑫ | 회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

부위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외 흑회색의 색조를 띤다. 구연은 거의 직선적이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단 아래에 1조의 횡선이 돌아가며 그 아래쪽으로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5.6cm

이외에 출토된 동체부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도면 9-29(사진 16-⑬)는 석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든 저부편이다. 내외 황갈색의 색조를 띠나 속심은 흑색이고, 산화 소성의 양전이다. 잔존고: 2.4cm

도면 9-30(사진 16-⑭)은 작은 석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외 황갈색의 색조를 띤다. 연질소성이며, 바닥 중앙부는 약간 들린 상태이다. 잔존고: 2.9cm

### 2) 朝鮮時代 出土遺物

#### (1) 磁器類

임진산유적에서 출토된 자기류는 대부분 지표층(I층) 내지 조선시대 문화층(II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모두가 순백자이다. 기종은 발, 완, 접시, 호, 병, 소호, 개 등이 있으나, 도면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가) 鉢

모두 3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 도면상 전체 기형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은 한 점 밖에 없다.

도면 10-①(사진 17-①)은 소형 발 내지 盞으로 분류되는 기종이다. 구연부는 상부에서 약간 외반되며 구연단은 둥글게 다듬었다. 동체부에는 거친 점토질흙이 환원된

다. 굽은 접지면의 내측부를 둥글게 깎아 다듬었다. 내저에는 얕은 원각이 굽보다 약간 넓게 만들어져 있다. 회백색 내지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유색은 우유빛과 같이 밝은 회백색을 띤다. 태토비짐은 밭침으로 번조하였다. 복원구경: 12.8cm, 복원저경: 4.8cm, 높이: 4.8cm

도면 10-②(사진 17-②)는 접지면이 다소 넓은 굽을 가진 발이다. 내저에는 굽보다 약간 넓은 얕은 원각이 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유색은 약간 황색 기운이 도는 회백색의 빛깔을 띤다. 가는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으며, 소성상태가 좋지 못하다. 저경: 6.8cm, 잔고: 3.5cm

도면 10-④(사진 17-④)의 굽은 접지면의 안쪽면을 경사지게 깎았으나 접지면의 두께는 일정치 않다. 동체의 하부에는 가는 음각선이 2조 관찰된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유색은 약간 푸르스름한 회백색을 띤다. 굽 안바닥에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5개소에 가는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다. 저경: 5.2cm, 잔고: 2.4cm

도면 10-⑥(사진 17-⑥)은 굽의 두께가 일정치 않으며, 굽의 내측부를 거칠게 깎았다. 내저에는 얕은 원각이 굽보다 약간 넓게 만들어져 있으며, 내측에 태토비짐는 받침으로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유색은 회색색이다. 저경: 6cm, 잔고: 3cm

(나) 碗

2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0-③(사진 17-③)은 저부만 남은 것이다. 굽은 죽절굽으로 접지면의 두께는 다소 일정치 않다. 동체부 하부에는 가는 음각선이 관찰되며 내저에는 굽보다 약간 넓은 원각이 파여 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황색 빛이 감도는 회백색의 유조를 띤다. 접지면 안쪽으로 가는 모래가 묻어 있다. 저경: 4.8cm, 잔고: 3.5cm

도면 10-⑤(사진 17-⑤)는 죽절굽의 저부편으로 굽의 두께는 다소 두터우며 태토비짐는 받침으로 번조하였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약간 푸른 회백색을 띤다. 기면에는 거칠게 깎은 흔적이 관찰되며 잠디가 붙어 있다. 저경: 4.3cm, 잔고: 3.3cm

(다) 접시

구연부 2점, 저부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0-⑦(사진 18-①)은 구연-동체부 일부만이 남은 것을 도면 복원한 것이다. 구연부는 곡선적으로 외반되었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면에는 내저에 비교적 넓게 원각이 화여져 있다. 백색 내지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유색은 회백색을 띤다. 구경: 16.4cm, 잔고: 2.7cm

도면 10-⑧(사진 18-②)은 구연부가 끝에서 가볍게 외반된 것으로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백색 내지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회백색의 유조를 띤다. 구경: 17.6cm, 잔고: 2.9cm

도면 10-⑨(사진 18-③)는 점시 저부편으로 굽이 높고 접지면 안쪽 모서리를 깍아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저에는 굽보다 넓은 원각을 파내었다. 백색 내지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유색은 회배색의 빛깔이다. 가는모래반침으로 번조하였다. 저경: 5.2cm, 잔고: 3.4cm

(라) 기타

도면 10-⑩(사진 19-①)은 합의 뚜껑편으로 평평하면서 약간 둥근 상면에서 둥글게 곡선적으로 내려와 측면과 연결된 형태이다. 상면 중앙에는 꼭지가 부착된 흔적이 있으며 꼭지를 중심으로 2조의 원문이 음각되어 있다. 또한 외측 드림새에는 1조의 음각대선이 있다. 내면에는 2곳에 규석받침 흔적이 있다. 백색 내지 회백색의 태토로 만들었으며 유색은 유백색으로 출토 자기류 가운데 가장 유·태가 회고 치밀하다. 복원구경: 16.8cm, 잔고: 4.1cm

도면 10-⑪(사진 19-②)은 구형호의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 복원한 것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말아 그 끝을 날카롭게 처리하였으며 내면에는 물레성형한 흔적이 관찰된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유색은 황색 기운이 도는 유백색을 띤다. 복원구경: 12.4cm(추정), 잔고: 4.7cm

도면 10-⑫(사진 19-③)는 소호의 구연-동체부편이다. 구연은 밖으로 둥글게 말았고, 어깨가 상당히 강조되었다. 내면에는 거친 물레성형한 흔적이 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회백색의 유조를 띤다. 복원구경: 4cm, 잔고: 4cm

도면 10-⑬(사진 19-④)은 병의 구연부편이다. 구연부 끝에서 심하게 곡선적으로 외반된 것이 특징적이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병 목부분에는 내·외에 가는

모래와 함께 잡티가 붙어 있다. 유색은 황백색의 기운이 도는 회백색이고, 속심은 회흑색을 띤다. 구경: 6cm, 잔고: 4.5cm

(2) 陶器類

대부분의 도기편이 표토층 내지 조선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도면상으로 복원이 가능한 구연부편과 저부편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 11-①(사진 20-①)은 외면 자갈색, 내면 회청색을 띠는 도질로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구연부의 단면은 "T"자형을 이루며 구연 직하에 돌대를 마련하였다. 구연 내외에 회전물손질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미세한 석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태토로 성형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복원 구경: 33.6cm, 잔고: 4cm

도면 11-②(사진 20-②)는 외면 흑회색, 내면 암회색의 도질로서 속심은 자색을 띤다. 구연부는 밖으로 둥글게 말아 붙였으며 구연부와 동체부는 완만한 축약을 이루면서 연결되어 어깨가 약간 강조된 느낌이다. 구연부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동체부 외면에는 불규칙적인 음각선이, 내면에는 拍子痕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태토로 만들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복원 구경: 24.8 cm, 잔고: 7.8cm

도면 11-③(사진 20-③)은 내외면 회백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기형상 동이 형태가 아닌가 추정된다. 구연부는 약간 밖으로 둥글게 말렸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석립이 거의 섞이지 않은 태토로 만들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복원 구경: 28.2cm, 잔고: 4cm

도면 11-④(사진 20-④)는 위의 구연부편과 같이 내외면 회백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동이로 추정된다. 구연은 바깥쪽으로 꺾이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단 및 내면에는 불규칙적인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석립이 거의 섞이지 않은 태토로 만들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복원 구경: 28cm, 잔고: 3.1cm

도면 11-⑤(사진 20-⑤)는 내외면 흑회색의 연질토기 구연부편이다. 속심은 회백색을 띤다. 구연부는 갈고리 모양으로 바깥쪽으로 꺾였으며 구연의 끝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정선된 태토로 만들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복원 구경: 27.6cm, 잔고: 2.5cm

도면 11-⑥(사진 20-⑥)은 내외면 암회색의 정선토기 구연부편이다. 속심은 회색을 띤다. 구연부는 끝에서 살짝 외반되었으며 구연단 내측에 홈이 돌아간다. 도기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석립이 거의 섞이지 않은 정선된 태토로 성형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복원 구경: 23cm, 잔고: 3.5cm

도면 12-①(사진 20-⑦)은 외면 흑회색, 내면 회청색을 띠는 도질로서 구연부는 밖으로 둥글게 말아 붙였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내면에는 희미하게 박자흔이 남아 있다. 정선된 태토로 만들었으며 속심은 자색을 띤다. 잔고:4.6cm

도면 12-②(사진 20-⑧)는 내외 흑회색의 연질토기이다. 속심은 회색을 띤다. 구연부는 밖으로 꺾여져 있고 구연 끝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미세한 석립이 소량 섞인 태토로 만들었다. 잔고: 3.4cm

도면 12-③(사진 20-⑨)은 내외 흑회색의 정질토기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약간 말았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에 희미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미세한 석립이 소량 섞인 태토로 성형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잔고: 2.5cm

도면 12-④(사진 21-①)는 내외 암회색을 띠는 도질의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꺾여 그 끝이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구연의 상면에는 홈이 돌아간다. 내외면에 희미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미세한 석립이 섞인 정선된 태토로 만들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다. 잔고: 2.7cm

도면 12-⑤(사진 21-②)는 내외 회황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거의 직각에 가깝게 바깥쪽으로 꺾였다. 미세한 석립이 섞인 정선된 태토로 성형하였다. 잔고: 2.2cm

도면 12-⑥(사진 21-③)은 내외 암회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T" 자형이나 상면이 둥글게 처리되었다. 정선된 태토로 성형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잔고: 1.8cm

도면 12-⑦(사진 21-④)은 내외 암회색의 정질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말아 붙였으며 내외면에 희미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석립이 거의 섞이지 않은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잔고: 2.5cm

도면 12-⑧(사진 21-⑤)은 내외 회색의 경질토기 저부편이다. 저부 바닥은 기의 들림이 없으며 축약없이 동체부와 연결된다. 내면에는 박자흔이 있으며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미세한 석립이 소량 섞인 태토로 성형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잔고: 7cm

도면 12-⑨(사진 21-⑥)는 내외 회황색의 경질토기 저부편이다. 바닥 중앙이 약간 들여 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정면이 거칠게 이루어졌다. 미세한 석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태토로 성형하였다. 잔고: 5.2cm

도면 12-⑩(사진 21-⑦)은 내외 암회색의 경질토기 저부편이다. 바닥 중앙이 약간 들여 있으며, 측약없이 동체부로 이어진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외면 하단부에는 깎기흔이 관찰된다. 정선된 태토로 만들었으며 바닥은 정면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공이 관찰된다. 잔고: 3.3cm

도면 12-⑪(사진 21-⑧)은 내면 회청색, 외면 암회색의 도질로서 바닥이 편평한 저부편이다. 내외 희미한 물손질흔이 있으며 석립이 거의 섞이지 않은 정선된 태토로 만들었다. 잔고: 4.7cm

도면 12-⑫(사진 21-⑨)는 옹기의 저부편으로 바닥 주변부가 약간 들려 있다. 내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색조는 외면 갈색, 내면 회청색을 띠며 속심은 자색이다. 정선된 태토로 만들었다. 잔고: 2.3cm

도면 12-⑬(사진 21-⑩)은 내외 회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편이다. 바닥 안쪽이 들려 있다. 내면에는 희미한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으며, 외면에는 횡마연흔이 관찰된다. 정선된 태토로 만들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잔고: 1.8cm

도면 12-⑭(사진 21-⑪)는 내면 회청색, 외면 암회색의 도질로서 바닥이 편평한 저부편이다. 내외 거친 물손질흔이 관찰되며 석립이 다소 섞인 정선된 태토로 만들었다. 잔고: 4.1cm

도면 12-⑮(사진 21-⑫)는 도면 20과 같은 저부편으로 추정되는데 분명치 않다.

도면 12-16(사진 21-⑬)은 저부 안바닥이 약간 들린 저부편으로 내면 회청색, 외면 회황색의 경질토기이다. 외면에 희미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미세한 석립이 약간 섞인 정선된 태토로 만들었다. 잔고: 3.2cm

도면 12-17(사진 21-⑭)은 내면 갈색, 외면 회갈색의 경질로서 내면에는 목리금기흔이 관찰된다. 잔고: 2.1cm

### (3) 瓦類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기와는 대부분이 기본기와이며, 기타 용도를 알 수 없는 특

수기와 1점이 출토되었다. 기와의 출토 지점은 대부분이 지표층(Ⅰ층) 내지 조선시대 문화층(Ⅱ층)으로 원위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임진왜란 직후부에 위치했던 건물지가 폐기되면서, 기와들이 동쪽과 동남쪽 경사면에 흘러내려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평기와 중에는 유단식수키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암키와가 다수 있다.

도면 13(사진 22-①)은 Tr 가-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로 미구 좌우 일부가 파손되었을 뿐 거의 완형의 상태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측변의 와도흔은 양쪽 모두 내면에서 ½ 가량 와도를 긋고 절단한 것으로 파쇄한 면은 다듬지 않았다. 내면에는 일부 마포흔이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불손질되어 있어 마포흔이 지워져 있다. 이러한 와도흔 내지 내면 처리는 임진산유적 출토 기와류에는 모두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체 길이는 34.2cm, 미구 길이는 3cm, 두께는 1.85cm이다. 내면의 하단부에는 6.2cm 가량 외반되게 깎여져 있고 등면과 내면 모두 집면되어 있다. 내면의 상단부 미구 부분은 4.8cm 가량 깎여져 안으로 살짝 내만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세로로 길게 불손질되어 있다. 등면에는 과도문이 전면에 시문되어 있고 그 위로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있다.

도면 14(사진 22-②)는 Tr 가-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로 미구 좌우 일부가 파손되었을 뿐 거의 완형의 상태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연·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전체 길이는 40cm, 미구 길이 2.9cm로 짧은 편이며, 두께는 2.55cm이다. 내면의 하단부에는 7.2cm 가량 외반되게 깎여져 있고 등면과 내면 모두 집면되어 있다. 내면의 상단부 미구 부분은 5cm 가량 깎여져 안으로 살짝 내만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세로로 길게 불손질되어 있다. 등면에는 과도문이 전면에 시문되어 있고, 특히 중단부에는 원형 내지 반원형의 국화문 7개가 시문되어 있다.

도면 15(사진 22-③)는 Tr 나-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로 미구 좌우 일부와 우측 하단부 일부가 파손된 채 남아 있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전체 길이는 33.8cm, 미구 길이는 2.8cm, 두께는 2.3cm이다. 내면의 하단부에는 3.4cm 가량 외반되게 깎여져 있고 등면과 내면 모두 집면되어 있다. 내면의 상단부 미구 부분은 3.8cm 가량 완만한 'S'자 모양으로 깎여져 안으로 살짝 내만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세로로 길게 불손질되어 있다. 등면에는 상·하단부에 삼각집선문과 와도문이 시문되어 있고 중단부에는 태사선문이 넓게 시문되어 있

,며, 그 위로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있다.

도면 16(사진 22-④)은 지표에서 채집된 수키와로 미구를 포함한 상단부가 결손된 채 중·하단부만 남아 있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의 하단부에는 2cm 가량 외반되게 깎여져 있고 등면과 내면 모두 성번되어 있다. 등면에는 중단부에 태사선문, 하단부에 파도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그 위로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있다. 두께는 2cm이다.

도면 17-①(사진 23-②)은 Tr 나-Ⅰ·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로 미구 좌우 일부와 중·하단부가 결손된 채 상단부만 남아 있다. 사질성 태토에 회색 연·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미구 길이는 2.5cm, 두께는 1.9cm로 내면의 상단부 미구 부분은 4.5cm 가량 깎여져 안으로 살짝 내만된 형태를 하고 있고 세로로 물손질되어 있다. 등면에는 삼각집선문과 태사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그 위로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있다.

도면 17-②(사진 23-①)는 지표에서 채집된 수키와로 미구 일부를 포함한 상단부가 남아 있는 小片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두께는 1.9cm, 미구 길이는 3.2cm이고 등면에는 삼각집선문과 태사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그 위로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있다.

도면 18-①(사진 24-④)은 Pit 라2-Ⅰ·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로 미구와 상단부 좌측 일부가 남아 있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두께는 2.3cm, 미구 길이는 3cm로 내면의 상단부 미구 부분은 5.4cm 가량 깎여져 안으로 살짝 내만된 형태를 하고 있다. 등면에는 상단부에 일부 박락현상과 함께 가로로 물손질되어 있어 문양이 지워져 있고, 그 아래로는 파도문이 전체적으로 시문되어 있다.

도면 18-②(사진 23-③)는 Tr 3-Ⅰ·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로 미구를 포함한 상단부 일부가 남아 있는 小片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색 연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의 상단부 미구 부분의 깎인 부위는 안으로 살짝 내만된 형태를 하고 있고, 등면에는 삼각집선문과 태사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그 위로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있다. 두께는 2.2cm이다.

도면 19-①(사진 23-⑧)은 Tr 4-Ⅰ·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로 미구를 포함한 좌측 상단부 일부가 남아 있는 小片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색 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

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에는 거칠게 물손질되어 있다. 두께는 2.3㎝, 바구 깊이는 2.2㎝로 내면의 바구 부분은 5㎝ 가량 내만되게 깎여지 있다. 등면에는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어 있고 그 위로는 전체적으로 물손실되어 있다.

도면 19-②(사진 23-⑥)는 Tr 4-Ⅰ·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로 좌측 하단부 일부가 남아 있는 小片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연·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하단부 내면의 경우 약 4㎝ 가량 외반되게 깎아 정면하였고, 등면의 경우도 2㎝ 가량 시문구로 내만되게 깎아 다듬은 흔적이 남아 있다. 등면에는 삼각집선문이 전면에 시문되어 있다. 두께는 2㎝이다.

도면 19-③(사진 23-⑦)은 Pit 라2-Ⅰ·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로 우측 하단부 일부가 남아 있는 小片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연·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하단부 내면의 경우 3.5㎝ 가량 외반되게 깎아 정면하였고, 등면의 경우도 2.5㎝ 가량 내만되게 깎아 정면하였다. 등면에는 태사선문과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두께는 2.1㎝이다.

도면 19-④(사진 24-⑤)는 Tr 6-Ⅰ·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로 중·하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하단부 내면의 경우 2.3㎝ 가량 외반되게 깎아 정면하였고, 등면의 경우도 1.1~2㎝ 가량 살짝 내만되게 정면하였다. 등면에는 전면에 사선문과 파도문이 시문되어 있고 그 위로는 물손질되어 있다. 두께는 2.1㎝이다.

도면 20-①(사진 24-①)은 Tr 2-Ⅰ·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로 하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사질성 태토에 회색·회갈색 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하단부 내면의 경우 3.4㎝ 가량 외반되게 깎아 정면하였고, 등면의 경우도 3~3.5㎝ 가량 정면하여 문양이 지워져 있다. 등면에는 전면에 파도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그 위로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있다. 두께는 2.1㎝이다.

도면 20-②(사진 24-③)는 Pit 나3-Ⅰ·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색 연·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에는 거칠게 물손질한 자국이 남아 있고 등면 상단에는 가로로 물손질하여 문양이 지워져 있으며, 그 아래로 나무 잎사귀 문양 일부가 시문되어 있다.

도면 20-③(사진 24-②)은 Pit 나3-Ⅰ·Ⅱ층에서 출토된 기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색 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에는 점면되어 있어

마포흔이 뚜렷하지 않고, 등면에는 삼각집선문과 평행선문이 전면에 시문되어 있다. 두께는 2.3㎝이다.

도면 20-④(사진 23-④)는 삭도부 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로 중·하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에는 세마포흔이 남아 있고 하단부에 3.5㎝ 가량 외반되게 깎아 정면하였다. 하단부 등면의 경우도 2.3~3.5㎝ 가량 정면하여 문양이 지워져 있다. 등면에는 長短의 사선을 이용한 집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두께는 2.5㎝이다.

도면 20-⑤(사진 23-⑤)는 Pit 라4-Ⅱ층에서 출토된 암키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에는 갈라짐 현상과 함께 거칠게 물손질되어 있다. 등면에는 상단에는 거의 지워진 가로의 평행선문이 시문되어 있고 그 아래로 나무 잎사귀 문양이 서로 겹쳐져 시문되어 있다. 두께는 2.35㎝이다.

도면 21 ①(사진 25-⑥)은 Pit 라3-Ⅰ·Ⅱ층에서 출토된 암키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색 연·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에는 1㎝당 9.6올 내외의 마포흔과 정면한 자국이 남아 있다. 등면에는 전면에 파도문이 시문되어 있고 그 위로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있다. 두께는 2.4㎝이다.

도면 21 ②(사진 25-⑤)는 Ⅰ·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등면에는 삼각+사선집선문이 전면에 시문되어 있고 그 위로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있다. 두께는 1.9㎝이다.

도면 21-③(사진 25-③)은 Tr 2-Ⅰ·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등면에는 사선의 집선문이 전면에 시문되어 있다. 두께는 2.1㎝이다.

도면 21-④(사진 25-④)는 Pit 라1-Ⅰ·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색 연·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에는 물손질되어 있고, 등면에는 사선의 집선문이 전면에 시문되어 있다. 두께는 2.4㎝이다.

도면 21-⑤(사진 25-①)는 구상유구에서 출토된 기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색 연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에는 마모가 심하지만 마포흔이 남아 있고 등면에는 집선문의 일부가 시문되어 있다. 두께는 2.1㎝이다.

도면 21-⑥(사진 25-②)은 Tr 4-Ⅰ·Ⅱ층에서 출토된 암키와편이다. 사질성 태토

에 회색 연·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에는 1㎠당 110올 내외의 바포흔이 남아 있고 등면에는 太線의 집선문 일부가 시문되어 있다. 두께는 2.2㎝이다.

도면 22-①(사진 26-⑤)은 Pit 다3-Ⅰ·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색 연·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에는 바포흔 위에 물손질되어 있고 등면에는 삼각집선문이 전면에 시문되어 있다. 두께는 2.4㎝이다.

도면 22-②(사진 26-⑥)는 Tr 4-Ⅰ·Ⅱ층에서 출토된 암키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색 연·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에는 1㎠당 8O올 내외의 바포흔이 남아 있고 등면에는 나무 앞사귀 문양의 일부가 서로 겹쳐져 시문되어 있으며, 그 위로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있다. 두께는 2.3㎝이다.

도면 22-③(사진 26-③)은 Pit 라1-Ⅰ·Ⅱ층에서 출토된 기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성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등면에는 사선과 삼각의 집선문이 좌측 부분을 제외하고 전면에 시문되어 있고 그 위로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있다. 두께는 2.6㎝이다.

도면 22-④(사진 26-④)는 Pit 나3-Ⅰ·Ⅱ층에서 출토된 기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속심은 회색, 등면은 회흑색 연·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등면에는 삼각집선문이 전면에 시문되어 있다.

도면 22-⑤(사진 26-①)는 Pit 다3 Ⅰ·Ⅱ층에서 출토된 수키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속심은 회색, 내면은 회흑색, 등면은 회갈색 연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에는 사선 방향으로 정면한 시문구 흔적이 남아 있고 등면에는 종+횡+삼각+횡의 집선문이 전면에 시문되어 있다. 두께는 2.3㎝이다.

도면 22-⑥(사진 26-②)은 석토부 Ⅱ층에서 출토된 암키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흑색 연·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에는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바포흔이 남아 있다. 등면 가운데에는 세로로 횡+국화문+삼각-횡+삼각+횡-삼각의 순서로 집선문이 시문되어 있고 그 좌우 부분은 물손질되어 문양이 지워져 있다. 두께는 1.6㎝이다.

도면 23-①(사진 27-②)은 주거지 상부의 석토부 상면에서 출토된 암키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색 연·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등면 가

문대는 太線이 새겨진 원문과 그 주변으로 태선의 집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그 좌우로는 물손질되어 있어 문양이 지워져 있다.

도면 23-②(사진 27-①)는 주거지 상부의 성토부에서 출토된 수키와편이다. 사질성 태토에 회색 연·경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면에는 정면한 자국이 남아 있고 등면에는 파도문+사각의 점열문이 새겨진 원문이 전면에 시문되어 있으며, 그 우측은 물손질되어 있어 문양이 지워져 있다. 두께는 2.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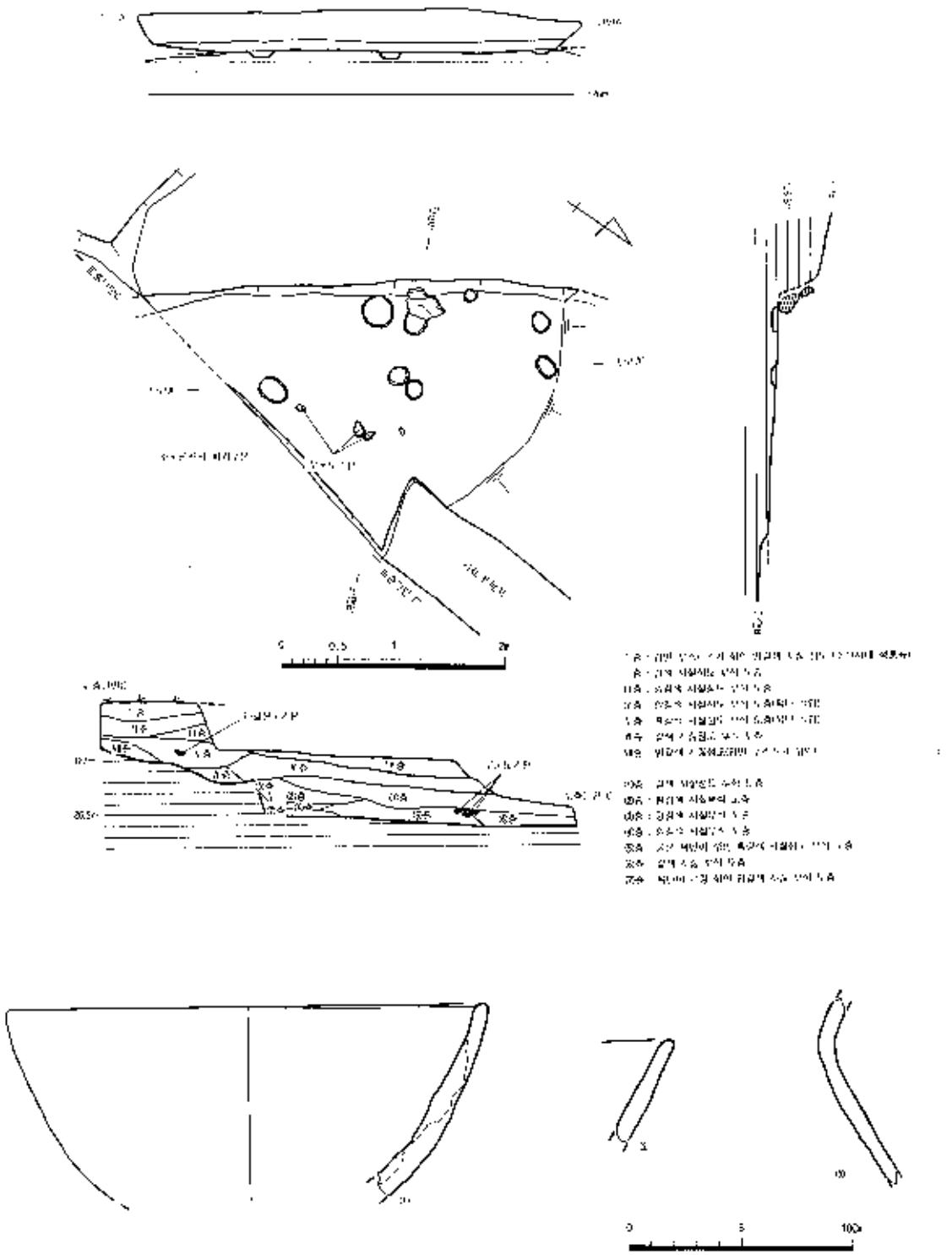
도면 23-③(사진 27-③)은 주거지 상부의 성토부에서 출토된 특수 기와편으로 전체적인 형태로 보아서는 암막새인 가능성이 있으나 분명치 않다. 사질성 태토에 회색 연질로 소성되었으며 소성시 생긴 기공이 보인다. 내림부의 형태는 하단 중앙부가 둥글게 돌출되어 尖形을 이루는 사반모양에 가깝다. 내·외면 모두 素文으로 물손질되어 있고, 단지 외면의 하단 중앙과 좌측에 성격을 알 수 없는 직경 2.4㎝, 2.2㎝인 원반형 돌기가 부착되어 있다. 내림부의 두께는 2㎝이다.

## Ⅳ.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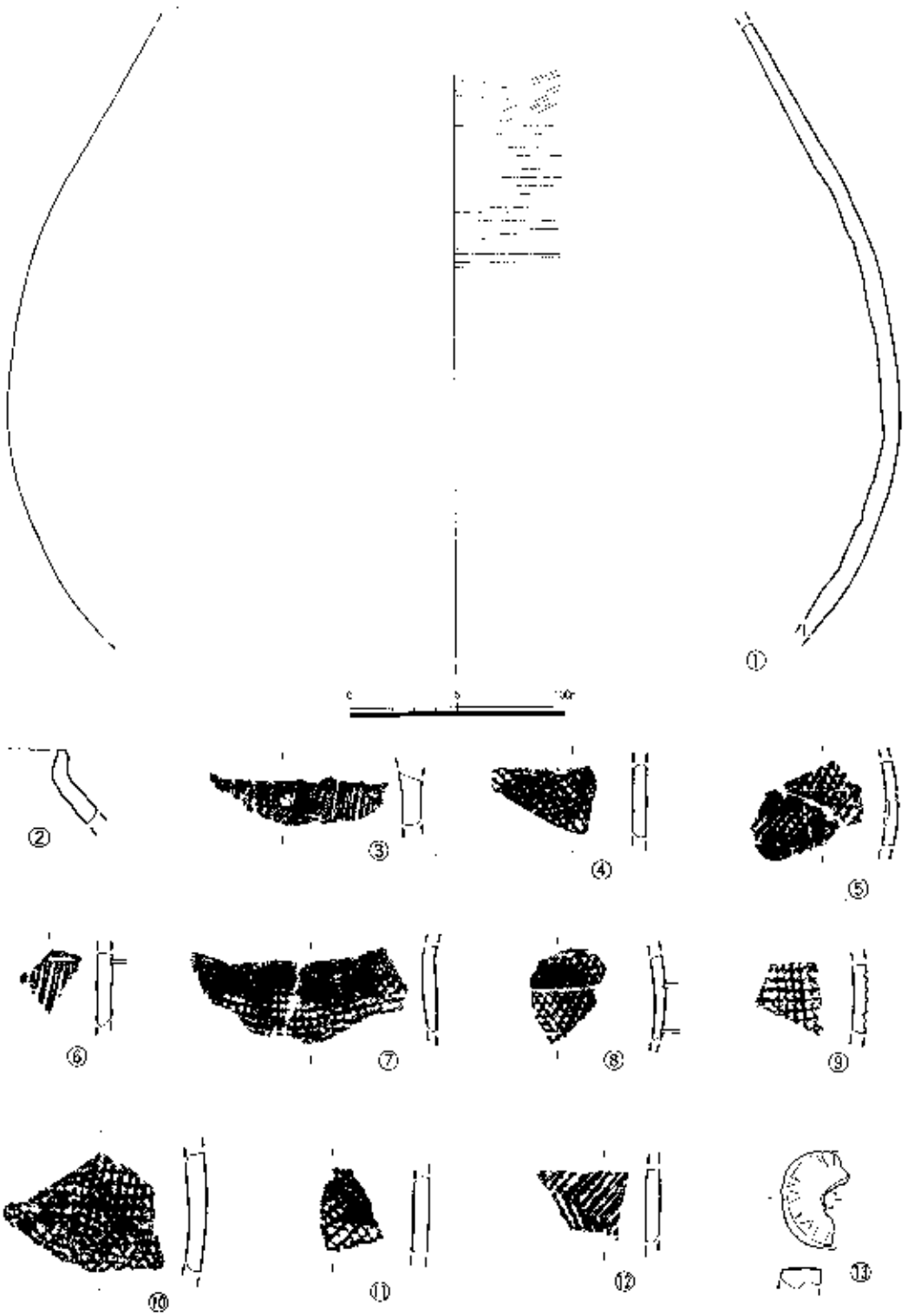
이번 임진산유적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는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유적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진산 정상부의 동쪽 내지 동북쪽 사면에서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溝渠와 削土部만이 확인되었는데, 이들 유구들이 어떤 형태로든 임진산유적의 방어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될 뿐이다.

이 외에 임진산유적 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초기백제시대 유물포함층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비록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조사되었지만, 해발 129m의 산 정상부에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의 고지성집락은 일반적으로 취락간의 압력이 본격화되어 가는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근방에는 남양주 수석리유적, 화주 삼학산유적, 서울 아차산유적 등이 있으며 이 외의 지역에서는 보령 교성리유적, 대구 연암산유적, 청도 사촌리유적, 대전 보문산유적에서도 청동기 후기의 고지성 집락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경기 남부지역에서 조사된 고지성 주거지 가운데에는 수원 서둔동유적, 부천 고강동유적과 같이 孔列土器를 출토하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적 등이 있어 주목된다. 1차 조사에서도 孔列土器片이 수습된 임진산유적 역시 같은 성격의 유적으로 평가되어 향후, 경기도 지역 청동기시대의 취락의 변화 및 사회상을 규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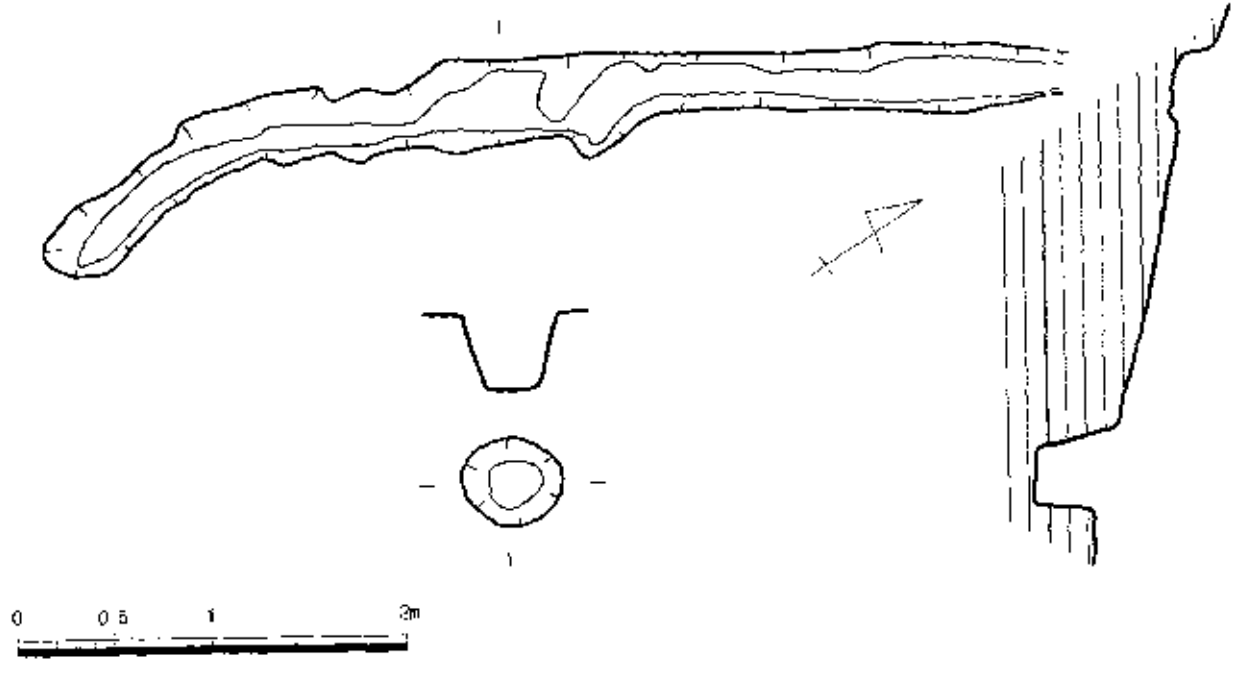
한편,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타날문토기 유물포함층이 조사되었다. 이 유물포함층은 공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조사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 단절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주거지 상부의 성토부와 임진산 정상부와 북동 경사면에 부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산 정상부에 만들어진 생활유구가 화재에 의해 폐기된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성토되거나 또는 그 아래쪽으로 재퇴적된 유물포함층으로 판단된다. 유물포함층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 중에는 전체적인 기형을 복원할 만한 것이 없으며, 또한 출토량 역시 적기 때문에 편년적 위치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중도식무문토기가 출토되지 않으면서, 봉촌유형의 백제토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염두에 둘 때, 3세기 중반을 전후로 하는 시기가 아닌가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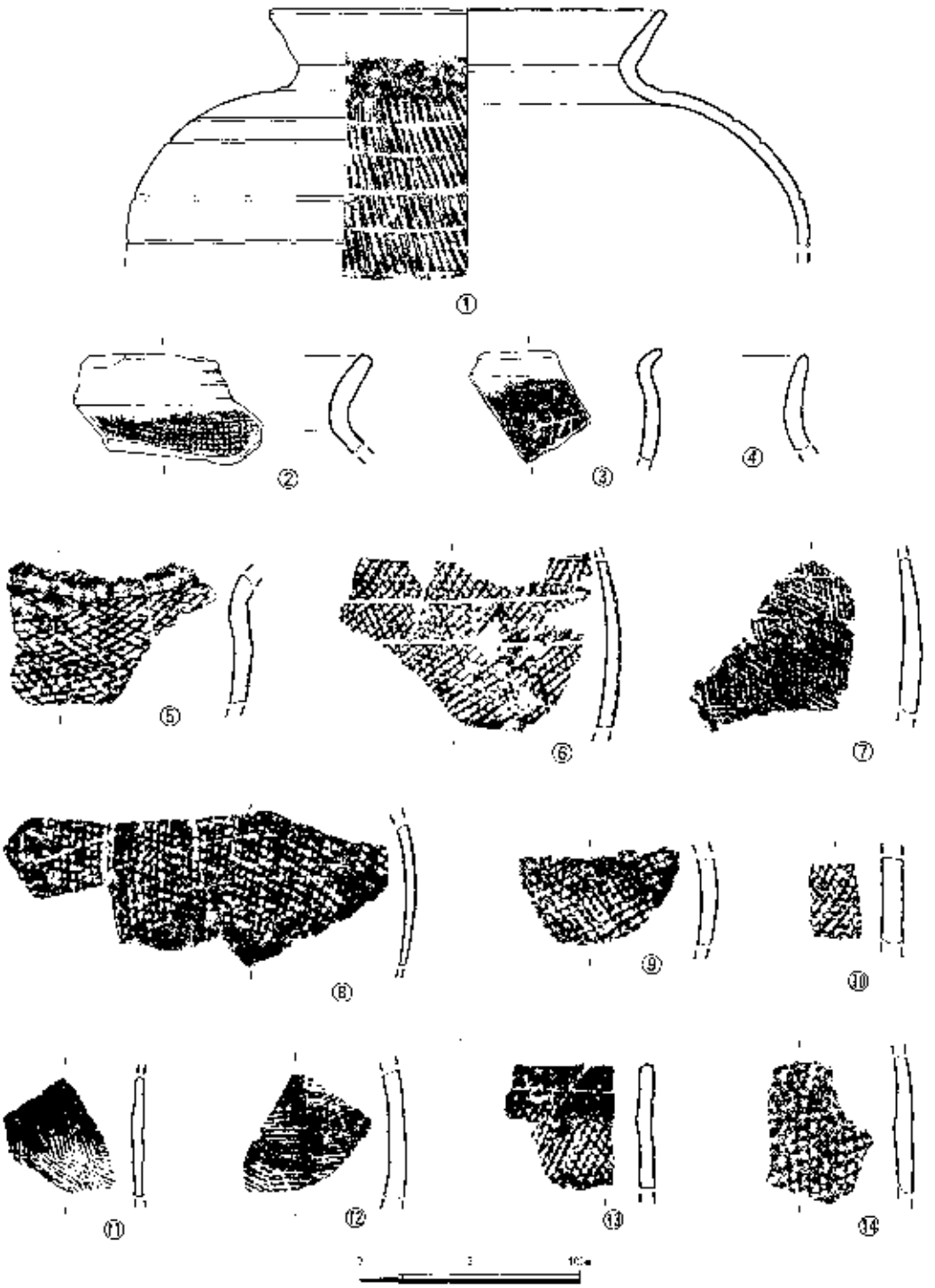
도면 4.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출토 토기




도면 5.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6. 조선시대 구상유구



도면 7.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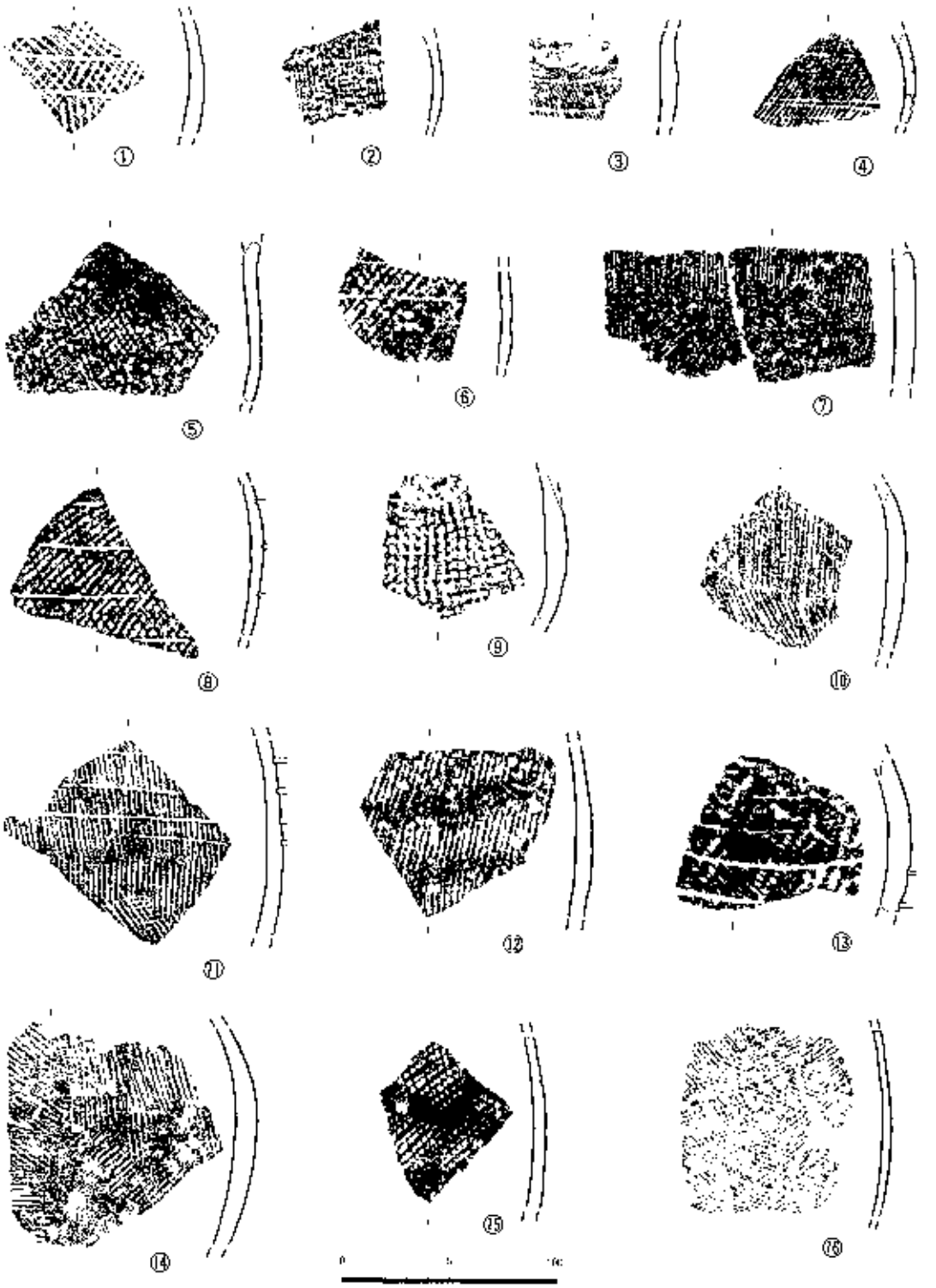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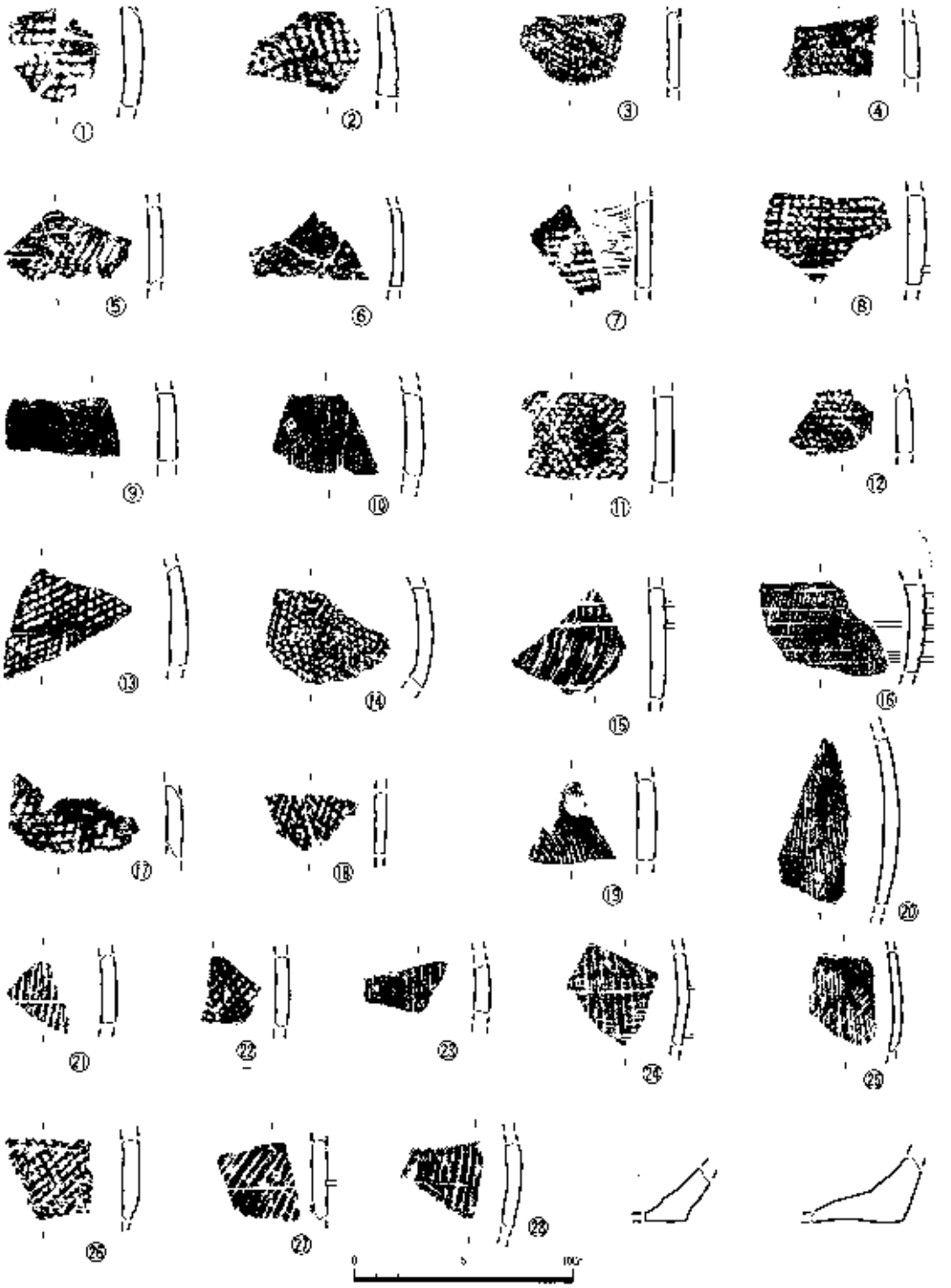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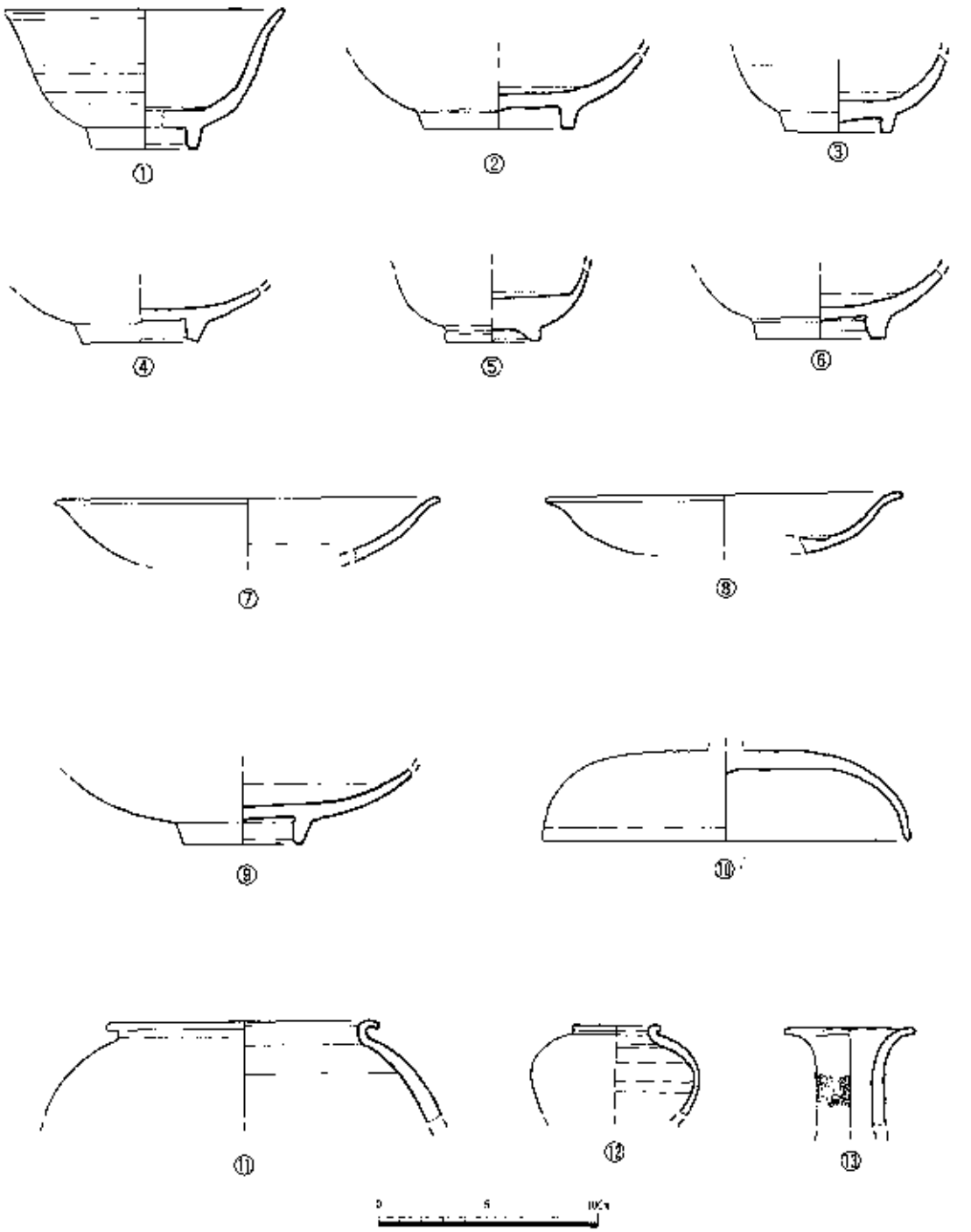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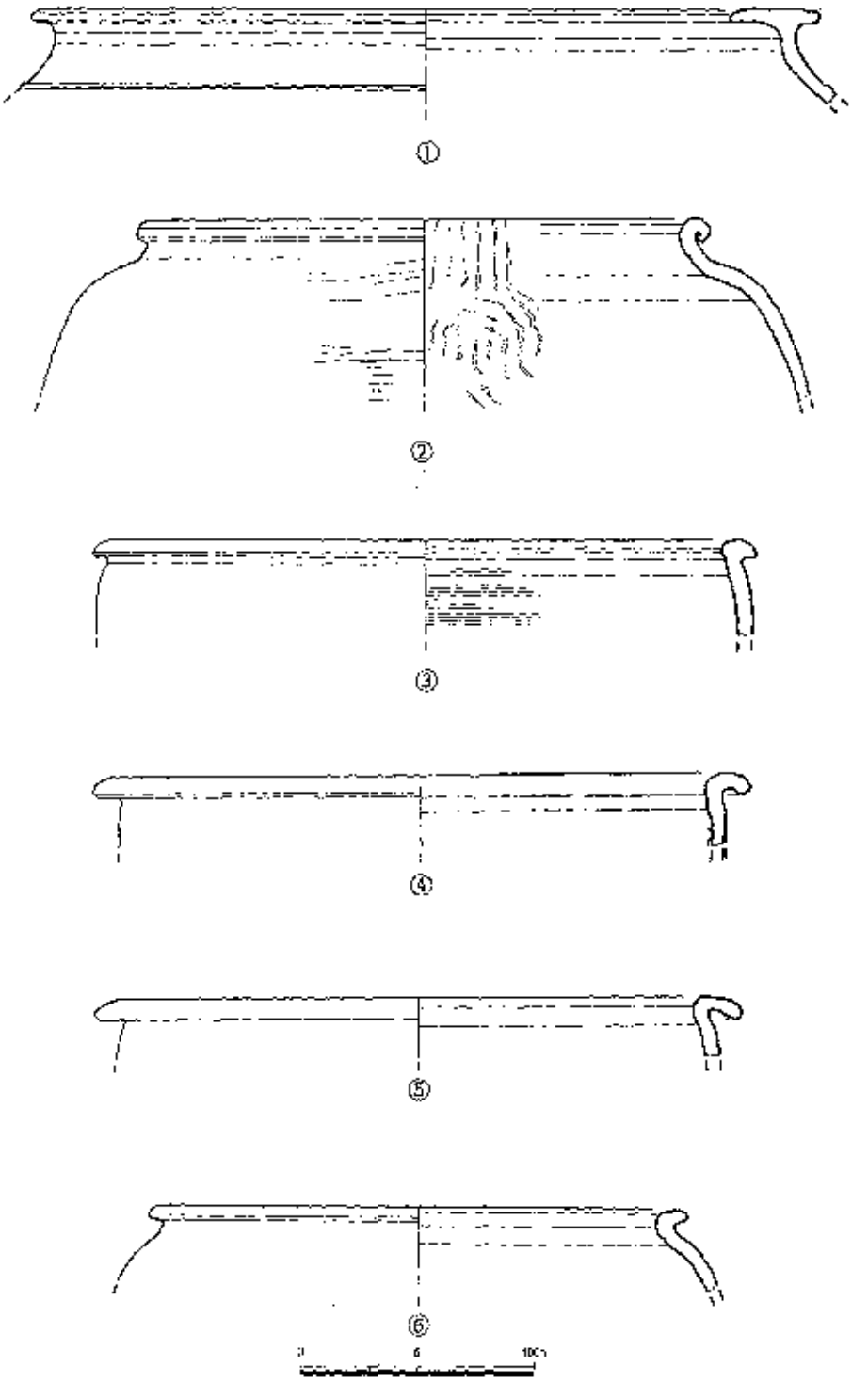

Abb. 8.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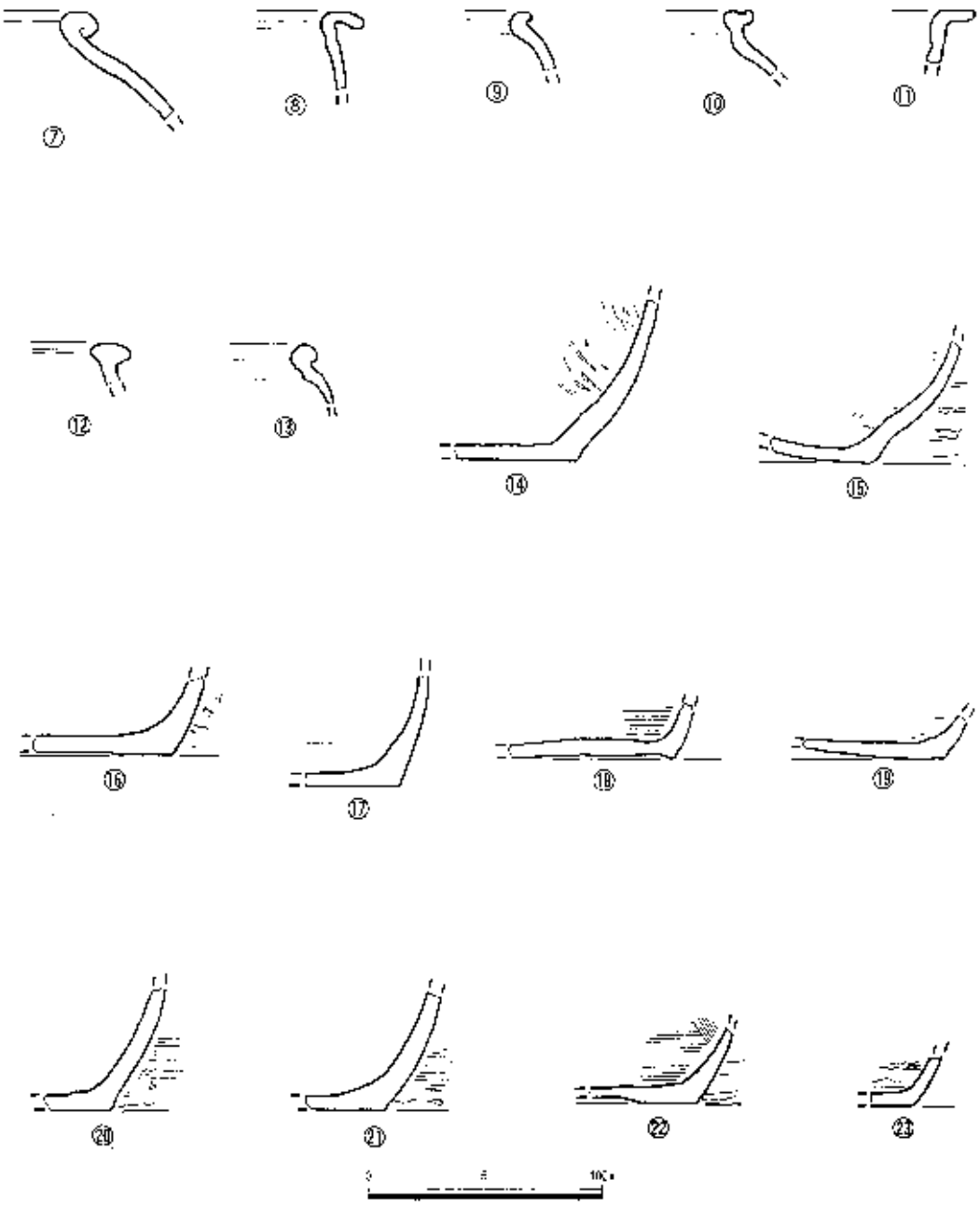
도면 9.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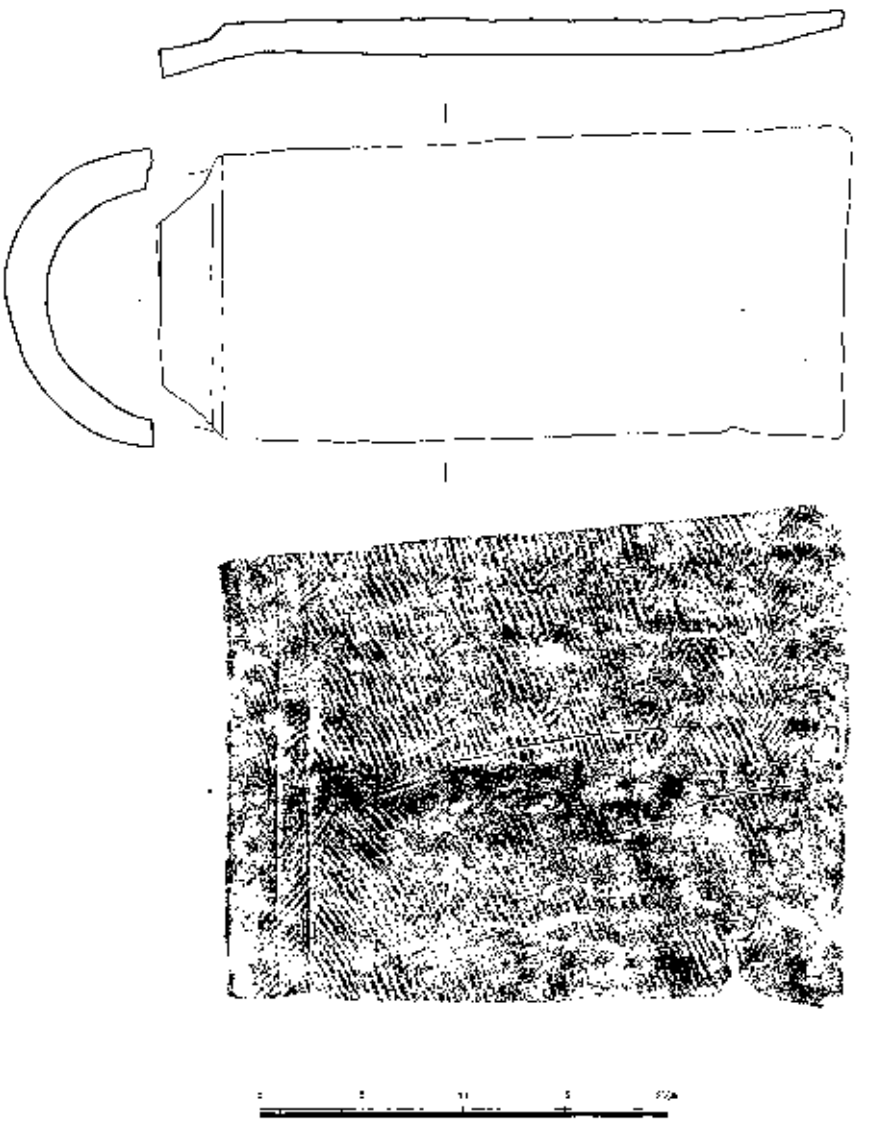

도면 10. 문화층 출토 백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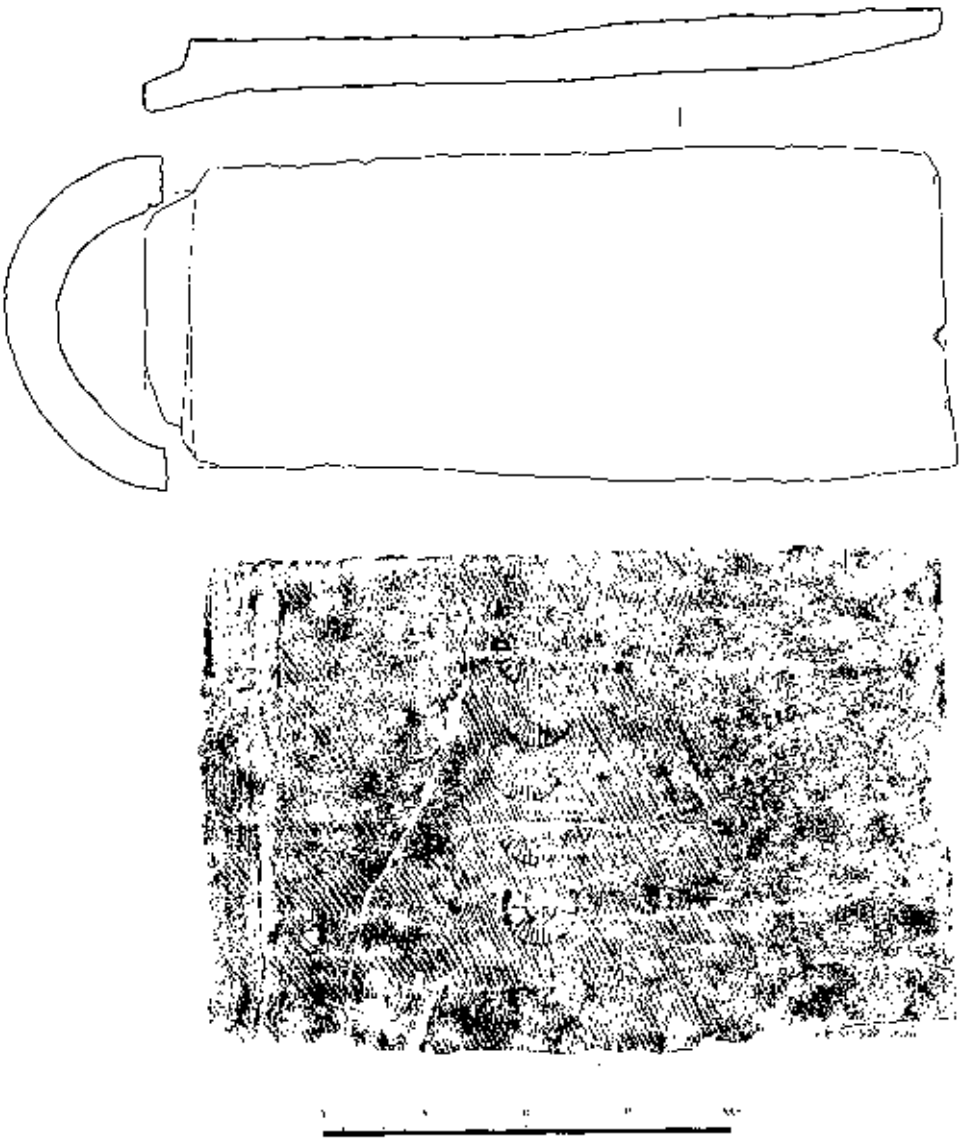

도면 11. 문화층 출토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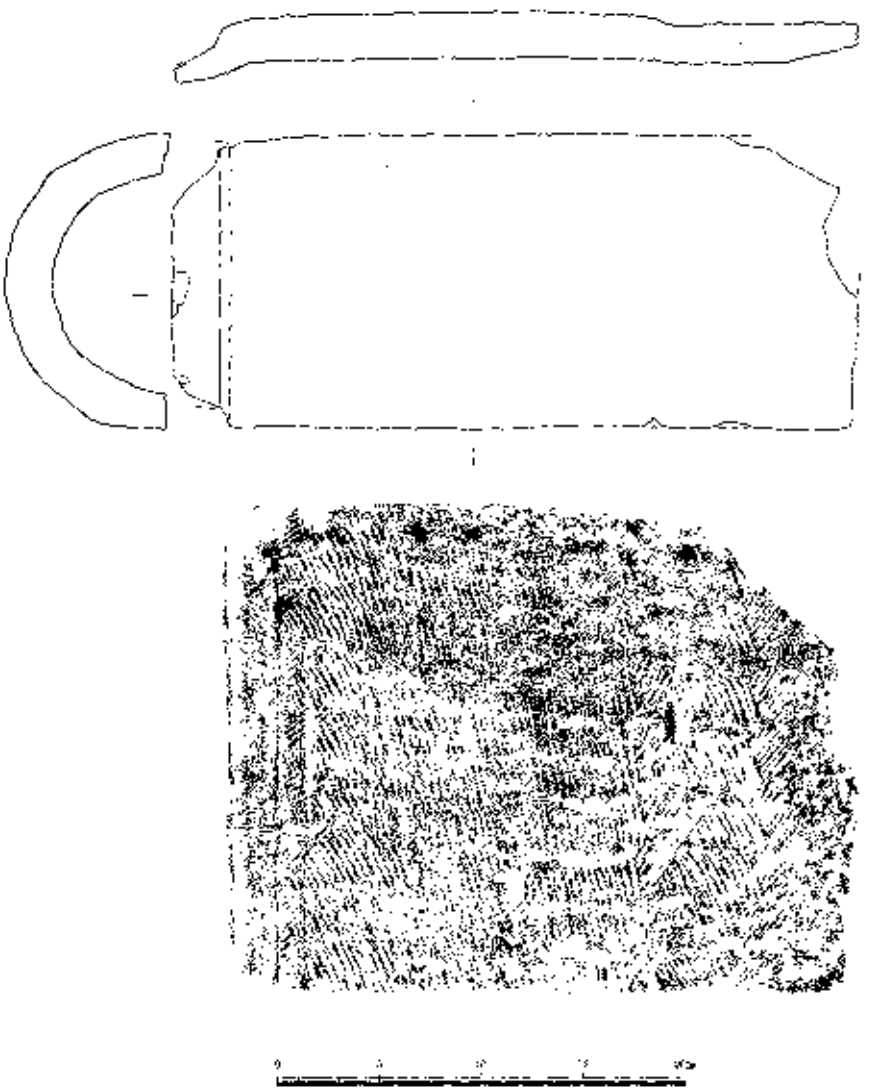

도면 12. 문화층 출토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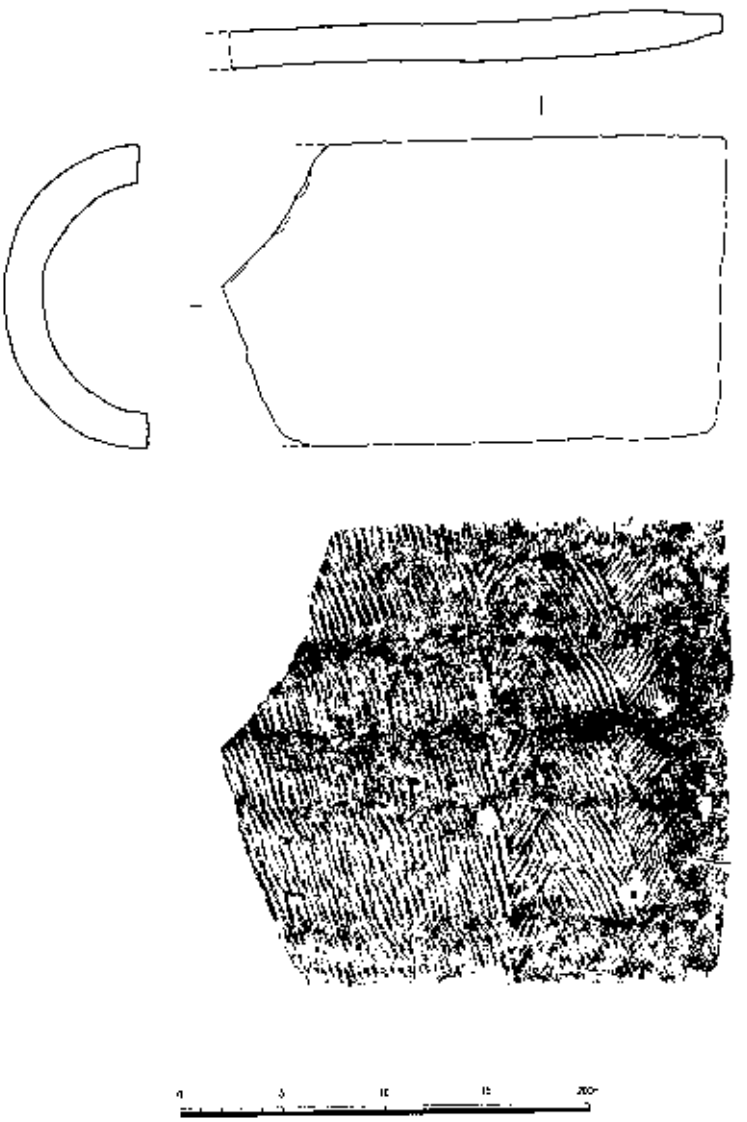
도버 13. 문화층 출토 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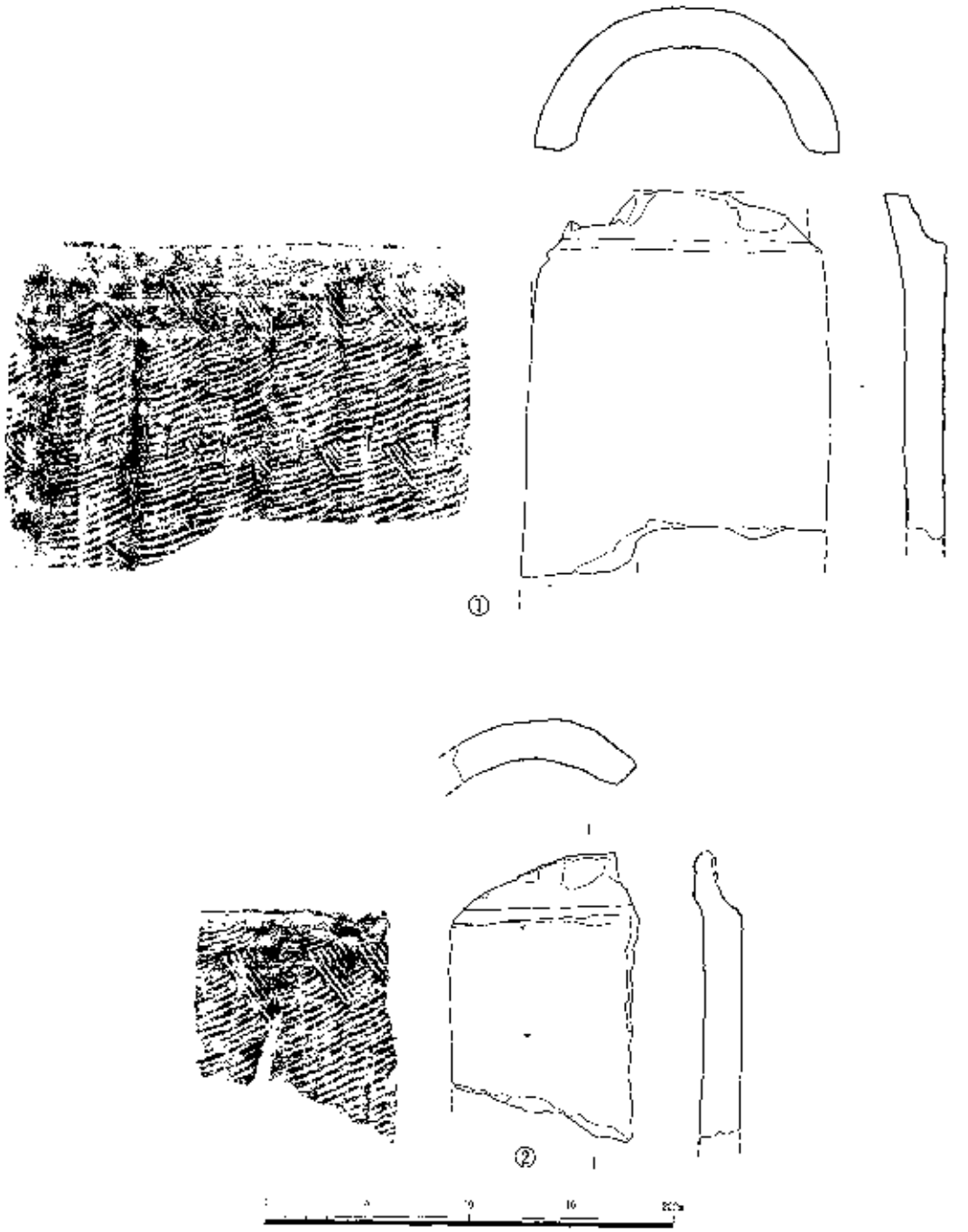
도면 14. 문화층 출토 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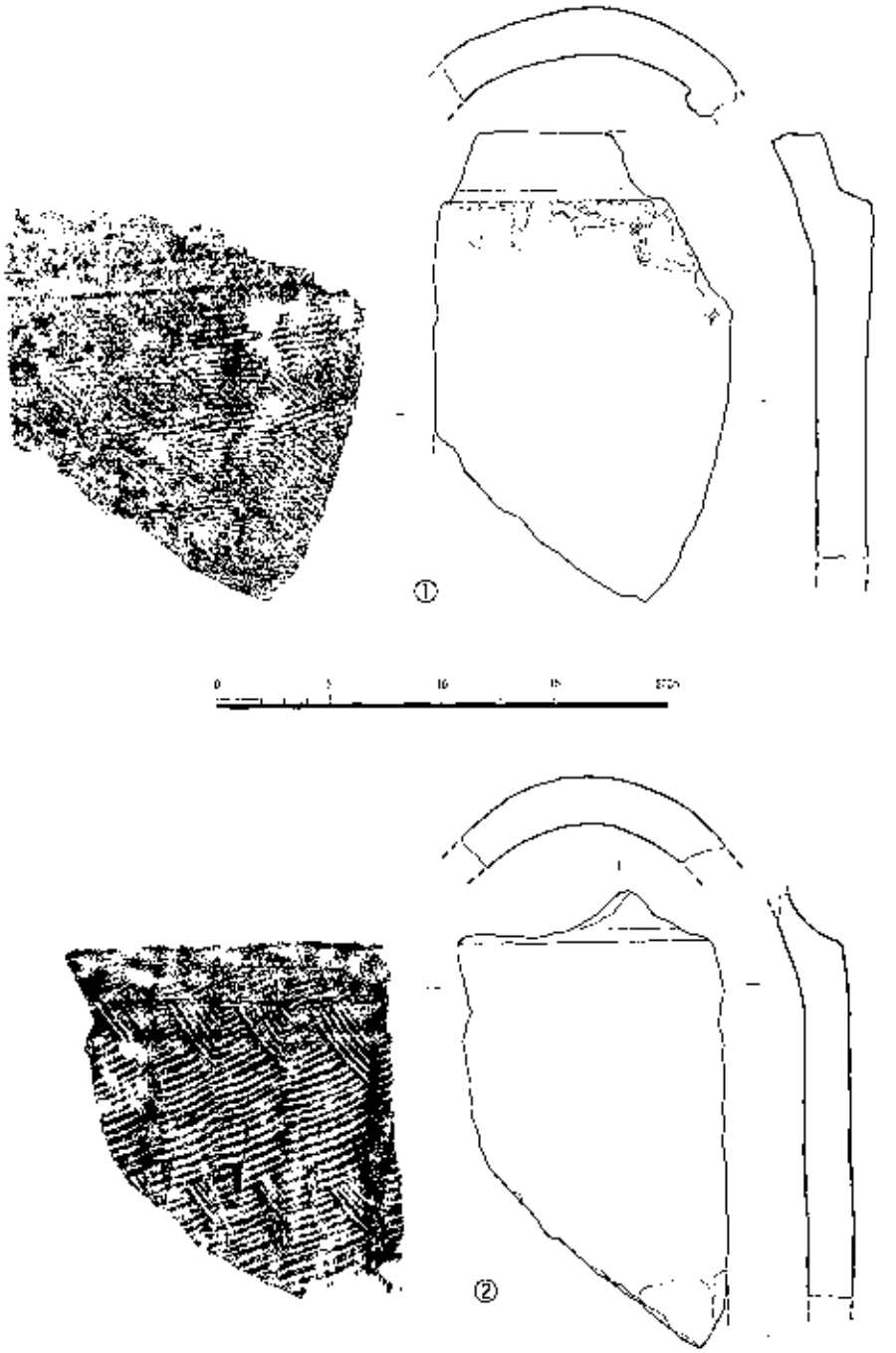
도면 15. 문화층 출토 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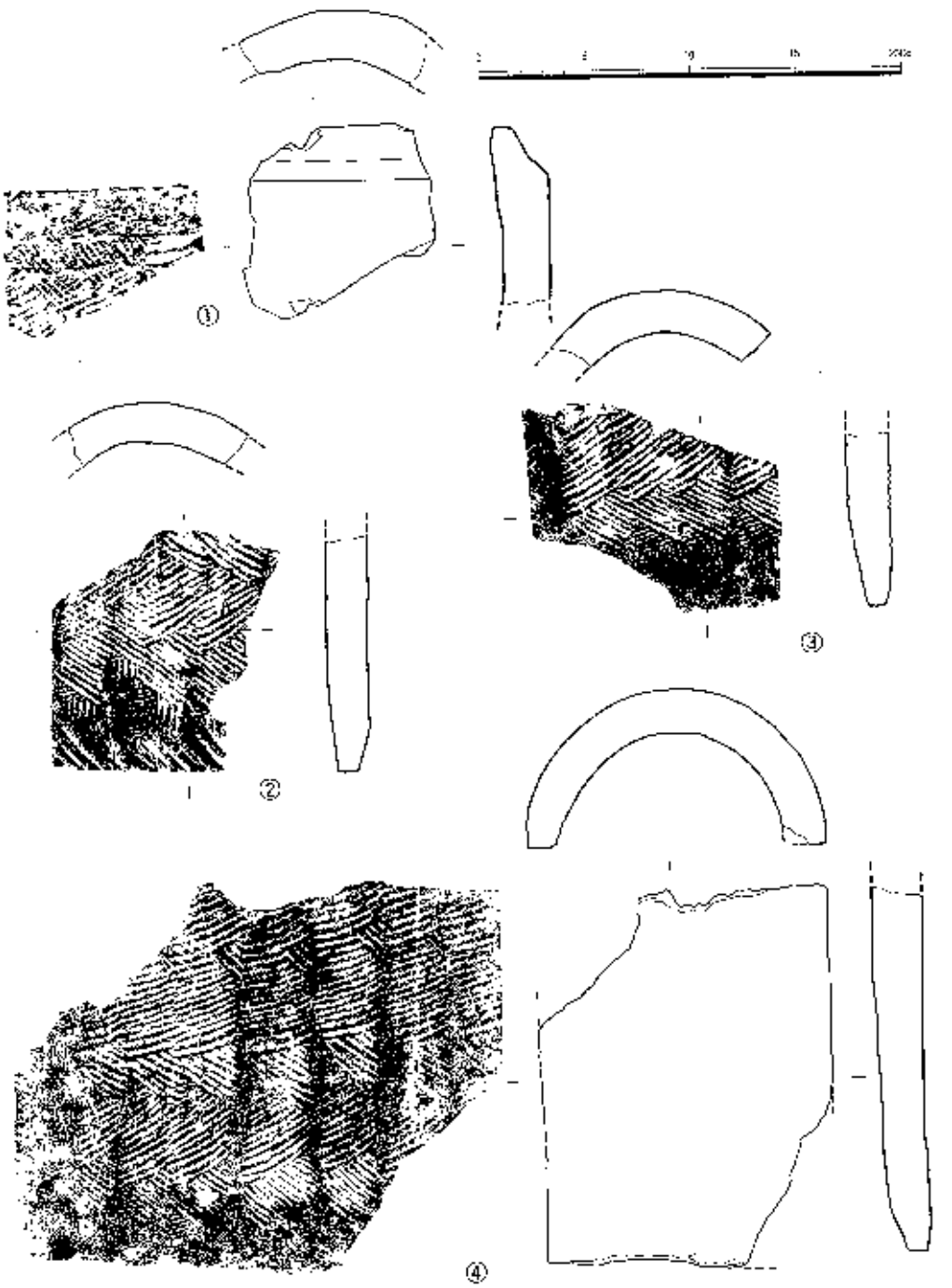
도면 16. 문화층 출토 수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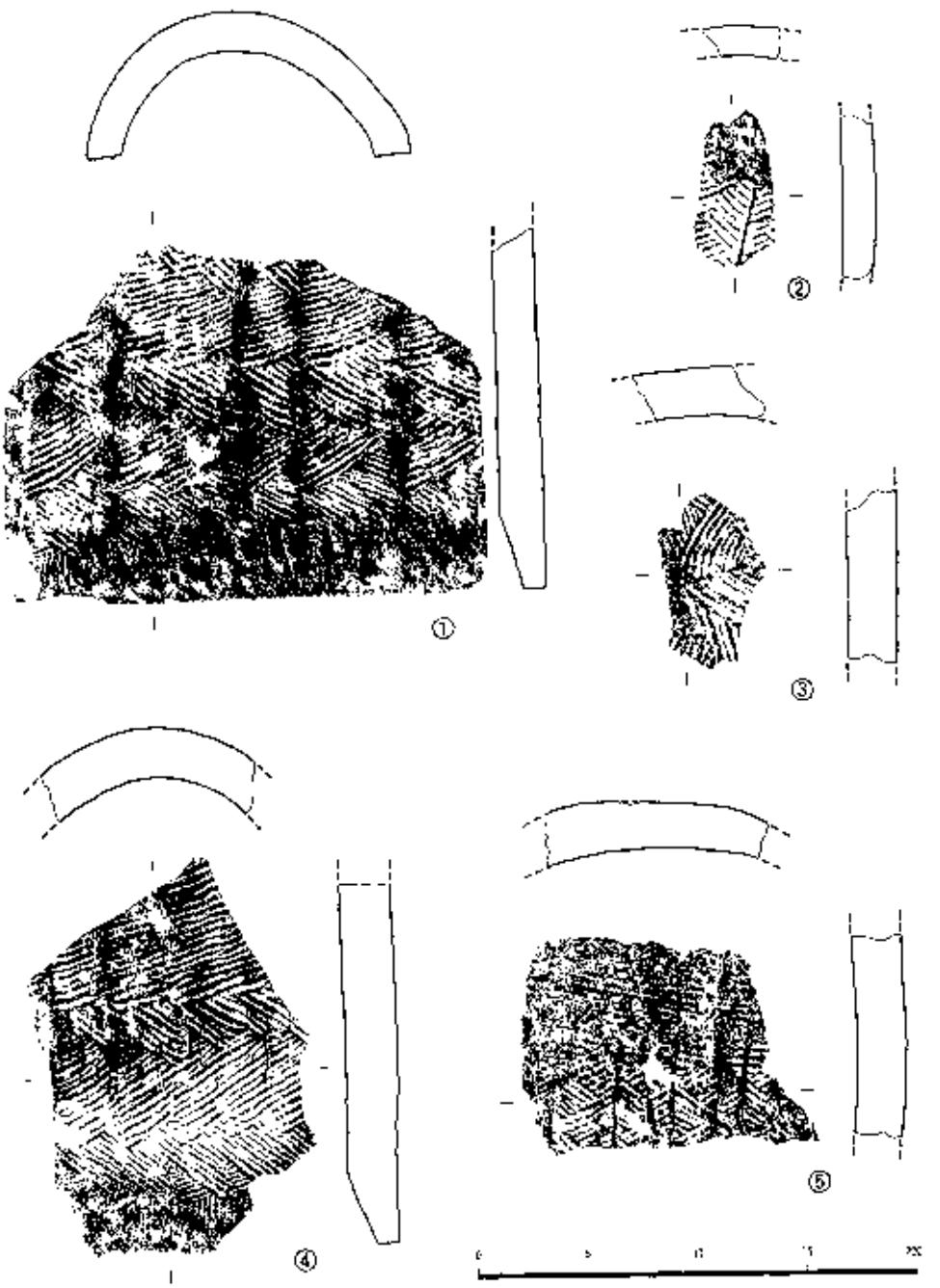

도판 17. 문화층 출토 기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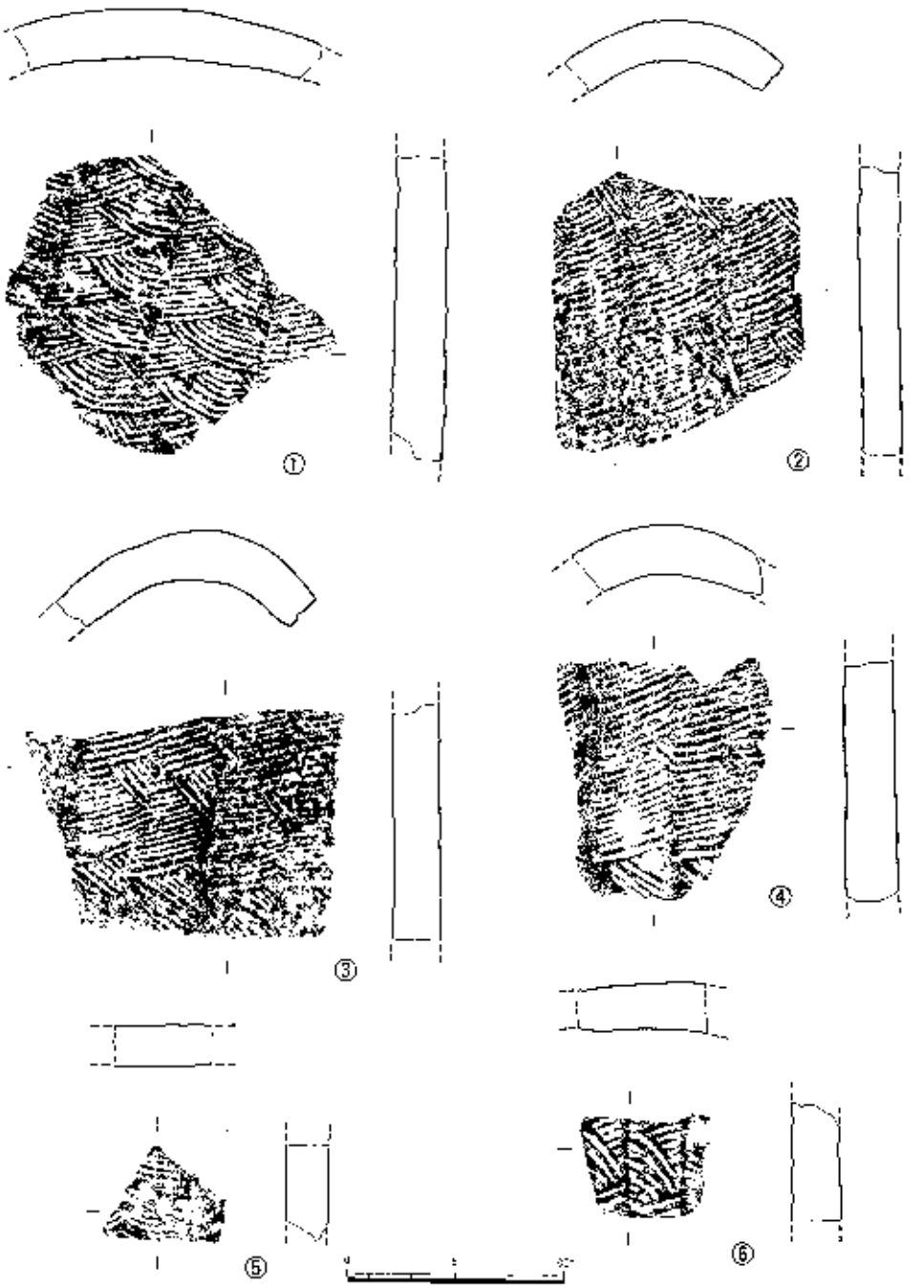

도면 18. 문화층 출토 기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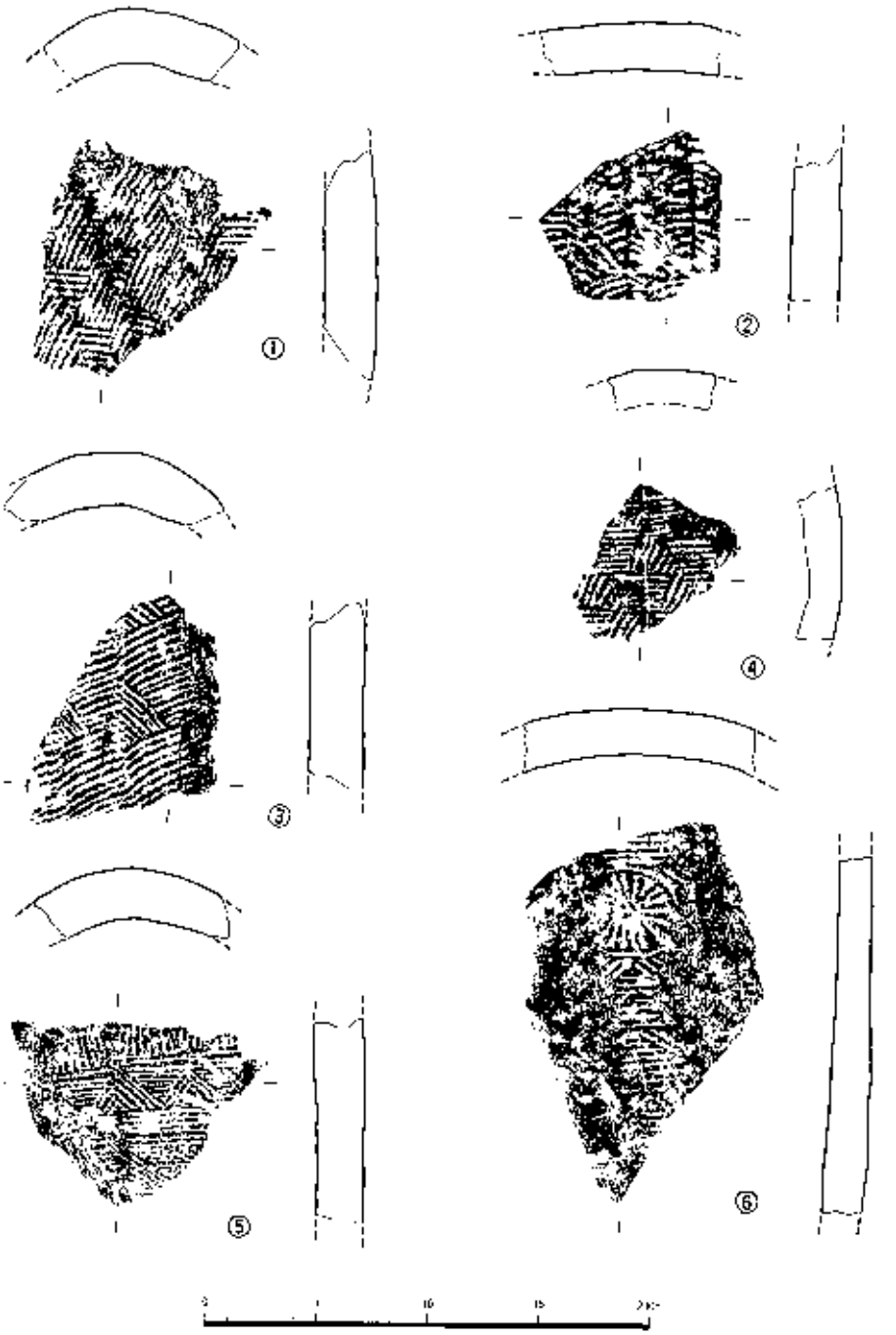

도면 19. 문화층 출토 기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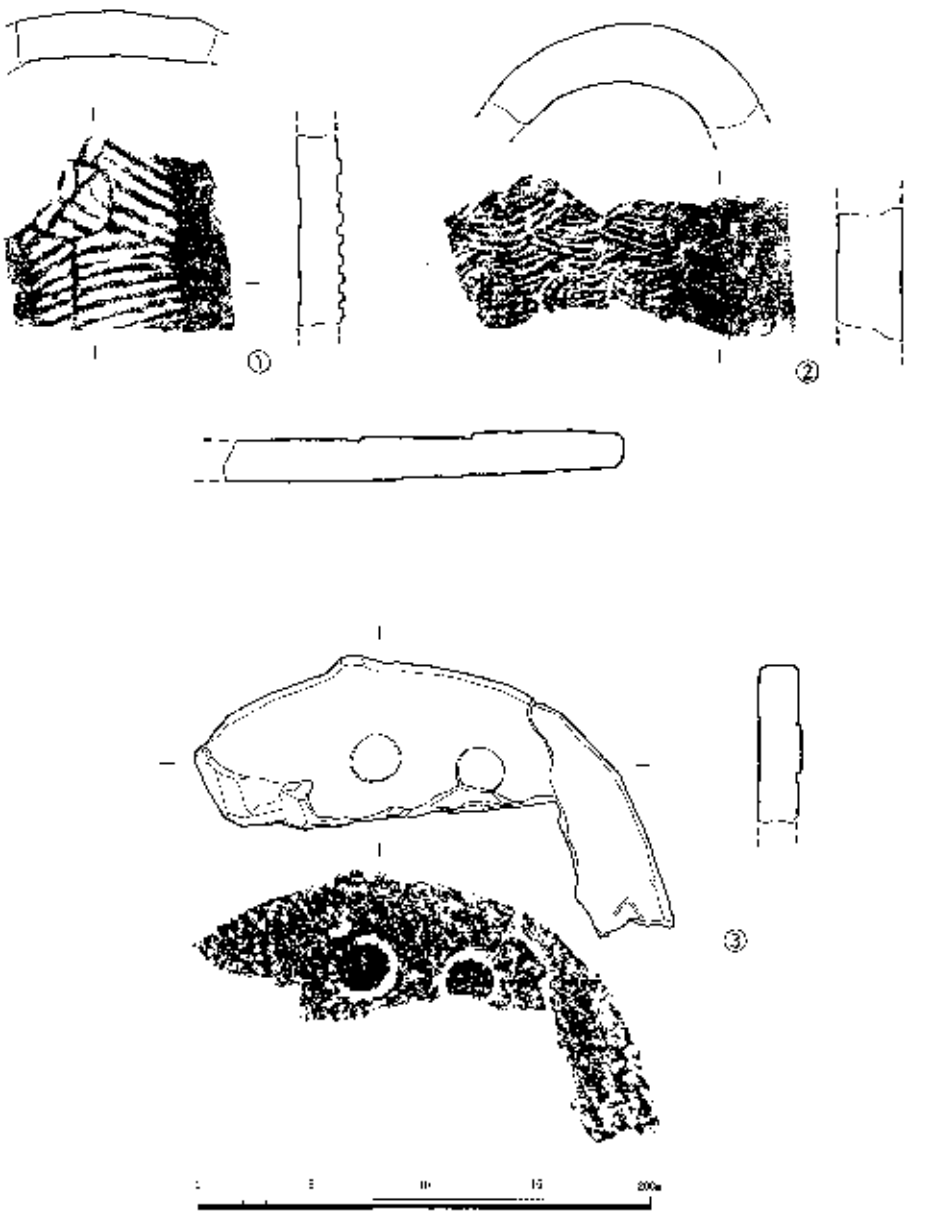

도면 20. 문화층 출토 기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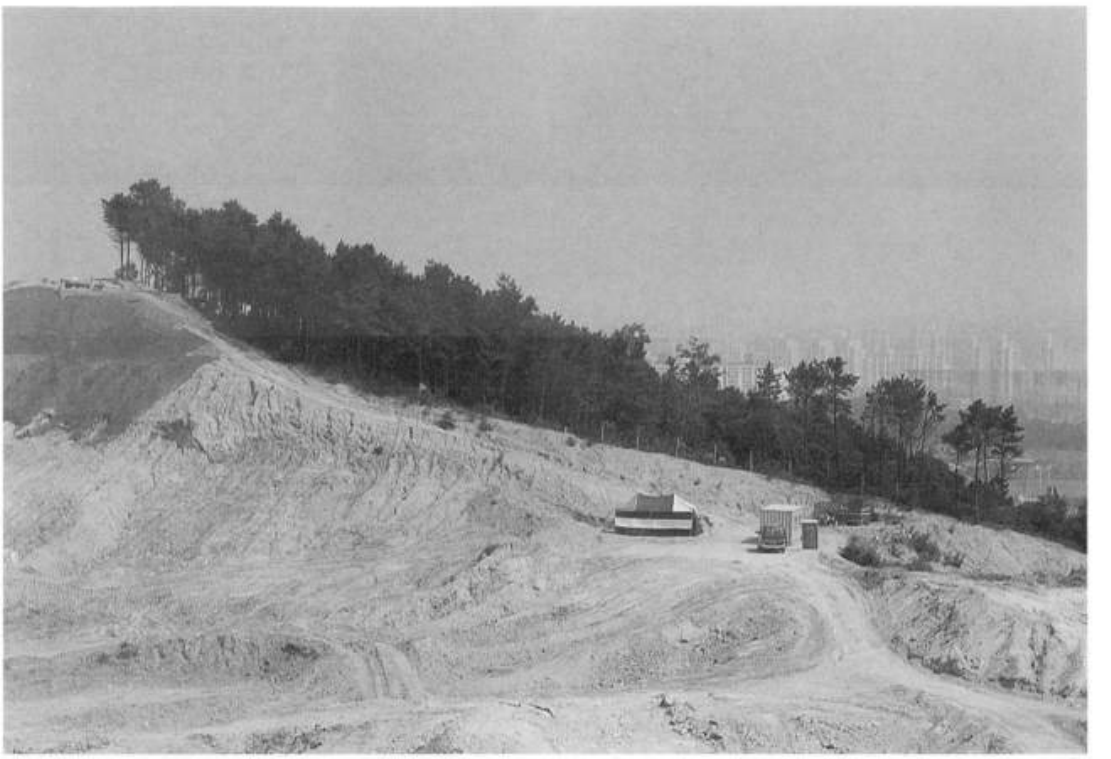

도면 21. 문화층 출토 기와편




도면 22. 문화층 출토 기와편




도면 23. 분화중 출토 기와편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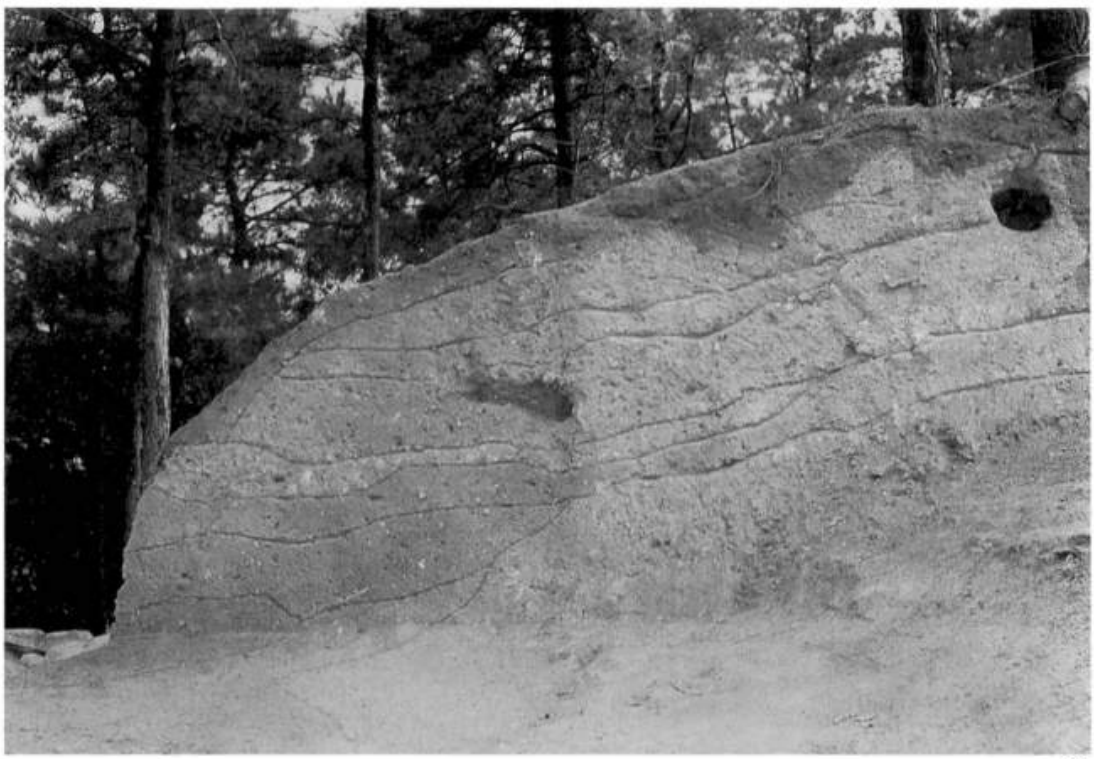
사진 1. 용인 임진산유적 조사지역 원경(①:남서에서, ②:동에서) ②

①

사진 2. 용인 임진산유적 조사지역 근경(①:동쪽 능선부, ②:동남쪽 경사면) ②

①

사진 3. 용인 임진산유적 조사완료후 전경(①:동쪽 능선부, ②:동남쪽 경사면) ②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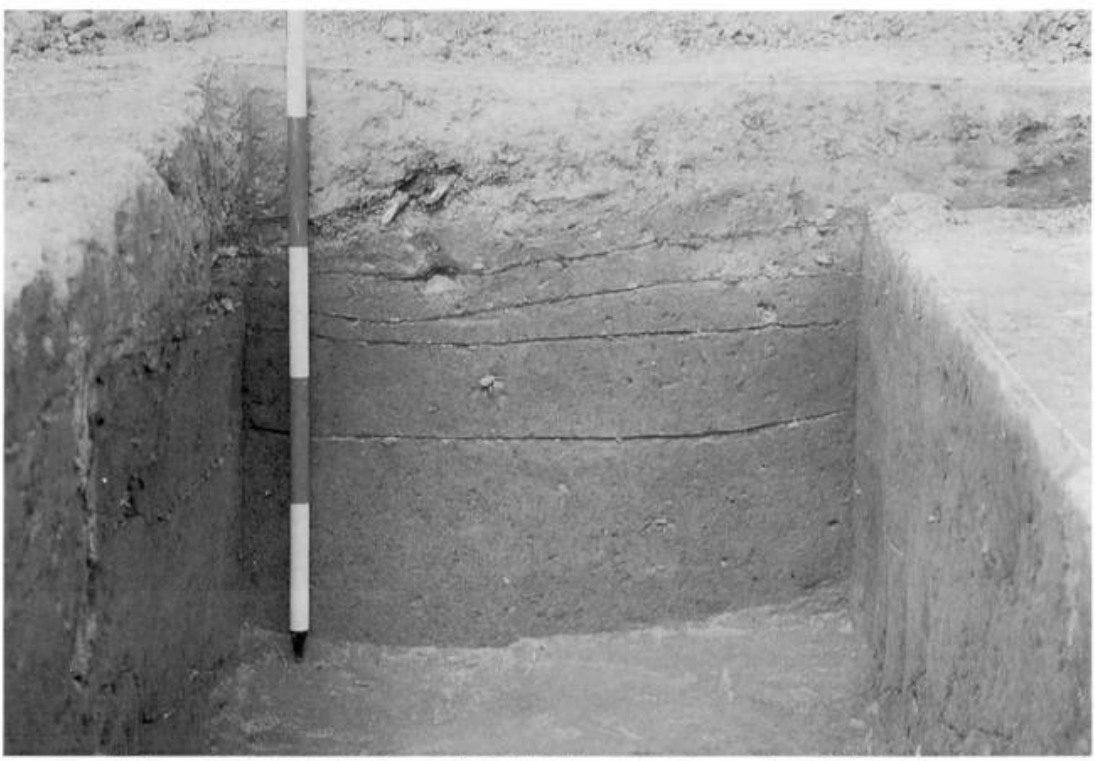


사진 4. 용인 임진산유적 층위(①:성토부 층위, ②:Pit 가3 북벽 층위) ②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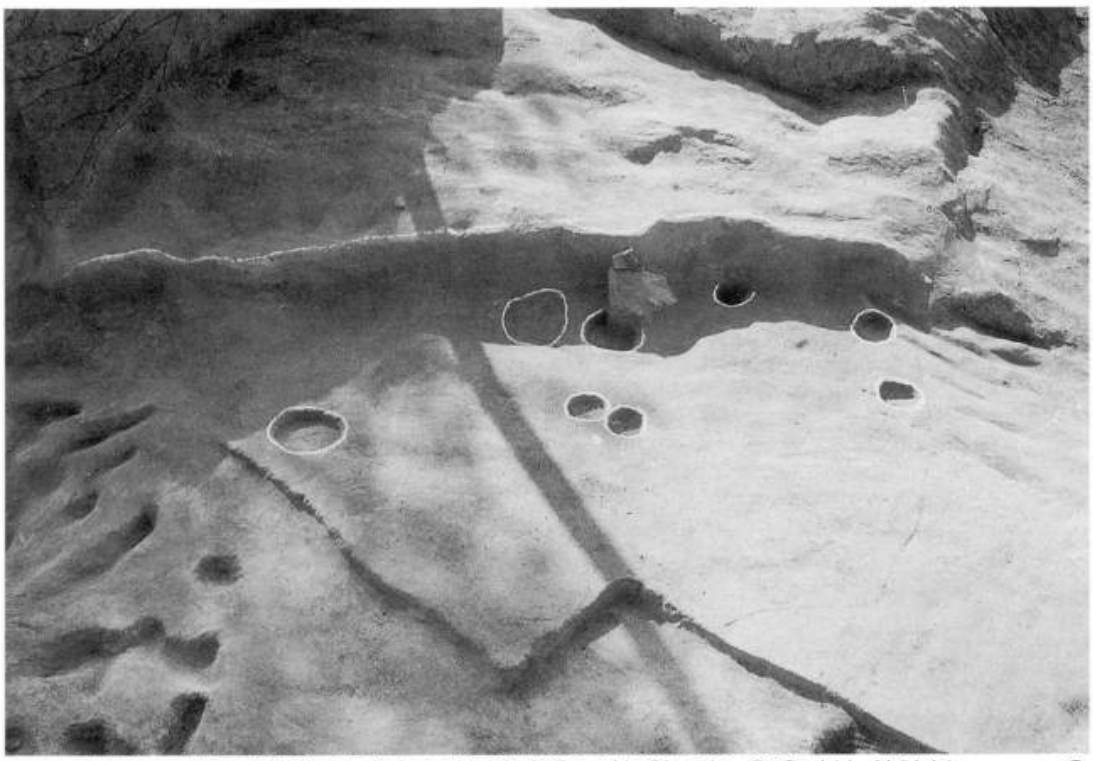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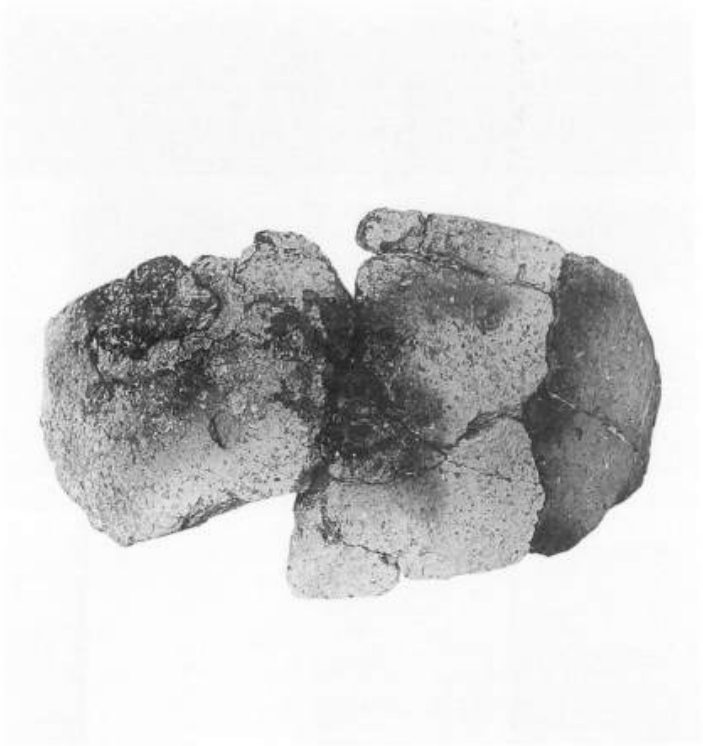


사진 5. 청동기시대 주거지 노출 전경(①:조사 완료후, ②:윤곽선 확인후) ②

①

사진 6. 청동기시대 주거지 내부 층위(①) 및 토기 출토상태(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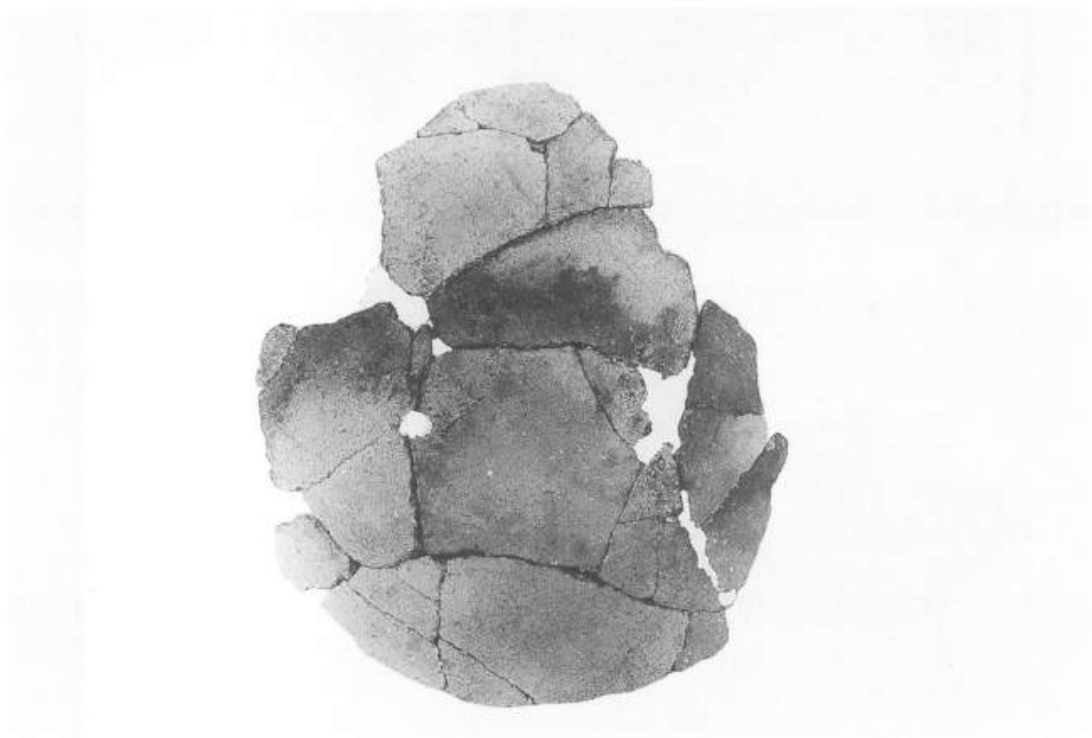
②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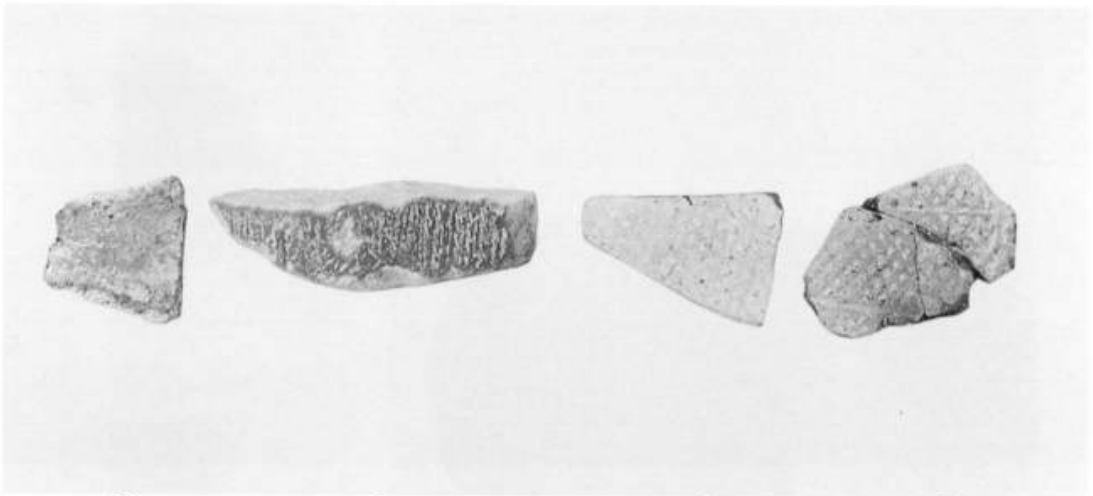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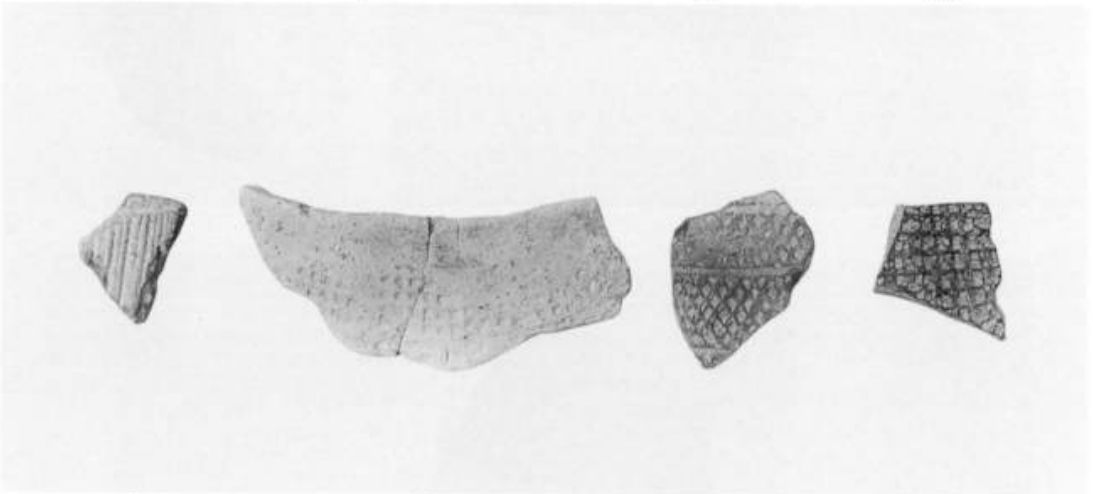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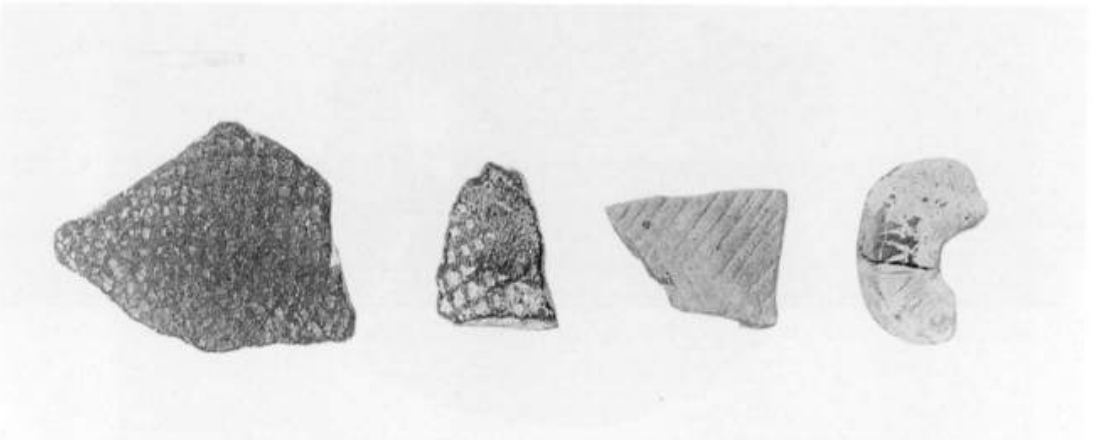
사진 7. 청동기시대 주거지 내부퇴적층 출토유물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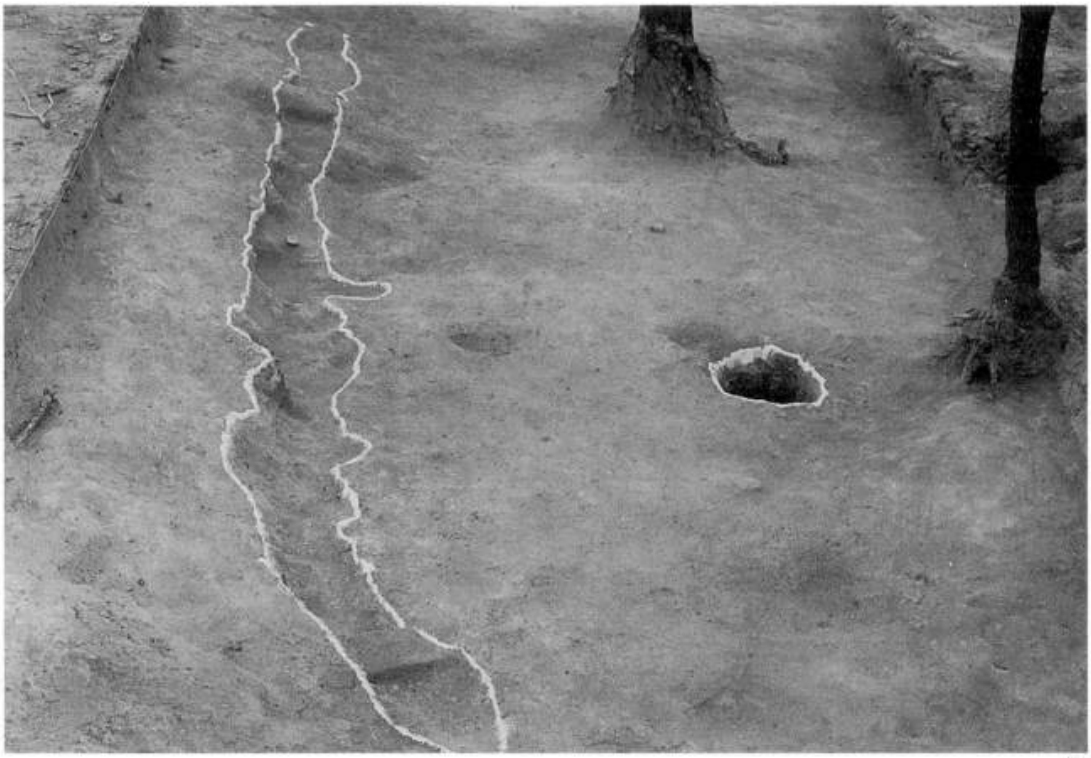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사진 8. 청동기시대 주거지 내부퇴적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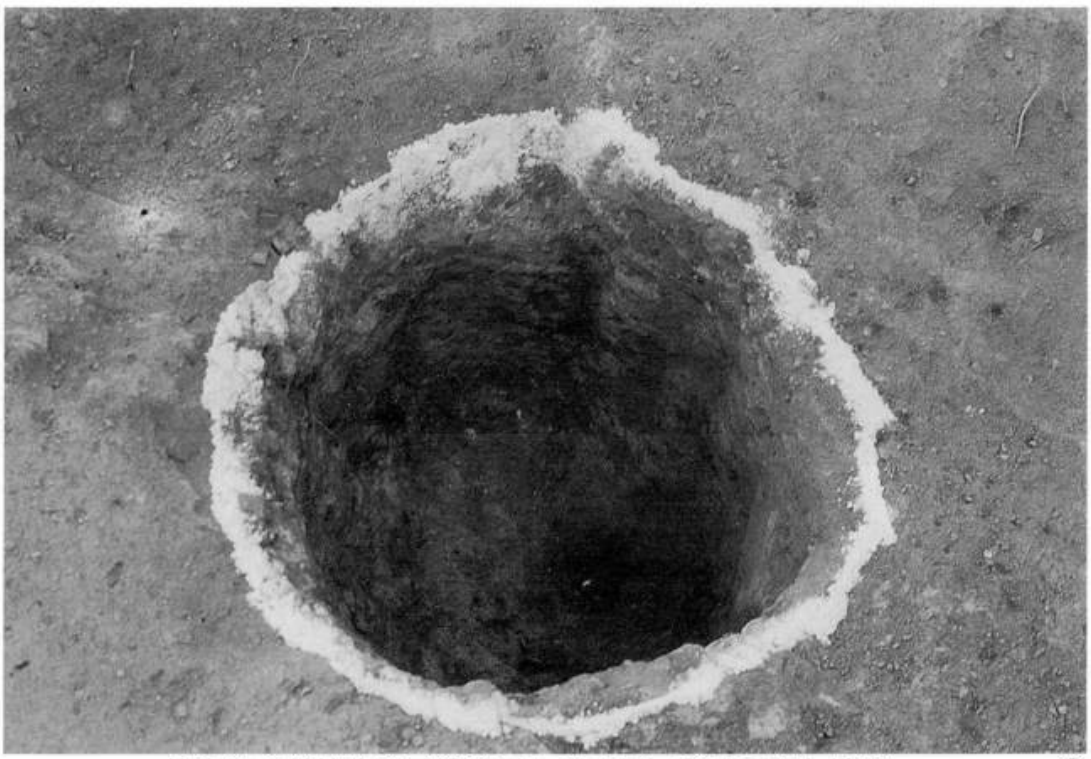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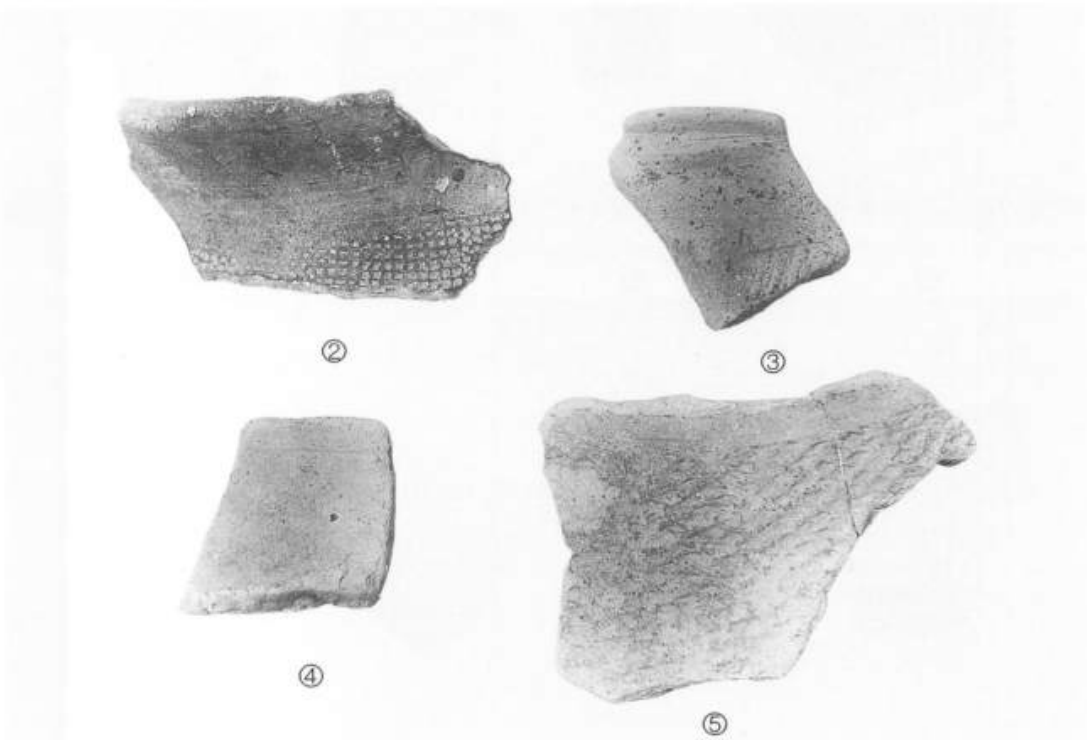


사진 9. 조선시대 주구(①:주구 노출 전경, ②:기둥구멍 세부) ②

①

사진 10. 조선시대 삭토부(①:삭토부 층위, ②:삭토부 노출 전경) ②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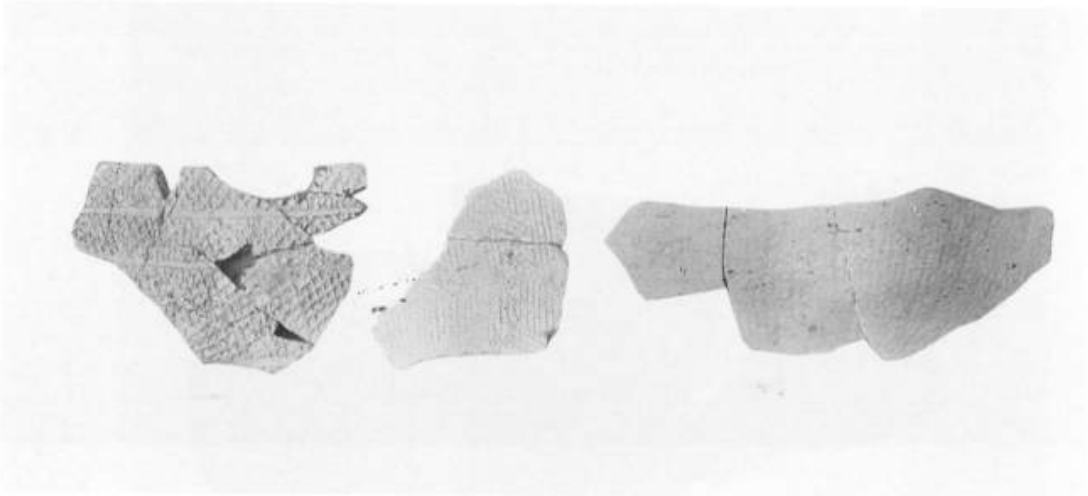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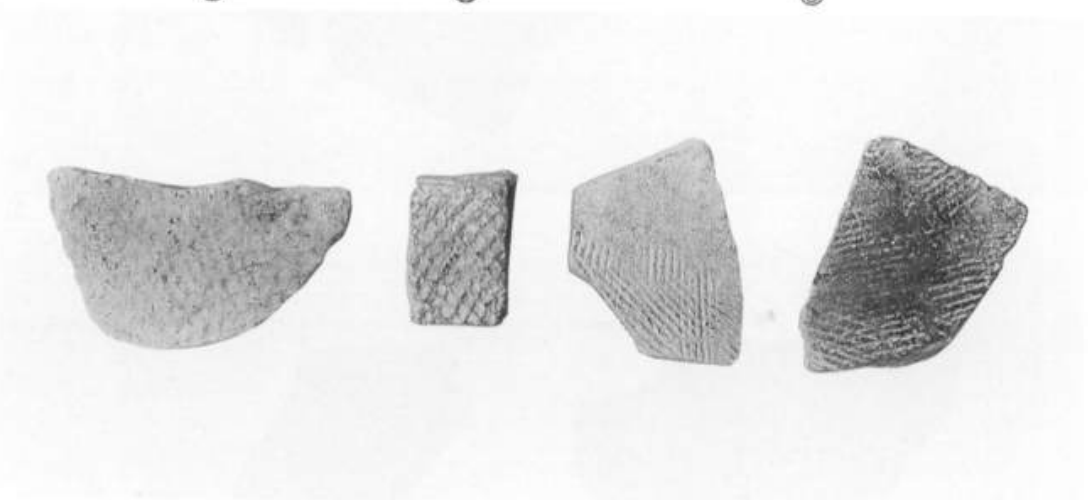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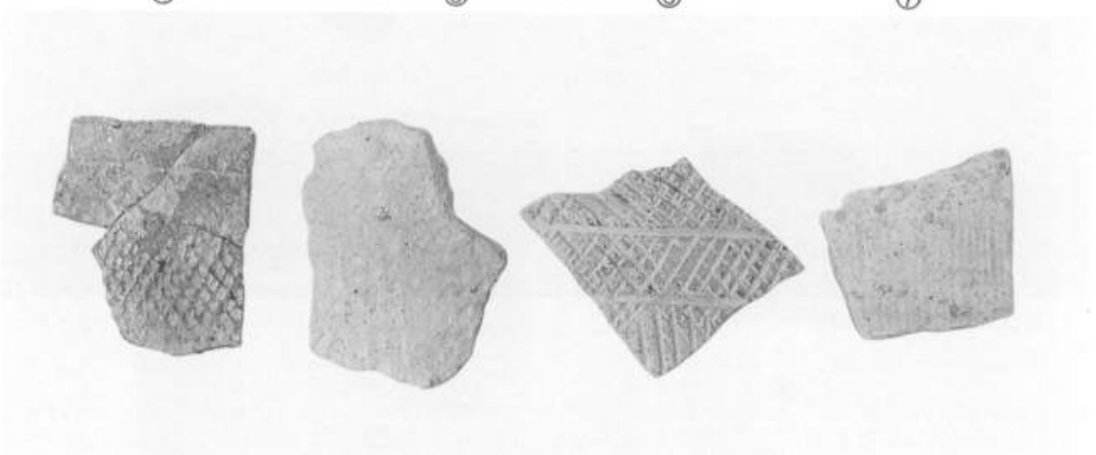
사진 11.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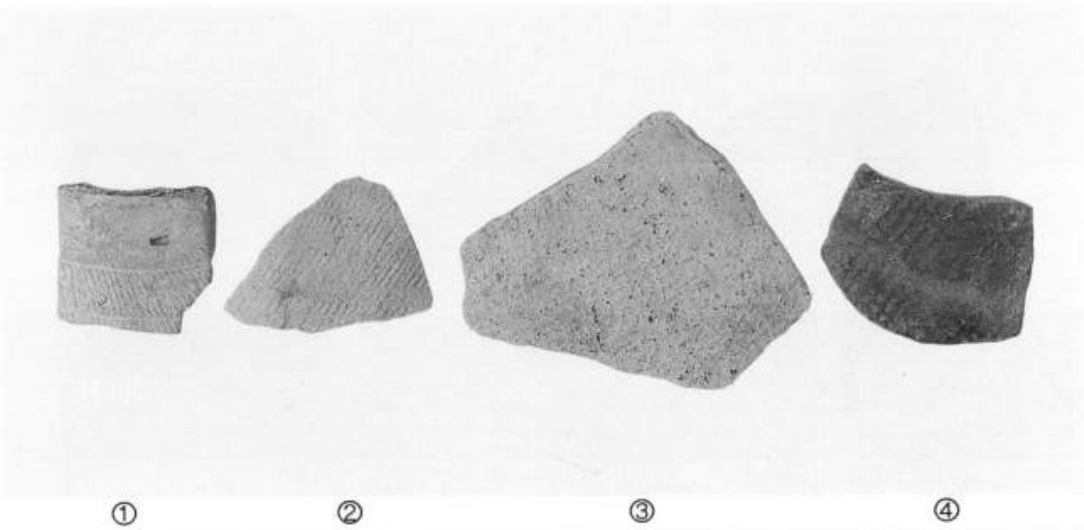


④ ⑤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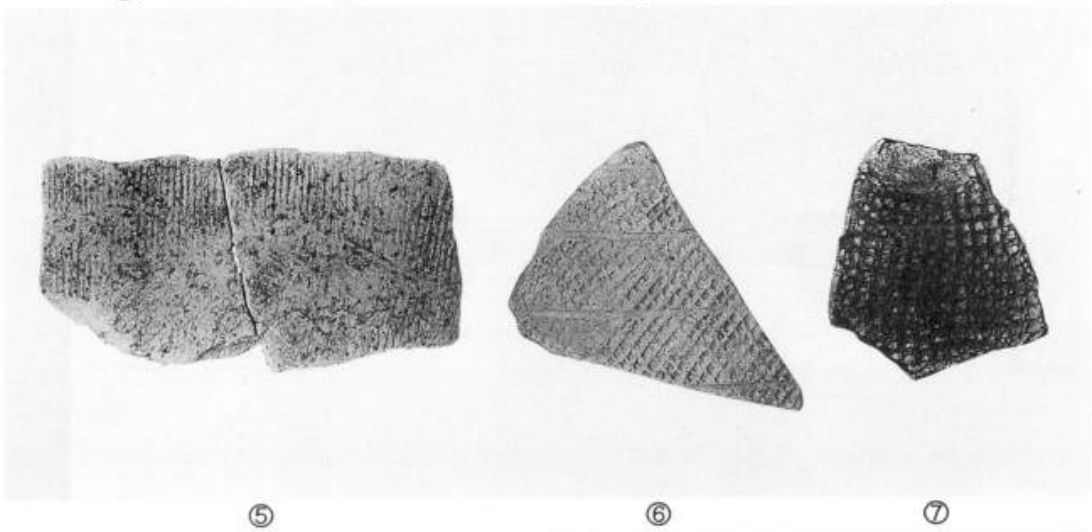


⑧ ⑨ ⑩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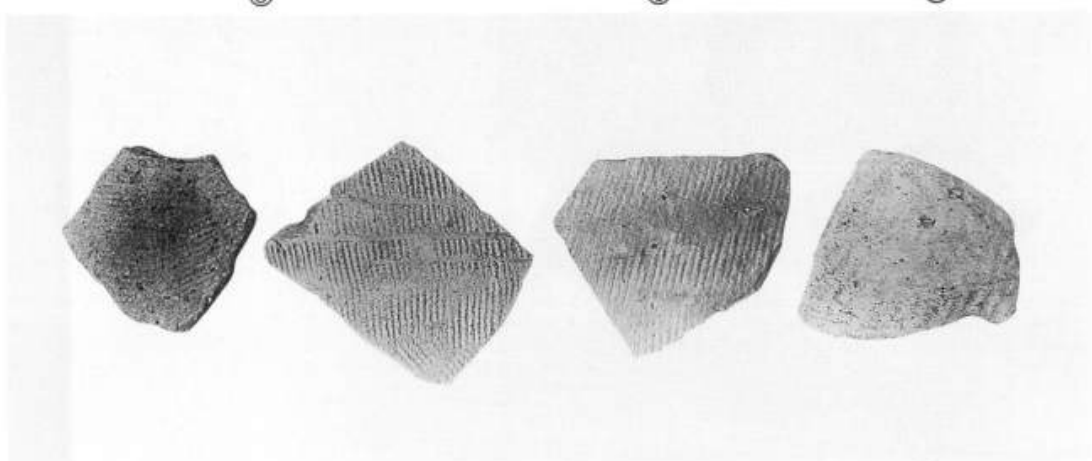
사진 12.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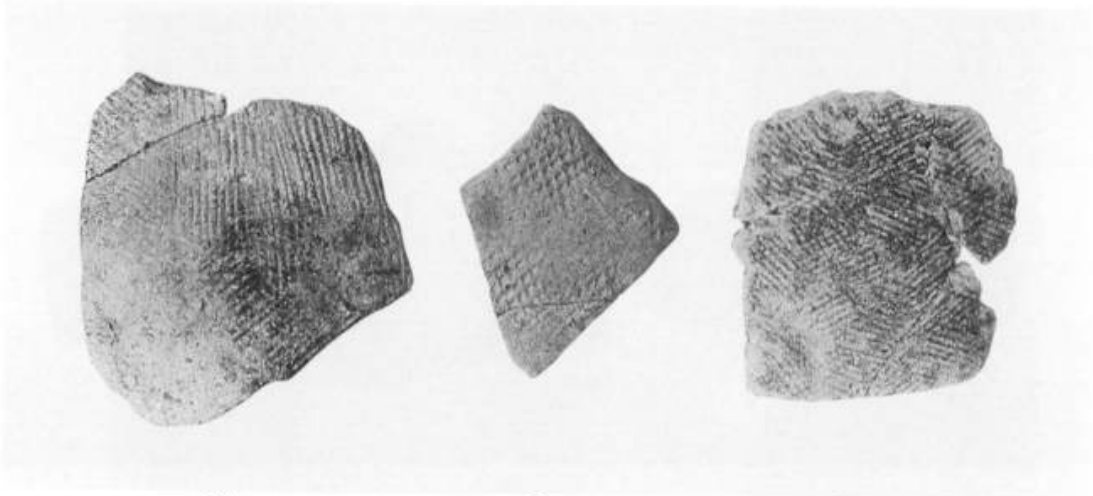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사진 13.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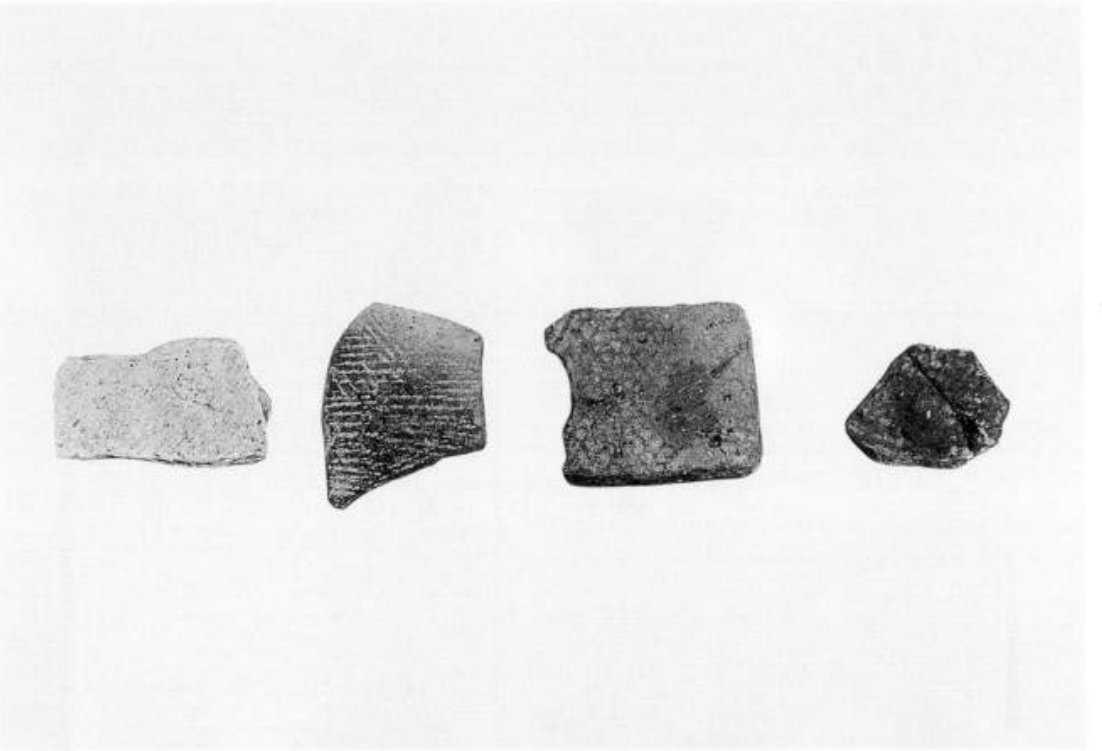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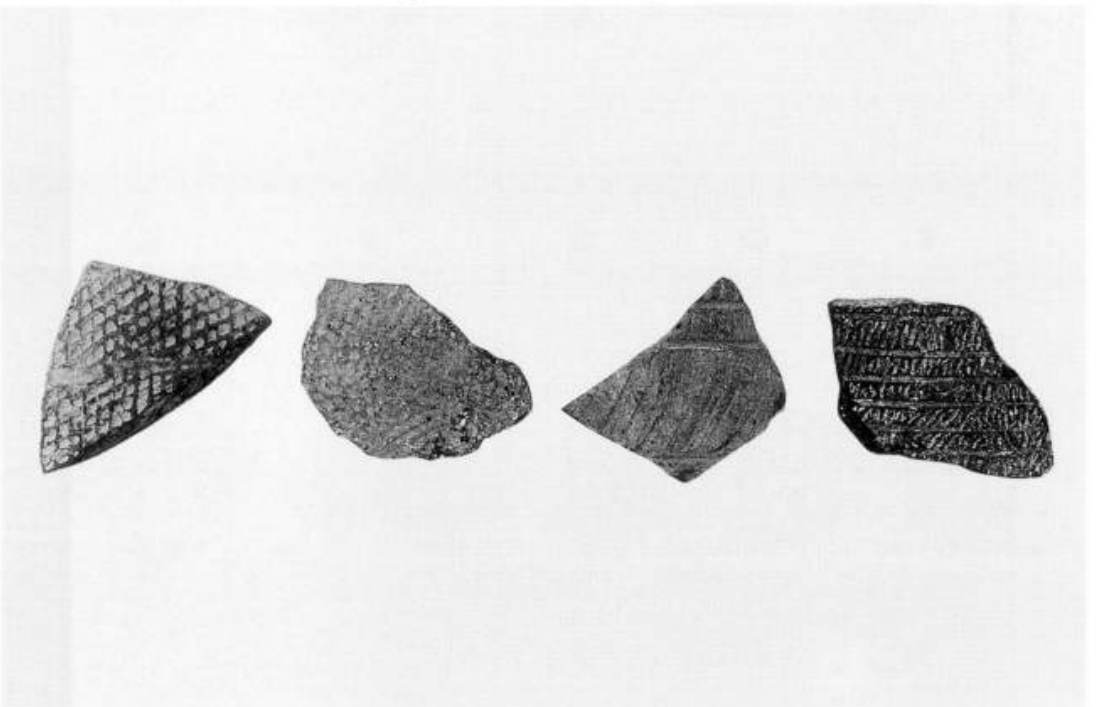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사진 14.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사진 15.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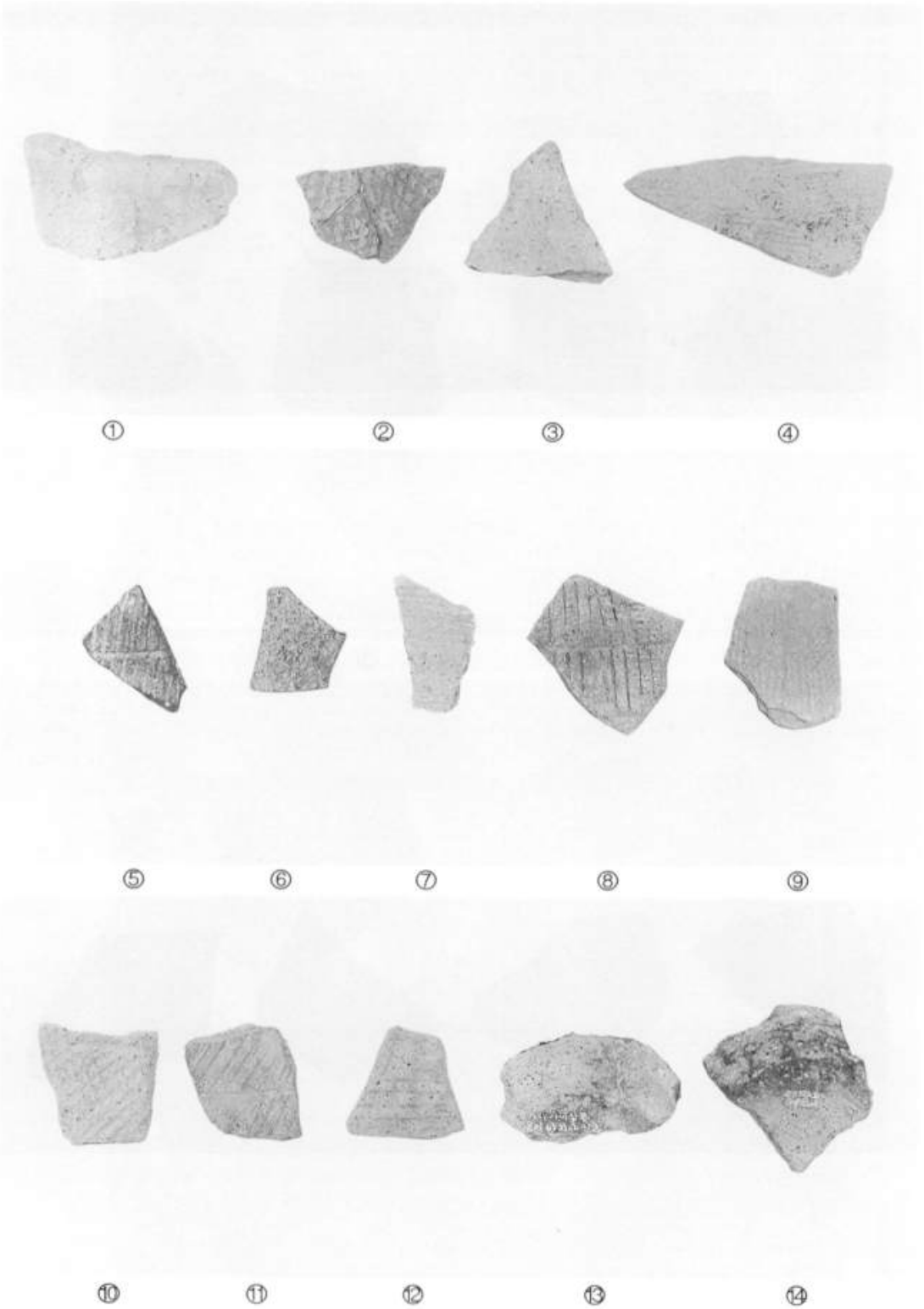



사진 16. 문화층 출토 타날문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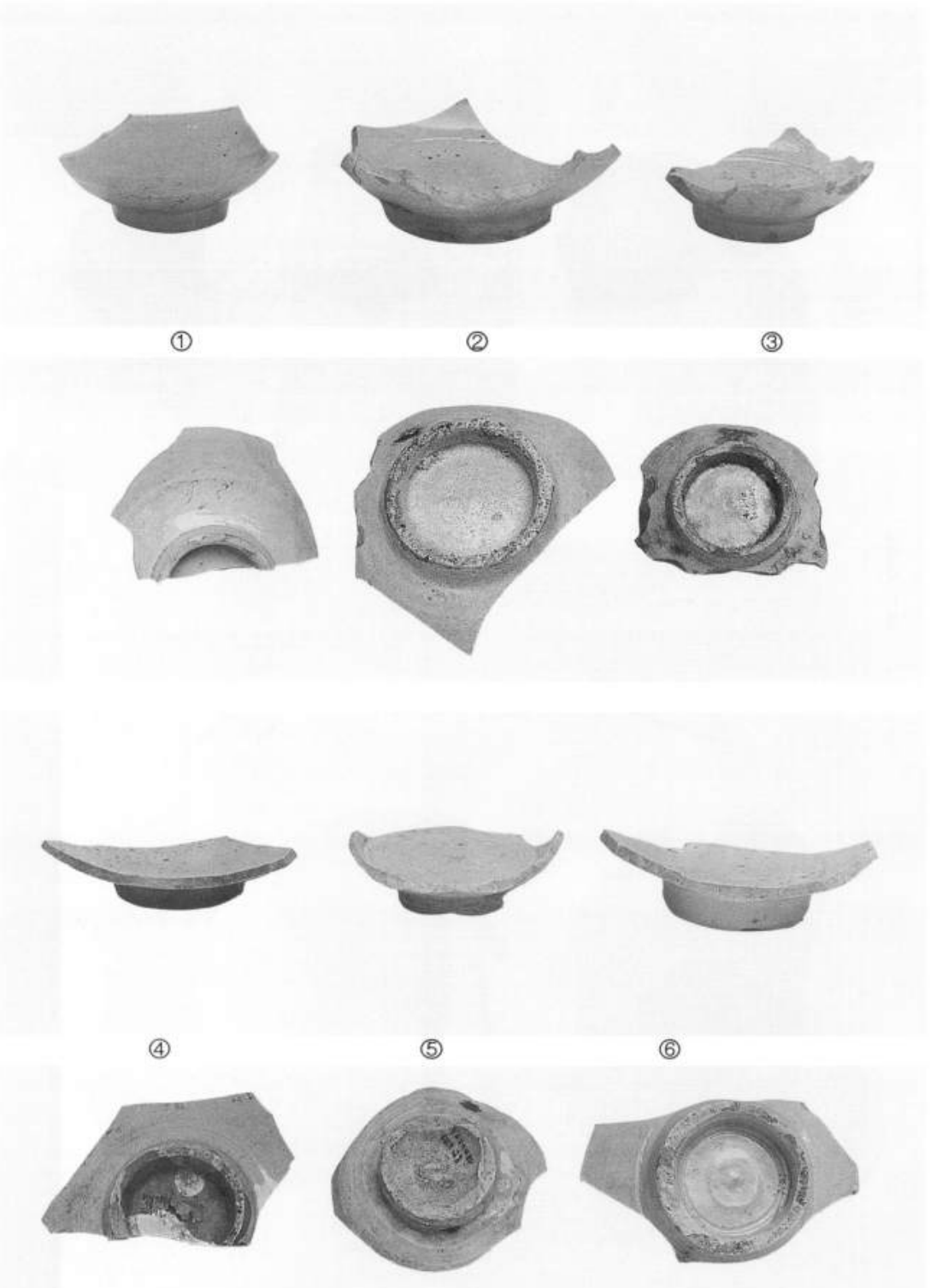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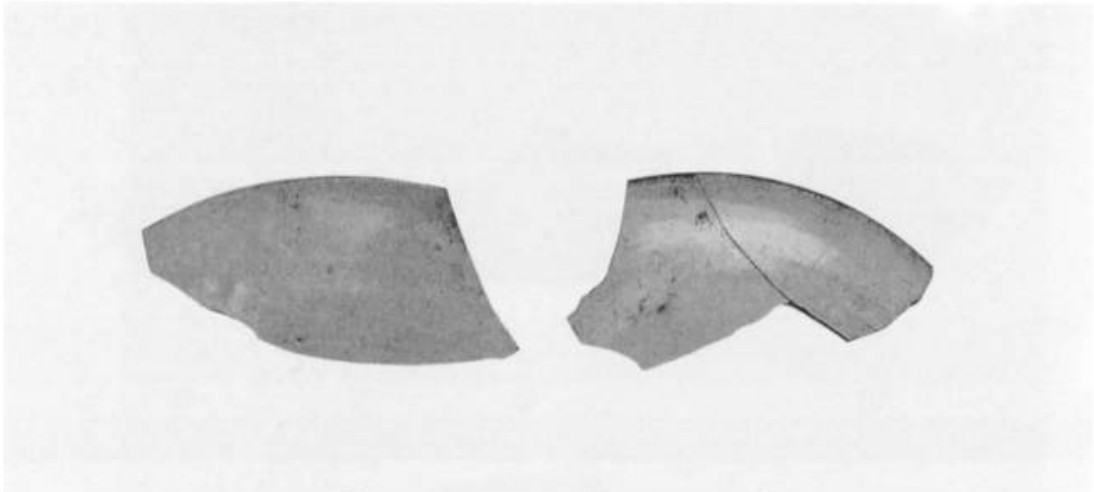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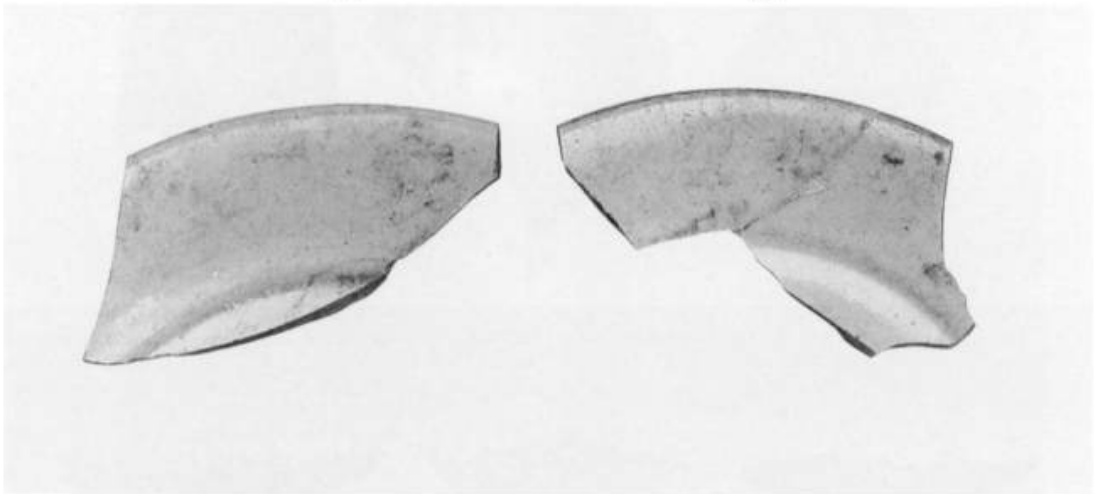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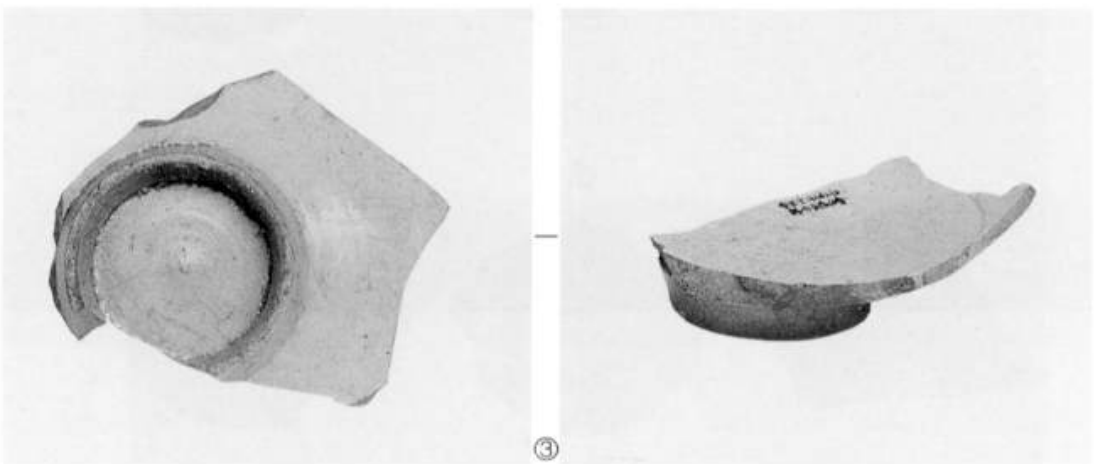



사진 17. 문화층 출토 백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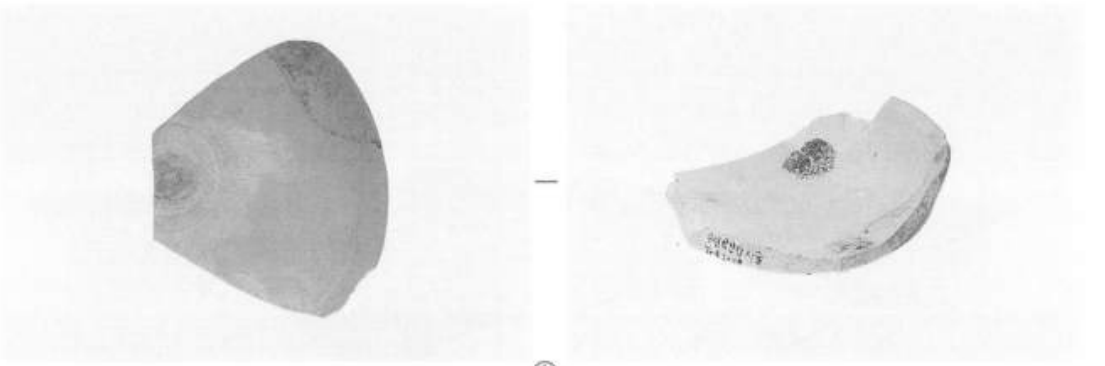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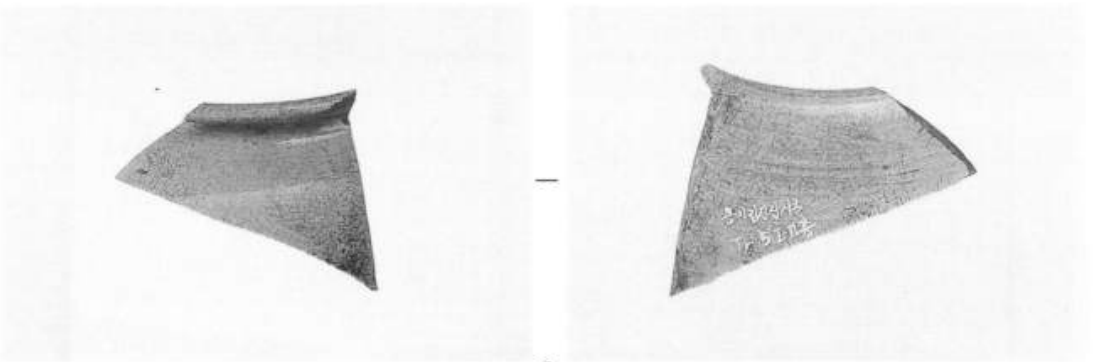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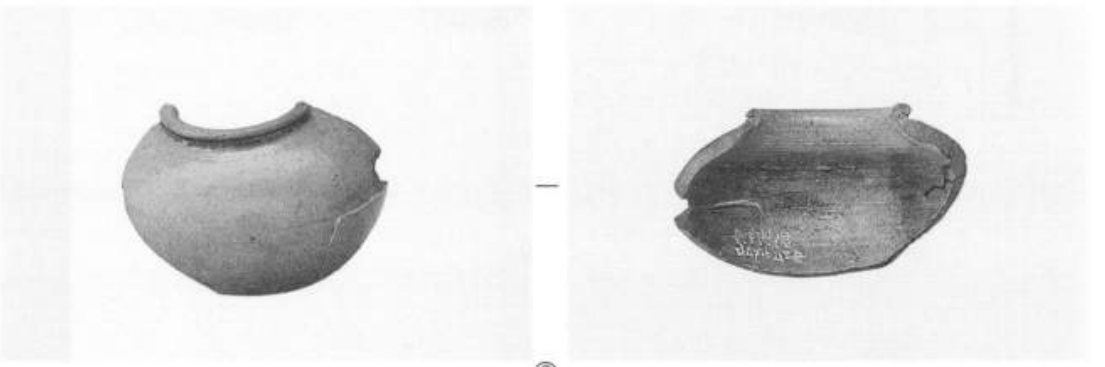
사진 18. 문화층 출토 백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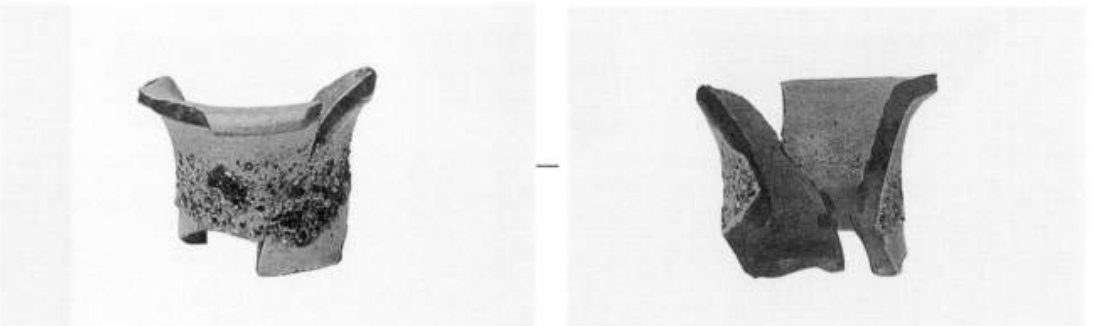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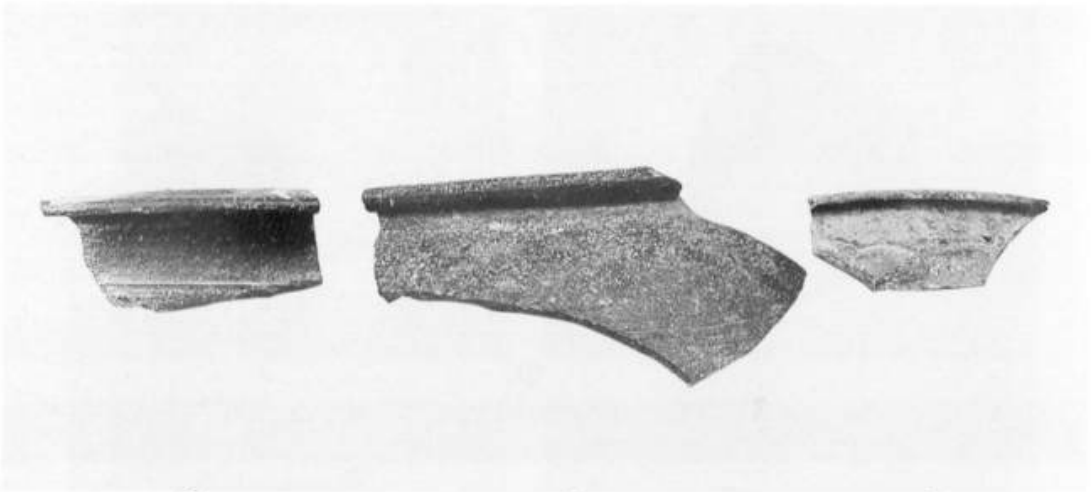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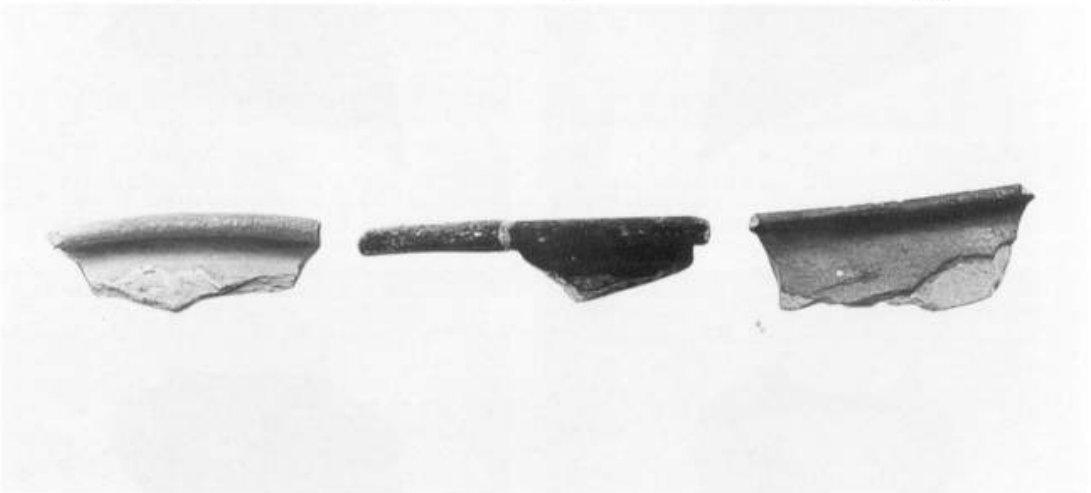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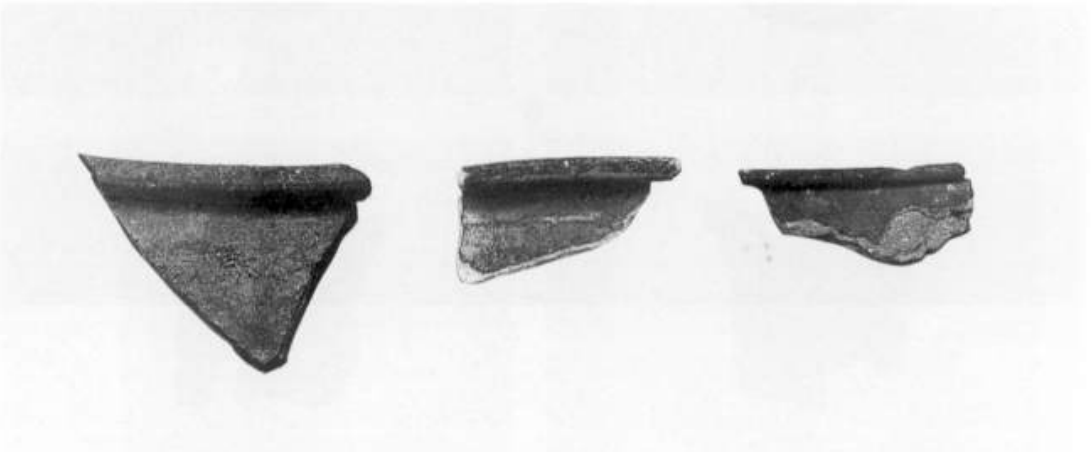
사진 19. 문화층 출토 백자편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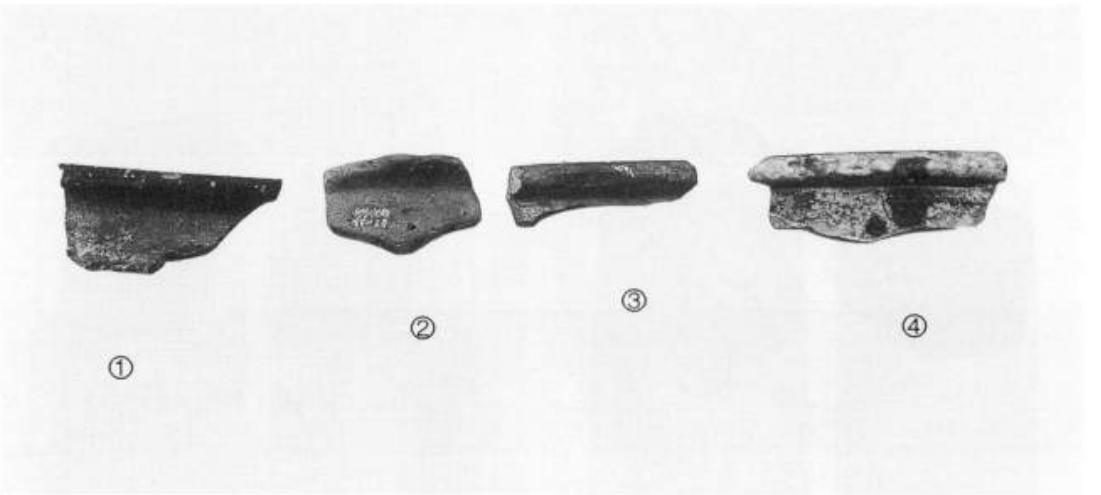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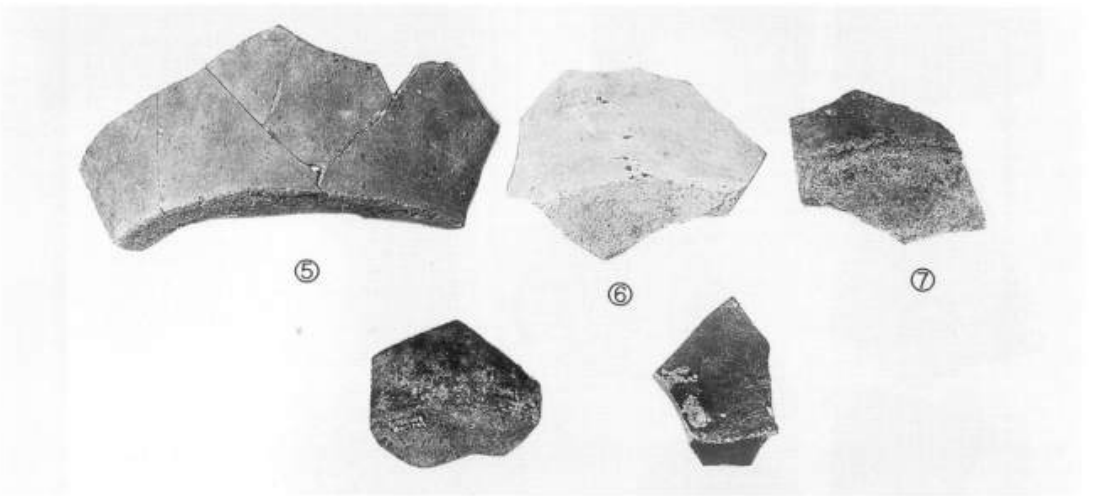
④　⑤　⑥



⑦　⑧　⑨

사진 20. 문화층 출토 도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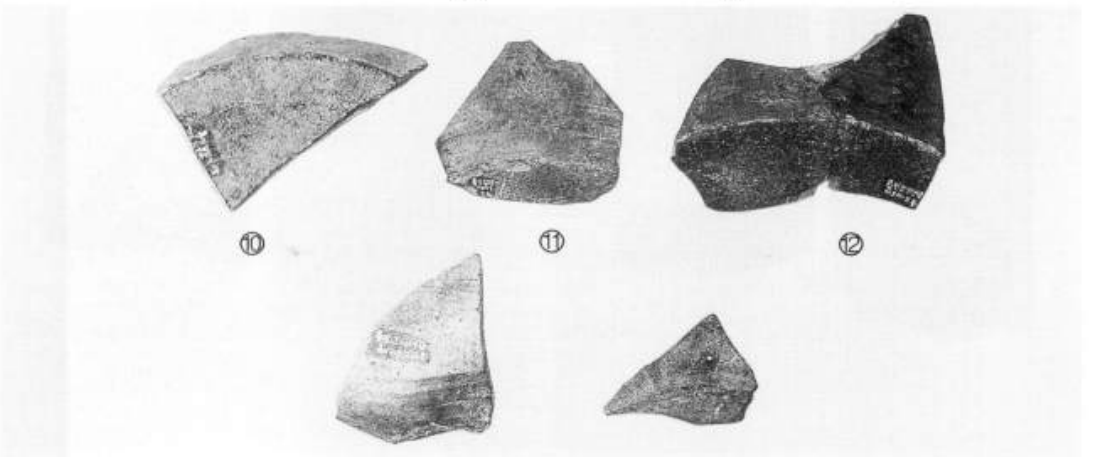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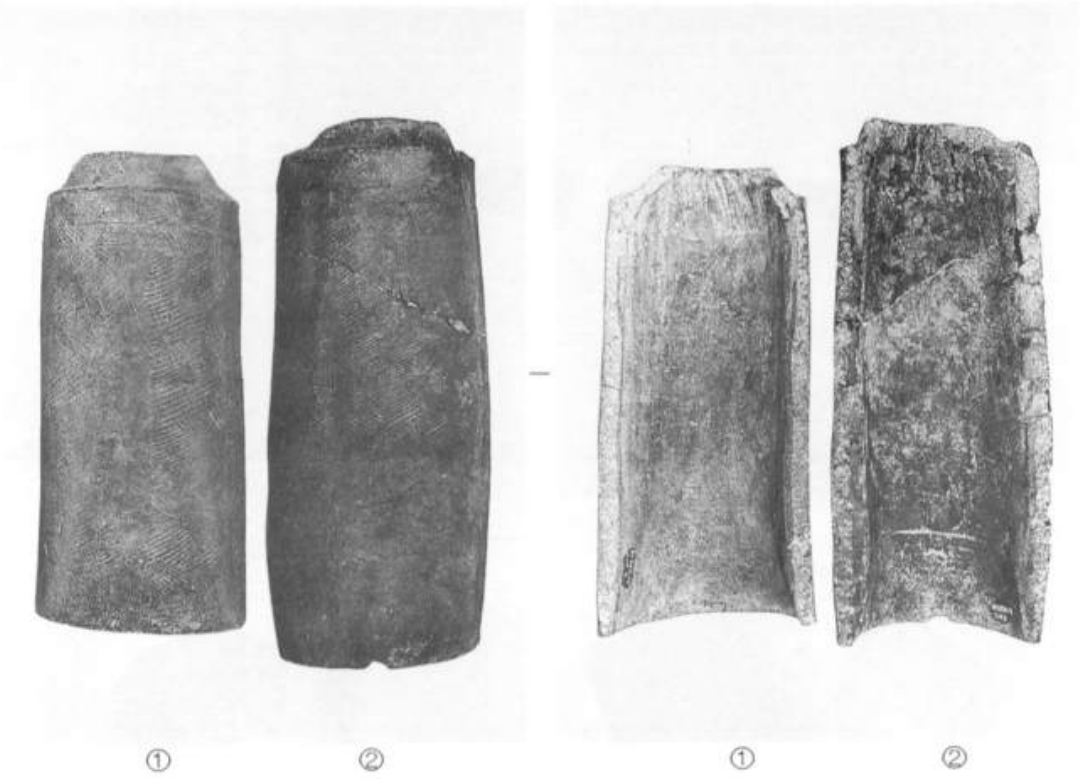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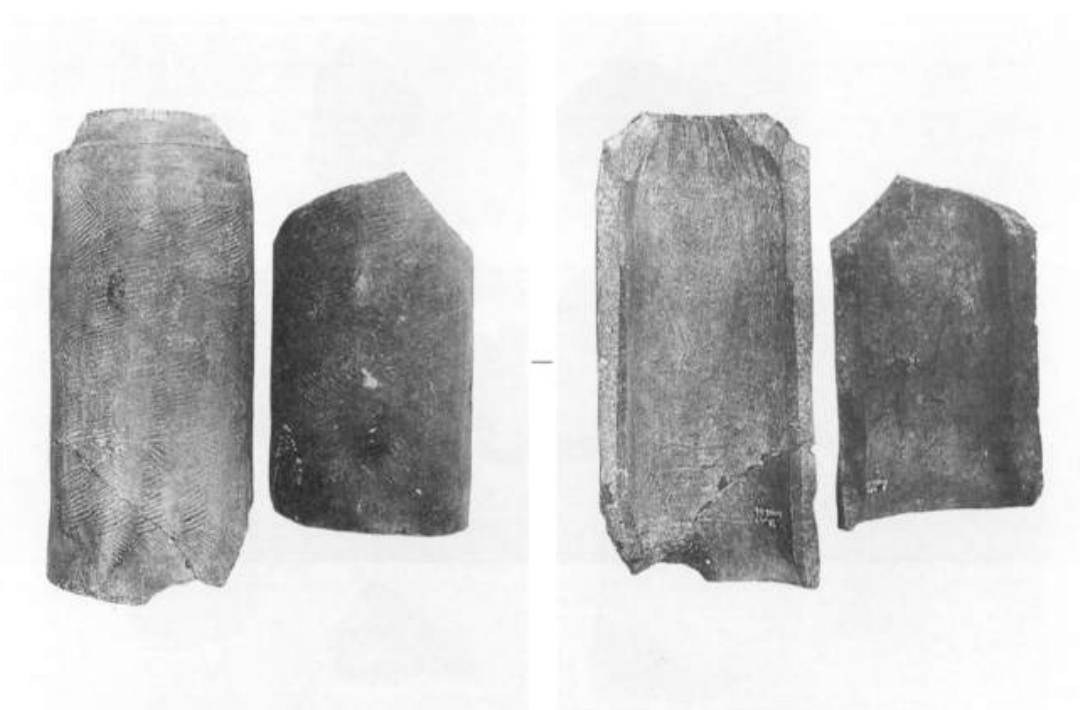




사진 21. 문화층 출토 도기편



① ② ① ②



③ ④ ③ ④

사진 22. 문화층 출토 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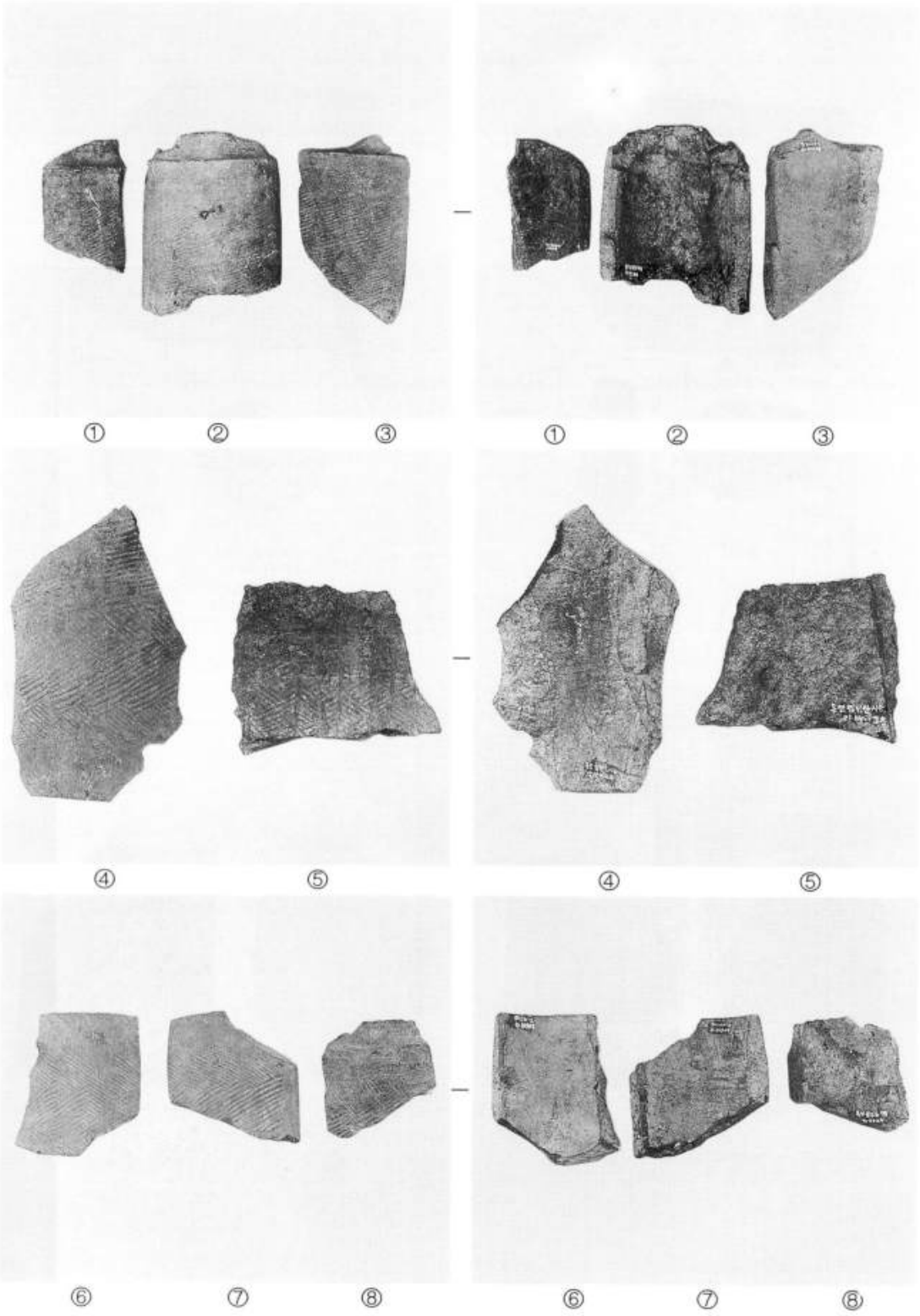



사진 23. 문화층 출토 기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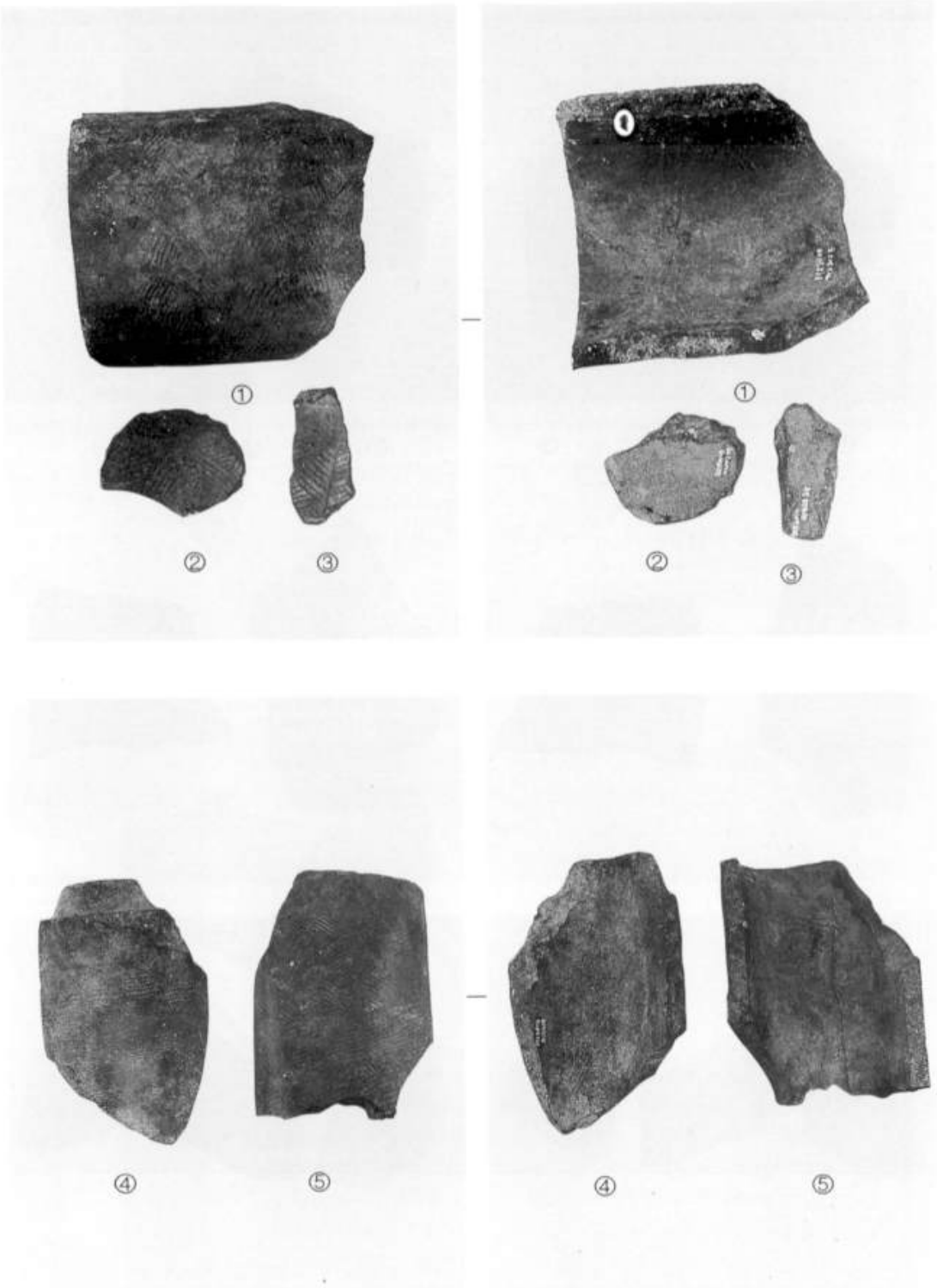



사진 24. 문화층 출토 기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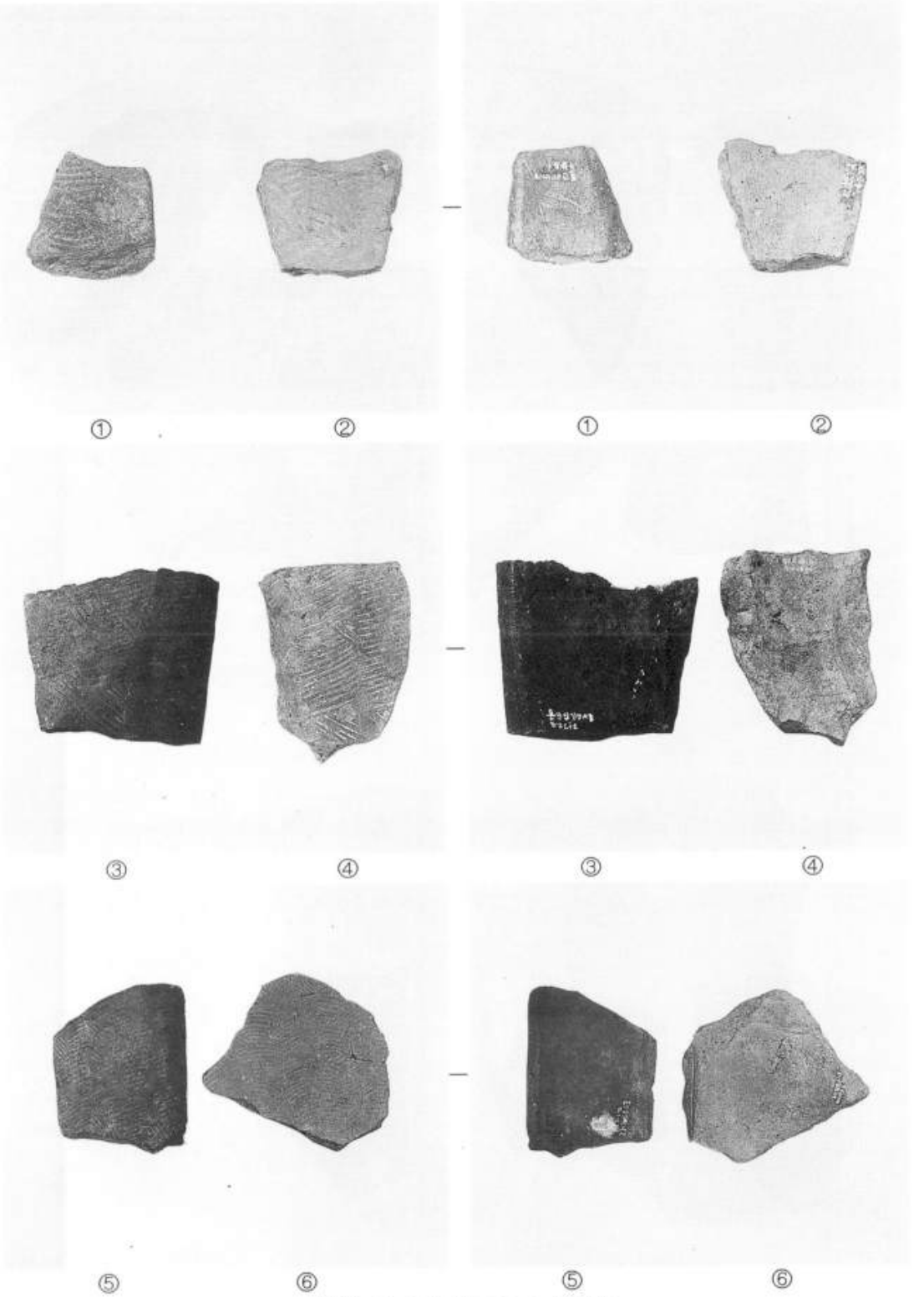



사진 25. 문화층 출토 기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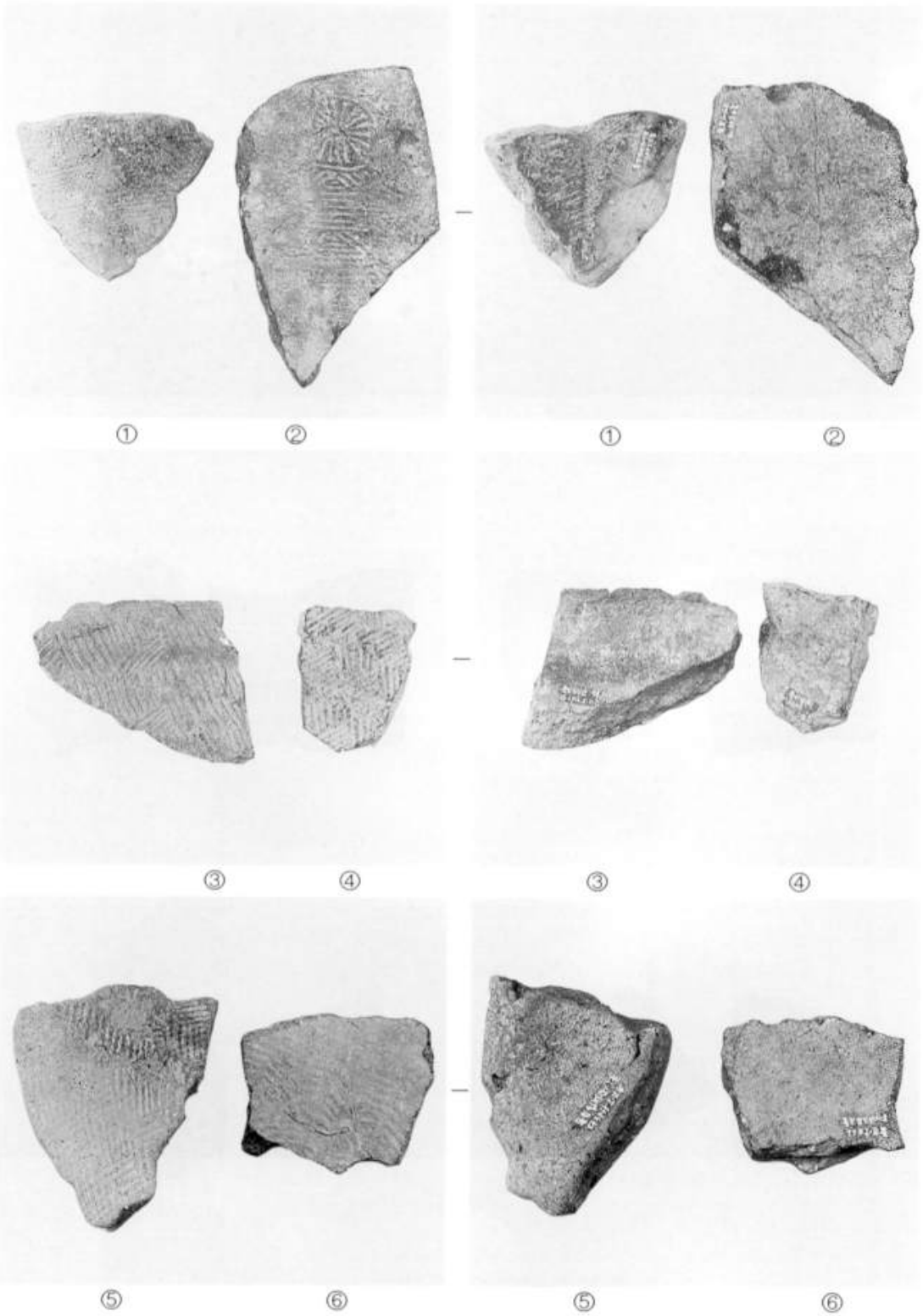



사진 26. 문화층 출토 기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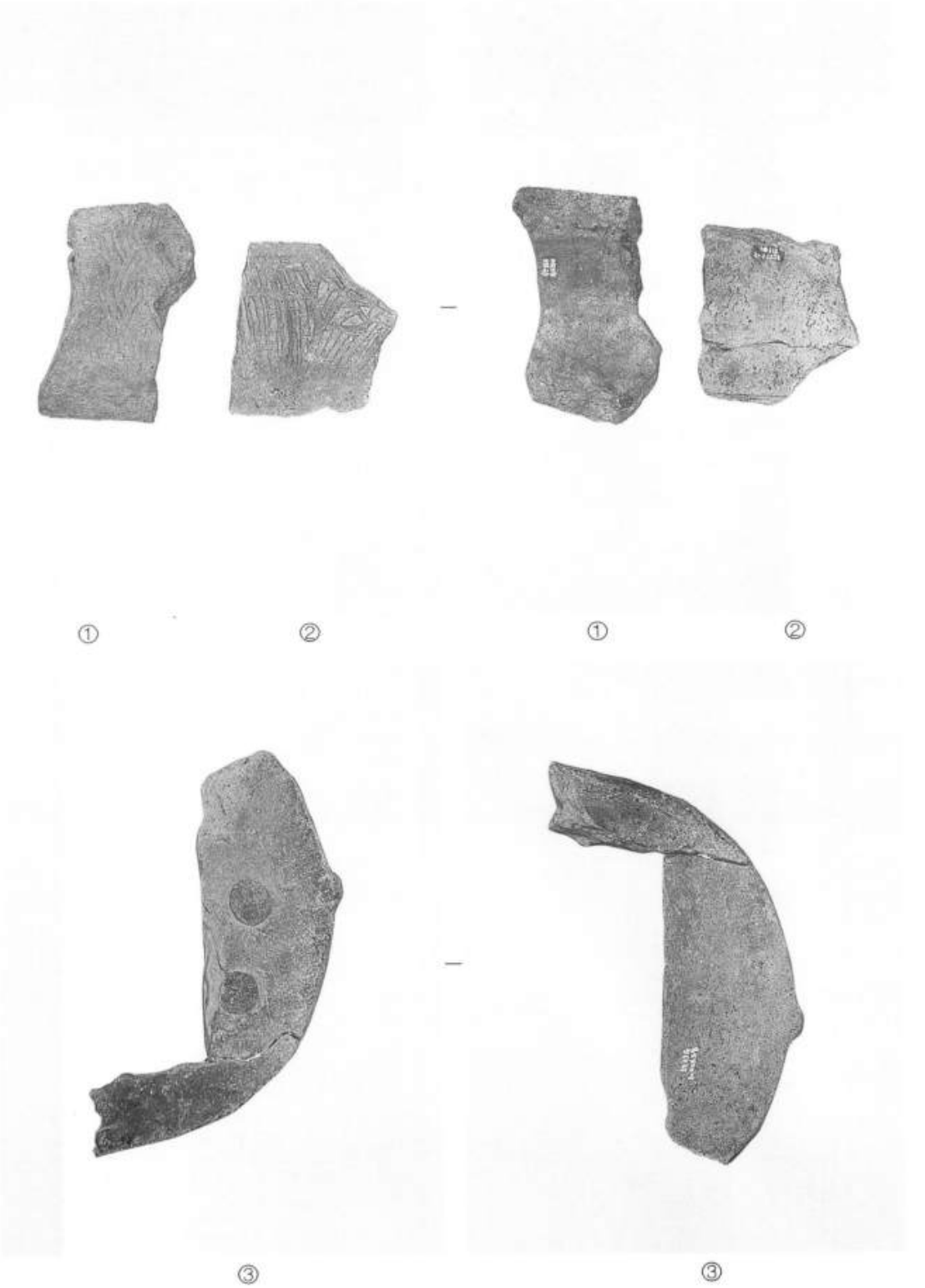



사진 27. 문화층 출토 기와편

# 調査報告書 抄錄

| | | | | |
|---|---|---|---|---|
| 報告書名 | 龍仁 土城내 城 緊急發掘調査 報告書 | | 發刊日 | 2000년 11월 30일 |
| 發刊機關 | 名 稱 | 京畿道博物館 | | |
| | 住 所 | 京畿道 龍仁市 器興區 上葛里 385番地 | | |
| | TEL | (031) 288-5300 | FAX | (031) 288-5379 |
| | E-mail | Kgmusc@musenet.or.kr | | |
| | 홈페이지 | http://www.musenet.or.kr | | |
| 依筆 · 編輯者 | 李仁淑 · 白種伍 · 吳男周 · 韓清衍 · 金錄美 | | | |
| 調査緣由 | 삼성엔지니어링㈜ 建設로 인한 緊急發掘調査 | | | |
| 發掘調査者 | 金性泰 · 白種伍 · 金士根 · 宋滿榮 · 吳男周 | | | |
| 遺蹟所在地番 | 京畿道 龍仁市 水枝邑 豊德川里 山 37番地 一帶외<br>駕城面 賣弓里 山 82-2番地 一帶 | | | |
| 調査面積 | 590㎡ (178.5평) | | | |

| 遺蹟種別 | 時代 | 類型 및 基數 | 主要遺物 | 特記事項 |
|---|---|---|---|---|
| 土城 | 朝鮮時代 | 外城 一部와<br>內城一部 確認 | 玄字銃筒 2点,<br>"大明宣德午製"<br>·"長春宝器"銘<br>銃筒類, 鐵製武<br>器類 등 | · 朝鮮時代 土城<br>築造 貯藏孔, 馬<br>道設 確認<br>· 朝鮮時代 土城<br>壁 下部에서 百濟<br>時代의 住居址 發<br>見部 確認 |

京畿道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4冊

# 龍仁 壬辰山城

## 緊急發掘調査 報告書

2000년 11월 20일 印刷
2000년 11월 30일 發行

編 輯 : 京畿道博物館
發 行 : 京畿道博物館 · 三星物産(株) 住宅部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번지
경기도박물관
☎ 031) 288-5300, Fax 031) 288-5379
E-mail : Kgmuse@musenet.or.kr
홈페이지: http://www.musenet.or.kr

印 刷 處 : 현대옵셋인쇄사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1동 276-10
☎ 042) 624-4429, Fax 042) 624-7645

# The Excavation Survey Report on the Imjin-San Fortress in Yongin City

2000

KYONGGI PROVINCIAL MUSEUM
SAMSUNG CORPORATION